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미 래

최 영 조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0(2011)년

제 1 장

1

하늘은 흐릿하였다.

오전한겻 줄창 눈을 퍼붓고도 아직 직성이 풀리지 않은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한낮이건만 날씨는 좀처럼 푸근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싸늘해진 찬기운이 차안으로 스며들었다.

안길은 저도 모르게 외투깃을 추켜올렸다.

《해만 넘어가면 인차 바람질을 할것 같습니다.》

누빈 솜옷을 입은 젊은 운전사가 옆에 앉은 안길을 얼핏 바라보며 근심스레 말했다.

안길은 차를 타고 먼길을 달려오느라 피곤이 가득 실린 두눈을 시창에서 떼지 않은채 고개만 끄덕이였다.

살이 빠져 관골이 두드러져보이는 그의 길쑴한 얼굴과 조금 두터울사한 입술은 추위에 얼어든탓인지 퍼릿했다.

《그전에 평양엘 들어서야겠는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는 운전사의 말이였다.

그러나 그의 걱정과는 달리 지금 안길을 괴롭히고있는것은 단순히 몸을 얼구는 추위가 아니였다. 몸보다도 그의 마음을 얼게 하는것은 이번에 돌아본 보안간부훈련소 산하부대들의 생활실태였다.

지난해인 1946년 8월 중순 정규군대의 핵심이 될 부대들을 먼저 꾸릴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에 따라 완전한 보병사단편제들로 조직된 보안간부훈련소의 제1, 제2, 제3소가 신의주, 강계, 회령, 라남, 정주, 평양 등지에 자기의 생활터전을 잡은지는 이제 겨우 석달남짓하였다. 조직되자마자 인차 겨울과 부닥치다보니 부대들의 생활문제에서는 곤난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중에서도 제일 걸린 문제는 군인들의 병실문제였다. 주둔지역 인민위원회들로부터 적산건물들을 넘겨받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병실수요를 다 해결할수가 없었다. 아직 많은 중대들이 반토굴과 천막생활을 하고있었다.

안길이 새해 1월 정초부터 열흘가까이 실태료해를 하고 돌아오는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의 제4, 5, 6분소들과 포병분소의 형편도 마찬가지였다.

제2소 소장 강건과 5분소장 최용진이 병실조건이 어려운 구분대들에 땔감만은 우선적으로 넉넉하게 공급해주었다고 하며 왜놈들과 싸울 때에는 남의 나라 땅에서도 추위를 이겨냈는데 해방된 제 나라 땅에서야 왜 견디여내지 못하겠는가고 오히려 안길을 위안하려 했다.

그러면서도 지나가는 말처럼 《건설자재만 보장되면 그까짓 병실 짓는것쯤은…》하며 그의 눈치를 슬쩍 살펴보았다.

물론 안길은 그들의 말뜻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건설자재를 마련하자면 자금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건설자재보장이란 곧 자금보장을 의미하는것이였다. 하지만 지금의 형편에서 그 많은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해결한단 말인가.

지난해에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지만 워낙 사회경제적토대가 허약하고 또한 왜놈들이 파괴할것은 다 파괴하고 달아난탓에 아직 대부분의 공장, 기업소들은 생산은커녕 복구사업도 미처 끝내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빈터우에서 새 나라를 일떠세우는 일은 참으로 간고한 투쟁이였다. 어디서나 자금, 자금을 달라고 손을 내밀고있었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있는 안길이로서는 강건이나 최용진의 혹시나 하는 기대에 못들은척 할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앞에서는 귀머거리가 될수 있다 쳐도 장군님앞에서야 어떻게 벙어리가 될수 있으랴. 실태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려야 할텐데 그러면 가뜩이나 나라일의 크고작은 모든 시름을 다 안고계시는 장군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무거우시랴. 그걸 생각하면 오한이라도 나듯 속이 떨렸다. 차가 평양시내에 들어설 때까지도 안길은

이런 심중에서 헤여나오지 못하였다.

가루개를 넘어선 군용《윌리스》는 벌써 평양공설운동장(오늘의 **김일성**경기장)옆을 지나 만수대언덕길을 톺아오르고있었다.

언덕길은 오고가는 차들과 사람들의 발길에 다져져 저으기 미끄러웠다.

차가 숨가쁜 용을 쓸 때마다 시꺼먼 배기가스가 뿜어져나왔다. 그나마 중턱에 이르러서부터는 공회전을 거듭할뿐 도저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였다.

《제ㅡ길…》

어지간히 긴장해진 운전사가 황급히 제동기를 밟았다.

《윌리스》는 차체를 푸들푸들 떨며 흠칫흠칫 뒤로 밀리더니 가까스로 멈춰섰다. 재빨리 뛰여내린 운전사가 뒤바퀴들에 굄목을 가져다댔다. 이쯤 되면 차를 미는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안길은 견장없는 군용외투의 깃을 내리우고나서 천천히 차에서 내려섰다.

《저… 우리 둘이선 안되겠습니다.》

차를 밀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 자기탓이기라도 한듯 운전사는 죄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만류하고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마 길손들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모양이였다.

때마침 대여섯명가량의 애젊은 청년들이 언덕길을 올라오고있었다.

책보같은것들을 하나씩 들고있는것으로 보아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같았다.

운전사가 다행스러운듯 그들을 향해 걸음을 내짚으려는데 불쑥 그들쪽에서 《아니, 저분이 안길동지가 아니야?》하는 탄성이 들려왔다.

《옳구만!》

《틀림없어!》

학생들이 중구난방으로 웨치며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리고는 안길에게 굽석굽석 인사들을 했다.

《누구들이더라?… 허허… 이거 난 잘 모르겠는데?》

안길은 낯모를 그들의 인사에 당황하여 저으기 미안한 목소리로 되

물었다. 그러자 일행중에서 제일 몸이 다부져보이는 한 청년이 한걸음 다가서며 씨원씨원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공업전문학교 학생들입니다. 안길동진 우릴 잘 모를수 있지만 우린 안길동질 잘 압니다. 지난해 보통강개수공사를 할 때 우리도 그 전투에 참가했거던요.》

그들이 자기를 알고있는 사연을 짐작할만 했다. 안길이 평남도당사업을 맡아볼 때 장군님의 과업을 받고 얼마간 보통강개수공사를 책임지고 일했던것이다.

이때 얼굴이 동그스름한 녀학생이 보매 다혈질일듯싶은 그 청년의 팔꿈치를 툭 쳤다.

《엉터리!》

《왜 그래?》

《감탕이나 좀 져나른걸 가지구 제가 무슨 항일전에라도 참가했던 사람처럼 전투요, 뭐요 하면서…》

그러자 그 청년은 픽— 하고 소리없는 웃음을 짓더니 숫보는듯 한 눈길로 처녀를 흘겨보았다.

《그게 왜 전투가 아니야?! 왜놈들이 십년동안이나 하다하다 못한 공사를 단 55일동안에 해제꼈는데! 아, 전투도 큰 전투였지.》

《하하…》

안길은 그의 말에 마음이 훈훈해져 오래간만에 큰소리로 웃었다.

《이 동무의 말이 옳소. 그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밑에 진행된 대자연개조전투였지. 허, 그러고보니 이거 내가 함께 싸운 전우들을 몰라봤구만. 정말 미안하오.》

안길이 이렇게 말하며 그의 한쪽어깨를 꽉 그러쥐자 그 청년은 단박에 입이 귀밑까지 벌어졌다. 얼굴이 동그스름한 처녀도 으쓱해진 그를 밉지 않은 눈길로 바라보며 생긋 웃었다.

《자, 그런데 동무들, 난 오래 이야기할새가 없구만.》

안길은 아쉬운 눈길로 그들을 둘러보았다. 이번에도 누가 말해볼 사이없이 몸매 다부진 그 청년이 도맡아나섰다.

《걱정마십시오. 우리가 이 발바리차를 언덕우에까지 밀고가겠습니다. 자, 동무들…》

부글부글 피끓는 소리가 막 들리는듯싶은 정열적인 청년이였다. 다른 학생들도 그의 뒤를 따라 차에 달라붙었다.

《은주동문 이 책보들을 좀 쥐고있으라.》

《아니, 내가 남의 책보따리들은 왜 쥐고있어요? 나두 차를 밀겠어요.》

《아, 동무야 녀자가 아니야.》

《남녀평등권법령이 나온지 벌써 다섯달이나 지났는데 동문 아직두 몰라요?》

《됐어됐어, 언제 봐야 따별 한가지라니까.》

《흥, 그럼 자긴 뭐 우쭐대는 수닭인가?!》

《뭐뭐?…》

《하하…》

《호호…》

그들사이에 늘쌍 오고가는 싱갱이질인지 다른 학생들은 그저 즐겁게 웃으며 힘주어 차를 밀었다. 어느새 차는 언덕우에 올라섰다.

《수고들 했소. 정말 고맙소.》

안길은 진심으로 그들의 수고를 치하했다.

《우쭐대는 수닭》이 그답지 않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 안길동지를 다시 만나려면 어디로 찾아가야 합니까?》

《응?》

《이젠 평남도당에서 일보시지 않구 평양학원 원장으로 가셨다는 소릴 들었는데…》

《허, 이 친구 이제 보니 날 정말 잘 아누만. 하하…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업을 맡았소.》

청년은 다소 실망한듯 자신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실은 나도 군복을 입고싶어서 그럽니다. 앉아서 공부나 하자니…》

안길은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욕심나는 청년이였다. 총명하고 열정적이고 힘이 넘쳐나보이는…

《군복을 입고싶다는거야 좋은 생각이지. 지금 정세가 긴장하오. 미국놈들이 저 38도선너머에서 리승만을 부추겨 지난해초에 벌써

〈국방경비대〉를 조직한데 이어 얼마전에는 또다시 〈해안경비대〉라는걸 만들어냈소.》
안길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더 말을 잇지 않았다. 장군님께서 종합대학과 공업전문학교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셨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안길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짐짓 어조를 바꾸었다.
《하지만 동무들은 공불 해야 돼. 새 조국건설엔 동무네 같은 기술인재들이 절실히 필요하거던. 공부를 하는것도 전투라고 생각해야 해. 자, 그럼…》
안길은 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나서 차에 올랐다.
손목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5시가 넘었다. 그는 얼핏 뒤좌석에 놓인 농마가루가 들어있는 그리 크지 않은 자루에 눈길을 주고나서 운전사에게 말했다.
《장군님댁에 잠간 들렸다 가기요.》
《알았습니다.》
군용《윌리스》는 미끄러지듯 만수대언덕을 내려섰다.
조금후에는 중성리에 자리잡은 장군님의 저택앞에 멈춰섰다.
저택은 ㄷ자형의 단층건물이였다. 세멘트몰탈뿌리기를 한 검스레한 벽체며 재회색빛이 나는 기와를 얹은 지붕은 이 집이 지은지 20년은 실히 되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다행스러운것은 집뜨락이 좀 넓은것인데 그 한가운데 커다란 느티나무 한그루가 무성한 가지를 펴고있어 퍼그나 그윽한 정서를 자아냈다. 지금은 가지마다에 흰눈송이들이 소복이 쌓여 고요한 정취를 한결 더 풍겨주는듯싶었다.
뜨락에 들어선 안길은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 스며드는 포근한 안정감에 잠겨 느티나무를 이슥토록 바라보고나서 농마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걸음을 옮겼다. 이때 뜻밖의 정황이 그의 걸음을 멈춰세웠다.
굴뚝모퉁이에서 아이들의 말소리가 들리더니 뒤미처 《적들이 저기 숨었다!》하는 고함소리가 울려왔던것이다. 그가 예닐곱살정도 나보이는 두 사내아이의 모습을 미처 가려보기도 전에 《돌격앞으로!》, 《만세!ㅡ》하는 새된 함성과 함께 눈덩어리들이 투닥투

닥 날아왔다.
조무래기들은 맹렬한 기세로 돌진하면서 안길이쪽을 향해, 더 정확히는 바로 느티나무를 향해 눈덩이들을 마구 던졌다.
큼직한 눈덩이 하나가 그의 외투 앞섶에 툭 하고 달라붙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명소리는 느티나무쪽에서 먼저 들렸다.
《아야야…》
이어 깡충한 단발머리에 하얗게 눈을 뒤집어쓴 한 소녀애가 쿨쩍거리며 그쪽에서 나왔다.
《해해… 나무뒤에 숨으면 못 잡을줄 알구?!》
두볼이 능금알처럼 빨갛게 얼어가지고도 두 사내녀석들은 좋아라 깔깔거렸다.
《이녀석들, 처녀애를 울려놓구두 좋아해?!》
안길은 소녀에게 다가가 눈을 털어주며 애녀석들을 향해 우정 눈을 부릅떠보였다. 새물거리던 까만 눈동자들이 딱 굳어졌다. 한 녀석이 당돌하게 대답했다.
《우린 지금 군사놀이를 하고있어요. 그 앤 돌가위보 해서 졌기때문에 〈적〉이 됐단 말이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씨.》
《뭐 군사놀이? 그런데 너희들은 뉘집 애들이게 여기 와서 그런 놀일 하는거냐? 여기서 놀면 못써.》
안길이 이렇게 사내녀석들을 타이르는데 뜻밖에도 방금전까지 콜짝거리며 그의 동정과 지원을 바라고섰던 소녀애가 오히려 눈이 동그래서 쌀쌀하게 물었다.
《아저씬 누구나요? 여긴 우리 집이예요.》
《?…》
안길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아마 이때 김정숙동지께서 방문을 열고 나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눈앞의 현실을 도저히 리해하지 못하였을것이다.
《아니, 안길동지가 오셨군요.》
안길을 알아본 김정숙동지께서 반가움에 넘쳐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시였다.
봄빛처럼 따스한 정찬 눈매며 연한 볼우물속에 함뿍 어린 곡진한

미소로 하여 그이의 모습은 부드러우면서도 단아해보였다.

안길은 그이의 두손을 부여잡았다.

《정숙동무, 그간 건강하셨습니까?》

《라남에 가셨다더니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지금 막 오는 길입니다. 그래 장군님께선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하십니다. 강건동지랑 그곳 동지들은?…》

《다들 잘있지요. 이건 그 동무들이 보내는 함북도 농마가루입니다. 장군님께서 국수를 좋아하시는데 잘 눌러 대접해주시우.》

이렇게 말하며 안길은 농마가루자루를 토방우에 쿵 하니 올려놓았다.

《원, 그렇다고 안길동지가 이런걸 다 들고다니시다니요.》

안길은 고마움과 미안스러움이 어린 김정숙동지의 말에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어보였다.

《털어놓고말해서 정숙동무가 누르는 국수는 내가 늘 곱배길 하군하는데 나도 무슨 인사가 있어야 할게 아니요.》

《호호… 안길동진 위탈때문에 얼마 잡숫지도 못하면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차츰 말끝을 흐리시였다. 안길을 바라보는 그이의 눈에 근심의 빛이 어리였다.

《어쩐지 안색이 좋지 않군요. 더 상하신것 같애요. 그렇지 않아도 장군님께서 안길동지가 추운 날씨에 외지에서 고생이 많을거라고 걱정하시댔는데…》

《허허… 이 안길이 언제 앓아눕는걸 보셨습니까?》

그는 애써 김정숙동지의 눈길을 피하였다. 그리고는 방안쪽을 넌지시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이거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 우리 장군이 어디 가셨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자기의 건강소리만 나오면 늘 화제를 피해 달아나군 하는 그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다가 그만 가볍게 웃으시였다. 김책동지며 안길, 최현을 비롯한 항일투사들이 다들 이렇게 어리신 아드님을 부르다나니 이제는 《우리 장군》이라는 부름이 호칭처럼 되고말았던것이다.

《이번 양력설에 만경대 조부모님께 세배드리러 갔다가 너무 보내

기 섭섭해하시길래 그냥 남겨두고 왔습니다.》
《예. 할아버님, 할머님이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군을 무릎에 척 앉히면 아마 한 10년은 더 젊어지실겁니다. 암, 그렇지 않구요. 하하…》
안길은 소리내여 웃었다. 느티나무가지마다에 무겁게 쌓인 소담한 눈송이들이 포실포실 떨어져내릴만큼 큰소리로 웃던 그는 여직껏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고있는 아이들을 보자 웃음을 뚝 그쳤다.
《참, 그런데 이 애들은 누굽니까? 처음 보는 아이들같은데…》
《아니, 그러니 아직 통성을 못하셨군요. 얘들아! 어서들 인사드려라. 이분은 너희 아버지들과 함께 싸운 안길아저씨란다.》
그이의 말씀이 끝나기 바쁘게 아이들은 기다리고있은듯 굽석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안길은 놀랐다.
《그러니?…》
《이 앤 김룡수동무의 딸이구 사내애들은 박창성동무와 신재호동무의 아들들이랍니다. 어머니들마저 잃고 여기저기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고있는걸 얼마전에 황동무가 혜산에 갔다가 찾아서 데려왔어요.》
김정숙동지의 목소리는 저으기 갈려드시였다.
《그렇군요.》
안길은 그제서야 사연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것이 다 리해되였다.
아이들이 어찌하여 이 저택에서 뜨락이 좁다하게 뛰여놀수 있었는지, 어찌하여 여길 《우리 집》이라고 당돌하게 말할수 있었는지.
한껏 인정에 주렸던 저 어린것들이 장군님과 녀사의 그 따뜻하고 다심한 사랑을 어찌 친어머니의 젖줄기처럼 정신없이 빨아들이지 않았으랴. 그 누구의 설명이 없이도 장군님과 녀사께서 저 애들을 어떻게 품에 안아 보살펴주셨으리라는것을 다 알수 있었고 저 애들이 이 뜨락에서 어떻게 그분들의 옷자락에 묻어돌아가리라는것을 충분

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남달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천품들이야 어디 가랴. 산에서 싸울 때조차 아동단원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아끼시지 않던분들이 아니신가!…

안길은 깊어지는 생각으로 하여 아이들의 등을 말없이 어루만져주었다.

《자, 너희들은 어서 집안에 들어가 젖은 머리칼이랑 손이랑 아래목에 말려라. 그러다가 감기들라.》

김정숙동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이들은 참새들처럼 조잘거리며 오구작작 집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애들이 참 귀엽군요.》

아이들의 뒤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던 안길은 잠시 주저주저하더니 힘들게 말을 이었다.

《정숙동무, 내 애들 소리가 나온김에 말 좀 하랍니까?》

《예, 어서 하세요.》

다소 의아함이 비낀 그이의 대답에 안길은 왜서인지 눈길을 떨구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여느때없이 진중했다.

《물론 나도 장군님께서와 정숙동무가 희생된 전우들의 자식들때문에 몹시 마음쓰고계시는줄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해방된 조국땅에 나온 첫날부터 아니, 산에서 싸울 때부터 동지들의 자식들 걱정을 오죽이나 하셨습니까. 여북했으면 장군님께서 개선연설을 하시고 스무해만에 고향 만경대를 찾으신 자리에서 거기에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학원을 세워야겠다고 말씀하셨겠소. 하지만…》

안길은 눈길을 들었다. 그가 몹시 힘들게 말하고있음이 알렸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다른 일은 다 뒤전에 밀어놓더라도 당장 정규군도 꾸려야지, 공화국도 창건해야지… 정말 산같이 크고 무거운 력사적과업이 다름아닌 장군님의 두어깨에 실려있는데 우리가 대중소사를 잘 가려서 받들어드려야지요.》

《…》

《정숙동무, 이 안길이 직통배기라구 나무람 마십시오. 우리야 모든 희생을 다 각오하구 혁명에 나선 사람들이 아니요. 아직 개인들의 상처까지 가셔줄 형편이 못되지요. 먼저 간 동지들도 이걸 리해할겁니다.》

《그렇다고 형편이 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릴순 없지 않겠어요.》

《정숙동무두 참, 그렇다구 그 애들을 다 찾아서 이 뜨락에서 키울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가 뭐 보통살림집입니까? 황동무도 한심하지, 글쎄 애들을 찾아 넌떠덕 정숙동무에게 맡겨놓으면 어쩌는가 말입니다.》

안길은 열이 올라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였다.

《아이, 목소릴 좀 낮춰주세요. 아이들이 듣겠습니다.》

《예?》

안길은 김정숙동지께서 황급히 두손을 저으며 소곤소곤 목소리를 낮추시는통에 그만 굳어져버리고말았다.

《저 애들은 고생고생하며 살아오다나니 눈치가 여간 아니예요. 애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그렇지 않아도 황동무가 자기가 키우겠다는걸 내가 우겨서 우리집에 데려왔어요. 그 동무야 얼마 안있으면 해산달이 되여오는데 애들까지 어떻게…》

그이께서는 여전히 조용조용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리고… 안길동지가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제 꼭 장군님의 사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길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러지 말고 저 애들을 내가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안길동지가 어떻게?…》

《무슨 수가 나겠지요. 당장은 우리 보안간부훈련대대부(오늘의 인민무력부 전신)합숙에서 잘 키우도록 할터이니…》

《그렇게는… 안됩니다. 아마 저보다도 장군님께서 더 승낙하지 않으실겁니다.》

《예— 에?》

안길은 묵묵히 고개를 떨구었다.

생각해보니 정말 너무나도 명백한, 백번이면 백번 다 그렇게밖에는 달리 될수 없는 일이였던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옆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바야흐로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더없이 중대하고 책임적인 위업들이 놓여있는 이때, 그 모든것이 오직 **김일성**동지의 현명하고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서만 비로소 이룩될수 있는 이때 유자녀들문제로 하여 그이의 위대한 사업에 지장이 되고 부담이 되여서야 되겠는가!…

그는 힘껏 머리를 들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물기를 머금고 바라보는 김정숙동지의 절절한, 애원에 가까운 간절한 그 눈빛앞에서 안길은 리성으로 다잡았던 자신의 마음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내림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더는 그 문제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또 말해서도 안되리라는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눈앞에서 미세한 유리가루같은것들이 반짝거렸다.

그것들은 별찌가 들여박히듯 얼굴에 달라붙었다. 느티나무가지마다에 쌓여있던 흰눈이 마구 흩날리기 시작했던것이다.

《허, 끝내 바람이 터지는군. 이거 잠간 들렸다 간다는것이 너무 지체했나봅니다.》

안길은 당혹한 심정에서 벗어나고싶어 서둘러 자신을 재촉했다.

2

김일성동지의 집무실로 향하는 안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마흔에 접한 사람답지 않게 청사층계를 두개씩이나 성큼성큼 올려짚으며 단숨에 2층복도홀에 들어섰다.

여기서 그는 하마트면 누군가와 부딪칠번 하였다.

《이크!》

어지간히 놀랐는지 상대방의 털모자가 툴렁 떨어졌다.

《좀 보구 다닐게지. 코 깨지겠소.》

대단히 언짢은 목소리였다. 복도홀 창문으로 비쳐드는 희미한 락조에 커다란 체구를 굽혀 털모자를 줏어드는 그 사람의 훌렁 벗겨진 정수리가 번들거렸다.

《정말 미안합니다.》

안길은 진심으로 사죄를 하였다.

털모자를 쥐고 허리를 펴던 상대방은 의외로 반가운 환성을 질렀다.

《이거 안길동무가 아닙니까?!》

《아니, 허가이동지!》

그 사람은 당조직부장 허가이였다.

《하하… 글쎄 이 엄숙한 청사안에서 그렇게 패기있게 달음쳐다닐 사람이 안길동무 말구 누가 또 있겠습니까.》

《하하… 출장을 갔다가 오는 길이다보니 그만…》

안길은 가볍게 웃으며 변명삼아 말했다.

《나도 알고있었습니다.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 실태료해사업때문에 가셨댔다지요?! 함북도당동무들이 그 소식을 전해줍디다. 그간 날씨도 찬데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허가이는 유럽사람들식으로 악수를 청했다.

안길은 내여민 그의 손을 못 본척 할수 없어 마주잡았다.

《수고랄게 있습니까. 내가 응당 해야 할 일인걸요.》

《내 그곳 동무들에게 안길동무의 사업을 잘 도와드리라고 말은 했었는데… 허허… 그곳 형편이 씨원칠 않다지요.》

《허가이동지, 내 지금 장군님께 사업보고를 드리러 가던 길인데 미안하지만…》

안길은 수인사로 말이 끝날것 같지 않아 직방 량해를 구했다.

《아참, 그렇지. 어서 그래야지요.》

허가이는 이렇게 말하며 큰 체격을 얼른 옆으로 비켜세웠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있던 털이 부르르한 모자를 밤색고급라사직외투자락에 가볍게 털고나서 머리우에 올려놓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난듯 자기의 앞을 지나쳐가는 안길의 등뒤에 나직이 소리쳤다.

《가만, 내 생각엔 조금 기다렸다가 만나뵙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예? 그건…》
안길은 의아한 눈길로 그를 돌아보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 쏘련에서 보내온 편지를 보고계신답니다. 아마 쓰딸린이나 몰로또브에게서 온 중요한 편지같습니다. 나도 방금 서기동무가 기다려달라고 하기에 나오던 길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기다렸다가 만나뵙는것이 옳다고 생각되였다.
《자, 저기 창문쪽이 훤한데 우리 거기서 담배나 한대씩 태웁시다.》
허가이는 제 먼저 활기있는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는 외투주머니에서 《까즈베크》담배곽을 꺼냈다.
《난 피우지 않습니다.》
안길이 담배를 권하는 그에게 사양했다.
《아, 그렇지요. 난 이거 고질이 돼놔서…》
《그런데 허가이동진 쏘련에서 나온지도 1년반이 되여오는데 그 담밸 떨구지 않습니다?!》
《쏘련군사령부동무들에게 좀 얻어피우지요. 다른 담밴 아직 습관이 붙질 않아서… 허허… 습관은 거 제2천성이라질 않습니까.》
그는 기분좋게 담배연기를 들이마셨다. 그의 인상좋은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어리였다.
《내 사실 김책동지나 안길동무같은 빨찌산출신일군들과 품놓고 이야길 나누고싶은데 사업분야가 서로 다르다보니 좀처럼 그런 기회가 생기질 않누만요. 당본부에 안길동무같은 빨찌산출신간부가 한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길에게는 그가 속에 없는 빈소리를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물론 그동안 몇번 상종해보니 지나치게 큰 나라의 경험에만 의존하려는 사고방식이 느껴지긴 하였지만 그의 경력으로 미루어볼 때 한켠으로는 리해가 되기도 하였다. 다만 그것이 그자신의 말처럼 제2천성으로 영원히 굳어지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뿐이였다.
안길의 이런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자기의 말을 계속했다.
《정말이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한때 연안이나 국내에서 싸

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업보다도 직무나 대우에 더 신경을 쓰지, 빨찌산출신들처럼 건국을 위해 한몫씩 말아서 뛸 생각보다도 앉아서 시비질이나 하고있지…》

《모두야 그렇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렇겠지요.》

안길은 그의 생각이 지나치게 여겨져 한마디 했다.

그러자 허가이는 손을 내저었다.

《안길동문 그사이의 일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지금 애국미문제를 놓고 뒤에서 얼마나 론의가 분분한지 모릅니다.》

《애국미… 말입니까?》

안길은 저으기 놀라며 되물었다.

그가 예민하게 반응하리라고 짐작했었던지 허가이는 열띤 어조로 자기의 말을 계속했다.

《그게 어떤겁니까. 우리 농민들이 제땅에서 첫해농사를 지어 나라에 바친 말그대로 애국미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건 단순한 쌀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의 형편에선 그야말로 나라의 현실적이면서도 유일한 투자밑천이란 말입니다.》

《투자밑천이요?…》

안길은 저도 모르게 그의 말을 되뇌이였다.

지난해 12월 재령군의 김제원농민이 30가마니의 애국미를 **김일성**장군님께 올린것을 발단으로 하여 삽시간에 전국적범위에서는 농민들자신의 자원적인 애국미헌납운동이 벌어졌다.

하지만 안길은 지금껏 농민들의 그 애국적소행을 감동속에 들으면서도 그것이 그 어떤 투자밑천으로 전환될수 있다고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하였었다. 그에게 있어서 애국미란 그 부름은 신성한 대기념비를 마주했을 때처럼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하는 그런것이였던것이다.

그래서인지 그 애국미를 그 무슨 물건이나 돈처럼 표현하는것은 어쩐지 귀에 거슬렸다. 물론 어차피 그것을 건국사업을 위해 써야 할것임은 틀림없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귀중한 밑천을 이제 수립될 북조선인민위원회청사건설이나 간부들의 주택과 승용차 등 사업조건보장해결에

쓰자고들 하고있습니다.

그뿐인줄 압니까? 도는 도마다 제 욕심을 차리려드는데 글쎄 평남도인민위원장이란 량반은 평남도농민들이 바친 애국미는 도내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주기 위한 자금으로 쓰게 해달라고 **김일성**동지께 직접 제기까지 하는 형편입니다. 내 원 참…》

허가이는 진심으로 가슴아파하였다.

《물론 다 그 모양은 아닙니다. 산업국동무들속에서는 공장이나 기계들을 사오자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애국투사후원회 일군들속에서는, 구체적으로 김월송부위원장과 라성환부위원장이 말입니다. 그들은 애국미를 다가오는 모쁘르기념사업에 쓰게 해달라고 제기해왔습니다.》

《모쁘르기념사업이라…》안길은 이번에도 혼자소리처럼 그의 말을 받았다.

모쁘르란 일명 국제혁명투사후원회의 략칭이다. 1923년 제3국제당(코민테른)집행위원회는 희생된 혁명투사유가족들의 후원을 목적으로 이 조직을 내오기로 결정하였고 3월 18일을 국제적인 모쁘르기념의 날로 제정하였다.

《그런 제기를 한 사람들이 있다는건 다행이지요. 내 생각에는 그들의 제기가 옳다고 봅니다.》

허가이는 스스로 머리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바로 이런걸 두고 정치적투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국내의 렬사유가족들을 후원하면서도 전대미문의 전쟁으로 참혹한 희생을 겪은 쏘련사람들에게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적인 의리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의 그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지원을 이끌어낼수 있는… 그러면 지금 안길동무가 정규군건설사업에서 겪고있는 그쯤한 난관은 쉽게 해결될것입니다.》

그는 확신에 찬 눈길로 안길을 바라보았다.

《이런 전략적인 정치적안목이 없이 당장 눈앞의 리익만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야말로 정치인들로서는 너무 근시안적이지요.》

《허가이동지, 물론 우린 항일전쟁을 할 때부터 국제주의적의무에 충실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바로 우리들자신의 리념을 지키는

것으로 되기때문이였지요. 그 이외에 그 어떤 다른 타산은 가져본적이 없습니다.》

《허허…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자체의 힘으로 건국을 해야 한다는 **김일성**동지의 사상을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국제적환경을 우리 혁명에 유리하게 조성하는것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 영향력을 무시할순 없지 않습니까.》

그는 오랜 습관처럼 두팔을 벌리며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안길은 왜서인지 그의 정열적인 화제에서 벗어나고싶어졌다. 별로 현실적의의가 없는 그의 이야기에 말려들고싶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무익한 공담을 피하려고 서둘러 화제를 시작점에로 돌려세웠다.

《허가이동지, 애국미는 우리 농민들이 **김일성**장군님께 삼가 올린것입니다. 그러니 그 처분권은 명실공히 장군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그런 론의는 하지 말아야지요.》

《옳습니다. 바로 그래서 나도 **김일성**동지를 직접 만나뵙자고 했던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돌아가렵니다. 나보다도 안길동무와 같은분들이 곁에서 잘 말씀드리는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좀 당황해진듯싶은 그의 목소리…

안길은 그 어떤 기대가 어린 그의 얼굴앞에서 슬며시 눈길을 돌리였다. 은연중 지금 장군님의 심중이 얼마나 복잡하시랴 하는 생각이 불시에 갈마들었다. 여기에 이제 또 자기의 실태료해보고까지 들으신다면…

자칫하면 이 안길이까지도 그 애국미를 넘겨다보는셈이 되지 않겠는가.

안길은 다시금 무거워지는 마음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바로 그 시각.

김일성동지께서는 벌써 세번째로 편지를 손에 다시 쥐시였다.

집무실책상우에 놓여있는 문건들을 끄당겨놓으셨다가도 웬일인지 자꾸만 눈길이 그 편지에만 못박혀 도저히 다른 일감을 잡으실수가 없었던것이다.

그 편지는 쏘련의 가맹공화국인 까자흐스딴에서 보내온것이였다.

이제는 편지를 보지 않고도 그 내용을 다 기억할수 있었으나 그이께서는 다시금 한글자 한글자 눈주어 읽으시였다. 마치 고조선의 신지글자나 옛중국의 상형문자를 보는듯 한 서투른 조선글로 한장 가득 씌여진 편지는 사실상 다섯문장밖에 안되는 짧은 내용이였다.

《**김일성**장군님!

나는 림춘추의 아들입니다.

우리 양부모님은 나의 친아버지가 장군님과 조선빨찌산에서 함께 싸웠대요.

아버지를 찾아주세요.

아버지가 없으니 난 아직 조선이름도 없어요.

림울라지미르 춘추노비츠 올림.》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손으로 왼쪽가슴을 지그시 누르시였다. 반가움보다는 놀라움이, 놀라움보다는 아픔이 못 견디게 가슴을 파고들었던것이다. 림춘추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아울러 편지에 쓴 그의 양부모가 다름아닌 리용구, 고현숙부부일것이라는 예감은 더없이 기쁘고 다행스러운것이였으나 지난 10년간 그들이 이국땅에서 겪었을 그 모진 고생과 불행이 자꾸만 사무쳐와 가슴이 쓰리고 아프시였다.

비록 편지에는 그런 내용이 단 한줄도 씌여있지 않았으나 바로 《림울라지미르 춘추노비츠》라는 그 이름아닌 이름속에 모든 사연이 다 응축되여있었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편지를 손에 쥐신채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이미 어둠에 묻힌 창밖에서는 우－우－ 기승을 부리는 찬바람소리만이 음산하게 들려왔다.

비로소 그 소리를 느껴서인지 불시에 오한감이 드시였다.

(그들을 원동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청구자밀영에서 헤여지던 그날도 이렇게 찬바람부는 날이였지. 아니, 그날의 날씨는 이보다 더 춥고 사나왔어. …)

잊지 못할 청구자밀영…

옛 왕청유격대 중대장 리응만이 쌍지팽이를 짚고 앞을 막아서며 《장군님, 제발 저를 장군님곁에서 혁명을 하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제 비록 외다리이지만 총을 쏠수 있고 무기수리도 할수 있습니다. 또 입이 있으니 혁명을 선동하는 연설도 할수 있습니다.》라고 절절히 부르짖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가하면 《어른들이 그러는데 장군님은 백두산에서 싸우면서도 한달에 한번씩은 꼭꼭 우릴 찾아오신댔어요. 정말이지요?》 하고 묻던 또랑또랑한 소녀의 목소리도 금시 귀전에서 울리는듯싶었다.

아, 그 목소리, 초롱초롱 기대를 품고 애타게 바라보던 그 새별눈… 그것은 왕청유격근거지에서 부모를 잃은 량귀동녀의 마지막 모습이였다.

어찌 그들뿐이랴. 전투에서 입은 상처와 일제교형리들의 야만적인 고문의 후과로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진 몸을 끌고 사령부를 찾아 끝끝내 남호두로 왔던 리용구, 북만의 혹심한 추위와 적들의 검질긴 추격으로 하여 간고한 행군을 하는 속에서도 2차북만원정대오의 작식을 혼자서 보장하느라 손과 발에 심한 동상을 입고 설상가상으로 쫄라병에 걸려 쓰러졌던 고현숙.

안순화의 아들과 임신중이였던 림춘추의 안해도 그때 그들과 함께 떠났었지. …

안길에게 한개 중대를 거느리고 수십명이나 되는 부상자들과 부녀자들이 국경까지 무사히 갈수 있도록 엄호해주라고 지시를 주던 그 순간까지 청구자밀영에서의 눈물겹던 리별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10년, 이제는 벌써 10년세월이 흘렀다. 그 기나긴 세월속에서, 그 머나먼 이국땅에서 그들이 겪었을 고생인들 오죽했으랴.

문득 원동훈련기지에서의 국제련합군시절이 생각나시였다.

그 시기로 말하면 이미 쏘련정부가 국가관리운영과 안전보장이라는 리유로 원동지구에서 살고있던 조선사람들을 중앙아시아의 가맹공화국들로 전부 이주시킨지 몇해 잘되던 때였다. 그러나 행여나 하는 생각과 혹 행처라도 알수 있지 않을가 하는 미련으로 그들이 초시기 생활하던 곳으로 사람을 보냈었다.

우려했던바 그대로 그들의 모습도 행처도 전혀 찾을길이 없었다.

다만 리용구, 고현숙부부와 이웃하여 살았다는 로씨야녀인에게서 전해들은 한토막의 가슴아픈 소식만을 가지고 왔을뿐이였다.

그에 의하면 그들은 자기 자식들과 함께 젖먹이어린애인 림춘추의 아들(그해 애기어머니는 산후탈로 인차 사망하였다고 한다.)을 포함하여 열두명의 올망졸망한 유자녀들을 맡아키우면서 령하 60도를 오르내리는 원동의 추위와 굶주림속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였다고 한다.

어느해 추운 겨울날 한살도 채 안되는 림춘추의 아들을 뻬치까우에 눕히고 두살난 자기 아들은 뻬치까아래 침대에 눕혔는데 새벽에 보니 고현숙의 친아들은 그만 얼어죽었더라는것이다.

지금도 그 소식을 전해듣고 너무도 가슴이 미여져와 며칠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 림춘추가 얼마나 가슴아파했으며 정숙동무는 또 얼마나 눈물을 흘리였던가.

그후에도 행여 그들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으나 종시 알길이 없었다. 그도 그럴것이 그때 쏘련은 파쑈도이췰란드와의 힘겨운 싸움을 치르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불쑥 머나먼 까자흐스딴에서 밑도 끝도 없는 림춘추 아들의 편지가 날아온것이다. 그 애의 나이가 지금 아홉살쯤 되였을것이다. 아마 현숙동무네 부부에게서 아버지에 대하여, 조선의 빨찌산에 대하여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랐으리라. 그래서 그 어린것이 이렇게 빨찌산대장에게 편지를 쓸 엉뚱한 생각을 하였으리라…

(고맙소! 용구동무, 현숙동무. 이국에서 또 낯설은 이국으로 옮겨가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도 이렇게 동지들의 자식들까지 맡아키웠으니 그 깊은 의리심에 내 무슨 말로 어떻게 인사를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소. 조금만,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주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름할수 없는 충동으로 마음속 당부를 절절히 뇌이시며 창문가에서 돌아서시였다.

손에 들었던 편지를 봉투에 넣자고보니 왜서인지 림울라지미르 춘추노비츠라는 이름이 또다시 눈에 밟혀왔다. 그 땅에 림울라지미르뿐아니라 김쎄르게이, 박안드레이 등의 범벅이름을 가진 조선사람들이 어찌 한둘이랴만 빨찌산의 아들인 그 애에게만은 당당한 조선사

람의 이름을 지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였다. 나라를 빼앗겼던탓으로 민족이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 불행과 수치를 그 어린것에게서만이라도 당장에 벗겨주고싶으시였다.

일제에 의해 강요되였던 수난의 그 력사, 제 나라, 제땅을 두고서도 그 아버지는 중국 동북에서, 그 자식은 쏘련 원동에서 태여나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 기막힌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싶으시였다. 그 애의 지나온 아홉해, 림울라지미르 춘추노비츠로 살아온 그 불행의 아홉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밝은 앞날, 영원한 미래를 약속해주고싶으시였다.

그런 자신의 속마음이 비껴서인지 불쑥 《영일아!》하는 부름이 새여나갔다.

영일이, 림영일이!…

불러놓고보니 새로 지은 이름이 참 마음에 드시였다.

물론 림춘추가 이미전부터 따로 지어두었던 이름이 있다면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존중해주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림울라지미르 춘추노비츠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그앞에 세워주고싶지 않으신 **김일성**동지이시였다.

하긴 한점 혈불이도 없는 낯설은 이국땅에서 그 피덩이 어린것이 어떻게 살아날수 있으리라 믿고 이름까지 따로 생각해두었으랴.

지금껏 림춘추가 아들에 대해 전혀 내색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그는 이미 그런 기대를 단념하고있는것이 분명했다. 자신께서도 공연히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싶지 않으시여 한번도 그런 말을 내비치지 않으시였었다.

(춘추동무, 영일이 아버지!…)

림춘추의 얼굴이, 번듯한 이마에 학자처럼 지성미가 풍기는 눈빛을 가진 그의 잘생긴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시였다. 좀해서는 자기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는, 말보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내성적인 그가 아들의 소식을 받고 어떻게 나올가 하는 생각이 드시였다. 모름지기 애써 흥분을 감추려 하겠지만 그 두툼한 입술만은 다물지 못하리라!

하지만… 아들의 새 이름과 아들의 소식을 알려준다고 하여 림춘

추의 그 마음속 아픔이 다 풀릴수 있으랴. 림춘추와 그의 아들을 위해 해줄수 있는것이 과연 이것밖에 더 없단 말인가.

김일성동지의 마음은 다시금 무거워지시였다.

(당장은, 지금 당장은…)

그이께서는 천천히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기다렸던듯 교환수의 청아한 목소리가 수화기의 진공판을 울렸다.

《말씀하십시오.》

《교환수동무, 수고하오. 평남도당 제2비서동물 좀 찾아주시오. … 음, 나오질 않는다, 전화가 들어오면 그 동물 나에게 보내주시오. 그럼 부탁하오.》

그이께서는 아쉬운 심정으로 송수화기를 내려놓으시였다.

김종항서기가 문밖에 안길이 와있음을 보고드린것은 바로 이때였다.

×

《아, 안길동무가 왔구만!》

김일성동지께서는 반갑게 안길에게로 다가가시였다.

《장군님!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참모장 안길 제2소료해사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먼길에 정말 수고가 많았소.》

김일성동지께서는 거수경례를 붙인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내리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래, 위탈이 또 애를 먹이진 않았소? 정초부터 동물 떠나보내놓구 어디 마음을 놓을수가 있더라구. 위탈이라는게 손발이 차지면 더한 병인데…》

《장군님, 몸은 오히려 거뜬합니다. 앞으로 정규군의 주력사단이 될 우리 동무들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오질 않았습니까.》

상봉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흐리지 않으려는듯 그의 목소리는 저으기 쾌활하였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눈가에 어린 한줄기 근심의 빛을 놓치지 않으시였다. 그리고 그의 심정을 리해하시였다.

함북도당의 보고라면서 허가이조직부장이 그곳 주둔부대들의 형편을 이미 알려왔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금도 내색을 않으시고 안길의 쾌활한 어조를 그대로 따르시였다.

《그렇다니 나도 한결 마음이 놓이누만. 참, 내 한가지 소식을 알려줄게 있소.》

그이께서는 책상우에 놓았던 편지를 들어 안길에게 주시였다.

《림춘추의 아들이 써보낸 편지요.》

안길이 와뜰 놀랐다.

《예? 림춘추… 아들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 쏘련에서 온 편지를 받으셨다는것이…》

《그러니 안길동무도 누구처럼 이 편지가 쓰딸린이나 몰로또브에게서 온것쯤으로 알았던 모양이구만, 음?! 큼직한 원조를 주겠다는 편지로 말이요.》

《아, 그런것은 아닙니다.》

《나도 그저 해보는 소리요. 사실 그들은 지금 누굴 원조해줄 형편이 못되오. 엊그제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요. 설사 여유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들의 제1차적인 관심은 안전지대로서의 동유럽을 강화하는데 돌려질거요.

안길동무, 난 오히려 영일이의 이 편지를 보며 우리가 무엇으로 새 나라를 일떠세워야 하겠는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누만. 참, 영일이란 그 이름은 말이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짧은 편지내용을 다 읽고 놀라와하는 안길에게 자신께서 그 애의 이름을 영일이라고 지으신 사연을 설명해주시였다.

《뜻밖입니다. 춘추동무의 아들이 살아있었을줄은… 그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더구나 장군님께서 지어주신 아들의 이름까지 들으면야…》

격정에 젖은 안길을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였다.

《정말 그럴가?…》

그러시고는 천천히 눈길을 돌리시였다. 딱히 그 어느 곳이라고 찍

을수 없는 공간을 바라보시며 혼자소리처럼 뇌이시였다.

《그것이… 자기 위안처럼 되지 말아야겠는데. 어쩐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간 동지들앞에 죄스러운 생각이 더 드누만. 그들의 자식들도 어디선가 영일이처럼 자기 아버지를 찾고있겠는데…》

《장군님,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이제 건국사업만 끝내놓고서는…》

안길이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였다.

《건국사업이라…》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얼굴에로 다시 눈길을 돌리시였다. 안길이다운 솔직한 말이였다. 그의 온넋은 다름아닌 건국사업, 구체적으로는 바로 정규군건설에 가있다. 어찌 보면 그가 부럽기도 하셨다. 그처럼 모든 정력과 사색을 오직 건국사업에만 집중할수 있다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당장 첫 민주선거의 성과에 토대하여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수립하여야 하였고 조선인민혁명군을 하루빨리 정규적인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하였다. 나라의 분렬을 막고 전조선적인 인민의 공화국을 창건해야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경제적자립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참다운 정치적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기에 올해부터 첫 인민경제계획수행의 길에 들어섬으로써 공업생산과 알곡생산을 더욱 늘이고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하였다.

경제건설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고 민족기술인재와 기능로동자들도 매우 부족한 형편에서 더우기 원료, 자재, 자금도 거의나 없는 조건에서 이런 방대한 계획을 수행한다는것은 실로 어렵고 힘든 일이였다.

새 나라를 일떠세우는 그 모든 사업을 다름아닌 자신께서 다 걸어안으셔야 했고 그 모든 해결책을 자신께서 다 세워주셔야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우에 무드기 쌓인 문건들을 바라보시였다. 대다수 당면하게 애국미를 투자금으로 먼저 쓰도록 해달라는 각이한 부문들의 주장이 담겨져있는 제의서들이였다. 그 어느 부문, 그 어느 주장 하나 중요치 않거나 타당치 않은것이 없었다.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께서도 요사이 그 애국미를 놓고 하루에도 몇

십번 속구구를 해보시는지 모른다.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의 뜨거운 애국지성이 건국의 초석을 마련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관건적인,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절박한 사업에 바쳐지게 하겠는가?

하지만… 아직은 그 어느 하나에도 선뜻 결심이 서지 않으시였다.

무엇때문인가? 림춘추의 아들이 보낸 이 편지때문에?…

아니, 아니였다. 이미전부터, 편지를 받기 썩 오래전부터 줄곧 뇌리를 파고드는 그 무엇인가가 자꾸만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사색을 종잡을수없이 분산시키며 자신의 결심을 방해하고있었다.

(건국사업이라…)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이 말을 외우시고나서 안길에게 자리를 권하시였다.

《그럼 그곳 사업정형을 들어봅시다.》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이번에 내려가 우선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와 그 산하 분소들의 주둔지와 임무수립, 훈련과제들을 다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위의 중대, 소대들의 지휘관임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외에 자기 편제에 따르는 대렬구성은 모두 완료되였습니다. 임명하지 못한 구분대지휘관들을 앞으로 중앙보안간부학교 제1기 졸업생들로 배치할 때까지 우수한 하사관들로 대리임무를 수행하도록 대책을 세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2소는 자기의 임무수행에 착수할수 있게 되였다고 봅니다. 다만…》

안길이 잠시 주저하며 동안을 두었다가 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일부 중대들의 병실준비상태가 원만히 보장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수자와 형편을 사실그대로 보고하였다. 빨찌산시절부터 장군님께는 오직 진실만을, 그것이 아무리 괴롭고 심중한것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그대로만 보고드려야 한다는것이 혁명가로서의 그의 사업철칙이였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지막까지 그의 말을 끊지 않으시였다. 이미 정황은 알고계셨지만 안길의 보고를 들으니 실태의 절박성이 더 강하게 느껴지시였다.

《그러니 병실들을 짓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안길동무 보기엔 어떻소? 강건이나 그들의 생각이…》

《사실… 건설자재만 보장해주면 늦어도 한달안으로는…》

《허허… 안길동무도 그 말을 꽤나 힘들게 하누만. 설사 건설자재를 보장해줄수 있다 해도 병실은 봄철에 나가 지어야 하오. 하루이틀 살다 버릴 건물이 아니잖소?! 그리고 한달동안이나 전사들을 한지생활시킬수도 없지 않소. 그래, 그 주변들의 건물들에 대해선 좀 알아봤소?》

《…》

안길은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미처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무래도 자신께서 현지에 나가봐야 하겠다고 생각하시였다.

《안길동문 그에 대해서 더 신경쓰지 말고 전반사업에 관심하도록 하오. 내 인차 시간을 내여 2소에 가보겠소.》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해당 부문에 과업만 주시면 제가 그들과 함께 내려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펄쩍 놀라는 그를 가볍게 눌러앉히시였다.

《과업을 줘서 내리내리 그곳 실정을 료해하는 동안이면 이 겨울이 다 지나가고말거요. 현지에 직접 내려가봐야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줄수 있소.》

《장군님!…》

안길의 얼굴에 죄송스러운 빛이 짙게 어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심정이 헤아려지시여 얼른 말머리를 돌리시였다.

《참, 춘추동무에게서 들으니 그가 이번길에 심병윤동무의 유가족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안길동무에게 부탁했었다면서?!…》

《예?》

안길은 그것까지 장군님께서 알고계시는데 놀라와하면서 면구스레 웃었다.

《그런데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심병윤은 연길현 8도구 동신평에서 박성철과 함께 지하정치공작을 하다가 왜놈들에게 희생된 사람인데 그의 말에 의하면 유복자를 품은 심병윤의 안해가 시집인 함경북도 길주군 덕인리로 갔다는것이였다.

안길이 이번길에 알아낸것은 그 녀자가 몇해전에 시집을 떠나 금천리라는 곳에서 살다가 해방을 몇달 앞두고는 그곳에서마저 자리를 떠서 어디론가 없어졌다는것뿐이다.

《그 시아버지 되는 심로인이 며느리의 행처에 대해 영 모르쇠를 합니다. 가만 보니 재가를 한 모양입니다. 그 시집의 살림이 영 말이 아니던데 그래서 얹혀살지 못하고 떠난것 같습니다. 로인이 재가를 하도록 허가를 했구요. 만약 새가정을 이루고 살고있는 며느리가 심병윤의 유가족을 찾는다는걸 알면 당혹해할가봐서겠지요.》

이것은 그곳 군애국투사후원회의 한 일군이 그에게 알려준 말이였다.

십분 그럴수 있는 아니, 열에 아홉은 그렇게밖에 달리 될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져 안길은 더 다른 말씀을 드릴수 없었다.

《그렇단 말이지. 젊은 녀자가 그 험한 세월에 혼자 살기 얼마나 힘들었겠소. 하지만 심병윤의 아들은?…

설사 새 아버지를 만나 성을 달리 부른다 한들 피줄이야 어찌 달라질수 있겠소. 그리고 심병윤동무앞에 그의 피줄조차 지켜주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뭐라고 변명하겠소.

우린 그의 아들만이라도 꼭 찾아와야 하오. 아무리 시간이 바쁘더라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걸 그랬소.》

김일성동지께서는 어쩐지 서운한 생각이 드시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곧 그렇게 말한것을 후회하시였다. 왜서인지 그를 나무람한것이 가슴에 맺히셨던것이다.

해방후 힘들게 찾은 가족들과 단란한 가정생활도 변변히 누려보지 못하고 또 의사들도 머리를 젓는 중병에 걸린 안해의 병문안조차 가보지 못하고 건국사업을 위해 뛰여다니는 안길이였다. 이런 안길을 그 어떤 인정이나 의리가 없는 사람처럼 평가한다면 그것은 그에 대

한 모욕으로 될것이였다.
어쩐지 그를 리해해주고싶으시였다.
아니, 그가 리해되고도 남음이 있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더이상 아무 말씀도 잇지 않으시였다.

3

허분옥이 아들 심창완을 데리고 길주군 금천리를 떠나 친정집을 찾아온것은 나라가 해방되기 석달전이였다.
그의 친정은 중국 동북의 연길현 팔도구 동신평이라는 곳이였다.
남편을 잃고 막달찬 새생명을 품은채 시집을 찾아 떠났던 그때로부터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다시 집으로 돌아온 맏딸(그의 형제들은 딸만 아홉이였다.)을 맞이한 그의 친정집에서는 온통 울음판이 터졌다. 다 죽은줄만 알았던 딸자식이 손자까지 앞세우고 나타났으니 어찌 그렇지 않았으랴.
《망할년, 소고집을 부리며 떠나더니만…》
허옇게 머리가 세여버린 아버지는 물기에 젖어 분명치 않게 들리는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맏딸의 기구한 운명이 자기때문에 빚어진것이라는 속박감으로 하여 그 누구보다도 속을 태워온 아버지였다. 자신을 달래이느라고 화김에 술을 마시고 취한 날이면 꺼이꺼이 호곡을 하며 《불쌍한 우리 분옥이, 이 몰인정한 애비구박에 탈가하여 그만 불귀의 객이 되였구나!》 하고 구들장을 치군 하던 아버지였다.
그러느라니 아직 환갑도 채 이르지 못한 나이에 벌써 백발로인이 되여버리고말았다.
분옥은 어찌 보면 어머니보다 더 세여버린 아버지의 그 흰 머리를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고역속에 흘러가버린 소녀시절…
머리우에선 물동이를 내려놓을새 없었고 여덟이나 되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때식을 끓이느라 언제 한번 부모의 잔정을 따뜻이 느껴볼새없이 가버린 시절이다. 아버지는 품팔이를 떠나 살 때가 더 많

았고 어머니는 자갈추기와 삯빨래로 자식들 입에 거미줄치지 않게 하느라 드바빴다.

게다가 줄줄이 딸만 낳다보니 무슨 심술이 동했는지 딸자식들에 대한 아버지의 구박은 가난보다 더 집안을 괴롭혔다.

분옥이가 열일곱살되던 해에 그보다 여섯살이나 우인 심병윤이라는 총각이 청혼을 해왔는데 그때에도 아버지는 제집도 없이 8촌집에 얹혀 곁방살이를 하는 뜨내기군에게 절대로 딸을 줄수 없다고 야단법석하였었다.

그러나 총각의 름름한 체구, 시원한 이마며 열정에 넘친 눈길, 비록 가난은 몸에 배였을망정 시대의 풍운을 안고 몸부림치는 남아다운 인품에 마음이 끌린 분옥은 딸이 많은 집에서 지지리 구박을 받으며 살기보다는 의지할수 있는 남자를 만났을 때 따라가는편이 나으리라고 결심하고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심병윤과 가정을 이루었다. 남편과 함께 생활하면서야 그는 어찌하여 조선사람들이 제 나라를 버리고 이국땅에 와서 가난에 쪼들려 살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가난이 원쑤가 아니라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죽이는 왜놈들과 악착스레 빼앗고 등쳐먹는 지주놈들이 불구대천의 원쑤라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구박도 숱한 딸자식들을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한이, 그 무정한 세월에 대한 울분이 터칠데를 찾지 못해 그러는것이라는것을 리해하게 되였다. 참으로 남편은 그에게 있어서 단순히 남편이기 전에 아버지였으며 오빠였으며 또한 선생님이였다.

분옥은 비로소 다심한 사랑을 알게 되였고 세상을 알게 되였다.

그와 가정을 이룬지 얼마후에야 알게 되였지만 남편은 지하혁명조직 성원이였던것이다. 그는 자주 집을 나가 며칠씩 들어오지 않을 때가 드문하군 하였다. 때로 잠간 집에 나타나서는 미시가루와 음식감을 준비해달라고 복닥소동을 피우는가하면 어떤 때에는 풀을 한초롱씩이나 쑤어달래가기도 하였다. 남편이 하는 투쟁을 다는 리해할수 없었지만 이것도 혁명을 돕는 일이라고 웃으며 하는 그의 말 한마디가 새색시의 마음을 붕 뜨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러나 그러한 분옥이의 행복은 1년밖에 가지 못하였다.

1932년 10월 10일(그날은 다름아닌 남편의 생일이였다.) 회의를 간다면서 아침 일찌기 집을 나갔던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말았던것이다. 남편과 함께 싸우던 박성철이 그에게 비보를 안고왔다.

그날 아래마을에서는 갓 창건된 반일인민유격대에 입대시킬 청년들을 선발하기 위한 모임을 비밀리에 하고있었는데 마을에 박혀있던 밀정놈의 밀고로 불의에 왜놈《토벌》대가 달려들었다. 모임참가자들을 다 뒤문으로 빼돌린 다음 심병윤은 마지막 한장까지 문건을 소각하다가 놈들의 총탄에 맞고 쓰러졌다.

왜놈들은 그에게서 조직성원들의 피신처를 알아내려고 발로 차고 총창으로 찌르며 악착스레 고문하다가 도저히 비밀을 알아낼 가망이 보이지 않자 그를 모임을 하던 그 집에 가두고 휘발유까지 뿌려놓고 불을 달았다.

삼단같은 불길이 타래쳐오르는 집안에서는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혁명 만세!》의 웨침소리가 울려나왔다고 한다.

남편은 시신조차 남기지 못한채 분옥의 곁을 떠나갔다. 목놓아울고 또 울었으나 슬픔은 좀처럼 가셔지지 않았다. 아마도 그때 자신의 몸안에서 태동하는 새생명의 숨결만 아니였다면 그는 남편의 뒤를 주저없이 따라가고말았을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고싶어도 그럴수 없었다. 남편의 꺼지지 않은 한점 생명의 불꽃을 몸에 품은 유일한 녀성으로서 그럴 권리가 없었다.

분옥은 이를 악물고 자신을 이겨냈다. 화형터의 한줌 재가루를 남편의 유골삼아 주머니에 싸안고 그는 시집을 찾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비록 한번도 만나본적 없는 시집식구들이였으나 이제 태여날 자식에게 제 혈기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결심을 더 굳혀주었다.

이번에도 아버지는 딸의 결심을 반대해나섰다. 다른 리유는 다 불문에 붙이더라도 당장 해산달을 눈앞에 둔 몸으로 추위가 시작된 이런 날씨에 아낙네 혼자서 집을 떠난다는게 제정신이냐 하는것이였다. 그러다가는 너도 유복자도 한날한시에 제를 지내게 될터이니 가더라

도 아이나 낳고 떠나라는것이였다.
분옥은 단호히 도리머리를 저었다. 죽더라도 기어이 심씨가문의 토방을 베고 죽겠다고 고집을 썼다. 이렇게 되여 찬바람부는 그해 11월 초순 허분옥은 무거운 몸을 끌고 시집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덕인리를 찾아 동북땅을 떠났다.
길을 떠난 뒤 보름이 지나 길주에 도착했는데 읍에서 또 100여리나 되는 눈길을 헤치고 걷고 또 걸었다. 시집이 사는 곳은 앞뒤집사이가 5리나 되는 외진 산간벽촌인데 밤이면 범이 문가에까지 찾아드는 곳이였다.
왜놈들과 싸우겠다고 집을 떠난 후로는 생사여부를 알수 없었던 셋째(심병윤은 아들 4형제중의 셋째였다.)의 분골과 함께 그의 유복자를 품은 며느리를 뜻밖에 맞은 시집식구들은 오래도록 슬픔에 울고 또 울었다.
시집에서는 시부모와 시형제들이 모두 한집에 모여살았는데 식솔이 열다섯이나 되였다. 왜놈들이 화전도 일궈먹지 못하게 눈을 밝히는통에 그즈음 시집의 생활형편은 더더욱 말이 아니였다. 바로 이 집에서 아들 창완이가 태여났다. 시집식구들은 죽은 나무에 움돋이라고 기뻐는 하면서도 갓난아기를 감싸줄 한쪼박의 천조차 없어 어쩔바를 몰라했다.
분옥은 남편이 덮던 이불거죽을 빨아가지고 나왔었는데 할수없이 그걸 잘라 애기옷을 지어입히지 않으면 안되였다.
아, 북받치는 서러움속에 속절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밤…
가뜩이나 쪼들리는 살림에 분옥이 모자까지 얹히여 그런지 시집형편은 갈수록 구차하기 이를데 없었다. 남정네들은 산림간수의 눈을 피해가며 화전농사를 지었고 녀인들은 산에 가서 닥지싹을 뜯어다가 짓이겨 범벅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나무를 해오군 하였는데 어린 창완이는 힘에 맞는것이 아카시아나무를 꺾는것이라 늘쌍 그의 손은 온통 가시에 찔려 피범벅이가 되군 했다. 그는 집안식구들의 사랑과 동정을 받으며 살았지만 제대로 먹지 못해 그런지 자주 골골 앓군 하였다. 그럴 때마다 분옥의 가슴은 칼로 저며내듯 저리고 아팠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것은 어린 자식의 가슴속에 나날이 차오르는 아

버지없는 설음이였다.

시형제들이 산판에서 돌아오는 저녁이면 삽짝문을 열어젖힌 사촌형제들이 저마끔 《아버지—》하며 달려가 안기고 손을 잡고 들어서군 하는데 그들과 함께 달려가던 창완이는 혼자 우뚝 굳어져버리군 하는것이다.

그럴 때면 할아버지가 팔을 벌리고 《우리 창완이는 나한테 오너라.》하군 하였지만 그 어린 가슴에 옹이진 피멍이야 어찌 풀릴수 있었으랴.

《엄마, 우린 왜 아버지가 없나? 나 아버지 있구파.》

《창완아!》

가슴이 무너져내렸다. 피눈물이 쏟아져내렸다.

불로 지진들, 칼로 저민들 어린 아들의 그 말보다야 더 아프고 쓰리랴!…

창완이 공부할 나이가 되였으나 《공산비적》의 가족이라 호적에도 올리지 못하고 숨어사는 신세였고 돈 한푼 없는 처지니 학교에 보낼 생각은 엄두조차 낼수 없었다. 그래도 죽은 남편앞에 조금이나마 떳떳하고싶어 이른새벽부터 온종일 주린 창자를 움켜쥐고 뜯고뜯은 산나물을 팔아 창완이를 서당에 들여보냈다. 그 보잘것 없는 학비조차 제대로 낼수 없어 구박을 받으며 쫓겨오기가 일쑤였다. 하루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칠보산에 간적이 있었는데 그 준비로 돈 3원과 쌀 두되를 내라는것이였다.

온밤 슬피 울다가 꿈속에서조차 헛소리로 칠보산소릴 하더니 다음날에는 하루종일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이 덜컥하여 온 산판을 찾아헤맸는데 땅거미가 질무렵 뒤산 솔밭속에서 죽은듯 잠들어버린 아들을 찾아냈다.

그를 깨워 물어보니 칠보산에 간 동무들이 너무 부러워 뒤산에 올라 그들이 간쪽을 바라보며 있다가 배가 고프기에 솔순을 뜯어먹었다는것이였다. 아마 정신없이 솔순을 뜯어먹고 그에 취해버린 모양이였다.

그해에 시집에서는 금천리에 세방을 내여 분옥이네를 따로 내주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젊은 녀자를 혼자 내놓을수가 없다며 어머니를 잃은 맏시형네 두 아들을 따라보냈다.

분옥이로서는 다 자란 시조카들까지 돌보는것이 더 큰 부담이 아닐수 없었지만 시부모의 뜻을 거역할수가 없었다.

삯짐으로 물고기함지를 이여날랐고 철도주변에서 탄덩어리들을 주어 팔았다. 고기장사, 두부장사, 사과장사, 땔감장사 등 못해본 일 없었다. 홀어머니의 고생살이를 체험하면서 남보다 일찍 철이 든 창완이는 아홉살에 정미소잡부로 들어가 온갖 잡일에 시달렸다. 눈치 빠르고 손발이 잰 그를 동정이나 하듯 주인은 정미소에서 쓸어모은 북데기를 자루에 넣어주군 했는데 그대신 높다란 기대꼭대기에 올라가 피대를 거는 일을 도맡아해야 했다.

어느날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분옥은 다시는 아들을 정미소에 보내지 않았다.

마을에서는 젊은 녀인이 나이든 시조카들을 데리고 함께 있다고 비웃었다. 사실 조카들이래야 그보다 서너살아래의 장정들이였던것이다.

분옥은 지칠대로 지쳤다. 더이상 자신을 지탱해내기가 힘들었다. 하여 그는 산에 가서 돌버섯을 뜯어다 팔고 살림살이를 위하여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으로 겨우 이부자리 한채를 마련하여 맏시조카를 장가보냈다. 그나마 첫날옷은 마련할길이 없어 남의 옷을 빌려입혔는데 이튿날에 옷임자네가 찾으러 오는통에 새색시앞에서 벗기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게 시조카에게 살림을 시켜 세방집까지 넘겨주고나서 그는 창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다. 시집에서도 이제 헤여지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영리별이 될수 있는 길이라는걸 번연히 알면서도 그들의 모진 고생살이를 덜어줄 아무러한 방도가 없는지라 차마 붙들념을 하지 못하였다.

《용서해라, 애어미야. 널 죽도록 고생만 시켰구나. 그래두 제 피줄이라고 찾아온 창완이를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공부시키지도 못하구 이렇게 되돌려보내고마는구나. 짐승도 제 새끼는 품어줄줄 안다는데 아마 이 천덕꾸러기집안에선 피줄을 잇는것도 푼수에 닿지 않

는 일인 모양이다.

내 이제 저승에 가면 무슨 낯으로 저 창완이 애비를 만나겠느냐. 허지만 며늘애야, 너에겐 조금도 잘못이 없으니 아직 젊으나젊은 나이인데 이제라도 새 사람을 만나거라. 제 피줄 하나 품어주지 못하는 이 심씨집안과 인연을 끊고 어서 너희들 모자에게 좋도록 살아가거라.》

《아-버-님.》

분옥은 허연 수염발을 타고 락수물처럼 흘러내리는 시아버지의 눈물을 목덜미에 맞으며 그앞에 풀썩 엎드렸다.

그럴수 없노라고, 그 어디에 가건 절대로 심씨집안의 피를 바꿀수 없노라고 웨치고싶었지만 목이 꽉 메여 아무 말도 나가지 않았다.

하긴 이 리별의 마당에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에 닿으랴.

허분옥은 이렇게 시집을 떠났다. 그들모자는 이렇게 조국을 떠났다.

아, 뼈에 절도록 새겨진 그 가슴아픈 만단사연을 어떻게 한두마디의 말로 친정집부모님들에게 다 터놓을수 있단 말인가!…

《그 까닭을 구태여 캐물어선 뭘하겠수. 이 애의 정상이랑 저 창완이 꼴을 좀 보소그레. 약하디약한게 어디 사람모양이요? 헝겊막대기지.》

맏딸의 마음속 상처를 서둘러 헤집어놓을가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미리 침을 놓았다. 분옥은 자기의 심정을 헤아려주는 어머니가 고마왔다.

아닌게아니라 어머니의 푸념 그대로 쌓이고쌓인 고생살이의 그 자욱자욱은 창완이의 앙상한 가슴과 해진 베잠뱅이에 다 새겨져있었다.

분옥은 몇십번을 덧기워입힌 아들의 옷을 몸으로 감싸며 오래간만에 소리내여 울었다. 자식을 가진 어머니도 제 어머니앞에서는 여전히 자식인것이다. 그들모자간이 이렇게 동북에 온지 석달이 지나서 왜놈들이 망했다. 그렇게도 악착하게 기승을 부리던 놈들이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쏘련군대의 진격으로 하루아침에 물먹은 담벽처럼 허물어지고말았던것이다. 만주땅에서도 왜놈들이 쫓겨났다.

이듬해에는 조국땅에서 토지개혁이라는것이 실시되고 농민들이 땅의 주인으로 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련이어 **김일성**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한 정사를 펴시여 북조선방방곡곡에 사람답게 사는 별천지가 펼쳐지고있다는 희한한 소식들이 전해왔다.

허분옥은 기쁜 마음으로 그 소식들을 들으며 시집식구들을 생각했다.

열다섯이나 되는 대식솔이 심심산중의 한뙈기 화전에 명줄을 걸고 산나물과 풀뿌리를 뜯어먹으며 짐승처럼 살아온 그들이였다.

과연 그들에게도 사람다운 생활이 차례졌을가? 이제라도 창완이를 데리고 다시 시집으로 돌아가는것이 옳지 않을가? 왜놈세상에선 지지리도 못살고 째지게 가난하여 제 피줄 하나 품어주고 키워주지 못했지만 해방된 새세상에선 혈육의 정을 마음껏 나누며 살수 있지 않을가?

우리 창완이 아버지도 **김일성**장군님을 받들어 왜놈들과 싸우다가 그렇게 되였는데 제 아버지의 피줄을 이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분께서 계시는 조국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가?…

《아서라, 이번만은 소고집 쓰지 말고 이 애비의 말을 들어라. 예로부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하물며 애아버지가 잘못된지도 10년이 씩 지나질 않았느냐. 그래도 이곳에선 네 남편이 불타 죽는걸 함께 겪은 사람들이 많아 창완이를 혁명가의 자식으로 알고 돌봐주지만 그곳에서야 누가 그걸 알기나 하겠니. 고작해서 애비없는 자식이라고 동정이나 하겠지. 항차 너의 시집살림살이형편이 아무리 해방덕에 좀 펴였다 한들 그 대식솔에 죽물이나 푼푼히 돌아갈 상싶으냐? 그러다간 창완이를 영 버리고만다, 버리고말아!》

그 곡진한 말속에 슴배여있는 자식에 대한 진정과 무시할수 없는 진실이 분옥이의 마음을 지그시 눌러앉혔다.

(아버지의 말씀이 옳아. 그곳에 창완이 아버지를 기억할 사람이 몇명이나 되랴. 제 피줄도 돌봐 못 주는 인정인데 하물며 남들이… 그저 죽은 사람 하나 불쌍한 법이지. 이 어머니밖엔 우리 창완이를 키워줄 품이 없어.)

허분옥은 자꾸만 허전해지려는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아직 연약하

고 어린 아들의 몸을 그 어떤 기둥삼아 꽉 그러안았다.

조국땅에서 지금 자기들을 찾고있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그는 알수 없었던것이다.

4

밤은 퍼그나 깊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좀처럼 잠을 이룰수가 없으시였다. 피로는 온몸에 무겁게 실렸건만 하루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눈앞에 밟혀오시였다.

병실문제때문에 오래간만에 만나서도 얼굴색이 그리 밝지 못하던 안길의 모습이며 아들의 편지를 받고 평소의 그답지 않게 흥분을 감추지 못하던 림춘추(그는 안길이 돌아간 뒤 왔었다.)의 모습 그리고 그들보다 앞서 모쁘르기념일문제때문에 찾아왔던 김월송이며 황해제철소의 송풍기문제때문에 왔던 산업국장, 도내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왔던 평안남도인민위원장의 얼굴이 느닷없이 얼른거렸다.

오늘 수많은 일군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애국미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자신께서는 종시 아무런 결론도 주지 못하시였다.

눈을 꾹 감고 정규군건설에 필요한 자금으로 뚝 떼주어 안길의 고심을 풀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또 인민경제계획수행에 필요한 밑천으로 대주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아니면 모쁘르기념사업에 쓰라고 준다면…

그러나 그 어느것 하나 선뜻 결심을 내릴수가 없으시였다.

설사 그 어느 한곳에 대준다 해도 림시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으리라는것만은 명백했던것이다. 모쁘르기념일문제 하나만 놓고봐도 그러했다. 이미 찾아낸 혁명렬사유가족들보다 아직 찾지 못한 유가족들이 더 많은 조건에서 그들에 대한 후원사업이란 엄연한 의미에서 세상사람들앞에 생색이나 내고마는것으로 될수 있었다.

한두번의 후원사업으로는 결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수 없는것이

였다.
또다시 영일이의 편지가 떠오르시였다.
《…아버지를 찾아주세요. 아버지가 없으니 난 아직 조선이름도 없어요…》
아, 아버지를 찾는 영일이의 그 부름소리!…
어쩐지 그 부름소리가 단순히 그 애 하나만의 목소리처럼 생각되지 않으시였다. 저 이국의 하늘아래서 영일이처럼 아버지를 찾고있는 혁명가의 자식들이 어찌 한둘이랴. 그래도 영일이에게는 불러서 대답해줄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정처없이 떠다니는 어린 자식들의 그 애절한 부름에 영원히 대답하지 못할 아버지들은 그 얼마이며 쪽박을 차고 남의 집 문전에서 걸식하는 유자녀들은 또 얼마이랴. 그들에게도 영일에게처럼 《너희들에게도 아버지가 살아있다. 너희들에게도 더운 날 추운 날, 맑은 날 궂은 날 가림없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줄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다!》고 말해줄수 있게 된다면…
불시에 피로가 덮쳐들었다.
치솟는 불길같은것이 그 무엇인가를 싸안고 너울거렸다.
눈보라소리인지 아니면 기관총소리인지 가늠할수 없는 이상한 굉음이 먼 우뢰소리처럼 들려왔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와졌다. 그속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간간이 섞여들린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데 뒤섞여있어 누구의 소리인지 잘 가려들을수 없는것이 안타까우시였다.
《장군님!ㅡ》
아, 오중흡이!
《사령관동지!ㅡ》
저건 차광수의 목소리다.
뒤이어 최창걸, 한흥권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그런데 이상하다. 생김새들은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가. 저들은 분명 최경화, 권영벽, 리제순이다. 아니, 북만의 박길송이는 아닐가?…
살아있었구나, 다들 살아있었어! 그런데 이 추운 겨울날에 어쩌자고 저렇게 홑옷바람으로 찾아왔담, 감기라도 들면 어쩔려고?!…

《내 솜옷을 벗어줄테니 이거라도 입소. 자, 어서! 누구 한사람이라도 입어야 내 마음이 좀 편할게 아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솜옷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하나같이 얼굴빛이 퍼렇게 질려있으면서도 서로 사양하고 제마끔 양보한다.

원, 사람들도…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온다. 눈보라가 휘몰아친다. 눈보라는 심술궂게도 솜옷을 휙 나꿔채가지고 하늘가 저 멀리로 타래쳐오른다.

낯익은 그 모습들도 간곳없이 사라져버렸다.

아득한 백설천지에 피자욱같은 빨간 꽃들만이 점점이 피여있었다. …

그 무엇인가가 철써덕— 하는 바람에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찰나의 비몽사몽에서 문득 깨여나시였다.

방아래목에서 자고있는 아이들가운데서 한 녀석이 다른 아이의 배우에 넌떠덕 다리를 올려놓은것이다.

온돌바닥이 너무 더운 모양이였다.

《그녀석, 무척 갈개자는군.》

그이께서는 끝내 잠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시였다.

그리고는 그 애의 다리를 조심히 내려 바로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시였다. 아직 참새죽지같이 가냘프게 느껴지는 자그마한 어깨우에 이불깃을 여며주시려니 왜서인지 방금전의 꿈속에서처럼 가슴이 저려왔다. 한창 응석을 부리며 자라야 할 어린것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도 모르고 가랑잎처럼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며 살다보니 영양상태도 말이 아니고 키들도 제대로 크지 못하였다.

저 순옥이의 아버지 김룡수는 우리가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을 준비하던 시기 연사지구 비밀밀영을 책임지고 싸우다가 희생되였지. 그리고 이 애의 아버지 박창성과 저 애의 아버지 신재호는 온성에서 오중성의 뒤를 이어 지하투쟁을 하다가 일제에게 체포되여 옥사했고…

오중성, 온성지구의 첫 국내당조직책임자,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쾌활했던 그에게도 아들이 있었지. 그것이 1934년 초가을이였던가, 내가 그의 비보를 받고 십리평에 있는 오태희로인의 귀틀집을 찾아갔던것이…

아직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무엇인지 모르는 오중성의 서너살난 어린 아들이 내 무릎우에 앉아 싸창갑만을 신기하게 만지작거렸었지.

그 애가 살아있으면 열다섯살이 넘었을텐데. 그리고 오중흡이에게도 그만한 딸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되였는지…

오중화, 오중성, 오중흡, 오중협, 오중보, 오중영… 무려 17명이나 되는 오씨가문의 끌끌한 자식들이 조국해방을 위한 성전에 목숨을 바쳤다. 그 유가족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있는지?…

김일성동지께서는 희미한 별빛이 비쳐드는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창문가에 마주놓은 책상우에서 담배갑을 집어들고 담배 한가치를 뽑아드시였다.

성냥불을 켜려던 그이의 손이 주춤 굳어지셨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새근새근 귀전에 들려왔던것이다. 담배연기가 그 애들에게 좋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시였다. 그이께서는 아이들때문에 담배를 단념하시고 그것을 책상우에 도로 내려놓으시였다.

(아이들때문에?…)

불쑥 이렇게 자문하시였다.

그제서야 그이께서는 이밤 잠 못들고 뒤척이지 않으면 안되는 그 사연을 깨닫게 되신듯 했다. 아이들때문에 담배를 피울수 없으신것이 아니라 실은 아이들때문에 즐기지도 않는 담배를 자신도 모르게 찾아드셨던것이 아닌가.

그렇다, 아이들때문이였다. 단순히 애국미문제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저 애들의 잠투정때문도 아니다.

아이들의 잠투정을 받을수 있다면 오히려 밤마다 발편잠을 잤을것이다. 갈갬질을 하며 잠투정을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잠자리가 편안하다는것이 아니겠는가. …

그런데 지금 그런 편안하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잘수 있는 애들이 과연 몇몇이나 되겠는가. 추위에 떨것이다. 헐벗고 굶주림에 울것이다. 일제에게 량부모를 다 잃은 유자녀들은 더 말할것도 없거니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 해도 그 사정이 더 나을것은 없을것이다. 왜놈세상에선 혁명가의 자식이라 하여 그 누구

보다 더 혹심한 천대와 압박속에서 살았을것이고 공부같은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자랐을것이다.

아,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기 위하여 항일의 혈전장들에서 피흘리며 쓰러진 렬사들이 그 얼마였던가!

만주광야에서, 철창속 단두대우에서…

문득 며칠전 조기천이 써가지고 왔던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구절구절이 삼삼히 떠오르시였다.

…
이 나라의 초부들이여
부디 삼가 나무를 베이라—
우리 선렬의 령을
그 나무 고이 지키는지 어이 알리
부디 삼가 길옆에 놓인 돌 차지 말라—
우리 선렬의 해골이
그 돌밑에 잠들었는지 어이 알리!
…

가슴이, 못 견디게 가슴이 미여져왔다.

과연 나무를 베지 않는 그것으로 그들의 령혼을 다 지켜줄수 있단 말인가. 길옆의 돌을 차지 않는 그것으로 그들의 넋을 다 지켜줄수 있단 말인가. …

그들의 혼은 오늘도 잠들지 못하고 밤마다 나를 부르고있다. 이 추운 겨울날 홑옷바람으로 꿈속에서도 나를 찾고있다. 나라가 해방된 오늘날에 와서도 의지가지할데 없는 이 세상에 남기고 간 자기 자식들 근심으로 하여 고이 잠들지 못하고있다.

그렇다, 아이들때문이다. 내가 잠들수 없는것도 바로 그 아이들때문이고 렬사들의 넋이 잠들지 못하는것도 다름아닌 아이들때문이다.

저 동북광야에만도 헐벗고 굶주리는 유자녀들, 정처없이 방랑하는 불쌍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 어찌 희생된 동지들의 령혼이 안식을 찾을수 있으랴. 이제 더는 그 애들을 말아키우는 문제를

미룰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 안길이 정숙동무에게 말했다고 하듯이 이 집 뜨락에서 그 애들을 다 키울수는 없다. 열백번을 그렇게 하고싶지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수많은 유자녀들을 모두 한품에 안아 보살펴줄수 있는 큰 학원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그이께서 어제오늘에 비로소 생각하신 문제가 아니였다.

해방된 조국땅에 개선하신 첫날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원쑤들의 흉탄에 쓰러진 전우들의 시신을 품에 안고 가슴을 치던 항일전의 그 나날부터 생각하신 문제였고 굳혀오신 결심이시였다. 그래서 건당, 건국, 건군의 3대로선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지방들에 정치공작원들을 파견할 때에도 유가족들을 찾을데 대한 과업을 함께 주시였고 1945년 9월 25일에는 애국렬사들의 유가족들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들에게 사상정신적 및 물질적후원을 주기 위한 반일애국투사후원회 (1946년 12월부터 북조선애국투사후원회로 개칭됨)라는 상설적인 대중조직부터 먼저 무어주시였다. 그러한 조직사업들이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은을 내기 시작하였다.

행처는 물론 생사여부조차 모르던 혁명가유가족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기 시작했던것이다. 물론 아직은 그것이 국내에 한정된것이긴 하였지만 약 300명가량의 유자녀들을 장악하고있다는 애국투사후원회의 보고는 그이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하였다. 하긴 유자녀들의 소식을 알기 위해 자신께서 걸으신 길은 그 얼마이며 써보낸 편지는 또 얼마였던가. 하지만 그 애들의 소식은 모르면 몰라서 걱정이였고 알면 또 알아서 걱정이였다. 아니, 아는 걱정이 오히려 더 큰듯싶으시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현실적인것이기때문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개선후 처음으로 만경대고향집에 가셨을 때의 일을 생각하시였다.

1945년 10월 14일 평양공설운동장에서 개선연설을 마치시고 그리운 할아버님, 할머님을 만나뵈왔던 잊지 못할 만경대의 그밤.

《아버지, 어머니는 어데다 두고 이렇게 혼자 왔느냐. 같이 오면 못 쓴다더냐!》하시며 모진 세월의 고초가 새겨진 깊은 주름마다에 눈물을 묻으시던 할머님의 그 모습…

감격적인 상봉과 간소한 축하연도 끝나고 할머님이 손수 낳으신 무명으로 꾸민 이불을 덮고 할아버님곁에 누우셨건만 스무해만에 돌아온 고향집의 그밤은 정녕 잠들수 없는 밤이였다.

아버님 생각, 어머님 생각, 삼촌과 동생 생각… 그중에서도 사무쳐오는것은 항일의 혈전만리를 함께 헤쳐오다가 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먼저간 못 잊을 전우들의 모습이였다.

장군님의 고향이자 자기들의 고향이라고 하면서 나라가 해방되면 일가식솔을 다 데리고 만경대에 와서 함께 살고싶다고 하던 그들을 이역땅에 묻고 이렇게 홀로 오신것이다.

가슴에 덮은 이불이 천근만근으로 내려누르는듯싶었고 바닥에 깐 멍석도 바늘처럼 등에 배겨왔다.

《구들을 다시 하느라고 뜯어놓다보니 잠자리가 불편한 모양이로구나. 20년만에 고향에 온 널 이 멍석우에 눕혔으니…》

먼저 잠드신줄 알았던 할아버님이 나직이 하시는 말씀이였다.

《아닙니다, 할아버님. 왜놈들과 싸울 땐 멍석은커녕 가랑잎이나 눈판우에서 자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생사운명을 같이하던 전우들을 그 거치른 땅에 묻고 이렇게 누워있자니 마음이, 마음이 아파서 그럽니다.》

눈굽이 핑 젖어드시였다. 뜨거운것이 자꾸만 솟구쳐오르시였다.

《그 성정이 꼭 네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래야지. 장군의 마음이야 그래야지.》

할아버님의 목소리도 저으기 갈리신다.

《할아버님, 제 산에서부터 생각해오던 문제인데 장차 그들을 모두 만경대에 데려오려고 합니다.》

《으-응?… 그들이라는건?…》

《그들의 자식들 말입니다. 할아버님, 할머님이 승낙하신다면 희생된 동지들의 자녀들을 다 찾아다가 여기 만경대에서 키우고싶습니다.》

할아버님의 마디진 거치른 손이 손등우에 덧놓이신다.

《승낙하구말구. 아무렴 내 증손주들을 만경대에서 키우지 않구 어디서 키우겠니?!》

뜬눈으로 지새우신 그날밤의 만단사연을 다 말해 무엇하랴.

하기에 그이께서는 이튿날 고향사람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장군님 탄생하신 여기에 세상사람들 보란듯이 《**김일성**중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만경대사람들에게 《이곳 만경대에는 과거에 나라를 찾으려고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싸우다가 희생된 혁명가들의 자녀들을 공부시킬 학원을 세우자고 합니다. 만경대는 경치가 아름답고 평양이 가까우므로 여기에다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학원을 건립하면 좋을것입니다. 만경대에 학원을 건립하고 유자녀들을 데려다 공부시키면 그들을 새 조국건설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울수 있을것입니다.》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던것이다.

이제는 그날의 그 선언을 현실로 구현할 때가 왔다. 하다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학원을 일떠세울것인가?

학원은 단순한 집도 아니고 단순한 학교도 아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보금자리인 동시에 배움터다. 이러한 종합적인 생활터전, 교육터전을 마련하는 일은 결코 욕망 하나로 이루어질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형편은 아직 이 모든 부담을 감당할만 한 능력이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오늘날 그것을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밑천은 다름아닌 애국미뿐이다.

애국미! 인민들이 건국을 위해 써달라고 보내준 애국미, 그 애국미를 학원을 세우는데 쓰는것이 과연 옳은 처사이겠는가?…

김일성동지께서는 리성의 이 마지막물음앞에 다시금 자신을 세워보시였다.

심장의 박동이 쿵쿵— 울려왔다. 옳다! 이것은 단순히 그 어떤 인간적인 감정의 요구만이 아니다. 이것은 건국이라는 위대한 위업성숙에 자신들의 청춘과 생명으로써 뿌리가 되여주고 초석이 되여준 혁명렬사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인 동시에 그들의 고귀한 피와 넋이 그대로 살아숨쉬는 새 나라를 세우려는 인민의 의지, 인민의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이다. 학원을 세우는것은 결코 오늘의 건국사업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 역시 건국사업이다. 아니, 새 나라의 미래를 키우기 위한 건국중의 건국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이께서는 문득 평양문화인협회 회장이였던 최명익에게 우리 말

교재를 부탁하시던 일이 생각나시였다.

해방전 처녀작 《비오는 길》을 발표하여 문단에 등장한 후 애국적인 소설들을 많이 써서 인민들속에 명망이 높던 최명익을 반갑게 만나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금년도 1월 1일을 맞으며 〈어린 동무〉 창간호에 실린 선생의 글을 보았습니다.》하시며 그를 치하해주시였다.

《요즘 무슨 글을 쓰고있습니까?》 하고 물으셨을 때 그는 《제 미흡한 재간이지만 불세출의 위인을 형상한 력작을 구상하고있습니다.》 하며 매우 흥분하여 대답올렸다.

《전번에 만났을 때에는 서산대사를 형상한 력사소설을 쓸 결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잠간 뒤로 미뤘습니다. 제가 새 작품을 구상한것은 건국위업에 절실한 도움을 줄수 있는 글부터 써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를 따랐다기보다 항일대전의 영웅을 노래하고싶은 작가적충동이 더 컸다고 봐야 옳을것입니다.》

《최선생, 제 부탁을 하나 들어줄수 있겠습니까? 이자 선생이 말한것처럼 건국에 제일 중요한 일이여서 그럽니다.》

《장군님, 어서 하명해주십시오.》

《우리 말 교재를 하나 써줄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어딜 가나 문맹퇴치운동이 벌어지고있는데 똑똑한 우리 말 교재가 없어서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나라의 흥망성쇠, 만년대계와 관련되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닙니까?》

《…》

《선생이 그 일을 해주신다면 건국에 대단한 기여를 하는것으로 될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장군님!》

처음엔 몹시 놀라와하다가 경건히 머리를 숙이던 최명익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였다. 그후 그는 짧은 시일안에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우리 말 교재를 훌륭하게 완성함으로써 문맹퇴치와 어

린이들의 교육사업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생각에서 깨여나신 그이께서는 책상우에 놓았던 담배를 다시 집어들고 방문을 나서시였다. 복도의 저편 방쪽에서 고르로운 동음소리가 들려왔다. 귀여겨 들으시니 재봉기소리 같았다.
이 깊은 밤중에 무슨 일로 재봉기를?…
그이께서는 그곳으로 다가가시였다. 방문을 슬며시 밀어보니 안쪽으로 두터운 모포가 걸려있었다.
사르릉 사르릉… 재봉기는 김정숙동지께서 돌리고계시였다. 그 옆에는 형권삼촌의 유일한 혈붙이인 영실이가 천을 자르던 모양인지 가위를 손에 든채 졸고있었다. 원래 초저녁잠이 많은 앤데 아마 형님의 일손을 돕겠다고 앉았다가 더 견디지 못하고 잠에 든 모양이다.
《왜 아직도 쉬지 않소?》
그이의 물으심에 재봉기소리가 멎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죄스러운 기색으로 돌아보시였다.
장군님께서 주무시는줄 알고 재봉일을 시작했던 그이이시였다. 그리고도 안심치 않아 방문에 모포를 덧쳐놓아 방음대책까지 세우느라 했건만 이렇게 장군님의 귀중한 휴식에 방해가 되였으니…
《걱정마오, 재봉기소리때문에 잠들지 못한건 아니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겹게 미소를 지으시며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재봉기옆에 놓인 자그마한 바지를 집어드시였다.
지금 재봉기시침을 물고있는것도 그러한 작은 바지였다.
그이께서는 묻는듯 한 눈길로 김정숙동지를 바라보시였다.
《저 애들에게 갈음옷이 한벌씩 있어야 하겠기에… 사내애들이 돼나서 단벌옷으로는 안되겠습니다.》
《허허… 난 지금껏 앉아 걱정만 하고있었는데 정숙동문 이렇게 아이들의 새옷을 짓고있구만.》
《장군님, 정말이지 유자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그이의 말씀에 **김일성**동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어찌 그의 마음인들 다를수가 있으랴. …
《정숙동무, 솔직히 말해서 내 다른 일들은 크게 걱정되지 않소.

정규군건설사업도 그래, 앞으로 공화국을 세우는 사업도 그래 배심도 든든하고 또 방도도 뚜렷하거던.》

그이께서는 손에 들었던 바지를 재봉기옆에 놓으시고 천천히 방안을 거니시였다.

《그런데 아이들만은…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거던. 부모없이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며 고생하고있을 그 애들을 생각하면… 그러다가 골병을 만나거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가 먼저간 동지들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겠소.》

그이의 목소리가 잠겨들었다. 창가에 서시여 저 멀리 밤하늘가를 이윽토록 바라보시였다.

오돌오돌 떠는듯 한 먼곳의 뭇별들마저 애처로운 아이들의 모습처럼 그이의 눈에 비껴들었다.

《만사를 제껴놓고서라도 유자녀들문제부터 풀어야 하겠소.

하루빨리 학원을 세워서 희생된 혁명동지들과 애국렬사들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공부도 시키고 생활도 돌봐줘야겠소. 그 애들이 자기 부모들의 뜻을 잇도록 말이요.》

그이의 뜨거운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번뜩이고있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김정숙동지의 눈가에도 구슬같은 맑은것이 어려있었다.

5

평천리에 자리잡고있는 보안간부훈련대대부청사는 일제때 병기창고로 쓰던 여러동의 건물을 개조한것이였다.

장차 한 나라의 무력전반을 통솔하게 될 군지휘기관의 청사로서는 너무도 초라하고 비좁았다. 당장 창고자리를 품들여 칸칸이 막을 형편이 못되여 여러개의 부서들이 가름막을 치고 한방에서 일을 보고있었다.

그러나 한푼의 자금이라도 쪼개쓰지 않으면 안되였던 당시의 실정에서 누구나 이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겼다.

참모장인 안길의 사무실 역시 다른 방들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었는데 남다른것이 있다면 그의 수수한 책상우에 석대의 군용전화기가 놓여있는것뿐이였다.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땐 엄동설한에도 천막 하나 치고 생활하군 했소. 거기에 비하면 여기야 선생이지. 지금 새로 조직된 일부 중대들은 병실도 없이 야전조건에서 생활하고있소. 그러니 청사개조요, 보수요 하는건 꿈도 꾸지 마오. 군인들의 병실문제부터 해결하는게 급선무요.》

안길은 이렇게 아래일군들을 각성시키는 한편 자기가 직접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해당 부서들을 발이 닳도록 찾아다녔다.

장군님께서 제2소의 부족되는 병실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몸소 그 머나먼 길을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 여기서 방도를 찾아내여 그이의 고생을 덜어드리고싶었던것이다.

그러나 일은 좀처럼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해당 부서의 일군들은 애초에 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보안간부훈련소들이 적산으로 넘겨받은 건물들을 많이 차지하고있는데 그것들을 일부 조절하여 개인상공업자들에게 임대해줌으로써 나라의 긴장한 재정형편을 조금이라도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를 설복하려드는판이였다. 안길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복도에 나와 분을 삭이고 섰노라니 정말이지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보다 나라를 세우는 투쟁이 더 어렵고 힘겨울것이라고 하신 장군님의 가르치심이 새삼스럽게 가슴에 사무쳐왔다. 그럴수록 그 복잡다단한 건국사업을 이끄시느라 애쓰며 속태우시는 장군님의 사업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지는 못할망정 부담만 얹어드리는 자신이 화가 날 정도로 민망스러웠다.

안길이, 넌 도대체 뭘하는 사람이냐? 경제사업이나 다른 일들이라면 몰라도 어째서 군대일 하나만도 씨원스레 받들어드리지 못하고있느냐? 우리에게 사람이 없는가? 최현, 강건, 김일, 최춘국, 최광, 류경수, 오진우, 최용진… 군대일에서는 말그대로 제노라 하는 빨찌산의 용장들만 한가득 모여있지 않는가. …

장군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에서 그처럼 많은 일군들이 절실하게 요

구되셨지만 항일전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절대다수의 투사들을 정규군창설사업에 아낌없이 다 돌려주시였다. 이것은 정규군창설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 중대한 사업을 믿음직하게 수행해나가길 바라시는 그이의 커다란 기대를 말해주는것이였다. 그런데 군건설의 중책을 맡은 참모장이 이렇게 앉아뭉개고있으니. …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죄송스러웠다.

안길은 발길을 돌려 김책을 찾아갔다. 그한테라고 무슨 용빼는 수가 있으랴만 그래도 그를 통해 함경북도인민위원회사람들을 움직여볼 생각이였다.

김책의 사무실은 몹시 분주하였다. 산업국과 교통국사업까지 맡아보는 부위원장의 방이여서 그런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길줄 몰랐고 한번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무엇을 그리 끈덕지게 조르는지 좀처럼 쉽게 나올념을 안했다. 기다리다못해 난처해하는 서기의 얼굴을 못 본척 하고 방안에 들어섰으나 일여덟명의 사람들에게 에워싸인 김책은 그에게 얼핏 눈인사만 보낼뿐 마주볼 생각도 못하였다.

한참후에야 김책이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일군들에게 안타깝게 어조를 높이였다.

《자 자, 동무들! 우리가 첫 인민경제계획을 그 무슨 재정적담보나 그 누구의 원조를 믿고 세웠소? 바로 동무들의 애국열의와 건국의지를 믿고 세운거란 말이요. 그에 대해서야 일군들인 동무들자신이 더 잘 알고있는 문제가 아니요. 물론 동무들의 그 심정만은 리해할만 하오. 그러나 그 자금만은 절대로 넘겨다보지 마오. 그건 이미 새 나라를 일떠세우는데서 가장 절박한 사업에 쓰기로 결정되였단 말이요. 내가 말할것은 이상이요. 다들 돌아가 일들을 보시오.》

일군들이 방에서 나가자 김책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미안하오, 오래 기다리게 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길은 지친 기색으로 의자에 앉는 그에게 넌지시 물었다.

《그 자금이라는건 대체 뭡니까?》

《허, 이젠 안길동무까지도 욕심이 나는 모양이다?》

《하하… 아닌게아니라 귀가 버룩해집니다. 요새 구분대들의 병실

문제때문에 신경을 쓰다나니…》

안길은 그의 곁에 앉으며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털어놓았다.

김책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심정도 안길동무와 다를바 없소. 우리가 언제면 장군님의 사업부담을 덜어드릴수 있겠는지.

장군님께서는 래일 아침 라남으로 떠나시겠다오.》

《예? 래일 당장 말입니까?》

《그렇소. 한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전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중임을 걸머지고 안타까와하는 안길동무를 도와주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내려가 문제를 풀어줘야겠다고 하시였소. 정말 동무나 내나 장군님앞에 면목이 없게 됐소.》

그의 자책어린 말을 들으며 안길은 머리를 푹 수그렸다.

어떻게 해서나 장군님의 로고를 덜어드릴수 있도록 자기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일은 우려했던대로 번져지고만것이다.

《그럼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동무야 어제 돌아온 사람이 아니요. 장군님께선 동무의 건강을 걱정하시면서 이번 길엔 떨구고 가자고 하시였소.》

《장군님께서요?》

온몸으로 전류같은것이 찌르르 흘렀다.

그래서 장군님께서 라남으로 가시는 문제를 이 참모장이 아니라 김책동지에게 말씀하시였구나!…

《김책동지, 나도 꼭 가야겠습니다. 나야 참모장이 아닙니까.》

《원, 사람두…》

안길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출입문가까이에 이르러 그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다시 떠올랐다.

《김책동지, 아까 말하던 난데없는 그 자금소리는?…》

《오― 난데없다니?! 아무렴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소? 애국미 말이요, 우리 농민들이 장군님께 삼가 올린 그 애국미를 두고 하는 소리요.》

《예―에.》

리해가 되였다. 어제 허가이가 애국미를 두고 하던 말들이 생각났다. 역시 그걸 넘겨다보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데 애국미를 어디에 쓰기로 결정했습니까? 아까 분명 그렇게 말씀하는걸루 들었는데…》

안길은 말끝을 흐리였다. 김책의 얼굴에 진중한 빛이 어렸던것이다.

《그렇소, 오늘 아침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애국미를 종합대학교사와 유자녀학원을 세우는데 쓰기로 토론되였소.》

《예? 종합대학과 학원… 말입니까?》

안길은 뜻밖의 소식앞에서 굳어져버렸다.

《동무도 놀라는군. 하긴 다들 그렇게 놀랐소.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애국미를 의의있고 빛이 나게 써야 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여러 동무들의 제기를 받고 지금껏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았는데 애국미는 혁명가유자녀들을 공부시킬 학원건설자금으로 쓰는것이 좋겠다고, 오늘 우리앞에 나선 수많은 건국사업가운데서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사업은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것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소. …》

김책의 말은 계속되였으나 안길의 귀에는 더이상 들리지 않았다.

왜서인지 그의 머리속에서는 《애국미》, 《학원》이라는 두 단어가 전기로에 박힌 두 전극처럼 붕붕 요란한 소리를 내며 세찬 방전을 일으키고있었다. 심장에서는 그 무엇인가가 쇠물처럼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였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그 단어들이 이제는 어쩐지 하나의 동의어처럼 그의 가슴을 울리고있었던것이다. 물론 장군님께서 유자녀들을 위한 학원을 세우실 결심을 오래전부터 품고계시는바를 안길이 몰랐던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지금처럼 해야 할 일이 많은 때에, 어렵고 힘겨운 때에 그런 용단을 내리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로서는 장차 정규군창설과 공화국창건을 이룩하고 나라의 경제형편이 일정하게 펴이는데 따라 진행할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렇게도 빨리 진척될줄이야!…

《안길동무, 장군님께서 애국미를 조국의 먼 앞날을 위해 쓰실 결심을 내리시기까지 얼마나 심중이 복잡하고 무거우셨겠소. 모든 사

람들이 저마다 절박성을 내세우면서 매일같이 장군님께 손을 내밀고 있는 지금의 나라형편에서 말이요. 사실 나부터도 전혀 그런 생각은 못하고 있었더랬소.》

김책의 목소리가 가볍게 떨리였다.

《지난해 우리 아들녀석이 날 찾아왔을 때 장군님께서는 오늘 동무의 아들을 찾고보니 먼저 간 혁명동지들의 자녀들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고 몇번이나 외우시였었지. …

그런데 이 김책인 자기 하나의 행복에 겨워 지금껏 장군님의 그 아픈 마음을 미처 헤아려드리지 못했거던.》

《…》

《멀었어, 정말 멀었어. 늘 장군님곁에서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살면서도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데서는 아직 소학교학생수준이거던. 하긴 늘 성상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여 누구나 다 성인이 되는건 아니랬지?! 허허…》

《김책동지!…》

안길은 달아오른 가슴을 애써 누르며 그에게 한걸음 다가섰다.

격정에 싸인 두사람의 강렬한 눈빛이 마주쳤다.

《이제 애국미를 학원창립을 위해 쓰면 유자녀들을 위한 사업이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의미에서도 정치적의의가 클것이요. 또 우리 농민들의 애국지성도 길이길이 전해지게 될거구.》

그러더니 김책이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참, 이번에 림춘추의 부탁을 못 들어줬다면서? 그 동무가 좀 섭섭해하는것 같더군.》

《춘추동무가요?》

《그야 그럴수 있지. 림춘추야 조국개선이후로 장군님으로부터 혁명가유자녀들을 찾는 사업을 책임질데 대한 과업을 직접 받은 동무가 아니요. 또 어디 그것뿐이요? 평남도당사업두 말았지, 문예인들과의 사업두 말았지, 독불장군이라구 우리가 곁에서 다들 도와줘야지 혼자서야 어림이나 있는 일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도 나무라는 기색이 없었지만 부드러운 잠자리가 더 배긴다는 격으로 안길은 조용한 그 어조가 가슴에 찔려왔다.

그는 불그스레해진 얼굴로 김책을 바라보며 말했다.

《림춘추보다 김책동지가 더 섭섭해하는것 같군요. …

사실 난 지금 온 정신이 정규군창설사업에 가있습니다. 먼저 간 동지들이 이 안길일 리해해주리라고 자신을 위안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어쩐지 오늘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허허…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끄고는 나도 춘추동무의 일을 적극 돕겠습니다.》

《안길동무한테 언제 그런 통시간이 차례질가?》

《글쎄 그렇긴 한데…》

두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가볍게 웃었다.

6

김월송은 사무실책상 건너편 의자에 지쭞게 눌러앉아 자기를 쳐다보는 라성환부위원장의 시선을 외면해버렸다.

애국투사후원회의 같은 부위원장이긴 하지만 상무부위원장격인 선생이 무슨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끈질긴 물음이 그 시선에 비껴있었던것이다. 월송은 그의 눈길을 의식하지 못한듯 아니, 그의 존재자체를 아예 잊은듯 지그시 두눈을 감아버렸다.

안경을 낀 갱핏한 그의 얼굴에는 복잡다단하고도 기나긴 인생행로를 말해주듯 뒤엉킨 실오리같은 주름발들이 얼기설기 새겨져있었다.

그 수많은 주름발들의 흰 뿌리인듯싶은, 아니면 얼굴에는 더 새길자리가 없어 주름발들이 턱밑으로 오리오리 뻗어내린듯싶은 흰 수염채가 그의 무거운 고뇌처럼 드리워져있었다.

아닌게아니라 지금 월송은 새삼스럽게 자신의 늙음을 자탄하고있었다. 사람의 나이 일흔이면 고목임이 틀림없으련만 엊그제까지만도 그는 전혀 자기의 늙음을 잊고 살았던것이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지난해 중국 할빈땅에까지 몸소 사람을 보내시여 그를 평양으로 불러주시고 애국투사후원회 부위원장의 중임까지 맡겨주신 그날부터 월송은 말그대로 갱소년되여 살아왔었다. 그런데

모쁘르요 뭐요 하는 허가이와 라부위원장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애국미문제를 놓고 장군님의 뜻과는 달리 처신하였으니 이 아니 망녕이라 하겠는가.

(이젠 늙었어. …)

월송은 점점 더 깊은 생각에 잠겨들었다.

…그의 본명은 김형식이였다. 19세기 말엽 경상북도 안동의 봉건량반가문에서 태여나 자란 그는 출세와 부귀영달의 길을 찾은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의병투쟁의 길에 나섰다. 일제가 조선땅에 기여들어 제집뜨락처럼 싸다니며 조선사람들을 멸시하고 민족적풍속까지 더럽히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었던것이다. 민생과 민족의 운명을 바로 잡는 이 길에서 일생을 달처럼 밝고 정갈하게, 소나무처럼 푸르싱싱하게 살리라 마음먹고 자기의 호를 월송이라고 달았다.

청춘시절 홍범도의병대에 들어가 화승총을 잡고 왜적들과의 싸움에서 적지 않은 피도 흘렸으나 옳바른 투쟁방략과 변변한 무장을 갖추지 못했던 의병투쟁은 끝내 마가을의 락엽처럼 운명을 고하고 그는 정든 고국산천을 눈물속에 하직하고말았다. 제 나라, 제땅을 두고 왜놈들에게 쫓겨가야만 하는 그 억울하고 절통한 심정이 그의 눈물속에 응축되여 흘러내렸다.

…
우습고도 비통하다 무국지인 된단 말인가
칼도 창도 못 써보고 이 지경 된단 말인가
나라 빼앗긴 백성은 살아도 죽은 몸이라
그렇다고 어찌 그저 죽으랴!

가슴속에 끓어넘치는 울분을 이 《분통가》에 담아 읊으며 그는 나라의 지경밖을 나설 때까지 10여일간이나 물을 마시지 않고 가랑잎에 맺힌 이슬로 갈증을 이겨냈다. 누군가가 그 사연을 물었을 때 그는 《내가 겪는 갈증도 다 왜놈들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갈증을 참고견디면 왜놈과 싸워서 이기는거라고 생각한다네. 그렇게 해서라도 쾌재를 부르고싶네.》라고 말해주었다. 월송은 그때부터

이국땅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한 운동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갔다. 조선사람들을 규합하여 독립운동의 기반을 닦는 사업에 참여했고 군사강습소를 설립하고 독립군지휘관양성에도 앞장섰으며 상해림시정부사업에도 관여하였다. 그러나 파벌싸움과 권력다툼으로 쇠퇴해가는 독립운동의 앞날을 개탄하며 종당에는 림정과 결별하고 말았다.

그가 만일 이 시기에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을 만나뵙지 못하였더라면 희망을 잃고 목숨을 버리고말았을것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의 선배로 따뜻이 불러주시며 그의 높은 애국열의와 깨끗하고 대바른 성격을 존중해주시였다.

월송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이께 몸과 마음이 끌리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자기 힘을 믿고 자력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심원한 진리와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지원의 사상, 저마끔 뿔뿔이 흩어져 산발적으로 활동하던 독립군부대들을 하나로 묶어세워나가시는 뛰여난 지도력, 자기의 보잘것없는 경력도 크게 여겨주시며 한품에 안아주시는 넓으신 포용력, 고결한 인품과 따뜻한 인정미…

그날부터 월송은 지원의 사상을 받들고 독립운동의 새 출발을 시작하였다. 그는 정의부의 요직에 있으면서 때없이 김형직선생님을 찾아가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군 하였으며 자그마한 전투성과도 남먼저 달려가 알려드리군 하였다.

강반석녀사께서도 그가 찾아올적마다 독립운동을 위해 가정도 이루지 않고 뛰여다니는 그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시려고 옷가지도 빨아주고 끼니도 끓여주시였으며 넉넉치 못한 살림속에서도 지성을 다하여 도중식사와 로자까지 마련해주군 하시였다. 그럴 때마다 월송은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녀사의 은정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나라가 독립된 다음 꼭 은혜를 갚아드리겠노라고 진정으로 말하군 하였다. 그러던 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였다. 그의 눈앞은 캄캄해

졌다.
(이제 누가 조선의 독립운동을 이끌어줄수 있단 말인가. 아, 하늘도 무심하구나!)
그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일제의 극악한 《토벌》공세앞에서 독립운동은 산지사방으로 흩어졌고 독립운동자들은 세력다툼이나 하면서 군자금을 거두어들이는데만 몰두하였다. 한생을 통해 파쟁을 질시해온 그로서는 어디에도 갈데가 없었다. 물론 월송은 **김일성**장군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손에 무장을 잡고 일제와의 전면적인 대전을 선포하시였다는것을 모르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의주장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 투쟁에 용약 뛰여들지는 못하였다.
그는 만주사변을 전후하여 일제의 《토벌》공세에 독립군부대들이 사방으로 흩어져갈 때 이루지 못한 뜻을 가슴에 품은채 반일독립의 총을 놓고 은신했다. 혼자만이라도 파쟁에 말려들지 않고 깨끗이 살고싶었던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은거생활은 조국이 해방된 이듬해까지 계속되였다.
그런데 천만뜻밖에도 자기 운명의 구세주로, 삶의 은인으로 우러르던 김형직선생님의 자제분께서 그를 해방된 조국땅으로 불러주시였다. 이제는 성 쌓다 남은 돌처럼 그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늙은이의 민족적량심과 애국적지조를 귀중히 여겨주시는 **김일성**장군님의 고매한 덕망앞에서 월송은 흘러가버린 그 시절의 김형직선생님의 체취를 다시금 느끼였다.
그는 황황히 길을 떠났다. 민족주의자로서의 체면도 가리지 않았다.
그저 김형직선생님의 자제분이 계시는 평양, **김일성**장군님께서 정사를 펴시는 평양만을 생각했다.
해방조국의 격동적인 현실은 그의 가슴에 재생의 환희와 열망을 안겨주었다. 더우기 북조선애국투사후원회 부위원장의 중임을 맡은 후로는 밤잠도 잊어가며 한사람의 유가족이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뛰여다녔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어떻게 그런 기력이, 넘쳐나는 왕성

한 기력이 있었는가 하고 스스로 놀라군 하였다.
하긴 장군님께서 늙은 몸에 일을 하자면 힘에 부칠것이라고 나라에 몇대밖에 안되는 승용차까지 전용으로 배려해주시였으니 어찌 그것을 자신의 기력으로 렴치없이 생각할수 있으랴.
어쨌든 자신의 미약한 힘이나마 아낌없이 바치는것이 못 잊을 그 시절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녀사께 나라가 독립된 다음 꼭 은혜를 갚겠노라고 다졌던 그 맹세를 조금이나마 지키는 길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았다. …
그런데… 그런데 이번 일만은…
자기딴에는 희생된 렬사들을 그리도 잊지 못해하시는 장군님의 그 마음을 풀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던노릇이 그만 늙은이의 주책머리없는 짧은 생각이였을줄이야! 생각해볼수록 분명 잘못된 생각이였다.
하루이틀, 한두끼 잘 먹여준다고 유가족들의 운명이 조금도 달라질수 없다는거야 삼척동자도 내다볼 자명한 리치가 아니였던가.
장군님께서는 혁명렬사들의 유지를 이어 그의 자녀들모두를 나라에서 맡아키울 큰 학원을 세울 결심을 하셨는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기둥뽑아 이쑤시개로나 쓸 그런 허망한 생각을 하였으니…
(정말 늙었어! 장군님의 큰뜻을 받들기에는 너무 늙었어. 하긴 지원의 뜻을 지니셨던 김형직선생, 그분의 자제분이 아니고서야 그 어느 누가 그런 용단을 내리실수 있으랴! 그런데도 그분께서는 이 늙은것의 소견을 나무람할대신 오히려 유가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고맙다고 치하해주시였지. …)
월송은 흰 수염채를 한손으로 짜악 그러잡았다.
늘 기분좋게 쓰다듬군 하던 그 허연것이 오늘처럼 이렇게 민망스러워보이기는 처음이였다.
《월송선생님이 애국미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기 정 난처하면 나라도 찾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송의 오랜 침묵을 자기나름대로 짐작한 라부위원장이 더 참지 못하고 내쏘듯 던지는 말이였다.
《어찌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소문이 나서 지방의 애투(애국투

사후원회의 략칭)들에서도 대단한 기대를 걸고있는데 인제와서 맨손바닥을 펴보일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리구 쏘련의 모쁘르사람들에겐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부위원장은 자못 심각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그 행동이 꼭 허가이의 모양을 보는것 같아 월송은 쓰거운 입맛을 다셨다.

라성환은 한때 함남도당의 오기섭이밑에서 도애국투사후원회사업을 맡아보았다고 한다. 그후 그의 추천으로 평양에 올라왔는데 이즈음에 와서는 허가이쪽에 더 극성이라고 한다. 그렇다더라 하고봐서 그런지 라부위원장의 말투며 행동거지도 다 그를 방불히 닮아가는것 같았다.

월송은 언짢은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라부위원장은 공연한 안달을 하시우. 아무래도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니 응당 하면 될게 아니겠소.》

《아니, 뭘 가지구 어떻게 한다는겁니까?》

《걱정마시오. 장군님께서는 우리 애투에 많은 생산기업장들을 배속시키도록 대책을 취해주시였소.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후원사업을 할수 있도록 말이요.》

《생산… 기업장들을요?》

《그렇소. 정말이지 난 그저 죄송스러운 생각뿐이요. 우리가 그분의 뜻과는 너무도 다른 생각을 했거던.》

《글쎄,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아직 너무 이르지 않을가요?》

월송은 조심스럽게 내비치는 그의 의뭉스러운 말에 눈길을 들었다.

《글쎄 우리한테 장악된 혁명가유자녀들이 한 300명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때문에 큰 학원을 세운다니 말입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월송은 실눈을 짓고있는 라부위원장의 뾰족스러운 얼굴을 놀랍게 바라보았다.

《아직 찾지 못한 유자녀들이 얼마나 많게 그런 소리요. 저 동북땅에만 해도…》

《남의 땅에 흩어진 아이들까지야 어떻게 다 찾아오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그거야 대포쏘아 참새잡는 격이 아닙니까. 올해 사회주의10월혁명승리 서른돐이 되는 저 쏘련에서도 겨우 3～4년전에야 학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야 해방된지 이제 1년 5개월밖에 더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소.》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혁명이라는건 일정한 시일이 흘러가야 유자녀문제가 국가적인 난문제로 제기되는 법이지요. 혁명투쟁은 역시 희생을 동반하기마련이니까요.》

라부위원장이 담배를 피워물었다. 풀풀 내불리는 담배연기가 가뜩이나 불쾌해진 월송의 심기를 더욱 자극했다.

《그러나 우린 아직 국가도 세우지 못한 형편이 아닙니까. 이런 형편에서 학원창립은 앞으로의 국가창건에서 복잡한 문제들을 산생시킬수 있는 예민한 정치적요소로 될수 있습니다. 지금 허가이동지도 바로 이 문제를 제일 우려하고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경을 쓰든 **김일성**장군님께서 유자녀학원부터 세우실 결심을 하셨을 때에야 그것이 제일 절박하고 중대한 건국사업이기때문이 아니겠소. 난 민족이 낳은 애국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인간의 의리를 제일로 내세우는 그런 나라를 세우실 의지가 장군님의 그 결심에 담겨있다고 생각하오.

내 그 뜻에 감복했고 그 뜻을 늦게나마 깨달았기에 더더욱 자신의 미련함이 한스러울뿐이요.》

월송의 마디마디 격한 어조에 라부위원장의 얼굴이 표표해졌다.

아니, 그렇게 느껴졌다.

《난 월송선생님이 그러한 립장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고루한 민족주의자라는 좋지 못한 평판을 듣지 않겠는지 걱정됩니다.》

라부위원장이 미묘한 어조를 남기고 나갔다.

열려진 방문으로 차거운 바람이 쓸어들어왔다.

월송은 수염발을 날리며 오래도록 한자리에 서있었다.

7

림춘추는 미술가동맹사업을 맡고있는 정관철로부터 급히 나와달라는 전화부탁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막 방문을 열고 나서려는데 뜻밖에도 불쑥 안길이 들어섰다.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 산하부대들이 있는 함경북도일대에 나갔다가 돌아온지 한주일정도 되는지는 알고있었지만 직접 만나기는 처음이였다.

림춘추는 무등 반가와 그의 손을 마주잡았다.

《안길동지! 이거 오래간만입니다.》

《춘추동무! 그새 잘있었소?》

그들은 서로 얼싸안다싶이하며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김책동지한테서 들으니 함북도에 갔던 일은 다 잘되였다지요?》

《그렇소, 장군님께서 그곳 도와 군의 여러 기관들이 쓸데없이 적산건물들을 많이 차지하고있는 문제를 바로잡고 합리적으로 조절배치해주시여 제2소의 병실애로를 풀어주셨소. 강건이랑 최용진이랑 이젠 숨을 내쉬게 됐지. 물론 이 안길이도 말이요, 하하…》

《글쎄 그랬으니 이 동생한테까지 올 생각을 다 했겠지요.》

다섯살의 나이차이와 일찌기 룡정대성중학교시절의 선후배간인 연고로 하여 그들은 이렇게 단둘이 마주앉으면 의례히 형, 동생사이로 넘어가군 하였다.

《좌우간 왔던김에 어디 맥이나 좀 봅시다. 얼굴색이 마음에 들지 않소.》

림춘추가 손목을 쥐려 하자 안길이 펄쩍 뛰며 손을 내저었다.

《맥은 무슨… 피곤해서 그래. 내 아무렴 최춘국이나 오진우처럼 임자신셀 질것 같은가, 후배생한테 체면없이…》

《좋수다. 그 선배연하는 태도가 언제까지 가나 두고봅시다. 자기몸에 아직 왜놈들의 총탄이 박혀있다는걸 잊지 마시우.》

림춘추는 짐짓 볼부운 소리로 말했다.

《하하… 나야 자네처럼 우리 항일빨찌산의 력사를 비망록으로 남기지도 못했는데 왜놈총탄이라도 몸에 남겨둬야지. 혹시 알겠소? 그 산증거를 보구 빨찌산력사가선생이 이 안길이도 한페지 써줄지.》

《허참, 롱담은 그만하구 찾아온 용무나 말하시우. 난 사실 정관철동무가 만나자고 해서 막 나가려던 참이우다.》

《오, 작년초까지 평남도당선전부에서 지도원을 하던 그 동무 말이요?》

안길이도 정관철이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그려 장군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를 뜻깊게 보장한 미술가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예, 그 동무가 보천보전투를 형상한 〈보천보의 홰불〉이란 작품을 구상했는데 그 초안을 보고 의견을 달라는겁니다.》

《음, 춘추동무가 문예인들의 심장을 계속 달구어놓는 모양이구만. 얼마전에는 시인 조기천이 〈백두산〉을 내놓더니 오늘은 또 〈보천보의 홰불〉이라. 멋있어! 제목만 들어도 피가 막 뛰누만.》

안길은 지금까지의 롱조를 싹 버리고 만족하여 연방 감탄했다.

그러는 그에게 림춘추는 안타까운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정관철동무에게 보천보전투에 대해 말은 많이 해주었는데 사실 그건 그 전투에 참가했던 동무들의 말을 듣고 비망록에 적어두었던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해준거지요.》

《하긴 그때 춘추동문 최춘국이와 함께 독립려단 당서기로 북만에서 싸웠지.》

안길이 그의 심정이 리해되는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 역시 보천보전투에는 참가하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러니 아무래도 실감이 덜할거란 말입니다. 내 그래서 오늘 나가보고 그 동물 오백룡이한테 보내려고 합니다. 오백룡동무에게 시간을 좀 줘서 그가 미술가를 데리고 한번 보천보를 답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길 들려주게 해주시우.》

《아,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그런 중요한 사업에 사람 하나 붙여주질 못하겠소? 만일 보천보전투에 참가했었더라면 내라도 함께 가주고싶은 심정인데. 내 오백룡이한테 시간을 뚝 떼주지. 그 친구만

큼 보천보전투에 대해 생동하게 말해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소.》
《그러문요.》
《걱정마오. 내 비록 평남도당 제2비서한테 복종하게 되여있진 않지만 그 문제만은 어제날 인민혁명군당위원회 위원 림춘추동지의 당적지시로 알고 무조건 집행하리다.》
옛 방면군 참모장은 부동자세까지 취해보였다.
《하하… 락천적인 그 성격은 여전하시우.》
림춘추는 뜨거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슬며시 손을 잡아쥐였다.
우려한대로 손이 차거웠다. 언제인가 손이 찬것을 걱정하자 안길은 《의사들은 몸이 좋아져도 비만증으로 진단한다더니 빨찌산군의 선생도 다를바 없구만. 손이 찬 사람은 심장이 뜨겁다는건 왜 모르오?》 하고 오히려 림춘추를 시까슬렀다. 그때문인지는 모르나 그는 자기의 우려를 표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근 20년간의 풍부한 림상경험을 가지고있는 그는 안길의 병이 쉽사리 고쳐질수 있는것이 아님을 륙감적으로 느꼈다.
일찌기 중학시절 뒤집에서 살던 의원과의 인연이 연고가 되여 의학공부를 시작했던 림춘추는 연길현 조양천에서 봉춘당약방주인의 간판을 가지고 간도지구 당 및 공청비서처 련락원으로 공작하던 때와 유격대에 입대하여 군의로 활동하던 때에는 물론 그후 독립려단 당서기, 8련대, 7련대 당서기, 동만당공작위원회 책임자,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 위원으로 사업하던 때에도 환자치료를 중단하지 않았었다. 안길의 말대로 최춘국이 전투에서 다리뼈가 부서졌을 때 그의 대수술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으며 오진우도 허벅다리에 부상을 입고 그의 치료를 받아 회복되였다. 더 멀리로는 연길감옥에서 탈옥한 최현이 그의 집에서 6개월동안이나 치료를 받았었다. 그런데 안길이만은 해방된 조국땅에서건만 그 치료가 쉽게 될것 같지 않았다. 이제는 어쩐지 뿌리가 깊어진감이 들었던것이다. 거기에다 안길은 자신의 육체적고통을 조금도 내색하지 않는다. 오직 **김일성**장군님의 정규군건설위업을 실현하는 참모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하는데만 자기의 온넋을 쏟아붓고있다. 안길의 그런 정열, 그런 락천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고통을 모르고있었다. 아마도 이것

이 다름아닌 그가 바라는바일것이다. 안길을 너무도 잘 아는 림춘추로서는 이번에도 건강이니 치료니 하는 말을 꺼낼수가 없었다.

《이보라구, 춘추동무! 내가 동물 찾아온건 싫은 소릴 좀 하자는거야.》

《예— 에?》

그의 뜻밖의 말에 림춘추는 한순간 얼떠름해졌다. 무슨 롱인가 하여 자세히 보았으나 조금도 그런 빛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안길의 표정은 진지하였다.

《우선 사죄부터 할게 있네. 전번에 동무가 부탁했던 심병윤의 가족을 알아보는 문제를 내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지. 이번에 장군님과 함께 강건동무네 제2소가 있는 함경북도에 다시 가서야 난 동무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던 자신을 뼈아프게 자책했네. 장군님께서 그 바쁘신 속에서도 내가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행처를 찾으시려고 몇번씩이나 걸음을 하시는걸 보구서야 말이네.》

림춘추는 놀랐다.

함경북도에서 돌아오신 장군님께서 그들이 나라가 해방되기 몇달전에 중국 동북으로 나갔다고 알려주시기에 그저 그곳 애국투사후원회에서 소식을 알려온가부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이께서 직접 그렇게 수차에 걸치는 걸음을 하셨다니 놀라움과 함께 죄스러움이 가슴에 사무쳐들었다.

《그건… 안길동지가 아니라 내가 사죄해야 할 문젭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수그리며 나직이 말했다.

《아니아니, 이 안길의 결함과 자기의 잘못을 한데 섞지 말라구. 어디 말 좀 해보세, 춘추! 동문 어째서 자꾸만 장군님의 속을 태우나?》

《예?…》

고개를 들었다. 심장이 후두둑 뛰였다.

《이번 길에 장군님께선 동무일을 놓고 얼마나 마음을 쓰셨는지 몰라, 영일이때문에 말이야.》

《!…》

뜨거움이 삽시에 온몸을 화끈 달구었다.

그는 불덩어리같은것을 삼켰다.

《동무도 장군님께서 그 애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가슴아파하셨는가를 모르지 않겠지? 장군님께서 왜 그 애의 이름을 영일이라구 지어주셨는지도…》

안길의 목소리도 저으기 떨렸다.

《그만하십시오.》

《그만할수가 있는가. 장군님께서 이번 길에 밤잠이나 제대로 주무신줄 아나? 아직 국가를 세우지 못하다보니 남의 나라에서 살고있는 그들문제를 해결할만 한 외교대표부 하나 그곳에 가있지 못하다구, 쏘련사람들에게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은 하였지만 어떻게 마음을 놓겠는가구, 아버지의 자격으로라도 림춘추를 까자흐스딴에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가 당장은 갈수 없다구 왕고집을 부리니 어쨌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구… 하시며 몇번이구 동무일을 걱정하셨어.》

그것은 이미 장군님께서 림춘추에게도 여러번 말씀하셨던 문제였다. 아들의 편지를 그의 손에 쥐여주시던 그날 저녁 장군님께서는 그 애의 이름을 영일이라고 손수 지으신데 대하여 말씀해주시면서 마음같아서는 머나먼 이국땅에서 결방살이를 하고있는 그들을 당장이라도 데려오고싶지만 아직은 그럴수 없다고, 그러니 동무가 개인자격으로라도 가서 영일이만이라도 데려오라고 이르시였다.

그날 밤에는 아들의 소식에 대한 감격과 격정으로 하여 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새가정을 이룬 안해도 어서 가서 불쌍하게 자란 영일이를 데려오라고 그의 등을 떠밀었다.

그러나 격정의 파도가 가라앉고 마음이 진정되여갈수록 그의 생각은 깊어졌다. 새 조국건설의 그 수많은 과업들을 내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항일혁명투사들중 그 어느 누가 자기 가족이나 자식을 찾겠다고 혁명사업을 놓고 떠났던 사람이 있었던가. 까자흐스딴은 저 동북이나 원동처럼 우리 나라의 변방도 아닌 광활한 아시아대륙의 저 멀리에 있다. 결코 하루이틀에 다녀올수 있는 길이 아니였다.

아홉살난 아들의 애절한 부름소리는 인간 림춘추의 귀전을 쟁쟁히 울렸지만 혁명가 림춘추의 리성은 강인한 의지로 자신을 다잡고있었다. 아버지없이, 어머니없이 길가의 조약돌처럼 버림받으며 시들어가

는 혁명가의 자식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숙동지께서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하루빨리 그들모두를 한품에 안아줄 학원을 세우자고 마음쓰고계시지 않는가.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 사업을 맡아해야 할 직접적이면서도 책임적인 중임을 맡고있는 내가 어떻게 자기 아들 하나만이 귀하다고 훌쩍 떠난단 말인가. 그건 혁명가로서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으로서도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걸음이다. 그래도 영일이에게는 기다리면 언제이건 만나서 안길수 있는 이 아버지가 있지만 기다리고기다려도 안길 품이 없는 희생된 전우들의 그 불쌍한 자식들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

림춘추는 갈수 없었다. 그 애들모두를 장군님의 품에 안기게 하기전에는 그 길을 갈수 없었다. 이것은 그의 량심이였고 의리였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이 림춘추의 결심을 굳히게 한것은 아니였다.

1930년대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일으킨 좌경적인 5.30폭동의 후과로 감옥살이까지 하고 나와 참다운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 조선혁명의 앞길을 두고 가슴치며 번민하던 그 시절…

조양천에 오시여 5.30폭동과 8.1폭동의 참혹한 후과를 가실방도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투쟁임무를 밝혀주시던 **김일성**동지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 과학적예견성과 심오한 분석력, 필승의 신념과 군중을 묶어세우시는 탁월한 령도력… 그것은 정녕 사막의 오아시스였고 어둠을 밀어내고 솟아오른 태양의 빛이였다. 그는 태양과도 같이 눈부신 빛을 뿌리는 **김일성**동지의 안광에서 순간도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조양천을 떠나시면서 림춘추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며 조양천의 이밤을 잊지 말자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시였다.

아, 이분이야말로 정녕 하늘이 낸 위인이시다. 내 한생을 바쳐 이분만을 높이 모시고 따르리라. 내 **김일성**동지의 이름과 더불어 불피코 승리하고야말 조선혁명의 광휘로운 력사의 증견자가 되리라!…

이것은 림춘추가 지금까지 쓰던 일기장을 불태워버리고 《나의 비망록》이라고 이름한 새 일기장의 첫장에 《간도 조양천의 밤(1930년 10월 11일)》이라는 표제아래 동만역섬지구 당 및 공

청비서처 성원들앞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을 한자한자 기록하며 심장을 태워 다진 굳은 맹세였고 넋을 가다듬어 세운 의지였다.

젊은 지식청년의 열혈의 심장과 넋은 그때로부터 15성상에 걸친 항일혈전의 장구한 투쟁에서 그로 하여금 전투좌지만이 아닌 조선혁명의 력사기록이라는 또 하나의 독특한 좌지를 차지하게 만들었다. 하여 림춘추는 항일혁명투쟁시기 **김일성**장군님께서 중요회의들에서 하신 수많은 력사적인 보고와 말씀들, 조선인민혁명군의 주요 전투행적과 투쟁자료들을 기록한 크고작은 수첩들이 들어있는 엄청나게 큰 배낭을 메고 조국에 돌아왔다.

이것은 그가 조양천에서 다진 그날의 맹세를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싸워온 결과물이였고 《3. 1월간》주필이였던 대통령감과 중국의 혁명가 위증민의 유언을 끝까지 지켜온 아니, 그들뿐만이 아니라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워온 전우들과 렬사들의 령전에 드리는 력사의 꽃묶음이였다. 해방된 조국땅에서도 그는 자기의 력사적사명이 끝났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건국의 초행길, 그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가시는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력사의 증견자, 기록자도 다름아닌 자기 림춘추가 되여야 한다고 확신하고있는 그였다. 그것은 자신이 한생스스로 걸머진 아니, 하늘이 정해준 아니, 민족과 인민이 맡겨준 성스러운 직분이라고 생각하고있는 그였다.

그런데 개인의 사사로운 일때문에 그 위대하고 성스러운 사업에 단 하루라도 공백이 생긴다면 그 죄를 어찌 천추에 용납할수 있단 말인가!…

《그때문이라면 안길동지, 난 비판을 접수할수 없습니다.》

림춘추의 조용하나 단호한 어조에 안길은 미간을 찡그렸다.

《왕고집쟁이! 하긴 산에서 싸울 때 장군님께서도 임자의 그 왕고집에는 손을 드시군 했지.》

안길은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더니 그의 두손을 꾹 그러잡았다.

《이보라구 영일이 아버지, 이번 일은 고집을 부릴 일이 아니야. 우리 장군님의 심정을 잘 알지 않나.》

《바로 그래서입니다. 그래, 우리 영일이 하나를 데려온다고 해서

장군님의 그 무거운 근심이 덜어질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동지들의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분의 그 인정과 의리심에 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바다가 마르면 말랐지 유자녀들을 위하시는 그 마음에는 끝이 있을수 없지요.》

《그러니 끝내 춘추동문 장군님속을 태우겠다는건가? 동무처럼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자식문제때문에 그분의 속을 태우면 어쩌자는가 말이요.》

그의 말에 림춘추는 다시금 고개를 수그렸다.

목갈린 소리가 동굴속에서처럼 웅얼웅얼 울렸다.

《나도… 어쩌는수가… 없습니다. 지금 할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나야… 장군님의 곁을 떠날수 없는, 떠나서는 안될 몸이 아닙니까?!…》

안길은 슬며시 그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는 창문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허거프게 웃었다.

《허허… 이건 되려 비판받는 사람이 비판하는 사람을 울리누만. 하기야 우리 장군님은 너무도 정에 지극한분이시지. 그저 정에 웃고 정에 울고… 오중흡이, 김주현이, 최희숙이, 마동희, 최경화, 권영벽이… 그 수많은 동지들을 잃을 때마다 우시긴 또 얼마나 우시였소. 그런데 아직도 그들의 자식들때문에 마음속의 눈물을 가시지 못하고 계시니…

물론 그것이 어쩔수 없는 그분의 천품인줄은 모르는바 아니지만 어쩐지 이런 생각이 들거던. 희생이 없는 혁명이란 있을수 없지 않는가, 혁명승리라는 그 위대한 위업앞에서 희생이란 비록 가슴아픈것이지만 혁명 그자체를 멈춰세우리만큼 큰것은 아니지 않는가, 희생된 동지들의 유지를 지켜 이 땅에 혁명승리의 붉은기를 날리는것이 혁명가로서의 동지적의리를 다하는것이 아니겠는가. …》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혼자소리처럼 천천히 뇌이였다.

림춘추는 그의 심정이 리해되였다.

소부대활동시절 자기의 눈앞에서 왜놈들에게 안해가 고문을 당하는것을 보면서 부스러지도록 이를 갈면서도 그 자리를 떠났던 안길이였다.

해방된 조국땅에서도 처자의 생사여부를 알아보는것조차 뒤전에 밀어놓고 오직 건국위업을 위해 한몸을 깡그리 불태우던 그였다.

결코 심장이 차서도 아니였다. 심장이 무쇠같이 든든해서도 아니였다. 그자신의 말처럼 누구보다도 뜨거운 심장을 지닌 사람이 다름아닌 안길일것이다.

다만 개인의 그 어떤 아픔과 고통이든 그것은 혁명투쟁이라는 거대한 위업앞에서는 사소한것이고 단호히 묵새겨야 한다고 그는 생각하고있었다.

비록 다분히 체념적이긴 하지만 그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지 않을가. 더구나 지금과 같이 새 나라를 일떠세우고있는 력사적사변들이 눈앞에 펼쳐지고있는 복잡다단하고도 엄혹한 정세하에서는…

《춘추동무, 우리 어쨌든 장군님께서 사소하고 부차적인 개인적문제들때문에 마음쓰시고 근심하시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해 도와드리자구. 그런것이 아니라도 지금 장군님께서 마음쓰시고 돌보아야 할 중대사가 너무도 많지 않소?!

그러자면 동무나 내나 사소한 일들은 장군님께서 걱정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해결해나가야 하는거요.》

《명심하겠습니다, 안길동지!》

림춘추는 그의 손을 다시금 꽉 잡았다.

여전히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그의 찬 손이 가슴을 알알하게 만들었다.

×

림춘추는 늦어진 걸음을 재촉하였다.

지금쯤 정관철이 이전 석공조합사무실에서 눈이 까매서 기다리고 있을것이였다. 이전 석공조합사무실은 대동강 련광정부근의 2층다락집에 자리잡고있었는데 해방후부터 이곳은 시인들과 화가들을 비롯한 문예인들이 모여드는 장소로 되였다. 지난해에 조기천과 정관철을 처음으로 만난 곳도 바로 그곳이였다.

갑자기 걸음을 다그쳐서 그런지 호흡이 가빠졌다. 감옥살이를 할

때 왜놈들의 전기고문의 후과로 생긴 심장병이 애를 먹일 잡도리같았다.

그는 할수없이 천천히 걸음을 늦추면서 저도 모르게 두손을 가슴량옆으로 올리며 어깨를 힘껏 추슬렀다. 앞에서 마주 걸어오던 두 처녀가 그의 괴이한 몸동작을 놀란 눈길로 쳐다보다가 서로 마주보며 쌔물쌔물 웃고만다.

그들의 얼굴에 비낀 놀란 웃음을 보고서야 림춘추는 자기가 또 습관적으로 배낭을 추슬러올리는 헛동작을 하였음을 깨달았다.

《헛참.》

어처구니가 없었다. 해방된 조국땅에 돌아와 십수년간이나 메고다니던 빨찌산배낭을 벗어놓은지도 이젠 1년반이 지났건만 아직도 종종 착각하여 오늘처럼 길을 가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하군 하는것이다.

습관이란 정말 어쩔수 없는 모양이다. 빨찌산시절 행군길에서 배낭을 추슬러메군 하던 그 행동이 이제는 습관으로 되여버렸다.

빨찌산대원들모두에게 들어있는 그런 전투생활용품 말고도 그의 배낭에는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밑에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항일혁명투쟁의 력사를 기록한 크고작은 수많은 수첩들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한해두해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배낭은 더욱 불룩해졌고 그만큼 무거워졌다.

언제인가 그가 무거운 배낭을 메고 헐떡거리며 행군대오의 뒤를 따라오는것을 보고 김일이 《눈섭 한오리도 무거운판에 그 종이장들까지 넣어가지고 다니기가 거치장스럽지도 않소?》 하고 한마디 던졌다.

《모르면 잠자코나 있소. 앞으로 우리에겐 이보다 귀중한 보물이 없고 이보다 큰 재산이 없소. 내가 죽더라도 이 배낭만은 광복된 조국에 동무들이 메고가야 하오.》

림춘추의 말을 심중하게 들은 김일이 그후에 알맞춤한 나무를 골라 멋진 지팽이를 만들어주기까지 하였다. 어쨌든 림춘추에게는 배낭을 힘껏 추스를 때마다 그 묵직하게 실려오는 무게를 느껴보는것이 기쁨이였고 즐거움이였다. 동지들이 배낭을 메다주겠다고 해도 그

는 절대로 배낭을 넘겨주지 않았다.
그가 순간도 배낭을 자기 몸에서 떼여놓지 않게 된데는 그럴만 한 사연이 있었다.
그가 림강현, 몽강현 등지의 밀림속에 자리잡고있는 밀영병원들을 돌아보면서 정치사업, 치료사업을 하던 때의 일이였다.
어느날 쏙새골밀영을 돌아보고 선바위처치소로 돌아오던 그는 처치소쪽에서 치솟는 불길을 보았다. 적들의 기습을 받은것이 분명했다. 가슴이 철렁했다. 심장이 멎는것만 같았다. 거기에는 6명의 환자들과 그들에게 맡기고 떠났던 자기의 배낭이 있었던것이다. 한달음에 처치소가까이에 이른 그는 불붙는 처치소주위에서 팔에 붉은 완장을 두른 20여명의 《정안군》놈들이 우글거리는것을 보았다. 환자들도 시체도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모두 피신한것이 틀림없었다. 놈들은 처치소에서 들춰낸 환자들의 사품을 가지고 막 떠나려고 하였다. 상전한테 허탕을 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자는 심산같았다. 그런데 놈들이 걸머진것들가운데는 그의 배낭도 있었다. 배낭을 놈들이 가지고가게 할수는 없었다. 앞뒤를 가릴새없이 싸창을 뽑아든 그는 자기의 배낭을 멘 놈부터 겨누었다.
바로 그 순간《이러지 마시오!》하는 나직한 소리와 함께 그를 덮치는 사람이 있었다. 처치소책임자였다. 그는 환자들은 모두 무사히 피신했으니 걱정말고 놈들을 따라가다가 맞춤한 장소에서 답새기자고 하였다.
그의 말을 듣고서야 림춘추는 자기가 얼마나 흥분했는가를 깨달았다.
그들은 적들을 은밀히 따라가다가 적들보다 높은 지대를 차지하고 개울옆에서 어물거리는 적들을 한놈한놈 쏴갈겼다. 살아서 줄행랑을 놓은 놈들은 서넛뿐이였다. 배낭을 찾아 어깨에 멘 그는 춤이라도 추고싶었다.
이게 어떤 배낭인가. 이속에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이 세상 가장 귀중한 보물이 들어있지 않은가!
《내 다시는 이 배낭을 순간도 몸에서 떼여놓지 않으리라!》

그는 이렇게 굳게 맹세다졌다. 그때부터 그는 어떤 정황속에서도 그날에 다진 맹세를 지켰다.

비록 해방된 조국땅에서 그 배낭은 벗어놓았지만 림춘추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날의 배낭이 메워져있었던것이다. …

그는 다시금 심호흡을 크게 하고나서 2층다락집으로 들어갔다.

《정선생,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그는 담배연기가 자욱한 방안에 들어서며 정관철에게 큰소리로 사죄의 말부터 하였다.

정관철의 맞은켠에는 마흔이 넘어보이는 키가 크고 몸이 약한 사람이 앉아있었다. 림춘추에게는 낯이 선 사람이였다. 그들사이에 가로놓인 탁자우에는 여러장의 그림들이 놓여있었다. 아마 작품토론을 하고있는 모양이였다.

《원, 무슨 말씀을… 오히려 2비서동지의 바쁜 시간을 빼앗아서 미안한걸요.》

성격이 씨원씨원하면서도 사려깊은 정관철은 이렇게 말하며 담배를 피우지 않는 림춘추를 념려하여 창문을 열어 담배연기부터 뽑았다. 그리고는 선비처럼 얼굴선이 부드럽고 말쑥하게 생긴 그 낯선 사람을 소개하였다.

《문석오선생이라구 해주에 있다가 얼마전에 올라온 미술가입니다. 조각가이구 화가지요. 문선생, 어서 인사하십시오. 내 일전에 말씀드린 평남도당 제2비서동집니다.》

정관철이 문석오라고 소개한 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저 가볍게 머리를 수그렸다. 무척 조용한 사람일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림춘추라고 합니다. 알게 되여 정말 반갑습니다.》

《…》

림춘추는 별다른 대답과 감정표현이 없이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는 그의 눈길에 저으기 무안감을 느꼈다.

《저… 원래 말이 없는분이랍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몸으로 느껴본것만을 그리라!〉 이것이 바로 문선생의 지론이지요, 하하…》

문석오의 침묵이 림춘추의 오해를 살가보아서인지 정관철은 변명비슷이 늘어놓았다.

《하하… 그럼 눈으로는 보았으니 손까지 잡아봐야 하겠군요.》

림춘추가 웃으며 말하자 문석오는 그제서야 빙그레 웃었다.

두사람은 손을 잡고 가볍게 흔들었다.

어쨌든 이들은 특이한 사람들이야, 대상을 우선 관찰해보기 전에는 훌훌 속을 터놓지 않거던…

정관철을 비롯한 문화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그러했다.

림춘추가 이곳에 나타나자 그들은 10여년동안이나 산에서 싸움을 해온 빨찌산이 무슨 말을 할수 있겠는지 하는 의아쩍은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 분위기는 개의치 않고 그들과 인사를 나눈 림춘추는 다락방을 둘러보았다. 놀랍게도 벽에는 세계명화로 알려진 그림들이 걸려있었다. 그로서는 10여년만에 다시 보는 그림들이였다.

그는 저도 모르게 한걸음 다가서며 렘브란뜨의 《불효자식 돌아오다》와 레삔의 《볼가의 배끌기군들》을 비롯한 그림들을 감회에 젖어 바라보았다.

그때 정관철이 한걸음 다가서며 거센 파도에 금방 삼켜질듯 한 돛배의 배전을 부여잡은 사람들의 각이한 표정을 그린 아이바좁스끼의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다.

《빨찌산이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하는데 이 그림의 주인공들처럼 고생을 하였습니까?》

《아, 이건 아이바좁스끼의 〈아홉번째 파도〉구만.》

림춘추는 그가 가리키는 그림을 바라보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사실 그의 입에서 우연히 나온 말이였으나 그 말을 들은 문예인들은 일순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빨찌산출신이 세계명화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다는것이 그들에게는 무척 신기했던 모양이였다.

림춘추는 부지불식간에 나온 자기의 말이 그들앞에서 아는 흉내를 낸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된바하고는 그들에게 옳바른 인식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홉번째 파도〉의 주인공들앞에 위험은 한순간일수도 있겠지

만 우리는 이 정도의 파도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죽음의 고비를 수십수백번을 넘었습니다. 그 진두에는 언제나 **김일성**장군님께서 서계시였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공포에 질려있지만 우리는 혁명적락관과 필승의 신념으로 수백만리 불바다, 피바다를 헤쳐왔습니다.》

림춘추는 추억깊은 어조로 나직이 말하였다.

선망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던 조기천이 물었다.

《투사동지는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그 물음에 림춘추는 난처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물론 조선인민혁명군대오속에서 몇명 안되는 중학출신의 지식인이긴 하였지만 대학이라고는 문전에도 못 가본 그였던것이다. 하지만 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였다.

《허허… 백두산대학을 나왔지요.》

후날 정관철이 웃으며 고백한데 의하면 그때 그들은 림춘추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한다. 그들은 항일빨찌산에 진짜로 백두산대학이 있었고 그 대학에서 림춘추와 같은 지식인을 키웠다고 생각하였다는것이다. 어쨌든 지성인들과 가장 빨리 호흡할수 있는것은 역시 지성이였다.

《때마침 문선생이 날 찾아왔길래 먼저 이 속사지들을 보였는데 보천보에 가보지도 않고 그림을 그렸다고 단박에 퇴를 놓더군요.》

정관철이 주섬주섬 그림종이들을 모으며 하는 말이였다.

림춘추는 그가 내여미는 속사지들을 받아 한장한장 유심히 보았다. 대다수는 부분별 대상들을 속사한것이였다. 군중들의 각이한 군상들도 보였다. 장군님의 형상도 여러 측면에서 시도하고있었다. 화가가 사색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다는것이 알렸다. 마지막장은 화가가 여러 형상들가운데서 선택하여 하나의 전일적인 화폭으로 속사해놓은것이였다. 이를테면 작품의 초안인것이다. 앞에서 보았던 낯익은 형상들이 많았다.

림춘추는 정관철을 향해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내 보기엔 화폭의 전반적인 구도는 비교적 안겨오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가,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한 후 인민들앞에서 연설을 하군 했던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느껴지군 하던 그런 뜨거운 열기와 무한한 감동이 보이질 않습니다. 더우기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제와 싸우면 반드시 조국광복을 이룩할수 있다는 민족재생의 서광을 밝혀준 보천보의 홰불인데 여기선 그 뜻과 기백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관철의 얼굴은 컴컴해졌다. 물론 아직은 속사에 지나지 않는 초안이지만 이렇게까지 감흥을 주지 못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정선생, 작품의 주인공인 **김일성**장군님의 형상이 진실치 못한데 중요한 원인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아니, 그건…》

《선생은 아마 조기천의 〈백두산〉에서 〈밤바다같이 웅실거리는 군중, 높이 올라서 칼 짚고 웨치는 김대장—〉이란 시구를 보고 이 형상을 의도한것 같은데 시적감정으로서는 그 형상이 좋았지만 직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미술작품에서는 세부 하나하나가 다 사실그대로 진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선 **김일성**장군님께서 칼을 짚고 연설하시는것으로 형상되여있는데 우리 장군님께선 사실 칼을 차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각반은 두르셨던것이 옳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무장투쟁시기 장군님의 군복차림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정관철은 연방 머리를 끄덕이였다.

문석오의 눈에도 그 어떤 신뢰의 빛이 질게 어려있었다.

《문선생이 이 속사들을 보고 퇴를 놓았다고 했는데 나도 달리는 할수 없구만요. 어떻습니까? 문선생, 제 의견이 너무 가혹한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옳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사물과 대상에 대한 과학적인 묘사는 그림의 정확성과 론리성을 담보해주는 법이지요.》

문석오는 그 이상 더 말을 잇지 않았다.

림춘추는 그의 지지까지 받고나니 자기의 결심을 실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다.

《정선생! 보천보에 한번 가보시오. 내 보천보전투에 직접 참가했던 동무를 붙여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관철이 몹시 흥분하여 손을 썩썩 비볐다.

《저… 림동지, 보천보에 나도 같이 가면 안되겠습니까?》

뜻밖에도 문석오가 조심스레 물었다.

《문선생도 같이 가겠단 말입니까?》

《그게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이 문석오선생만한 조각가가 또 어디 있을라구요. 저 평양공회당에 세운 백선행의 반신상도 바로 이 문선생이 조각한거랍니다.》

정관철이 마침이라고 여겼는지 한바탕 그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았다.

《문선생은 일찌기 도꾜에 건너가 조각을 배울 때부터 인간의 힘과 투지, 영웅성을 노래하는 조선의 미켈란젤로(16세기 이딸리아의 조각가, 화가)가 될 꿈을 꾸었답니다.》

《정선생!》

문석오가 질책조로 그를 불렀다.

림춘추는 어쩐지 말이 없고 깨끗하면서도 무게가 느껴지는 그가 마음에 들었다. 앞으로 품을 놓고 그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고맙습니다, 문선생! 정말이지 반만년의 우리 조선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영웅으로 높이 칭송하는 시가 나오고 소설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조각들이 쏟아져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군님을 모시고 산에서 싸운 우리들은 그럴 마음이 불같지만 어디 선생들처럼 그런 재간이 있어야지요? 허허…》

림춘추의 절절한 말은 그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아직 30대의 젊은 나이이지만 일제를 반대하여 총을 들고 혈전을 벌려온 애국투사, 내노라고 하는 지식인들도 놀라게 하는 인격있는 지성인, 뿐만아니라 자기 사령관에 대한 열화와 같은 충정과 무조건

적이며 절대적인 옹호정신을 지닌 열혈충신…

그의 평범치 않은 경력과 지성인다운 인품, 뜨거운 열정은 결코 그 말이 인사치레가 아님을 충분히 느끼게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아, 저 사람의 그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절반만이라도 가진다면 그런 창작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리높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한 영웅찬가를 탄생시킬수 있으리라!…

문석오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8

이해의 봄은 류달리 서둘러 찾아왔다.

마음고운 녀인의 따스한 손길같은 봄아지랑이가 겨우내 얼어붙었던 거치른 대지를 어루만지며 부드러운 입김으로 애무해주더니 벌써 3월 중순무렵에는 나긋나긋해진 나무가지들에서 파릇파릇 새움이 트고 산기슭에는 진달래며 개나리꽃들이 다투어 망울을 터치기 시작했다.

봄, 해방된 조국강산에 두번째로 찾아온 봄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뜻깊게 파고드는 봄의 정취에 함뿍 젖으시여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따뜻한 풍경을 이윽토록 바라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만경대로 가고계시였다.

이제는 만경대가 초행길이 아니였건만 어쩐지 이번걸음은 잊지 못할 만강의 그 봄날에 장군님의 사향가를 들으며 그려보던 그날의 만경대가 자꾸만 눈앞에 밟혀와 가슴을 진정할수 없으시였다.

오늘 아침이였다. 아침식사를 물리시고 창곁에 다가가신 **김일성**동지께서 불쑥 《벌써 봄기운이 완연하군. 정숙동무! 우리 함께 오늘 만경대에 가기요. 만경상춘이라고 평양에서의 봄경치야 만경대의 봄이 제일이지. 지난해 봄에는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 올해에까지 만강에서 한 그 약속을 어길순 없지.》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의 뜻밖의 말씀에 붉게 달아오르는 얼굴을 감추느라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시며 《시간이 몹시 바쁘실텐

데…》 하시였다. 그이의 목소리에는 무한한 행복감이 어려있었다.
《어머니, 가시자요. 오늘이야 일요일이 아니나요?!》
어리신 아드님께서도 환성을 올리며 무작정 손을 잡아끄신다.
《옳소, 우리도 로동법령을 지킬 의무가 있잖소. 오늘 반나절만이라도 시간을 뚝 떼내기요.》
이렇게 되여 떠나신 걸음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에게 차례진 행복감보다도 다문 얼마간이나마 장군님의 피로를 덜어드릴수 있게 된것이 더욱 기쁘시여 아드님을 무릎우에 앉히시고 흐뭇하게 차창밖을 내다보시였다.
옆에는 김책과 부관 리종산이 앉아있었다. 아까 차에 오를 때 김책이 《허, 이거 그럴줄 알았으면 나도 우리 로댁을 데리고 오는건데…》하여 흥그러운 웃음이 터졌었다.
《왜요? 이제라도 아주머닐 데리고 가면 되지요.》
김일성동지께서도 그의 롱담에 장단을 쳐주시였다. 그러자 김책은 입맛을 쩝쩝 다시며 머리를 흔들었다.
《에이, 후날 따로 데려가던가 해야지. 아, 정숙동무곁에 우리 로댁을 세워놓으면 꼭 봉황곁에 집닭 한가지라, 그럼 이 김책이 영 기분없지요.》
《하하…》
《하하…》
그가 형상까지 해보이며 말하는 바람에 모두가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웬간해서는 롱담을 즐기지 않는 김책이 이렇게 변죽을 치는걸 보아 그도 오늘의 만경대행으로 하여 기분이 붕 뜬 모양이였다. 아닌게아니라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번 길에 김책의 부인 강정숙이며 안길의 부인 강미분녀랑 다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이 갈마드시였다. 그러나 강미분녀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있는 몸이였다. 남편을 만나 행복을 누릴만 하니 몹쓸놈의 병마가 그를 쓰러뜨렸던것이다.
《가만, 그런데 내 이거 자리를 잘못 잡았다?!》
김책이 또다시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었다.
《정숙동무곁에야 장군님께서 앉으셔야지 내가 앉으면 다들 속으

로 눈치없는 령감이라고 욕을 할텐데…》

《하하… 어찌겠습니까. 김책동무야 내 고향에 가는 손님인데 아무래도 주인이 앞에서 길안내를 해야지요. 그리고 내가 그곁에 앉으면 김책동무의 기분이 더 말이 아니겠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기분을 맞춰줘야지요.》

승용차는 벌써 만경대로 들어가는 갈림길에 꺾어들었다.

만경대는 평양에서 서남쪽으로 약 12키로메터정도 떨어져 대동강기슭에 위치하고있다. 리조시기에는 평안도 평양인흥부 고순화방(일명 화촌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웠다.)에 속하였고 일제강점후에는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라는 행정체계에 속하였다. 18세기 전반기에 편찬된 《화은집》을 비롯한 기록들에 의하면 만경대라는 지명은 원래 오늘의 만경봉을 가리키는 산이름이였다고 한다. 리조 초기부터 불리워지기 시작한 만경대라는 말은 그우에 올라서면 평양의 이름난 세 강인 대동강, 보통강, 순화강이 합쳐지는 곳에 두루, 두단, 독발(현재의 문발도) 등 세 섬이 가지런히 놓여있고 멀리로는 무학산, 정이산, 해암산을 비롯한 사방 백리안팎의 일만경치를 환히 바라볼수 있다는 뜻에서 일만 만자와 경치 경자를 따고 또 봉우리의 형세가 수백길이나 되는 층층벼랑으로 이루어져있는데다가 그 정수리가 밀어낸듯 평퍼짐한것이 마치 하나의 정교한 루대를 방불케 한다고 하여 집 대자를 써서 지은 이름이다. 그후 만경대라는 말은 오늘의 만경봉뿐아니라 그 주변을 포괄하는 지명으로 굳어졌다.

바로 그 만경대입구에서 승용차는 멈춰섰다.

차에서 내리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드님의 손목을 잡고 장군님의 뒤를 따라 소로길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만경봉의 푸른 솔숲은 연분홍진달래며 노란 개나리, 하얀 살구꽃들과 어우러져 마치 칠보단장을 한듯 하고 소나무, 버드나무, 백양나무 등 수림이 무성하게 우거진 동림은 짙어가는 초록으로 하여 더욱 청초하게 안겨왔다.

마치 유년시절 동심속에 그려보던 하늘나라에 들어서는듯싶으시여 저도 모르게 자주 걸음을 멈추군 하시였다.

김책과 리종산 그리고 운전사도 만경대의 봄경치가 새삼스러워져

시종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만경상춘이라더니 정말 만경대의 봄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둔덕에서 김책이 끝내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감탄했다.

《사실 그 아름다움은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이제 4월 중순경에 들어서면 온갖 꽃들이 모두 피여나 한껏 푸르른 나무잎새들과 조화를 이루고 그 진동하는 청신하고도 달콤한 향기가 넘칠 때엔 김책동무 아마 취해서 일어나지도 못할겝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였다.

《예, 거기에다가 갖가지 새소리까지 울리면 이 김책이 아마 만경대의 신선으로 환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도 김책의 말에 가볍게 웃으시며 아드님의 등을 그의 앞으로 떠미시였다.

《김책동지, 만경대의 신선이 되려면 우리 **정일**이에게서 화촌10경에 대한 설명을 들으셔야 할거예요. …》

《화촌10경이요?》

《증조할아버님이 지난해에 말씀해주셨는데 글쎄 어려운 4자성구를 그 뜻까지 다 기억하고있답니다. 자, 어서.》

그이의 목소리에는 아드님에 대한 무한한 대견함과 은근한 자랑이 진하게 어려있었다.

어머님의 재촉을 받으신 어리신 아드님께서는 잠시 영채도는 두눈을 깜박이다가 랑랑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화촌10경이란 만경봉에서 볼수 있는 주변의 열가지 경치를 말합니다. 화촌10경은 〈만경상춘〉—만경대의 봄경치, 〈삼도범월〉—두루, 두단, 독발 세 섬의 달풍경, 〈봉포타어〉—봉포의 고기잡이풍치, 〈우산목독〉—우산에서의 소방목풍경, 〈광촌취연〉—광촌마을의 밥짓는 연기풍치, 〈석호풍범〉—석호의 돛배풍경, 〈양산창취〉—양산의 푸르른 기상풍경, 〈원암적벽〉—원암의 붉은 절벽 풍경, 〈추교관가〉—추교의 씨붙임풍경, 〈동림송객〉—동림나루터의 손님배웅풍경, 이것이 옛날부터 전해오는 화촌10경입니다.》

김책은 입을 딱 벌리고 굳어졌다.

물론 장군님의 자제분이 나이에 비해 비할바없이 총명하고 영특하다는것을 모르는바 아니였지만 이렇게 그 어려운 4자성구를 하나도 막힘없이 뜻풀이까지 하여 내리엮으실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었다.

선천적인 비상한 기억력과 비범한 리해력이 없이는 벌써 그 초년나이에 응축되고 또 응축된 성구의 세계를 알수 없는것이다.

《장군님, 이제 보니 진짜 만경대의 신선은 우리 장군입니다. 아무래도 이 김책인 안되겠습니다, 허허…》

《아니예요, 아저씨. 난 그저 증조할아버님의 말씀을 귀담아들었을뿐이예요. 우리 어머니가 만경대는 아버님의 고향이자 나의 고향이라고 하셨거던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더니 과시… 아무렴, 만경대야 우리 장군의 고향이구말구.》

김책은 그 어떤 격정에 휩싸여 사방을 휘둘러보며 몇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더니 머리를 끄덕거리며 **김일성**동지를 향해 돌아섰다.

《장군님, 예로부터 명소에서 명인이 난다고 하였는데 그러고보면 만경대는 명인을 낳는 곳이 틀림없습니다.》

《하하… 김책동무가 풍수까지 볼줄 아는줄은 미처 몰랐군요.

하긴 만경대가 옛적부터 소문이 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이름있던 시인들이 만경대에 대한 시들도 많이 지었는데 내 오늘 18세기 홍량호라는 사람이 지은 〈만경대〉란 옛시 한수를 읊을가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머리를 수긋하시고 몇걸음 옮기시다가 갈린것 같은 그 특유한 음성으로 천천히 시를 읊으시였다.

온갖 시내물 모이고모여
대동강으로 흘러들고
강줄기는 굽이굽이
줄기차게 뻗었구나

세갈래 물은 땅을 누비며
서해로 향해가고
높고낮은 일만봉우리
구름속에 솟았어라

무수한 돛배들은
쉬임없이 오고가고
물가는 저 멀리로
끝이 없이 아득하구나

이국의 루각들이
경치를 서로 다툰다지만
동방천리 루대중에선
만경대가 제일루로다

박수가 터졌다. 벌써 그 옛시절에 만경대에 대한 시가 있었다는 놀라움과 감개무량함이 일행모두의 가슴을 흐뭇하게 해주었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눈굽이 뜨거워오시였다.

실버들 푸르른 만강의 그 봄날 한없는 그리움에 사무쳐 조용히《사향가》를 부르시던 장군님의 그 모습을 다시 뵙는듯만싶었다.

아, 타향에서 부르던 만경대의 노래를 이렇게 고향에서 다시 부르시는 장군님의 감회는 진정 얼마나 깊으시랴!…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볍게 한손을 저으시였다.

《내가 시를 읊은것은 동무들의 박수를 받고싶어서 그런것이 아니요. 산에서 싸울 때 우등불 타오르는 밀영의 밤이면 동무들에게 만경대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주군 하였는데 해방된 조국땅에 함께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 끝내 만경대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거치른 이국의 산야에 묻혀있는 그들의 령혼이 내 목소리라도 들을것만 같아 이렇게 그 시절처럼 만경대이야기를 들려준거요.》

《!…》

《!…》

모두의 눈앞이 뿌잇하니 흐려졌다.

장군님의 심중에서는 만경대의 아름다움이 그저 자연의 아름다움일수만 없음을, 만경대에 대한 노래가 그저 흥에 겨운 노래일수만 없음을 김책이도 리종산이도 뜨거움속에 깨달았던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줄수 있겠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한 그날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지켜줄수 있겠는지…》

《장군님!…》

김책이 그이의 손을 덥석 잡았다. 무슨 말이라도 해드리고싶었으나 어째서인지 목이 꽉 잠기여 말을 할수가 없었다.

《김책동문 여기 만경대가 명인을 낳는 곳이 틀림없다고 했지요? 허허… 내 사실 풍수설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어쩐지 김책동무의 그 말만은 꼭 믿고싶군요.》

《예?》

《이제 우리가 여기 만경대에다 유자녀들을 위한 혁명학원을 세우자고 하는데 정말 그들이 모두 새 조선의 훌륭한 역군으로, 명인으로 자라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여기 만경대에서 마음껏 뛰여놀며 자란다면 그 애 부모들의 한도, 그 애 부모들에게 못 지킨 약속도 다소 풀어주는것으로 될터이니 그러면 나도 정숙동무도 한결 발편잠을 잘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이께서는 김정숙동지를 미소어린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고개를 숙이시였다.

장군님께서 어찌하여 그 바쁘신 시간을 내여 함께 만경대에 가자고 하셨는지, 어찌하여 다정히 이름을 부르시며 바라보시는지 사무치도록 그 뜻이 가슴에 마쳐오셨던것이다. 자신의 심정을 리해해주기 바라시는 그 사려깊은 마음 아니, 그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이 꼭 같음을 조금도 믿어의심치 않으시는 그 뜨거운 웅심이 장군님의 그 애틋한 눈빛에 다 어려있었던것이다.

하기야 이 김정숙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계시는분이 장군님말고 이 세상에 또 누가 있으랴!…

김정숙동지께서는 얼른 눈굽에 축축히 젖어있는 물기를 훔치시며 애써 밝은 웃음을 지으시였다.

《장군님, 그러고보면 오늘의 이 만경대걸음이 뜻이 깊은 걸음이신데 어서 학원터전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장군님, 그게 좋겠습니다.》

김책이 환성을 올렸다. 리종산이며 운전사도 어린애들처럼 손벽까지 치며 좋아했다.

《정숙동무에겐 내 생각을 숨기지 못하겠구만.

좋소, 이번 길에 학원터전을 잡읍시다. 구두쟁이 셋이 모이면 제갈량보다 낫다고 했는데 풍수에 밝은 김책동무도 있겠다, 우리 함께 명당자리를 잡아보기요. 》

《아 장군님, 이거 날 진짜 풍수쟁이로 만드실 작정이십니까?》

김책은 황황히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는 리종산이와 운전사를 향해 《여 종산이, 방득룡이, 동무들도 입만 헤 벌리고 섰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명당자릴 잡아보라구. 장군님께서 몸소 화촌10경에서 제일 으뜸으로 꼽는 만경상춘을 구경시키고 옛시까지 읊어주셨는데 그 값이야 해야지.》 하고 소리쳤다.

《알았습니다.》

그들은 좋아라 목을 빼들고 다시금 사방을 휘둘러보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박솔숲을 헤치시고 언덕에 오르시였다.

《어머니, 우리도 아버님과 함께 학원터전을 잡자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손목을 잡아끄는 아드님을 따라 언덕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봄바람이 훈훈하게 불어와 그이의 머리카락을 가벼이 날렸다.

만경대의 산천이 한눈에 안겨왔다.

《그래, 정숙동무 보기엔 어디에 터전을 잡았으면 좋겠소?》

장군님의 물으심에 그이께서는 선뜻 대답드리기를 저어하시였다. 마음같아서는 양지쪽이고 대동강물이 흘러가는것도 잘 보이는 이전 순화학교옆 야산중턱이 제일인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싶으셨으나 혁명

학원터전과 같은 뜻깊은 자리는 응당 장군님께서 직접 잡으셔야 한다는 생각에 대답을 삼가하시였다.

《장군님, 그럴것없이 저 만경봉에다 학원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경치를 보는데서야 그 이상 있습니까?》

리종산이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듯 으쓱해하며 말했다.

김책이 그의 엉치를 가볍게 치며 웃었다.

《이 엉터리야, 경치를 보자면야 루각을 세워야지 학원을 세우겠니? 학원은 아이들이 배우며 생활해야 하는 곳이야. 저 바람곶에, 그것도 좁은 산꼭대기우에 어떻게 학원과 같은 큰 집을 짓는단 말이냐.》

《옳아요, 우선 세상에 소문난 만경봉의 경치를 파괴할수 있고 또 어린아이들의 생활에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닐거예요. 운동장도 없지, 물도 길어올려야지, 아이들이 산발을 타다가 떨어져 상할수도 있지…》

김정숙동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자 리종산은 아무 말도 못하고 뒤더수기만 슬슬 긁었다.

《그 말이 옳소. 학원터전은 앞이 환히 트이고 대동강이 잘 보이는쪽에 지어야 하오. 자, 그런곳이 어디겠는가?…》

김일성동지께서는 량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다시금 고향산천을 천천히 굽어보시였다.

그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무슨 생각엔가 잠겼던 김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장군님, 우리들 눈에는 만경대의 모든 곳이 다 명당자리인데 그 명당자리에서 또 명당자리를 가려낸다는게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헐치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학원터전은 장군님께서 직접 잡아주십시오.》

김책의 말을 들으며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도 지금 자신과 꼭같은 생각을 하고있음을 알수 있으시였다.

장군님을 받드는 그의 품성은 산에서 싸울 때나 해방된 조국땅에 나와서나 조금도 변함이 없었던것이다.

《그럼 좋습니다. 저길 보시오, 저기가 우리 아버님이 세우셨던 순

화학교입니다. 그옆의 야산중턱쪽이 어떻습니까? 해빛도 잘 드는 양지이고 또 옆으로는 대동강물이 유유히 흐르는데 학원터로서는 그저 그만일것 같지 않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전 순화학교와 대동강사이에 있는 야산중턱쪽을 손들어 가리키시였다.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곳은 신통히도 김정숙동지께서 속으로 생각하셨던 바로 그곳이였다.

다른 사람들도 그제서야 비로소 가장 훌륭한 절경을 찾아본듯 한결같이 감탄했다.

《정말이지 학원터전으로서는 둘도 없는 명당자리입니다. 장군님! 제 마음에도 꼭 듭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기쁨에 넘쳐 이렇게 말씀드렸다.

어쩌면 장군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벌써 다 헤아려보시고 그 자리를 찍으신것만 같으시였다.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려고 우정 그 자리를 고르신것만 같으시였다. 아니, 그보다는 장군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꼭같은것이 더없이 기쁘고 행복하시였다.

《아버님! 내 마음에도 꼭 들어요!》

《하하…》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리신 아드님을 한품에 안아 높이 드시였다.

《우리 만경대장손의 마음에 든다니 됐구나! 아무렴, 누구누구해도 우리 아이들마음에 들어야지. 아이들이 생활해야 할 곳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책동무.》

《여부가 있습니까. 우리 장군이 좋다면야 그건 틀림없이 좋은 곳이지요. 이제 저기서 자라는 만경대아이들속에서 박사도 나오구 장군도 나오구 나라의 기둥감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올겝니다.》

《정말 그렇게 될가요?… 정말로 그렇게 될수만 있다면 얼마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김일성**의 제일 큰 소원이 풀리는 겁니다.》

그이의 갈리신 음성은 축축히 젖어들었다.

《아, 틀림없다니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장군님의 그 인정, 그 의리를 어찌 하늘인들 무심히 보겠습니까! 이제 혁명렬사들의 유

자녀들이 장군님의 품을 찾아 구름처럼 몰려올것이고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조선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것입니다. 전 그것을 확신합니다.》

김책의 목소리도 저으기 갈려있었다. 거기에는 해방된 조국땅에서만도 벌써 1년반 남짓이 장군님을 모시고 건국사업을 하면서도 장군님의 제일 큰 소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자신에 대한 뼈아픈 자책감이 사무치도록 어려있었다. 애국미문제를 놓고도 장군님의 심정을 제때에 헤아려보지 못했었고 일부 사람들이 혁명학원창립의 시기상조를 운운할 때에도 단호한 반격을 가하지 못했었다.

《김책동지!…》

김정숙동지께서는 고마움과 격려의 빛이 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였다.

한없이 순결하고 더없이 고지식한 그의 심중의 목소리를 온몸으로 듣고계셨던것이다.

《자, 동무들! 김책동무의 그 확신이 미덥긴 하지만 우리 아직은 이 자리에서 결론하지 맙시다. 우린 젊은 사람들이니만치 아무래도 만경대에서 오래 살아오신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과 삼촌께 가서 그분들과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의논해봅시다. 이런 일에서는 어른들의 말을 꼭 들어봐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드님을 안으신채로 고향집을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내짚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인차 걸음을 못 떼시고 장군님께서 몸소 잡으신 학원자리를 정겹게 바라보시였다. 어쩐지 만경대일가분들도 꼭 그 자리를 찬성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들의 생각은 언제나 장군님과 한결같다는것을 이미 체험으로 느끼고계셨던것이다. 김정숙동지의 귀전에는 금시 만경봉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퍼지는 혁명가유자녀들의 랑랑한 글소리와 행복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듯만 싶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저도 모르게 귀를 강구시며 천천히 만경대 고향집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9

김일성동지의 부르심을 받은 허가이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흥분된 심정을 안고 그이의 집무실로 달려갔다.

사업상관계로 하여 그이를 만나뵙는 일은 자주 있는것이였으나 자기자신도 신비스러울만치 매번 가슴이 울렁이군 하는 허가이였다.

《그분은 쓰딸린동지도 〈위대한 **김일성**동지〉로 존경하는 위인이시요. 그런 위인과 함께 혁명을 한다는것은 두말할것없이 이 허가이의 행운이란 말이요.》

이것은 언제인가 자기를 쏘련에서부터 합법적당사업을 한 오랜 당활동가로, 당박사로 귀맛좋게 춰올리는 라성환에게 그가 한 말이였다.

쓰딸린까지도 존경하는 **김일성**동지! 이 하나의 인식만으로도 그의 가슴이 매양 흥분스러워지기에는 충분한것이였다.

로씨야의 연해주로 흘러들어간 타향민의 후손으로 태여나 거치른 아무르강기슭에서 불우하게 흘러가버린 그의 어린시절…

사회주의10월혁명의 승리는 아무르강의 물결을 타고 그의 인생을 새로운 행운의 기슭에로 떠밀어주었다.

모스크바에서의 대학생활과 우즈베끼스딴의 싸마르깐드에서의 당사업의 시작, 구역당 제2비서로의 승진…

어제날의 불우했던 타향민의 후손인 그에게 있어서 쓰딸린은 이 세상의 전부를 안겨준 은인이였고 절대적인 우상이였다.

조선의 빨찌산청년대장 **김일성**동지에 대한 쓰딸린의 존경심을 종종 전해듣게 된것은 그가 크라스노야르스크로 전근하여 원동에서 당사업을 하던 때부터였다. 역시 민족의 피는 어쩔수 없는것이였던지 그는 자기의 조국에서도 세상사람들이 경탄하는 출중한 위인이 출현한것을 더없이 기뻐하였다.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말할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닌과 쓰딸린뿐이라고만 생각했던 그의 인식에 새로운 파렬구가 생겨났던것이다. 하여 그는 일제패망후 해방된 조국땅으로 남

먼저 달려나왔다. **김일성**동지와 손잡고 조국땅에도 쏘련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워보려는 욕망이 불같았던것이다.

《기다렸습니다. 어서 앉으시오.》

언제나와 같이 친절하게 맞아주시는 **김일성**동지의 영채도는 안광을 우러르며 허가이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허동무가 제출한 이 보고서를 다 보았습니다. 중앙보안간부학교의 당사업실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특별히 관심하시는 단위여서 소홀히 할수가 없었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여러번 말하였지만 건국사업에서도 정규군건설은 선차적인 사업으로 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군의 원종장인 중앙보안간부학교사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앙보안간부학교 교직원들속에서는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허동무도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다싶이 중앙보안간부학교 교직원들가운데는 과거에 다른 나라들에서 활동하다가 해방이 되여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속에서 분파적행동이 나올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습니다.》

허가이는 그이께서 보고서의 한구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다싶이 해주시는데 대해 사뭇 만족스러움에 휩싸였다.

《그런데 허동무가 제기한 대책안에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그이의 표정은 여전히 부드러웠으나 어조에는 다소 섭섭한감이 비껴있었다.

《허동무는 이 학교 일부 교직원들속에서의 의견상이가 군사교육사업문제를 놓고 연안식교육이냐 쏘련식교육이냐 하는데로부터 출발된것이라고 하면서 그중의 하나, 찍어말해서 연안식교육주장을 일축해버릴것을 제기했는데… 만일 그것이 방도라면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어서… 말씀해주십시오.》

《첫째로는 그렇게 하는것이 군사교육사업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으로 되겠는가 하는것이고 둘째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교직원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이룩할수 있겠는가 하는겁니다.》

김일성동지의 열정적이면서도 진지한 눈빛이 그의 얼굴에 닿았다.
허가이는 그이의 허심하면서도 분석적인 화제에 오랜 당사업경험자로서의 흥분이 살아오름을 느꼈다.
《그러니 **김일성**동지께서는 두 주장을 그대로 두자는 립장이십니까? 아니면 쏘련식군사교육주장을 철회시키자는?… 어쨌든 저로서는 어느 하나를 명백히 규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놓고볼 때 쏘련의 군사교육리론과 방법은 이번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이미 그 생활력이 검증된…》
《허가이동무,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는건 바로 그겁니다.》
《예?…》
《쏘련식과 연안식은 그렇게 잘 갈라보면서 왜 우리 식은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항일전쟁시기 100만관동군과 싸워 승리한 전략전술과 경험이 있습니다.》
《글쎄 전 군사전문가는 아니다보니…》
《리해는 됩니다, 허동무! 우리는 어느 하나를 묵살시키거나 철회시키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 식에 복종시켜 군사교육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우리가 이미 터득한 전략과 전술, 전투방식과 훈련방법, 부대지휘와 대렬관리 그리고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과 우리 사람들의 육체적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연안식교육과 쏘련식교육을 흡수해야 합니다.》
김일성동지의 명쾌한 론리앞에 그는 머리를 수그리지 않을수 없었다.
《허동무, 생각해보시오. 두 주장중에서 어느 일방을 강압적으로 철회시키면 외적으로는 하나가 될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대립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손상당한 자존심으로 하여 끙끙 앓을거란 말입니다. 우리 식을 위해 서로의 주장을 합치도록 할 때만이 그 과정에 마음도 합쳐지게 될것입니다. 중앙보안간부학교의 당사업은 바로 이런 원칙에서 군사교육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서를 그에게 내여미시였다.
《내 의견이 납득된다면 중앙보안간부학교의 당사업대책안을 다시

세우고 당적지도도 그런 방향에 힘을 넣도록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이는 정중하게 문건을 받으며 대답올렸다.
그러나 사실 그 순간에도 그의 머리속에는 《우리 식》이라는 이 명백한 개념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지지 않았다.
그는 쏘련식이 곧 우리 식이라는 굳어진 인식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었던것이다. 하여 그는 이번에도 아무런 의심없이 자기의 그러한 견해를 로출시켰다.
《저 **김일성**동지, 한가지 더 물어도 괜찮겠습니까?》
《뭘 그럽니까? 허동무답지 않게. 어서 물어보시오.》
김일성동지께서 소탈하신 음성으로 그를 재촉하시였다.
허가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유자녀학원 말입니다. 그걸 당장 세우시렵니까? 어제 학원터전까지 잡으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터전을 잡았습니다, 만경대에! 유자녀학원문제는 더이상 미룰수 없습니다.》
《저…》
《허동무는 의견을 달리합니까? 주저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말해보시오.》
《**김일성**동지! 전 원래부터 당안에서 뜨로쯔끼적인 종파행동을 질시해온 사람입니다. 사회주의혁명에서 원칙적인 문제를 놓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하는것은 유해로운것이니까요.》
그는 **김일성**동지에 대한 자신의 변함없는 자세와 함께 오랜 당사업경험자로서의 무게를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서두를 뗐다.
《그건 옳은 말입니다. 우린 당활동에서 쏘련당의 그런 교훈과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허가이동무에게서 기대하는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지금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수립한데 토대하여 사회주의혁명의 과도기임무를 하루빨리 수행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정규군창설과 전조선적인 국가창건을 이룩해야 할 중대한 과업들을 안고있지 않습니까. 이런 견지에서 놓고볼 때 과연 유

자녀학원창립문제가 그렇게 우리 혁명에서 선차적인 과제로 나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라에 유자녀들이 아직 그리 많은것도 아닌데… 아시다싶이 쏘련에서도 10월혁명과 공민전쟁, 핀란드전쟁, 에스빠냐전쟁, 제2차 세계대전 등을 치르면서 헤아릴수 없이 많은 희생자를 내고서야 1943년과 1944년에 각각 유자녀들을 위한 쑤워로브학원과 나히모브해군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그는 조심스레 **김일성**동지를 바라보았다.

자기가 서두에 엄숙하게 떼놓은 투철한 립장과는 달리 언제인가 애국미문제를 놓고 라성환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앞에서 이런 내용의 훈시를 했던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러나 **김일성**동지의 진중한 안색에는 변함이 없으시였다.

《그러니 허동무 우리 나라에서의 유자녀학원창립이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까?》

《글쎄 꼭 그렇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허동무의 생각을 리해할만 합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유자녀문제가 쏘련에서처럼 전사회적인 난문제로까지 제기되고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자녀들의 머리수가 적다고 그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까지도 같이 작아질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조국을 찾기 위한 싸움에 한목숨 서슴없이 다 바친 애국렬사들의 업적과 바로 그런 부모들을 다 잃은 유자녀들의 고통은 쏘련에서나 우리 나라에서나 조금도 다를바가 없을것입니다.》

《…》

《그 애들이 겪는 그 엄연한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 무슨 건국의 순차성이나 혁명과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론하기에 앞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혁명가로서 렬사들이 우리에게 맡기고 간 유자녀들, 의지가지할데 없는 그 애들의 운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진실로 혁명의 운명을 생각하는것이고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는것입니다. 결코 나라를 세우는것으로써 혁명투쟁을 다했다고 말할수 없지 않습니까. 허동무가 말하는 그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도 미래의 투사들이 없이는 이룩될수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오늘을 봐도 래일을 봐도 유자녀학원창립문제

는 미룰수가 없지 않습니까!》

허가이는 그이의 고결한 정신앞에 다시금 머리를 수그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분의 깊은 의리심과 뜨거운 인정미가 혁명이라는 그 거대하고도 장엄한 위업과 어떻게 그렇게 정교한 치차처럼 맞물려들수 있는지 거듭거듭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김일성**동지의 집무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 못하였다.

장차 국가창건이라는 위업을 앞두고 학원문제가 그 어떤 예민한 정치적반응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무겁게 매여달렸던것이다.

이것은 쏘련의 가맹공화국안에서의 오랜 생활체험으로부터 오는 그나름의 솔직한 심정이였다.

10

《어머니!―》

저택마당가에서 뛰여놀던 아이들이 대문가로 들어서시는 김정숙동지를 발견하고 좋아라 소리치며 달려왔다.

그이의 팔소매며 치마자락에 매여달린 아이들은 새끼제비들갈이 얄팍한 입술을 나풀거리며 저저마끔 오구작작 떠들었다.

석달전 혜산에서 데려온 바로 그 아이들이였다.

처음 데려왔을 때만 해도 새죽지같이 여윈 두어깨사이로 가느다란 목을 움츠리고 눈치만 살피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법 토실토실 살이 오르고 온 마당이 좁다하게 뛰여논다.

《그래 너희들 점심밥은 먹었니?》

김정숙동지께서는 허리를 굽히고 아이들의 등을 어루쓸며 다정히 물으시였다.

《예, 먹었어요. 영실아지미랑 같이.》

처녀애가 다른 두 사내애들을 앞질러 잽싸게 대답했다.

아마 그렇게 함으로써 늘 계집애라고 자기를 깔보는 그 애들앞에

서 자기도 무시할수 없는 당당한 이 집 식솔임을 나타내고싶었던 모양이였다.

《그런데 순옥이 얼굴엔 웬 눈물자국이냐? 동일이, 봉호, 너희들 또 순옥일 울린게로구나.》

《피— 우리가 울렸나요 뭐. 군사놀이에서 대장과 한편이 못되구 우리와 한편이 되였다구 저 혼자 울었지요.》

《맞아요, 순옥인 울보예요.》

동일이와 봉호가 그 애에게 눈을 찔 빨며 투덜거렸다.

《원, 녀석들두. 그럼 편을 가르지 말구 다 한편이 될게지.》

《돌가보를 해서 편을 갈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뭐?》

봉호가 시무룩해서 볼부은 소리를 했다.

이때 김영실이가 바삐 마주나왔다.

《형님, 신새벽에 가셨다가 인제야 오시는군요.》

《영실이가 아이들시중을 들래 수고 많았겠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정겹게 바라보시였다.

올해 열여섯살, 한창 처녀꼴이 잡히기 시작한 사촌시누이다. 조선혁명군 무장소조를 이끌고 풍산, 북청, 홍원 일대에서 정치군사활동을 벌리다가 파발리주재소습격사건이후 체포되여 드세찬 옥중투쟁으로 왜놈들을 전률케 하던 김형권동지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그래서 그런지 사촌시누이라기보다 친동생처럼 정이 가고 더욱 사랑해주시고싶은 그다.

《그런데 우리 **정일**인 왜 안 보이니? 대장이라면야 다 함께 데리고 놀게지.》

《그러면 뭐 진짜군사놀이맛이 안 난다나요. 아마 자기 편 대원들을 데리구 훈련을 주고있을거예요.》

영실의 말에 김정숙동지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며 아이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자, 너희들도 모두 가서 함께 놀아라. 이 어머니가 너희들을 대장부대에 추천해보냈다고 말해라. 그래도 한편으로 안 받으면 어머니에게 와서 알려라.》

《예.》

아이들은 와— 환성을 지르며 대문밖으로 달려나갔다. 아이들의 뒤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는 김정숙동지의 마음속에 한줄기 전류같은 애틋한 정이 찌르르 흘렀다.

저 순진하고 깨끗한 동심에 한점 그늘도 없이 마음껏 웃으며 뛰노는 모습을 먼저 간 저 애 부모들이 볼수만 있다면…

《저… 형님안색을 보니 몹시 피곤하신것 같애요. 내 자리를 펴드릴테니 좀 쉬세요.》

영실의 걱정이 스민 목소리였다.

아닌게아니라 김정숙동지께서는 몹시 피곤하시였다.

요 며칠새 장군님과 함께 다니며 그이의 사업을 보좌해드리시느라 드바삐 보내셨던것이다.

며칠전에는 만경대에 나가시여 김보현할아버님과 김형록삼촌을 모시고 장군님께서 잡아주신 학원터전자리를 다시 돌아보시였고 어제는 남포 지울리에 있는 평양학원에 가시였었다. 오늘은 또 강서군 성암면 대안리에 있는 중앙보안간부학교에 나가 학생들의 생활과 교원가족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돌보아주고 돌아오시는 길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리를 펴드리겠다고 하는 김영실을 만류하시고 방안으로 들어가시였다.

생각같아서는 좀 쉬고싶으셨으나 어째서인지 아이들의 그 모습에서 련련히 밟혀오는 추억의 실꾸리가 끊기지 않고 자꾸만 풀어졌다.

그이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장농문을 열고 빨간 천으로 정히 싼것을 꺼내시였다. 한겹두겹 천을 헤치니 그리 크지 않은 가지색수첩이 드러났다.

벌써 십여년째 몸의 한부분처럼 소중히 간수하고계시는 가지색수첩이였다. 그것을 요즘은 여느때보다 더 자주 꺼내보게 되신다. 그 수첩에는 일제와의 싸움에서 희생된 전우들의 이름과 그들의 고향, 살던 곳, 자녀들의 이름이 빠짐없이 적혀있었다. 이제는 그것을 펴보지 않고도 환히 통달하고계시였는데 때없이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실오리만 한것일지언정 그들의 자녀들 행처를 찾을수 있는 가능성들이 기록되여있기때문이였다. 누구는 어디에서 가족과 마지막으로 헤여졌고 또 누구의 아들에게는 멀지 않은 곳에 이

모가 살고있었으니 혹시 거기에 얹혔을수 있다는것, 누구는 이름자도 외우지 못하는 자기 자식을 남의 집에 맡기고 유격대에 들어올 때 저고리고름을 잘라 주머니를 만들고 거기에 이름 석자를 적어넣어 목에 걸어주었다는둥 짤막짤막한 기록들이 빼곡이 적혀있는 이 수첩이야말로 유자녀들을 찾을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추억깊은 마음으로 수첩의 첫장을 펼치시였다. 거기에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좌경기회주의자들에 의해 헐벗고 굶주리며 짓밟히고있던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의 정상을 보시고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준절히 하신 말씀사상이 또박또박 적혀있었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혁명을 시작했고 지금도 무엇때문에 만난을 무릅쓰고 혁명을 계속하고있는가. 온갖 불의와 폐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 인간적인것을 옹호하며 인간이 창조해낸 모든 부와 아름다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모두가 이 저주로운 세상을 향해 반기를 든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혁명가들인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가만 내버려둘수 있겠는가. 후대들은 계급의 꽃이고 민족의 꽃이며 인류의 꽃이다. 이 꽃을 잘 가꾸는것은 혁명가들의 신성한 임무이다.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 혁명의 장래가 결정된다. 혁명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대를 두고 완성되게 된다. 오늘은 우리가 혁명을 담당한 주인으로 되고있지만 래일은 저 애들이 자라서 혁명을 떠메고나가는 주력군으로 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선혁명에 끝까지 충실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후대를 튼튼히 키워야 한다. 더구나 저 애들은 우리의 전우들이 남기고 간 유자녀들이 아닌가. 우리는 그 전우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저 아이들을 아끼고 따뜻이 돌봐주어야 한다. …

그때 마안산에서 하신 장군님의 말씀을 전해듣고 크나큰 충격에 겨워 마련하신것이 바로 이 가지색수첩이였다.

그날부터 그이께서는 이 수첩을 어느 하루도 품에서 떼놓으신적이 없으시였고 날을 따라 수첩에는 더 많은 동지들의 이름이 적혀지게 되였다.

해방된 조국땅에 와서 그 수첩에는 그이께서만이 알수 있는 표식이 새로 그려지게 되였다. 그것은 찾아낸 전우들의 자녀들과 아직 찾지 못한 유자녀들에 대한 표식이였다. 찾지 못한 유자녀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더더욱 이 수첩을 손에서 놓을수 없고 그래서 더더욱 이 수첩을 자주 펼치군 하신다.

오중흡동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정일권동무에게도 자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행처도 이름도 생사여부도 모르는 유자녀들은 또 얼마이랴…

추억은 바닥없이 깊어만 간다. 생각은 천갈래, 만갈래로 뻗어간다. 마음은 천근만근으로 무거워만진다. 자신의 심정이 이러할진대 장군님의 심중은 그 얼마나 괴롭고 아프시랴. 오죽하면 장군님께서 벌써 몇차례씩이나 학원터전을 확정하시려 만경대에 나가셨으랴.

(애들아! 너희들은 지금 다들 어디에 가있느냐? 도대체 살았느냐 죽었느냐? 살아있다면 왜 해방된 조국땅에, 장군님앞에 제발로 찾아와 내가 누구의 자식이라고 선뜻 나서지들 못하느냐.)

김정숙동지께서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답답해오는 가슴을 달래려 방문을 열고 뜨락으로 나서시였다. 마당가의 한그루 느티나무가 날려오는 미풍에 연록빛잎사귀들을 소리없이 흔들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천천히 그곳으로 다가가시였다. 굵은 나무가지에 한손을 얹고 그 우듬지를 향해 눈길을 드시였다. 흔들리는 잎새사이로 봄날의 해빛이 금빛채광마냥 언뜻언뜻 쏟아져내린다. 마치 숨박곡질하는 귀여운 장난꾸러기들처럼 요리조리 나무잎에 숨었다가는 어느결에 벌써 재빨리 잎새사이를 헤집고 나타나 눈이 시려웁도록 반짝반짝 웃는다.

불쑥 이름할수 없는 그 어떤 따뜻한 정이 온몸을 휩싸안았다.

어쩐지 하느적이는 나무잎 하나하나가 가지색수첩에 적혀있는 그 애들의 얼굴처럼 생각되였고 나무잎사이로 잠간잠간 부서져내리는 따뜻한 해빛은 그 애들의 사랑스런 웃음발처럼 느껴졌다.

아, 정녕 한나무가지에 생을 얹고사는 저 무수한 잎사귀들처럼 그 애들모두가 이 뜨락에서 그렇듯 다정하게, 그렇듯 아름답게, 그렇듯

창창하게 자랄수만 있다면! 그럴수만 있다면 이 몸이 그대로 그 햇잎들을 모두 품어안고 자래우는 줄기가 되련만 아니, 뿌리가 되련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잊지 못할 타향의 봄날이 생각키우시였다. 비겁분자들이 적들의 품으로 달아나고있을 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결코 한두 대에 끝나지 않을 혁명의 장구한 앞날을 내다보시였다.
뜻깊은 사진을 남기신 그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우리 아버님께서 지으신 〈남산의 푸른 소나무〉라는 글이 생각나오.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며는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반드시 조국광복의 새봄을 안아오시겠다는 아버님의 그 결심을 다시금 새겨안게 되는 준엄한 나날이요. 미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코 신념이 있을수 없는것이요.》
장군님께서는 이것으로 한생의 언약을 대신하시였고 그 다음해 소백수 백두밀영귀틀집에서는 마침내 백두광명성이 탄생하였다.
조선에 대통운이 텄다고, 혁명의 미래는 창창하다고 울고웃으며 밀영주변의 나무들에 구호들을 새기던 전우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였다.
미래!…
김정숙동지께서는 끝없이 갈마드는 생각에 잠기여 오래도록 느티나무가지우를 바라보시였다.
아마도 대문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만 아니였더라면 그이께서는 도저히 그 상념에서 깨여나지 못하셨을는지도 모른다.
《제발 부탁이예요. 꼭 좀 만나뵙게 해주세요, 예?》
《야, 지금은 정말 안돼요. 어쩌다 겨우 쉬실 시간을 내셨는데…후에 다시 오면 안되겠어요?》
저으기 당돌하면서도 아직 애티가 느껴지는 저 목소리는 분명 영실이의것이다. 그런데 북관지방의 억양이 다분히 풍기는 저 녀자목소리는 누구의것인가.
그이께서는 저도 모르게 귀를 강구시였다.
《우린 저… 무산에서 왔어요. 1년나마 벼르고벼르다가 찾아왔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더 듣고계실수만 없어 대문가로 다가가 문을 여

시였다. 문가에서 조금 떨어져 영실이와 마주선 처녀의 모습이 언뜻 비껴들었다. 그옆에는 열서너살정도 나보이는 총각애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서있었다.

《영실이, 그렇게 말하면 되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영실이를 가볍게 나무라고나서 다소 긴장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들에게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머나먼 북변땅에서 불원천리하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문밖에 세워두어서 정말 안됐어요. 자, 어서 들어들 와요.》

김정숙동지의 말씀은 더없이 친절하였으나 그들은 여전히 긴장감을 풀지 못하고 조심조심 대문안으로 들어섰다.

김영실이 뒤따라들어서며 재빨리 그이께 귀속말로 속살거렸다.

《저 녀잔 소학교교원인데 꼭 형님을 만나뵙겠대요. 그리고 저 사내앤 그의 동생이래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좀 데면데면한 성격인 그가 당사자들을 옆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것이 민망스러워 얼른 그의 등을 떠미시였다.

《됐어, 영실인 어서 들어가 공부나 하렴.》

김영실은 입술을 쫑깃해보이고나서 집안으로가 아니라 문밖으로 달려나갔다. 지난해 문맹퇴치는 겨우 하였지만 아직 공부에 그닥 재미를 붙이지 못하고있는 그다. 장군님께서는 그래서 그를 공부시키자고 댁으로 데려오셨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를 불러세울가 하다가 그저 빙그레 웃음을 짓고마시였다. 그리고는 영실이가 교원이라고 귀띔해준 처녀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시였다. 나이는 한 스물두세살가량 되였을가. 닭알형의 맑고 부드러운 얼굴은 까만 치마저고리와의 대조속에 옥같이 유난스러웠고 흰 동정깃을 살풋이 내리덮은 흑단같은 중발머리는 날씬한 몸매와 조화를 이루었다.

《나를 만나러 왔다지요?》

《?…》

처녀의 온몸이 굳어졌다. 이어 그의 눈동자에 불길같은것이 확 지펴졌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 불길은 스르르 사그라져버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처녀의 눈빛에서 그 짧은 한순간에 교차되는 놀라

움, 선망 그리고 죄스러움의 감정을 느끼시며 서둘러 말씀을 이으시였다.

《자, 우리 방안에 들어가서 이야길 하자요. 어서요.》

그러나 처녀는 못박힌듯 그냥 서있었다. 그의 크고 아름다운 두눈에 가랑가랑 눈물이 차올랐다.

《아니,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녀사님! 사실 전, 우리들은 녀사님께 죄를 지은 몸입니다. 방안에는커녕 감히 녀사님을 만나뵈올 면목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리해할수가 없군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정말이지 영문을 알수 없으시였다.

전혀 초면인 그들에게서 밑도 끝도 없이 죄인임을 자인하는 고백을 듣는것이 놀라우실뿐이였다.

이때 그 처녀가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정히 내여밀었다.

만년필이였다. 의아한 심정으로 그 만년필을 받아쥐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부지중《아!—》 하고 가볍게 놀라시였다.

오래동안 자신께서 쓰던 그 물건을 이내 알아보셨던것이다.

《이 만년필이 어떻게 동무에게?…》

이렇게 물으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뇌리를 치는 생각이 있어 처녀의 곁에 머리를 푹 수그리고 서있는 사내애에게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아니, 그럼 이 애가?…》

그이께서 비로소 사연을 짐작하셨다는것을 가늠했던지 처녀는 자기 동생에게 엄하게 일렀다.

《백산아, 녀사님께 무릎을 꿇어라. 어서!》

백산이라고 불리운 사내애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어린아이의 뜻밖의 행동에 당황해지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황황히 그의 팔을 잡아일으키셨다. 그러나 사내애의 고집도 보통이 아니여서 그냥 무릎을 땅에 꿇고 일어설념을 안했다.

《어서 일어나거라. 이러면 못쓴다. 그때 이미 널 용서하질 않았니?! 이 만년필을 전해준 아저씨가 너에게 그 말을 안해주더냐?》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년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였다.

어쩐지 그 어린 가슴에 멍이 든것 같아 가슴이 아프시였다.

《차영진동지에게서 녀사님께서 무엇때문에 이 만년필을 보내셨는지 그 사연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다름아닌 김정숙녀사님께 지은 죄야 어떻게…》

처녀는 끝내 《흑.》 하고 눈물을 쏟았다.

사연인즉 이러하였다. 1945년 11월 조국에 개선하시여 근 한달동안 함경북도일대에서 사업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렬차로 평양을 향해 떠나시였다. 조국이 갓 해방된 때여서 변변한 려객렬차도 부족하였고 렬차운행도 정해진 시간표가 따로 없었다.

12월의 그 추위속에서 난로 하나를 놓고 여드레동안이나 화차방통을 타고 고생고생하며 오다나니 모두들 지칠대로 지쳤다. 사달은 평양역에 다 이르러서 일어났다. 혼잡속에서 몇개의 물건이 없어졌는데 그속에는 김정숙동지의 배낭도 들어있었던것이다. 사실 배낭속에는 군용밥통을 비롯한 일부 생활용품밖에 없는지라 크게 아까울건 없었지만 문제는 바로 그 가지색수첩이였다. 그게 어떤 수첩인가. 그 귀중한걸 잃다니…

김정숙동지께서는 너무도 안타깝고 괴로우시여 며칠밤을 잠들지 못하시였다. 행여나 하여 그 주변을 샅샅이 훑고 또 훑었다. 혹시나 하여 화물역 사람들을 만나 여러차례 알아보았다.

《아니, 아주머니 또 왔소? 아, 그까짓 배낭 하나가 뭐라구 매일 와서 이 성화요?》

늙스그레한 화물역원은 버럭 짜증을 냈다. 김정숙동지이심을 알아볼수 없었던 그로서는 별치 않은 물건을 찾겠다고 애를 쓰는 평범한 녀인으로밖에 달리 생각지 않았던것이다. 그옆에 있던 조수인듯 한 젊은 청년도 한마디했다.

《아, 요즘에야 구석구석에 소매치기, 훌치기군들이 수두룩한데 배낭 같은걸 어디서 찾겠어요. 차라리 그 불쌍한 애녀석들이 쓰라고 내버리는게 낫지. 혹시 그 배낭에 황금이라도 들어있는건 아니겠지요?!》

《그 배낭엔 황금보다 더 귀중한것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그이의 진심이였다. 청년의 두눈이 둥그래졌다. 그리고 그

것이 정말 보통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가 꼭 찾겠노라고 나섰다. 사실 그는 역주변에서 방랑하며 좀도적질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거의나 다 알고있었던것이다. 그 청년은 하루만에 끝내 배낭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싱글벙글 웃으며 배낭을 김정숙동지앞에 내놓았다.

《이 배낭을 훔친 녀석은 무산에서 집을 뛰쳐나온 앤데 여간 밸통머리가 세지 않더군요. 자긴 뭐 훔친게 아니라 철길에서 얻었다나요. 내 그래서 뒤덜미 끌고 올가하다가 그만두었수다. 하긴 뭐 그녀석만을 탓할것도 아니지요. 먹고 살자니 그 어린것들이 별다른 수단이 있겠습니까.》

그 청년은 그저 보통아주머니로 생각했던 녀인이 다름아닌 항일의 전설적녀장군 김정숙동지이심을 알게 되였다. 그것을 알고는 본래의 태도를 버리고 당장 가서 그 도적놈을 붙들어오겠다고 펄펄 뛰였다.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그런 놈은 리유여하를 불문하고 용서할수 없다는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때 그를 만류하시며 그 소년에게는 죄가 없다, 그것은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살래야 살수 없는 막바지인생길에 내몰린 노예살이의 후과이다, 나라가 해방되였으니 이제 멀지 않아 그런 애들도 마음껏 공부하며 행복하게 살 날이 꼭 온다고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도 자신께서 쓰시던 만년필과 얼마간의 돈을 그의 손에 쥐여주면서 그 소년에게 주라고, 꼭 집으로 돌아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되길 바란다고 전해주기를 부탁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그날의 그 당부를 안고 찾아갔던 그 청년이 화물역 조수였던 차영진이였다. 그는 지금 중앙보안간부학교 학생이다.

그러니 그때 차영진이 말하던, 자신께서 보내신 그 만년필을 받았던 소년이 다름아닌 지금의 이 백산인것이다.

참, 사람의 인연이란…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시한번 그들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시였다.

백산이는 이마가 도도록한게 옹골차게 생겼다.

차영진의 말처럼 여간 밸통있고 자존심이 강할것 같지 않았다.

처녀는 소학교 교원이라고 했지. 보기에도 진중한 처녀라는것이 알린다. 교양있는 기품과 무게있는 지성미가 느껴진다. 마음씨는 또 얼마나 결곡한가.

1년도 지난 오늘까지 어린 동생의 잘못을 두고 괴로와하고 수천리 머나먼 길을 떠나 이렇게 죄를 자청하러 찾아온것만 보아도 그의 깨끗한 성정과 인간미를 알수 있다.

정말 겉도 속도 다 같이 아름다운 처녀다. 그런데 그 눈빛에는 어딘가 모르게 고독이 비껴있다.

고뇌, 고심… 어쩐지 그 아름다운 눈에는 어울리지 않아.

김정숙동지께서는 심중에 파고드는 이런 생각을 애써 털어버리며 웃음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자, 우리 서로 알고지내자요. 동무의 이름은 뭐예요?》

처녀는 고개를 솔곳이 숙이며 나직이 대답하였다.

《김춘희입니다.》

11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명백히 대답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분명 행복하다고 해야 할것이다. 비록 그것이 그 어떤 육체적고생이나 고통, 직업적과부담을 안고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추억할수 있는 생의 자욱과 자기가 가고있고 또 가야만 하는 뚜렷한 생의 의지가 비껴있는것이다.

하다면 춘희,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어제날의 꿈많은 문학소녀?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시선을 모으던 처녀교원?…

그러나 그것은 봄날의 한갖 아지랑이와도 같은것이였다. 운명은 춘희에게서 추억, 긍지, 희망을 깡그리 앗아가버렸다.

얄궂은것은 그 장본인이 다름아닌 아버지라는것이다.

그의 아버지 김현철은 룡정에서 《향토물산》이라는 간판을 달고 북부조선일대의 토산물들을 시가지의 식당, 상점들에 조달해주는 일

종의 상업가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찌기 독립운동을 하다가 왜놈들에게 희생된 부친의 뜻을 이어 무기와 식량을 비롯한 군수물자들을 구입하여 독립군에 조달하는 일을 맡아하고있었다.

물론 춘희는 철이 들어서야 사실을 알수 있었다.

상품조달과 거래때문에 늘 집을 떠나 살다싶이 하던 아버지여서 춘희의 소녀시절은 중학교 문학교원인 어머니의 문학세계속에 파묻혀 살아왔다. 한때 강경애와 같은 녀류작가를 꿈꾸던 어머니는 자신의 이루지 못한 소원을 딸에게 심어주었다. 그래서인지 춘희는 벌써 그 시절부터 여느 애들과는 달리 문학작품의 주인공의 세계에 심취되여 있었다.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백조》를 비롯한 안데르센의 동화들과 《푸른 집의 앤》, 《테스》, 《제인 에어》등 세계문학사가 남긴 녀주인공들의 운명사는 다정다감한 그의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자욱으로 새겨졌다.

진실하고 아름다운 인간들이 어떻게 자기를 이겨내고 지켜내며 어떻게 자기의 세계를 창조하고 완성해나가는가. …

언제부터인가는 그들이 단순히 책속의 그 어떤 미지의 인간들이 아니라 한집안에서 같이 살며 생활하는 더없이 친근한 모습들로 여겨졌고 나아가서는 자기자신처럼 느껴졌다.

그의 끝없는 독서열에 집안의 서고는 이미 판이 난지 오랬고 어머니는 학교도서관의 책들을 부지런히 빌려오느라 윈심을 쓰지 않으면 안되였다.

계집애를 무슨 작가로 만들 작정이냐고 아버지가 핀잔하자 어머니는 정깊은 눈길로 춘희를 바라보며 《난 사실 춘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작가가 되였으면 좋겠어요. 작가! 뜻을 따지면 집을 짓는다는 말이지요. 조선사람모두가 다 훌륭한 인생의 집을 짓는다면, 또 그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기울어진 나라인들 어찌 다시 바로 서질 않겠어요.》 하고 조용히 말하였다.

그때 아버지는 《쿵-》 하고 거센 코소리를 내였었다.

춘희는 그것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자주 외우던 말 《지금은 그런 공상보다도 왜놈 한놈이라도 더 죽여야 한다.》는 자기의 주장을

뜻하는것임을 알수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말에 더 공감이 갔고 이 세상에 작가보다 더 큰 성인은 없어보였다.

춘희가 《예브게니 오네긴》의 녀주인공 따찌아나의 세계에 빠져들만큼 숙성한 처녀로 자랐을무렵 그의 집에는 만주에서 조선공산당재건운동을 벌린다는 라성환이란 사람이 자주 찾아왔다.

춘희에게는 어쩐지 눈빛이 사납고 표독스러워보이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버지도 그의 존재를 달가와하지 않는것 같았다.

어느날 밤인가 아버지의 방에서는 끝내 두사람의 격렬한 론쟁이 벌어졌다.

《여보시오, 라선생. 난 이미 5.30폭동이나 8.1폭동을 보고 당신네들에게 환멸을 느낀 사람이요. 동족의 피를 팔아 독립운동의 헤게모니아를 쥐려는 당신네의 그 속심을 내 모르는줄 아오? 그런데 뭐 독립군은 지리멸렬하게 됐으니 당신네를 도우라? 설사 내 독립군의 마지막군졸이 될지언정 당신들과는 손잡지 않겠소.》

그로부터 얼마후 아버지는 점점 조여들어오는 일제경찰의 추적으로부터 로출될 위험이 조성되게 되자 마지막으로 장만해놓은 무기들을 가지고 아예 독립군으로 들어가고말았다.

놈들은 집에 달려들어 어머니를 붙잡아갔다. 어머니는 닷새만에야 들것에 실려 돌아왔는데 놈들의 악착한 만행으로 반주검이 되였다.

집을 떠나간 아버지로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고 어머니는 몸을 회복하지 못한채 1년가까이 병상에 누워있다가 오누이만을 남겨두고 종시 한많은 세상을 떠났다.

화는 쌍으로 온다더니 그로부터 반년후, 이번에는 아버지의 비보가 날아들었다. 그것은 정녕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였다. 아버지가 사령으로 있던 독립군의 한 부대가 조선인민혁명군과의 격전끝에 전멸되였다는것이다. 그 소식은 만주의 거의 모든 관보들에 크게 실렸는데 독립군잔류부대사령과 유격대원의 시체라고 밝힌 사진까지 나있었다. 아무리 뜯어보고 또 보아도 분명 아버지의 모습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춘희는 믿지 않았다. 믿을수가 없었다.

조국을 그처럼 사랑하고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한몸을 아낌없이 바치고싶어하던 아버지가 무엇때문에 왜놈들과도 아닌 조선사람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와 싸운단 말인가. 그럴수 없다. 절대로 그럴수 없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모략선전이다!…

《그래, 너의 아버지 부대가 유격대와 격전을 벌렸다는건 엉터리없는 소리이다. 지금의 독립군이라는건 거의다 망하구 큰 싸움을 벌릴만 한 힘도 없어. 하지만 너의 아버지가 유격대의 손에 죽은건 사실이다. 너도 알다싶이 아버진 우리의 리념을 리해하지 않았구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손잡기를 거절했다. 너의 아버진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독립군의 잔존세력을 부여잡고 끝까지 반일항전을 해보려 했지만 이미 그 뜻을 펴보기에는 운이 기울었지. 그럴 때 유격대에서는 너의 아버지에게 사람을 파견했다. 왜놈들과의 싸움을 위해 유격대에 귀속시키려고 말이다. 그러나 고집불통인 너의 아버진 그 유격대파견원을 잡아가두고 끝내는 처형해버렸다. 결국 이에 격분한 유격대가 너의 아버지 부대를 들이쳐 복수를 한거란다. 네 아버지가 비명에 잘못된건 가슴아픈 일이지만 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수가 없구나. 너도 중학공부까지 했고 이제는 다 자란 처녀나 같은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하리라고 본다.》

이것은 뜻밖에 불쑥 나타난 라성환의 말이였다.

춘희는 하늘이 무너지는듯싶었다. 땅이 꺼져버리는듯싶었다.

신문에 실린 아버지의 죽음 그자체만으로도 가슴이 터져오는데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수 없는 그의 말은 춘희의 온넋을 졸지에 산산쪼각내고말았다.

《아니예요, 그럴수 없어요. 우리 아버진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예요!》

이것은 슬픔과 고통의 단말마적인 몸부림이였다.

허무해졌다. 자신이, 인생이 아니, 인간이란 그자체가 허무해졌다. 동창생들과 이웃들, 교편을 잡은 소학교 학생들의 눈길에서 그는 가혹한 경멸의 빛을 보았다. 그것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차적의로 짙어가는것을 느꼈다.

불행한 처녀의 넋은 방황하기 시작하였다. 비로소 안나 까레니나의 그 비극적인 선택이 리해되였다. 시시각각으로 그러한 선택의 충

동이 찾아들군 했다. 그러나 아직 열살도 안된 어린 동생(춘희의 다른 하나의 손아래 남동생은 일찌기 일본군용자동차에 치워죽었다.)의 애처로운 정상이 매번 그의 결심을 멈춰세우군 했다.

그 시절의 춘희에게 있어 안깐힘을 다해 부여잡은 한가닥의 정신적위안이 있었다면 역시 그것은 문학세계의 따뜻한 빛이였다. 그것도 지금까지 다분히 빠져있던 유럽문학의 세계가 아니라 자신처럼 방황하는 불행한 넋을 위로하는 이 나라 문인들의 소박하고도 진실한 세계였다.

이 세상에는 길도 많기도 합니다
산에는 들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배길이 있습니다
공중에는 달과 별의 길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낚시질하는 사람은
모래우에 발자취를 냅니다
들에서 나물캐는 녀자는 방초를 밟습니다
악한 사람은 죄의 길을 좇아갑니다
의있는 사람은 옳은 길을 위하여는 칼날을 밟습니다
서산에 지는해는 붉은 노을 밟습니다
봄아침의 맑은 이슬은 꽃머리에서 미끄럼탑니다

그러나 나의 길은 이 세상에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님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것은 만일 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다른 길은 죽음의 길보다 험하고 괴로운 까닭입니다

아, 나의 길은 누가 내였습니까
아, 이 세상에는 님이 아니고는 나의 길을 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길을 님이 내였으면
죽음의 길은 왜 내셨을가요

일찌기 1919년 3.1운동당시《독립선언서》를 선포한 33명중의 한 사람이였던 불교승출신의 시인 만해 한룡운의 시집《님의 침묵》속의 시《나의 길》은 춘희가 독실한 신자들의 기도처럼 아침저녁 마음속으로 읊어보는 복음으로 되였고 희망으로 되였으며 이 세상과의 유일한 대화로 되였다.

물론 그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싶어했던 님은 한룡운이 자기시에 체현시키고저 했던 조국과 향토와 겨레, 자유와 행복을 포괄하는 그렇듯 크고 사랑스러운 모든것을 다 의미하는것은 아니였다.

아직은 소박한, 그저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진실 그리고 문학으로 대표되는(그에게 있어서) 학문의 정의로움이 님의 상징이였다. 어쨌든 처녀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님도 시인의 그 님처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였다. 그러나 고생스럽고 고독스러웠던 그 시절, 님의 길을 그토록 애타게 찾고 부르며 정신적방황에 몸부림칠 때에조차 그의 님은 여전히 침묵하고있었다.

한창나이의 처녀였지만 그는 웃음을 몰랐다. 눈물도 몰랐다.

더우기 이미 만주광야에 전설처럼 퍼져있던 **김일성**장군님빨찌산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뼈를 저미는 죄스러움과 모순된 자신의 처지로부터 오는 슬픔으로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아, 진정 산에는 들길이 있고 바다에는 배길이 있으며 하늘에는 달과 별의 길이 있는데 나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조국의 해방과 함께 그의 운명은 더욱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수치를 휘말아올렸다. 일제에 의해 쌓이고쌓였던 인민들의 원한이 그 주구들은 물론 김현철과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터져왔던것이다. 다행히도 백산이가 아직 소년이고 또 춘희가 처녀인것으로 하여 그저 교원직업을 박탈하고 내쫓기우는것으로 일이 끝났으니 망정이지 하마트면 그들은 목숨을 잃을번 하였다.

마가을락엽이 쓸쓸히 흩날리던 어느날 밤 그들은 두만강을 건너 조국땅에 들어섰다. 이국땅에서도 사무치게 그려보군 하던 조국, 비록 왜놈들이 주인노릇을 하고 부모님들이 눈물을 뿌리며 떠나왔다는 조국이였건만 철이 들수록 못 견디게 가고싶고 생각만 하여도 까닭없

이 가슴울렁이여지던 신성한 그 땅… 아마도 그래서 사랑하는 조국을 련인의 형상—님으로 노래한 만해선생의 그 시들이 더더욱 춘희의 심금을 파고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꿈에도 소원하던 그 땅, 그것도 왜놈들이 쫓겨간 해방된 내 나라 땅에 그는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 서러움과 불안, 죄스러움을 안고 들어섰다. 그 누가 자기들을 알아볼가봐 어둠속에서조차 눈길을 들지 못하고 조심조심 걸음을 옮겨야 했다.

처녀의 눈에서는 지금껏 참고참았던, 마르고말랐던 눈물이 물목터진 강줄기처럼 흘러내렸다. 이렇게 조국땅에 돌아오게 되리라고 어찌 꿈엔들 생각이나 해보았으랴.

춘희는 허청허청 걸음을 내짚었다. 제 부모를 잃고 일찍 철이 들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괴벽스러워졌다고 해야 할지 좀해서는 묻는 말에조차 대답하기 싫어하는 백산이가 서너발치앞에서 묵묵히 걷고있다. 하긴 사내나이 열두살이면 어찌 세상물정을 영 모른다고 하랴.

춘희가 정하고 찾아간 곳은 고향 무산이였다. 그곳에 그 무슨 밭은 친척이 있어서도 아니였고 또 아는 사람이 있어서도 아니였다. 그는 자기 집안의 과거, 정확히는 아버지의 행적을 알지 못하는 이 깊은 산골에서 새생활을 창조하고싶었다. 그러나 세상은 참으로 넓고도 좁은것이였다. 고향사람들은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하긴 신문들에서 떠들썩했으니 이곳에서라고 어찌 모를수 있으랴.

세상을 피해보자고 한 노릇이 오히려 더 험악하고 막다른 골목에 빠져든격이 되고말았다. 춘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 세상에서,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서 자기들이 머리들고 딛고 설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음을 절감하였다. 자기와 백산이를 안아줄 그런 님의 품, 자기와 백산이가 안겨살 그런 님의 뜨락은 정녕 없었던것이다. 시간이 흘러가도 님은 여전히 침묵뿐이였다. 그것은 자기들에 대한 이 세상의 침묵이였다. 그것도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랭담과 멸시의 침묵이였다. 춘희는 더이상 님의 그 침묵이 끝나길 기다리지 않았다. 다만 운명에 순종하리라 마음먹었다. …

그해의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날 백산이가 없어졌다. 자기를 찾지

말라는 쪽지편지만 남겨놓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하긴 그 애에게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생각이 있을진대 어찌 자기를 바라보는 그 경멸과 증오의 눈빛을 보지 못할수 있으며 욕설과 비난을 듣지 못할수 있으랴. 어찌 서러움과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수 있으랴. 이 세상에 남은 한점 혈육인 백산을 찾아 춘희가 안 다녀본 곳이 거의 없었으나 종시 그를 찾을길이 없었다.

더이상 살고싶은 생각이 없었으나 어린 백산이를 생각하여 도저히 그럴수 없었다. 춘희는 모든것을 묵묵히 참으며 무산땅에 돌아왔다. 언제인가는 백산이가 이곳을 찾아오리라는, 어디에 있다는 소식이라도 알려오리라는 미련에서였다. 그의 생각은 옳았다. 다음해 정월도 저물어가던 어느날 낯모를 한 청년이 백산이를 앞세우고 그를 찾아 왔던것이다.

《동무가 이 백산이의 누님되는분인가요?》

어째서인지 사뭇 당황해하는 그 청년의 순진해보이는 눈빛앞에서 춘희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였다.

《난 차영진이라고 합니다. 평양화물역에서 로동을 하는 사람이지요.》

어깨가 쩍 벌어지고 키가 후리후리한 청년은 굽실굽실한 앞머리카락들을 괜스레 매만지며 이렇게 자기 소개를 했다.

청년의 눈빛이며 말투며 거동을 봐서 그리고 백산이와 주고받는 무언의 눈길에 비낀 친근감을 봐서 그가 어떤 적의를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으리라는 기대감이 은연중 커졌다. 그러나 차영진이 어떻게 백산이를 알게 되고 어떻게 되여 여기까지 오게 되였는가를 듣고나서 춘희는 자기가 그에게서 그 어떤 호의를 바랐던 그자체가 어리석고 미련한것이였음을 절감하였다. 백산이가 도적이 되였었다는, 그것도 명성이 자자한 항일의 녀장군 김정숙녀사의 배낭을 도적질했었다는 청천벽력같은 사실앞에서 그는 눈앞이 캄캄해지고말았다.

…저벅저벅, 시퍼렇게 날이 선 장검을 높이 쳐든 사람이 다가왔다. 절커덕, 격발기를 잡아당기며 금시 불을 토할듯싶은 총구를 내밀며 누군가가 다가왔다.

아, 끝내 올것이 오고야말았구나. 운명을 피할 길은 정녕 이 세상

에 없구나!
그런데 왜 칼을 내리치지 않을가? 왜 총을 쏘지 않을가?
저 사람은 왜 웃고있을가? 비웃음인가? 아니면 한가닥 저 따뜻한 미소는 동정인가?…
《제 말에 무척 놀란 모양이군요. 그러지 마시오. 나도 처음에는 몇번씩이나 찾아오신 녀사님을 알아뵙지 못했는데 저 애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김정숙녀사께서는 그 소년에게는 죄가 없다, 그것은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살래야 살수 없었던 비참한 생활의 후과이다, 나라가 해방되였으니 이제 멀지 않아 이 애들도 마음껏 공부하며 행복하게 살게 될 날이 꼭 온다고 하시면서 저 백산이에게 자신께서 쓰시던 만년필을 꼭 전해주라고 말씀하시였답니다. 그리고 로자까지 쥐여주시면서 꼭 집으로 데려다주라고, 백산이가 꼭 공부를 잘해 훌륭한 학생이 되길 바란다는 당부까지 하셨지요.》
《예－에?》
《제 말은 죄다 사실입니다. 녀사님의 그 간곡한 당부가 있었기에 나도 이렇게 먼길을 떠나올 결심을 한거랍니다. 자, 백산아. 누나에게 그 만년필을 어서 보여주거라.》
《누나!…》
백산이가 만년필을 내여밀었다.
춘희는 그 만년필을 소중히 품에 안았다. 비로소 눈앞의 모든 현실이 거짓이 아닌 진실임을 온몸으로 느꼈다. 인간의 따뜻한 정, 그가 철들어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다른 사람의 정 아니, 이 세상이 처음으로 자기에게 보내주는 사랑의 정이였다. 하지만…
《우린… 이 귀중한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예요.》
《예?…》
차영진은 떠나갔다. 그가 춘희의 마지막말뜻을 어떻게 리해하고 떠났는지는 알수 없었다. 그러나 어떻게 리해하고 떠났든, 그가 이곳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연을 다 알고 떠났든 모르고 떠났든 그것은 춘희에게 있어서 중요치 않았다. 중요한것은 차영진이라는 존재가 춘희의 가슴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고마운 사람이라는것이였다. 그는 이 세상이 춘희에게 보내준 단 한점의 따뜻한 인정을 덜지도 보

태지도 않고 고스란히 전해준 생의 구원자였다.

이 세상이 춘희를 저버리지 않았으며 해방조국이 그들을 용납할뿐더러 품어주었다는것을 전해준 생의 고무자였다. 이것으로 하여 그는 비관에 쓰러지지 않았다. 이것으로 하여 그는 새삶을 창조할수 있게 되였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마을사람들이 그의 진심을 리해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그들은 집안의 과거사와 춘희를 갈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글모르는 자식들이 춘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근 일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차츰차츰 마음의 안정이 깃들수록 그는 자기에게 처음으로 인간의 따뜻한 정을 안겨준 김정숙녀사님을 만나뵙고싶은 강렬한 충동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처지를 놓고볼 때 우연히 차례진 행운이였다고 할지라도 그 인정앞에, 그 믿음앞에 깊이깊이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싶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가야 할 인생의 길을 묻고싶었다.

만약 그분께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놀라신다면 그리고 너와 같은 인간들이 갈 길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러신대도 좋았다. 녀성의 몸으로 손에 총을 잡고 십여성상 일제와의 성전을 직접 벌리신 항일전의 녀장군께 죄많은 자기 가정에 대해서, 백산이가 저질렀던 그 큰 죄에 대해서 가슴후련히 용서를 빌고 판결을 받는것만으로도 여한이 없을것 같았다. 고마운 녀사님께 죄를 빌자. 그분의 진정앞에 진실을 터놓고 죄를 비는것이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이고 량심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여 춘희는 백산이를 데리고 무산을 떠나 평양으로 올라왔다. 평양에서 그가 유일하게 알수 있는 사람은 차영진밖에 없었다. 그러나 화물역에 찾아가니 차영진은 이미 중앙보안간부학교에 입학한지 1년이 되였다는것이였다. 그래도 백산이가 방랑생활을 하며 눈에 익혀두었던 평양의 거리거리를 따라걸으며 끝내 시인 리찬의 거처를 알아냈다. 춘희가 중학시절에 리찬선생이 학교에서 초빙교사로 얼마간 강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그때 문학소녀였던 그를 각별히 귀여워해준 인연이 있었던것이다.

옛시절의 꿈많던 문학도를 알아본 시인은 그의 간절한 소원을 헤아려주었다. 그리하여 춘희와 백산이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지 않는 평범하고 수수한 저택에 예견치 않았던 손님으로 불쑥 찾아들게 되였다.

그러나 정작 김정숙녀사께서 《자, 우리 서로 알고지내자요.》 하고 웃으며 말씀하실 때 춘희는 그만 고개를 숙이고말았다. 아, 저 부드러운 미소앞에 어떻게 가정의 죄많은 인생행로를 가볍게 이야기할수 있단 말인가.

정녕 자신에 대해서 한두마디로 명백히 대답할수 있는 그런 인생은 얼마나 행복할것인가!…

12

당중앙위원회 제6차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닷새가 지나갔다. 회의에서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급 당조직들의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실행을 위하여 증산돌격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며 이 운동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고 사회단체들을 잘 발동하여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나날 수많은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여 인민들을 건국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느라 드바쁜 시간을 보내시였다.

새 조국건설을 위한 크고작은 일들은 의연히 그이의 령도의 손길을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그 어느것 하나 무겁다고 내려놓을수 없으시였고 가볍다고 남에게 짊어지울수 없으시였다. 그럴수록 그이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민족간부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역할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시였다. 마음같아서는 자신께서 품들여 키웠고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우수한 투사들을 군건설사업뿐아니라 당, 정권기관과 경제건설의 중요부문들에까지 세우고싶으시였으나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이 벌써부터 북침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는 조건에서 그들을 군대에서 떼여낼수는 없었다. 그들은 지금 보안간부훈련소산하에서 대부분 대대장, 중대장,

지어 소대장들로 사업하고있었다. 그렇다고 김책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만을 데리고 건국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나갈수는 없는것이였다. 과거 국내와 해외에서 이러저러한 투쟁에 참가하였다고 하는 사람들과 통일전선을 이루고 그들의 애국열의에 기대를 걸었으나 많은 경우 골수에 절은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그리고 종파적습성을 좀처럼 버리기 힘들어했다.

준비된 민족간부의 결핍, 이것은 새 조선을 일떠세우는 오늘의 투쟁에서 여전히 난문제로 제기되고있는 고충이 아닐수 없었다. 뿐만아니라 장차 나라의 전도를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명백한것은 민족간부는 그 누가 키워서 가져다주는것도 아니고 바란다고 하여 하늘에서 저절로 뚝 떨어지는것도 아니라는것이였다. 오직 한사람한사람 품들여 찾아내고 품들여 키우는것외에 다른 해결책이란 있을수 없었다. 하기에 이미 해방직후부터 이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오시였다. 평양학원, 로농정치학교 등의 설립이 그러했고 종합대학창립과 같은 전망적인 민족간부교육방침 등이 그러한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적인 이런 절박성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혁명가 유자녀들을 위한 학원창립과 그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더는 한시도 미룰수 없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시였다. 만경대에 나가 학원터전을 잡고오신 뒤로는 더욱 조급해지는 심정을 누를길 없으시였다.

하여 그이께서는 지금 그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북조선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책을 기다리고계시는중이였다.

집무실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예, 들어오시오.》

방안에 들어선 사람은 뜻밖에도 오기섭이였다.

작고 다부진 체격에 늘 자신만만해하는 표정으로 이 방에 들어서군 하던 그가 오늘은 어깨가 축 처져 저으기 초췌해보였다. 면도까지 하지 않아 턱밑이 꺼칠했다. 보매 당중앙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받은 비판을 놓고 생각이 많은 모양이였다. 그날 회의에서는 오기섭이 발표한 론설《북조선인민정권하의 북조선직업동맹》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있었던것이다.

그는 론설에서 우리 나라 국영기업소들에도 자본과 로동간에 계급적리익의 대립이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지배인과 로동자들사이에 투쟁이 있게 된다는 터무니없는 리론을 제기하고 로동자들과 인민정권사이에 마찰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 직맹이 로동자들에게 최대한으로 유리하게 사업해야 한다느니 뭐니하면서 마치 직업동맹이 로동자들과 인민정권사이의 모순을 조정해결해주는 기관인것처럼 주장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대체 인민정권은 누구의 정권이요?》 하고 엄하게 질책하시며 인민정권하에서의 직업동맹은 자본주의하에서의 로동조합과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른것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로동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로동조합이 자본가정권과 싸워야 하지만 인민정권이 수립된 조건하에서의 직업동맹은 자기의 주권인 인민정권을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직업동맹은 당과 인민대중을 련결하는 인전대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인민정권의 시책을 로동자들에게 해설하고 그 실행에로 그들을 조직동원해야 하는것이라고 호되게 비판하시였다.

《**김일성**동지, 제 요 며칠새 자신을 심각히 반성해보았습니다. 사실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등장한 사회제도하에서의 직업동맹의 역할문제에 대한 리론은 미개척지나 다름없었던탓에…》

오기섭은 자신을 뉘우치는듯 머리를 푹 수그리였다.

하지만 그 어조에는 잘 몰라서 본의아니게 그렇게 되였다는 뒤대사가 다분히 묻어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심각하게 자기를 반성해보았다고는 하지만 그날 회의에서 비판을 받을 때의 태도와 별반 다른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그의 모습을 무거운 마음으로 이윽토록 바라보시였다.

《그렇다고 로씨야에서 신경제정책시기에 레닌이 제기했던 문제를 해방된 조선의 현실에 그대로 옮겨놓아서야 안되지요. 오기섭동무야 북조선인민위원회 로동국장인데 응당 우리 나라 현실에 부합되는 그런 리론을 제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지금 빈말공부나 하고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사업을 연구하고 사업에 투신해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일성**동지.》

《그래 그 문제때문에 날 찾아왔습니까? 사실 그 문제야 이미 회의에서 다 비판되고 토론된것이 아닙니까. 난 로동국장동무가 사업을 통해서 이번 과오를 고쳐나가길 바랍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때마침 방에 들어서는 김책을 띠여보시고 담화를 결속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런데 오기섭은 무슨 다른 문제가 더 있는지 잠시 망설이였다.

《저… 그때문만은 아니고… **김일성**동지께서 혁명가유자녀들때문에 걱정이 크시기에 혹 방조가 되지 않을가 해서…》

그는 진중한 낯빛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허가이동무와는 좀 토론이 있었는데 유자녀문제를 우리 로동국에서 풀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는 의아한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는 김책을 슬쩍 곁눈질해보았다. 그와 여러차례 부딪쳐본 오기섭이로서는 사실 은근히 두려운게 김책의 얼굴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가 뜻밖에도 유자녀문제를 풀겠다고 솔선 자청해나서는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게 이 사람의 진심의 소릴가? 혹시 비판을 받았으니 어떤 열성을 보이자는 의도인가? 아니면 정말로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김책의 얼굴에도 종잡지 못해하는 기색이 질게 어려있었다. 어쨌든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였다. 아직은 그가 그 어떤 방도를 내놓으려고 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그자체만으로도 마음이 훈훈해지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안색에서 감사의 빛을 재빨리 읽은 오기섭이 조심스럽던 어조를 홀연 버리고 례의 그 자신만만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지금의 조건에서 이런저런 경우를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유자녀문제는 난문제입니다. 그 애들을 찾는 문제도 그렇고 또 청사문제도 그렇고…》

《여보, 오동무. 거 뻔한 소린 그만두고 어떻게 하자는건지 빨리 그거나 말하오.》

김책이 속이 답답한듯 바투 따져물었다.

오기섭은 좀 시틋한 눈길로 그를 흘겨보고나서 말을 이었다.

《물론 만경대에 학원터전을 잡았다는 말은 들었지만 건설이 또 몇년 걸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 좀 생각해보았는데 당장은 모든 국영공장들마다에 로동기술학원 같은것을 대대적으로 내오구 유자녀들을 그곳에 보내면 어떻겠는가 하는겁니다.》

《로동기술학원이요?》

《예, 그러면 생업을 보장받을수 있고 종신기술도 배우고 또 나라의 긴장한 로력문제도 풀수 있을게 아닙니까.》

오기섭은 이런 신통한 묘책을 찾느라 무척 고심했다는듯 벗어지기 시작한 자기의 머리를 슬슬 쓰다듬었다.

말해놓고보니 자기로서도 꿩먹고 알먹고 둥지털어 불때는 식의 방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두에 괜히 허가이와 토론(사실 며칠전에 이것을 귀띔해준것은 그였던것이다.)했다는 말을 한것이 후회되기까지 하였다.

《아니, 그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요?》

김책이 그의 기분좋은 속구구를 헝클어놓았다.

(저 량반은 내 말이라면 한사코 시쁘둥해한다니까. 함남도 파견원으로 왔을 때 하대했더니 복수를 하자는건가. 이것도 저것도 다 같은 학원인데 뭐 어쨌다고 눈살이 꼿꼿해지는거야. 큰돈 안 들이고 큰품 안 들이구 문젤 해결하면 좋은거지.)

오기섭은 속으로 꿍꿍거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성을 높이는 김책을 제지시키고나서 다시 오기섭에게 물으시였다.

《그럼 로동할 나이의 유자녀들은 그렇게 한다치고 어린아이들은 어쩌겠습니까? 설마 소년로동을 복귀하자는거야 아니겠지요?》

《예? 저 그건…》

《유자녀문제를 놓고 생각을 한건 좋은데 그건 우리 뜻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전히 부드러운 빛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린 단순히 그 애들에게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만 학원을 세우자는게 아닙니다. 물론 직업을 얻어주고 직업기술을 배워주는것도 필요할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 애들가운데는 로동할 나이의 유자녀

들보다 아직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해도 혁명렬사들이 남기고 간 자녀들을 저희들끼리 벌어먹고 살라고 내버려둘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솔직히 그 애들 생각때문에 난 어느 하루도 발편잠을 자보지 못합니다. 종종 일손도 잡히지 않구요. …

우린 그 애들에게 하루빨리 친부모의 사랑을 되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부모들의 뒤를 이어나가도록 키워야 합니다. 난 오기섭동무가 우리의 이 뜻을 옳게 리해하리라고 봅니다.》

《**김일성**동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오기섭이 머리를 수그렸다.

진심으로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였음을 깨달아서인지 아니면 적중한 말을 고르느라고 해서인지 그는 인차 말을 잇지 못하였다.

《나라의 어려운 형편만 생각하다보니…

김일성동지의 그 고매한 의리심을 제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전 다만…》

《의리심이라…》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소 실망이 어린 어조로 이렇게 되뇌이시였다. 그가 아직 자신의 뜻을 다 리해하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왔으나 왜서인지 더 설명하고싶지 않으시였다.

《글쎄 저 량반이 하는 생각이란 온통 엉터리라니까요.》

오기섭이 방에서 나가자 김책이 쓴입을 다시며 중얼거렸다.

《허허… 김책동문 한번 도리머리를 저으면 그냥 외면해버리려는 그 성밀 고쳐야 하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웃으며 하시는 말씀이였다.

《제 동만청총때부터 저런 류의 〈혁명가〉들을 좀 적게 대상했다구요?! 사대와 종파에 절을대로 절은 저런 사람들은 대동강물을 다 쏟아부어두 그 근성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배척하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왕지사 손을 잡고 나선 이상 깨우쳐주고 이끌어줘서라도 데리고 가야지요.》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아시는지라 구태여 더

다른 말을 하지 않으시였다.

《참, 이자 오기섭동무의 생각이 엉터리이긴 하지만 한가지만은 옳은 소릴 했습니다.》

《예?》

《그 동무가 학원건설이 몇년 걸릴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 말이 일리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무리 빨라도 래년까지는 걸릴것 같은데…》

《예, 력량을 집중한다 쳐도 래년 9~10월까지는 걸릴것 같습니다.》

김책이 얼른 속타산을 해보고 대답올렸다.

《그렇지?!… 그럼 그때까지 그 애들을 또 내쳐두어야 한다는 소린데… 김책동무, 난 더이상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 심장이 견디여낼것 같지 않습니다.》

《장군님!》

《이렇게 합시다. 학원청사건설은 건설대로 내밀면서도 그 애들을 다 데려다가 먼저 생활도 돌봐주고 공부도 시킵시다. 림시로 학원으로 쓸만 한 건물을 얻어봅시다.》

그이께서는 이미전부터 속으로 생각해오던 문제를 김책에게 터놓으시였다.

《그러니까 학원림시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예, 학원청사가 건설될 때까지 그 애들이 생활하고 공부할수 있게 손질해줘서 올해 9월 1일 개학날부터는 공부를 시작하게 합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활기에 넘치시여 큰소리로 말씀하시였다.

《그게 좋겠습니다. 학원창립을 달가와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는 가을뻐꾸기같은 소릴 못하게 혁명학원이란걸 하루빨리 실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김책이 앞에 놓인 책상을 가볍게 치며 열띤 목소리로 말했다.

《그보다는 이젠 하루빨리 학원창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해야 합니다.》

《학원창립준비위원회를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할일이 정말 많습니다. 국내각지와 해외의 넓은 판도에서 혁명가유자녀들을 데려와야지, 또 교직원대렬을 꾸리고 교사를 짓고 교육시설과 생활비품들을 마련해야지… 한마디로 만경대에 학원교사가 건설될 때까지 전국적범위에서 학원건립을 위한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맡아 처리하는 상설적인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하나하나 손가락을 꼽아가시며 열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김책이 보기에도 그이께서 저으기 흥분하신것 같았다.

《며칠안으로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소집하고 학원창립준비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도록 합시다. 결정초안은 아무래도 김책동무가 교육국을 비롯한 해당 부문 일군들과 토의하여 작성해주시오.》

《알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선 나와 함께 학원림시교사를 찾아봅시다. 아무래도 가까운 곳의 군대병영을 하나 내야 할것 같은데 안길동무도 불러서 함께 돌아봅시다.》

《제가 곧 안길동무를 부르겠습니다. 참, 그러고보면 그 동무에게도 학원창립준비위원회 위원직쯤은 안겨줘야 할것 같습니다.》

김책은 그이의 마음을 밝게 해드리고싶어 우정 이렇게 덧붙였다.

《그건 내 생각과 신통히 같습니다.》

이날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양과 거리가 가까와 유자녀들의 교육과 생활보장에 매우 유리하고 군인들이 생활하고있는 위수구역이기때문에 해방후 복잡한 정세하에서도 혁명가유자녀들을 보호할수 있으며 학원안에 정규적인 생활기풍을 세우는데도 좋겠다고 하시며 평안남도 대동군 재경리면 간리(당시)에 있는 군대병영을 학원림시교사로 정해주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인 1947년 3월 24일 북조선인민위원회는 학원창립준비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북조선인민위원회결정을 채택하였다.

제 2 장

1

동북산야에도 봄이 왔다.

왕청오지의 긴 골짜기들로는 한동안 새봄의 고고성인양 눈석이물이 소리치며 흘러내렸다. 뒤이어 봄시위에 불어난 강물들이 기슭의 앙상하게 마른 나무가지들과 썩은 등걸들을 툭툭 걷어말아가지고 어디론가로 드바삐 흘러갔다. 황막하고 거칠던 대지는 갓 태여나 젖줄기를 빠는 아기처럼 나날이 불그스레해지고 포실포실해졌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터지군 하는 골바람도 기세는 자못 사나왔지만 그속에 슴배여있는 싱긋하고 새크무레한 풀내로 하여 오히려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 고장의 봄맞이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오태희로인은 왕청에서 벌써 서른세해째 그것을 보고있었다.

쪽발이 왜놈들이 《합병》의 명목으로 조상전래의 강토를 강도질한 때로부터 4년째 되던 해에 끝내 한뙈기의 땅마저 빼앗긴 오씨일가는 고향 온성을 떠나 피눈물을 뿌리며 두만강을 건넜었다. 그들이 솔가이주하여 정착한 곳이 바로 산설고 물설은 여기 왕청땅이였다.

한때에는 그래도 홍범도독립군의 총소리가 봉오골을 울리며 왜놈들을 쓸어눕혔던 이 땅이였다.

봉오골전투승리이후 그들이 이룩한 청산리대첩소식은 오태희로 하여금 행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 않을가 하는 꿈도 꾸게 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대《토벌》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모두 하루아침에 왕청땅에서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말았다.

무심한 세월은 덧없이 흘렀고 그때에도 봄은 이렇게 왔었다.

언제부터였던가. 그 무심했던 세월이 오태희의 마음속에서 흐

름을 멈추고 봄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희망이 그의 가슴을 부풀게 한것은…

1933년의 어느 봄날, 일찍부터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따라 혁명투쟁에 나선 큰아들이 한밤중에 갑자기 집에 뛰여들었다.

《아버지,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밤중으로 가족들을 빨리 피신시켜야 하겠습니다.》

사연인즉 조직에서 석현경찰서장이 룡정령사관에 보내는 비밀편지를 입수하였는데 석현지방에서 일어나고있는 불순한 사건들은 모두가 오중화를 비롯한 그 일가의 작간이니 오씨일가식솔들을 감쪽같이 없애버리겠다는 내용이라는것이였다.

오태희로인은 비장한 눈길로 식솔들을 둘러보았다.

《그 어디에 가나 일본놈들이 살판치는 세상인데 이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어디로 떠난단 말이냐? 이밤중에 우리 식솔이 몸을 숨기고 목숨을 건진다는것은 가망없는 일이니 너희 젊은이들과 아이들이나 어서 떠나거라.》

큰아들이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이미 조직선을 통하여 우리 일가를 소왕청유격근거지로 들여보내라고 이르시였답니다.》

《아니, 그게 참말이냐?》

《그렇습니다, 아버지. 자, 어서 떠납시다. 장군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기다리고계십니다.》

깊은 밤 30여명의 오씨일가대가정은 유격구를 향하여 석현을 빠져나왔다. 소왕청유격구까지는 륙칠십리길이 잘되였다.

밤이 새기 전에 어린 아이들을 업고 이끌며 로인들을 앞세우고 지척도 분간할수 없는 어둠속을 헤치며 간다는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이였다.

더우기 많은 사람들이 인기척을 숨기려고 큰길을 에돌아 첩첩한 산발을 타고 수림속을 헤쳐가자니 쉽지 않았다. 이렇게 산길을 헤치며 수십리길을 왔을 때 등뒤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왜놈들이 벌써 냄새를 맡고 그들의 뒤를 황급히 따라왔던것이다.

사실 오태희로인은 오씨일가의 운명이 여기서 끝나는줄 알았었다.

아닌게아니라 그때 장군님께서 보내신 왕청1중대의 유격대원들이 일제군경놈들을 족치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오씨가문은 참극을 면치 못했을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오씨일가가 밤길을 빠져나온다고 해도 기필코 적들의 추격이 있을것임을 예견하시고 소왕청유격구방위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던 당시의 엄중한 정세속에서도 대담하게 유격대원들을 오씨일가의 구출전투에 돌리도록 하시였던것이다.

운명의 기로에서 구원된 오태희로인은 드디여 장군님 계시는 유격구에서 새 삶의 봄을 맞이하게 되였다. 유격구는 그가 지금껏 살면서 보지 못했던 세상 별천지였다. 제땅이 차례지고 아동단학교에서는 아이들의 글읽는 소리, 노래소리가 랑랑하고 소왕청에서는 봉오골전투나 청산리전투와는 대비도 할수 없는 통쾌한 승전고가 울렸다. 정말이지 그때에는 귀향이 한갖 꿈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닥쳐온듯싶었다.

오태희로인의 자식들은 물론이고 동생들의 자식들모두가 반일투쟁에 나섰다. 유격대가 유격근거지들을 해산하고 보다 큰 싸움을 맞받아 떠나갈 때까지 항일전에 떨쳐나선 오씨일가사람들의 수는 모두 17명이나 되였다. 집안에는 다만 늙은이들과 어린 손자손녀들, 며느리들만이 남아있었다. 젊은 남정이라고는 단 한사람도 없었던 까닭에 봄이 와도 밭을 갈고 씨뿌리고 김을 매는 힘겨움을 로인들과 몇몇 녀인들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였고 땔감도 어린것들이 주어오는 잡관목이나 삭정이, 마른 풀단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힘겹고 고생스럽던 그 시절을 더 말해 무엇하랴.

아무리 겨울이 사납고 모질었어도 종당에는 저렇게 봄이 찾아오는것이거늘 항차 **김일성**장군님을 따라나선 우리 자식들도 이제 광복의 봄을 안고 돌아오리라!…

로인은 굳게 믿고 또 믿었다. 17년전 가을 큰아들 오중화가 석현에 모시고왔던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 《이분이야말로 왜놈들을 몰아내고 내 나라를 다시 찾아줄 하늘이 낸 위인이시로구나!》 하고 무릎을 쳤던 그로서는 언제한번 단 하루도 그 믿음이 흔들린적 없었다.

정녕 로인의 그 믿음은 헛된것이 아니였다.

나라가 해방되였던것이다. 그날 오태희로인은 밭고랑처럼 패인 주름발들사이로 뜨겁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념도 잊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우리도 망국노가 아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구 고향을 찾아주셨구나. 이제는 장군님을 따라 혁명군에 들어가 싸우던 자식들이 돌아올것이다. 그 애들이 돌아오면 우리도 설음많던 이국살이를 끝내고 어서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들가자.》

그날부터 로인은 기다렸다.

봄을 기다리듯이 자식들을 기다렸다.

계절따라 어김없이 오는 자연의 봄처럼 나라를 찾자고 집을 떠났던 자식들도 그 뜻을 이루었으니 이제는 기필코 집으로 돌아오리라 믿었다.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여도 기다리는 자식들은 한명도 돌아오지 않았다. 비록 타향에서일망정 나라가 해방되여 이렇게 두번째로 맞는 봄날에조차 오씨일가의 자식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로인은 그들이 다 돌아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이미 아들들인 오중화와 오중성의 희생을 겪은터였고 악독한 왜놈들과의 생사가름의 싸움에 나선 이들중에 어찌 희생인들 없으랴 하고 아픈 마음속에 속다짐도 해두었었다. 하지만 (아무렴 총을 잡고 싸운 열일곱이나 되는 그 숱한 자식들가운데서 못해도 한둘이야 살아서 돌아오겠지!) 하는 미련에 여직껏 묵묵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것이다.

로인은 지쳤다. 기다림에 속이 타고 애가 말라 지쳤다. 그들은 분명 잘못된 사람들이였다. 영영 돌아올수 없는 자식들이였다. 살아있다면 이렇게 두번째 봄이 오도록 기별조차 없을리 만무한것이다.…

로인의 생각은 옳았다.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성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길에 나섰던 오씨일가중의 17명은 강도 일제와의 싸움에서 모두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던것이다.

이제 이 거치른 이국땅에서 무엇을 바라고, 누굴 믿고 살아간단 말인가. 세상을 다 산 이 늙은 몸이야 무엇을 바라랴만 아직 뼈도 여

물지 못한 저 올망졸망한 아이들은 누가 지켜주고 돌봐준단 말인가.

요즘엔 더더욱 장군님 생각이 간절해졌다. 오씨가문의 생명의 은인이신 그이께 자신의 여생과 두벌자식들의 앞날을 의탁하고싶었다.

드디여 로인은 결심을 내렸다.

가자, 조국으로 가자.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자!

《얘들아, 짐을 꾸려라. 암만해도 그 애들은 잘못된 애들이다. 이제 우린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가는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심과는 달리 쉬이 걸음을 뗄수가 없었다. 어린것들을 데리고 로자도 없이 선뜻 먼길을 떠날수 없었던것이다.

이런 때 형제들과 떨어져 라자구에서 따로 살던 동생 오창희가 식솔들을 다 데리고 그를 찾아왔다.

《형님, 렴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형님네 사정두 각박한줄 알면서 딴 방도가 없어서 이렇게… 이 늙은것이야 이젠 세상을 다 살았으니 굶어죽어두 얼어죽어두 두려울게 없소만 저 중흡이가 남겨놓은 경숙이랑 손주들이 굶고있는 꼴을 보고만 있자니 차마…》

원체 말이 없던 동생이 허연 머리를 조아리고 꺽꺽 울음섞인 소리로 하정을 아뢰일 때 오태희는 눈을 꾹 감았다.

《동생, 어려운때 제 피줄을 찾지 않으면 언제 찾겠나. 아무렴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쓸겠나. 경숙아, 이리 온.》

조카 중흡이의 하나밖에 없는 딸 경숙이가 큰할아버지의 눈치를 가만가만 살피며 슬밋슬밋 다가왔다. 철없는 저것마저도 얹혀살겠다고 찾아온 자기네의 처사가 궁색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자, 경숙아! 큰할아버지네 집에서 동생들이랑 같이 살자꾸나!》

《큰할아버지, 나도 랠부터 산나물 뜯으러 갈래!》

그 순간 오태희는 눈물이 쑥 나오는것을 겨우 참았다. 마누라가 경숙이를 와락 부둥켜안고 눈물을 쏟았다.

《로친, 애들이 보는데서…》

엄하게 마누라를 신칙하고난 오태희는 우선우선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허, 우리 경숙이가 다 컸구나. 하지만 일없다, 일없어. 아무렴 내가 눈을 편히 뜨고있으면서 경숙이 손에 밥줄을 의탁하겠니.》

말은 이러했지만 식솔이 불어나 살림형편은 더더욱 어려워만 갔다. 늙은이들과 어린 아이들뿐인 집안에 풀뿌리를 끓일 땔감조차 해올 일손이 부족했다.

《여보 령감, 옛날부터 열손을 늘이지 말구 한입을 덜랬는데 지금 형편에선 어떻게 분가하여 한입이라도 덜어야지 이러다간 다 굶겨죽이구 말겠수다.》

한밤중 토방에 따라나온 로친의 입에서 땅이 꺼질듯 한숨이 새여나왔다. 그러지 않아도 막막한 생활을 두고 마음이 납덩이같던 오태희는 버럭 증을 내였다.

《그건 피줄을 가르자는짓이야. 이 오태희가 살아있는 한 그렇게는 못해.》

《죽은 담에 저승에서 그 피줄이 밥먹여 줄라는지는 몰라두 온 집안이 굶고앉아 죽는 날을 기다리는 형편에 피줄타령은… 그럼 동냥을 하면서라두 조국엘 나가든지 무슨 마련이 있어야 할게 아니요? 짐을 꾸려놓은지가 언제인데…》

마누라의 말이 옳다. 수십명의 대식솔이 빌어먹으면서라도 길을 떠나야 한다. 고리짝 몇개뿐인 이사짐일망정 꾸려놓은지는 이미 오래고 가마만 훌쩍 뽑아가지고 떠나면 그만이 아닌가.

그러나…

오태희로인은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어쩐지 그것이 꼭 사람 못할짓인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만 갈마들었다.

몇 안되는 동생네 식솔이 새로 얹힌것만으로도 형편이 어려운데 이제 이 많은 오씨문중이 장군님께 매여달린다면 그분께선 얼마나 부담이 크시랴. 또 그분께서 돌봐주셔야 할 우리같은 사람들이 어찌 한둘일텐가. 장군님곁에서 일손을 덜어드릴 자식이 한둘이라도 살아있다면 몰라도 늙은것들과 아낙네들, 철부지아이들이 그분께 보탬을 줄수 있는 일이 단 한가지라도 있단 말인가. …

오태희로인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던 끝에 결심을 바꾸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짐을 풀어라. 이제 또 누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단 말을 꺼내면 용

서치 않겠다.》

불안과 두려움속에 날마다 자기의 얼굴만을 쳐다보는 식솔들앞에서 로인은 이 한마디 말로 모든 설명을 대신해버리고말았다.

《할아버지, 가자요. 난 조국에 가고싶어요. 할아버지가 못 가겠다면 나 혼자서라도 가고야말겠어요!》

집안에서 유일하게 사내꼴이 잡히기 시작한 오중성의 아들 국철이가 그의 팔을 부여잡고 떼질을 썼다.

신통히도 제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 고집스럽기 그지없는 녀석이다. 그러나 로인은 손자의 간절한 소원을 엄하게 잘라버렸다.

《철없는 소리 그만해라. 우리 집안에선 네가 제일 큰 사낸데 이 할애빌 도울 생각은 안하구 혼자서 어딜 가겠다구? 그래 저 애리애리한 경숙이 어깨우에 그 무거운 나무단을 올려놓을테냐?》

그 말에 국철은 시무룩해져 할아버지의 팔을 슬며시 놓았다. 오중흡의 한점 혈불이인 경숙은 그와 동갑나이였지만 일찌기 제 어머니를 잃고 자라서 그런지 다른 어린애들보다 더 몸이 약했다.

로인은 가슴이 아팠다. 이국땅에서 태여나 여직껏 한번도 조국땅을 밟아보지 못한 저 애들이 영영 제 나라의 하늘을 보지 못하게 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과 위구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어떤 죄스러움이 매운재처럼 가슴을 쓰리게 했다.

그럴수록 장군님 생각이 간절해졌다.

(장군님, 나라를 찾아주신 장군님께 오씨문중을 대표하여 멀리서 삼가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오씨가문의 생명의 은인이신 장군님을 몸가까이 뵙고싶은 소원은 간절하지만 자고로 나라를 위한 일에서 목숨은 티끌과 같은것이라 하였거늘 응당 백성된 도리를 하였을뿐인 자식들의 의거를 두고 무슨 생색을 낸단 말입니까!

오히려 새 나라를 세우시느라 국사에 분망하실 장군님께 늙은것, 어린것 올망졸망 매여달려 부담밖에 얹어드릴게 없기에 저는 자식들의 피가 스민 이 동북땅에 그냥, 그냥 남아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이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장군님을 찾아간다는것이 먼저 간

자식들의 뜻이 아님을 잘 알고있기에 저희들은 이곳에서 그 애들의 장한 넋을 위로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장군님곁에 함께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이것은 오태희로인이 동북산야에 뒤늦게 찾아오군 하는 소란스러운 봄을 맞으며 자기자신과 나눈 마음속 이야기였다.

2

이즈음 북조선애국투사후원회의 사무실로는 사람들의 발길이 여느때없이 잦아졌다.

지금까지 별로 번잡하지 않던 이곳의 사무가 이렇게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된것은 학원창립준비위원회를 내올데 대한 북조선인민위원회결정이 발표된 이후부터였다. 학원창립준비위원회 성원들이 등록된 혁명가유자녀들의 명단과 그 확인자료들을 요구하여 부지런히 찾아왔고 교육국사람들은 또 그들대로 교육강령작성때문에 유자녀들의 평균년령과 일반지식상태를 따져보기 위하여 때없이 문을 두드렸다.

지방의 각급 애국투사후원회 일군들도 자기 단위에서 새로 장악한 유자녀들에 대한 자료제출로 두툼한 문서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이틀이 멀다하게 이곳에 나타났다. 당, 정권기관의 개별적일군들도 드문히 찾아와 자기들이 알고있는 혁명가들과 그 유자녀들에 대해 알려주며 애국투사후원회의 사업에 전에 없던 관심을 보였다. 어쨌든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학원을 세울데 대한 문제가 정식 결정되고 그 창립준비위원회가 조직됨으로 하여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찾아온다거나 또는 개별적일군들의 열성여하에 따라 다분히 자연발생적으로 진척되던 이 사업이 전당적, 나라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여가고있음이 분명해졌다. 하긴 학원을 세우는데서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고 하지만 초미의 문제는 역시 혁명가유자녀들을 하루빨리 모두 찾아내는것이라 해야 할것이다.

월송은 애국투사후원회사업의 중요성이 학원창립문제와 더불어 더

욱 커지고있는데 비해 자기의 능력과 정력이 따라서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왔다.

이것은 장악된 유자녀들의 범위내에서 모쁘르기념일때와 같이 그저 그들에게 생활상방조나 조직해주는것과는 전혀 다른것이였기때문이였다.

사업의 규모는 더없이 방대했고 그 내용은 더없이 복잡했다. 국내에서 싸우다 희생된 혁명가들의 유자녀들은 그렇다치고 국외에서 싸우다 희생된 혁명가들의 자녀들은 도저히 찾을 방도가 없었다. 그보다 더 복잡한것은 다름아닌 그 혁명가— 애국렬사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하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의 해방을 위해 일제와 싸우다가 희생된 렬사들의 자녀들을 다 찾아내여 돌봐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혁명학원에 입학시킬 대상자를 규정하는데서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군 하였다.

오늘도 애국투사후원회 중앙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한 의견상이들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라성환부위원장과 중앙위원 류한종의 주장이 제일 날카롭게 대립되였다.

《이제 우리가 세우게 될 혁명학원은 명실공히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계승자들의 원종장으로 되여야 합니다. 때문에 학원에서 공부시킬 대상자들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성격을 규정하는것으로 되며 나아가서는 장차 우리가 이 나라에 어떤 국가를 세우려 하는가에 대한 대외적인 선포로도 됩니다.》

월송은 시작부터 열기를 띤 라성환의 토론을 들으며 새삼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얼마전까지만도 학원창립문제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저렇게 학원창립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흠잡을데 없는 론리를 제기하고 명쾌하게 풀이하는데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전후사연은 어떠했던지간에 라부위원장의 그 말은 월송뿐아니라 모든 중앙위원들을 공감시켰다.

《이렇게 첨예한 문제이기때문에 원래는 건국을 먼저 하고 국가의 성격이 대내외에 명백해진 다음에, 아울러 국가의 경제적토대가 충분히 마련된 다음에 학원을 세우는것이 리상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원창립문제가 결정된 이상 이 마당에서 그것을 다시 후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학원입학대상자들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러한 전략적인 시각이 충분히, 충분히 고려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성환은 손가락으로 허공에 그루를 박아가며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대다수 사람들의 얼굴에서 자기가 던진 전략적인 시각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경탄의 빛을 만족스레 읽어나가던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앞사람의 뒤더수기만을 덤덤히 바라보고있는 류한종을 띠여보고는 실망한듯 눈길을 떨구었다. 그러나 월송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뿐…

라부위원장의 열띤 목소리는 더욱 확신에 넘쳐 울리고있었다.

《요즘 우리 애투사업은 새로운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활기라는 바람을 타고 새로운 혁명가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있는것은 엄중한 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월송부위원장선생님도 이미 서두에 말씀했지만 일부 애투성원들속에서는 희생된 혁명가들과 그 유가족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등록하여야 하겠으나 개별적일군들의 명의와 안면관계에 의해 확인하지도 않고 망탕 등록하고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애투사업을 강건너 불보듯 하던 일부 간부들이 요사이엔 뻔질나게 애투문턱을 넘고있는데 이걸 다 좋게만 볼순 없단 말입니다.》

회의실안이 술렁술렁해졌다. 그 술렁거림속에서 월송은 《하긴 오기섭국장이 여느때없이 자주 오군 하지. …》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가려들었다.

《자, 자. 조용들 하시오. 토론을 마저 들읍시다.》

월송은 회의집행자로서 한마디하지 않을수 없었다. 워낙 긴말을 좋아하지 않는 그의 성격을 잘 아는 라부위원장이 안경을 낀 월송의 얼굴을 얼핏 바라보고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이렇게 놓고볼 때 항일빨찌산투쟁에 참전했다가 희생된 렬사들의 자녀들을 기본입학대상자로 보아야 한다는 류한종선생의 주장은 일정하게 이런 페단들을 극복할수 있게 하는 방도라 해야 할것입니다. 실지로 조선혁명과 조선해방투쟁에서 가장 핵심적이였고 가장 값

비싼 희생을 바쳐 공헌한것이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이였다는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주지의 력사적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상태에서 볼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항일전의 력사가 20성상을 헤아리는데 과연 저 만주광야에 무덤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간 그 많은 렬사들의 자식들을 어떻게 찾아낸단 말입니까? 내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겁니다.》

마치 류한종과 이야길 나누듯 라부위원장은 그에게 시선을 박은채 계속했다.

《하지만 그것이 기본은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이전까지 조선에서의 항일전쟁은 조국해방이라는 다분히 민족리익위주의 대의명분으로 진행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혁명은 사회주의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반파쑈투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놓고볼 때 마땅히 국제적인 반파쑈화투쟁에서 희생된 렬사들의 자식들로 학원대상자들을 규정하는것은 현실적이면서도 대단히 전략적인 정치적의의가 있다는겁니다. 얼핏 들으면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 같지만 사실 이것은 쏘련을 비롯한 세계사회주의진영앞에 앞으로의 우리 국가의 친선우호적인 대의명분을 미리 선포하는것이나 다를바 없다는겁니다.》

드디여 자기의 말을 다 끝마친 라성환이 자신만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았다. 또다시 여러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렇게 되면 학원입학대상자들을 규정하기도 명백하고 또 유자녀들을 찾기도 쉬울거라는둥, 학원에서 공부시킬 아이들을 고르는데 그렇게 큰 정치적의미가 있을줄은 미처 몰랐다는둥…

머리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머리를 젓는 사람들도 있었다. 월송은 은연중 류한종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류한종은 한때 **김일성**장군님의 빨찌산에서 군의로 싸운바 있는 사람이다. 원래는 일개 사립의원으로서 도움을 청하는 유격대원의 뒤를 따라 산에 들어갔다가 장군님의 인품에 끌리고 또 의사로서의 량심을 지켜 나이 50에 부상당한 빨찌산대원들을 치료하는 군의가 되였다고 한다.

한해두해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많은 그가 유격대생활을 힘들어하

고 또 몸도 쇠약해져 장군님께서는 그를 설복하여 집으로 내려보내시였는데 류한종은 석달만에 또다시 산으로 들어왔다는것이다.

《장군님, 하루 삼시 뜨끈한 온돌방에서 로친네가 해주는 더운 밥을 먹으며 혼자 호의호식하자니 밥알이 가로걸려 넘어가질 않습니다.》하며 류한종은 많은 의약품과 장군님께 드리자고 특별히 가져온 보약들을 내놓았다고 한다.

장군님께서는 더더욱 류한종을 아끼시는 마음에서 다시 설복하여 그를 집으로 보내시였는데 해방후 애국투사후원회에서 같이 사업하게 되였을 때 월송에게 수정같이 깨끗한 량심을 지닌 인간인 그에 대해 무한한 정을 담아 이야기해주시였었다.

그러한 류한종일진대 허가이조직부장의 입김이 그대로 풍기는 저 라부위원장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것인지.

월송은 자기로서도 딱히 옳다, 그르다 견해를 세우기 어려운 상태여서 선뜻 먼저 말을 떼기가 저어되였다.

드디여 류한종이 조용한 성미그대로 조심히 의자를 뒤로 옮겨놓으며 소리없이 일어섰다. 그러고도 잠시동안 앞사람의 뒤머리에 눈길을 박고있다가 약간 갈리는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다.

《난 라부위원장선생처럼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따라서 어째서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점으로 그 이전시기의 희생은 민족의 리익만을 위한것으로 되고 그 이후시기의 희생은 세계혁명의 리익을 위한것으로 되는지는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침략자들과의 싸움이 아니였겠소? 모르긴 하겠소만 라부위원장선생의 말을 따져보면 결국 쏘련사람들과 공동전선에서 싸우다 희생된 렬사들의 자식들만 학원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소리같은데 그들은 물론이거니와 장구한 항일전에서 희생된 혁명렬사들의 자식들모두를 다 찾아내여 학원에 보내야 합니다. 희생에는 때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는 아픔이 없지요. 어느때의 희생이든 그것이 가슴아프기는 다 마찬가집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유격대원 한사람한사람, 지하조직원 한사람한사람을 잃을 때마다, 그 비보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비통해하시고 가슴아픈 눈물을 흘리군 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단 한번만이라도 보았더라면 아마…》

그는 더 말끝을 잇지 못하였다. 그 갈리던 목소리마저 물기에 젖어 잦아들고말았다.

《류선생!…》

월송은 저도 모르게 상반신을 주춤 일으키며 한손을 내여밀었다. 그렇게 하는것이 그의 말에 대한 공감의 표시로 된다고는 생각지 못하였지만 그만큼 자신의 심장에 마쳐온 감동은 억제할수 없는것이였다.

사람의 심장을 틀어잡는것은 역시 론리보다 인정인것이다. 과연 저 류한종의 말속에 담겨져있는 진실, 참인간의 깨끗한 모습이 어찌 론리의 창보다 심장속에 깊이 박히지 못한다 하랴.

라부위원장의 주장은 대단히 론리적인듯은 하나 다분히 그 누구의 비위를 맞추려는 책략과 얼음같은 찬 기운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 자고로 정치란것은 감정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지 않는가. 나같은 늙은이로서는 도저히 가늠할수없이 복잡다단한것이 바로 오늘날의 정치가 아닌가!…

월송은 혁명학원창립문제 하나에 그렇듯 심각하고 첨예한 문제점들이 비껴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자신의 무능력을 자탄하느라 김종항서기가 회의실안에 들어선것도 모르고있었다. 라성환이 슬쩍 귀띔을 해서야 그를 알아볼수 있었다.

《선생님, **김일성**장군님께서 선생님을 부르십니다.》

김종항서기가 회의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귀가에 대고 조용히 일러주는 말을 듣고서야 월송은 펀뜩 정신이 들었다.

그렇지, 아무래도 그분께 사실그대로 다 말씀올려야지. 소견머리 좁은것들이 나살이나 건사했다고 세상일을 아는것처럼 공자왈맹자왈해서야 무슨 소용이랴. 이 세상일을 만사능통하고계시는분이야 **김일성**장군님밖에 누가 또 있으랴.

월송은 황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침 좋은 기회이니 내 얼른 가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오겠소. 그러니 다들 기다려주시오.》

월송은 누구에게라없이 이렇게 말하고나서 회의실을 나섰다.

×

《애국투사후원회성원들을 기다리게 하셨다니 이거 참 난처한 일이군요. 사실 난 오늘 선생님께 좋은 소식도 전하고 반가운 일을 마련해드리자고 오시라고 했는데…》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책 절반, 하소연 절반 자기의 사업고충을 두서없이 털어놓는 월송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나서 가볍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가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괜히 인사말삼아 《그래 사업에서 뭐 제기되는것은 없습니까?》라고 물었다는 후회가 드시였다. 그저 로인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하자고 물으셨던것인데…

하긴 요사이 애국투사후원회성원들속에서 학원입학대상자문제를 놓고 여러가지 론의가 있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듣고싶으셨지만 오늘만은 애써 그 문제를 꺼내지 않으시려 했었다.

하지만 그가 《중임을 맡은 몸에 일을 변변치 못하게 해서…》 하며 사업이야기부터 꺼내는통에 어쩔수없이 말려드신것이다.

이야기를 듣고보니 그의 안타까운 심정이 충분히 리해되시였다.

고정하면서도 성미가 불같은 이 로인에게 있어서 석연치 못한 일들을 속에 품고있다는것은 더없이 괴롭고 고통스러운것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무래도 우선 그의 마음속 불부터 꺼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시였다.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애국투사후원회일군들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아래에서 올려오는 문건이나 개별적사람들의 말만 들으려 하지 말고 현지에 내려가 제기된 대상이 진짜 혁명가인가를 구체적으로 료해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희생된 혁명가들을 빠짐없이 찾아낼수 있고 우리가 맡아키울 그들의 자녀들을 정확히 장악할수 있으며 혁명가유자녀대렬내에 우연분자가 끼여들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된것은 아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이께서는 월송의 두손을 다정히 잡아 의자에 앉혀주시며 고무적인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월송은 엄중한 결함을 놓고 나무랄대신 오히려 문제를 바로 보았다고 치하해주시며 차근차근 방도를 가르쳐주시는 그이의 세심한 말씀에 그만 송구스러움을 누를길 없었다.

《다 제가 불민한탓에 생겨난 일이온데 장군님께선 어째서 꾸중대신 관용을 베푸시는겁니까.》

《그것이 어떻게 선생님의탓이라고 하겠습니까? 일부 일군들의 무책임성때문이지요.》

《하지만 저야 부위원장의 중임을 맡은 사람인데…》

《선생님처럼 스스로 결함을 찾고 일을 바로 하자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꾸중이 필요없지요. 달리는 말에는 채찍을 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이의 미소어린 눈가에는 말로써는 도저히 형용하기 어려운 따뜻한 정이 가득 어려있었다.

김월송선생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아버님 생각에 잠기게 되는 그이이시였다. 강직하고 웅심깊었던 아버님의 그 모습…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 한가정에 계신 날보다 집을 떠나계신 날이 더 많아 그 시절의 아버님모습은 어쩐지 어렵게 느껴졌었다. 조선의 남아라면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며 천리길을 떠나보내실 때에도 팔도구의 사나운 눈바람속에서 근엄한 눈빛으로 바래워주던 아버님이시였다.

《아니, 네가 정말 혼자서 왔단 말이냐! 너의 아버지가 범보다 더한 사람이구나!》 하고 만경대할머니가 혀를 찰 정도로 아버님은 언제한번 부자간의 잔정을 보여주지 않으시였다.

림종의 시기 병석에 계시는 아버님 병구완때문에 방에 들어설 때면 《너 왜 학교에 가지 않느냐? 가거라, 사내가 그래서는 큰일을 못해…》라고 엄하게 꾸짖으며 기어이 학교로 보내군 하시였다. 무한히 엄하면서도 끝없이 웅심깊은것이 자신에게 부어주신 아버님의 사랑이였다. …

그래서인지 아버님과 남달리 친교가 깊었던 김월송선생을 만날적

마다 그 시절의 아버님모습이 느닷없이 떠오르셨고 단 한번도 자식으로서의 효도를 못 드리고 너무도 일찌기 보내신 그 아픔이 아릿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금도 그런 련련한 심정에 잠겨드는 자신을 어쩔수없이 의식하시며 **김일성**동지께서는 애써 말머리를 돌리시였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량의준이를 마침내 찾았습니다.》

《량의준이요?》

월송은 이렇게 되뇌이며 기억을 더듬느라 미간을 쪼프렸으나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장군님, 용서하십시오. 나이탓인지 의준이란 그 이름이 도무지 생각나질 않습니다.》

《하긴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기억 못하실수 있지요. 량의준은 량세봉사령의 아들입니다.》

《예? 량세봉의 아들이라구요?…》

김월송은 상반신을 엉거주춤 일으키기까지 했다.

《김종항동무에게 과업을 주어 알아보았더니 다행히도 그가 지금 어느 중학교에서 공부를 하고있답니다. 애투에서 당장 사람을 파견하여 그를 데려와야겠습니다.》

《그를 데려단 어쩌시려고?…》

《그 애를 우리가 세우는 학원에 넣어야지요.》

《량사령의… 아들을 말입니까?》

월송은 혹시 자기가 잘못 듣지나 않았는가 하여 떠뜸떠뜸 되물었다.

장군님께서 량세봉의 아들을 기억하고있는것도 놀라운 일이였지마는 그보다는 그를 학원에서 공부시키겠다는 말씀이 더 놀라왔던것이다. 지금까지 라성환이나 류한종의 갑론을박속에는 독립군사령 량세봉과 같은 사람은 애초에 념두에도 없지 않았는가.

《량세봉사령은 마지막까지 일제를 반대하여 잘 싸운 사람입니다. 모름지기 선생님은 류한종선생이나 라부위원장의 주장들을 놓고 생각이 많으신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공리공담같습니다.》

《그럼 장군님께서는?…》

월송은 긴장이 어린 눈길로 그이를 바라보았다.

《희생된 혁명가, 애국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일인데 여기에 무슨 정치적고려나 책략이 필요하겠습니까. 항일무장대오에서 싸웠든 국제련합군에서 싸웠든 또 국내에서 싸웠든 그들은 다 조선의 해방독립을 위해 싸운 혁명가들이구 애국렬사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여 진정으로 유자녀들의 부모가 되는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타발하지 않는 법이지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멀리 석양빛에 휩싸인 남쪽하늘이 비껴왔다. 그이께서는 그 하늘가에 그냥 눈길을 준채 말씀을 이으시였다.

《지금 저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또다시 수많은 혁명가들이 피를 흘리고있습니다. 우리는 조국광복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혁명가들의 자녀들뿐아니라 해방후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해 투쟁하다 희생된 일군들의 자녀들 그리고 남조선혁명가들의 유자녀들모두를 다 학원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비록 정견과 주의주장은 달랐어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이라면 그의 자녀들을 학원에 입학시켜 공부시켜야 합니다. 선생님도 잘 알고계시지만 우리 아버님의 뜻이 지원이 아니였습니까. 지원의 뜻은 그 어떤 특정한 당파나 세력, 계층의 리익과 리해관계에 한한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장래까지도 담보해야 한다는 애국애족의 사상이라고 전 생각하고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격정으로 가슴을 들먹이며 한걸음한걸음 다가서는 월송의 두손을 꼭 모아잡으시며 절절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선생님, 우리 아버님과 뜻을 같이하던 그때처럼 애국투사후원회사업을 이끌어주십시오. 바로 그 시절의 선생님들의 뜻을 실현하는 사업이라고 여기시고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학원건립문제를 도와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장군님!…》

월송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얼핏 고개를 숙이며 안경을 벗어들었다. 그리고는 얼른 눈굽을 찍었다.

장군님의 그 무한한 민족애, 고결한 인간애앞에 백발을 숙여 감사의 절을 드리고싶었다.

(김형직선생! 저 말씀을 들으시오? 어쩌면 꼭 내 선생을 처음 만나 지원의 그 높으신 뜻을 받아안던 그날에 다시 접한것만 같구려. 난 그저 공산주의자들이 세우는 학원이니 응당 공산주의자들의 자식들만 거두어주려니 생각했었는데 김장군께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바친 사람들의 자녀들을 다 한품에 안아주시겠다는거요. 김장군의 전우애, 동지애만으로 이걸 설명하기에는 학원이 뜻하는바가 너무도 커서 난 그저 머리가 숙어질뿐이요. 정녕 김장군의 품은 애국애족의 품이고 혁명학원은 곧 김장군의 품이요! 비로소 김형직선생이 그날에 그토록 념원하던 지원, 바로 그 지원의 뜻이 꽃피는 오늘을 보는것 같소.)

월송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김형직선생과 이야기를 나누고나서 천천히 안경을 다시 꼈다.

그리고는 나직하나 활기에 넘친 어조로 말씀드렸다.

《장군님, 제 미흡하나마 꼭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제 당장 돌아가서 우리 사람들에게 장군님의 그 뜻을 깨우쳐주겠습니다. 아마 다시는 그런 공리공담들을 하지 않을겝니다, 허허…》

《그 불같은 성미는 어쩌지 못하겠군요. 하지만 오늘만은 좀 참으십시오. 제 김종항동물 보내서 그들이 선생님을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장이라도 떠나갈듯 한 그를 만류하시며 창가결 원탁우에 놓인 물주전자를 손에 드시였다. 유리고뿌에 물을 따르시고나서 천천히 그리고 은근한 어조로 물으시였다.

《오늘 저녁에는 선생님댁에 가보고싶은데…》

《예?…》

《참, 새로 선생님의 집을 한채 마련했습니다. 아마 정숙동무랑 장판이며 도배도 다 다시 해놓았을겁니다.》

《원, 지금 사는 집도 좋은데 혼자 사는 늙은이가 새집은 또 해서

뭘하겠다구… 성의는 고마우나 전 가지 않겠습니다.》

고정한 그 성품 그대로 도리머리를 젓는 월송을 미소어린 눈길로 바라보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짐짓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허, 이것 참 야단이다. 안주인은 꼭 집에 오라지 바깥주인은 가지 않겠다지… 이럴 땐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가요, 예?…》

《안주인이라니요? 아니, 그건?…》

의아해진 월송은 괜스레 안경을 흘깃 추스르며 그이를 유심히 우러러보았다. 그제서야 그는 장군님의 안색에서 여느때없이 기쁨이 출렁이는것을 눈여겨볼수 있었다.

《장군님, 설마?…》

월송의 말이 후두두 떨리였다.

《허허… 실은 값을 더 올리자고 했는데 절 그런 눈길로 보시니 더 숨기지 못하겠군요.》

김일성동지께서는 물고뿌를 드시며 정색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기뻐하십시오. 선생님! 부인과 아들이 평양에 왔습니다.》

월송이 흠칫 놀라는 바람에 안경이 흘러내렸다. 흘러내린 안경을 추스를념도 못한채 그는 굳어져버렸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우선 물을 잡수십시오. 자, 어서요.》

김일성동지께서 그의 손에 물고뿌를 쥐여주시자 월송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쭈욱 들이마셨다.

한순간의 흥분이 지나갔음을 확인하고나서야 **김일성**동지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 동무들이 경상남도 합천에서 부인과 아들을 찾았습니다. 거기가 부인의 고향이지요? 그들이 숱한 고생을 했더군요.》

《장군님께서, 장군님께서 언제 그런것까지 다…》

《언젠가 선생님이 내게 이야길 하지 않았습니까. 일찌기 부모를 다 잃고 어려서부터 머슴살이를 하다가 중국 동북지방에까지 팔려온 한 고국녀인의 비참한 정상을 보다못해 독립군의 전우들과 협력하여 그 녀인의 빚값을 물어주고 지주집에서 데려내왔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여 환갑나이가 다 되여서야 가정을 이루었다는 기막힌 사연을 말입니다.》

《장군님, 그러니 그가 평양에 온것이 죄다 사실이란 말입니까? 예?…》

월송의 두눈에서 주르르 물기가 흘러내렸다. 세월의 풍파속에 패인 그 수많은 주름살을 타고 눈물은 로인의 온 얼굴로 퍼져갔다.

《사실이 아니면요. 그들이 선생님을 찾아오지 않으면 누굴 찾아왔겠습니까. 원래는 우리 동무들이 선생님의 고향인 안동에 가서 찾았더군요. 후에 부인과 아들을 찾았는데 아들이 콜레라를 앓고있더랍니다. 병치료를 다 하고 오다나니 오늘의 이 상봉이 좀 늦어졌습니다. 자, 진정하고 어서 가십시다. 지금쯤 아마 부인과 아들이 기다리기에 지쳤을겁니다. 자, 어서!》

김일성동지께서 이렇게 재촉하시였으나 그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아버렸다.

다섯해전… 이제 헤여지면 언제 다시 만나는가고 울며 매달리는 안해에게 나라가 독립되면 새가정처럼 행복하게 모여살자고 달래이며 등을 떠밀던 일… 아버지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질하는 아들애를 억지로 떠밀어보내던 일… 타향에서 사랑하는 처자마저 먹여살릴수가 없어 눈물속에 기약없는 작별을 하고는 무맥한 자신을 타매하며 부디 그들만이라도 행복해주기를 바라던 일… 아, 그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한순간에 떠올랐다.

어찌 이런 날이 올줄을 생각이나 했으랴. 월송은 다시는 그들을 볼수 없으리라고 속으로 생각했었다. 늙고 무맥한 자기에게 그 무엇을 믿고 의탁할수 있단 말인가. 그저 한점 혈불이인 아들만이라도 죽지않고 살아서 수난많은 가문의 대를 이어주기를 마음속으로 바랐을뿐이였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안해가 자기를 찾아 예까지 온것이다. 다름아닌 **김일성**장군님께서 그토록 마음을 쓰시여 영영 못 보는줄 알았던 처자를 이렇게 찾아주신것이다.

《장군님! 이 은혜를, 이 은혜를…》

《월송선생님!》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어깨를 다정히 안으시였다. 찌릿하게 뜨거운것이 심금을 파고들었다.

《저희들이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뿐입니다. 앞으로 마음껏 행복

을 누리십시오. 선생님의 아들은 혁명학원에서 공부시켜 장차 나라의 기둥감으로 키웁시다. 선생님은 그런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평생을 고스란히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 가정도 사랑도 다 버리고 싸우셨는데 그것을 어찌 목숨을 바친 희생보다 가벼운 희생이라 하겠습니까. 부인에게도 아들에게도 선생님의 그 애국충정이 얼마나 값있고 긍지로운것인가를 몸으로 느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들 직로는 나라에서 맡아키우겠습니다.》

《장군님! 저 같은게 뭐라구… 이렇게 하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십니까, 장군님!—》

월송은 그이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다.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품에 백발을 묻은 월송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3

이제는 해가 퍼그나 길어졌다. 벌써 저녁무렵이 가까왔으나 해는 배포유하게 서산에 걸터앉아 세상을 굽어보고있다. 그러나 때는 때인지라 중앙보안간부학교주변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대안리의 농가들에서는 저녁밥짓는 연기가 서로 다투기라도 하듯 키돋움을 하며 솟고있었다.

《장군님, 차라리 저녁식사를 하시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오진우가 장군님의 식성을 잘 아는 손종준이까지 동원시켜 특식을 준비한것 같은데.》

김일성동지께서 청사를 나서시여 승용차가 서있는 운동장쪽으로 걸음을 내짚으시자 오진우의 추김을 받은 안길이 비위좋게 청을 드렸다. 뒤에 서있던 군사부교장 오진우와 교무부장 박성철 그리고 손종준은 그저 씨물씨물 웃고있었다. 손종준은 원래 해방직후부터 장군님의 책임부관을 해왔는데 중앙보안간부학교진영을 강화하느라 교원으로 파견되였었다. 안길이 식성을 운운하며 그를 꺼든것은 아마 이런 리유에서일것이다.

《하긴 내 구미를 잘 아는거야 종준동무지.》
김일성동지께서 헌헌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자 오진우는 기다렸던듯 입을 열었다.
《장군님, 저녁시간인데 식사를 하고 떠나십시오. 우리한테 오셨다가 식사도 한끼 안하고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저녁밥을 먹겠습니까?》
《왜? 오늘이야 욕을 잔뜩 먹어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텐데.》
빨찌산 옛 대원들의 그 마음을 모른바 아니였지만 그이께서는 짐짓 엄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오늘 중앙보안간부학교사업을 지도하시면서 비판하신 문제를 다시금 각성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 학교에서는 군사교육실무에만 빠져 학생들의 정치적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고있었던것이다. 건국실을 꾸려는 놓았지만 벽면마다에는 외국명인들의 초상을 그린 그림들만 주런이 걸려있었다. 며칠전 당사업지도를 내려왔던 허가이조직부장이 가져왔다고 한다.
그이께서는 어째서 우리 나라 명인들은 한사람도 없는가, 우리 나라에도 을지문덕, 강감찬, 리순신과 같은 애국명장들이 있는데 이런 명장들은 하나도 그려붙이지 않고 외국사람만 그려붙여서야 되겠는가고 그들을 엄하게 질책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 력사와 우리 인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잘 알려주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꼭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보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떠나십시오.》
박성철의 말이였다.
《안길동무, 좀 보오. 신통히도 빨찌산의 질군들만 모였구만. 어쩌면 중앙보안간부학교에 하나같은 사람들만 골라보냈소?》
《아니, 내가 보냈습니까? 이들이야 다 장군님께서 직접 임명하여 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랬던가?!… 하하…》
김일성동지께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로 한

걸음 다가가시였다.

《내가 왜 동무들의 그 심정을 모르겠소. 나도 그 시절처럼 동무들과 식사도 같이하고 잠도 함께 자고싶소.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구만. 정말 시간이 모자라오.》

이것은 그이의 솔직한 심정이였다. 전우들과 한자리에 모여앉아 식사도 같이 나누고 그들의 코고는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빨찌산의 사령관시절처럼 쉬고싶으시였다. 그러나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은 그 시절의 소박한 행복마저 누릴수 없게 만들었다. 국가를 세우고 정규군을 창건하는 일뿐아니라 공장을 세우고 학교를 짓고 농사를 짓는 모든 일에조차 자신의 발길이 닿고 손길이 닿아야 했다. 며칠전에도 개천군 중흥관개공사장과 강동군 마탄관개공사장에 나가 공사를 모내기전에 끝낼 방도와 대책을 세워주고 돌아오시였다.

한켠으로는 황해제철소 3호용광로복구사업이 어떻게 진척돼가고있는지 자꾸만 신경이 쓰이시였다.

어디 그뿐인가. 학원림시교사를 꾸리는 문제와 새 교사를 세우는 문제만도 세부분야에 걸쳐 일일이 관심하고 대책해주셔야 했다. 북조선인민위원회 도시경영국에 만경대에 세울 학원교사설계를 맡겨야 했고 평안남도인민위원회에 지시한 학원건설사업소조직문제도 알아보셔야 했으며 교육국에서 학원교원선발사업과 교육강령작성사업, 교구비품준비사업을 옳게 내밀도록 돌보셔야 했다.

닷새전에도 김종항서기에게 이제 학원에 입학하게 될 아이들에게 입힐 내의들과 침구들을 만들 포목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주시였고 얼마전에는 학원교사에 필요한 고급건재류들을 들여오도록 직접 조직사업을 하시였다.

《허, 이거 아무래도 오늘 또 군고구마로 저녁을 굼때야 할가보군.》

그이의 미안해하는 그 심정을 리해한 안길이 분위기를 눅치려고 이렇게 말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가 말하는 군고구마소리가 무엇을 념두에 둔것인지 잘 아시였다.

평양학원에서 첫 수업식을 하던 날 시간이 바빠 식사를 못하시고

떠났었는데 가다보니 길가에서 파는 군고구마냄새가 구수하게 풍겨왔다. 그래서 최용진과 하나씩 사서 드시며 이제 길가에서 군고구마 하나로 끼니를 에우던 일을 옛말처럼 이야기할 때가 올것이라고 말씀해주신적이 있었다. 안길을 비롯한 이들모두가 그때 최용진에게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쳤다고 한다.

《장군님!》

오진우가 쇠덩이를 삼키듯 울대를 꿀떡이며 나직이 부르짖었다.

《진우, 성철이, 동무들에게도 오늘 그렇게 말해주고싶구만. 우리가 오늘의 고생을 옛말처럼 이야기할 때가 꼭 올거라고 말이요.》

승용차는 저녁밥짓는 연기가 안개처럼 질게 드리운 길가를 따라 중앙보안간부학교를 벗어났다.

바래주던 전우들의 모습이 멀리 사라져 더는 보이지 않을무렵에 안길이 정색하여 말씀드렸다.

《장군님의 말씀대로 학생 차영진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무산에 가서 김춘희와 그의 동생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차영진이 지난해에 정숙동무의 부탁으로 그곳에 갔댔으므로 아마 인차 그들을 찾을겁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이시며 추연한 눈길로 차창밖을 바라보시였다. 새로운 생각이 그이의 심중에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김현철, 한번도 만나본적도 없고 뜻을 같이하는 길에서 함께 싸웠다고도 말할수 없는 사람, 스러져가는 독립군일망정 적들에게 철알 한알이라도 날리는것이 나라를 독립하는 길이라며 손에 총을 잡았던 사람이였다. 그는 독립군의 마지막부대의 지휘관인 최윤구까지 조선인민혁명군에 합류할 때에도 공산주의자들과의 련합을 반대하였다. 안길이 그들에게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함께 싸우자고 파견원을 보냈을 때 김현철은 두마디안팎에 파견원을 가두어넣었다고 한다. 파견원은 다시 살아돌아오지 못하였다. …

한때 동만일대를 들썩하게 한 이 사건을 **김일성**동지께서도 아프게 새겨두시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김정숙동지로부터 김현철의 자녀들이 찾아왔었다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때의 아픔이 되살아오름을 어쩔수 없으시였다.

《장군님, 그들도 독립을 하겠다고 총을 들었을진대 어쩌면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사람에게 총부리를 들이댈수 있단 말입니까?》

그 소식을 가지고 왔던 안길부대의 통신원은 **김일성**동지앞에서 가슴을 탕탕 두드리였다. 그러면서 당장에 그 부대를 소탕해버리고말겠다는 안길의 의견을 전하였다. 그때 왜 자신께서 대번에 반대를 하셨던가.

《장군님, 내 이놈을 오래전부터 알고있었는데 설마 이럴줄은… 독립군의 망신을 마지막날까지 시킨 이놈을 어쩌면 좋습니까. 범두 잡아놓구보면 불쌍하다는데 도대체 이놈은, 이놈은…》 하면서 땅을 치던 최윤구는 총까지 빼들었지만 김현철은 그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였다.

《장군님의 말씀을 새기고 제가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료해해보았습니다. 그 파견원을 죽인것은 김현철이 아니였습니다. 적들과 내통한 변절자의 정보를 받고 우리 파견원을 사로잡기 위하여 왜놈들이 불의에 습격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그 습격에서 파견원도 김현철자신도 부대를 구출하기 위한 전투를 지휘하다가 희생되였습니다.》

이것이 후날 인민혁명군대오에 들어선 그 부대 사람들을 통해 최근에 안길이 알아낸 사실이였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만일 왜놈들의 불의적인 습격만 아니였더라면 김현철도 끝내는 파견원의 주장을 따랐을것이라는것이였다. 하지만…

김일성동지께서는 아프신 가슴을 조용히 달래시였다.

만일 김현철이 제때에 우리의 말을 따랐더라면 그렇듯 가슴아프고 무익한 희생도 없었을것이 아닌가. 남의 말을 선뜻 믿는다는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우기 그와 같은 인생행로를 걸어온 사람임에야… 그래서 진리란 알고보면 단순한것이지만 그것을 깨닫는데는 수천갈래의 길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도 마지막순간에는 민족재생의 참다운 길을 깨달았을가.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렇게 믿고싶으시였다. 아니, 그렇게 확신하시였다. 그처럼 허위를 싫어하고 진실을 갈망하는 인간은, 나라를 사랑하고 원쑤를 증오하는 인간은 달리는 될수 없는것이다.

인간이 한번 잘못 디딘 걸음으로 하여 자기자신은 물론 가깝게는 자손들과 친지들, 멀게는 력사와 후손들앞에 얼마만한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를 그는 깨달았을것이다.

그의 자식들의 순결한 마음, 아버지로 하여 번민과 죄의식에 잠겨있는 그들의 결곡한 마음만 보아도 십분 믿어지고 또 믿어지시였다. 그들 부모와 자식들의 그 소중한 마음을 아껴주고싶으시였다, 지켜주고싶으시였다.

그리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군당과 군애국투사후원회에 보내는 친서를 전하며 김현철에 대한 우리 당의 평가를 잘 알려주라고 그들 남매와 남다른 인연이 있는 차영진을 무산에 보내도록 안길에게 과업을 주시였던것이다.

《안길동무에게 일전에도 말하였지만 우린 그 어떤 주의에 따라서 사람을 갈라보아서는 안되오. 애국심은 주의를 초월하는 고상하고 신성한것이요. 김현철도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한 반일투쟁에 한몸바친 애국자임을 우리는 감정을 섞지 말고 인정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난 그의 아들도 혁명학원에서 키울 결심이요. 그래, 안길동무의 생각은 어떻소?》

《사실 전 얼마전에 정숙동무에게서 그 이야길 들으면서도 그 자식들의 운명사에 대해서 범상하게, 지어 응당한것으로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란 사람이야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안길은 나직하나 괴로움이 비낀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하지만 지금은 어쩐지 김현철이 잘못 내디뎠던 길, 뒤늦게나마 바로잡으려고 했던 그 길을 그의 자식들이 이어가게 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영진에게 꼭 장군님의 그 넓으신 도량과 민족애를 잘 알려주라고 다시한번 당부하렵니다. 사실 제가 직접 가야 할 일인데…》

《동무야 지금 어디 몸 뺄 시간이 있는 사람이요?! 정규군창설사업이 동무의 온넋을 칭칭 비끄러매고있는데… 뭐니뭐니해도 난 동무의 건강상태가 걱정이요.》

그이께서는 더 말씀을 잇지 않으시였다.

눈에 피발이 서고 입술이 튼 안길의 수척한 얼굴이 아프게 안겨왔던것이다. 안해마저 왜놈들에게 받은 고문의 후과로 중병을 얻어 지금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이니 고충이 클것이다. 워낙 락천적인 사람이니 좀처럼 우는소릴 할줄 모르는 그였지만 어찌 육신이 힘들지 않고 마음고생이 크지 않으랴.

얼른 말머리를 돌리시였다.

《오늘 리제순동무의 부인이 날 찾아오오. 아마 지금쯤 우리 집에서 기다리고있을거요.》

《그렇습니까? 한사람 또 찾으셨군요. 무던히도 마음쓰시더니…》

《림춘추동무가 애를 많이 썼지. 다행히도 리제순의 친척벌되는 사람을 만나 행처를 알게 되였는데 얼마전에 동북에서 나와 함북도 길주군당 합숙에서 일하고있었다누만.》

《예, 춘추동무가 수골 합니다. 평남도당사업도 볼래, 문예인들과의 사업도 할래, 유자녀들 문제까지 말아안고 뛰여다니는걸 보면 정말이지…》

안길의 얼굴빛이 다시금 어두워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심정이 리해되시여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아들 영일이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도 없는데 내가 미안스러워하면 〈소식을 아는 아들이야 걱정할게 있습니까. 아직 생사여부조차 모르는 전우들의 자식들이 수두룩한데 그들을 다 찾아내기 전에는 차마 제 자식을 먼저 만나질 못하겠습니다.〉 하더군. 얼마전엔 최경화의 아들이랑 전우천의 아들이랑 그리고 김득현의 아들도 찾아냈소.》

《김득현이라면 소덕수의 그 꼽새령감이 아닙니까?》

《그렇소. 백두산밀영을 꾸릴 때 김주현동무랑 정숙동무랑 꼽새령감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 한번은 정숙동무가 다 죽게 된걸 그 꼽새령감내외가 극진히 간호하여 살려냈다오. 그들이 아니였다면 그때 살아서 백두산밀영으로 돌아올수 없었을거라고 지금도 정숙동문 외우군 하지.》

《나도 그가 조국광복회 회원으로 잘 싸우다가 1942년초에 사망하였다는 이야길 정숙동무에게서 들었습니다. 야, 모두 그렇게 불쑥

불쑥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안길의 말에 다시금 고개를 끄덕이시며 추연한 눈빛으로 차창밖을 바라보시였다.

《공영이, 리광이, 박길이, 권영벽이, 허형식이, 오중화, 오중흡이… 정말 헤아릴수없이 많은 전우들을 우린 잃었지. 아마 그들이 살아서 한몫씩 맡아주었더라면 내나 안길동무나 김책동무의 일이 지금보다는 한결 헐해졌을거요.》

안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먼저 간 전우들을 그리도 잊지 못해하시는 그이의 아픈 심정이 가슴에 미쳐왔던것이다.

《장군님, 면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장군님의 사업을 잘 받들어드려야 할텐데…》

이 말은 자신의 생이 자신의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고 사는 안길의 진심이였다. 그는 자기의 삶이 희생된 동지들의 뜻과 넋을 이어가기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여기고있었다.

김일성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로 인민이 주인된 새 나라를 세우는것,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총대로 옹위할 혁명무력을 건설하는것, 이것이야말로 혁명전우들의 뜻이였고 넋이였을진대 자기의 한몸을 다 바쳐 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는것이 다름아닌 먼저 간 동지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다하는것이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겠지만 더우기 이 안길이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설사 전우들의 자식들 문제로 하여 이 가슴에 죄스러움이 쓰리고 아프게 쌓일지라도 아직은 큰것을 위해 감정을 이겨내야 한다, 장군님을, 혁명을 보위해야 한다. …

안길은 이렇게 자신을 다시금 다잡으며 그이를 우러렀다.

《아니, 내 말은 그래서가 아니요. 어쩐지 동무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거던. 생사를 모르던 가족을 겨우 찾아 데려왔는데 아주머닌 중병으로 앓고있지. 듣자니 아직 병원에 면회 한번 가질 못했다면서. 엊그제 정숙동무가 병원에 갔다와서 섭섭한 소릴 하더군. 정숙동무 마음이 그러할진대 아주머니의 심정이야 오죽하겠소. 그러지 마오. 예로부터 정으로 살고 정으로 죽는것이 인간이라고 하질 않았소. 혁명도 마찬가지요. 그 정이 없이는 혁명도 바로할수 없는거

요. 》
《…》
승용차는 이미 평양시내에 들어섰다.
저녁어둠이 전조등빛에 헤갈기우며 이리저리 흩어졌다가는 다시금 지꿎게 달라붙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어스름속에 한동안 눈길을 박고계시다가 운전사의 등을 가볍게 다치시였다.
《방동무, 차를 먼저 병원에 대오. 》
《알았습니다. 》
운전사가 그이의 말씀대로 차를 병원쪽으로 꺾으며 대답올렸다.
《정숙동무가 꾸려준걸 싣고있겠지?》
《예. 》
차가 병원앞에 멈춰서자 운전사가 승용차짐칸에서 불룩하게 싼 꾸레미를 꺼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것을 받아 벙벙해 서있는 안길의 손에 쥐여주시였다.
《이걸 들고 아주머니한테 들어가보오. 병치료엔 약 절반, 마음 절반이라질 않소. 》
안길은 왜서인지 얼굴을 비스듬히 옆으로 돌렸다.
《장군님께서 이런 작은 일까지 걱정하시게 해서…》
《안길동무가 아직도 내 말뜻을 다 모른것 같다?!
이런걸 작은 일로만 보는 동무의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지 않누만. 좌우간 오늘 아주머니가 잠들기 전에는 떠날 생각을 마오. 나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리제순동무의 부인이 기다리고있고 또 내가 들어가면 오히려 가정적분위기에 방해가 될수 있지. 》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안길의 등을 떠미시였다.
《자, 어서!》
《장군님께서 떠나시는걸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
안길이 미안스러운듯 그이를 우러르며 하는 말이였다.
《뭘 그러오. 동무가 먼저 들어가야 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설게 아니요. 어서 들어가오. 》

그이의 거듭되는 권고를 받고서야 안길은 천천히 돌아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뒤모습이 불빛이 환한 병원정문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이윽토록 서서 바라보시다가 승용차에 오르시였다.

×

그날 저녁 **김일성**동지께서는 리제순의 안해 최채련녀성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저녁상이 들어오자 한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하시였다.

《장군님, 제 어찌 감히…》

최채련이 자꾸만 자리를 옮기겠다면서 송구스러워하였다.

《오늘만은 리제순동무를 대신하여 나와 함께 수저를 듭시다.》

그를 억지다십이 눌러앉히신 그이께서는 이렇게 음식상에 마주앉으니 항일무장투쟁시기 장백현 신흥촌에 들렸을 때 국수를 먹던 생각이 난다고 하시며 그때 아주머니가 해준 국수가 참 별맛이였다고, 우리 동무들은 지금도 그때 일을 자주 이야기하군 한다고 추억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리제순동무는 지하공작도 잘하였고 감옥에서도 잘 싸웠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조금만 더 살아있었더라면 조국해방의 날을 맞이할수 있었는데 해방을 앞두고 악독한 일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희생되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에게 술잔을 가져오라고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술병을 기울여 잔에 찰찰 넘치게 술을 부으시였다.

《아주머니, 어찌 한잔술에 그 모든 슬픔이 가셔질수 있으랴만 내가 주는 잔이니 먼저 받으십시오. 제순동무를 대신해서 어서 이 잔을…》

그이의 음성이 갈려왔다. 그이의 손에 들린 작은 술잔에서 맑은것이 위태롭게 찰랑거렸다.

《장군님, 이러시면, 이러시면… 흑…》

최채련의 어깨가 세차게 흔들렸다.

김정숙동지께서 그러는 그를 진정시키며 어서 잔을 받으라고 다정

히 권하시였다.

최채련은 그 뜨거운것을 삼켰다. 전사에 대한 못 잊을 그리움이 차있는 그 술잔, 모든것을 대신하여 따뜻이 품어주고 보살펴줄 무한한 사랑이 가득차있는 그 술잔, 설음을 박차고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그의 심장속에 심어주시는 혁명의 불씨가 담겨져있는 그 술잔을 오래도록 입술에서 떼지 못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인제야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것 같습니다. 아주머니, 금년에 혁명학원을 개원하려 하는데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여 공부시킵시다. 아이들을 공부시켜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잇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채련은 두손으로 흥분된 가슴을 모아잡았다.

《저… 그런데 계집애들이 돼서…》

《처녀애들이면 어째서요. 어제날의 신흥촌부녀회장의 머리속에 그런 남존녀비사상이 남아있다는게 놀랍군요. 아주머니, 부모의 뜻을 잇는데서 우리가 무슨 아들이냐, 딸이냐를 가르겠습니까.》

그이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해주에 해방직후 황해도당 선전부장으로 사업하다가 반동놈들에게 피살된 민덕원의 유가족이 살고있습니다. 아까운 사람이였는데… 그에게도 딸만 셋이 있는데 지난해 그곳에 갔을 때 맏딸 민순희가 나에게 꽃다발을 안겨주고나서 하는 말이 아버지원쑤를 갚을수 있게 총을 달라는것이였습니다.》

그이의 얼굴에는 련련한 회억의 빛이 그윽히 어리였다. 그 애의 모습을 그려보시듯 멀리 별들이 반짝이는 남쪽하늘가를 바라보시였다.

《열살도 안 잡힌 그 어린것이 말입니다. 보시오, 우리 딸자식들의 정신적각오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난 그 애도 아버지의 원쑤를 갚을수 있게 혁명학원에 데려다가 훌륭한 녀성혁명가로 키우자는겁니다. 하물며 옥화와 정화가 아버지의 뒤를 잇도록 키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겠습니까.》

그이의 목소리에는 곡진한 정이 가득 넘치였다. 최채련은 슬며시 눈굽을 찍고나서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오늘 우리에게는 할일이 많습니다. 그가운데서도 혁명의 미래인 아이들을 잘 키워 그들이 살기 좋은 내 조국을 건설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는것이 제일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에는 내나 아주머니나 우리들이 제순동무랑 못다한 일을 대신할수 있지만 래일에는 누가 그 일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는 절대로 소홀히 할수 없는겁니다. 내 생각에는 아주머니도 학원에 가서 일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제 학원을 세우면 학원에 할일이 많습니다.》

밤은 깊어갔다.

방안에서는 아직도 잠들지 못하고있는 최채련의 목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온다. 하긴 이밤 어떻게 그가 쉬이 잠들수 있으랴, 아니, 그보다도 정숙동무가 더 잠들수 없을것이다, 생사여부를 알수 없는 유가족들 생각으로 그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 다름아닌 정숙동무가 아니였던가, 오늘 이렇게 리제순의 유가족을 찾았으니 아마 이밤이 지새도록 기쁜 마음을 나누고 또 나누어도 끝이 없을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윽한 눈길로 불빛이 쏟아져나오는 창문가를 이윽토록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정원의 느티나무쪽으로 다가가시였다.

그이께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별많은 밤하늘가를 올려다보시였다. 마치 느티나무가지우에 내려앉은듯싶은 한무리의 별들이 가까이에서 빛을 뿌린다. 그것들은 무엇이 그리도 기쁜지 쉬임없이 반짝거리며 즐거웁게 웃고있다.

하지만… 눈여겨 바라보니 별들의 세계도 다 한결같은것은 아니다. 저 멀리로는 겨우 알릴듯말듯 한 뭇별들의 가냘픈 빛도 보인다. 그것들은 외롭고 쓸쓸하고 추위에 떨고있는듯싶다.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오신다. 먼곳의 저 뭇별들처럼 사방흩어져 불행속에 헤매고있을 동북땅의 유자녀들 생각이 자꾸만 밟혀오신다.

국내에 있는 유자녀들은 각급 애국투사후원회들의 노력과 학원창립준비위원회의 공보들이 실린 여러차례의 신문들을 보고 이렇게저렇게 불쑥불쑥 찾아오고있는데 저 동북땅에서는 아직도 감감무소식

이다. 하긴 전란에 휩싸인 그곳에서 어떻게 조국땅에 학원이 선다는 걸 알수 있으랴. 그렇다고 그들이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을수는 없지 않는가. 결정적으로 그들을 찾으러 동북에 사람을 보내야 한다.

누구를 보낼것인가? 그 누구를 보내야 한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찾아올수 있겠는가? 그러자면 동북에서 항일전의 첫시기부터 싸우다 희생된 혁명가들도 다 알고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최현? 안길? 림춘추?… 그들이라면 동북땅에 흩어져있는 유자녀들을 다 찾아올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들중 어느 누구를 지금의 사업에서 떼여낼수 있단 말인가?!

아니, 오늘의 현실만을 생각한다면 언제 가도 그 애들을 찾아올수 없다, 만사를 제쳐놓고서라도 그 애들을 찾아와야 한다. …

왜서인지 림춘추의 듬직한 얼굴이 언뜻 떠오르시였다.

(그라면, 그라면 해낼수 있을거야. 헐치 않은 일이지. 춘추동무, 동무 내 심정을 잘 알거요, 내 심정을…)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시금 희미한 별빛이 가물거리는 먼 밤하늘가에 눈길을 주시였다.

외롭고 쓸쓸해보이고 추위에 떨고있는듯싶은 뭇별들의 모습이 또다시 눈에 밟혀왔다. 언제면 저들도 밝은 빛을 뿌리게 되겠는지…

4

《예술》이나 《미술》이라는 용어는 그 어원을 따지고들어가보면 원래 문예부흥기에 이딸리아에서 사용된 《기술》이라는 용어에서 유래된것이다.

문예부흥기까지만 하여도 예술과 과학기술은 분리되지 않고 밀착되여있었다. 이 시기의 뛰여난 화가나 조각가, 건축가들은 다 례외없이 재능있는 과학자였으며 기술자였다.

그들은 일정한 수치관계로 설정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으며 원근법의 발견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할수 없는 조형공간을 회화에 표

현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인체에 대한 관찰과 연구를 통해 풍부한 근육과 동적인 자세를 재현함으로써 인간의 위대함과 자유를 표현하였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나 미껠란젤로의 작품들만 보아도 그것은 예술적창조물이면서 동시에 자연에 대한 과학적탐구의 산물이였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예술이라고 불러도 좋고 기술이라고 불러도 무방했던것이다.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한 18세기 말엽에 와서야 유럽에서는 《기술》이라는 용어앞에 《아름다운》이란 형용사를 붙여 기술로부터 미술을 분리시켰다. 도이췰란드의 철학가 칸트는 기술을 《기계적기술》과 《기분좋은 기술》 즉 예술로 구분하였다.
그 어원이 어떠했든간에 문석오가 미술, 그중에서도 조각에 남다른 열망을 품고 그 길에 들어서게 된것은 바로 다름아닌 그 기분좋은 기술에서 받아안은 남다른 기분때문이였다. 미술가였던 아버지가 자기의 재간을 넘겨주기 위해 아들에게 그림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을 때만 하여도 사실 그는 아무런 흥심도 느끼지 못하였었다. 그런대로 매일같이 정물화며 산수화를 그려바치군 하였지만 그것은 다만 엄격한 아버지의 채찍이 두려워서였을뿐이였다.
철이 들면서부터 그 따분함은 점차 고통스러움으로 번져졌다. 정의감이 강하고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그의 눈에는 아무리 활짝 핀 향기로운 꽃을 그리자고 하여도 눈물에 젖은듯 시들게만 보였고 아름다운 산새를 그리자고 하여도 왜서인지 그 울음소리만이 처량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던것이다.
일제에게 강산을 통채로 빼앗긴 불쌍한 식민지민족의 설음과 원한을 터치기에는 꽃이니 새니 산이니 강이니 하는것들이 너무도 무심했고 아버지가 애써 쥐여주려는 그 붓이 너무 연약해보였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누구에게선가 빌려온 문예부흥기 이딸리아 3대거장들의 화첩을 보여주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라파엘로의 작품들도 마음을 끌어당겼지만 특히 미껠란젤로의 조각품들은 그의 심금을 쫘악 틀어잡았다.
《모쎄》, 《노예》, 《승리》, 《삐에따》…

더우기 미껠란젤로가 자기의 고향 피렌쩨를 수호하는 용감한 투사의 불굴의 기상과 투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를 반영한 대리석상 《다비드》와 피렌쩨공국의 부활에 대한 애국의 념원을 담은 고대로마공화제시기의 영웅 《브루투스》반신상은 애젊은 열혈청년에게 거의 전률에 가까운 환희와 흥분을 안겨주었다.

문석오는 그 조각들에서 인간의 힘과 투지, 항거의 정신과 영웅적 투쟁의 기백을 강하게 느꼈고 똑똑히 보았다. 그는 비로소 칸트가 말했다는 그 기분좋은 기술에서 그 무엇으로써도 느낄수 없었던 매혹과 열광 즉 훌륭한 기분을 받아안았던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아버지의 소박한 기대를 뛰여넘어 조용한 풍물화가가 아니라 붓과 칼을 다같이 틀어잡은 조각가가 될 결심을 다졌다. 그의 결심은 곧 도꾜에로의 고생스러운 고학으로 이어졌다. 미껠란젤로처럼 나도 민족의 영웅들을 조각으로 만들리라, 민족의 영웅들을 단순히 평면속의 존재가 아니라 현실속의 존재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힘을, 용기를, 신심을 느끼게 하며 원쑤들에게는 공포를 안겨주리라. …

도꾜미술학교 조각과에서의 6년간에 걸친 문석오의 고학시절은 오직 이 하나의 일념으로 흘러갔다.

동창생들은 그를 일명 《조선의 미껠란젤로》라고 불렀다.

거기에는 세계적인 조각가가 되려는 그의 높은 지향과 뛰여난 사실주의적미술재능에 대한 찬탄과 부러움이 더 짙게 비껴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예측과는 달리 이 전도유망한 조각가의 앞날은 밝지 못하였다. 수난의 땅, 식민지 조선에서는 그의 재능을 알아줄 사람도 없었고 재능을 꽃피울 터전도 없었다.

문석오가 그토록 찾고 또 찾아온 주인공 민족의 영웅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제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보았지만 그들에게서는 도저히 강도에게 빼앗긴 이 나라를 다시 찾을만 한 그 어떤 비범성도 영웅성도 느낄수 없었다.

그는 민족의 영웅을 못 가진 불행한 이 땅을 한탄했다. 그렇다고 몇푼의 돈을 벌자고 《총독부》의 권력자들이나 백만장자들의 조각을 만들수는 더더욱 없었다. 그는 뜻을 꺾고 해방을 맞을 때까지 어

느 사진관의 사진사로, 어느 도자기공장의 기사로 생업에 묻혀버리고말았다. 그래도 그 시기에 그가 애착을 기울여 창작한 작품이 있다면 그것은 홍명희초상조각과 백선행반신상조각이라 해야 할것이다. 한사람은 조선의 명사요, 한사람은 민중의 사랑을 받는 애국적인 녀성이였다.

그때 문석오가 비록 붓을 꺾고 한미했던 식민지조선의 화단에서마저 사라졌지만 끝내 그 붓을 저버리지 않았던것은 어느때부터인가 쉬쉬 하며 들려오기 시작한 **김일성**장군님빨찌산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때문이였다.

자칭 영웅남아들도 적지 않게 만나보고 속히워본 그였던지라 쉽게 믿게는 안되였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이 강산에 그 어떤 상서로운 기운이 태동하고있음이 확실히 느껴졌다. 예민한 미술가의 심장이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하였다. 열정적인 인간의 피가 다시 끓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조국해방을 분수령으로 하여 마침내 세차게 뿜어올랐다. 그는 평양으로 올라왔다. 평양에서 남다른 재능으로 하여 동업자로서 인연이 깊었던 정관철을 만났다.

《정선생은 행운아요. 벌써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구 조국개선환영군중대회때에 장군님의 초상화를 정선생이 그려 모셨다지. 정말 부럽구만.》

《문선생, 재능으로치면야 나야 문선생과 대비나 됩니까. 더구나 장군님께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는걸 한사코 반대하시는통에 림춘추동지가 가져다준 장군님의 사진 한장을 놓고 그리다보니…》

《아니, 아니요. 그 초상화에는 영웅의 정기와 기상이 막 넘치고있소. 난 사실 지금껏 모든 예술중에서 조각이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작업의 엄격함이나 분량 등에 의하여 생기는 차이를 내놓고는 조각과 회화사이에 아무런 가치의 차이도 없다.〉고 한 미켈란젤로의 말이 옳았다는것을 절감하였네.》

《하하… 문선생은 여전하시구만요. 걱정마시오. 이제 문선생도 창작의 붓을 들지 않고는 못 견딜겁니다.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령수로 모신것은 우리 조선인민모두에게뿐아니라 우리 미술가들에게도 더없는 행운이지요. 그런 위대한분과 동시대에 살수 있는 행운이

어디 바란다고 쉽게 차례질수 있는겁니까? 미껠란젤로도 역시 르네쌍스라는 행운의 시대가 낳은 미술가가 아니였습니까. 문선생은 조각가로서 꼭 세계적인 명작을 내놓게 될것입니다.》

가식이라고는 조금도 느낄수 없는 정관철의 그 말은 문석오를 흥분시켰지만 그를 통하여 만나게 된 림춘추라는 빨찌산출신의 말은 문석오의 가슴을 더욱 후덥게 하였다.

《문선생! 정말이지 반만년의 우리 조선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영웅으로 높이 칭송하는 시가 나오고 소설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조각들이 쏟아져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군님을 모시고 산에서 싸운 우리들은 그럴 마음이 불같지만 어디 선생들처럼 재능이 있어야지요. …》

림춘추의 그 말속에는 투사들의 깨끗한 념원과 절절한 기대가 어려있었다. 아니, 조선인민모두의 뜨거운 소원이 깃들어있었다. 강도 일제와의 전면전쟁을 선포하시고 20성상 백두광야에서 풍찬로숙하시며 삼도왜적을 전률케 한 전설적영웅, 그분의 다른 위인상은 다 불문에 붙이더라도 30대 초엽의 그 젊으나젊으신 나이에 포악스런 일제를 무릎꿇게 하시고 나라를 찾아주신 그 불멸의 업적 하나만으로도 **김일성**장군님은 과시 영웅중의 영웅, 위인중의 위인이 틀림없다. 문석오는 그 순간에 벌써 심장을 쿵쿵 울리는 창작가로서의 흥분에 휩싸였다.

위대한 주인공의 눈부신 형상이 막 눈앞에 어려오는듯싶었다. 하여 그는 그 흥분과 예감을 안고 정관철과 함께 보천보로 떠났었고 돌아온 뒤에는 밤잠도 잊다싶이하며 먼저 유화《**김일성**장군》을 끝내 완성하였던것이다.

정관철이 그랬었던것처럼 그도 림춘추의 방조를 받아가며 검은 단긴양복차림에 줄무늬를 두른 양털색펠트장화를 신고 서계시는 장군님의 립상화를 창작완성하였다.

벌써 어제 림춘추가 이 작품을 가져갔는데 아직 아무러한 소식도 없다. 왜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을가? 장군님께 아직 보여드리지 못했는가? 아니면?…

지금도 문석오는 흥분과 불안이 시계추처럼 엇갈리는 속에서 이제

나저제나 림춘추가 오기만을 기다리고있었다. 정오무렵이 퍽 지났을 적에야 애타게 기다리던 림춘추가 화실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의 뒤를 따라 조용히 들어서는 한 녀인의 모습을 띠여보았을 때 문석오는 무춤 굳어지지 않을수 없었다.

흰색저고리에 검은색치마를 수수하게 입었으나 그 소박하고 단정한 차림속에는 무엇이라 형언키 어려운 기품이 강하게 어려있었던것이다. 정갈하다고 할가 고상하다고 할가, 아니면 따뜻하다고 할지…

《문선생, 어서 인사드리십시오. 김정숙녀사께서 선생을 만나보자고 오셨습니다.》

《예—에?》

림춘추가 싱글거리며 하는 말에 그는 저도 모르게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김정숙녀사라니? 아니, 그럼 그 유명한 항일의 녀장군께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분께서 무엇때문에 나를 몸소 찾아오신단 말인가, 이 비좁고 어지러운 화실에 이런 귀인을 모시게 될줄이야!…

《문석오선생을 만나뵙고 인사를 드리고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앞으로 몇걸음 다가서시더니 정히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시였다.

《아니, 녀사님?!… 녀사님!》

문석오는 뜻밖에 자신의 신상에 들이닥친 꿈같은 현실앞에서 당황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여 어쩔줄 몰라하며 그저 《녀사님》이란 한마디 부름말만 곱씹을뿐이였다.

림춘추가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려는듯 화실안을 휘둘러보며 넌지시 한마디 했다.

《자 문선생, 녀사님을 그냥 서계시게만 하겠습니까?》

그제서야 할바를 깨달은 문석오는 화판앞에 놓여있던 의자를 황급히 들어 그이께 가져다드렸다.

《앉으십시오, 의자가 변변치 않아서…》

그러는 그의 모습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미소어린 목소리로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의자가 한개밖에 없으니 나 혼자야 어떻게 앉겠습니까. 나도 문선생과 함께 서있겠습니다.》
《사실 화실안이 비좁아서 의자를 더 들여놓을 자리가 없길래…》
문석오는 죄송스러워하며 변명삼아 중얼거렸다.
《정말 화실이 좁군요.》
《아, 아닙니다. 내겐 이것도 과남하지요. 그래도 정관철동무가 화실을 구해주었으니 다행이지 나같은 뜨내기생활에야 어디…》
《문선생은 가족을 해주에 두고 림시로 올라와있지요.》
림춘추가 김정숙동지께 그의 형편을 설명해드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식솔이 많다는 얘길 들었는데 집살림도 다 버리고 이렇게 혼자 고생하며 그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셨군요.》 하고 진심어린 목소리로 뇌이시였다.
《우리 평남도당에서 문선생에게 좋은 화실을 하나 구해드리겠습니다.》
림춘추의 말에 그이께서는 가볍게 머리를 저으시였다.
《아니, 그것보다도 림춘추동진 문선생의 가족이 올라와 생활할수 있는 살림집부터 먼저 구해드려야 할것 같아요.》
《아니, 아니… 일없습니다. 한일도 없이 어떻게 폐를 끼치겠습니까.》
문석오는 황황히 손을 내저었다.
《페랄게 없습니다. 문선생의 사업과 생활을 잘 돌봐드릴데 대해서는 이미 **김일성**장군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김정숙동지의 말씀에 그는 크게 놀랐다.
《장군님께서는 선생이 창작한 립상화를 보시고 자신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 제가 그린 작품을 보아주셨단 말입니까?》
김정숙동지께서는 놀라움에 젖은 그의 모습을 다정히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문선생! 우리 전우들을 대신하여 그리고 먼저 간 항일의 렬사들을 대신하여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이께서는 정색한 몸가짐으로 다시금 정히 머리를 숙이시였다.
《아닙니다, 녀사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그이앞에 마주 고개를 수그리며 문석오는 감격에 겨워 웨쳤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문선생!…》
림춘추가 감격과 흥분으로 달아오른 그의 어깨를 지그시 잡아주었다.
《림동지!…》
문석오의 두눈에서는 물기가 번쩍거렸다. 그는 인차 자기를 다잡고 김정숙동지께로 돌아섰다.
《그런데 녀사님, 장군님께서 미흡한 그 그림을 두고는 무슨 말씀을?…》
《장군님께서는 선생의 재능을 두고는 칭찬하셨지만 그림을 두고는 몹시 나무람을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문선생이 앞으로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과 생활을 그린 작품들을 많이 창작해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민의 영웅적투쟁과 생활을요?》
《예, 우리 장군님은 그런분이십니다. 문선생, 장군님께서는 재능있는 미술가를 또 한사람 알게 된것이 기쁘다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미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문석오동무와 같은 재능있는 화가들이 매우 귀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석오는 무아경속에 잠기였다.
일찍부터 미술가로서의 그의 재능을 인정한 사람들은 많았다. 그러나 그들중 어느 누구도 그를 귀중한 존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석오의 재능에 대한 평가는 결국 리용가치에 대한 평가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 나라 미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존재로 그토록 높이 내세워주신분은 오직 **김일성**장군님뿐이시였다.
문석오는 간절한 눈빛으로 림춘추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림춘추는 언젠가 자기앞에서 터놓았던 결심을 더욱 굳혔다는것을 깨달았다.

림춘추는 그만이 알수 있게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김정숙동지에게 말씀올렸다.

《정숙동지, 이 문선생에게는 일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일생의 소원이라니요? 그게 뭔지 저도 도우면 안될가요?》

《됐습니다. 정숙동지만이 풀어줄수 있는 소원입니다. 자, 문선생! 어서 말씀드리시오.》

림춘추의 말에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무엇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귀가 잘 잡히지 않는 모양이다. 몇번 갑자르더니 드디여 입을 열었다.

《저… 이건 예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술가의 신념에 관한 문제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무슨 소원인지 서두부터 심각하군요.》

《그렇습니다. 더우기 저의 그림에 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평가가 내려진 마당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문석오는 주먹을 꽉 그러쥐였다. 이 자리에서 김정숙녀사님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자기의 평생소원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게 될것이였다.

《원래 조각이라고 하면 그가 가지고있는 기념비적성격이 첫째입니다. 다시말하여 특출한 공적이나 위대한 업적을 쌓은 민족적영웅을 돌이나 동으로 새겨 그의 공적이나 업적이 쌓인 곳에 세움으로써 력사에 길이 남기는것이지요.》

《옳습니다. 로씨야사람들도 북방령토를 개척하여 강대한 로씨야제국을 형성한 뾰뜨르1세의 동상을 뻬쩨르부르그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문석오의 말에 림춘추가 적극적으로 주해를 달았다.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의 주인공과 함께 력사에 남는것이 조각가라고 할수 있지요. 난 지금껏 그런 주인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 민족의 영웅을 주인공으로 삼고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쪽발이들밑에서도 이 붓과 조각칼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난 지금에야 민족사와 함께 만대에 길이 전해야 할 업적을 가진 자기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녀사님! **김일성**장군님의 모습을 만년모습으

로 이 땅에 세우고싶습니다.》

《문선생!》

《정숙동지, 문선생은 벌써 보천보전투가 있었던 현지에도 갔었구 또 백두산에도 올라갔다왔습니다.》

《그러니 두분사이에는 이미 토론이 다되여있는 상태로군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장군님을 모시고 백두산에서 함께 싸운 동지들이 그 이야길 들으면 아마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할거예요. 하지만 장군님께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슬며시 눈굽을 훔치시며 이렇게 혼자소리처럼 뇌이시였다.

림춘추가 조급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정숙동지에게 말씀드리는게 아닙니까?! 사실말이지 한 인간의 소원을 풀어주지 못한다는건, 그것도 해방된 이 땅에서 풀어주지 못한다는건 말이 안되지요. 또 그걸 어떻게 문선생 하나만의 소원이라고 하겠습니까. 난 그것이 우리 민족모두의 한결같은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림동지가 문선생에게서 단단히 침을 맞은 모양이군요. 오히려 누가 조각가인지 분간하질 못하겠어요.》

《아닙니다, 녀사님! 나에게 이런 엄청난 결심을 내리게 해준건 바로 이 림동지입니다. **김일성**장군님의 위대한 력사와 업적을 책으로 남기려는 림동지의 그 소원과 지향이 나를 고무해주었고 떠밀어주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뜨거운것을 삼키시였다.

문석오의 설명이 아닌들 어찌 그이께서 오랜 전우이며 동지인 림춘추의 그 마음을 모르시랴.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할수 없으시였다. 자신을 내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그 무엇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는 장군님의 고매한 성품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계셨기때문이였다.

시인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이나 리찬이 가사를 쓴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그때문에 얼마나 진통을 겪었던가.

아마 김책, 림춘추를 비롯한 투사들 아니, 이 나라의 모든 인민이 그 서사시와 노래를 자신들의것으로 옹호하지 않았더라면 언제까지도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을것이다.
놀라운 파급력을 가진 문학예술의 힘이 그 작품들의 운명을 구원한셈이기도 했다.
그러나 동상은… 그것은 지면이나 노래를 통해 실현되는 작품이 아니다. 물질적인 실체이며 고정된 장소를 필요로 하는 직관적인것이다. 장군님께서 승인하시지 않는 한 그것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이였다.
《장군님께선… 언제 가도 그걸 승인하지 않으실겁니다. 그러니 저로서도 어떻게 도울길이 없군요.》
《아니?! 녀사님…》
문석오의 간절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

문석오의 화실을 나서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림춘추와 함께 버드나무가지들이 휘늘어진 대동강변길을 천천히 걷고계시였다.
《림선생이 왜 그리도 문석오선생일에 왼심을 쓰는가 했더니 결국 두분의 그 소원에서의 공통성때문이였군요.》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볍게 미소를 지으시였다.
림춘추와 둘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그를 《림선생》이라고 깍듯이 불러주시는 김정숙동지이시였다.
멀리 팔도구 부암동의 야학방시절… 림춘추가 대성중학교를 그만두고 이곳에서 야학선생을 할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바로 그 야학에서 공부를 하시였던것이다.
《정숙동지도 만나보셨지만 그는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을뿐아니라 사람이 진국입니다. 가식을 모르는 사람이지요.》
《창작가가 아닙니까. 깨끗한 량심과 넋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야 없지요. 우리 장군님곁에 그런 진실한 사람들이 더 많아야 할텐데…》

김정숙동지께서는 부드러운 실가지들이 어깨를 스치는 무성한 버드나무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러시고는 한가닥의 실가지를 잡으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런데 아직 한때 공산주의운동을 했다는 일부 사람들은 나라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투쟁경력〉을 내세우는데만 신경을 쓰고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예요.》

《그래서 저도 문석오선생이 장군님의 동상을 세우겠다고 하는것을 적극 지지하는겁니다. 그런데 정숙동지가 그렇게 나올줄은… 아마 이 림춘추가 이렇게 앉아뭉개고있는걸 안다면 저세상에서 대통령감이랑 위증민동지랑 날 원망할겁니다. 아니, 의리도 없는 자식이라고 저주할겁니다.》

《림선생도 우리 장군님의 마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 장군님의 뜻을 어길수 없어요.》

림춘추는 손을 뻗쳐 버드나무가지들을 줌안에 움켜잡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숙동지와는 이거 말이 통하지 않는군요. 차라리 김책동지와 토론하는게 낫겠습니다, 에이…》

그의 볼부은 소리에 김정숙동지께서는 빙그레 웃으시였다.

《아니, 왜 웃는겁니까? 챠, 이런…》

줌안에서 빠져나온 한가닥의 실가지가 얼굴을 살짝 치는통에 그는 한걸음 물러섰다.

《아니예요. 그것때문에 웃는게 아닙니다. 림선생이 장군님으로부터 되게 비판을 받고 혼쫄이 났던 일이 생각나서 그럽니다.》

《예?》

《왜? 생각이 안 나세요? 장군님께서 북만원정에서 입으신 촉한후유증때문에 치료를 받고계실 때의 그 일 말이예요.》

생각이 났다. 비록 12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때의 그 일을 림춘추가 어찌 잊을수 있으랴. …

어느날 그는 치료를 위해 사령관동지의 손맥을 짚어보면서 손금이 보통사람들과는 달리 장금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래서 그는 유격대원들에게 사령관동지의 손금을 보니 하늘이 낸

위인이 틀림없다고 감탄에 차서 말해주었다. 그 말은 삽시에 온 부대에 쫙 퍼졌다. 모두들 사령관동지의 손금을 보고싶어하였다. 어떤 유격대원들은 나어린 전령병에게 기어이 손금을 보고오라고 부추겼다. 하루는 전령병이 사령관동지앞에 나타나 별스레 갑자르더니 손금을 보여줄수 없는가고 청을 드렸다. 갑자기 웬 도깨비같은 소리냐고 하시자 림춘추가 누군가에게 사령관동지의 오른손금이 장금인걸 보니 분명 하늘이 낸 인물같다고 하여 대원들이 정말인가를 확인해 보라고 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시고 놀랍기도 하시였다. 더우기 부대안에 림춘추가 그런 맹랑한 소리를 퍼뜨리고있다는것을 아시고는 용서할수 없으시였다. 당장 림춘추가 불리워왔고 장군님의 노하신 추궁이 그의 머리우에 떨어졌다.

《동무는 도대체 뭐요? 누굴 어떻게 만들자는거요?》

《사령관동지,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안이 벙벙해진 림춘추는 조심스레 장군님께 물었다.

《동무는 그래도 신식공부까지 했다는 사람이 손금타령을 하고다니니 그게 제정신이요? 안되겠소. 동문 당일군은 고사하고 혁명군대오에 있을 초보적인 자격도 없소!》

줄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엄한 추궁에 몸둘바를 몰라하며 쩔쩔매던 림춘추는 사령관동지께서 그 장금설때문에 노하셨다는걸 알고서야 얼굴이 벌거우리해서 고개를 숙이였다. 그 모양이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는것인줄 알았는데 웬걸, 다음순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더욱 가관이였다.

《그 장금이야기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군님의 신상이자 조선민족의 운명인데 민족의 장래를 위해 싸우는 우리가 그것을 론하는것이 왜 잘못된 일로 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조선민족의 신념문제입니다. 사령관동지의 장금이야기를 한것때문에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무슨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때문에 2천만동포가 저를 처벌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기가 막히시였다. 언제 봐야 자신께서 비판을 하시면 변명 한마디 없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을 하

던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민족이요, 2천만이요 하고 어마어마한 감투를 쓰고 고집을 부리는것인가.
그날 사령관동지께서는 끝내 그의 왕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그만 손을 내저으시며 웃고마시였다.
사실 림춘추 역시 그 장금이야기가 과학이 아니라는것을 모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김일성**장군님은 하늘이 낸 위인이시라는 철석같은 믿음을 간직하고있던 그에게 있어서 장군님의 그 모든것이 한없이 성스럽고 귀중하였던것이다. …
《허허… 그때 일은 왜 갑자기?…》
《장군님께서도 손을 내저으셨던 림선생의 그 왕고집은 오늘도 여전하군요.》
《아무렴 이 림춘추의 왕고집이야 누가 꺾겠습니까. 그리구 그 문석오의 고집두 이 림춘추 못지 않다는것만은 잘 알아두시우, 하하…》
김정숙동지께서는 지나가던 사람들의 주의를 끌만큼 소리내여 웃는 그의 팔굽을 조용히 잡아당기시였다.
림춘추는 다소 목소리를 죽이며 말머리를 돌렸다.
《참, 문선생을 래일부터 순천채석장에 보내려고 합니다.》
《문선생을 채석장에요?》
《예. 그 선생이 채석장에서 조각재료들을 채취해오군 했다는데 알고보니 조각뿐아니라 돌가공계통에도 귀신한가지입니다.》
《문선생의 창작에 지장이 있지 않을가요?》
《이건 누가 시킨게 아니라 자기가 자진한겁니다.》
김정숙동지께서 우려하시자 림춘추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실은 장군님께서 혁명학원교사건설에 쓸 석재문제를 걱정하시는걸 보고 무심결에 그에게 어디 가까운데서 좋은 석재가 나올만 한데가 없는가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쓸거냐고 되묻더군요. 내 그래서 궁전건설에 쓸거라고 한마디 했는데 문선생은 아마 앞으로 서게 될 정부청사건설에 쓰는것으로 생각했는지 그런 중요한 일이라면 자기가 직접 맡아야 한다는거지요.》
《원, 림선생도… 그런 일이야 정확히 말해주어야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웃으시였다.

《제 그래서 학원교사건축에 쓸거라고 다시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어리둥절해하는것 같습디다. 그로서야 인차 납득이 안될수 있지요. 하지만 워낙 마음이 결곡한 사람이라 장군님께서 걱정하신다면 그냥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거지요. 창작가에게는 현실체험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꺼들이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됐군요. 그분이 이번 과정에 장군님의 심중을 체험할수 있다면…》

김정숙동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림춘추를 바라보시였다.

《정말이지 걱정됩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가지, 백가지 일들을 장군님께서 다 근심하지 않으면 안되니… 내 책임이 크지요. 찾아낸 유자녀들보다 아직 찾지 못한 유자녀들이 셀수없이 더 많으니… 며칠전에 장군님께선 동북지방에 있는 그 애들 문제로 또 걱정하시더군요.》

림춘추의 그 밝던 얼굴에 괴로운 빛이 서서히 피여올랐다.

김정숙동지의 눈에도 상심의 빛이 짙게 어리였다.

《그 애들 걱정으로 장군님께서는 밤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군해요. 어제 밤에는 문득 〈연길유격대의 박길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마저 희생되였으니 지금 고아가 되여 밥을 빌어먹으며 다니지나 않는지…〉 하고 혼자소리처럼 외우시더군요.》

《박길의 아들이요?…》

림춘추의 입에서 신음소리 비슷한것이 새여나왔다.

그도 그럴것이 박길은 김정숙동지와는 물론 그와도 인연이 깊었던 사람이였다.

박길은 연길유격대정치위원 겸 삼도만유격구의 군사부장이였다. 그때 김정숙동지와 림춘추는 다같이 바로 그 삼도만유격구에 있었던 것이다.

1934년 9월경 박길은 《민생단》으로 몰려 체포되였는데 극단한 민족배타주의자들은 그를 비롯한 《민생단》혐의자들에게 식사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감방의 뒤창문으로 언감자가루로 만든 쵀기밥을 몰래 넣어주군 하시였다. 어느날 왜놈《토벌》대가 달려들었을 때에는 끓는 죽가마까지 머리에

이고 산으로 올라가 그들에게 식사를 보장해주시였다. 그러나 민족배타주의자들과 그에 추종한 종파사대주의자들은 그를 끝내 《민생단》으로 몰아 무참하게 학살하고말았다. …

어제날의 옛 정치위원의 이름을 되새겨보는 림춘추의 가슴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가슴아픔과 괴로운 추억이 기슭을 치는 파도마냥 세차게 밀려들었다. 뿐만아니라 미처 그의 자녀들 문제에 관심을 돌리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가슴을 쳤다.

지금 장군님의 귀전에는 이 나라 삼천리강토뿐 아닌 이국땅에 흩어진 유명무명의 혁명가유자녀들의 눈물젖은 소리가 울리고있다. 그 울부짖음속에는 대륙너머 까자흐스딴에서 울리는 내 아들 영일이의 목소리도 섞여있을것이다.

《내가 알기에는 박길동지에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직 생존해계시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그 아들은 아마 할머니손에서 자라기 쉽습니다.》

김정숙동지의 말씀에 림춘추는 끝내 머리를 떨구었다. 저렇듯 범상하게 말씀하시지만 속으로야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으랴, 멀었어! 나는 아직 너무도 멀었어!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숙동지의 그 동지애의 세계, 그 사랑의 품을 리해하자면 내 마음은 너무도 비좁고 미적지근해!…

림춘추는 고개를 푹 수그리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5

해질녘의 방천길.

이제 겨우 중소줄에 잡힐상싶은 누렁소 한마리가 한가로이 새김질을 하고있다. 량옆으로 배가 축 늘어진것을 보아 기껏 풀을 뜯어먹은 모양이다. 누렁소는 천천히 새김질을 하다말고 방뚝밑을 넘겨다보며 《음메—》 하고 애절한 소리를 지른다. 이맘때면 밭에 나갔던 어미소가 외양간에 돌아오군 할 때이라 빨리 집으로 가고싶은 모양이다.

그러나 박송봉은 누렁소의 그 재촉소리를 못 들은듯 방뚝밑에 앉아 흘러가는 강물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온종일 주인집의 크고 작은 일들을 붙어안고 연자방아돌듯 하다가 젖떼기송아지에게 풀을 먹이는 이 저녁무렵이야말로 그에게는 겨우 다리쉼이나마 할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였던것이다. 그 시간에는 주인(그는 중국인이였다.)의 짜증섞인 잔소리도 없었고 허기진 배를 못 견디게 쓰리게 하는 주인집의 진한 기름냄새도 없어 송봉은 못 먹고 못 입은 서글픔에서 벗어나 마음껏 자기의 생각에 잠길수 있었다.

《음메—》

누렁소가 큰 눈을 슴벅거리며 또다시 애처롭게 울었다.

송봉은 물기가 어려보이는 누렁소의 큰 눈을 보지 않으려고 애써 눈길을 떨구었다. 어쩐지 그 눈이 불쌍하기는 하였으나 아무리 짐승이래도 너무 제 생각만 하는것 같아 괘씸한 생각이 들었기때문이다.

난 힘들어도 좋단 말이지? 저만 제 어미에게 매달려 애무를 받으면 그만이란 말이지?… 서글퍼졌다. 누렁소보다 못한 자기의 처지가 눈물겹도록 쓸쓸해졌다. 너무도 일찌기 이 세상에 자기만을 남겨두고 떠나간 아버지, 어머니… 송봉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마저 떠오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댔을가? 또 어머니는?…

할머니는 송봉에게 눈우는 아버지를 닮고 눈아래는 어머니를 닮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어머니생각이 날적마다 뚝밑에 쪼그리고앉아 흘러가는 물결우에 제모습을 비추어보군 했다. 그러나 무심한 물결은 송봉에게 부모에 대한 아무러한 련상도 안겨주지 않은채 늠실늠실 가버리군 한다. 지금도 그는 무심하게만 흘러가는 물결과 철없이 갈길을 재촉하는 누렁소의 애된 영각소리로 하여 더더욱 울적해지는 마음으로 앉아있었다.

송봉은 아버지의 얼굴을 모른다. 그가 세살나던 해 아버지 박길(박윤형)은 《민생단》으로 몰려 죽었던것이다.

송봉은 지금도 《민생단》이 뭔지 잘 알지 못한다. 할머니도 그에 대해서는 좀처럼 말해주려 하지 않는다.

《민생단》이란 도대체 무엇이기에 유격대정치위원이였다던 아버지가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송봉아, 난 네 아버지가 남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걸 잘 안다. 자고로 우리 박씨문중에서는 역적이 나와본적이 없으니까.
허지만… 네 애비가 왜놈쪽발이들과 싸우다 전장에서 죽지 못하구 제편 손에 죽었으니… 어디 가서 하소할데가 없구나.》
이것이 아버지에 대해 무엇인가 자꾸만 알고싶어하는 송봉이에게 할머니가 말해준 총평이였다. 제편 사람들 손에 죽은 아버지…
어쩐지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기가 겁났다. 그 누가 아버지에 대해 물을가봐 두려웠다.
(나에게 어머니라도 있었더라면…)
아버지가 돌아갈무렵 어머니는 지하공작을 나갔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여 화형을 당했다고 한다.
그래도 송봉에게 있어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아버지에 비하면 조금이나마 남아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어디론가 끝없이 달려가던 마차… 그 마차우에서 졸다가 깨여나보니 어둑스레한 어느 집 허청간… 웬 낯모를 녀인이 그를 꼭 품어주며 사탕 한봉지를 쥐여주던 일… 왜놈들이 망한 다음에야 송봉을 데리고 왕청현 백초구로 갔던 삼촌이 《그때 그 녀인이 바로 너의 어머니였단다.》라고 말해주었다. 일제놈들의 탄압과 감시가 심하여 송봉은 삼촌의 아들로 호적등록하고 그 집에서 할머니와 살고있었던것이다. 삼촌의 말을 들은 다음부터 애써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보군 했으나 왜서인지 손에 쥐여주던, 난생처음 먹어본 사탕밖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결국 사탕 한봉지가 어머니에 대한 표상의 전부인셈이다. 송봉은 흘러가는 저 강물처럼 다시는 자기곁으로 돌아올수 없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품, 그 모습, 그 사랑이 못 견디게 그리웠다. 또한 고아의 설음과 슬픔속에서 잔뼈가 굵어갈수록 거치른 이 땅에 자기를 두고 먼저 가버린 부모들에 대한 원망도 쌓여갔다. 할머니는 늙고 병들었고 삼촌네는 식솔이 너무 많아 끼니를 밥먹듯 하기가 일쑤다. 밥술을 하나 덜고 집안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보태자면 삯일을 해야 했다. 벌써 몇년째… 송봉은 조양촌 룡포동에 있는 중국인의 집에서 머슴을 살고있었다.
손자애의 애처로운 정상이 가슴에 걸려 송기떡이라도 생기면 할머

니가 그것을 싸들고 대문밖에 찾아오군 하지만 그를 집으로 데려갈 엄두는 내지도 못했다. 집에서 굶기느니 차라리 찬밥이라도 얻어먹을수 있는 남의집살이가 더 나았던것이다. …

《음메－》

누렁소가 또다시 울었다. 그 애처로움, 그 간절함…

송봉은 가슴을 파고드는 동정심에 움쭉 자리에서 일어섰다. 글쎄 자기야 정답게 맞아주고 품어줄 품이 없어 그런다지만 제 어미가 있는 저 누렁소야 왜 슬프게 한단 말이냐, 이런다고 내 슬픔이 덜어질리 만무하고 또 누렁소가 내 슬픔을 알아줄리 만무한것 아니냐, 가자, 누렁소야, 네 어미품으로 가자, 그러니 다신 내앞에서 행복한 투정질은 하지 말아, 막 시샘이 난다, 네가 부러워죽겠어!…

송봉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방뚝우에 올라섰다. 방천길에는 저녁노을이 짙게 어려있었다.

6

오늘 **김일성**동지께서는 농민들의 농사정형을 알아보시기 위해 모내기가 한창인 미림벌로 나오시였다. 이곳 일군들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나오는 길이여서 그이께서는 농민들이 놀라지 않게 승용차를 논벌 먼발치 길옆에 세우도록 이르시고 차에서 내리시였다. 김책과 부관 리종산이 따라내렸다. 리종산이 재빨리 한걸음 나서며 **김일성**동지께 말씀드렸다.

《장군님, 제 먼저 가서 농민들을 몇사람 데려오겠습니다.》

《데려오긴?! 그렇게 만날바에야 논벌에까지 나올 필요가 뭐요? 오늘 종산인 그저 날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이고나서 김책을 돌아보시였다.

《김책동문 오늘 떨어져있을걸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책동무가 나와 함께 나가느냐고 허가이동무가 우리 서기동무한테 몇번이나 물어보더라던데,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게 아닌지?》

《그런건 아닙니다. 엊그제 허가이동무가 우리 인민위원회의 일부 일군들에 대한 재정리문제를 제기하길래 제 좀 싫은소릴 했더니 아마 그때문일겝니다.》

《재정리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으시였다.

《예, 제 생각에는 그의 주장이 지내 좌경적인것 같아 반대했습니다.》

《그 동무가 제기하는 대상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들입니까?》

《여러명 되는데 허동무가 내게 찍어 이야기한건 강원도 교육부장 리종익이란 사람입니다.》

《리종익이요? 귀에 익은 이름인데?… 혹시 이전에 상해림정에 관여했던 사람이 아닌지?》

그이께서는 옛시절에 오동진이며 량세봉의 화제에서 오르내리군 하던 그 이름을 기억해내시였다.

《그런것 같습니다. 허동문 그런 케케묵은 민족주의자를 사회단체부문 일군으로 쓴다면 몰라도 어떻게 사회주의혁명을 담당수행해야 할 인민정권기관의 일군으로 쓰겠는가 하는겝니다. 게다가 이젠 나이도 적지 않아 로망기까지 있는데 학교들에 지도사업을 나가서는 그저 아이들의 꽁무니를 좇아다니며 코를 닦아주는것밖에 모른다는겝니다.》

《아이들의 코를 닦아주는것밖에 모른다?!…》

《사실은 제 그 리종익이란 사람에 대해 구체적인 료해가 없길래 더이상 허가이동무와 마주서는걸 피했습니다. 사람문젠데 정확한 파악도 없이 그의 주장을 그르다고 할수도 없고 또 내 의견만 옳다고 할수도 없고…》

《옳습니다. 그곳 일군들과 군중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료해해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민족주의자냐 사회주의자냐 하는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능력과 됨됨입니다.》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내게 꼭 알려주시오. 허가이동무의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리종익이란 사람이 참 흥미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나서 팔소매를 걷어올리시였다. 그러신 다음 허리를 굽히시고 바지가랭이를 접어올리시였다.

《자, 우리 예까지 왔던바에는 농민들의 모내기나 좀 도와줍시다. 어쩐지 손이 근질근질해서 더 못 참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성큼성큼 걸음을 내짚으시였다.

그뒤를 따르며 리종산이 김책을 향해 입을 비죽 내밀었다.

《글쎄 내 꼭 이러실줄 알았다니까요. 농민들의 모내기정형을 알아보러 나온다는것이 결국 이렇게 모내기를 도와주러 나온셈이 되구 말았지요.》

김책이 그의 엉치를 툭 쳤다.

《그게 바로 우리 장군님의 사업작풍이야.》

《그건 나도 압니다. 하지만 매번…》

그러나 리종산은 말을 더 맺지 못했다. **김일성**동지께서 벌써 저만치 논배미에 들어서고계셨던것이다. 김책과 리종산은 그리로 잰걸음을 쳤다. …

미림벌의 모내기는 어느새 마감고비에 들어섰다.

해방된 제 나라, 제땅에서 두번째로 모내기를 하는 이곳 농민들은 흐릿해지는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성수가 나서 걸싸게 일손을 다그쳤다. 누구인가 부르는 흥겨운 노래가락이 벌 한가운데서 울려나왔다.

백두산말기에 백학이 너울너울
해방된 강산에 뻐꾸기 뻐꾹뻐꾹
…

금년봄에 나온 《밭갈이노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노래소리를 들으시며 묵묵히 모를 꽂으시였다. 그이와 조금 떨어진 뒤에서 김책이며 리종산이도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모를 꽂으면서 따라왔다. 옆에서 나란히 나아가는 40대 중엽의 농민이 흥이 살아나는지 코노래처럼 흥얼흥얼 따라부른다.

…
아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한친들 묵이랴 밭갈이가세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러는 그의 옆모습을 미소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한말씀 건네시였다.
《모내기를 하면서 〈밭갈이노래〉를 부르니 어쩐지 격에 맞지 않는군요.》
《허, 그야 상관있쉐까. 밭을 갈든 모를 내든 이 땅이 분명 장군님 주신 땅일진대 우리네 농사군들의 심정에 꼭맞는 노래지요.》
김일성동지의 일행을 지나가던 길에 모내기를 도와주는 고마운 길손들로만 알고있는 농민은 무랍없이 대답하며 계속 앞으로만 나아갔다.
《그래 이 논배미만 다 꽂으면 집의 모내기는 끝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자꾸만 자신에 대한 소리를 듣는것이 면구스러워 말머리를 돌리시였다.
《여부있나요. 이래뵈두 이 김달수가 이 아근에선 실농군소릴 듣는 사람이지요. 하지만서두 해방전에는 자식 둘을 굶겨죽였수다. 다 제땅이 없은탓이였지요. 인제야 장군님께서 주신 제땅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소. 부지런히 제 오룩만 놀리면 잘살겠는데…》
《옳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야 집살림도 늘어나고 나라일도 잘되게 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소박한 말을 긍정해주시였다.
김달수는 문득 허리를 펴더니 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모춤을 쥔채 그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싱글벙글한 얼굴로 말을 건넸다.
《아무리 봐도 우리처럼 막일할 사람은 아닌것 같은데 농사일을 하는걸 봐선 여불없는 실농군이니…》
《여보 주인장, 그러니 그분앞에선 실농군행세를 삼가해야질 않겠소?》
뒤따라나오던 김책이 큰소리로 웃으며 하는 말이였다.

그러자 김달수는 능청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따, 내 아무리 촌놈이기로서니 사람이야 바로 가려보질 못하겠수?! 보매 길손들은 나라일을 보는분들이 틀림없지오다. 안 그렇습니까?》

《나라일을 보는 사람들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거기서도 나라일을 보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지요. 예로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일러오질 않았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허리를 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글쎄 그렇긴 한데… 하긴 우리 리위원장도 말은 그렇게 합디다. 이제부터는 우리모두가 나라의 주인이라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제기하는 문젠 들은척도 안하지요.》

《아니, 무슨 제기를 했게요?》

김일성동지께서는 흥미가 동하시여 그에게 물으시였다.

김달수는 그이께서 관심어린 표정으로 물으시자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저기 미림비행장을 좀 보시우. 사실말이지 이 미림벌을 통털어두 저기만 한 땅은 없었수다. 저기에다 다시 논을 풀면 아마 수백섬은 잘 나올겝니다. 그런데 글쎄 리위원장은 내 말을 듣더니만 그건 나라일이니 상관하지 말라나요. 내참…》

《허, 리위원장이 상관하지 말라고 한 말은 아주 잘못되였군요. 나라의 주인들이 나라일을 상관하지 않을수가 있습니까?!》

《글쎄 내 말이 그 말이웨다. 잠자코 있자니 농사군으로서 생땅이 묵어나는걸 보구 어디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이께서 지지해주시자 김달수는 더욱 성수가 났다.

솔직하면서도 새 나라의 주인된 자각과 열의에 넘쳐있는 그의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시는 **김일성**동지의 마음은 저도 모르게 훈훈해지시였다. 이태전까지만 하여도 지주의 한뙈기 소작땅에 명줄을 걸고 한식솔의 생사조차 책임질수 없었던 우리 농민들이 이제는 나라일을 두고 관심하며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려 하고있다. 그만큼 당당해지고 배심이 든든해졌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소작살이의 노예적이며 고용살이적인 근성에서까지 완전히 해방되였다는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라는 관점이 이미 그들의 사고방식에 굳어지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지 않는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점도 없진 않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짧은 생각은 일깨워주고 바로잡아주면 된다. 문제는 주인이라는 그 자각이다.

《그래, 달수동문 자식이 몇이나 됩니까?》

김일성동지께서 친근하게 물으시였다.

《우로 둘을 잃고 셋을 길렀습니다. 제일 큰놈이 열다섯입니다.》

마치 자식들이 앞에 있기라도 한듯 김달수의 눈가에는 대견한 빛이 확연히 피여났다.

《그들이 다 학교에 다니겠지요?》

《예, 막내아들은 아직 소학교에 다니고 큰놈과 딸년은 중학교엘 다닙니다. 글쎄 큰아들놈은 벌써부터 대학엘 가겠다고 들썩거린답니다. 어벌도 크지. 해방전같으문사 농사군의 자식이 대학은커녕 서당방에나마 발길을 들여놔봤겠습니까. 그래서 난 지금 이 김달수의 집안에도 큰 인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룡꿈을 꾸는데 그게 정말 이루어지겠는지…》

김달수는 벙글서 벌려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제야 로동자, 농민의 세상인데 그들의 자식들이 대학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난 동무의 그 꿈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럴가요?》

달수의 입이 더욱 벌어졌다.

《달수동무도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 동무의 자식들이 동무를 대신해서 또 나라의 주인구실을 하게 될겁니다. 그때 가면 말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지금처럼 힘들게 육신을 놀려 짓는것이 아니라 기계로 짓게 될것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시오, 달수동무의 아들이 모를 내는 기계를 타고 이 넓은 들판을 휘휘 돌면서 눈깜짝할 사이에 모를 다 꽂는 그런 광경을 말입니다.》

《참 들을수록 희한하기만 합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가요?》

달수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지 숨소리마저 높아졌다.

《꼭 옵니다, 오구말구요. 그러니 달수동무한텐 지금 근심걱정이 없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모춤을 량손에 갈라쥐고 몸을 뒤로 젖힌 달수의 모습을 눈여겨보시며 천천히 모를 꽂아나가시였다.

《허허… 요즘같아선 무슨 근심걱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이웨다, 내 잠자다가두 이 세월이 꿈이 아닐가 하구 소스라쳐 깨나는 때가 있는데 이걸 배아파하는 놈이 과연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때없이 갈마든단 말입니다.》

《하하하…》

옆에서 수굿하고 모를 꽂아나가던 김책이 소리내 웃으며 허리를 쭉 폈다. 농민이 제스스로 이야기의 바른 곬에 들어서기때문이였다.

달수는 좀처럼 말없이 일손만 놀리던 점잖은 사람이 그답지 않게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따라웃지도 책망도 못하고 하던 말을 채 잇지 못한채 민망한 눈길을 보냈다.

《아니, 내 말이 그렇게 우스운가요? 채 듣지도 않구…》

《주인장, 아니웨다. 내 웃음이 좀 헤퍼 웬간한 말에도 이렇게 실없이 웃군 하지요. 주인장이 얼마나 말을 재미있게 하는지… 어서 계속하시우, 내 다신 웃지 않을테니…》

김책이 정색해지며 모춤을 갈라쥐면서 허리를 굽히자 김달수는 **김일성**동지를 향하여 몸을 돌리며 하던 말을 계속하였다.

《여기 미림벌을 차지하고 우리를 짐승처럼 천대하던 지주놈이 있습니다. 그놈이 해방된 그해 섣달 보름께 달아나면서 동네방네에 한 말인즉 땅은 지고가지 못하지만 땅문서는 가지고간다는겁니다. 세월이 암만 흐르고 변해두 땅임자는 영원히 자기라는거지요. 그놈의 말이 생각날 때면 잠이 안 오지요. 그놈이 과연 우리 농군들이 이렇게 잘살라고 그냥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소름이 다 끼칩니다.

이자 어르신이 근심이 없는가 물으셨길래 꺼낸 소리지만 생각해보면 무서운 일이지요.》

김책은 다시 허리를 펴며 **김일성**동지를 우러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와 눈을 맞추시며 빙그레 웃고나서 김달수를 향해 다시 물으시였다.

《달수동무는 확실히 나라의 주인된 자각이 있습니다. 동무의 말이 옳습니다. 나라가 있고야 집안의 행복도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주인된 구실을 바로해야 합니다.》

《아무렴요. 천만번 지당한 말씀이지요.》

김달수는 자기의 꾸밈없는 말이 큰어르신들로부터 긍정을 받자 오히려 계면쩍어하였다.

《그러니 그 지주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것도 나라의 주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럼요.》

《달수동무, 우리는 하루빨리 정규적인 혁명무력을 건설하여 오늘뿐아니라 바로 미래의 주인들인 우리 아이들의 희망과 앞날을 지켜주고 영원히 담보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비행장을 없애고 저 넓은 땅에 논을 풀면 많은 쌀을 생산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비행장과 쌀 수백섬을 바꿀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피눈물나는 노예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정규적인 혁명무력이 있어야 하구 그러자면 현대적인 항공대도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 비행장을 논으로 풀어야 하겠습니까?》

그제서야 김달수는 **김일성**동지께서 여직껏 에둘러 펴오신 이야기의 끝을 짐작하였다.

《무슨 말씀이신가 했더니… 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보니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야 쌀이 수천만석 나온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역시…》

그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나같은 농사군이 나라의 주인구실을 한다는건 당치 않습니다.》

《공연한 말씀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가꾸는것뿐아니라 그것을 지키는것도 다 주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김달수는 잠간동안에 받아안은 충격이 너무도 커 률동적으로 모를 꽂아나가시는 그이의 뒤모습만을 멍하니 지켜볼뿐 발을 옮기지 못했다.

《자, 좀 있으면 비가 올것 같은데 일손을 다그쳐 이 논배미의 모

내기를 빨리 끝냅시다.》

그의 모습을 힐끗 쳐다보고난 김책이 누구에게라없이 소리를 쳤다.

×

마침내 비가 내렸다.

차창밖에 흘러내리는 비물을 바라보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등받이에 웃몸을 기대시였다.

오래간만에 농사일을 해서 그런지 허리가 뻐근하시였다.

《힘드시지 않습니까?》

김책이 근심어린 목소리로 조용히 묻는 말이였다.

《힘들기야 나보다 김책동무가 더할테지요.》

그이께서는 오히려 김책을 걱정해주시며 정겹게 눈길을 주시였다.

《저야 뭘… 그저 뒤에서 슬금슬금 따라나간걸요. 오후엔 좀 휴식을 하셔야겠습니다.》

《글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만경대엘 갔다와야 할것 같습니다. 새로 평남도인민위원장사업을 맡은 리주연동무가 학원건설사업소를 조직해놓았다는데 내가 가서 로동자들이 생활할수 있는 조건이랑 알아봐야지요.》

《저… 제가 대신 가면 안되겠습니까?》

김책의 진심어린 얼굴을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고개를 저으시였다.

《김책동무야 래일 황철에 내려가야 하질 않습니까. 난 오히려 김책동무가 걱정됩니다. 부상자리가 도지지 말아야 할텐데…》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혼자소리처럼 뇌이시며 또다시 비물이 줄줄 흐르는 차창밖을 내다보시였다. 나이보다 퍽 걸늙어보이는 그의 수척한 얼굴을 마주보기가 괴로우셨던것이다.

김책이… 자신처럼 믿음이 가고 그래서 더욱 의지하고싶어지는 귀중한 동지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만큼 크고작은 모든 사업부담을 걸머지고있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나를 걱정하고있다. 조금이라도 나의 사업부담을 덜어주려고 윈심을 쓰군 한다. …

《참,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안길동무에게 간리림시교사보수사업에 군인들을 동원시킬데 대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군인들까지 붙으면 이번 9월 1일 개학날부터는 능히 수업을 시작할수 있을겁니다.》

김책이 자기의 건강을 놓고 깊어지는 장군님의 근심을 덜어드리려고 서둘러 말머리를 돌렸다. 얼핏 그에게 눈길을 돌리셨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실뿐이다. 불과 보름전에 사망한 안길의 부인 강미분녀의 모습과 함께 더욱 꺼칠해진 참모장의 얼굴이 아프게 맺혀오시였던것이다. 고생끝에 락이라는데 그들부부에게는 왜 그런 가슴아픈 불행이 들씌워지는지… 항일무장투쟁 전기간을 헤여져 살다가 해방된 조국땅에서 락을 누려볼가 하니 그렇게 애석하게 짝 잃은 외기러기신세가 될줄이야…

김책이, 안길이…

자신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해야 할 이들…

이들은 꼭같이 자기들의 아픔과 불행은 깊은 곳에 묻어두고 오로지 조국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다, 이런 동무들을 단 하루만이라도 마음편히 쉬게 해줄수만 있다면…

승용차는 뽀얗게 앞을 가리우는 비발을 헤치며 천천히 달렸다.

김책은 머리를 수긋하고 말없이 앉아있었다. 그이의 근심을 덜어드린다는것이 그만 안길의 불상사를 떠올려 오히려 심뇌를 더해드렸으니 자신의 불민함과 민망스러움에 자책이 컸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러한 그의 속마음을 읽고도 남음이 있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얼른 화제를 돌리시였다.

《참, 내 언제부터 김책동무에게 묻고싶었는데 허형식의 가족행처에 대해 알고있습니까?》

《허형식의 가족행처… 말입니까?》

김책은 그이의 뜻밖의 물으심에 다만 기계적으로 따라외웠을뿐 인차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는 이미 장군님께서 중국인민의 국내전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북에 떨구어두셨던 강건, 최광 등에게 허형식의 유가족을 찾을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었다는것을 알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렬사의 유가족은 일제의 감시와 가증되는 탄압을 피하여 여기저기 옮겨가며 숨어살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정으로 찾을 길이 묘연하였다.

강건과 최광은 조국에 돌아온 후 이 사실에 대하여 장군님께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였다. 그때 그 자리에 김책이도 함께 있었다.

그러니 장군님께서 자기에게 허형식의 가족행처를 다시 물으시는것은 그 이후에 따로 알아본것이 있느냐는 뜻에서였을것이다.

하지만 김책은 더 말씀드릴것이 없었다. 그들의 행처를 가늠키 어려운데다가 수많은 사업들에 부대끼다보니 그 이상 알아볼 생각을 못했던것이다.

《저… 1938년도 가족과 련계가 끊어진 후부터는 전혀 모르고있습니다.》

그들의 행처를 모르는것이 전적으로 자기의탓이기라도 한듯 김책은 죄스러운 어조로 말씀드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고나서 추억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였다.

《그의 고향이 경상북도 어데라고 한것 같은데?…》

《경상북도 선산군이 그의 고향입니다.》

《하긴 북만에서 살던 조선사람들가운데는 대체로 경상북도출신들이 많았지. 허형식동무는 북만에서 항일련군을 조직할 때 김책동무와 함께 주동적역할을 한 사람이였지요. 두사람의 우정이 남달랐다던데…》

련련한 회억이 김책의 온몸을 짜릿하게 만들었다.

…허형식은 김책과 봉천감옥생활도 같이하였고 빈현일대에서 항일무장대오를 묶어세울 때에도 위험한 투쟁의 길을 함께 걸은 잊지 못할 전우였다. 항일련군 제3군이 조직되였을 때 당권은 정치위원인 김책이, 군사권은 주력사단장인 허형식이 쥐고있었다. 지휘체계를 개편하여 로군을 편성하였을 때에도 김책은 제3로군 참모장 겸

1지대장인 허형식의 정치위원으로 오랜 기간 함께 싸웠다. 허형식은 혁명선배이며 나이도 우인 그의 말을 언제나 귀담아듣군 했는데 특히 동남만에서 받는 통보와 소식들중에서 **김일성**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때면 온밤 잠들지 못하고 희열에 넘쳐있군 하였다. 그런 밤이면 조선민족이 낳은 걸출한 령도자를 직접 모시고 싸우는 동만사람들에 대한 부러움과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군 했다. 그들 두사람의 전우애, 동지애는 조선사람이라는 동포애로 하여 남달랐고 그 동포애는 **김일성**장군님을 모셨다는 환희와 긍지로 하여 더욱 굳건해졌다. 기회가 조성되기만 하면 그들은 우정 2지대장인 박길송을 지휘부에 불러다놓고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군 하였다.

김책과 허형식은 많이 물어보고 박길송은 그만큼 알려주었다.

동만을 잘 모르는 허형식은 늘 그의 말을 신기하게 듣군 하였다.

《야 길송이, 너는 좋겠다. 왕청에 있을적에 그분을 만나뵈왔다지. 난 말이야,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아직 만나뵙지는 못했어. 인정이 그처럼 많으신분이시라는데 이제 우리 두 눈병신을 만나면 속으로 눈물을 지으실것 같구나.》

북만의 두 항일용장인 허형식과 박길송은 왜놈들과의 전투에서 불행하게도 한쪽눈씩 상했는데 그걸 념두에 두고 하는 그들의 말이였다.

《만일 왜놈들과 싸우다가 한쪽눈을 마저 잃으면 길송이 네가 나를 업고서라도 장군님곁으로 데려가다오.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조국으로 개선할 그날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아, 그날은 과연 언제일지?…》

《내가 그렇게 되면 허형이 나를 업어다주시오. 장군님께선 우리들을 잘 알고계시니 아마 조국개선대오의 맨앞에 세워주실거요.》

그들 두사람의 약속은 애석하게도 실행되지 못하였다. 박길송은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여 1943년 8월 할빈감옥에서 사형당하였고 허형식은 1942년 8월 소부대활동을 지도하러 나갔다가 소룡하기슭에서 불의에 조우한 적들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그때 박길송의 나이는 26살이였고 허형식은 33살이였다.

김책에게는 불쑥 허형식이 장군님께 드리겠다고 천하에 없는 명마를 구해들이던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것은 그들이 기마부대를 조직하던 때의 일이였다. 기마부대를 조직하게 된것은 그들의 활동구역의 지대적특성과 관련되여있었다. 그들의 활동지역은 동서로 약 900여리, 남북으로 700여리의 광대한 벌판위주의 야산지대였다. 이 반경안에는 몇개의 큰 산과 그와 잇닿은 천고의 밀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드넓은 초원이였다. 이러한 북만의 지대적특성은 산악이 많은 동만이나 남만과는 달리 기마부대의 활동에 유리하였으며 행군과 전투에서의 신속성, 기민성으로 하여 적들에게 보다 큰 타격을 줄수 있었다. 또한 북만에는 군마와 사료원천도 풍부하였다. 어느날 허형식이 주하마을에 사는 독립군출신의 로인에게 천하명마가 한필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갔다. 허형식의 아래우를 몇번이고 훑어본 그 로인은 집에서 얼마쯤 떨어진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갔다. 왜놈들이나 토비들에게 빼앗길가봐 이곳에서 기르는데 말이 어떤가를 보라고 하면서 그의 앞에 끌어다놓는 것이였다. 큰 키에 늘씬한 말의 생김도, 달리는 그 모습도 역시 볼만 하였다. 과시 천하에 없는 명마라 할수 있었다. 부쩍 욕심이 동한 허형식은 로인과 흥정을 벌렸다. 그런데 값이 너무도 엄청났다. 로인이 부르는 값은 보통말 열필을 사고도 두마리정도의 부림소를 더 살수 있는, 산림대에 가면 한개 소대를 무장시킬수 있는 토퉁(구식보총의 일종)을 살수 있는 액수였다. 로인은 자기가 부른 값을 조금도 낮추려 하지 않았다. 하는수없이 그는 돌아서고말았다. 린색하기 그지없는 령감태기가 여간만 괘씸하지 않았으나 어쩌는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말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얼른거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다. 그때로부터 40일이 지난 어느날 허형식은 많은 로동자와 5대의 자동차까지 가지고있는 일본인농장주의 집을 습격하여 빼앗은 돈을 가지고 김책을 찾아와 속심을 터놓았다. 김책은 그 로인의 별호가 혹시 《마상재》(말타기명수라는 뜻)가 아닌가고 물었다.

《내가 그 령감태기가 마상재인지 뭔지 알게 뭡니까.》

《허동무, 내 그 로인을 좀 아는데 한때 독립군에서 왜놈들과 잘

싸운분이요. 그리고 그 로인이 말값을 그렇게 부른것은 그만큼 말이 값나가는것이기때문일거요. 로인의 심정을 리해해주오.》

김책의 말을 듣고 허형식이 다시 찾아가자 로인은 기다렸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쥐였다. 그리고는 말편자와 안장도 새것으로 해놓을테니 나흘이나 닷새후에 와서 말을 가져가라고 하였다.

그가 세번째로 찾아갔을 때 로인은 말과 함께 1정의 기관총과 6자루의 일본제보총 그리고 한통의 탄알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독립군이 주저앉으면서 임자들에게 물려준것이 화승총밖에 없었는데 자기의 손으로 이런 훌륭한 무기를 마련해주고싶었다고, 돈이 좀 모자라서 하는수없이 임자에게서 말값을 받아 이걸 구했으니 부디 자기 몫까지 합쳐 왜놈들과 잘 싸워달라고 부탁하는것이였다.

허형식은 그때에야 김책이 어째서 로인의 심정을 리해해주라고 말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로인의 애국충정에 감동되여 발밑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허형식은 후날 그 로인을 잊을수 없어 자기의 별호를 《마상재》라고 하였다. 아닌게아니라 적들은 그가 이끄는 기마부대만 출몰하면 마상재기마부대가 왔다고 하며 그들의 말발굽소리에 전률하군 하였다.

그는 늘 살붙이와 같이 여겨오는 준마를 언제인가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오면 꼭 드리겠다고 김책에게 말하군 하였었다. 그러나 그는 종시 자기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였다. …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합니까? 혹시 허형식이 나에게 보내려고 마련했다던 그 준마생각을 하는게 아닙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의미있는 미소를 지으시며 넌지시 김책에게 말씀하시였다.

《그럼 장군님께서도 그 생각을?… 그러고보니 우리들의 생각이 한곬으로 흐르고있었군요. 그와 마지막으로 헤여지던 그날도 이런 비내리는 날 오후였습니다.》

김책의 목소리는 나직이 갈렸다.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원동으로 떠나는 김책의 일행을 바래우며 자기도 함께 가고싶다고, 장군님의 친솔대오에 속하여 평범한 전사로라도 함께 싸우고싶다고 절절하게 말하던 허형식이…

아, 그날 그의 얼굴에 흘러내린것은 비물이였던가, 눈물이였던가. 그래도 제 먼저 작별의 슬픔을 애써 감추며 말했었지.

《김책동지, 장군님을 만나뵈오면 전해주십시오. 제 귀는 만리밖에서 울려오는 소리까지 듣는다고 말입니다. 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총소리를 크게 울리시면 제 여기서 화답의 총소리를 울리겠습니다. 마상재로인은 〈월나라 새는 남쪽가지에 둥지를 틀고 몽골말은 북풍에 의지한다.〉고 말하군 했는데 이 허형식인 언제나 마음은 장군님품에 가있고 어디서나 장군님의 뜻을 따를것입니다. 조국으로 총진격할 때 북쪽에 대고 소리쳐부르십시오. 제 귀를 쭉 늘쿠어 남쪽에 돌리고 기다리고있겠습니다.》

김책은 그래서 그와 웃으며 헤여질수 있었던것 같다. 언제인가 조용한 기회가 생겼을 때 혼자서 벌쭉벌쭉 웃으며 하던 말이 생각났다.

《한번 집에 가보니 글쎄 아들녀석이 벌렁벌렁 기여다니다가 내 배를 타고앉아 오줌을 뜨끈하게 내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늦게 찾아온 벌칙으로 말입니다. 그옆에서 딸년은 좋다구 손벽을 치구요.》

그 대단한 락천가, 그 용감하고 령활무쌍한 지휘관을 이제는 영영 다시 볼수가 없게 되였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운전사옆좌석에 앉은 리종산에게 눈길을 돌리시며 혼자소리처럼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종산인 어릴 때부터 허형식동무의 련락병으로 오래 있었지. 동무가 그의 비보를 가지고 원동훈련기지로 들어오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5년세월이 흘렀구만. 그러니 종산이도 그의 유가족을 찾는 일에 관심을 돌려야 돼.》

《알았습니다.》

자책이 어린 종산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희생된 전우들을 잊지 말고 그들의 자녀들을 찾아 책임지고 돌봐주어야 해. 그렇게 하는것이 먼저 간 동지들에 대한 우리 산사람들의 의리가 아니겠소. 내 그래서 동북땅에 있는 유자녀들을 찾으러 림춘추동무를 곧 보내자고 하오. 》

김일성동지의 말씀은 낮으나 절절하였다.

그이께서는 뜨거움에 젖어있는 김책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제 얼마 안있어 학원을 세워야 하겠는데 우리 하루빨리 유자녀들을 찾아서 공부를 시킵시다. 허형식의 고향이 경상북도 선산이라니 그 가족들의 행처에 대해서는 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조선 반일운동자구제위원회에 부탁해봅시다.》

김책은 웬일인지 자꾸만 목이 막혀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후덥게 달아오르는 가슴만이 확확 열기를 내뿜는듯싶었다. 그는 뿌잇해지는 두눈을 슴벅이며 차창밖으로 얼른 얼굴을 돌렸다.

차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뜨거운 비가 내리고있었다.

이날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 평안남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사업을 맡은 리주연을 비롯한 일군들과 함께 만경대에 또다시 나가시여 학원건설사업소 소장 림춘석, 재정과장 손기림, 현장지도원 김순건 등을 만나 건설에 동원된 로동자들의 숙식보장대책을 하나하나 세워주시였으며 학원건설을 위한 지대정리작업을 다그쳐끝낼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7

김일성동지께서는 며칠전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동만일대에는 조선사람이 80프로이상 차지하고있으므로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투쟁하여온 우리 나라의 로간부들을 파견하여달라는 요청을 받으시였다.

중국공산당이 이러한 요청을 해온데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당시 중국혁명은 력사의 갈림길에서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었다. 쏘련군대에 의한 동북해방은 중국혁명을 위한 중국공산당의 활동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주었지만 쏘중회담결정에 따라 쏘련군대가 철수한 후 장개석도당의 동북해방지구에 대한 전면공격으로 간고한 싸움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만주를 혁명근거지로 만들고 여기서 쏘련군이 넘겨준 무장으로 해방군을 개편보강하며 중국본토해방

을 수행할 목적으로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를 연안으로부터 서만주로 이동시킨 중국공산당에 있어서 동북을 차지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승패의 관건적문제였다. 그러나 장개석은 미제가 준 60억딸라어치의 군사장비로 무장해가지고 미륙군대장 웨이드마이어의 지휘밑에 진행된 력사상 최대규모의 《공수 및 해운작전》으로 동북싸움에서 일시적인 주도권을 장악하고있었다.

장개석의 정예부대인 3개의 기계화군단을 주력으로 하는 수십만명의 병력이 심양을 이미 차지했으며 장춘, 길림을 점령하고 연변계선인 돈화에까지 침입하였다. 그리하여 길림성당기관들까지 모두 후퇴하여 연변에 집결되여있었고 또 연변땅에서도 후퇴준비를 하고있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연변지구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었다. 그런데 그 시기 동만에서는 좌경분자들의 빈고농로선이 그대로 집행되여 인민들속에서 불안과 공포가 심해지고있었으며 애매한 사람들이 수많이 청산되여 서로 울고불고 지어는 전선에 나간 후방가족들까지 청산하여 전선부대들에서 전사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현상까지 나타나고있었다. 한편으로는 숨어있던 반동들이 무기를 가지고 후방에서 민심을 소란시키면서 살인과 방화, 략탈만행을 끊임없이 저지르고있었으며 조중인민의 사이를 리간시키기 위하여 음흉하고도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었다. 동만땅에 조성된 혼란된 상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혁명력량을 제때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곳의 불리한 군사정세를 바로잡을수 없었다. 하여 중국공산당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김일성**동지께 도와줄것을 요청하여왔던것이다.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결심이시였다. 지난 시기 만주광야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하여온 혁명전우로서 중국동지들이 겪고있는 곤난을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으시였다. 이미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회의에서 그이께서는 동북해방은 중국혁명을 도와주는 견지에서, 우리 혁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강건, 박락권, 최광을 비롯한 지휘관들에게 연변일대를 비롯한 동만땅을 동북해방을 위한 기지로 꾸릴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었다.

해방직후에는 모택동의 친서를 가지고 찾아온 중국공산당 조직부

장 진운을 통하여 해방군에게 화약과 일제에게서 빼앗은 10만정의 보총, 다량의 탄약, 식량과 피복 그외 각종 포부대장비들을 모두 무상으로 보내주시였다. 그리고 료동반도에서 국민당군에 의해 포위된 수십만명의 해방군을 구원해달라는 중국당의 요청을 받고 서해기슭의 배들을 총동원하여 우리 나라의 평북도와 신의주에 대피시켰다가 력량을 재수습하여가지고 동북해방전투에 참가하도록 도와주시였다.

1945년 11월에는 몸소 전투가 벌어지고있는 중국 단동에까지 들어가시여 작전토의까지 해주시였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피로써 맺어진 두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전통적인 친선과 단결은 해방된 오늘에도 빛나게 이어져야 한다는것이 **김일성**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였고 결심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동북으로 누구를 파견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계시였다. 자신의 명의로 동북에 파견되는 특사는 중국인민의 동북해방을 위한 싸움에 동만의 조선사람들을 조직동원할수 있는 조직자적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조성된 민족적대립을 해소하고 조선사람자체의 민족자결권을 해결할수 있는 정치적수완이 있어야 했다. 솔직히 말하여 그 적임자도 역시 림춘추였다. 그는 연변지방에서 태여나 성장하였고 일찌기 청년시절부터 연변지구에서 지하공작을 하였으며 동만의 유격구에서도 사업하였고 그후에는 북만에서 독립려단 당서기, 남만에서 경위련대 당서기, 8련대, 7련대 당서기, 동만당공작위원회 책임자,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 위원의 직책을 력임하면서 항일대전의 불길을 헤쳐온 단련되고 세련된 능숙한 정치활동가였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림춘추를 적임자라고 생각하신것은 그가 동북의 조선인혁명가들의 투쟁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있다는 점에서였다. 그것은 또한 그의 사업상관계에 기인된것도 있지만 보다는 그가 우리의 항일혁명투쟁의 력사를 갈피갈피 단편적이나마 매일 《비망록》에 적어온 남다른 지향과 정열때문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국당의 요청을 받아들이던 그 순간에 벌써 특사가 공식적인 자격으로 오래동안 동북에 나가 사업하게 된 이 기회

에 그곳에 널려있는 희생된 혁명렬사들의 유자녀들을 찾아 조국으로 데려오실 결심을 굳히시였다. 우정이라도 림춘추를 보내여 그들을 찾아오실 생각이였는데 때마침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였던것이다. 해방직후부터 혁명가유자녀들을 찾는 사업을 맡고있는 림춘추야말로 어느모로 보나 둘도 없는 적임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하고계시는것은 멀리 까자흐스딴에 있는 그의 아들문제때문이였다. 아버지를 찾아달라는 어린 아들의 그 간절한 부탁을 자신께서는 아직 들어주지 못하시였던것이다. 쏘련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다. 시일이 걸려야 할 형편에서 림춘추를 개인자격으로라도 아들을 찾아 보냈어야 했으나 보내지 못하셨다. 본인이 완강하게 거절하기도 하였지만 사실 보낼 형편도 못되였다. 투사들의 거의 모두가 정규군건설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형편에서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평양이 있는 평안남도당사업을 맡고있는 그마저 떼여낼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만큼 나라의 정세가 복잡다단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크게 마음먹고 그를 떼여낸다는것이 아들에게로가 아니라 딴곳으로 보내야 하니, 그것도 많은 사업부담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자식들을 찾으러 보내야 하니 어쩐지 그들부자에게 죄스러운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우시였다. 림춘추라고 어찌 아들이 보고싶지 않고 데려오고싶지 않으랴. 본인은 앞에서 그런 내색조차 하지 않고 그 비슷한 말조차 꺼내려 하지 않고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생각이 많고 가슴이 쓰리랴. 그 웅심깊고 인정많은 사람이…

해방직후 김정숙을 비롯한 녀투사들 일행이 평양에 오던 때의 일이 생각난다. 함경북도에 나가있던 안길이로부터 그들이 렬차편으로 평양역에 도착한다는 전화련락을 받고 김책, 최용진을 비롯한 평양에 떨어져있는 몇 안되는 전우들이 마중나갈 차비를 하고있는데 정작 떠나자고보니 방금전까지 있던 림춘추가 간다온다 소리없이 어데론가 사라졌다. 여러 사람이 그의 행방을 찾아헤맸으나 통 알 재간이 없었다. 이렇게 행방불명이 되였던 그는 12월의 짧은 겨울해가 사그라져갈무렵에야 나타났는데 그의 손에는 여러마리의 숭어꿰미와 먹음직스러운 조선사과가 든 구럭이 들리여있었다. 자신께서도

그때에야 림춘추가 고기그물을 얻어들고 대동강에 나가 얼음을 까고 동지달의 강물속에서 해종일 떨며 한마리, 두마리 숭어를 건져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그는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려 사과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나타난것이였다.

《혁명을 한다는 사람이 대낮에 고기그물을 메고다니는것도 한심하지만 이 추위에 얼어죽자고 강물속에서 해를 보낸단 말이요?》

《장군님, 혁명규률을 위반한건 잘못되였지만 아, 정숙동지랑 어리신 우리 장군이 오신다는데 가만있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군님께서 산에서 싸울 때 이제 나라가 해방되면 대동강의 숭어국을 푸짐하게 대접하겠다고 늘 말씀하시군 했는데 오늘같은 날에야 그 약속을 지켜야 할게 아닙니까.》

입술이 시퍼렇게 질려가지고도 능청스러운 말로 넘기려 하던 림춘추…

아, 그때의 그 고맙고도 격했던 심정이 지금도 때없이 온몸에 젖어들군 한다. 그런데 자신께서는 그의 가장 큰 마음속 아픔 하나 풀어주지 못하고있다. 그저 《영일》이라는 아들의 이름밖에 지어준것이 없다.

(영일아, 내가 너에게 죄를 짓는구나. 지금도 아버지를 부르고부르는 너의 그 목소리가 귀전에 쟁쟁하다만 난 아버지를 너에게로 보낼수가 없구나. 불러볼 아버지조차 없는 불쌍한 수많은 아이들이 저 동북땅에서 네 아버지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있단다. 네 아버지가 아니면 그들을 다 찾아낼수가 없구나. 날 용서해라. …)

×

그날 밤 림춘추는 잠들수가 없었다. 동북에 파견되여 사업할데 대한 그 임무가 얼마나 무겁고 중대한것인지를 몰라서가 아니였고 또 장군님께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자기를 보낼 결심을 내리셨는가를 몰라서도 아니였다.

장군님의 그 크나큰 믿음과 각별한 사랑이 가슴에 젖어들수록 맡은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은 굳어졌지만 그 사

업이 장군님곁을 멀리 떠나 진행되는것임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천근만근으로 무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것도 하루이틀, 한두달정도가 아니라 몇해를 두고 진행하여야 할 사업인것으로 하여 림춘추는 더욱 안타깝고 괴로왔다. 이렇게 훌쩍 장군님의 곁을 멀리 떠나버리고나면 수령의 위대한 혁명투쟁사를 력사의 갈피갈피에 새겨넣어야 할 그 성스러운 사업은 어찌한단 말인가. 더우기 정규군건설과 공화국창건과 같은 민족사적인 사변들이 바야흐로 도래하고있는 이 격동적인 시기에!…

일찌기 조양천의 잊지 못할 그밤부터 **김일성**동지에 의해 개척되고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력사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것을 민족이 자기에게 맡겨준 숭고한 사명으로 간직하고있는 림춘추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메꿀수 없는 손실이였으며 아쉬움이였다.

장군님께서 《림춘추동무는 당분간 평남도당사업을 다른 동무에게 인계하고 중국의 동만지방에로 들어가서 사업하여야 하겠소.》라고 말씀하실 때 림춘추의 머리속에 제일먼저 떠오른것이 바로 이것이였다.

그러나 장군님의 명령을 받은 전사가 어떻게 그 무슨 사정을 운운할수 있으랴. 림춘추는 장농속에 깊숙이 건사해두었던 배낭을 꺼내였다. 배낭아구리를 헤치고 하나둘 《비망록》수첩들을 꺼내노라니 물씬물씬 초목냄새가 풍겼다. 《비망록》수첩들가운데는 봇나무껍질로 만든것이 많았던것이다. 밀림속에서 종이 한장을 구한다는것은 식량이나 소금을 구하는것보다 더 어려웠다. 종종 종이가 떨어지면 봇나무껍질을 벗겨 대신하군 했는데 봇나무껍질이 매끈히 일게 하기 위하여 그 한쪽 모서리를 비비여 증기에 쪄냈다. 그러면 얇은 껍질이 한까풀씩 잘 떨어졌는데 그것들을 그늘에 말리워 수첩을 매서 썼던것이다. 남패자회의, 소할바령회의에서 하신 장군님의 력사적인 연설도 다 이 봇나무껍질수첩속에 기록되여있었다. 그는 그 수첩들에 자기식으로 창안한 독특한 속기법으로 깨알같이 글을 써놓았는데 그것으로 하여 내용의 구체적기록과 함께 비밀담보, 종이절약 등의 현실적인 난문제들이 적지 않게 해결되였다. 그자신이 아니고

는 《비망록》을 읽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비물이나 물속에서도 젖지 않게 봇나무껍질로 꼼꼼히 덧씌운 《비망록》들의 표지를 소중히 쓸어만졌다.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보물이 무엇이냐고 그 누가 묻는다면 림춘추는 서슴없이 이 봇나무껍질뚜껑의 수첩들을 내놓을것이였다. 그 수첩들에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주요회의들에서 하신 장군님의 연설들을 비롯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이 진행한 대소전투들과 갖가지 일화들이 기록되여있다. 누군가의 말처럼 빨찌산의 대백과사전이라고 할수 있었다. 림춘추는 《후ㅡ》 하고 길게 한숨을 내쉬였다. 과연 이 대백과사전이 세상에 빛을 보이게 될 날은 과연 언제일지. 자신의 온넋이 바쳐진,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이 일을 남겨두고 떠나자니 눈물이 나도록 서운했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아직까지 장군님의 혁명투쟁사 하나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또 이렇게 장군님의 곁을 멀리 떠난다는것을 먼저 간 동지들이 안다면 뭐라고 하겠는가. 경위련대 당서기시절 남만밀영에서 동만당 특위서기였던 위증민이 하던 말이 귀전에 울려왔다.

《항일무장대오에는 림춘추밖에는 조선의 현대력사를 쓸 사람이 없소. 동무는 젊고 문필능력과 지식도 있고 공부도 한 사람이니 전도가 유망하오. **김일성**동지가 지닌 위대한 풍모는 우리 중국혁명가들이 반드시 따라배워야 할 귀감이며 모범으로 되고있소. 림춘추, 무장대오에서 동무가 할 일은 여느 사람들과는 달라. 자네는 **김일성**동지의 혁명투쟁사를 력사앞에 남겨야 해!》

이것은 비단 중국혁명가 위증민의 당부만이 아니였다. 《3.1월간》주필이였던 대통령감 리동백이 양목정자밀영에 불의에 달려든 일제《토벌》대와의 전투에서 희생되면서 전우들에게 남긴 유언은 더 절절하였다.

《내가 죽고 자네들이 다 죽어도 림춘추만은 살아야 하네. 그가 죽으면 우리 사령관동지의 혁명력사와 조선빨찌산의 력사가 묻혀버리고말아. 내가 살아서 그가 하는 일을 끝까지 돕자고 했는데 이젠 글렀어. 그러니 자네들이 내 말을 명심해 듣고 림춘추를 아끼고 잘 건사해주게.》

하지만 그는 이미 오래전에 곁을 떠나갔다. 자신이 하고싶었고 또 자신이 해오던 그 일을 다름아닌 림춘추 혼자에게만 맡겨놓고 그리도 귀중히 보관해왔던 자료보따리들과 함께 육신마저 불속에서 종적도 없이 타버리고말았다.

림춘추는 《후—》 하고 다시한번 긴숨을 내쉬고나서 수첩들을 배낭속에 넣기 시작했다. 비록 더없이 안타깝고 마음이 괴로왔지만 장군님께서 걸머지신 그 무거운 부담을 뻔히 알면서도 한가지라도 그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의욕심이 자기를 다잡게 하였던것이다. 가자, 떠나자!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된바에는 한시라도 하루빨리 그곳 일을 결속하고 돌아오자.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조선인민혁명군대오안에 그 무슨 문필가, 력사가라는 직책이 있어 내 이 일을 해왔더냐. 아무런 직책상의무도 또 그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닌 내스스로 해온 일이 아니던가. 비록 나라가 해방은 되였지만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때처럼 살아야 한다. 그때처럼 일하고 그때처럼 써야 한다.

림춘추, 어서 배낭을 메라! 이 배낭을 메고 항일전의 그 나날처럼 우리 장군님의 건국로정을 따라가라! 붓으로써만이 아니라 피와 땀으로 혁명의 력사를 새겨가라!…

그는 배낭끈을 잡은 두손에 지그시 힘을 주었다.

8

이른새벽이다.

여느날보다 좀더 일찌기 부엌에 내려오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미리 준비해놓았던 음식감들을 손질하여 가마에 안치시였다. 밤새 삶아서 푹 무른 단고기국을 다시한번 끓여내고 감자장도 지져내시였다. 매운것을 싫어하는 림춘추의 식성에 맞춰 고추가루를 비롯한 자극성있는 조미료는 조금씩 넣으시였다.

장군님께서 림춘추가 떠나기에 앞서 아침식사를 같이하겠다고 하시여 이렇게 음식준비를 하고계시는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비록 크게 내색은 않으시지만 장군님께서 그를 동북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이 시각 얼마나 괴로와하시는가를 온몸으로 느끼고계시였다. 자신께서도 그와 이렇게 불쑥 헤여지게 되는것이 가슴이 아프도록 서운하시였다. 더구나 아직은 위험한 적구나 다름없는 그곳으로 그를 떠나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불안과 위구가 자꾸만 갈마드시였다.

그러나 보내야 했다. 혁명사업이 그것을 요구하고있었던것이다. 그래서 장군님께서도 마음속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내시고 그를 자신의 곁에서 멀리 떠나보낼 결심을 하신것이다.

장군님께서는 림춘추가 모든것을 다 리해하더라고, 오히려 해방된 새 조선의 력사를 곁에서 직접 기록해두지 못하게 된것을 아쉬워하더라고 말씀해주시였다. 그 말씀을 들으니 어쩐지 눈물이 핑 도시였다. 그것이 바로 자신께서 알고있는 인간 림춘추의 참모습이였다. 백지처럼 깨끗한 량심, 가식을 모르는 충성심, 변함이 없는 의리심…

아마도 그래서 더더욱 정이 가고 존경이 가는지 모르신다.

사실 김정숙동지께서는 림춘추와 오랜 인연을 맺고계시였다.

부암동의 야학방시절…

림춘추는 늘 가슴앓이로 고생하던 김정숙동지의 어머님병도 극진히 치료해주군 했는데 의원 한번 부르자면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것만큼이나 어려웠던 그 세월, 그 궁벽한 산골에 그와 같이 의술이 능하고 인정많은 젊은 의원이 나타난것은 정말 하늘이 굽어살핀 덕이라 해야 할것이였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였다.

1932년 7월 일제놈들의 악착한 《토벌》만행으로 사랑하는 어머님과 형님을 잃고 그해 마가을 사랑하는 오빠와 젖먹이 어린 조카와 리별하고 동생 기송이와 함께 유격구로 찾아가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산중에서 쫄라병으로 쓰러지시였다. 다행히도 그날 저물녘 장재촌유격구로 급한 걸음을 하던 림춘추가 어린 아이의 가냘픈 소리를 듣고 달려와 구원되였다. 후날에 알게 되셨지만 그가 달려왔을 때 자신께서는 이미 의식잃고 쓰러져있고 어린 동생 기송이가 새파랗게

얼어든채 간신히 울음소리만 내고있었다고 한다. 상태가 하도 위독한지라 림춘추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두 오누이를 산밑에 있는 농가에 번갈아 업어다놓고 구급치료를 하였다. 제때에 손을 쓴 덕에 다행히 위험고비를 넘길수 있었다. 인적없는 산속에서 생사기로의 갈림길을 헤매고있을 때 그가 그곳에 나타난것부터 은인이라 해야 할 것이였다.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준비하던 시기…

그때 하루식사공급량이 100그람짜리 빵 한개가 전부였는데 갓난애기도 단숨에 삼켜버릴 그 빵쪼각 하나를 세끼식사량으로 대치하고 한창나이의 청장년들이 그 높은 훈련강도를 이겨낸다는것은 실로 힘겨운 일이였다. 더우기 허우대가 남들보다 크다보니 일명《희샤쯔》(곰)로 불리우던 림춘추의 경우는 더 혹심한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차례지는 빵을 조금씩 남겼다가 김정숙동지에게 갖다드리군 하였다. 그 체격에 훈련에도 참가하고 정치강사로서 출연하느라 다른 사람들보다 곱절 시장기를 느끼련만 우리 어린 장군이 조금이라도 배를 곯아선 안된다며 그렇듯 극진한 지성을 기울이군 하였다. …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런 인연깊은 림춘추에게 자신의 성의를 다해주고싶어 온갖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하시였다.

《아, 춘추동무가 왔구만. 자, 어서 들어오오.》

정원에서 림춘추를 반겨맞으시는 장군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아마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계신 모양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얼른 부엌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가시였다. 인사를 나누고보니 그의 어깨에 낯익은 불룩한 배낭이 걸머져있는것이 눈에 뜨이시였다.

《아니, 그 배낭은 왜 예까지 메고오셨어요?》

림춘추가 배낭을 슬쩍 올려추며 빙그레 웃었다.

《장군님께 하직인사를 드리고는 곧장 떠나야겠는데 내 일생의 반려자인 이 배낭을 메고와야지 남에게 맡기겠습니까. 이 배낭만은 절대로 남에게 맡길수 없어 그럽니다.》

《하긴 동문 빨찌산때부터 원래 배낭신랑이였지.》

김일성동지께서 크게 웃으며 말씀하시자 김정숙동지도 한마디 덧붙이시였다.
《그 별명의 유래는 제가 잘 압니다.》
대부대선회작전시기 림춘추는 재봉대원들과 같이 행군하다가 그만 깊은 눈구뎅이에 빠졌다. 모두가 사색이 되여 배낭끈들을 모아 바줄을 만들어 내려보냈는데 먼저 올라온것은 사람이 아니라 배낭이였다. 온통 얼음투성이가 된 림춘추를 끌어올렸을 때 최희숙이 《배낭이 중해요? 사람이 중해요?》 하고 내쏘았는데 림춘추가 하는 말이 《이 배낭보다 중한 사람이 어디 있을라구…》하는것이였다.
《그러니 우리 동무들이 〈림춘추=배낭〉이라는 등식을 규정해놓은게 우연하질 않구만.》
《아 장군님, 이 배낭은 결코 이 림춘추 한사람의것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 배낭안의것을 쓰느라구 내가 써버린 장군님의 만년필과 연필, 종이는 얼마나 됩니까? 장군님께서는 만년필이나 연필 한자루가 생겨도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림춘추가 우정 볼부은 시늉을 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가 작별의 아픔을 애써 감추려고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승벽을 부린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계시였으므로 능청스럽게 화제를 이으시였다.
《그거야 내가 늘 회의기록을 동무에게 맡기군 했으니 그랬지. 그래서 회의때면 맨 앞자리에 앉혀주군 하지 않았소?!》
《글쎄 이랬든 저랬든 이 배낭속에는 장군님몫도 들어있습니다. 어디 그뿐인줄 압니까? 내가 종이와 연필때문에 쩔쩔맨다는걸 알구 정숙동진 신파장에서 많은 미농지와 연필을 세타스나 사다주질 않았습니까. 그러니 뭐 사실 이 배낭이 이렇게 불룩하게 된게 이 림춘추의탓만은 아니지요.》
《하하…》
《호호…》
신록이 짙어가는 정원의 느티나무잎새들이 두분의 웃음소리에 화답하듯 소리내여 설레였다.
《자, 어서 배낭이나 벗소. 가도 식사나 하고 가야지, 배낭을 메

고 밥을 먹겠소?》

김일성동지께서는 손수 그의 어깨에서 배낭을 벗겨내리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인차 그 배낭을 받아쥐시였다.

《그런데… 춘추동문 이 배낭을 장차 어떻게 할셈이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짐짓 의아스러운 어조로 물으시였다.

림춘추가 김정숙동지와 얼핏 눈길을 마주치며 싱긋 웃고는 펄쩍 놀라는 시늉을 했다.

《어떻게 하다니요? 조선혁명이 어떻게 승리해올수 있었는가 하는 력사를 후세에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조선혁명가들의 한결같은 념원이자 먼저 간 전우들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이 력사적과제를 수행 못하면 림춘추는 후세앞에 큰 죄를 짓게 될것입니다. 나야 총과 함께 붓을 들고 장군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츰 절절하고 진지해졌다.

《너무 어마어마하구만. 동무가 중국 동주시기 로나라의 공자가 쓴 력사책 〈춘추〉와 자기 이름이 꼭같은것이 우연치 않다고 선전하며 다닌다기에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정말 그럴만도 하구만.》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시금 웃으시였다.

《하여튼 조선혁명가들의 투쟁력사를 후세에 전하겠다는 동무의 결심에는 나도 기꺼이 공감이요.》

《정말입니까? 이젠 장군님의 승인까지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은 설사 죽을수 있겠지만 이 림춘추만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서 꼭 써야겠습니다.》

림춘추가 기쁨에 넘친 눈빛으로 김정숙동지를 바라보며 소리치듯 말했다.

《동무만은 살아야겠다? 허, 춘추동무가 언제 그런 극단한 리기주의자가 되였소? 혁명가라는 사람이…》

《어떤 감투를 씌운대도 난 꼭 살아야 하겠습니다. 대통령감이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한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하… 대통령감이 그런 한심한 소리를 유언으로 남겼는지는 모르겠소만 생에 대한 동무의 견해는 완전히 부르죠아적이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김일성**동지께서는 내심 그의 투철한 각오에 감복을 금치 못하시였다. …

그날 아침식사를 마치신 후 **김일성**동지께서는 림춘추에게 중국공산당을 도와 연변의 당 및 정권기관들의 사업을 잘하고 혁명의 핵심들을 많이 키울데 대하여, 동포들의 민족교육문화발전에 힘쓰며 후대교육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릴데 대하여 다시한번 강조하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사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동무를 굳이 동북땅에 서둘러 보내는것은 희생된 혁명렬사의 유가족들과 유자녀들을 모두 찾아 하루빨리 조국으로 데려와야 하겠기때문이요. 우린 그들의 행처와 생사여부도 알지 못하고있소. 혁명렬사들은 동지들의 품에 안겨 숨지면서도 이국땅에 홀로 남기고 가는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며 눈을 감지 못하였고 우리에게 조국이 해방되면 꼭 자기 자식들을 찾아서 공부를 시켜달라고 부탁하였지. 나는 간고한 싸움의 나날 어느 한순간도 그들이 남기고간 부탁을 잊어본적이 없소. 그러니 이번에 가면 희생된 혁명렬사들의 유가족들과 유자녀들을 모두 찾아 조국에 내보내주오. 이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춘추동무이기에 내 이렇게 동무를 서슴없이 멀리 떠나보내는거요.》

《장군님!…》

림춘추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말을 이으면 이 석별의 마당에서 보이지 말아야 할것을 보이게 될것만 같아 머리를 수그리고 말았다.

그러는 그의 손을 김정숙동지께서 꼭 잡아주시였다.

《춘추동지, 그들을 하늘땅끝에 가서라도 꼭 찾아주세요.》

김정숙동지의 눈빛에는 간절한 기대와 절절한 념원이 한껏 어려있었다.

림춘추는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앞에는 밤새 베껴놓은 가지색수첩의 글줄들이 살아움직이고있었다.

《장군님! 정숙동지! 마음놓으십시오. 그 뜻을, 그 심정을 제 꼭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숙동지의 수첩이 많은 도움을 줄겁니다.》

《춘추동무!》
김일성동지께서 그의 어깨를 꽈악 잡으시였다.
《저… 이제 오래동안 집을 떠나있게 되겠는데 그사이 애로로 제기될것은 없겠습니까?》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엇인가 더 한가지라도 그를 위해주고싶으시였다.
《없습니다. 저… 한가지…》
《어서 말씀하세요.》
《저… 혹시 친척들이 어데 있는지 알만 한데가 없습니까? 제 이번길에 정숙동지의 일가친척들을 찾아볼가 해서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서는 그렇게 마음쓰면서도 여직껏 단 한번도 내색조차 없으시니…》
《…》
아, 그 웅심깊은 마음…
예이제 조금도 다름이 없는 림춘추의 마음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눈길을 돌리시였다. 창문너머 멀리 북쪽하늘가를 깊은 생각에 잠겨 말없이 바라보시였다.
오빠마저 희생된 후 그 행처조차 알길없는 어린 조카…
배고파 우는 그 어린것을 업고 동냥젖을 구하러 다니던 부암동의 그 거치른 들길… 살아있다면 그리고 찾을수만 있다면 그 애도 함께 장군님 세워주시는 학원에서 공부시키련만… 그러면 형님이나 오빠의 령혼이 늦게나마 안식을 찾을수 있으리라.
그러나…
《정숙동무…》
갈리신 장군님의 음성이 나직이 울려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이를 우러러보시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그 란리통에 흩어진 일가친척들을 이제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림동지의 마음은 고맙지만 그런 사사로운 일때문에 장군님께서 맡겨주신 임무수행에 지장을 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림춘추의 눈가에는 끝내 맑은것이 고이고말았다. 정녕 이것이

자신을 위해 하시는 녀사의 부탁이란 말인가. … 뜨거운것이 자꾸만 치밀어올라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다만 한없이 고결한 김정숙동지의 모습만을 뚫어지게 마주하였다.

(장군님! 제 언제나 김정숙동지의 저 맑은 눈빛앞에 부끄럼없이 다시 설수 있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꼭 승리의 보고를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림춘추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

9

(손종준의 일지중에서)

1947년 7월 2일

영광스럽게도 **김일성**장군님의 사업을 직접 보좌해드리는 책임부관으로 다시 일하게 되였다. 그 첫 사업으로 장군님을 모시고 간리에 있는 학원림시교사작업장에 나갔다.

간리는 평양에서 서북쪽으로 약 30리가량 떨어져있는 주변농촌마을이다. 리조 말기 이곳에는 새골(동로골과 강촌사이에 있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후 새골(사이골)을 한자로 옮겨 부르다나니 간리가 되고말았다. 비교적 발달된 교통망을 끼고있어 이곳의 그리 높지 않은 야산지대들에는 보안간부훈련소 제3소산하의 중대병영들이 배치되여있었는데 학원림시교사는 그중 공지가 크고 안침한 곳의 병영건물을 따로 내여 꾸리였다.

장군님께서는 세멘트가루가 뽀얗게 날리고 벽돌장들과 몰탈무지들이 사방 널려있어 발디딜 자리조차 변변치 않은 험한 작업장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면서 아이들이 림시로 생활할 곳이라고 하여 공사를 날림식으로 하지 말고 그들이 학습과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침실, 식당을 꾸리는 사업을 비롯하여 혁명가유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루빨리 끝낼데 대하여 거듭 강

조하시고 간리를 떠나시였다.

1947년 7월 6일

오전에 장군님을 모시고 만경대의 학원건설장에 나갔다.

김정숙동지와 어리신 우리 장군도 함께 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창 지대정리를 하고있는 작업장을 둘러보시며 학원터전을 잡아놓고 건설사업에 착수한것을 보니 학원청사를 빨리 지어 유자녀들을 공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욱더 간절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그 모습을 우러러보노라니 희생된 동지들을 한시도 잊지 못해하시는 그 고결한 의리심에 깊이 머리숙어짐을 어쩔수 없다.

1947년 7월 22일

점심무렵에 문석오라는 조각가가 저택에 찾아왔다. 김정숙동지를 만나뵙자고 왔다고 하였다. 그분께서 간리에 있는 학원림시교사건설장에 나가셨다는 말을 듣고는 《전번에 왔을 때도 학원건설장에 나가시여 만나뵙지 못했는데 녀사님께서는 늘 학원에 나가살다싶이 하시는군요.》하며 무척 놀라와하였다. 무엇때문에 찾아왔는가고 물으니 그는 무슨 사연인지 선뜻 말을 떼지 못하고 갑자르기만 하더니 종시 후날 다시 보겠다며 돌아갔다. 아마 말 못할 그 어떤 소원이 있는것 같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저녁무렵에야 돌아오시였다. 로동자들과 함께 벽돌을 나르고 세멘트몰탈을 이기며 내부미장작업을 도와주셨다는데 그이의 옷자락에는 그때까지 벽돌가루며 세멘트혼합물이 묻어있었다. **김일성**장군님의 걱정을 하루빨리 덜어드리시려는 김정숙동지의 그 불같은 마음을 과연 그 어느 누가 따를수 있으랴.

1947년 7월 25일

자정이 훨씬 지났으나 장군님의 집무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있다.

김책동지와 교육국의 남일부국장이 집무실에 들어간지도 1시간이 지났다. 또 혁명학원문제때문이다.

장군님께서 부르시여 방에 들어가니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종준동무가 그 동무와 같이 사업해보았으니 그에 대해 잘 알것》이라고 하시며 그의 성격에 대해 물으시였다.

사업에서 책임성과 요구성은 높은데 성격이 좀 거칠고 세심하지 못한것 같다고 말씀올리자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생각도 그렇다고 하시며 《남일동무, 보시오. 내 혼자의 견해만이 아니란 말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교육사업을 해본적도 없소. 학원원장으로는 적합치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학원원장으로는 혁명투쟁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교육사업경험이 있고 유자녀들을 친부모처럼 잘 돌봐줄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김책동지에게 강원도 교육부장이였던 리종익이란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도 더 알아보겠다고 하시며 우선 학원림시교사가 기본적으로 다 꾸려진 조건에서 지체하지 말고 유자녀들을 불러 그들의 생활부터 안착시켜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정말이지 장군님의 모든 관심은 온통 유자녀들에게만 가있는것 같다.

10

그리 크지 않은 사무실이였건만 오늘은 별로 휑뎅그렁해보였다.

창밖에서는 한여름의 따가운 해별이 가로수들의 잎사귀와 길손들의 잔등은 물론 건물들의 두터운 벽체까지 열기를 내뿜을 정도로 달구어놓았으나 이 방안만은 어깨가 으쓸할 정도로 썰렁했다.

《자, 그럼… 사업인계를 다 끝냈으니 난 그만… 가보겠네.》

리종익은 마주서있는 도교육부의 젊은 부부장에게 이렇게 말하고나서 옷걸이옆에 세워두었던 단장을 집어들었다.

《저 부장선생님, 원산에 내려왔던 김책부위원장동지가 래일 우리 도인민위원회에 오신다는데 한번 만나보질 않겠습니까? 그분이라면 선생님문제를…》

젊은 부부장은 리종익의 얼굴을 측은하게 바라보며 진심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럴 필요는 없네. 난 이미 환갑이 훨씬 지났어. 이렇게 되기 썩전에 스스로 물러났어야지. 오죽했으면 권고사직을 시켰겠나.》

리종익은 안경을 한번 눌러붙이고나서 출입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새로 사업을 인계받은 젊은 부부장이 연회색쎄루양복차림에 까만 단장을 짚고 아직도 꼿꼿한 자세로 단정하게 걸음을 옮기는 그를 머리숙여 바래웠다.

조용히 청사를 나선 리종익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어디로 갈것인가를 생각해보았다. 집으로밖에는 특별히 갈 곳도 또 가야 할 필요도 없었다. 여느날의 이 시간 같으면 주변의 학교들에 나가 교수참관도 하고 학생들의 학습장을 펼쳐보며 장난꾸러기들의 능금알같은 두볼을 다독여보련만 이제는 인생의 가장 행복스러운 그런 순간을 맛볼수 없게 되였다. 불시에 마음이 쓸쓸해졌다. 아니, 서글퍼졌다.

사업을 인계하고 사무실을 나설 때에 말은 비록 그렇게 하였지만 정작 학생들과 다시는 상종할수 없는 자기의 처지를 감수하자니 허무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입귀사이로 찝찔한것이 스며들었다. 그제서야 그는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서둘러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고나서 장덕섬이 바라보이는 바다가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잔잔한 파도가 기슭의 작은 바위들을 어루쓸며 밀려왔다가는 밀려가고 또 밀려왔다가는 밀려간다. 장쾌하게 기슭을 치던 그 기상은 어디에 가고 쇠잔한 물결만이 저 작은 바위들을 애써 부여잡으려 하는지…

리종익에게는 어쩐지 파도의 그 형상이 자꾸만 자기의 모습처럼 느껴졌다.

그에게도 격랑을 일으키며 길길이 치솟아 하늘을 휘감아가지고는 천야만야 창창 부서져내리는 거세찬 파도와 같이 무서운것 없고 주저할것 없고 후회할것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강원도 양양에서 시골유생의 장손으로 태여난 그는 청년시절에 애국문화운동에 공감하여 사립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었는데 일제에 의한 《을사5조약》의 날조로 온 나라에 《시일야방성대곡》의

메아리가 울려퍼진 그 이듬해 당시 남포에서 교편을 잡고 반일애국사상을 고취하고있던 열혈청년 안중근을 알게 되였다.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놓고 애국의 더운 피를 끓이던 리종익은 그후 안중근을 따라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를 처단하는 길에 주저없이 나섰다. 새각시의 머리를 얹어준지 얼마 안되는 그 손에 한자루의 권총을 틀어쥐고 대문가에서 눈물짓는 안해의 얼굴도 뒤돌아봄이 없이 오직 조선독립의 부푸는 희망을 안고 만주광야로 달려갔던 그 길…

그러나 그 길은 쉽게 떠날수는 있었어도 쉽게 돌아올수는 없는 길이였다. 애국렬사 안중근의 총탄에 맞고 이또 히로부미는 할빈역두에서 죽었으나 조선의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애국지사가 흘린 더운 피를 헛되이하지 말자고 리종익은 독립운동에 몸바쳐 나섰다. 김구를 도와 독립군사관학교도 세워보았고 독립군자녀들을 위해 세웠던 상해 인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림정의 후비양성에도 힘써보았으며 한때는 림정 문교부차장으로 뛰여다니기도 하였다. 그가 상해 림정과 손을 끊은것은 김구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테로활동에 자기가 키워내는 학생들을 돌격대로 써먹으려 하기때문이였다.

일제를 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둥이 되여야 할 청년들을 어찌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제 민족성원 살해에로 내몰겠는가.

《백범, 난 조선독립을 위해 교육을 해왔지 테로분자들을 키우기 위해 교육을 해오진 않았소.》

의기에 넘친 리종익의 말을 들으면서도 김구는 그 두툼한 입술을 꾹 다문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8.15해방을 맞으며 김구를 따라 서울로 간것이 아니라 고향 강원도로 온것은 바로 이런 연원에서였다.

근 35년만에 돌아온 귀향길…

옛집의 이끼덮인 청기와며 《찌그덩-》소리를 내는 대문도 별로 달라진것이 없는데 문설주를 부여잡고 소리없이 흐느끼는 백발의 녀인은 누구인가. 정녕 이 녀인이 륙혈포를 차고 떠나던 그날 이 대문가에 서서 가리마 곱게 탄 검은 머리를 숙이고 그리도 슬피울던 안해란 말인가. …

그가 다름아닌 자기의 안해 김종명이였다. 시부모들을 선산에 묻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알길 없는 남편을 기다려 자식도 없이 수십년간을 수절해온 안해였다.

자기의 흰머리는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타향살이가 얹어준것이라 하겠지만 안해의 백발은 기다리고기다림에 지친 그리움과 애정의 재가 뿌려진것이였다.

리종익은 처음으로 자기가 안해앞에, 조상들앞에 죄를 지었음을 뼈저리게 의식하였다. 안해에게는 어머니가 될 행복한 권리를 빼앗았고 조상들에게는 가문의 대를 이을 장손의 피줄을 끊어놓은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죄의식은 들었을망정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와 허무는 없었다. 그는 원산으로 집을 옮겨앉고 도교육부장사업을 맡게 되였다.

해방된 제 나라, 제땅에서 제 나라의 말과 글을 배워주며 새 조선의 밝은 미래를 자래운다는 긍지와 자부…

바로 이것을 위해 애국렬사 안중근이 그렇게 목숨을 바친것 아니였던가. 그는 줄창 학교들에 나가살다싶이 하였다.

어쩐지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자기 살붙이처럼 느껴졌고 온몸에 가득가득 차있는 그 정, 친자식에게 부어줄수 없었던 그 혈육의 정을 아이들에게 깡그리 다 부어주고싶었다. 교수참관을 나갔다가도 땀내를 풍기는 아이들만 있으면 휴식시간에 손목을 끌고 우물에 데리고 나가 신발을 푹 적시면서 머리를 감겨주군 하였다. 학교들에 자주 나가다보니 도내교육실태와 걸린 문제들도 속속들이 알게 되고 교원, 학생들과도 《부장할아버지!》라고 허물없이 따를 정도로 가까와졌다. 이러했던 그의 생활이, 흰 갈기를 쳐들고 기세있게 기슭을 치는 파도와도 같던 그의 생활이 흐름을 멈추게 된것이다.

《이 강원도에 그렇게도 사람이 없소? 동무들은 그가 안중근이와 이등박문을 죽이러도 함께 갔댔다, 상해림정에서 독립투쟁도 했다며 그 무슨 대단한 인물이나 되는것처럼 생각하는것 같은데 그래, 그게 도대체 어쨌단 말이요? 조선의 해방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한거란 말이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나라의 정사를 틀어쥔 이 땅에서 그런 골동품같은 케케묵은 령감을 도교육부장자리에 앉힌다는게

말이 되는가. 그리구 도교육부장이란 사람이 제자리에 앉아있을 생각은 안하구 시골훈장처럼 학교들에 내려가 참녜질이나 하구 또 코흘리개들의 머리나 빨아주고있다니 어떻게 교권이 보장되고 프로레타리아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겠는가. …》

지도검열사업차로 내려왔다는 당조직부장 허가이라는 사람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도인민위원장의 방을 넘어 청사복도를 사이에 두고 바투 붙어있는 모든 사무실들에 울려왔다. 그날로 리종익은 허가이 조직부장의 호출을 받았다.

그가 위원장방에 들어서자 조직부장이 쏘파에서 일어서며 다가와 례절있게 자리를 권했다.

예상밖의 친절이여서 주춤하지 않을수 없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이 방에 들어선 그였으나 반겨맞는 사람의 웃는 얼굴에다 선전포고를 할수는 없었다.

《년세도 적지 않은데 힘들지 않습니까?》

허가이가 손님접대용으로 가져다놓은듯싶은 과일물을 고뿌에 따라 그에게 권하며 묻는 말이였다. 그 어투는 물음의 형식을 띠고있었으나 어조는 그것을 기정사실화한것이였다.

《내 도의 책임일군들을 좀 호되게 비판했습니다. 나이많은분에게 큰 부담을 맡겨놓고 혹사시킨다고 말입니다. 해방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데 이젠 시름놓고 푹 쉬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하였고 진심의 걱정인듯싶었다.

리종익은 과일물고뿌를 위원장책상우에 내려놓고나서 나직이 물었다.

《권고사직인가요?》

《예?》

《이런 경우를 두고 그렇게 말하지요.》

《원, 무슨 말씀을…》

허가이가 그를 보며 소리없이 웃었다.

《조직부장선생의 그 념려의 말씀을 들으니 내 왜 좀더 일찌기 스스로 사직을 청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가 듭니다. 아마 로망인가 봅니다.》

《…》

리종익은 이 사람과는 조용히 물러서는게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했다. 속을 감출줄 아는 이런 사람과 시비를 가른댔자 아무것도 해결될수 없음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그럼 우리 부부장동무에게 사업인계를 하겠으니 거기선 더 마음쓰지 마시우.》

리종익은 한손을 들어 안경을 꾹 눌러붙이고나서 방문을 열고 나섰다. 또 그렇게 호기있는 자세로 자기 사무실도 나섰다. 그러나…

바다기슭의 그 작은 바위돌마저 간신히 부여잡는 저 잔약한 파도, 그 거세차던 기상과 기개는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

과연 이대로 두 백발만 날리는 괴괴한 집안에서 서로의 주름살이나 세고있어야 한단 말인가. 아, 내 인생에 자식이 없는것이 한이로구나! …

이제 집안에 들어앉으면 사랑스런 아이들의 두볼을 매만질 때마다 온몸을 짜릿하게 만들던 그 애정을 어이 느껴보랴. 문득 김책부위원장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하던 젊은 부부장의 말이 생각키웠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설사 위로는 받는다쳐도 그 이상의것을 받을수는 없을것이기때문이였다. 아닌게아니라 일을 더 많이 할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일군의 자리에 앉는것이 정상적인것이고 정당한것이 아닌가. 지금의 이 처지, 이 나이에 그를 만나 이야기한댔자 그 역시 속으로는 망녕든 로인치부를 할것이다. 락광은 어둠에 묻히기마련이고 락엽은 땅에 묻히기마련이 아닌가! … 이 자연의 섭리에서 벗어날 인생이 과연 있을가? …

리종익은 천천히 단장을 옮겨짚으며 스적스적 집으로 향하였다.

11

산에는 들길이 있고 바다에는 배길이 있고 하늘에는 달과 별의 길이 있는것처럼 춘희에게도 자기의 길이 있었다. 그것은 님의 품에 안기는 길이였다. 만일 님의 품에 안기지 못했더라면 그는 분명 죽음의 품에 안기고말았을것이다. 왜냐하면 민족의 죄인집안의 오명을 쓰

고 인간세상의 적의속에서 살아간다는것은 죽음의 길보다 더 험하고 더 괴로운것이였기때문이다. 그러나 님은 그를 죽음의 길로 보내지 않았다. 님의 침묵은 드디여 사랑과 희망, 행복의 노래를 터쳤다. 결코 그 님은 춘희가 눈물속에 소원하던 인간의 아름다움, 진실, 그 어떤 정의로움만이 아니였다. 그 님은 황막한 초원과 같이 고뇌와 번민으로 마르고 탄 그의 가슴에 희망과 활기, 아름다움의 꽃을 다시 피워준 인생의 생명수였고 차디찬 동토대와 같이 불행과 슬픔으로 두텁게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에 행복과 기쁨, 사랑의 봄을 안겨준 인생의 해빛이였다.

춘희는 울었다.

다른 모든것은 불문에 붙이고 아버지가 총을 들고 왜놈들과 싸웠다는 그 한가지 리유만으로도 응당 그의 자식들을 나라에서 맡아키워야 한다고 하셨다는 **김일성**장군님!

《사실 안길동지는 동무의 아버지가 자기가 보낸 파견원을 잡아가두고 끝내는 희생되게 한데 대하여 격분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김일성**장군님의 말씀을 받들고 저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차영진의 말을 들으며 춘희는 백산이를 그러안고 눈물을 터뜨렸다. 차영진이앞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오래오래 울었다.

욕되게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저주해온 자신이 죄스러워 울었다. 아니, 그보다도 불미스러운 아버지의 과거를 애국으로 값높이 내세워주신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숙녀사의 그 은정이 고마와 울고 또 울었다.

《춘희선생, 난 사연전말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압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선생과 동생을 애국렬사의 유자녀로 알고 계신다는것, 그이께서 백산이를 혁명학원의 학생으로 불러주시였고 그래서 내가 걸음을 했다는것을 압니다. 그러니 지난날의 마음고생을 다 잊고 이제부터는 세상에 머릴 들고 아니, 세상에 소리치며 살게 될겁니다. 안길동지는 나를 떠나보내면서 **김일성**장군님께서 백산이를 혁명학원에서 공부시키자고 말씀하셨다는것을 전해주라고 두번세번 당부했답니다.》

백산이의 방랑생활로 하여 맺어진 자기와의 인연을 돌이켜보는듯 차영진은 소리내여 웃었다. 그날의 그 웃음소리…

그러고보면 차영진은 춘희에게 있어서 반가운 소식만을 안고온 님의 길의 안내자였다.

그 름름하고 진정넘친 고마운 사람의 모습이 어제일이런듯 삼삼한데 오늘은 벌써 백산이를 평양으로 떠나보내게 되였다.

《누나, 이젠 누나속을 썩이는 일이 없을거야. 나한테 꼭 편지를 해야 해.》

백산이는 그저 좋아서 어쩔줄을 모른다. 자기가 받아안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것인가를 비록 아직은 다 알수 없고 자기의 앞길이 얼마나 값비싸게 열려진것인가는 더더욱 알수 없는 나어린 소년이였지만 단 한가지 이제는 자기도 남들처럼 떳떳이 머리를 쳐들고 살수 있게 되였다는 그것으로 하여 그의 마음은 마냥 구름을 타고 푸른 하늘로 훨훨 날으고있었다. 너무도 일찌기 어린 가슴에 마을아이들과 이웃들의 차디찬 시선, 랭혹한 손가락질이 못처럼 아프게 박혔던 백산이가 아니였던가.

자기를 내놓고는 백산이를 동정해주는이도, 보살펴주는이도 없었다. 오히려 문둥병환자를 보듯 그를 피하였고 성미급한 큰 애들은 우정 트집을 걸어 뭇매를 안겼으며 어른들은 곁을 지나가면서도 말릴 생각을 안했다. 그의 성격은 이지러졌다. 그래서 보금자리를 뛰쳐나왔고 그것으로 세상에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하려 했던것이다. 그 방랑의 길이 비록 배고프고 춥고 고생스럽긴 하였지만 거기에는 서러움과 차별은 없었다. 그들의 세계에서 과거는 일체 불문시되고있었으며 오직 방랑아라는 그 하나의 현재만이 존재할뿐이였다. 방랑아들에게는 뭇사람들의 동정이 있었으며 아이들 호상간에도 나름대로의 보살핌과 의협심이 있었다. 만일 그때 평양역의 조차장다리밑에서 차영진에게 손목을 붙들리우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도 방랑생활을 그냥 하고있었을는지도 몰랐다.

오늘 백산은 또다시 집을 떠나게 된다. 물론 그것은 어제날과 같이 정처없는 방랑의 길로 뛰쳐나가는것이 아니였다. 차영진삼촌(백산은 그렇게 불렀다.)이 말하던 그 학원으로 떠나는것이다. 춘희는 단순히 학원으로 가는것이 아니라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숙어머님의 품으로 간다고 벌써 몇번이나 곱씹어 외운다.

《알았어, 누나. 나도 다 안다니까.》
《어쩐지 걱정되는구나. 방랑생활속에서 붙은 너의 그 나쁜 습관들이…》
사실 춘희의 걱정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선입견 많고 거친 백산이의 성격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였던가. 물론 모르고, 오직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그랬었다고는 하지만 김정숙녀사의 배낭을 훔치는것같은 그런 끔찍한 일을 또다시 저지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이후에는 아직 그런 행동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하긴 어이 알랴. 눈에 뜨이지만 않았을뿐인지.) 드문드문 큰 애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일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있었다. 욕도 해보았고 매질도 해보았고 하소연도 해보았다. 그래도 그는 그 말을 귀등으로 흘렸다.
속이 탈대로 탄 춘희는 어느날인가 뒤뜰에서 담배질을 하는 백산이를 붙들고 울었다.
《누난 별걸 다 신경쓰면서 그래. 누나보구 담배 사달라는것도 아닌데.》
백산이가 꽁초를 발로 마구 비비며 감때사납게 말했다.
《아버지 아니, 어머니가 이걸 보았다면 날더러 뭐라 하겠니. 누나가 하나 있다는게 구실을 못해…》
《흥, 아버지? 아버지소린 하지두 말라요.》
그때 백산이는 매몰스럽게 춘희의 말을 꺾더니 붙어잡은 두팔을 뿌리치고 뜨락을 뛰쳐나갔다.
아마 교육자에게 있어서 제일 어렵고 힘든 교육대상은 다름아닌 제혈붙이인것 같았다. 그 당시에는 좀 나아지는듯싶다가도 얼마 안있으면 또 도루메기가 되군 했다. 백산이의 곁에서 매일같이 신칙을 할수 있었으면 한결 마음이 놓이련만…
《백산아, 절대로 두번다시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해서는 안된다. 부탁이다.》
춘희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절절하게 당부하였다.
《자, 다들 렬차에 오르시오.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함경북도 애국투사후원회에서 나온 일군이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제 그가 스무명가량되는 도안의 학원입학대상자들을 데리고 평양

으로 떠나간다고 한다. 떠나는 아이들과 바래주는 사람들의 석별의 정이 역구내에 가득 차넘쳤다.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인듯싶은 로인들, 마을사람들, 도와 군의 애국투사후원회일군들이 그들을 바래주었다.

《백산아! 잘 가거라. 잘… 가.》

춘희는 목이 꽉 메여왔다. 눈앞이 뿌예왔다.

《누나!…》

백산이의 두눈에도 핑그르 눈물이 고였다.

비록 누나라고 불러왔지만 사실 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와 다름없는 이 세상 단 하나의 혈육이였던것이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남겨두고 떠나간다고 생각하니 백산이는 어쩐지 마음이 쓸쓸해졌다. 지금껏 누나의 속을 태워온 자기자신에 대한 죄스러움이 난생처음으로 갈마들었다.

용서를 빌고싶었으나 렬차는 벌써 떠났다. 눈물을 흘리며 손저어 바래주는 누나의 모습을 멀리, 저 멀리에 남겨놓고 렬차는 빨리, 더 빨리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다.

평양으로! 평양으로!…

12

(손종준의 일지중에서)

1947년 8월 3일

오늘 일은 너무 가슴이 아파 쓰고싶지 않다. 그러나 써야 한다. 언제인가는 세상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겠기에…

나는 오늘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또다시 학원 림시교사로 떠났다.

김정숙동지와 어리신 우리 장군을 모시고 지금껏 댁에서 같이 살다가 학원에 입학하게 된 순옥이와 동일이, 봉호까지 섞인 일행이였다. 순옥이네들은 차에 올라 좋아서 어쩔줄 몰라했다.

《저 애들이 기뻐하는걸 보니 나도 좋아야겠는데 왜서인지 섭섭하

군요.》
김정숙동지께서 조용히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이시였다.
예로부터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고 그동안 정이 들대로 들었던 그 애들을 자신의 품에서 훌쩍 내놓는것이 서운하시여 며칠동안 밥맛까지 다 잃었던 김정숙동지이시였다. 그런데 철없는 애들은 학원에 간다고 그저 좋아라 웃고 떠들어댄다. 그 애들에게 있어서 학원은 동화세계속의 신기한 곳이 아닐수 없었던것이다.
승용차들이 철길을 넘어 야산굽이를 돌아서니 벌써 학원 림시교사의 정문이 안겨왔다. 언뜻언뜻 운동장 여기저기에서 놀고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비껴들었다.
《정문앞에서 차를 세우시오.》
김일성동지께서 운전사에게 나직이 이르시였다.
승용차는 정문앞에서 서둘러 멈춰섰다. 불쑥 나타난 승용차들에 호기심을 품은 아이들이 놀음을 멈추고 모두 정문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빵빵—》
운전사가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그들이 민망스러워 다급히 경적을 울렸다.
《그러지 말아요. 아이들이 더 놀라겠어요.》
김정숙동지께서 황급히 운전사를 만류하시였다.
마침 정문쪽으로 누군가가 바삐 달려왔다. 나는 한걸음 앞서 그에게 마주 다가갔다. 신분을 확인해보니 교무부원장 윤흥섭이란 사람이였다. 나는 그에게 장군님과 김정숙동지께서 오시였음을 얼른 귀띔해주었다.
《수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싶어 왔습니다.》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교무부원장은 《장군님께서 이렇게 뜻밖에 오실줄은… 미리 알려주셨더라면…》하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여기야 우리 아이들이 사는 곳인데 내가 제집에 오면서 기별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정숙동지께서 곁에서 운동장의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

였다.

《원래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들이 집에 오는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 마음이 먼저 안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가 부모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가 봅니다.》

《그 말이 옳소.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낯을 익히려고 찾아온게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운동장에 눈길을 주시며 조용히 물으시였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적은데 저 애들이 전붑니까?》

《예, 더러 숙소안에도 있는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방곡곡에서 막 학원으로 모여들고있습니다. 후원회에서 받은 명단에 의하면 몇백명이 잘되는데…》

교무부원장은 웬일인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운동장쪽으로 불안한 눈길을 보냈다.

《참, 배치되여온 선생들도 더러 있다는데 왜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일요일이여서 선생들과 시내에 친척집이 있는 애들은 외출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길이 자꾸만 장군님가까이로 주섬주섬 다가들고있는 아이들에게로 쏠리였다.

그의 눈길을 쫓는 순간 나는 부원장이 왜 더 말을 이을수 없었는지 직감하였다.

일여덟명가량 되는 아이들모두가 헌 베잠뱅이와 몽당치마에 신총마저 다 모지라진 짚신을 신고있었던것이다. 그러니 이 아이들은 시내에 친척집이 없기도 하였지만 자기들의 그 람루한 옷주제가 창피스러워 교사구내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그리고 저렇게 부끄러워 선뜻 다가오지 못하고 눈치만 보며 바재이고 서있는것이였다. 유리쪼각같은것이 사정없이 내 가슴을 찢는듯싶었다.

김정숙동지의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고여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억이 막히신듯 차마 그 애들을 마주 바라보지 못하시였다.

그 순간이 너무 숨가빠 나는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달려갔다.

《얘들아, 너희들 **김일성**장군님을 모르니? 장군님께서 너희들이

보고싶어 이렇게 오셨는데 못난이들같이 인사를 드릴줄도 몰라?》
그땐 나도 왜 그 애들에게 성이 나서 소리쳤는지 모르겠다. 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아픔의 그 순간을 빨리 깨버리고싶었다.
아이들의 눈동자가 커졌다. 몸들이 움찔움찔했다.
그러더니 삽시에 와— 하고 달려오기 시작했다.
장군님께서 그 애들에게로 황급히 마주가시였다.
그런데… 그런데 맨앞에서 달려오던 큰 애가 서너걸음앞에서 주춤 서버렸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멈칫하더니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몸을 움츠렸다. 아마 자신들의 옷주제가 또다시 생각키웠던 모양이다.
장군님께서는 그만 두팔을 벌리신채 그 자리에 굳어지시였다.
나에겐 그 순간이 천년맞잡이로 생각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눈물을 훔치시며 아이들에게 다가가시지 않았더라면 장군님께서는 아마 영원히 그렇게 서계시였으리라.
《얘들아, 어서, 어서 오너라!》
김정숙동지께서는 머밋머밋 뒤걸음치는 아이들에게로 다가가시며 갈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 너희들이 보고싶어 오신거란다. 너희들이 헌옷을 입었다고 부끄러워하는데 장군님께선… 너희들이 그런 옷을 입었다고 탓하시지 않으셔. 못 입고 못산것이 어찌 너희들의탓이겠니? 그건 혁명가였던 아버지, 어머니를 원쑤들에게 빼앗겼기때문이야. 그래서, 그래서 **김일성**장군님께서 희생된 너희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찾아오신거란다.》
아이들속에서 흑 흑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곧 엉엉 울음소리로 터졌다.
예닐곱살정도 나보이는 제일 나어린 꼬맹이가 큰 애들사이를 비집고 《아… 버…지…》 하고 소리내여 울며 장군님께로 다가왔다.
장군님께서는 와락 그 애를 품에 안으시였다.
다음순간 《장군님!—》, 《아버지!—》하며 막혔던 물목이라도 터진듯 다른 아이들도 어푸라지듯 달려왔다. 너도나도 장군님의 품에 안겨들었다. 아이들의 어깨성에 에워싸인 장군님품에 미처 안기지 못한 애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울먹였다.

《아버지!…》

《아버지!—》

고생살이에 치우고 인정에 주렸던 아이들이 정녕 **김일성**장군님을 자기들의 친아버지로 스스럼없이 믿어버린것이다.

그 애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느라 김정숙동지의 손수건은 물론 저고리고름까지도 푹 젖어버렸다.

《얘들아, 울지들 말어라. 이렇게 자꾸 울기만 하겠니?》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달래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고아가 아니다. 장군님께서 너희들을 보살펴주고계신단다. **김일성**장군님은 너희들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희들의 어머니가 되련다. 그래 너희들 생각엔 어떻니? 그러면 좋겠니?》

《예, 좋아요!》

《좋습니다!》

아이들이 합창이나 하듯 웨쳤다. 언제 저들의 옷차림을 놓고 부끄러워하고 언제 눈물을 흘렸던가싶게 그들은 곧 장군님과 녀사의 옷자락속에 밀치고 당기며 묻어들었고 키득키득 웃기까지 했다.

《애들은 역시 애들입니다, 허허…》

윤흥섭부원장이 그 애들의 철없는 모습에 혀를 차며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들었다.

《부원장선생, 그러지 마세요. 자기 부모앞에서 부끄러울게 뭐가 있고 주접이 들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이 아이들의 얼굴에서 설음과 슬픔의 눈물을 다시는 영영 보지 말아야 해요.》

《장군님, 사무실로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늘 여느때없이 큰 충격을 안으신 장군님께서 잠시라도 안정하시게 하고싶어 이렇게 청을 드렸다.

부원장도 그제서야 제 본분을 깨달은듯 장군님을 안내해드리려고 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였다.

《우리 아이들의 저 모습을 보고서야 내 어떻게 순간인들 자리에 앉아있을수가 있겠소. 먼저 아이들이 생활하는 침실부터 가봅시다.》

그이께서는 누가 만류할 사이도 없이 성큼성큼 앞장서 걸음을 옮기시였다.

이날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숙동지께서는 점심식사도 하지 못하신채 림시교사의 1호침실과 2호침실, 교실들과 식당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고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주신 다음에야 오후 2시가 지나서 간리를 떠나시였다.

장군님을 바래우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행복의 미소가 가득가득 어려있었다. 하기야 친부모의 사랑에 자식들의 눈물이 어찌 마르지 않을수 있으랴! 하지만 어쩐지 나에겐 그 눈물이 지금 장군님의 마음속에 대신 흐르고있는것만 같았다. 오늘의 이 아픈 상처가 결코 쉽게는, 쉽게는 잊혀지지 않을것이다.

아, 장군님!…

간리에서 돌아온 후에도 **김일성**동지의 마음속 아픔은 계속되였으나 이것까지는 손종준의 일지에 담겨질수 없었다.

때늦은 점심상을 마주하시였지만 **김일성**동지께서는 좀처럼 수저를 들지 못하시였다. 아이들의 그 모습이, 헐벗은 유자녀들의 그 정상이 자꾸만 눈에 밟혀와 차마 밥술을 들수가 없으시였다.

그래도 학원으로 온다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왔다는것이 베바지저고리인데 그것마저 어떤 애들은 다 궤져서 어깨와 무릎이 비죽이 나와있던 가슴아픈 그 정상…

그들의 부모들이 자식들의 그런 모습을 본다면 땅속에선들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으랴.

(동무들, 날 용서하오. 오늘은 어쩐지 동무들을 볼 면목이 없구만. 동무들은 나를 믿고 자기들의 목숨도 서슴없이 다 바쳤는데 난 인제야 그 애들을 찾아다놓았소. 그런데 찾아놓고보니 그 자그마한 육체마저 제대로 가리우지 못하고있질 않겠소?)

그이께서는 무겁게 몸을 일으켜 창문가로 천천히 다가가시였다.

왜서인지 1936년 봄 마안산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르시였다.

남호두회의 이후 새 사단의 편성을 위해 그곳에 가셨을 때 좌경분자들의 버림을 받고 마안산 동쪽밀영의 음달진 초막에서 모포도 한

장없이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울며 병들어 누워있던 아동단원들…
자신을 알아보고도 그들은 해질대로 해진 넝마같은 옷주제가 부끄러워 선뜻 달려오지 못했었다, 오늘 간리의 유자녀들처럼…

어쩌면 그 가슴저미던 아픔이 오늘에까지 이렇게 이어져야 한단 말인가.

《마안산, 간리… 마안산, 간리…》

그이께서는 입속말로 곱씹어외우시였다.

먼 후날에도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큰 가슴아픔을 당한 곳을 꼽으라면 아마 이 두곳을 꼽으셔야 할것 같았다.

다시는, 세번째로는 그런 일을 겪지 말아야 한다.

해방된 새 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영원한 미래가 담보되여야 한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인기척소리에 잠시 생각을 멈추시였다.

어느 사이에 방안에 들어서시였는지 김정숙동지께서 차려놓은 그대로인 밥상을 근심스레 바라보며 서있었다.

《식사를 전혀 드시지 않으셨군요. 장군님,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애들을 세상에 보란듯이 해입혀 내세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마 정숙동무도 지금껏 그 애들 생각을 하고있었을것이다.

그 애들을 찾기 위해 그 누구보다 마음쓰고 눈물을 흘려온 사람이 다름아닌 정숙동무가 아니였던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나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있는중이요.

우리가 마안산에 갔을 때 왜놈들과 싸우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새옷을 해입혔는데 해방된 이 땅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나 정숙동무나 어떻게 그 애들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겠소.

우리 나라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해야 할 일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학원아이들의 옷부터 제일 좋은 천으로 제일 훌륭하게 만들어줍시다.》

《장군님, 그 일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내 손으로 꼭 그 애들의 옷을 해입히고싶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저고리고름을 줌안에 꼭 움켜잡으며 절절히 말씀드리시였다.
순간 **김일성**동지의 눈빛에는 고마움이, 미더움이 가득 어리시였다.
《정숙동무에게 맡기면야 내가 마음을 푹 놓을수 있지. 산에서 싸울 때에도 수백벌의 군복을 지었던 정숙동무가 아니요.》
그이의 얼굴에는 오늘 처음으로 밝은 미소가 피여났다.
그이의 목소리도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넘치시였다.
《참, 내 생각엔 말이요, 학원아이들의 옷을 군대처럼 제복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소. 군관들의 옷처럼 말이요. 거기에 군관모자도 씌우고 가죽단화도 척 신기면 얼마나 멋있겠소?
가만, 가만… 군복은 그저 일반군관들처럼 하지 말고 아예 장령들의 복장처럼 해주면 어떻겠소?》
《장령군복처럼 말입니까?》
《그럼! 바지에 붉은 줄도 굵게 띠우고 팔소매에도 이렇게 척…》
김일성동지께서는 바지옆혼솔과 소매끝단을 따라 몸소 손세까지 써가시며 설명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김정숙동지께서도 환성을 올리시였다.
《그렇게 되면 혁명의 대를 계승한다는 뜻이 뚜렷이 나타나겠습니다. 정말 그러고보니 뜻도 있고 위풍도 있는 훌륭한 옷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봉대 책임자는 정숙동무니까 내 의견도 참작해서 제복도안을 잘 그려보오. 훌륭한 도안이 있어야 훌륭한 제복이 나올게 아니요.》
《알겠습니다, 장군님!
학원제복은 제가 책임지고 만들도록 하겠으니 더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정숙동무!…》
그이께서는 뜨거움에 젖은 눈빛으로 김정숙동지를 바라보시였다.
어제나 오늘에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 그 깨끗하고 열렬하고 헌신적인 녀전사의 불같은 마음이 사무치도록 가슴에 찌르르 스며들었던것이다.

제 3 장

1

캄캄한 창밖에서는 여전히 쭈루룩 쭈루룩 비소리가 울렸다. 벌써 나흘째 장마가 계속되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잠시 재봉기를 멈추시고 비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였다. 간리에 있는 학원 림시교사걱정에 일손이 잘 잡히지 않으시였다.

장군님께서도 장마비가 걱정되시여 그제 책임부관을 그곳에 보내셨었는데 풍차에 비가 새는지 손종준이 물에 빠진것처럼 되여가지고 저녁녘에 댁에 나타났다. 장군님께서 아직 들어오시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선자리에서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장군님께서 공연한 걱정을 하신것 같습니다. 학원에 가보니 애들이 네활개들을 쭉쭉 펴고 침대에 드러누워들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도 비가 멎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내리니 여간 걱정스럽지 않으시였다. 장군님께서 사업이 너무 바쁘시여 시간을 내지 못하시는데 자신께서 당장이라도 한번 가보고싶으시였으나 학원제복견본을 만드느라 도저히 짬을 낼수가 없으시였다.

(오늘중으로 다 만들어놓고 한번 가봐야겠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와야 마음을 놓을것 같애.)

그이께서는 이렇게 속다짐을 하며 다시 재봉기를 돌리시였다.

방안바닥에는 재봉기의자에 앉아 한눈에 내려다볼수 있게 제복도안을 그린 종이장이 펼쳐져있었다.

여러개의 제복도안중에서 장군님께서 선정하여주신 도안이다.

장군님의 말씀대로 바지와 저고리기슭단에 붉은 줄을 쳤는데 팔소매기슭단에 친 사람 인(人)자 모양의 붉은 줄은 부모들처럼 인민에

게 충직한 참된 아들딸이 되라는 뜻을 담고있었다. 그아래에 내리친 붉은 줄은 혁명의 대를 이었다는 뜻을 담았는데 인민반은 한줄, 초급반은 두줄, 고급반은 석줄을 주었다. 이것은 항일아동단때 녀학생들의 치마단에 쳤던 줄을 참작하여 생각하신것이였다. 그리고 제복바지의 옆선에 내리친 붉은 줄은 유자녀들이 항일의 혁명전통 하나만을 계승하였다는 뜻에서 굵게 한줄만 주었다.

장군님께서는 이 도안이 내용도 깊고 뜻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좋다고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날로 군복색갈의 모직천과 붉은 천으로 남녀제복 한벌씩 재단하여 벌써 사흘째 밤을 밝히시며 옷을 짓고계시는 것이다. 이제는 마지막단계에 들어섰다.

그이께서 한창 재봉질을 해나가시는데 방문이 열리며 금방 잠자리에서 일어나 머리칼이 푸시시한 영실이가 들어왔다.

《아니, 벌써 새벽 한시가 넘었는데 오늘 밤도 또 밝히세요?》

그의 놀란 목소리에서는 아직도 잠기가 채 빠지지 않았다.

《우리 잠꾸러기가 어떻게 된 일이야? 한밤중에 다 깨여나구?》

김정숙동지께서는 여전히 재봉기를 돌리시며 미소어린 어조로 물으시였다.

《재봉기소리에 깨여났지요 뭐. 야, 이젠 좀 그만하고 쉬세요. 그렇게 무리하게 일하다가 어쩌자구…》

영실은 그이께서 그저 빙그레 웃으시며 일을 계속하자 무작정 그이의 두손을 잡아 재봉기에서 떼여놓았다.

《난 형님 일 못하게 할래!》

아직 어리고 성격이 좀 투박하긴 하지만 소박하고 진정어린 영실의 그 행동이 어쩐지 고마우시였다.

그이께서는 할수없이 잠시 일손을 멈추시였다.

《장군님께선 오늘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시누나. 아마 그 베잠뱅이를 입고있는 유자녀들 걱정으로 저녁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을 거야…》

김정숙동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였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잠을 자겠니? 장군님께서 하루빨리

제복을 입은 학원아이들의 모습을 보고싶어하시는데…》
《그렇다구 이렇게 며칠씩 밤을 새우다가 앓아눕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재봉일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도 될텐데…》
《아니야, 장군님께 보여드릴 이 견본만은 내가 꼭 만들어야 해.》
《형님은 어쩌면…》
영실은 잡고있던 그이의 손을 슬며시 놓았다.
김정숙동지의 그 뜨거운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영실이, 내 걱정은 말구 어서 자라구. 우린 간고한 행군과 전투속에서도 장군님의 명령을 받들고 유격대원들의 군복을 만드느라고 몇밤씩 지새운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어. 그때 습관되여 그런지 밤을 새우는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영실이의 등을 떠미시였다.
영실은 어린애처럼 어깨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볼부은 소리로 말했다.
《싫어요. 형님이 쉬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쿨쿨 잠만 자겠어요?! 나도 여기서 형님일을 돕겠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가볍게 웃으시였다.
《하긴 이제 영실이도 학원에 가서 이 옷을 입어야겠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순 없지 뭐?! 안 그래?》
영실이도 싱긋 웃었다. 그러다가 이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다.
《글쎄… 이 제복을 보니 나도 학원에 가고싶긴 한데 그렇게 되면 형님이랑 헤여져 살아야 하지 않나요.》
김정숙동지의 가슴은 알알해졌다. 일찌기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별로 모르고 자라온 영실이…
그것이 너무도 가슴에 맺혀 장군님께서도 그를 집에 데려오시였고 형권삼촌을 대신하여 각근한 정을 기울여주시였다. 자신께서도 언제 한번 그를 친혈육이 아니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으시였다. 영실이도 친어머니처럼 따랐다. 아닌게아니라 그를 품에서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오심을 누를 길이 없으시였다.
《그래도 학원에 가야 해. 공부를 해야 하지 않니?!》
《사실… 그 공부라는것도 두려워요. 문맹퇴치나 겨우 한 내가 꽤

공부를 할수 있겠는지…》

《할수 있지 않구. 아버지가 못다하고 간 혁명을 영실이가 꼭 뒤를 이어 해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 혁명가유자녀답게 말이야.》

《혁명가유자녀…》

영실이는 입속으로 가만히 외워보았다. 그 여섯글자속에 담긴 크나큰 뜻을 가슴에 소중히 새겨안으며…

그날 동터오는 새날을 맞으시며 마지막단추의 바느실끈을 끊으실 때 김정숙동지의 가슴에는 한량없는 기쁨이 아침노을처럼 피여났다.

간밤을 집무실에서 밝히시고 집에 들어오시였던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이께서 내놓으신 제복견본을 보시고 무척 놀라시였다.

《아니, 엊그제 도안을 보았는데 벌써 다 만들었단 말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도 잠시 아무 말씀을 못하시였다.

피발이 선 두눈, 충혈로 달아오른 김정숙동지의 눈빛에서 깡그리 바쳐온 그이의 남모르는 수고를 가슴뜨겁게 받아안으셨던것이다.

달리는 살수 없는, 달리는 살줄 모르는 그이의 불같이 뜨겁고 열렬한 생의 모습을 그 학원제복에서 다시금 보고계셨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제복을 찬찬히 살펴보시였다.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가까이에서도 보고 멀찍이 걸어놓고도 보시였다.

《아주 좋구만. 정말 마음에 드오.》

그이께서는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백두산에서 군복을 만들던 솜씨가 여전하구만, 여전해.》

《유자녀들의 옷이라고 생각하니 바느질이 더 잘되는것 같습니다. 힘든줄도 모르겠구요.》

김정숙동지께서도 가볍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올리시였다.

《정숙동무의 그 심정이야 내가 잘 알지.… 그러니 이젠 이 제복에 잘 어울리게 모자와 신발을 만들면 되겠구만. 모자는 옷이 군복형식인것만큼 지금 보안간부훈련대대부협주단(인민군협주단 전신)배우들이 쓰는 모자형식으로 만들어줍시다.

남학생들의 모자는 남자배우들의 모자처럼 평상모로 하고 녀학생

들의 모자는 녀배우들의 모자와 같이 채양이 없는 형식으로 만들되 모표는 우리 군인들이 달고있는 모표를 그대로 달게 합시다.》

《장군님, 그게 좋겠습니다.》

《우리 그 애들을 세상에서 제일가는 멋쟁이로 내세웁시다. 보안간부훈련대대부 군화공장에서 가죽으로 신발까지 만들어 신기면 아마 우리 아이들이 정말 끌끌할거요.》

《정말!… 그 애들이 붉은 줄을 친 이 제복에다 가죽신발을 신고 군대모표를 단 모자를 쓰고 척 나서면 꼭 군대장령들처럼 보일겁니다.》

《아무렴, 앞날의 장령감들인데 지금부터 장령대우를 해줘야지, 하하…》

가슴 그득히 넘쳐나는 기쁨으로 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소리내여 웃으시였다.

아, 그 웃음소리!…

장군님의 웃음소리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쌓이고쌓이셨던 온갖 피로가 순간에 다 풀리시였고 녀사의 웃음소리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이들때문에 맺혀있던 온갖 시름이 삽시에 다 풀리시였다. 이제 멀지 않아 그 웃음은 학원아이들의 얼굴에서 피여날것이기때문이였다.

《정숙동무, 우리 학원개원식을 크게 해줍시다. 그 누구들보다도 억눌려 지지리 천대받고 고생하던 유자녀들이 밝은 세상에서 다시 태여났다는걸 온 세상이 다 알게 말이요. 그 행복의 고고성을 듣고 희생된 전우들이 땅속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말이요.》

김일성동지께서는 흥분으로 달아오른 가슴을 들먹이시며 두팔을 벌려 흔드시였다. 마치 벌떡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서는 옛 전우들의 손을 모두 잡으시려는듯…

《장군님!…》

김정숙동지께서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그이를 우러러보시였다.

장군님의 그 말씀이 천근만근의 무게로 가슴에 실려오시였다.

《이 옷을 모두 해입고 개원식장에 쭈욱 정렬해서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니 어쩐지 가슴이 막 설레누만. 어떻게 하나 개원식전으로 옷과 신발을 다 만들어주어야 하겠소. 그러자면 빨리 공장들에

서 생산에 착수하도록 하여야겠는데… 군대피복공장은 지금 겨울군복생산이 긴장할거요.

그러니 거기선 모자만 만들게 하고 옷은 평양피복공장에서 만들어야 할것 같소. 그런데 그 공장에서 군복형식의 이 학원제복을 잘 만들수 있겠는지 모르겠거던.》

김일성동지께서 미타해하는 표정을 지으시자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심있는 어조로 말씀드리시였다.

《제가 알기에는 그 공장에서도 경비대군복을 생산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설비들도 좋고 기능공들도 많은 공장인것 같습니다.

제가 래일 그 공장에 나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다시 알아보고 학원제복을 잘 만들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공연한 걱정을 한것 같구만. 아무렴 정숙동무가 말아나선 일인데 어련할라구.》

미소가, 한없이 아름다운 미소가 김정숙동지의 얼굴에 홍조로 피여났다. 따뜻함이, 더없이 소중한 따뜻함이 그이의 가슴속에 봄볕처럼 스며들었다.

장군님의 그 믿음이 그이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행복이였던것이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지칠줄 모르는 장마비가 쭈루룩 쭈루룩 소리를 내며 내렸다.

그러나 김정숙동지의 귀전에는 그 비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시였다.

2

월송은 난생처음으로 사람의 한생이 너무도 짧다는것을 절감하였다.

파란만장의 기나긴 인생에 지칠대로 지쳤던 그에게 있어서 젊은 안해의 사랑과 어린 자식의 귀여움은 고목에 다시 핀 아름다운 꽃이였고 향기로운 열매였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든 이 꿈같은 행복은 월

송의 마음을 더없이 젊게 만들었지만 그럴수록 때없이 거울속에 비쳐보게 되는 자기의 주름덮인 얼굴과 흰 수염발은 그의 마음을 사무치는 아쉬움으로 젖어들게 하였다. 생각같아서는 지금껏 소중히 비다듬어온 그 수염발을 아무런 주저도 없이 훌 밀어던지고싶었지만 사람들이 로망이라고 웃을것 같아 애써 자신을 다잡군 하였다.

한 10년 아니, 20년만 더 젊었더라면… 사람의 한생이 한 100년 아니, 200년만 더 길었더라면…

(허허… 사람의 욕심이란 참…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이 나이에 그런 렴치없는 생각을 하다니?! 아무렴 이 월송이 신선이 될텐고.

장군님의 은덕이 아니였더라면 내 어찌 때늦게나마 오늘의 이런 행복을 맛볼수 있었겠노.)

이 아침도 월송은 대문밖까지 따라나와 바래주는 안해의 따뜻한 눈길을 등에 느끼며 젊은이들처럼 씨엉씨엉 걸음을 옮겼다.

《아버지—》

제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선 아들 직로가 한손을 오무려 입술에 대고 소리쳐부른다.

(원 녀석두. 남들이 보면 웃을라, 손자같은 아들이라구.)

하지만 몸은 벌써 아들을 향해 돌아섰다. 손을 저어주었다.

《나 인차 학원에 간대요—》

뻐기는듯 한 아들의 맑은 목소리…

그래, 가고말고. 장군님께서 직접 널 불러주셨단다!…

월송은 눈에 넣어도 쓰리지 않을 어린 직로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다시한번 눈주어 바라보고나서 다시 걸음을 재촉하였다.

흐린 날씨였지만 그의 마음은 상쾌하였다. 그가 애국투사후원회 청사에 거의 이르렀을 때 정문에서 라성환부위원장이 오기섭로동국장과 서있는 모습이 눈에 띄였다.

그들도 월송을 알아본 모양인데 웬일인지 오기섭이 눈을 내리깔며 서둘러 차에 올랐다.

《그럼 믿고 가겠소.》

이런 말이 귀전에 들려오기 바쁘게 오기섭의 차가 그의 곁을 씽 지나쳤다.

라성환이 그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일찍 나오십니다.》
《나보다도 라부위원장선생이 더 일찍 나왔구려.》
《예, 오늘 학원에 추가된 입학대상자명단을 보내야겠는데 다시한번 따져보느라구…》
어쩐지 그의 말은 변명 비슷하게 울렸다.
《그거야 어제 밤 중앙위원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한게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제 명색이 부위원장인데 책임감이 어디 그렇습니까. 참, 명단은 내가 학원에 가져다주겠습니다. 그런 먼 걸음이야 젊은 사람인 내가 하는게 옳지요.》
라성환이 그의 눈치를 슬쩍 살피며 하는 말이였다.
하지만 월송은 그의 기색을 알아보지 못한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주시오. 그런데 이자 그 사람이 오국장이 아니시오?》
《예, 옳습니다. 이거 성화가 났습니다. 오국장이 자기 딸을 학원에 넣자고 저러질 않습니까.》
라성환은 자못 난처한 어조로 말했다.
《아니, 그거야?…》
《아마 학원제복도 멋있게 만들겠다, 또 그 학원에서 앞으로 나라의 민족간부감들을 키워낸다 하니까 생각이 달라진 모양입니다. 내 한때 그 사람과 같이 일해보아 잘 아는데 그런 리득을 따져보는데선 셈이 빠르지요.》
《하지만 유자녀학원이야 어디까지나 희생된 렬사들의 자녀들만…》
월송은 문득 말을 멈추었다. 아들 생각이 났던것이다.
결국은 그 애도 렬사자녀는 아니지 않는가. …
그의 속마음을 짐작하였던지 라부위원장이 념려하듯 말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월송선생의 아들은 입학대상이 되는데 자기 딸은 왜 안되는가 하는겁니다. 내 참…》
《…》
《내 그래서 월송선생의 경우는 특수하다는걸 심중히 말해주었습

니다.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그리구 저 오국장의 일엔 아예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 다 알아서 처리할테니까요.》

그는 대수롭지 않은 투로 이렇게 말했다.

월송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채 심중한 얼굴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를 바라보는 라부위원장의 뾰족스러운 얼굴에 묘한 미소가 서리였다.

라성환, 그는 한때 만주에서 화요계의 공산당활동에 참가했다가 일제에게 체포되여 비밀전향을 한자였다. 그후 임무를 받고 북부조선일대로 건너와 오기섭의 농조운동에 관여하면서 인민혁명군의 지하조직선이 와닿길 기다렸다. 그러다가 인차 해방을 맞았는데 크게 믿었던 오기섭이 당에서 비판을 받고 제2비서직과 당상무위원자리에서 해임되자 제꺽 허가이쪽에 접근하였다.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공고한 자리를 차지하자면 끈 떨어진 조롱박신세인 오기섭보다 당조직부장의 영향력을 리용하는것이 낫다는 정치적야심에서였다. 오기섭이 자기를 유다같은 놈이라고 뒤에서 욕하는줄 모르는바 아니였지만 지금까지는 무시하는 태도를 취해왔었다.

그런데 어제 밤 오기섭이 자기를 불쑥 집으로 초청하더니 《내 감옥생활을 할 때 얼핏 듣자니 라동무에 대해 뚸뚸한 말이 돌더군. 하지만 난 그걸 믿지 않아!》하며 그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것이였다.

라성환은 오기섭의 딸문제를 가지고 그를 어루만져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의 집에서 곧장 나와 막 헤여지려던찰나에 김월송이 나타났던것이였다.

라성환은 그후에도 계속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있다가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될 때 애국투사후원회의 자금을 훔쳐가지고 도망쳤다.

그러나 김월송이 애국투사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하고있던 그 당시에만 하여도 그자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있었다.

월송이 민족반역자로서의 라성환과 다시 맞다들게 된것은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금강산에서였다.

1948년 4월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 개회사를 김월송에게 맡겨주

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가 명망높은 독립애국지사로서의 영광을 만장에 누리도록 해주시였을뿐아니라 그후에는 그가 오래동안 써오던 조선력사에 대한 글을 끝내고싶어하는것을 헤아리시여 부인과 함께 공기좋고 물맑은 천하명승 금강산에 가서 마음껏 저술활동을 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나날이 더해가는 끝없는 인생의 희열속에서 그는 자신이 진정 금강산의 신선으로 환생한듯 한 심정을 느끼며 살게 되였다.

아닌게아니라 월송은 죽어서도 영생하는 금강산신선으로 되였다.

1950년 10월초 그는 라성환을 앞세우고 자기를 붙잡으러 달려든 적들로 하여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에 처하였다. 적들은 명망높은 그를 회유도 해보고 위협도 해보며 그의 신념을 꺾어보려고 발악하였다. 월송은 비장한 최후의 결심을 내렸다.

그는 언제인가 자기의 생일날에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숙녀사께서 선물로 보내주시였던 하얀 명주로 지은 조선옷을 정히 꺼내입고 삼가 마지막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장군님!

장군님의 은덕속에 새 광명천지에 나서서 여한없이 행복한 삶을 누려온 이 월송이 장군님의 은덕을 고이 간직한채 마지막길을 떠납니다.

렬사 안중근과 리준은 가슴을 치면서 마지막길들을 갔지만 한생의 소원을 다 꽃피운 이 사람은 지금 웃으며 이 길을 갑니다.

부디 만백성의 구성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귀체만강하시여 전쟁을 이기시고 삼천리 내 나라 금수강산을 무궁토록 길이길이 비쳐주시기를 축원하옵니다. …》

그는 이 편지를 안해에게 부탁하고 적들이 졸고있는 이른새벽을 리용하여 연금되였던 자기 집에서 빠져나왔다. 얼마 못 가서 적들이 뒤쫓아오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미 각오했던 그대로 주저없이 금강산 구룡연의 바위우에 우뚝 올라섰다.

지심을 울리는 구룡폭포의 장쾌한 물갈기가 짙은 새벽안개를 타래쳐올렸다. 산산이 흩어졌던 젖빛안개는 마치 신선의 령험한 도포자락처럼 월송의 온몸을 휘감았다.

(아들아! 네가 있어 이 아버지는 마음놓고 떠나간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너를 품어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키워주시기에 아무러한 동요도 없이 웃으며 이 길을 간다, 내 아들아!…)

그는 인생의 온넋을 모아 하늘땅에 소리높이 웨쳤다.

《**김일성**장군 만세!—》

그는 사정없이 사품치는 구룡폭포의 검푸른 심연속으로 서슴없이 몸을 던졌다. 승천하는 그의 넋인양 흰 안개가 또다시 타래쳐올랐다.

그때 김월송의 나이는 일흔세살이였다. …

3

흐릿한 날씨여서 그런지 아직은 느지막한 오후였지만 집무실안은 벌써 어둑어둑한감이 들었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혀 그러한감을 느끼지 못하신채 방안에 빼곡이 들어앉은 일군들의 얼굴을 열정에 넘친 눈빛으로 바라보시였다.

김책, 안길, 남일, 리주연…

모두 학원창립준비위원회 성원들이다. 그들은 지금 정기적인 협의회에 참가한것이다. 당사업, 정권기관사업, 군대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있는 그들이였지만 또한 학원창립준비위원회 위원들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그들이 맡고있는 혁명임무와 학원창립문제가 서로 별개의것이 아니라 자기 사업의 기초적이며 궁극적인 일로 된다는것을 옳게 인식하고 사업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던것이다.

《여기 모인 학원창립준비위원회 위원동지들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학원창립사업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습니다. 학원청사건설을 위한 지대정리도 장마철의 불리한 조건이지만 로동자동무들의 충만된 열의에 의하여 중단함이 없이 진행되고있고 새교사 설계도 마지막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원제복문제도 사리원방직공장에서 생산하는 모직천을 국영 평양피복공

장에 가져다줄수 있게 조직사업이 됨으로써 곧 생산에 착수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약간 어조를 바꾸어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성과에 절대로 만족을 느낄수 없습니다. 학원림시교사를 꾸리는 사업에서도 아직 불충분한 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구비품들을 원만히 갖추어주지 못한 상태이고 모기장이 모자라서 대다수 침실들에선 쑥불을 피워 모기를 쫓고있는 형편입니다. 침대도 군대병영때 쓰던걸 그대로 들여놓았는데 당장은 새로 장만해주지 못한다고 해도 아이들의 키에 맞게 낮추어주고 도색을 다시 해주는것쯤이야 왜 관심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은 눈길을 떨구었다. 누구도 그런 소소한 문제때문에 마음써본적이 없었던것이다. 그저 만경대에는 청사건설, 간리에는 림시교사운영, 이렇게 큰 선에서만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뛰여다녔던것이다. 사실 그들중에는 학원청사건설이 끝날 때까지 림시교사운영을 중지하던지 아니면 나라형편이 좀 펴일 때까지 림시교사운영에만 힘을 넣으면 좋지 않겠는가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학원은 하나인데 현재는 두개의 학원을 세우는 품이 들어야 했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도 일부 사람들속에 제기되는 의견을 모르는바가 아니였지만 절대로 동의할수가 없으시였다.

《동무들, 우리 언제나 그 애들의 친부모된 심정으로 자기가 맡은 과업들을 사소한것에 이르기까지 책임적으로 해나갑시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충만된 일군들의 대답이였다.

《자, 이걸 보시오. 교육국에서 작성한 학원학제표와 교육과정안인데 다들 의견들을 말해보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문건을 좌중에 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리주연이 싱글싱글 웃으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건 아직 세상에 없는 학제표입니다. 인민반 5년, 초급반 3년,

고급반 3년… 11년제가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남일동무랑 유자녀들의 현실태와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작성한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교육국 부국장 남일에게 눈길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 그런데 한가지 난문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원입학대상으로 등록된 학생수는 304명인데 일곱살짜리 어린 아이로부터 열일여덟살에 이르는 큰 아이들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를 먹은 큰 애들속에 우리 글을 쓰고 읽을줄도 모르는, 말하자면 초보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겁니다. 나이로 봐선 고급반, 초급반학제에서 공부를 해야 할 아이들인데…》

《그래 남일동무생각엔 그런 애들이 고급반, 초급반과정안을 소화할수 있다고 봅니까? 좀 힘들긴 하겠지만 말이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교육은 철저히 기초가 없이는…》

남일은 머리까지 가로저으며 부정했다.

《교육자가 불가능하다면 달리 할수야 없지 않소?! 기초교육부터 시키는 수밖에.》

《그런데 인민반교육부터 받게 하기에는 그 애들의 나이가… 근 10년 나이차이를 가진 아이들이 한학년, 한학급에서 꽤 공부를 해내겠는지 그게 우려됩니다.》

남일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공감을 표시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남일의 우려가 공연한것이 아니였던것이다. 막내동생벌이나 지어 조카벌이 될 코흘리개들과 한책상에서 공부하라고 하면 큰 애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겠는가?…

그렇다고 아무런 기초교육도 받지 못한 그들을 자기 나이의 학제에서 배우게 할수도 없는 일이였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원학생들속에는 지난날 빌어먹으며 떠돌아다니던 아이들도 있고 탄광, 광산에서 소년로동을 하였거나 농촌에서 농사짓던 아이들도 있으며 담배장사나 물감장사 같은것을 하던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언제 교육이라는것을 받아보았

겠습니까?! 일제놈들은 혁명가의 자식들이 학교에 입학조차 못하게 하고 갖은 탄압을 다 했습니다. 공부를 못한것은 결코 그 애들의 탓이 아닙니다. 이걸 그 애들에게 잘 인식시킵시다. 그리고 그 애들의 심정을 잘 고려해서 학원인민반을 인민반이라고 하지 말고 특별반이라고 합시다.》

《특별반이요?》

《그렇소. 말그대로 특수한 사정을 가진 아이들의 집단이 아니요. 특별반에서 기초교육을 받게 하고 나이를 먹은 아이들은 그 수준정도에 따라 해수에 관계없이 자기 나이의 학제까지 제꺽제꺽 올라가게 합시다.》

《아닌게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11년제교육을 다 받게 하였다가는 그 애들이 서른살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할겝니다.》

김책이 그이의 말씀에 수긍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교육과정안에 군사학이 예견되여있지 않는데 그건 앞으로 안길동무와 더 토론해봅시다. 내 생각에는 고급반학생들의 과정안에 군사학강의와 군사훈련시간을 포함시켜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자면 현재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작성하고있는 학원조직편제도 다시 검토해봐야 할것입니다.》

그이께서는 김책과 안길이쪽을 바라보시였다.

《학생들을 글만 아는 선비가 아니라 부모들의 뒤를 이을 혁명가로 키워야 하는것만큼 학원에 정치부원장직제를 내오고 군사교관들도 두어야 합니다. 학원조직체계를 군사체계로 만들어 학급을 소대로 편성하고 군사교관들이 한개 소대씩 맡아서 지도하게 하면 학생들을 규률성있게 키우는데서나 또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는데서나 유리할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책동무.》

《그렇게 되면 교원들은 강의에 집중하게 되고 일과생활과 개체생활은 군사교관들이 돌봐주게 되므로 임무분담이 명백하고 각자가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관심할수 있다고 봅니다. 절대찬성입니다.》

그뒤를 따라 창립준비위원회 성원들모두가 전적인 찬성을 표시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그들을 둘러보시고나서 협의회를 결속하시였다.

《학원기발과 원가를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번 협의회에서 토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합시다.》

벌써 창밖은 어둠에 묻혀버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둠에 묻힌 창밖을 잠시 내다보시고나서 따로 불러 남게 하신 안길에게로 돌아서시였다.

그전보다 더 수척해진 그의 모습이 아프게 가슴을 찌른다. 안해가 사망한 이후로 더 눈에 뜨이게 못쓰게 되는것 같다. 하긴 인제는 아예 집에 들어가지조차 않고 보안간부훈련대대부와 중앙보안간부학교, 보안간부훈련소들에 나가산다고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애써 가슴아픔을 누르시며 천천히 말씀을 떼시였다.

《내가… 안길동무를 따로 만나자고 한건 그… 학원문제때문이요. 아무래도 정치부원장과 군사교관들은 중앙보안간부학교에서 선발해야 할것 같소.》

《중앙보안간부학교에서 말입니까?》

한사람한사람 알알이 골라서 품들여 키우고있는 그곳 사람들을 내놓기 아쉬워하는 표정이였다.

《그렇소. 정치부원장은 교원들중에서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한 동무 선발하고 군사교관들은 올해 첫 졸업생들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군관들로 뽑아주시오. 아이들과 잘 어울릴수 있고 그들의 생활을 다심하게 돌봐줄수 있는 젊고 인정미있는 사람들로 말이요.》

《…》

안길은 인차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러는 그의 심정이 충분히 리해되시였다.

그래서 더 재촉을 하지 않으시고 그 침묵을 묵묵히 받으시였다. 하긴 자신께서도 중앙보안간부학교의 제1기 졸업생들중의 우수한 군관들을 군대에로가 아니라 학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알찌근해지시였다. 그들 한사람한사람을 자신께서도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품들여 키우시였던가. 학교에 자주 나가시여 그들에

게 작전전술적안목을 틔워주기 위한 강의는 얼마나 하시였으며 훈련에도 자주 참가하시여 얼마나 그들의 군사적성장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던가. …

더우기 이제 오래지 않아 정규군으로 대폭 확대강화해야 할 군대안에서 사실 그들 한사람한사람은 그 무엇보다 귀중하였고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이였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절감하고있는 사람이 바로 다름아닌 안길이였다.

절감하고있을뿐아니라 자신의 온넋을 다 바쳐 그들을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 키우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렇기때문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신의 심정이나 안길의 심정이 다를바 없을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계신것이다.

《저…》

안길도 불시에 찾아든 침묵을 깨보려고 무진애를 쓰고있었다.

《사실 지금 우리 군대안에 정규교육을 받은 소대장, 중대장들이 얼마 없습니다. 이제 당장이라도 부대들을 증편해야겠는데 파견할 군관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학원사업이 중요한것만큼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하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음속으로 안길은 역시 안길이로구나!— 하고 생각하시였다.

군대사업, 정규군건설… 이것은 해방된 조국땅에서 안길이 넋과 심혈을 깡그리 다 바치고있는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것이였다.

더우기 남조선을 가로타고앉은 미제가 리승만괴뢰들을 부추겨 38도선에서 모험적인 무장도발행위를 빈번히 벌리고있는 오늘의 긴장한 정세하에서 그의 온 정신은 군대강화에 가있었다.

총대가 약해 침략자들의 발굽밑에서 망국노의 노예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 피눈물나는 력사를 어찌 되풀이할수 있으며 항일의 피어린 수십성상 불바다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고 장군님 찾아주신 조국, 인민의 새세상을 어찌 한치인들 원쑤들에게 짓밟히게 할수 있으랴. 귀중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민족의 운명이신 **김일성**장군님을 굳건히 옹위하기 위해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정규군건설을 다그쳐야 한다는것이 안길의 신념이였고 의지였으며

삶의 목표였던것이다. 그는 희생된 전우들도 이러한 자신을 리해해 주리라 믿었고 지지해주리라 의심치 않았다. …

《안길동무가 힘들게 대답하누만. 동무의 그 심정을 내 모르는바도 아니고 오늘의 정세와 정규군건설사업의 중요성을 모르는바도 아니요. 더없이 긴박하고 중요한 사업이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창문가로 돌아서시였다.

캄캄한 창밖 그 어디에선가 먼 우뢰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난 어쩐지 그 사업이 우리가 혁명가유자녀들을 키우는 사업과 별개의 문제처럼 생각되지 않누만. 생각 좀 해보오. 이제 그 애들속에서 소대장, 중대장정도가 아니라 련대장, 사단장 아니, 군단장도 나온다고 말이요. 어디 그뿐인가, 당일군도 나오고 인민위원장, 상, 과학자, 문화인… 말하자면 당과 국가, 군대 아니,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떠메고나갈 기둥감들이 나온다고 말이요. 물론 아직은 먼 후날의 일이지.

하지만 우린 그 애들을 꼭 그렇게 키워야 하는거요. 왜냐하면 희생된 동지들이 바로 그 애들의 그 밝은 미래를 위해서 서슴없이 목숨을 바쳤기때문에! 그런데 그 미래를 품들이지 않고 가꿀수 있는가. 한자식을 키우는데만도 오만자루의 공수가 든다고 했는데 혁명동지들의 그 귀중한 자식들을 키우는데 우리가 과연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을 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요.》

그이의 목소리는 절절하게 울렸다.

안길은 여전히 말없이 서있었다.

다만 또다시 먼 우뢰소리가 들려올뿐…

《안길동문 우리가 그 애들을 찾아서 거두어주는것으로써 먼저 간 동지들에게 의리를 지키는것으로 생각하는것 같은데 난 생각을 달리하오.

우리가 얼마나 아깝고 귀중한 수많은 동지들을 잃었소.

그 귀중함을, 그 애석함을 과연 무엇으로 메꿀수 있겠소?

그들을 다시 우리곁에 일으켜세워야 하는거요. 바로 그들의 자식들을 그들과 꼭같은 귀중한 혁명동지로 키우는거요.

난 혁명가유자녀들을 찾아냈다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혁명

투쟁을 할 때 한명의 동지를 얻기 위하여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어려운 싸움을 벌리던 일이 자꾸만 떠오르군 하오.

안길동무도 그 심정을 절감해온 사람이 아니요.》

안길은 머리를 들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다만 어두운 그의 눈빛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싶어했다.

《우리가 혁명가유자녀들을 단순히 그 어떤 동정이나 의무감에서만 대한다면 그건 진정한 동지적의리라고 말할수 없고 그런 의리심에는 기필코 한계가 있기마련이요.

안길동무! 집에 들어가 한번 자식들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오.

그 눈동자속에 비껴있는 자식들의 지향과 념원, 그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란 말이요. 그 맑은 눈동자속에 비낀 그 애들의 미래를 보게 되면 아마 그 애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요.》

따뜻하고 정에 넘친 그 말씀, 절절하고 확신에 찬 그 음성.

《장군님!…》

안길은 나직하나 격한 목소리로 그이를 불렀다.

그이의 믿음에 찬 눈빛이 눈부신 해빛과도 같이 안길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안았다.

더는 먼 우뢰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

별, 밤하늘에 하나둘 별들이 돋기 시작하였다.

금방 미역이라도 감고 나온듯 별들은 유난스레 반짝거린다.

장마가 걷힌 저 하늘에서 이밤 오래간만에 보게 되는 별들이다.

안길이도 그 별들처럼 오래간만에 집으로 들어왔다.

아들 영호와 영환이 그리고 외동딸 옥순이가 뜻밖에 집에 들어온 아버지를 보고 당황하여 어쩔줄을 몰라했다.

이미 저희들끼리 있는대로 저녁밥을 먼저 먹어버렸던것이다.

안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가 집에 들어오건말건 언제나 밤늦게까

지 가마목에 밥사발이 덥혀있군 하였다.
안해는 그를 기다리는데서 지칠줄을 몰랐다.
하긴 안길이 일찌기 혁명에 나선 그날부터 기다림은 그 녀자의 한생으로 되여버렸었다. 이제는 이 집안에서 그를 기다림이, 가마목의 그 따끈한 밥그릇이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보나마나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대충대충 끼니를 때군 할것이다.
누가 그 애들에게 각근하게 더운밥과 맛있는 찬을 만들어주랴. 아마 그 애들에게는 아버지가 저 멀리 어딘가 딴 세계의 사람이거나 지나가다 잠간 들린 길손처럼 생각될지도 모른다.
안길은 자기가 자식들에게 너무도 무관심했음을 가슴저리게 깨달았다.
옥순이가 아버지의 저녁밥을 지으려고 부엌으로 다급히 내려갔다.
안길은 그러는 딸에게 나직이 말했다.
《그만둬라, 저녁밥은 먹고왔다.》
혼자서야 무슨 재미로 밥을 먹으랴. …
요사이엔 웬일인지 통 밥맛도 없었다.
《그래도…》
옥순이가 쌀바가지를 손에 든채 아버지를 바라보며 간청한다.
《어서 올라오너라, 어서.》
딸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방안으로 올라왔다.
그리고는 고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버지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았다. 거의 두달만에 집에 들어온 그 모습이 낯설어보였던지 아니면 래일 또 집을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 모습을 실컷 눈에 익혀두고싶어서였던지…
그러는 딸의 볼을 손가락으로 살짝 튕겨주며 안길은 빙그레 웃었다. 그제서야 옥순이도 박속같이 하얀 이를 살짝 드러내며 생긋 웃었다.
《아버지…》
딸애는 살풋이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는다.
가슴이 찌르르 울렸다. 어머니없이 사는 자식들에게 아버지로서의 한쪼각 사랑마저 안겨주지 못한 죄스러움이 다시금 그의 마음을 아

프게 했다.

이 애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랴.

어릴 때부터 혁명가인 아버지를 둔 죄아닌 죄로 하여 이 애들이 겪어야 했던 고생은 그 얼마이며 덮쳐든 죽음의 그림자는 또 얼마였던가. …

왕청유격구가 해산된 후 그의 가족은 왜놈들의 탄압을 피해 훈춘현 대황구로 옮겨가 황무지를 뚜지며 생계를 이어갔었다.

안해는 그속에서도 남편의 뜻대로 자식들을 공부시키려고 온갖 고생을 다해가며 그들을 학교에 입학시켰으나 끝내 월사금때문에 쫓겨나 그 고사리같은 여린 손들에 호미를 쥐여주지 않으면 안되였다.

거기에다 안길의 가족을 찾는 왜놈들의 마수가 그곳까지 뻗쳐와 열흘이 멀다하게 경찰서에 불리워가 남편과 아버지가 오지 않았댔느냐는 취조를 받아야 했다. 어떤 때는 놈들의 군화발에 채우고 뭇매질에 쓰러져 들것에 실려 집으로 돌아오군 하였었다.

그때의 그 후과로 하여 안해는 제 명을 다 살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갔던것이다.

하루는 왜놈들이 갑자기 집에 달려들어 안해와 아이들을 주런이 세워놓고 차례차례 사진을 찍더니 씨물씨물 웃으며 돌아가버렸다. 패망을 눈앞에 둔 일제놈들은 여차하면 안길의 가족을 멸살시키려고 이런 비렬한짓까지 했던것이다.

다음날 깊은 밤 경찰서에서 잡부로 있던 량심적인 사람이 달려와 조용히 놈들의 흉계를 알려주어 안해는 아이들을 데리고 깊고깊은 산속으로 달아났다. 만일 그때 왜놈들이 빨리 망하지 않았더라면 그 가족사진을 놓고 모두 찾아내여 죽여버렸을것이다.

깊고깊은 산속에서 그의 가족은 왜놈들이 망한것도 모르고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우려먹으며 살다가 빈사상태에 놓인것을 사냥군들이 구원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안길의 가족을 찾기 위해 여러차례나 사람들을 보내시여 끝끝내 그들을 데려오셨을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된 사연들이였다.

안길은 딸의 머리카락을 다정히 내리쓸었다.

영호와 영환이는 한쪽구석에 서서 슬금슬금 아버지의 눈치만을 살피고있었다. 딸은 역시 딸이여서 그런지 다 자라서 아버지를 만나고도 스스럼없이 곧잘 품에 안겨들었지만 아들녀석들은 그저 어려워만 하고 묻는 말에나 겨우 대답하군 한다. 다 자란 아들들이 무척 대견하긴 했지만 품안에 안겨드는 막내며 외동딸인 옥순에게 어쩐지 정이 더 갔다. 그래서인지 아들들은 그가 어쩌다 집에 들어오면 슬그머니 누이동생을 시켜 자기들의 부탁을 이야기하게 하군 하였다.

《원 녀석들두,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니? 그러지 말고 너희들도 어서 여기 오너라. 오래간만에 너희들과 이야기나 좀 해보자.》

안길이 그들에게 한팔을 벌리며 이렇게 불러서야 영호와 영환이는 벙글벙글 웃으며 다가왔다.

《참, 우리 오락회를 해볼가? 빨찌산에선 이 시간이면 빙 둘러앉아 밀림속 오락회를 하군 했단다.》

《오락회요? 야, 그거 정말 재미있었겠네.》

옥순이가 사뭇 신바람이 나서 손벽까지 쳐댔다.

《그러구보니 아버지가 너희들의 노래소리 한번 못 들어봤구나.》

《우리도 아버지노랠 아직 못 들어봤어요.

어머닌 늘 아버지가 풍금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췄다고 말씀하군 했는데…》

옥순이가 이렇게 말하며 어머니의 그 말이 정말이나 하고 묻기라도 하듯 아버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왜 그것뿐이겠니?! 아버진 나팔도 잘 불었단다. 한번 보겠니?》

안길은 두손을 오무려 입술에 대고나서 유격대신호나팔을 한곡조 흉내내여 불어댔다.

옥순이는 죽겠다고 배를 그러쥐고 웃고 영호와 영환이도 변성기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소리내여 웃었다.

자식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느라니 마음이 훈훈해왔다.

문득 오늘 저녁 집무실에서《안길동무, 집에 들어가 한번 자식들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오. 그 눈동자속에 비껴있는 자식들의 지향과 념원, 그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란 말이요. 그 맑은 눈동자속에 비낀

그 애들의 미래를 보게 되면 아마 그 애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요.》라고 하시던 장군님의 그 절절한 음성이 다시금 귀전에서 울렸다.

그는 자석에 끌리듯 저도 모르게 아이들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아, 티없이 맑은 그 눈동자…

마치 고요한 숲속에서 찰랑이는 정가로운 샘물을 보는듯싶었다. 마치 가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보는듯싶었다. 아니, 용암처럼 이글거리는 불길을 보는듯싶었다.

그 숲이 지켜주는 한 샘물은 언제까지나 정가로울것이고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한 하늘은 영원히 가없이 넓을것이며 불씨가 살아있는 한 그 불길은 꺼짐을 모르고 세차게 활활 타오를것이라는 신비한 생각이 안길의 뇌리를 쳤다.

《아버지, 어서 노래를 불러주세요.》

맏아들 영호가 아버지의 팔굽을 슬며시 잡아흔든다.

《어서요. 아버지가 안 부르면 우리도 노랠 안할래요.》

옥순이가 새쭉한 표정을 지으며 맞장구를 친다.

《허허… 그래그래, 부르자꾸나. 가만, 그런데 무슨 노랠 부른다?…》

《그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자주 불러주군 했다는 노래…》

옥순이의 말이다. 아마 안해가 딸에게만은 많은 이야기를 하군 한 모양이다.

《오, 〈반월가〉!…》

안길은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별들이 더 많아졌다. 밤하늘의 보석들이 은하수를 타고 어디론가로 흘러간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창밖에서 조무래기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간간이 들려온다.

그는 밤하늘가에서 눈길을 떼고 자식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두눈을 끔뻑 해보였다.

사뭇 호기심과 기대가 한껏 어린 그 애들의 눈길앞에 어쩐지 당황

스러워지는 자신을 그대로 비쳐보이기가 두려웠던것이다.
그 눈길이 단순히 자기 자식들의 눈길이라고만 생각되지 않았다.
희생된 전우들의 눈길, 그들이 남긴 수많은 유자녀들의 눈길처럼 생각되였다.
안길은 지그시 두눈을 감았다.
노래를 불렀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계수나무 한나무 토끼 한마리
…

그가 부르는 노래소리는 은하수에 실려 밤하늘가 저 멀리로 조용히 흘러갔다. 사랑하는 자식들의 마음에 실려 희망의 기슭에로 끝없이 흘러갔다.

…
멀리서 반짝반짝 비추이는건
새별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4

김일성동지께서는 얼핏 손목시계에 눈길을 주시였다. 벌써 오후 4시가 가까와왔다. 예상외로 회의가 길어지고있었다. 집무실에서는 지금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 제1분소장과 내무국경비처장 채정보가 벌써 한시간가까이 기다리고있을것이다.
그이께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 회의실을 둘러보시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들이 진행된 이상 빨리 회의를 결속해야겠다고 생각하시였다.
《물론 동무들의 견해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토론들에서 론의되다싶이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전국적으로는 반

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면서 북조선에서 점차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과도기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 과도기임무를 수행하는데서 기본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주의적개조를 하루이틀에 해결하려는것과 같은 조급성에 사로잡혀서는 안됩니다.

아직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조건들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조건에서 사회주의적개조는 부분적으로 실시하면서 주로는 그 준비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실례로 농촌경리만 놓고봅시다.

지금 토지개혁에 의해 땅의 주인으로 된 농민들의 애국적열성과 생산의욕은 비상히 높으며 자기 땅에 대한 애착심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협동화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수 없으며 오히려 앙양된 농민들의 열의를 떨어뜨리고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성숙된 문제로 제기되지 않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우리는 과도기 첫시기에 토지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 생활력을 발양시키는데 주되는 힘을 넣으면서 앞으로 농업협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농민은행과 소비조합의 역할을 높여 농민들을 고리대적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농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소겨리, 품앗이와 같은 협동적로력조직형태들을 널리 보급하고 장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체험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우마임경소들을 설치하고 장차로는 농기계임경소들을 설치하여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경제기술적토대를 닦아놓아야 합니다.》

회의실에 요란한 박수소리가 터졌다. 그 조급성에 사로잡혔던 일부 사람들도 얼굴이 벌개서 박수를 쳤다.

회의를 결속하시고 2층에 있는 집무실로 내려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하고 누구에게라없이 말씀하시면서 제1분소장과 채정보를 방안으로 이끄시였다.

《1분소장동무, 동무네 1분소군인들이 례배당에 대고 실탄사격을

하여 큰 물의가 일어났다는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올라왔기에 그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해보려고 동무를 불렀소. 어디 동무 말을 들어보기요.》

그이께서는 먼저 제1분소장에게 엄한 어조로 물으시였다.

1분소장이 머리를 푹 수그렸다.

《사실… 례배당에 대고 실탄사격을 한것은 전혀 없습니다. 례배당근처에 있는 사격장에서 실탄사격을 하였는데 탄알이 돌에 맞고 튕겨나면서 례배당유리창을 한장 깨뜨렸습니다. 장군님, 면목이 없습니다.》

그의 대답을 다 들으시고나서야 **김일성**동지의 음성은 좀 부드러워지시였다.

《동무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별문제요. 나도 정규군의 핵심들을 키워내는 보안간부훈련소지휘관들이 아무렴 례배당에 대고 실탄사격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것이라고 믿었댔소. 제기된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보고한 평안북도인민위원장이 옳지 않소.》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준절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러나 동무들은 이번일에서 큰 교훈을 찾아야겠소. 사격장을 례배당가까이에 정한것은 대단히 잘못된것이요. 사격장이야 민가에서 멀리 떨어지고 각종 사격을 다 할수 있는 유리한 지대에 꾸려야지.》

《말씀대로 장소를 옮기겠습니다.》

《지휘관들은 부대주둔지역 인민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그들과의 사업을 잘해야 하오. 재삼 강조하지만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군대는 절대로 싸워이길수 없는거요.》

그이께서는 얼핏 채정보에게로 눈길을 주시였다.

《보안간부훈련소 군인들이나 내무국 군인들이나 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군민일치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잘해야 하겠소.》

《알았습니다.》

그들은 다같이 힘차게 대답했다.

1분소장이 나간 다음 채정보는 가방에서 두툼한 문건철을 꺼내며 말씀올렸다.

《지금 38도선의 정세가 점점 더 긴장해지고있습니다. 적들의 침범행위가 잦아지고있고 테로와 파괴를 목적으로 한 반동분자들의 월북시도가 빈번합니다. 때문에 저는 새로 2개의 독립경비대대를 더 편성하여 38도선연선에 배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편성안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가 올린 문건을 바삐 번져보시였다.

《좋소, 이대로 하오. 필요한 무기는 안길참모장동무와 토론해서 넘겨받도록 하시오.》

그이께서는 다시금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시였다.

《채정보동무와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시간이 없구만.》

바로 그때 대기실문이 열리며 책임부관 손종준이 들어섰다.

《장군님, 기획국장동지가 시급히 말씀드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장군님의 일정을 물어왔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소. 저녁에 아니, 밤에 짬을 내야겠소. 그리고 당장은 차를 준비해주오.》

채정보는 지금 그이의 시간이 매우 긴장하다는것을 알고 새로 편성되는 대대들의 배치장소와 피복공급문제 등을 직접 말씀올리고 해결받자던 생각을 접고말았다.

×

김일성동지께서 간리에 도착하신것은 오후 5시였다.

그이께서 사무실문을 열고 들어서시여서야 무슨 문건같은것을 들여다보고있던 교무부원장 윤흥섭이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처 마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시오. 내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집에 오고가면서 기별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구.》

그이께서는 부원장이 내여드린 의자에 앉으시여 소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래 아이들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예?》
윤홍섭은 처음 말씀의 뜻을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갈곳이 없어 학원에 그냥 남아있는 학생들이 몇명이나 되는가 말입니다. 내 그 애들때문에 나왔습니다. 그 애들 생각으로 어디 일손이 잡혀야지요.》
그제서야 윤홍섭은 장군님께서 느닷없이 학원에 찾아오신 사연을 깨닫고 눈시울이 화끈해졌다.
《예, 9월 1일 개학을 앞두고 교사를 더 꾸릴것도 있고 또 생활준비도 시켜야겠기에 자기 집이나 가까운 친척집들에 가서 놀다가 오도록 보냈는데 서른명의 아이들은 갈곳이 없어서…》
《그 애들이 퍽 쓸쓸해하겠는데… 그런데 그 애들은 다 어디 가고 빈방에서 혼자 무얼 보고있습니까?》
《아이들은 제각기 침실들에서 놀고있습니다. 전 학생들의 입학문건을 좀 보느라구…》
《입학문건이 다 갖추어졌습니까? 그럼 어디 한번 좀 봅시다.》
윤홍섭이 두툼한 문건철을 그이앞에 놓아드렸다.
그이께서는 문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펼치시였다.
입학문건에는 입학원서와 혁명렬사유자녀보증서, 추천서가 붙어있었다.
한사람한사람 이름을 부르시며 문건을 번져나가시였다.
《최준걸, 음, 최경화동무의 아들이지. 1938년초 정안툰전투때에 그를 잃고 밤새껏 눈물을 흘리며 추도사를 쓰던 생각이 납니다. …
김병수, 꼽새령감 김득현의 아들이고 전철중, 음… 전우천동무 아들이로구만. 왕청2중대에서 최춘국동무랑 같이 싸우던 동무인데 2차북만원정때 그곳에 떨구어두었었지. 그가 희생된것이 아마 상강현전투에서였을거요.
음, 리옥화, 리정화… 리제순의 딸들이로구만.
민순희… 민덕원동무의 딸이요. 새 조국건설에서 한몫 든든히 할수 있는 동무였는데…》

어째서인지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실 때마다 그 아이들의 얼굴대신 잊지 못할 전우들의 얼굴이 먼저 안겨왔다.

아이들의 이름우에 반드시 겹쳐지는 그 얼굴들…

하기야 어떻게 그들을 분리시켜 생각할수 있으랴.

김일성동지께는 그들이 꼭같은 하나의 모습처럼만 생각되시였다. 그이께서는 뜨거운 추억과 그리움을 담아 한장 또 한장 문건을 번져나가시였다. 자신께서 미처 모를 부모들의 이름도 있었지만 보증서를 보면 그들도 다 일제와의 싸움에서 희생된 애국렬사들임이 틀림없었다.

문득 그이께서 머리를 드시였다. 그리고 놀라운 눈빛으로 교무부원장을 바라보시였다.

《이 문건은 도대체 뭡니까?》

《예? 어느 문건… 말입니까?》

부원장이 그이곁에 바싹 다가섰다.

《오기섭동무의 딸이 어떻게 학원입학대상이 되였는가 말입니다.》

《저 그건… 아마 그의 투쟁경력을 봐서… 그리고 김월송선생의 아들을 입학시키는 전례도 있다고 하여 애투의 라성환부위원장이 그렇게…》

《그래서 월송선생이 나에게 아들을 학원에 못 보내겠다고 했었구만. 하지만 김월송선생의 경우는 그와 다릅니다.

그는 이미 칠십이 넘었고 그의 아들은 이제 겨우 아홉살입니다. 자식의 부양을 받아야 할 나이에 어린 자식을 부양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민위원회 로동국장이면 한 나라의 상인데 상이 그래 자기 딸자식 하나 공부 못시켜서 유자녀들만 공부하게 되여있는 이 학원에 보낸단 말입니까? 그리고 한사람이라도 희생된 동지들의 자식을 더 공부시킬 생각을 해야지 자기 자식부터 먼저 생각해서야 어떻게 동지적의리가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이께서는 그 문건을 뽑아드시였다.

《이런 아이들은 학원입학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본인에게는 내가 말해주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언짢으시였다. 오기섭이 신성한 이 학원의 이름을 자기 자식문제를 위한 그 어떤 간판처럼 여기고있는 그릇된 관점과 남까지 빗대며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그 심사가 저으기 불쾌하시였다.

과연 언제면 그 자기 본위적인 악습을 버리겠는지?…

그이께서는 불쾌한 심정을 털어버리듯 머리를 흔드시고나서 교무부원장을 향해 말씀하시였다.

《침실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봅시다.》

윤흥섭이 그이를 모시고 본청사에 있는 1호침실로 먼저 안내해드렸다.

김일성동지께서 문을 열고 들어서시였을 때 방안에는 세명의 아이들이 풀이 죽어 심드렁한 표정들을 짓고있었다. 침대에 걸터앉아있던 아이가 먼저 **김일성**동지를 알아보았다.

《아버지장군님!》

그 순간 창밖을 내다보던 총각애와 앞탁을 마주하고 무엇인가 끄적거리고있던 녀석이 동시에 머리를 돌렸다.

《아버지장군님!》

애들의 얼굴에는 금시 웃음이 피여났다. 자신의 량팔에 오롱조롱 매여달리는 아이들을 정답게 쓰다듬어주시며 **김일성**동지께서는 침대머리에 걸터앉으시였다.

《이 애가 바로 전철중입니다. 그리고 이 앤 최준걸이구…》

윤흥섭이 옆에서 애들을 소개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제일 어려보이는 전철중이를 번쩍 들어 무릎우에 올려앉히시였다.

《철중인 어머니가 계시는데도 집이 온성이니 가지 못했구나.》

《그리고 올라온지도 얼마 되지 않고하니 굳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윤흥섭이 곁에서 설명을 해드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신의 팔소매자락을 붙들고있는 최준걸이를 향해 물으시였다.

《준걸인 이자 무엇을 쓰고있었니? 내가 좀 볼수 있을가?》

준걸이는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며 자리에서 일어나 앞탁에 놓인 종이장을 슬그머니 집어 뒤로 가져갔다.

김일성동지의 무릎에 앉은 철중이가 좋아서 엉치를 들썩이며 **김일성**동지의 귀전에 소곤거렸다.

《준걸형은 편지를 쓰댔습니다. 성진쪽에 친척이 있는데 주소두 잘 모른다면서 거기에다…》

철중이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준걸이가 철중이에게 눈을 흘겼다.

최경화의 집안래력을 잘 알고계시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못 놀라와하시며 준걸이에게 물으시였다.

《준걸이에게 무슨 친척이 있니?》

일찌기 부모를 잃고 성진에 있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준걸이였다.

준걸이는 얼굴이 더욱 붉어져가지고 등뒤에 가져간 종이장만 꼬깃꼬깃 꾸기면서 머리를 수그렸다.

윤홍섭이 《준걸아, 장군님께서 물으시지 않냐?》하면서 그의 등을 장군님앞으로 떠밀었다.

《어디 내가 좀 보자꾸나.》

준걸이는 하는수없이 그 종이장을 **김일성**동지께 올리였다.

그런데 편지라는것이 내용은 없고 망짝만 한 글씨로 《이모》라고 썼다가는 지우고 다시 《고모》라고 했다가는 뻑뻑 긋고 한 몇자 안되는 글자들만이 적혀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해주었댔습니다. 어머니한테 사촌벌이 되는 오빠가 있는데…》

《그럼 준걸이한텐 외삼촌벌이 되지.》

윤홍섭이 민망스러워 그의 말을 정정해주었다.

《그런데 그 오빠는 징병으로 끌려가 돌아가고 집에는 아주머니만… 내가 어릴적에 우리 집에도 온적이 있는데 날 무척 고와했답니다.》

준걸이가 자신없이 웅얼거리는 소리였다.

《그래서 거기에다 편지를 쓰댔단 말이냐?》

《…》

《그래 그 녀인의 얼굴이 생각나냐?》

준걸은 대답을 못 올리고 머리만 설레설레 저었다.

김일성동지의 무릎우에서는 철중이가 여전히 엉치방아를 찧고 있었다.

《다른 애들이 다 제집으로, 친척집으로 떠나가니 준걸이도 어디론가 가고싶었던게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음이 쓰려나시여 준걸이를 끌어당기시며 그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에 꼭 대시였다.

준걸이가 갑자기 눈물을 쭈르르 흘렸다.

《됐다, 됐어. 준걸인 그래도 형인데 동생들앞에서 이러면 되나. 준걸이라고 왜 갈곳이 없겠니. 준걸이에겐 친척보다도 가까운 아버지의 전우들이 얼마든지 있다. 큰아버지들두 있구 삼촌들두 많구… 그렇지 않냐?》

준걸이는 흑흑 느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자, 준걸인 사내대장부인데 이젠 울음을 그쳐라.》

이때 방문이 슬며시 열리며 철중이또래의 처녀애 하나가 들어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가 민순희임을 인차 알아보시였다. 나이는 어리지만 오돌차게 생긴 민순희는 뜻밖에도 장군님께서 방안에 계시자 강등강등 뜀박질을 하며 그이께 매달렸다.

《민순흰 어디에 갔댔니?》

《백산오빠가 오늘 나무권총을 깎아주겠다고 해서 갔댔는데…》

그리고는 마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두눈을 깜빡거렸다.

《순희가 정말 용타. 네 생각은 온통 총에 가있구나.》

해주시군중대회에 참가하신 **김일성**동지께 꽃다발을 올리며 아버지를 죽인 원쑤놈들을 복수하겠다고 총을 달라고 했던 어린 순희였다.

《백산이라면 무산에서 온 김현철의 아들이지요?》

김일성동지께서 윤홍섭에게 물으시였다.

《예, 옳습니다.》

《그러니 민순희는 백산오빠와 친한게구나?》

《예, 그런데 오빠 짱포쟁입니다.》
《저런? 권총을 깎아주지 않더냐?》
《나무권총은 깎아주지도 않으면서 날더러 성냥을 얻어오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성냥을? 그건 왜?》
《그건 말두 안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얼핏 윤흥섭을 돌아보시였다. 윤흥섭의 얼굴에도 약간한 긴장이 떠돌았다.
백산이는 자기 방에 없었다. 침실들을 다 돌아보시고 윤흥섭과 함께 밖에 나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백산이가 왜 성냥을 찾은것 같습니까?》 하고 물으시였다.
《글쎄말입니다. …》
윤흥섭이 어정쩡하게 대답올렸다.
《좌우간 백산이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청사에 남아있는 아이들과 교직원들까지 다 동원되여 운동장, 교실, 식당칸까지 다 찾아봤지만 백산이는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언뜻 짚이는데가 있으시여 식당화구칸쪽으로 발길을 옮기시였다.
그이의 짐작대로 백산이는 거기에 있었다. 담배연기가 느실느실 환기창으로 밀려나왔다. 화구칸안의 이겨놓은 석탄무지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백산이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문가에 나타나시자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담배를 쥐였던 손을 얼른 주머니에 쓸어넣었다.
백산이보다 윤흥섭이 더 당황해했다.
《백산이 이녀석, 어디 갔는가 했더니 여기서 담배질을 하느라고…》
윤흥섭은 당장 버릇을 떼놓을 기세로 백산이에게로 다가갔다.
《가만, 가만…》
김일성동지께서 앞에 나서는 그를 만류하시였다.
《얘 백산아, 아무리 바빠도 담배불이야 꺼야지 바지주머니에 감추면 어떻게 한다는거냐. 그러다가 손을 데겠다. 어서 담배불을 꺼

서 버려라.》
《일…없습니다.》
바지주머니에서는 담배연기가 계속 새여나오고있었으나 백산은 죄지은 사람처럼 머리만 푹 수그렸다. 그러면서도 손에 감싸쥔 담배불에 손바닥이 뜨거웠던지 얼굴을 찡그렸다.
《일없다는게 뭐냐?! 손을 덴다는데. 어서 담배를 버려라.》
그제서야 백산이는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꺼내여 담배를 버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얼른 그의 손부터 펴보시였다. 담배불에 손이 데였을가봐 걱정스러우셨던것이다. 다행히도 덴 자리는 없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장군님께선 너희들이 걱정되시여 찾아오셨는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말이다. 이런 학원망신이 어디 있어?!》
윤흥섭이 노여워 펄펄 뛰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단 백산이의 손목을 잡으시고 화구칸밖으로 나오시였다.
《너 담배를 자주 피우냐?》
《아니, 아닙니다. 학원에 와서는 한번도…》
백산이가 얼굴이 꺼멓게 질려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대답올렸다.
《그런데 오늘은 왜 다시 담배를 피웠냐?》
《…》
《백산이 이녀석이 방랑생활을 할 때 붙인 나쁜 버릇이 도진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젠 어엿한 학원의 학생인데 어쩌면 이런 망나니짓을…》
윤흥섭이 책망하자 백산이가 눈물이 그렁한 얼굴을 쳐들었다.
《여기로 떠나올 때 누나와 약속했습니다, 다신 담배를 안 피우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전 담배도 성냥도 안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윤흥섭이 더 엄하게 따지고들었다.
《아침부터 누나생각이 자꾸 나면서 보고싶은데… 철삼이랑 동호랑 우리 방의 애들은 다 가구… 나혼자만 있으니까…》

백산이가 중언부언 변명을 늘어놓는데 **김일성**동지께서는 아까 준걸이의 편지사연이 다시금 생각키우면서 또다시 짜릿한 아픔을 느끼시였다.

《누나를 생각하느라고 누나와의 약속을 어기면 안되지. 백산인 사내대장부가 아니냐.》

《담배를 다신 안 피우겠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예.》

김일성동지께서는 저으기 안색을 펴시며 백산이에게 이르시였다.

《이제 곧 침실로 가서 남아있는 애들을 모두 운동장에 모이라구 해라. 오늘은 모두 우리 집으로 가자!》

《예?》

윤흥섭이 놀라운 눈길로 **김일성**동지를 우러렀다.

《어서!》

김일성동지께서 다시 재촉을 해서야 백산이는 《알았습니다.》 하고 울먹울먹한 소리로 대답올리고나서 나래가 돋힌듯이 침실쪽으로 달려갔다.

《아무래도 오늘은 저 애들을 우리 집에 데려다 하루밤 재워보내야지 그러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할것 같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혈육의 정을 그리워합니까? 우리가 아직 제 구실을 다 못하는것 같습니다. 단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것이 부모구실이 아니란것을 새삼스레 생각하게 되는군요. 저 애들은 정을 그리워합니다, 혈육의 정을! 그래서 피줄은 숨기지 못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부원장선생, 저 애들에게 자기의 피줄을 꿋꿋이 이어주지 못하고 단지 생활이나 돌보아주는 그 어떤 보호자의 역할로는 먼저 간 전우들과 렬사들앞에 의리를 지켰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이께서 학원에 남아있는 애들을 모두 데리고 저택으로 돌아오신것은 저녁어스름이 깃든 7시경이였다.

5

채석장에서는 기관총의 련발사격과도 같은 착암기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 단조로운 소리와 어울려 가락맞게 쩡쩡 정대를 내려치는 함마소리와 《엇싸!》, 《엇싸!》하며 흥겹게 소리를 치는 메질군들의 힘먹임소리가 마치 그 어떤 리듬과 장단을 쳐주듯 귀맛좋게 울렸다.

오늘따라 별로 더 성수가 난듯싶은 로동자들이였다. 그들은 지금 휴식시간마저 미루어가며 작업에 열중하고있었다.

문석오는 일손을 놓지 못하는 그들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어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곳 채석장을 다녀가셨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학원건설장에 필요한 석재보장정형을 알아보기 위해 오시였다. 문석오는 처음으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왔다.

《문선생, 이미전부터 한번 만나보고싶었는데 오늘에야 이렇게 만났군요. 이름있는 조각가선생에게 돌채취사업을 맡겨놓고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해서 안됐습니다. 그래 건강은 일없습니까?》

다정하신 그 음성은 내성적인 문석오의 마음속을 대번에 젖어들게 만들었다. 하여 그는 훌륭한 화실을 꾸려주시고 해주에서 살던 가족들이 평양에 올라와 살수 있도록 큰 집을 마련해주신 장군님께 고맙다는 인사조차 변변히 드리지 못하였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자신이 민망스럽기 그지없었다.

민족적인 차별과 멸시를 참고견디며 조각칼을 쥔 손에 피멍이 지도록 눈물속에서 미의 세계를 탐구하던 고학시절, 코를 찌르는 곰팡내가 가득한 도꾜의 하숙방…

아, 그 시절에 자기가 갈구한것이 과연 미의 세계였던가?

눈물, 악취, 고통… 과연 그것이 인간의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그려내는 미의 세계와 그 어떤 인연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아마도 그

래서 문석오는 자기 모순의 출로를 온갖 불의와 불합리를 한칼에 베여버릴 그런 정의로운 미의 화신, 민족적영웅의 형상에서 찾고싶어했는지 모른다.

일구월심 갈망하던 그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길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 솔직히 그는 당황해졌다. 지금껏 전설속의 영웅으로만 그려보던, 그래서 은연중 범접키 어려운 초인간적형상으로만 그려보던 장군님의 모습이 그처럼 부드럽고 그처럼 사려깊고 그처럼 인정깊으실줄은 미처 생각지 못하였던것이다. 한갖 흙쟁이, 돌쟁이로밖에 여겨주지 않던 자기를 그분께서 이름있는 조각가선생으로 높이 불러주시며 건강까지 따뜻이 물어주실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했었다.

문석오의 귀전에는 지금도 장군님의 그 음성이 울리는듯싶었다.

《난 림춘추동무에게서 문선생이 자진하여 학원건설에 필요한 석재보장사업을 맡아나섰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미전부터 뜻을 같이해온 오랜 지기를 만난 심정이라고 할가. 사실말이지 혁명투쟁을 했다는 일부 사람들도 학원건설을 달가워 안하는데 문선생같은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리해해주니 정말 큰 힘이 되였습니다.》

《저 장군님, 실은 장군님의 과분한 치하를 받을만 한 위인이 못됩니다. 장군님께서 마음쓰시는 중대한 일이라기에 선뜻 뛰여들기는 했지만 처음엔 학원건설자재란 소릴 듣고 아연했댔으니까요.》

장군님께서는 그의 솔직한 말을 들으시고 가볍게 웃으시였다.

《우리는 절대로 학원건설을 늦잡을수 없습니다. 설사 다른 일들은 좀 미루거나 외면할수 있다 해도 아이들, 부모잃고 천대와 불행속에서 고생하던 아이들을 위한 일만은 절대로 외면할수 없습니다. 항차 그 애들이야 일제놈들에게 희생된 부모들의 뜻을 이어 새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가야 할 혁명가유자녀들이 아닙니까.

우린 앞으로 이런 학원을 더 많이 세우자고 합니다. 그래서 유자녀들뿐아니라 불행하게 부모를 잃은 아이들모두를 나라에서 맡아키우자는겁니다. 내가 문선생에게 굳이 이런 말을 하는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고생스럽더라도 좀더 수고를 해달라고 해서입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로동자들을 만나시여 그들의 생활형편과 석재보장사업에서 걸린 문제들을 료해하시고 동행해온 김책에게 착암기해결대책까지 세워주신 다음 채석장을 떠나신것은 어제 저물녘이였다.

문석오에게 있어서는 정말 꿈같은 하루였다. 그의 심장은 또다시 흥분으로 달아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석재보장사업을 책임진 기술자의 흥분만이 아니였다. 그것은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흥분이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가 림춘추에게 **김일성**장군님을 형상한 동상을 창작하고싶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이 나라 민족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나라를 찾아주신 전설적영웅에 대한 신비에 휩싸인 존경심과 또한 기념비적성격이 우선시되는 조각예술의 특성을 잘 알고있는 조각가로서의 의무감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그러나 오늘날 그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에 휩싸였다. 민족앞에 가장 큰 공적을 쌓으신분이면서도 티끌만큼도 그런 위엄을 짓지 않으시는분, 나라일을 총찰하는 령수이시면서도 부모없는 아이들부터 진심으로 걱정하시는분, 그분의 심장의 박동소리가 들리는듯싶었고 만백성의 마음을 덥혀줄 열이 느껴지는듯싶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인간에 대한 믿음이였고 긍지였고 행복이였다. 이것은 벌써 조각가로서의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공에 대한 열렬한 매혹과 끝없는 환희였다.

문석오는 온 하루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마음은 이러한 창작적흥분으로 하여 좀처럼 안정을 얻지 못하였다.

이런 때 림춘추동지라도 곁에 있었으면… 그가 있었더라면 누구보다도 내 심정을 리해해주고 적극 떠밀어주었을텐데…

오늘밤에라도 평양에 들어가 김책동지를 만나야 하지 않을가? 그전에 림춘추동지와 함께 만났을 때에도 그는 창작은 누가 시켜서 하는것도, 누가 하지 말란다고 하여 그만두는것도 아니라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창작가의 신념이며 권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동상건립은 시와 노래를 짓는것이나 또 그림을 그리는것과는 다르다. 정녕코 장군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실현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

《선생님! 선생님—》
누군가가 저만치 앞쪽에서 소리쳐부른다.
그제서야 문석오는 펀뜩 정신을 차렸다.
땀이 줄줄 흘러내리여 돌가루 묻은 맨몸바람의 동가슴에 줄무늬처럼 얼룩이 새겨진 애젊은 청년이 소리치다못해 그에게로 달려왔다.
《챠, 이런… 갑자기 귀가 먹었어요? 찾는 소릴 통 듣지 못하시니…》
《미안하오, 그만 내 생각에 빠져있다나니…》
《저기 현장휴식장에 어제 장군님과 함께 오셨던 김책부위원장동지가 오셨어요. 착암기를 다섯대씩이나 가지고 말이예요. 이젠 일자리를 짱짱 내게 됐어요.》
청년은 오른손을 높이 들고 손가락들을 묘하게 튕기여 《딱, 딱》 소리를 내며 사뭇 흥에 겨워했다.
그의 심정이 리해되였으나 문석오는 그 흥에 맞장구칠 겨를이 없었다. 물론 김책동지가 착암기를 구해온건 더없이 반가운 일이지만 그보다도 문석오에게는 그가 꼭 자기 생각을 알고 찾아온것만같이 여겨졌던것이다.
바삐 걸음을 옮겨 로동자들속에 에워싸여있는 김책의 곁으로 다가가니 그의 목소리가 먼저 귀가에 들려왔다.
《…그곳 광산로동자들은 동무들이 학원건설장에 보낼 석재보장을 맡아나섰다는걸 알고 자기들도 착암기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다섯대씩이나 보내주었소. 장군님께서 마음쓰시는 학원건설에 자기들도 보탬을 하겠다고 말이요. 그러니 그 동무들의 마음까지 합쳐 석재보장사업을 더 잘해야겠소.》
《걱정마십시오, 단단히 값을 치르겠습니다.》
《석재생산은 념려마십시오.》
이구동성으로 웨치는 로동자들의 목소리…
그들은 그달음으로 작업에 달라붙는다.
《부위원장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문석오는 김책에게로 다가서며 말했다.
《아, 그러지 마시우. 난 그저 심부름을 했을뿐이요. 문선생의 수

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허허…》
《수고랄게 있습니까, 제가 하고싶어 하는 일인데요.》
《하긴 제 하고싶어 하는 일은 엄동설한에도 손이 시리지 않는 법이지요.》
《예, 하지만… 하고싶은 일을 못하게 될 때에는 중병을 앓게 되는 법이지요.》
《?…》
김책의 꿰뚫어보는듯 한 눈빛이 그의 반쯤 꺾이운 시선을 움켜잡았다.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문석오는 다시 눈길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허허… 문선생의 그 말이 어쩐지 그저 해보는 소리로 들리지 않누만. 음… 알만 하오, 문선생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전 사실… 부위원장동지를 꼭 만나고싶었습니다.》
《그렇소? 그러니 우린 같은 생각을 하고있었구만. 사실 나도 문선생을 다시 만나고싶어서 이렇게 온거요.》
김책은 그의 한팔을 다정히 껴안았다.
《우리 좀 앉기요.》
그들은 깨여놓은 커다란 암석의 좀 평퍼짐한쪽을 골라 나란히 앉았다.
《림춘추동무에게서 문선생의 소원이 꼭 성취되도록 잘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구실을 제대로 못해 정말 미안하오.》
김책의 목소리에는 진정으로 미안해하는 그 마음이 곡진하게 어려있었다.
《사실 난 말이요…》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문선생의 소원이자 이 김책의 소원이라고 생각했소. 아니, 우리 빨찌산의 전우들과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라고 생각했소. 우리 나라에서 동상을, 그것도 **김일성**장군님의 영명하신 모습을 형상한 첫 동상을 세운다고 생각할 때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 그것이야말로 진짜 만년대계의 기념비가 아니겠소. 하지만…》
그는 문석오의 눈길을 애써 피하려 했다.

《하지만 동상을 세우는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요. 〈**김일성**장군의 노래〉나 〈백두산〉이 세상에 나올수 있은것은 그것이 나오자마자 순간에 만사람에게 파급되여 걷잡을수없이 불리워지고 지면을 통해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가며 끝없이 애독되였기때문이였소. 그런데 동상은 그렇게 할수 없는 일이거던. 원고지나 오선지우에 그려내는것이 아니라 땅우에 실물로 직접 세워야 한단 말이요. 하나의 건설공사라고도 말할수 있지 않소. 과연 이런 일을 장군님의 동의없이 실현시킬수 있겠는지…》

《그러니 김책부위원장동진 전혀 불가능하단 말씀입니까?》

《하하… 문선생, 날 그런 눈으로 보진 마시오. 사실 내 문선생을 만난 이후로는 줄곧 그 생각이요. 어떻게 하면 문선생의 소원이자 우리 인민모두의 념원인 그 일을 수월하게 해결할수 있겠는가 하고 말이요. 그러자면 꼭 필요한, 반드시 동상을 세워야 할 어찌할수 없는 요구가 제기되여야 하는거요.》

문석오의 숨결이 빨라졌다. 그는 마른침을 꿀꺽 삼키며 김책을 주시하였다.

그러한 그에게 김책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혈육의 정을 그리워하고있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눈물을 지으시며 그 아이들모두를 댁으로 데리고왔던 며칠후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또다시 간리로 나가시였다.

그날에 김책은 물론 김정숙동지와 어리신 아드님께서도 그이와 동행하시였다. 차가 정문앞에 멈춰서고 림시교사구내에 들어설 때까지도 김책은 인차 뒤따르지 않는 어리신 아드님께서 보초병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느라 잠시 지체되는줄로만 알았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장군님께서 그곳을 떠나자고 운동장으로 나오셨는데 아이들이 좀처럼 그이의 품에서 떨어질념을 안했다. 그들은 《장군님, 언제 또 오시나요?》라고 자꾸만 되물으며 그냥 눈물만 흘리는것이였다.

그 애처로운 모습들을 보다못해 김정숙동지께서는 한 아이, 한 아이 달래며 저고리고름으로 눈물을 닦아주시였다.

《얘들아, 장군님께선 또 오신다. 너희들이 자꾸 이러면 장군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니? 장군님께선 너희들 근심으로 밤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셔. 그래서 만경대에 더 크고 훌륭한 새 학원을 세워주고계신단다. 너희들 만경대가 어떤 곳인지 아니?》

그제서야 아이들은 호기심어린 눈빛을 초롱초롱 켜들었다.

한 아이가 청높은 목소리로 제꺽 대답했다.

《만경대는 아버지장군님께서 탄생하시고 장군님의 할아버님, 할머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 이제 만경대에 새 교사가 일떠서면 너희들은 아무런 불편없이 공부할수 있게 된다.》

《저… 그곳에 가면 아버지장군님을 매일 만나뵈울수 있나요?》

한 처녀애가 그이의 손목을 꽉 잡는다.

순진하고 깨끗한 아이들의 기대어린 눈빛이 일시에 김정숙동지에게로 향해졌다.

순간 전류같이 짜릿한것이 그이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정녕 그이께서 무엇이라 대답할수 있단 말인가.

아이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정이 그립고 소중했으면 저러랴! 얼마나 장군님곁에서 잠시라도 떨어지기 싫으면 그러랴!

김정숙동지의 눈가에는 핑 눈물이 고이시였다.

《그래, 너희들 장군님을 매일 뵙고싶으냐?》

《예!》

한결같이 터치는 아이들의 절절한 웨침소리, 웨침소리…

《내 더 자주 오마. 이젠 어서들 들어가거라.》

장군님의 갈리신 음성이다.

김정숙동지께서도 얼른 눈굽을 훔치시였다.

김책은 괴로운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싶어 얼른 차를 세워둔 보초소옆으로 다가가 발동을 걸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차뒤에 어리신 아드님께서 서계시는것이 아닌가. 그러고보니 분명 여직껏 학원구내에서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그 몇시간동안을 그냥 여기에 홀로 서계셨단 말인가? 무슨 일때문에?…

김책의 그 의문은 해방산기슭에 돌아와서야 풀렸다.

《그 형님, 누나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 내가

아버님과 함께 있는걸 보면 자기들 아버지 생각이 날거예요. 난 그들이 슬퍼하는것이 싫어요. 그들은 아버님을 보면 매달려서 떨어질줄 모르고 떠나실 때면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해요. 어머니, 그들이 우리 아버님과 늘 함께 있게 할순 없나요, 예?…》

《…》

김정숙동지께서는 대답을 못하시였다.

오늘 벌써 두번째로 받게 되는 질문이였다.

한번은 유자녀들에게, 다른 한번은 아드님에게서…

순간 김책은 그 물음앞에는 오직 자기만이 대답할수 있음을 깨달았다.

《정숙동무, 우린 저 물음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장군이 그 어린 마음에까지 그 애들때문에 마음쓰게 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다시는 우리 장군이 그 애들 눈에 보일가봐 승용차뒤에 홀로 서계시게 할수는 없습니다. 학원아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는 길도 그리고 우리 장군의 그 깨끗한 마음을 지켜드리는 길도 오직 문석오선생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정숙동무, 그러니 이건 단순한 동상문제가 아닙니다. 내 그 사람을 정숙동무에게 보내겠으니 한번 속씨원히 얘길 들어보십시오. 부탁입니다!》

…문석오는 또다시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정녕 어제와 오늘은 련속 자기자신을 위한 날인듯싶었다.

내 인생의 꿈이, 소원이 이렇게 풀리게 되다니. 아니, 아직 만세를 부르기는 이르다. 일은 이제 첫걸음마를 뗀데 불과하다. 그러나 그는 온 세상을 다 얻은듯 마냥 마음이 부풀어올랐다.

그는 저도 모르게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김책의 두손을 부여잡았다.

《김책동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하… 문선생, 인사야 내게 할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장군에게 해야지요. 우리 장군이 아니였더라면 나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거요.》

《그렇군요, 정말 그렇군요.》

그는 불현듯 뿌옇게 흐려오는 두눈을 슴벅이며 이렇게 곱씹었다.

×

터밭에서는 잘 익은 참외들이 물씬물씬 향기를 풍겼다.

빨갛게 익은 도마도들도 그 사이우로 주렁주렁 어우러져 저택의 풍치를 한껏 돋구었다.

봄내, 여름내 정성을 들여 심어가꾼 터밭열매들을 흐뭇한 심정으로 바라보고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두개의 큰 나무상자옆에 놓여있던 싸리바구니를 집어드시였다. 그것들을 모두 수확하시려는것이다.

도마도는 막물수확이였고 참외는 올해 첫 수확이였다.

그이께서는 먼저 도마도부터 따서 바구니에 담으시였다.

한바구니 가득 채워서는 느티나무밑에 놓아둔 나무상자에 한알한알 터지지 않게 정히 넣으시였다.

맴 맴 맴…

느티나무가지에 붙은 매미들이 누가 더 청높은 소리를 길게 뽑는가 경쟁이라도 하듯 귀따갑게 울어댔다.

그이께서 마지막도마도바구니를 나무상자에 무둑히 쌓으실 때까지도 매미들은 울음을 멈출줄 몰랐다.

도마도를 다 따고나니 노랗게 익은 참외들이 한눈에 잘 띄웠다.

머리우에 썼던 수건을 벗어 잠간 이마의 땀을 들이시는데 갑자기 약속이라도 한듯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딱 멎었다.

《어머니!―》

마을아이들과 군사놀이를 하다가 어느새에 들어오셨는지 나무권총을 한손에 든 어리신 아드님께서 이렇게 소리치며 느티나무쪽으로 총알같이 달려오시였다.

《원, 그러다 넘어지겠구나. 천천히…》

그이의 목소리에는 다심한 정이 가득 어려있었다.

《어머니, 저기 손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키― 큰…》

아드님께서는 한손을 머리우로 높이 쳐드시며 형상까지 해보이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며 벌써 이곳으로 다가오고있는

손님에게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손님은 아닌게아니라 여느 사람들보다 키가 컸는데 그는 다름아닌 문석오였다.
문석오가 허리를 굽히며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녀사님, 그간 건강하셨습니까?》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여 기쁩니다.》
《우리 가정에 새집을 꾸려주시고 훌륭한 화실을 마련해주신 녀사님께 제 늦게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싶습니다.》
문석오는 정히 두손을 맞잡고 서둘러 고마움의 인사를 드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러는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인사는 오히려 제가 드려야겠습니다.》
《예?》
《채석장에 나가살다싶이하며 만경대학원건설에 쓸 석재보장사업을 책임지고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크십니까. 장군님께서는 채석장에 나가시여 문석오선생을 만나고 돌아오신 날 선생이 자신의 걱정거리를 덜어주고있다고 몇번이나 외우셨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요?》
그의 얼굴에는 형언할수 없는 감격과 환희가 어리였다.
장군님을 만나뵈온 그날의 격정이 다시금 사무쳐왔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들먹이는 그의 흥분을 가라앉혀주시려는듯 아드님의 손을 잡아 떠미시였다.
《자, 어서 인사드려라. 이 키큰 아저씨가 바로 김책동지가 말씀하시던 그 조각가선생님이시다.》
《조각가선생님이요?》
아드님의 두눈에 기쁨의 빛이 반짝반짝 어리였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럼… 자제분이십니까?》
너무도 수수하고 평범한 옷차림으로 하여 마당가에서 장군님의 자제분인줄을 미처 알아뵙지 못하고 예까지 따라들어왔던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예, 사실 문선생을 누구보다도 만나보고싶어하는건 우리 **정일**이

라고 말할수 있답니다.》
《예? 예— 에…》
문석오는 김책으로부터 들은 가슴아픈 그 사연이 다시금 깨우쳐져 고개를 끄덕이였다.
《선생님, 동상을 세우면 학원아이들이 아버지장군님과 늘 함께 있게 된다는것이 정말이나요? 》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였다. 부디 그것이 정말이기를 바라마지 않는 그 절절한 목소리, 조각가가 《아니!》라고 대답할가봐 겁나하듯 마음조이며 바라보는 그 간절한 눈빛…
문석오는 그 물음에 왜 그런지 쉽게 대답할수가 없었다.
어리신 마음에 얼마나 학원아이들의 모습이 가슴에 맺히셨으면 그러랴 하는 생각에 목이 콱 메여왔던것이다. 어쩌면 장군님일가분들은 그 인정미가 꼭 같으실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젖어들었던것이다.
《참, 이야기정신에 손님대접할 생각을 못했군요.》
김정숙동지께서 얼른 말머리를 돌리시며 그에게 량해를 구하시고나서 잘 익은 참외 몇개를 따오시였다.
《자, 이건 우리 집 첫물참외인데 어서 하나 맛보세요.》
그이께서는 노란 참외를 골라 수건으로 정성껏 닦으시여 내미시였다.
그리고 아드님에게도 쥐여주시였다.
《참외가 정말 잘 익었습니다. 그 냄새에 벌써 군침이 막 넘어가는군요. 녀사님께서 손수 가꾸신거겠지요?!》
문석오는 저택터밭을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만경대할아버님이 보내주신 참외씨를 심었더니 저렇게 훌륭한 열매를 맺었어요. 이제 저 참외를 모두 따서 도마도와 함께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거예요.》
《저, 우리 아이들이라는건?…》
《학원아이들 말이예요. 어디 갈곳 없는 아이들 수십명이 그곳에 남아있는데 속에 걸려 내려가야 말이지요. 그래 저 과실들이라도 보내주려구…》
《어머니, 그러니 이건 모두 학원아이들을 줄거나요?》

《그래, 그들에게 보내주자고 그런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러자 어리신 아드님께서는 잠시 무슨 생각인가 하시더니 손에 들고있던 참외를 어머님손에 다시 쥐여주시는것이였다.
《이 참외도 그 애들에게 가져다주자요. 난 먹지 않아도 돼요.》 하고는 얼른 바구니를 손에 들고 참외밭으로 들어가시는것이였다.
《아니?!…》
어머님께서 만류하려 하시자 아드님은 생긋이 웃으시며《학원에 보낼 이 참외는 내가 마저 따겠어요.》하시는것이였다.
《어쩌면 그 마음씨가 꼭…》
문석오는 좀처럼 감동어린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도 대견한 눈빛으로 아드님의 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다가 문석오에게 나직이 물으시였다.
《저… 정말이지 학원에 동상을 세우면 우리 애들이 늘 장군님곁에 사는것처럼 여겨질가요?》
전번처럼 반대하실줄만 알았던 김정숙동지께서 이렇게 자기의 말을 받아주시자 문석오는 심장이 활랑거렸다.
《녀사님, 저도 김책부위원장동지에게서 그 사연을 다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소원을 완전히 풀어준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항상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그 애들에게는 장군님의 모습을 늘 뵈올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의지가 되고 큰 힘이 될겁니다.》
《정말 그럴가요?! 정말 그랬으면!…》
《녀사님, 제 비록 재능은 부족하지만 온넋을 다하여 학원아이들과 아드님, 녀사님의 그 소원을 꼭 풀어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또한 저의 평생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손으로 옷고름을 꼭 눌러붙이시며 그를 향해 정히 머리를 숙이시였다.
《아니?… 녀사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당황한 문석오가 황황히 손을 저었다.
《문선생, **김일성**장군님의 동상을 세우는것은 민족과 력사의 부탁이기 전에 먼저 우리 아이들이 문선생에게 드리는 부탁입니다.

그 애들은 나라를 찾기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고 누구들보다도 갖은 천대와 멸시를 다 받으며 살아온 불쌍하고 의지가지할데없는 아이들입니다. 그 애들에게 있어서 장군님은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시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장군님곁에서 한시라도 떨어지는걸 죽기보다 싫어하는겁니다. 난 언제나 자기들곁에 장군님을 모시고싶어하는 그 애들의 소원을 풀어줄수만 있다면 문선생을 적극 도와드리겠어요.》

《녀사님! 정말 고맙…》

문석오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크나큰 흥분이, 크나큰 행복이 일시에 그의 온몸을 휩싸안았다. 그는 몸둘 곳을 찾지 못한듯 서성거리다가 성큼성큼 터밭으로 걸어갔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김정숙동지께서는 밑도 끝도 없는 그의 행동에 다소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여 물으시였다.

《예?… 예… 자제분의 일손을 돕고싶어 그럽니다.

그리고 장군님과 자제분의 몫으로 얼마간이라도 남겨두어야지 저러시다간 한알도 안 남기고 참외를 다 따겠습니다.》

그의 말에 김정숙동지께서는 가볍게 웃으시였다.

가식을 모르는 그의 소박하고 진실한 마음이 고맙게 여겨지시였다.

《호호…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몫과 그 애들의 몫을 따로 가르지 않으신답니다. 제 생각엔 그 심정을 잘 알아야 그 애들의 소원을 훌륭하게 풀어줄수 있을것 같애요.》

《예, 귀중한 말씀이십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그런 심정으로 저 참외들을 따지요. 아드님께서 벌써 절반나마 다 따셨습니다.》

문석오는 황황히 참외밭속으로 들어갔다.

어리신 아드님께서 그에게 참외를 든 한손을 흔들어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즐거우신 마음으로 다시금 참외밭에 들어서시였다.

맴 맴 맴…

새삼스레 매미들의 청높은 울음소리가 귀전에 들려왔다.

6

리종익은 평양으로 올라오라는 련락을 받고 원산을 떠날 때까지만 하여도 도무지 영문을 짐작할수 없었다.

그저 자기가 만나야 할 사람이 북조선인민위원회 김책부위원장이라는것으로 미루어보아 근 한달전 권고사직을 받고 집에 들어와있을 때 우정 시간을 내여 찾아와 그와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었다는데로부터 은연중 고맙다는 생각을 품었을뿐이였다.

그러면서도 다른 기대를 가진것은 아니였다. 사실 리종익은 집에 들어온 후 렴치없는 생각인줄 알면서도 자기 문제가 다시 상정되여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늙으면 다시 아이가 된다더니…) 하고 그는 허구프게 웃고말았다. 김책이라고 이제 어떻게 자기같은 사람을 도울수 있으랴?!

나이가 들어 집에 들어가는거야 당연한 리치가 아닌가.

아마 평양에서 자기를 부른것은 십중팔구 여생이나마 좀더 편안하게 해주고싶어서일것이다. 하지만 인제야 평양이면 어떻고 원산이면 어떠하랴.

그는 그래도 자기같은 사람을 잊지 않아준 김책에게 사의도 표시하고 또 마지막으로 옛 친지들도 만날겸 해서 내키지 않는 걸음이였지만 차에 올랐다.

정말이지 그는 김책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부른분이 다름아닌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는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장군님께서 지금 선생을 기다리고계십니다. 자, 어서 가십시다.》

리종익은 얼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김책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뜻밖의 현실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슬그머니 턱을 꼬집어보았다. 아픔이 느껴졌다.

김책이 빙그레 웃으며 다시금 그를 재촉했다.

《제 말이 잘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군요. 하지만 언제 사연을 설

명하고있을새가 없습니다. 장군님께선 아침 첫시간부터 집무실에서 선생을 기다리십니다.》

《예― 에?》

비로소 현실이 믿어졌다. 동시에 심장의 박동이 쿵 쿵 느껴졌다.

그가 김책의 뒤를 따라 장군님의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창문으로 비쳐드는 눈부신 아침해살에 온몸이 휩싸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빠른 걸음으로 마주오시였다.

그 젊으신 모습, 그 환하신 미소… 마치 눈부신 해빛이 그대로 자기에게로 다가오는듯싶었다.

그는 그렇게도 흠모하여마지 않던 장군님을 직접 만나뵙게 된 감격과 기쁨으로 하여 눈앞이 뿌잇해짐을 느끼며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다.

《장군님, 제 리종익입니다.》

《더울 때 차를 타고오시느라 고생했겠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 다정하게 물으시는 말씀이였다.

《일없습니다, 일없습니다.》

리종익은 안경테에 맺혀지는 눈물방울을 얼른 훔치며 이렇게 곱씹었다.

《리종익선생은 장군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는 저의 말을 잘 믿지 않더군요. 글쎄 슬그머니 턱까지 꼬집어보는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하하…》

김책이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려는듯 일부러 흉내까지 내며 큰소리로 웃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리종익의 손을 꼭 잡으시였다.

《사실 내가 이미전에 만나봤어야 하는건데 시간을 낼수 없어 이렇게 선생을 놀래웠습니다. 량해해주십시오.》

《아, 아닙니다. 빼앗겼던 이 나라를 찾아주시느라 혈전만리 고군분투해오신 장군님께 제 먼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함이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해방년이 이태가 지나도록 인사는커녕…》

그는 평양으로 올라오며 별치 않은 일신상의 문제만을 생각한 자

신이 죄스럽게 여겨져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인사는 오히려 내가 해야 합니다. 선생이야 일찍부터 안중근과 함께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성전에 나섰던 선각자구 애국지사가 아닙니까.》

《장—군—님!》

리종익은 끝내 목이 꽉 메여왔다.

자기자신까지도 성쌓다 남은 돌처럼 여겨온 인생을 이렇듯 값높이 평가해주시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였다.

《진정하십시오. 자, 어서 여기 편히 앉으십시오.》

리종익은 장군님께서 이끄시는대로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김책이 떠다주는 고뿌의 물을 사양하지 않고 마셨다.

그러고나니 좀 마음이 진정되는듯싶었다.

이슥하여 **김일성**동지께서도 그의 맞은켠 의자에 앉으시였다.

《우리는 선생이 그 애국의 한생을 계속 빛내여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만 다른 의견 없다면 만경대혁명학원 초대원장사업을 맡기려고 합니다.》

《예? 원장사업을 말입니까?》

리종익은 다시금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였으나 리종익은 잘 믿어지지 않는듯 다만 그이의 얼굴을 우러러보았다. 그도 도교육부장사업을 할 때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학원이 세워진다는것과 **김일성**장군님께서 학원창립문제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깊이 관심하신다는것을 여러 기회를 통해 잘 알고있었다. 그런데 그런 국가적의의와 관심이 돌려지는 중요한 교육기관사업을 자기가 맡게 되리라고는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였다.

그는 장군님께 량심적으로 말씀올려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장군님, 나같은게 어떻게 그런 중임을 감당해내겠습니까?》

《다름아닌 선생이기때문에 해낼수 있습니다. 선생이야 반일애국투쟁에도 참가했고 또 교육사업을 해본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야 나 말고도…》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그러시고는 천천히 책

상주위를 거니시였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더러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김책동무에게서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시간을 끈건 좀더 심중하게 알아보고싶어서 그랬습니다.

사직을 당한 선생이 무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고있으리라는것을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장군님, 저같은거야 무슨… 하지만 그토록 중요한 일을 제 자식도 길러본적이 없는 저에게…》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말을 막으시며 다정히 어깨를 잡아 의자에 다시 앉혀주시였다.

《아닌게아니라 그 일이 너무도 중요하고 무겁기때문에 원장을 선발하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선생을 학원원장으로 선발한것은 선생이 부모없는 학생들을 남달리 사랑하고 따뜻이 돌봐줄수 있다고 보았기때문입니다. 더구나 선생에게는 자식이 없다니 그 애들모두를 자기 친자식처럼 여기고 돌봐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할 말로 원장에게 친자식이 있으면 학원학생들을 자기 자식과 차별할수도 있고 자식들이 〈아버지, 아버지〉하면서 원장을 따라다니면 부모없는 학원학생들이 부러워하고 서러워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원아이들에게는 친아버지처럼 자그마한 간격도 없이 따를수 있는 원장을, 선생에게는 마음껏 사랑을 줄수 있는 끌끌하고 귀여운 자식들을 안겨주자는겁니다.》

진정에 넘친 그이의 사려깊으신 말씀에 리종익은 가슴이 후더워올랐다. 마디마디에 다심하고도 세심한 어버이의 사랑이 뜨겁게 담겨져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은 비단 학원아이들만을 념두에 둔것이 아니였다. 바로 리종익의 인생까지도 따뜻이 보살펴주시려는 고결한 인정이였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제 꼭 장군님께서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시여 맡겨주신 원장사업을 잘해보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말씀드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러는 리종익에게 마치 어린 자식을 선생에게

맡기는 부모의 그 마음으로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리종익선생, 선생이 맡아돌봐야 할 아이들은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피흘린 이 나라 혁명가들과 순국렬사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혁명학원은 단순히 부모없는 아이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고아원도 아니고 글이나 깨우치는 학당만도 아닙니다. 학원은…》
리종익은 그이의 절절한 어조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면서 말씀 한마디한마디를 폐부에 새기였다.
《…그 애국렬사들의 넋과 전통이 계승되는 곳으로서 명실공히 이 나라의 미래를 키워내는 원종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민족의 장래는 우리가 유자녀들을 비롯한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애국정신은 저절로 유전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선생이 귀중한 그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잘 돌봐주며 그들을 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키우리라고 믿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소탈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오늘부터 난 원장선생에게는 학부형으로 됩니다. 그러니 이 학부형에게 부탁할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허허…》
리종익은 웃었다. 그 웃음은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됨을 알리는 고고성과도 같은것이였다.
하지만 그의 내심에서는 눈물에 젖은 부르짖음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버림받던 고목에도 꽃을 피워주시는 장군님이시여! 크나큰 그 품에 운명을 맡긴 이 나라의 미래야말로 얼마나 밝고 창창한것인가!

7

드디여 만경대혁명학원청사설계가 세부설계에 이르기까지 다 끝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집무실에서 커다란 기대를 안으시고 올라온 설

계도면을 마주하시였다. 그러나 도면을 파고들수록 실망감으로 하여 가슴이 답답해오시였다. 설계가들이 품을 들이느라고는 하였으나 자신이 기대하셨던것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종항서기에게 북조선건축가동맹위원장과 평양시설계사업소 소장 그리고 리종익원장을 만경대로 부르도록 조직사업을 하라고 이르시였다. 제기된 문제들을 처리하고 만경대에 도착하시니 오전 10시경이 다 되였다.

학원건설장에서는 한창 기초파기공사가 진행되고있었다.

닷새전에 나와보셨을 때보다 많은 일자리를 낸것이 한눈에 알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종항서기의 련락을 받고 나온 일군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시고나서 학원건설사업소 소장 림춘석에게 그동안 많은 일을 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평안남도 농민부장사업을 하다가 학원건설을 책임지게 된 림춘석은 수더분하게 생긴 얼굴에 어줍은 미소를 지으며 몸둘바를 몰라했다.

《사실… 인민들의 지원이 큰 몫을 감당해주고있습니다. 여기에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학원이 건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평양시와 평안남도인민들, 특히 만경대지구인민들이 수많이 지원나오는데 하루에 평균 300명정도는 잘됩니다.》

《300명정도라…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좋은 인민들입니까. 우리 인민들의 이런 애국심이 있는 한 못해낼 일이란 없습니다. 소장동무는 인민들의 이런 열의에 맞게 작업조직을 짜고들어 어떻게 하나 래년 여름까지는 학원건설을 끝내고 새 학년도부터는 혁명가유자녀들이 여기 만경대에 와서 공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품성을 지닌 그를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우리가 해방후 이처럼 큰 건물을 처음으로 건설하는 조건에서 기초공사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여야 합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아무리 건물을 훌륭하게 지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만경대혁명학원교사를 만년대계로 잘 건설하여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건설장주변을 빙 둘러보시였다.

만경대에 들어서시면서부터 나무를 찍은 자리들이 군데군데 눈에 띄우셨댔는데 건설장 한복판에서 보니 그런 자리들이 더 많이 드러나있었다.

《나무를 망탕 찍었구만. 물론 자동차길도 내고 여러가지 작업설비들을 앉히자니 그런것 같은데 건설장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될수록 다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길 같은거야 나무가 없는 곳으로 좀 돌릴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이께서는 가슴아픈 어조로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림춘석이 자책이 어린 눈길을 떨구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질책이 아니라 당부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정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무를 찍지 말고 다른 곳에 옮겨심어야 합니다.》

《장군님,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림춘석의 목소리는 심한 자책과 새로운 결심이 한데 어울려 웅글게 들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밀림속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 전우들에게 그려보이군 하시던 만경대의 수려한 산촌풍경을 그들의 자식들에게라도 그대로 안겨주고싶은 자신의 심정을 더 터놓고싶으시였으나 긴장해 서있는 설계가들의 시선을 감촉하시고서는 그만두시였다.

그이께서는 펑퍼짐한 땅우에 설계도면을 펼쳐놓으시였다.

건축가동맹위원장 김응상과 설계사업소 소장이 서둘러 도면의 네귀를 맞춤한 돌로 지질러놓았다.

《동무들에게 인사치레의 말은 그만두겠습니다. 말그대로 인사가 아니라 치레로 되겠기때문에 말입니다.》

그이께서는 활달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였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건설현지에서 도면을 보니 좀 생각되는것이 없습니까? 현지의 자연지리적풍치와 이 도면에 그려진 건물이 어울리겠는가 말입니다.》

그들은 묵묵히 설계도면안을 내려다보았다.

《내 보기에는 청사내부설계를 유럽식으로 한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민은 원래 유럽식으로 지은 건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을 한채 지어도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게 지어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황해하는 그들의 심리적파동이 느껴져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

《학원청사는 우리 식의 현대적인 건물이 되여야 합니다. 그런데 도면에는 교사의 매 방들에 뻬치까를 놓게끔 단층으로 설계되여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사택건설이 예견되여있지 않고 난방과 상하수도를 현대적으로 설계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

김응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장은 나라형편이 어려워 실정에 맞게 설계를 하다나니…》

《그럼 교직원사택건설과 난방상하수도공사는 나라형편이 좀 펴인 다음에 한다는겁니까? 그때 가서 교사도 허물고 다시 짓는다?! 그건 오히려 나라에 더 큰 손해를 주는 대단한 랑비가 아닙니까.》

그이께서는 어이없으시여 눈을 크게 뜨시였다.

김응상이 머리를 푹 수그렸다.

대신 설계사업소 소장이 변명이나 하듯 부언했다.

《사실 우린… 나라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허가이동지의 의견을 쫓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였다. 아직도 학원창립을 강건너 불보듯 대하는 허가이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였다. 지도적위치에 있는 그의 이러한 립장과 태도는 크든적든 아래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있었던것이다.

물론 **김일성**동지께서는 굳이 그의 태도에 그 어떤 다른 목적이 있다고는 보고싶지 않으시였다. 그가 진정으로 나라사정을 두고 안타까와하던 나머지 그럴수도 있기때문인것이다. 그러나 큰 나라에 대한 환상, 큰 나라에서 하던 방식만이 똑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뿌리깊은 사대주의적관점과 립장이 문제였다. 언제면 조선혁명이라는 이 구체적인 토양에 그 뿌리의 한가닥 실가지라도 박고 살

겠는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설계사업소 소장에게 준절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소장동무, 그 어느 누구의 의견이 아니라 당의 의도와 인민의 기대를 따라야 합니다. 동무들은 점 하나를 치고 선 하나를 그어도 바로 이것을 똑똑히 알고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장군님,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설계를 다시하겠습니다.》

김응상이 자책질은 어조로 그이께 말씀올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를 바라보시였다.

《학원을 만년대계의 건물로 웅장하게 설계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습니다. 학원건설을 위해 바치는 우리 인민들의 저 뜨거운 열의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있지 않습니까.》

그이께서는 건설장의 여기저기서 걸싸게 일손을 제끼고있는 수많은 지원자들의 모습을 가리키시였다.

일군들은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이 비단 지원자들만을 념두에 두신것이 아니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우리 인민들은 애국미로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학원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로력적지원은 물론 헌금, 헌포운동을 적극 벌리고있었던것이다. 어제 《로동신문》에만도 남포제련소의 로동자들이 일요일마다 애국로동을 하고 그 생산비를 학원건축비로 바칠것을 결정한 소식과 생기령광산의 광부들이 받은 상금전액을 학원창립준비위원회에 기증한 소식들이 실렸다.

《우리는 인민들의 뜨거운 지성과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금과 자재에 구애되지 말고 설계를 한번 통이 크게 잘해보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설계일군들을 좀더 가까이 불러앉히시고 도면을 하나하나 짚어가시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였다.

《내 생각에는 학원본관을 2층으로 하되 지금처럼 외통식으로 하지 말고 량통식으로 크게 짓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 지대는 지층이 석비레로 되여있어 비가 와도 인차 스며들것이니 땅이 질지 않아 학생들이 뛰여놀기도 좋을것입니다. 본관을 뒤산이 가리우지 않

게 2층으로 지으면 지형에도 어울리고 뒤에 있는 산과도 조화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미처 그런것까지는…》

김응상이 전문설계일군들보다 더 많은 고심을 하시고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계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다시금 부끄러움을 금치 못해 하였다.

《본관 오른쪽뒤로는 강당을 붙여짓고 왼쪽뒤로는 체육관을 붙여 지읍시다. 체육관이 있어야 학생들이 추운 겨울에도 운동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산의 생김새와 대동강이 보이는것을 고려하여 본관옆에 그와 일직선상으로 앉히는것이 어떻습니까. 층고는 3층쯤으로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기숙사위치의 지대가 본관위치의 지대보다 낮은 조건에서 전체적인 조형미가 보장될수 있고 뒤산을 가리우지 않으면서도 주변의 경치와 잘 어울릴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방안입니다.》

설계사업소 소장의 얼굴에도 활기가 넘치였다.

《중요한건 기숙사를 그렇게 앉히면 방들에 해빛이 잘 들고 학생들이 방안에서도 대동강을 바라볼수 있어 좋을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난방은 증기난방을 놓을수 있게 설계하되 보이라실은 본관과 기숙사위치가운데에 있는 저 골짜기에 짓는것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추워하지 않게 용량을 잘 타산하여보고 보이라를 설치하되 굴뚝을 높이 쌓아 절대로 탄재가 학원구내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

말씀이 이어질수록 학원에서 공부하게 될 아이들에 대한 그이의 한없이 다심한 사랑과 끝없이 세심한 타산이 일군들의 가슴을 후덥게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계속하여 상하수도망에 대한 설계를 다시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지형조건을 잘 타산하여 그 어떤 추위에도 관들이 얼어들지 않도록 하며 음료수를 순화강물을 끌어다쓰기로 한 조건에서 려과장치를 잘하여 학원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뿐만아니라 본관 뒤산너머에 있는 산

기슭에 지형을 따라가며 단층과 2층으로 된 교직원사택을 짓고 집집에 증기난방과 수도가 들어가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래야 교직원들이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아침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심혈을 아이들을 위해 마음껏 쏟아부을수 있습니다.

원장선생, 그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이곳에서 생활하여야 할 주인이야 원장선생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원장선생을 오시라고 했던 겁니다.》

그이께서는 마치 그 어떤 황홀경에라도 취한듯싶은 리종익에게 시선을 주시며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였다.

리종익은 습관처럼 안경테를 눌러붙이며 감격한 어조로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학원이 건설되면 그건 학원이라기보다 궁전이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더구나 교직원사택에까지 증기난방과 수도물을 놓아주시겠다니 송구스러워 어쨌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장군님댁에서도 탄불로 구들을 덥히고 손뽐프로 물을 긷는다던데…》

《원장선생이 우리 집에서 생활하다가 학원에 간 순옥이랑 동일이, 봉호한테서 벌써 다 알아내셨구만요. 어쨌든 원장선생마음에 든다니 됐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일군들을 둘러보시였다.

《오늘 합의한대로 설계를 빨리 수정완성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춘석소장동문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작업을 할수 있도록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을 준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다음사업일정이 생각키우시여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시였다. 벌써 시간이 퍼그나 지났다. 이제는 학원건설장을 떠나셔야 할 시간이였다.

그이께서는 서둘러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차를 세워둔쪽으로 바삐 몇걸음 내짚으시였다. 그러시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조금 목소리를 높여 말씀하시였다.

《참, 원장선생, 학원창립준비위원회에서는 학원개원식을 10월 12일에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을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다시 알리도록 하겠으니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유자녀들이 더 찾아올수 있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의 제복도 여유를 푼푼히 두고 만들도록 관심을 돌리고 주변정리도 빨리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장군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들 만납시다.》

8

그들이 경상골의 어느 조용한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같이하게 된것은 순수 우연이였다.

만경대혁명학원청사설계문제를 놓고 방에 찾아온 김책으로부터 엄한 추궁을 받고나서 좋지 못한 심기로 퇴근길에 올랐던 허가이가 종로네거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서성거리고있는 오기섭을 보고 차를 세웠던것이다.

《오동무, 날도 저물어오는데 여기서 누굴 기다리고있는거요?》

《운전사녀석이 어디 자유주의를 했는데 내 기다리다못해 걸어서 집에 가다가 혹시나 해서 이러고있질 않소.》

오기섭의 말을 들으며 허가이는 불쑥 그가 얼마전에 자기 딸을 학원입학대상자명단에 넣었다가 말밥에 올랐던 일이 생각났다.

《자유주의야 운전사들의 제2천성인데 그쯤해두구려. 자, 어서 타시오. 이렇게 만났던김에 저녁식사나 같이하기요.》

무슨 생각에서였던지 오기섭이 군말없이 차에 올랐다.

이렇게 되여 그들은 우연히 한자리에 마주앉게 되였다. 원래 그들은 서로 경원시하면서 별로 알은체를 안하고 지내오던 사이였다.

허가이는 오기섭의 지방주의적이며 분파적인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었고 쏘련에서도 한물 푹 진 낡아빠진 리론을 거들때마다 쓴웃음을 지으며 촌닭보듯 해왔었다.

오기섭은 또 그대로 쏘련군대를 따라나와 로어번역원이나 하던 허

가이가 어느 가맹공화국에서 구역당사업을 했었다는것을 코에 걸고 한때 당안의 자기 자리를 차지한걸 아니꼽게 여겨온터였다.

그러나 한잔두잔 독한 술이 속에 들어가고나니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그 어떤 필요로 하여 오래전부터 꼭 만나고싶었던것처럼 생각되였다.

허가이는 키가 작달막하고 목이 앙바틈한 오기섭의 더부룩한 머리를 내려다볼사 하며 핀잔조로 말했다.

《내 생각엔 오동무가 처신을 좀 잘해야겠소. 뭐, 딸을 유자녀학원에 넣으려다가 되게 비판을 받았다면서? 오동무의 딸이 그 학원에 입학대상이 될게 뭐요?! 말그대로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학원인데…》

오기섭이 취기가 오른 두눈을 사납게 번뜩이며 그를 쏘아보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서 일종의 동정비슷한걸 보고는 하소연으로 넘어갔다.

《허동무, 난 일제의 총칼이 란무하는 국내에서 장기간 혁명을 한 사람이요. 나의 감옥생활년한만도 모두 합치면 13년이나 된단 말이요. 내가 지도한 홍원땅의 농조운동과 소작쟁의가 좀 적게 피를 흘린줄 아오?》

《그런데 간부문건을 보니 오동무도 한때 로씨야에 가있었고 또 1940년대에는 만주에 은신해있었더구만.》

《…》

허가이는 자기와 같이 해외에 있다가 온 사람들을 무시하는듯 한 그의 말에 은연중 기분이 상해 참지 못하고 한마디 던졌다. 그러나 말문이 막혀 가늘게 볼편을 떠는 그의 표정을 보고는 곧 말머리를 돌렸다.

《하긴 농조운동이나 소작쟁의를 허술하게 보면 안되지. 그러나 오동무야 죽지 않고 살아있질 않소.》

《살아있는 독립군령감의 자식은 되고 내 자식은 안된단 말이요?》

《허허… 월송선생을 념두에 둔것 같은데 그 령감의 사정은 좀 특수하오.》

《그 말인즉 그 령감이 이 오기섭이보다 더 특수한 존재라는건데?! 그런 령감의 자식까지 혁명가의 자식으로 떠받들리우는데 그래 이 오기섭이 같은 로혁명가가 응당한 대접을 받을수 없단 말이요?》

허가이는 흥분이 살아오른 그의 술잔에 술병을 기울여 다시 가득 채워주었다.

《그 말은 옳은데 그렇게 자기 개인감정을 섞어가지고는 원칙적인 날이 서지 않는거요. 털어놓고 말해서 그 학원에 세상에 알려진 큰 혁명가의 자식들이 몇몇이나 있소?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와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의 자식이라면 누구나 가림없이 다 품어주신단 말이요. 정말 인정이 남다르신분이지. 그 인간성에는 나도 깊이 머리숙여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요. 하지만…》

그는 오기섭의 얼굴을 흘끔 쳐다보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건 혁명적원칙성이 아니겠소. 지금 조선혁명은 사회주의의 모국인 쏘련의 기성경험을 도약대로 해서 하루빨리 사회주의국가를 창건하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다그쳐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에 직면해있단 말이요. 막대한 시간, 막대한 자금, 이 모든것을 여기에 기울여야 하는거요. 난 쏘련에서 집권당의 합법적인 당사업을 해본 경험을 가진 조선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이걸 주장할수 있소.》

허가이는 저도 모르게 자기의 말에 도취되여버렸다. 그러다가 자기의 말이 오기섭의 기분을 좀 거슬려놓고 또 그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멀어졌음이 느껴져 기운차게 손에 들었던 술잔을 슬며시 내려놓았다.

《이보우 오동무, 큰사람답게 자식문제는 대담하게 잊어버리오. 아, 큰 간부들의 자식들이야 그 학원보다 더 급수높은 학교를 세워 교육하는게 낫지. 사실 세상이 다 아는 큰 혁명가들이야 지금 간부들속에 있는게 아니겠소.》

《그건 사실이요.》

오기섭이 안색을 풀며 술잔을 들이켰다.

《그러니 오동무도 그런 소소한 개인문제때문에 원칙적인 선에서

탈선하지 말라는거요.》
《탈선이야 무슨…》
《내 사실 오동무를 만나기 전까지 김책동무와 론쟁을 하다가 나오던 길인데…》
허가이는 좀전에 있은 김책의 비판을 론쟁이라고 해버렸다.
《왜 계속 학원창립의 시기상조를 주장하면서 달가워 안하는가 하더군. 아마 학원청사설계도면문제를 놓고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이 좀 있은 모양이요.》
《에, 에… 난 그 량반과만 마주서면 어쩐지…》
오기섭은 빈 술잔을 든 손을 황황히 내저었다.
《그래도 할 말이야 해야지. 오동무도 학원문제와 관련해서 로동기술학원과 같은 좋은 해결책을 내놓았던 사람이 아니요.》
《아, 그거야…》
오기섭은 그거야 당신이 귀띔해준게 아닌가고 말하려다가 허가이가 말을 짜르는통에 중둥무이하고말았다.
《사실 그거야말로 안팎으로 실리에 맞는 방도였단 말이요.》
《하지만 어찌겠소, 인제야 아이들도 모여왔구 또 개원식날자까지 정해놨는데.》
《그래서 더러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소. 학원이라는게 단순히 유자녀들문제만이 아니란 말이요. 앞으로 세워질 공화국정권의 성격을 미리 세상에 선보이는것이나 같단 말이요. 무엇을 전통으로 삼고 무엇을 계승하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그 학원의 미래이자 이 나라의 미래가 아니겠소?!
…그런데 지금의 학원모양을 보면 친쏘우호적인 성격보다 독립자존의 성격이 더 강하거던.》
허가이는 자기가 진실로 우려하는 점을 솔직하게 터놓았다.
오기섭도 머리를 끄덕거렸다.
《하긴 아무 나라에서나 내각의 구성을 보면 그 내각의 성격과 립장을 알수 있는것과 같은 리치라고 볼수 있구만.》
《역시 모스크바공산대학졸업생이 다르군. 난 오동무와 같은 현명한 리론가들이 오늘 우리 나라가 처한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난문제들을 원

칙적으로 해결하는데서 용의주도하게 활동해야 한다고 보오.》

《허동무, 그건 조금도 근심마오. 우리끼리니 말이지 사실 김책이나 안길이 같은 빨찌산들이야 산에서 총이나 쐈지 언제 우리처럼 공부를 했어야 리론이 있지?!》

《아, 뒤에서 그런 말을 해서야 되겠소? 자, 술이나 마시기요.》

그들은 다같이 서로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소리가 나게 술잔을 맞쪼았다.

그러고보면 그들이 이 조용한 음식점에 서로 마주앉게 된것은 순수 우연이였지만 마주앉고보니 그들에게는 그것이 필연이였던듯이 생각되였다. 더우기 오기섭은 뼈에 절은 종파적습성으로부터 아직은 자기의 지반이 없다고 보아지는 허가이를 바싹 끌어당겨 영향력을 확대해볼 야심을 품었다. 이러한 종파적야심으로 하여 오기섭은 그후 끝내 반당반혁명의 길로 굴러떨어지고말았다. …

9

가을기운이 완연해졌다.

길가의 푸르던 은행나무잎들이 황금빛으로 짙게 물들고 한낮의 더위를 내놓고는 아침저녁으로 선들바람이 건듯건듯 불어댔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서늘한 가을기운을 미처 느끼지 못하시였다.

여름내, 가으내 학원학생들의 제복문제때문에 땀을 식힐 사이없이 드바삐 뛰여다녀야 하셨던것이다. 제복뿐아니라 모자와 신발생산도 다같이 밀고나가야 했으므로 국영피복공장과 보안간부훈련대대부피복공장, 군화공장 등을 오가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세심히 관심을 돌려야 하시였다.

옷의 바느질이 성글지 않은지, 가죽신발의 가죽이 짱짱하여 아이들이 신기에 불편하지 않겠는지…

그이께서는 학원학생들의 제복시제품착용상태를 직접 보시고 주신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모든 학생들의 몸에 꼭 맞는 옷을 만들기 위

하여 개학을 앞두고 학원에 돌아오기 시작한 아이들의 몸을 재려 몇 차례나 간리에 다녀오셨으며 그길로 또 공장에 나가 재단사들을 만나군 하시였다.

《다른 단체복 같으면 옷을 호수별로 만들어주어도 일없겠지만 학원학생들의 제복에는 최상의 성의를 다하자요. 그 애들은 모두 장군님께서 친부모가 되시여 말아키우는 혁명가유자녀들이 아니나요. 몸에 꼭 맞게 옷을 지어 이름까지 붙여서 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실 공장의 재단사들은 학생들의 체격을 년령별로 평균치수를 내여 제복호수를 4가지로 정하고 옷을 만들려고 계획하고있었다. 그리고 한창 자라는 아이들이라는데로부터 품과 길이를 푼푼히 하여 그들이 몇해 잘 입을수 있게 만들려고 생각하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러면 아이들이 남의 옷을 빌려입은것처럼 후줄근해보인다고 하시며 자라는것만큼 해마다 몸을 재서 옷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그들을 일깨워주시였다.

재봉작업장에 가시여서는 바늘뜸을 촘촘히 놓아야 옷이 보기도 좋고 든든해서 터지지 않는다고, 남자애들은 장난이 심하기때문에 바지가랭이와 저고리겨드랑 같은데는 특히 더 촘촘히 박아야 한다고 당부하군 하시였다.

또 언제인가는 단추구멍들을 균형이 맞게 잘 내지 못하였다고 걱정하시면서 친자식의 옷이라면 단추구멍이 좀 맞지 않아도 그냥 입힐수 있겠지만 학원아이들에게만은 그렇게 만들어 입힐수 없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한벌한벌의 학원제복마다 재단으로부터 재봉, 다림질에 이르는 완성공정에 이르기까지 김정숙동지의 다심한 사랑과 로고가 깃들어져 10월 초순에는 모든 학원학생들에게 모자와 신발을 포함한 제복을 일시에 다 착용시킬수 있게 되였다.

×

가을기운은 더욱 완연해졌다.

차창밖으로 흘러오고 흘러가는 야산들에서는 진홍색단풍잎들이 불길인양 숲을 물들이고있었고 그 기슭과 잇닿아 펼쳐진 논벌마다에서는 누렇게 잘 익은 벼이삭들이 구수한 향기를 풍기며 무겁게 고개를 짓수그리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황홀한 시선으로 그 모든것을 바라보시였다.

이 아름다운 가을풍치를 오늘에야 비로소 발견하신듯 그 모든것이 새삼스럽게만 여겨지시였다. 그동안 학원개원식전으로 아이들의 옷을 다 해입히느라 언제한번 편히 자리에 앉아 쉬여본적이 없으시였던것이다.

그뿐아니라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학원의 빵공장, 두부공장, 재봉실과 의무실을 꾸리는 사업도 돌보셔야 했고 겨울용김장과 염장을 저장할 움자리도 잡아주셔야 했다. 또한 개학식과 만경대에 건설하는 학원교사 기공식(기공식은 9월 10일 김보현할아버님을 모시고 진행되였다.)이 의의있게 진행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돌리셔야 했고 심지어는 학원아이들에게 모포와 베개를 모가 나게 정돈하는 방법과 침실거두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워주셔야 하였다.

며칠전에는 아드님과 함께 장군님을 모시고 만경대혁명학원건설장에 나가시여 기공식을 기념하여 백양나무를 심으시였다.

이제 학원개원식까지도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장군님께서는 개원식에 당과 정부, 사회단체 간부들과 유가족학부형들을 초청하고 이날을 명절처럼 크게 쇠도록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김정숙동지께서는 학원개원식준비정형을 미리 알아보시려 이렇게 또다시 간리로 가고계시였다.

차안에는 저택에서 사용하시던 재봉기가 실려있었다.

한창 장난이 세찬 아이들인데 집에서처럼 그들의 터진 옷을 제때에 수리하자면 아무래도 재봉실의 일손이 딸릴것 같으시여 싣고떠나신것이였다.

그이께서 학원에 도착하시였을 때 학생들은 한창 대렬을 지어 분렬행진훈련을 하고있었다. 리종익원장과 중앙보안간부학교에서 정치학교원을 하다가 학원정치부원장으로 배치되여온 리진영이 그이를 맞이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과 함께 개원식날 장군님을 모시기 위해 만들어놓은 가설주석단으로 가시였다. 주석단바닥의 견고성을 몇번이나 확인해보신 그이께서는 안도의 빛이 어린 어조로 그들을 바라보시였다.

《주석단을 견고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큰 행사인것만큼 주석단의 안전성보장을 위한데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주변산들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경각성을 높여야 하겠어요. 정치부원장동문 학원군사교관들과 주둔부대 군인들을 동원하여 저 주변산들에 대한 수색을 빈틈없이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정치부원장이 군복상의깃을 팽팽히 잡아당기며 대답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믿음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고나서 분렬행진을 하는 아이들에게 한동안 시선을 박으시였다.

《학생들이 처음해보는 훈련이여서 좀 힘들어하면서도 장군님앞을 행진해나간다는 기쁨을 안고 정열적으로 훈련하고있습니다.》

정치부원장의 말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굳이 그의 설명이 없이도 땀흘리며 훈련하는 아이들의 기특한 얼굴에서 무한한 행복과 환희의 열정을 읽고계셨던것이다.

붉은 줄이 쭉쭉 내리드리운 학원제복을 입고 씩씩하게 행진해나가는 저 름름한 모습들… 과연 저 모습들을 보고 그 누가 그 애들이 얼마전까지만도 베잠뱅이에 토스레를 걸쳤던 불쌍한 소년, 소녀들이였다고 상상이나 할수 있으랴.

볼수록 대견하고 볼수록 황홀하시였다. 여기로 오시면서 보신 그 가을풍경도 아이들의 저 모습, 저 광경에는 비할바가 못된다는 생각이 드시였다. 아무리 바라보아도 눈길을 떼고싶지 않으시였다.

장군님께서도 이틀전에 제복을 입은 아이들의 모습이 또 보고파 못견디겠다고 하시여 함께 나오시였었다. 그런데 이틀도 채 안되였는데 아이들의 그 모습이 더더욱 새롭게만 느껴지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이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신채 리종익에게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원장선생님, 장군님께서는 지난날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온 저 애들에게 뜻깊은 개원식날에 큰 잔치를 차려주자고 하셨는데 마음먹고 특식을 준비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종익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헐떡거리며 주석단쪽으로 달려왔다. 군관복차림의 젊은 청년이 그이께 거수경례를 하며 인사했다.

《녀사님!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아니?!… 이게 누구예요? 영진동무, 차영진동무로구만요.》

그는 다름아닌 차영진이였다. 어깨에 척 별까지 달고 나타나니 어제날의 더꺼머리 화물역조수를 미처 알아보지 못할번 하시였다.

《학원 초급반학년 중대장으로 배치되였습니다.》

정치부원장이 그이께 설명해드리였다.

《그건 나도 알고있었어요. 장군님께서 학원에 파견되는 군사교관들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임무를 주셨다고 하시면서 영진동무에 대해 말씀하시더군요.》

《장군님께서 말입니까?》

《예, 그런데 동문 장군님께 차라리 전투구분대 소대장으로 보내달라고 떼를 썼다면서요?》

《사실…》

차영진은 무슨 말인가 더 하려는듯싶었으나 그럴 장소가 못된다고 생각했던지 슬슬 뒤머리만 만지작거렸다.

김정숙동지께서도 그의 심정이 헤아려지셨으나 그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잇지 않으시고 다른 화제를 꺼내시였다.

《영진동무가 백산이를 찾느라 수고가 많았더군요. 참, 그때 나를 찾아왔던 백산이 누이 소식은 알고있어요?》

《춘희선생 말입니까? 저… 무산에서 교편을 잡고있다는것밖에는 더…》

이렇게 말하는 차영진의 얼굴은 왜서인지 슬며시 붉어졌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당황해하는 그의 모습에서 어쩐지 이상한 감촉을 느끼시였으나 그저 빙그레 웃고마시였다.

《그런데 전번에 왔을 때에랑 내가 왜 동물 보지 못했댔을가? 어디 갔댔어요?》

《예, 장군님께서 학원학생들이 군사훈련을 할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해주라고 말씀이 계셨기에 설비구입때문에…》

《그랬었군요. 자, 어서 학생들에게 가보세요. 나때문에 훈련이 지장을 받아서야 안되지요. 어서요.》

차영진이 다시 거수경례를 하고 달려가자 김정숙동지께서는 학원일군들과 함께 주석단을 내려 교사안으로 들어가시였다.

《원장선생님, 일전에 장군님께서 일부 침실들의 창문이 잘 맞지 않는걸 보시고 심려하셨는데 어떻게 되였습니까?》

그이의 물으심에 리종익이 지적을 받았던 그 침실들의 방문을 열어보이며 말씀올렸다.

《늦게나마 대책을 세웠습니다. 장군님말씀대로 바람이 불어도 열리지 않게 잘 손질해주고 걸개고리까지 달아주었습니다.》

리종익의 설명을 들으며 다음방으로 걸음을 옮기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비여있는 복도를 새삼스레 바라보시며 《복도에 있던 신발장들이 다 없어졌군요.》 하고 혼자말처럼 뇌이시였다.

《예, 다 침실에 들여놓았습니다.》

리진영정치부원장이 뜨거움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이틀전 장군님께서 학원에 오셨을 때까지만 해도 신발장들은 모두 침실복도에 놓여있었다. 신발장을 들여놓으면 침실이 좀 좁아보였던 것이다.

원장을 비롯한 학원일군들은 오히려 그것이 침실의 문화성을 보장하는데도 더 좋다고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신발장을 침실밖에 놓으면 겨울에 신발이 차서 아이들의 발이 시릴수 있다고 하시며 방안에 들여놓도록 하라고 이르시였다. 아직도 한낮이면 더위를 피해 그늘을 찾아들군 하는 이때에 장군님께서만은 벌써 겨울에 아이들의 발이 시릴수 있다고 걱정해주신것이였다.

《정말이지 장군님께서 이 애들을 위해 그렇게까지 세심히 마음쓰

실줄은… 설사 친부모인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난 그저 자신이 민망스러울뿐입니다.》

리종익원장도 그날 일이 돌이켜진듯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팔을 다정히 부축해주시며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였다.

《원장선생님, 물론 우리가 장군님의 그 높으신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릴수야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뜻의 십분의 일 아니, 백분의 일이라도 따른다면 자기가 맡은 사업을 능히 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가요?!…》

리종익은 자기에게 힘을 주기 위해 애쓰시는 녀사의 마음이 고마와 두눈을 슴벅이였다.

이때 나머지 두개 침실의 문이 거의 동시에 열리면서 사람들보다 먼저《어머니!—》하는 환성소리가 복도로 튀여나왔다.

그러더니 한 침실에서는 남자아이들이, 다른 침실에서는 녀자애들이 앞치닥뒤치닥하며 달려나왔다. 여섯명의 아이들은 제 먼저 그이의 품에 안기겠다고 싱갱이질하며 다가왔다. 귀에 익은 아이들의 목소리와 낯익은 그 모습들에 피여오르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두팔을 벌리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음순간 우뚝 굳어지시였다.

앞에 다가온 애들을 보니 전혀 낯설게 생각되시였던것이다.

학원에서는 이미 볼수 없는 베잠뱅이, 토스레치마를 입고있는 아이들… 이 애들은 누구일가? 새로 온 아이들일가?…

그러나 분명 낯익은 아이들이였다. 도저히 영문을 알수가 없으시였다.

리진영이 그이의 의아해하심을 나름대로 리해하고 설명해드렸다.

《이 애들은 오늘 각각 남녀침실당번들이여서 좀 일찌기 훈련에서 떼여 침구류정돈을 시켰댔습니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힘껏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그 애들을 한사람한사람 뜯어보시였다.

《영봉이, 창국이… 그리고 넌 봉순이, 금옥이… 분명 너희들이 옳지?! 그런데 그 옷은 뭐냐? 도대체 그 베잠뱅이들은 왜 또 입고있는

거야, 응?》
그제서야 그이께서 왜 그토록 놀라와하시는가를 깨달은 아이들은 서로의 옷주제를 마주보며 저희들도 우스운지 키득거렸다.
어쩐지 노여운 생각이 드시였다. 그만큼 놀라움이 크셨던것이였다.
《똑바로 말하지 못해? 어머닌 속이 활랑거려죽겠는데 너희들은 키득거려? 어서 말해봐라.》
김정숙동지께서 진정으로 노여워하시자 아이들은 흘끔흘끔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그러다가 그중 나이가 어린 영봉이가 죽어들어가는듯 한 소리로 말했다.
《저… 사실은… 봉순누나가 수업과 일과생활에 안 참가할 때 새옷을 벗고 본래 입었던걸 입으라고 해서…》
《그건 왜? 봉순이, 네가 말해봐라. 도대체 왜 그랬느냐 말이다. 그래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더냐?》
너무도 속이 상하시여 목소리까지 심하게 갈리시였다.
안타까움에 겨운 그이의 절절한 물으심에 열두살난 봉순이는 그만 고개를 푹 수그렸다. 눈물이 방울방울 그의 신발코숭이에 떨어졌다.
그는 가랑가랑 물기가 끓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예요, 사실은… 새옷이 너무… 아까와서…
장군님과 어머님이 주신 그 옷을 조금이라도 아끼느라고…》
지그시 심장이 저려오시였다.
핑그르 눈물이 고이시였다.
와락 봉순이를 껴안으시였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김정숙동지께서는 더 말씀을 잇지 못하시였다.
그이의 두볼로는 뜨거운것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아, 얼마나 헐벗고 지지리도 고생을 했으면 그 새옷이 그리도 소중해 철없는 아이들이 이렇듯 아껴입을 생각까지 다 했으랴!
난생처음 자기들을 따뜻이 품어주는 장군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마왔으면 이 어린것들이 그런 속깊은 생각을 다 했으랴!…
얼마나 소박하고 깨끗한 마음씨를 지닌 아이들인가.

김정숙동지께서는 눈물을 훔치시며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정에 겨워 바라보시였다. 하지만 마음은 아프시였다.

너무도 때이르게 아이들의 가슴속에 찾아온 그 어른스러움이 마음에 맺혀오시였다.

부모가 있는 여느 아이들처럼 투정질도 하고 조를줄도 아는 그런 평범한, 그런 아이다운 아이들을 보고싶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하나하나 그 애들을 쓰다듬어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일없다, 아껴입지 않아도 된다. 새옷을 입고 마음껏 뛰여놀아라. 꿰지면 또 새옷을 해주고 작아지면 또 해주지 않으리.

다시는 절대로 이 베잠뱅이를 입지 말어라. 너희들의 몸에서 이 베잠뱅이를 벗겨주시려고 장군님께서 모진 고생을 참고견디시며 나라를 찾아주시고 오늘까지도 그토록 마음쓰고계시는데 너희들이 그런 옷을 입은걸 보시면 너무 가슴이 아파 또다시 눈물을 흘리실거다.》

《어머니!》

아이들은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그이의 품에 다같이 안겨들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영원히 베잠뱅이를 모르고 살게 될거야. 그건 세상에서 가장 너희들을 사랑해주시는 아버지의 품이 있기때문이란다.》

아이들을 한품에 꼭 안고 그이께서는 등을 다독여주시였다.

《자, 어서 들어가서 새옷들을 갈아입거라. 다시는 이 어머니를 놀래우지 말아.》

아이들은 달려나올 때처럼 다시 침실들로 달려들어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의 뒤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접도록 바라보시였다.

《사실 우린 아이들의 저런 행동을 그저 기특하다고만 생각하면서 미처…》

리진영이 죄송스러운듯 머리를 숙이며 말씀드렸다.

《생각은 기특하지만 우린 절대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수 없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미 학원학생들의 체육시간이나 일상 내무생활에

편리한 운동복을 갈음옷으로 더 만들어주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입고왔던 베잠뱅이들은 모두 걷어야 하겠어요. 그들의 눈물겨운 지난날의 흔적을 말끔히 없애주자요.》

《알겠습니다.》

그때 또다시 침실문들이 열렸다.

아이들이 달려나왔다.

저고리와 바지마다에 붉은 줄이 쭉쭉 그어져있고 어깨에는 위풍있게 견장까지 단 학원제복을 척 입은 아이들이 저저마다 소리치며 달려나왔다.

《어머니!》

《어머니!》

10

1947년 10월 12일, 이날 오전 9시 30분, **김일성**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당시 평양혁명자유가족학원)의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하여 개원식장에 나오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도 아드님과 함께 뜻깊은 개원식에 참가하시였다.

학원운동장은 개원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온 북조선 각 정당, 정권기관, 사회단체대표들과 항일혁명투사들, 혁명가유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뿐만아니라 재령군인민들의 애국지성을 담아 5대의 자동차에 239가마니의 쌀을 싣고 온 김제원농민과 유창립농민을 비롯하여 애국미헌납운동선구자들과 학원지원사업에 공로가 있는 애국적인민들도 참가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체 개원식참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면서 학원학생대렬을 사열하시고 주석단에 오르시였다. 개원식시작을 알리는 《애국가》의 장중한 주악이 끝나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할것을 제기하시였다.

희생된 혁명동지들을 추모하여, 혁명선렬들을 추모하여 그리고 부

모들을 추모하여 참가자들은 깊이 머리를 숙이였다.

묵상이 끝난 후 개원사와 보고에 이어 학원학생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학원개원식을 축하하여 연단에 나서시였다.

학원제복을 그쯘하게 차려입은 300여명의 학생들이 소대, 중대단위로 대렬을 짓고 서서 머루알같은 눈동자를 반짝이며 연단에 나서신 그이만을 우러러보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뜨거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시였다. 아이들의 그 름름한 모습, 티없이 맑은 그 눈동자들이 가슴뻐근하도록 안겨오시였다.

잊을수 없는 모습들, 잊혀지지 않는 얼굴들이 언뜻언뜻 눈앞에 비껴왔다.

그래… 안도의 수림속에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의 첫 대오에 서있던 저 애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저러했지… 조국진군의 원정대오속에서 나를 바라보던 저 애 아버지의 눈빛도 신통히 저러했어…

그이께서는 자꾸만 갈마드는 이런 생각을 애써 털어버리시며 깊은 호흡을 들이키시였다. 어쩐지 연설을 제대로 할것 같지 못한 생각이 드시였다.

시작부터 목소리가 심하게 갈리시였다.

《학생여러분!

오늘은 만경대혁명학원을 개원하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나는 이 영광스러운 날에 제하여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강도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용감하게 싸우다 희생된 혁명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는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혁명적지조를 굳게 지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희생된 혁명가의 유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민족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애국자로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생명의 최후순간까지 피를 흘리며 싸우다 희생된 혁명렬사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민족이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입니다.

나는 전체 인민들과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대표하여 당신들에게 뜨

거운 축하를 드리는바입니다.》

우렁찬 박수소리가 운동장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박수를 칠수가 없으시였다.

또다시 잊을수 없는 전우들의 모습이 가슴에 사무쳐오시였던것이다.

이 기쁜 날에 이러면 안되겠다고 몇번이나 마음을 다잡으셨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내려다보기만 하면 자꾸만 눈굽이 젖어들고 눈앞이 흐려지시였다. 이 자리가 공식적인 연단만 아니였더라도 그이께서는 더이상 연설을 하지 못하시였을것이였다.

그러나 하셔야 했다. 학원아이들이, 유가족들이 아니, 모든 행사참가자들이 자신을 지켜보고있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마음을 진정시키시느라 다시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키시였다.

《…

여러분의 부모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다가 광복된 조국을 보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희생… 되였습니다. 그들은… 희생되면서 자기들은 비록…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보지 못하지만 조국이 해방되는 그날 자식들을 공부시켜 인민의 훌륭한 충복이 되도록 잘 키워달라고 부탁… 하였습니다.》

끝내 그 갈리던 목소리마저 더 이을수가 없으시였다. 눈물이 걷잡을새없이 흘러내리셨던것이다. 몇번이고 손수건을 눈가에 가져가시였지만 눈물은 자꾸만 샘솟아 앞을 가리웠다.

운동장의 여기저기에서도 흐느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도 울고 어른들도 울었다. 아이들은 엉엉 소리를 내며 울고 어른들은 입술을 깨물고 소리를 참아가며 울었다.

김일성동지께서도 지그시 입술을 깨무시였다.

어떻게 하나 자신을 다잡으려고 모지름을 쓰시였다.

(얘들아! 날 용서해라, 이 기쁜 날 너희들까지 울릴줄은 미처 몰랐구나. 하지만… 하지만 너희 아버지, 어머니들은 날 리해해줄거다. 너희들의 그 끌끌하고 대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너희 부모들도 너무 기뻐 땅속에서나마 소리내여 울게다. 그래서, 그래서 나도 이

렇게 우는거란다. 너희 부모들과 함께… 너희 부모들과 함께!…)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 전생애에서 공식적인 행사연단에서 이렇듯 연설을 도중에 멈추신것은 이것이 처음으로 있은 일이였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그이께서는 연설을 계속할수 있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조국에 개선하자 곧 혁명렬사의 유자녀들을 찾았으며 여러분들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이 학원을 세웠습니다.

나는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제하여 여러분이 우리 전체 인민이 기대하는 새조선의 씩씩하고도 새로운 민족간부가 될것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돌아가신 부모들의 뜻을 이어 어느 학교의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학생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여야 하겠습니다.

…

나는 여러분이 과거 부모들이 모든 곤난과 희생을 무릅쓰며 용감히 투쟁한것을 항상 잊지 말고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과 자기 학교를 사랑하며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명심하여 훌륭한 새 국가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하는바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훈시를 마치시였다.

순간 장내에는《**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10월의 맑고 푸른 하늘가로 끝없이 울려퍼지는 그 환호성은 한없이 고결한 혁명적의리심과 숭고한 미래관을 지니시고 그처럼 어렵고 복잡다단한 새 조국건설의 첫시기에 벌써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학원을 세워주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 위대한 아버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끝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가 뜨겁게 어려있었다.

개원식에서는 이어 북조선인민위원회와 북조선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북조선애국투사후원회,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가유가족대표들의 축사가 있었고 전국각지에서 보내온 수많은 축기와 축전, 축문이 소개되였으며 학원학생대표의 피끓는 선서문이 랑독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으로 개원식이 끝난 다음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분렬행진과 체육대회, 예술공연과 경축연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하루 학원학생들과 유가족들속에 계시며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뜻깊은 개원식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다.

《그 애들의 밝고 씩씩한 모습을 보니 나도 가슴아프고 설음많던 옛일들이 잊혀지고 기분이 명랑해지누만. 김책동무나 정숙동무의 마음도 그렇겠지.》

개원식을 마치고 돌아오시면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승용차뒤좌석쪽으로 고개를 약간 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예, 학원아이들만이 아니라 나도 다시 세상에 태여난 기분입니다. 정말이지 이젠 장군님께서 한시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허허…》

김책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김일성동지께서도 김정숙동지께서도 함께 웃으시였다.

《김책동무의 말대로 정말 한시름 놓을수 있을가?…

정숙동무의 얼굴을 좀 보오, 얼굴색이 좀 어두워보이질 않습니까?》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시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저… 개원식을 마치고나니 어쩐지…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유자녀들을 더 훌륭한 학원교사에서 공부시키지 못하는것도 마음에 걸리고 또…》

《또 아직도 찾지 못해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남의 집 아이보개나 심부름군노릇을 하고있을 전우들의 자식들생각이 더 가슴에 맺혀오겠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의 즐거운 기분을 흐릴가봐 저어하며 더 말씀을 잇지 못하시는 김정숙동지의 심정이 헤아려져 그뒤를 이어주시였다.

《개원식에 참가한 학생들속에는 동북에서 온 아이들이 얼마 안되오. 아마 림춘추동무의 사업이 헐치 않은 모양이요. 동북땅의 그 애들도 모두 찾아서 하루빨리 학원으로 데려와야 할텐데…》

김일성동지께서는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먼 산발들을 오래도록 말없이 바라보시였다.

저 산발들너머 그 어디에선가 헐벗고 굶주려 쓰러진 유자녀들

의 신음소리가, 설음에 젖은 그 애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듯싶으시였다.

…이제 그 애들을 모두 찾아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가셔주어야 할텐데 그 일이 결코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학원을 세운데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혁명가유자녀들이 얼마나 많아 그들을 위한 새 교사까지 따로 세우겠는가고 시비하고있다. 그까짓 시비는 두렵지 않지만 아닌게아니라 건물을 하나 짓자고 해도 아직은 나라사정이 어렵다. 해야 할 큰일은 또 얼마나 많은가. 정규군문제, 공화국창건문제, 첫 인민경제계획수행문제…

그러니 개원식을 하였다고 해서 한시름 덜어졌다고 볼수 없다. 오히려 만시름이 앞에 있다. 학원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차창밖을 바라보고계시였다. 지금 그이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계신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계시는 김정숙동지께서도 아무 말씀없이 창밖을 바라보시였다. 김책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즐거운 날의 무거운 침묵을 싣고 승용차는 조용히 달렸다.

제 4 장

1

중국 만주에서 혁명의 중심지, 전파지는 150여만의 조선사람들이 밀집되여있던 연길, 안도, 화룡, 왕청, 훈춘 5개 현을 포괄하는 동만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남달리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정치적으로 각성되였던 이곳 인민들은 일제패망후에도 쏘련군의 철수와 더불어 시작된 장개석군대의 만주강점을 반대하여 각지에서 무장대오들을 조직하고 연변지구 방위에 떨쳐나섰다.

그 시기 조선청년들치고 거리와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이 되지 않았다. 조직된 무장대오들은 한개 군으로 통합되여 길동군으로 편성되였는데 그 초기사령관은 다름아닌 강건이였다. 이렇게 조직된 길동군은 그후 전선에 나가 장춘공격전을 거쳐 동북지방을 해방하고 중국남쪽인 해남도에까지 진출함으로써 중국인민의 해방위업에 적극 기여하였다. 동북해방작전인 료심전역을 감당수행한 중국인민해방군 제4야전군의 주력을 이루었던 제3, 4, 5, 12, 16사단은 바로 이러한 조선인사단들이였다.

그러나 림춘추가 **김일성**동지의 위임을 받고 동만으로 왔을 당시에는 아직 연변지구인 돈화계선에서 적들과의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고있을 때였다. 연변지구는 동만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여있었으며 비옥한 논과 밭이 많은 연길, 화룡, 왕청, 훈춘, 안도, 돈화현 등을 포괄하고있었다. 동만의 중심지인 연길에는 후퇴하여온 길림성당과 성정부가 있었고 연길현당, 현정부가 자리잡고있었다.

림춘추는 중국당과 길림성정부의 요청에 따라 길림성정부 연변독찰전원공서 전원(초기 직명은 민족사무청 청장이였으나 인차 기구개

편되였다.)사업을 맡았다. 그리고 길림성당위원과 연변지구당위원회 부비서를 겸하였다. 그는 연변의 정세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는것으로부터 사업에 착수하였다. 당시 동만땅의 정세는 혼란된 상태에 처해있었다.

그것은 토지개혁을 둘러싸고 극좌적으로 진행된 일부 좌경분자들과 대오내 반동들의 책동으로부터 초래된것이였다.

중국당에서는 일제패망후 해방지구들에서 지체없이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혁명력량을 장성시키고 이에 기초하여 전중국에 대한 해방위업을 완성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연변지구의 토지혁명에서는 좌경분자들과 대오내에 잠입해있던 반동들의 책동으로 하여 이른바 빈고농로선을 만능으로 휘두르면서부터 이 사업에서 당의 령도가 무시되고 자연발생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되였다. 그들은《빈고농탄》(빈고농의 말은 절대적이다. 빈고농의 말은 곧 하늘의 법이다.)이라고 하면서 일제시기 사무원, 교원, 문화인 등 지식인들을 일제의 앞잡이로 거의모두를 청산대상으로 규정하고 가산을 몰수하여 내쫓았으며 농촌들에서는 조선인들이 가지고있던 토지를 극빈농을 제외하고는 모두 몰수하였다. 지어 소학교의 나어린 학생들이 자기 선생에게 고깔을 씌여가지고 끌고다니였으며 자식이나 남편들이 전선에서 싸우고있는 후방가족들까지 청산하였다. 이통에 하급중농, 농업로동자, 소작인들까지도 토지를 분배받지 못하였으며 일부 머슴군들까지도 지주의 앞잡이라고 하면서 토지분여대상에서 배제되였다.

빈고농위원회는 생사판결권까지 가지고있었는데 만일 이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항거하면 체포하여 군중심판을 열고 처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한 일제가 오래전부터 뿌려놓은 민족리간정책의 후과를 교묘하게 리용하여 조선족학교들을 폐쇄하고 저들이 차지하거나 조선족들이 운영하던 식당, 회관, 공공건물, 출판인쇄소들을 몰수하기도 하고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다니는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입지 못하게 하였다.

조선사람들속에서는 불안과 공포가 심해지고있었으며 애매한 사람들이 수많이 청산되여 서로 울고불고 그 소식이 전선에까지 전해져 부대들에서 대원들을 파견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성당과 현당의 간부들은 이러한 사태가 뻔히 잘못된것이라는걸 알면서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저 이제 얼마후이면 질서가 정책대로 바로잡힐것이라는 막연한 소리만 하고있었다.

이러한 정황에서 림춘추는 좌경분자들의 책동으로부터 조선사람들의 권리와 리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부터 벌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길림성 성장인 주보중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강제로 빼앗긴 조선족들의 토지와 재산중에서 다시 찾을 대상을 정하고 조선족들의 소유였던 공공건물과 식당, 상점들도 다시 찾아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류소기, 주덕, 주은래를 비롯한 중앙의 간부들을 만나 연변지구의 조선족자치문제를 **김일성**동지의 뜻대로 해결하였다.

뿐만아니라 조중인민들사이에 쐐기를 박고 리간을 조성하여 분렬시키려는 반동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도 벌려나갔는데 정체를 숨기고 연길현정부에 잠입해있던 현장을 비롯한 원쑤들의 죄상을 폭로하고 처단해버리였다. 동만에서의 그의 활동은 항시적인 위험을 동반하고있었다. 원쑤들은 연변전원공서 전원으로서 조선사람들을 조직화하고 조선사람들의 권리와 리익을 지키기 위한 그의 정력적인 사업을 두려워하면서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조국을 떠나올 때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권총을 가슴에 품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려나갔다. 연변의 동포들에게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새 조국건설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조국소식을 제때에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민족적긍지와 자신심에 넘쳐 살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으며 조중인민의 공동의 원쑤들을 격멸하는 투쟁에서 맺어진 친선과 우의를 귀중히 여기고 전선원호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조직동원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조선인소학교, 중학교들을 내오고 연변인민대학을 창설하였으며 조선사람들이 운영하는 큰 병원을 세우고 연변조선족가무단을 조직하고 《동북조선일보》를 발간하는 등 교육, 문화, 보건 모든 부문에 걸쳐 **김일성**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빛나게 실현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것은 몇해후의 일이였다. 아직은 1947년 마가을이였던것이다. …

당시 연변지구의 그 복잡다단한 모든 사업을 밀고나가는 속에서도

림춘추는 동북에 있는 항일혁명렬사유자녀들을 모두 찾아 조국으로 보낼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과업과 하늘땅끝에까지 가서라도 그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하신 김정숙동지의 당부를 한시도 잊지 않고있었다. 그는 연변전원공서 전원으로서의 그 드바쁘고 복잡다단한 속에서도 혁명가유자녀들을 찾아 학원에 보내기 위한 사업을 자신이 직접 장악하고 진행하였다. 그 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왜놈들의 탄압과 감시를 피해 그때 벌써 다른 고장이나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렸고 돌볼 사람이 전혀 없는 고아들은 정해진 곳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심부름이나 담배장사, 껌장사, 심한 경우에는 동냥질이나 소매치기를 하였다. 여기에다 좌경분자들의 극좌적인 토지개혁바람에 적지 않은 항일투쟁연고자가족들이 청산당하였으며 살길을 찾아 어디론가 떠나가버렸다.

림춘추가 간신히 선을 잡아 왕청현 석현에서 살고있다는 오태희로인일가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그들도 청산바람에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행처없이 숨어버린 뒤였다. 유가족들도 또 그들의 행처를 알만한 사람들을 찾아내기도 결코 헐치 않았다. 더우기 동북땅의 많은 지역을 장개석군대가 차지하고있고 연변계선에서 적들과의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지고있던 당시의 조건에서 이것은 더욱더 어려운 문제로 제기되였다.

그는 우선 신문에 광고문을 내기로 하였다.

《혁명가유자녀들을 찾습니다.

부모이름　×××

나　　이　××

고　　향　×××××

전 주 소　×××××

상기분들의 가족들이거나 혹시 행처를 아시는분들은 연변전원공서 림전원을 찾아오시기 바람.》

신문을 매일 보지 못할수도 있다는것을 타산하여 광고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내군 하였다. 사람들을 보내여《길림일보》에도 내고 남만과 북만의 신문들에도 냈다. 이것은 막대한 자금지출을 동반하는 사업이기도 했다. 그는 한편으로 무역회사를 내오고 혁명가유자녀들

을 찾아 조국에 내보내는 사업과 학교운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일도 벌려나갔다.

언제한번 편히 앉아있을 시간조차 얻기 힘들었다. 성당과 성정부를 비롯한 중국간부들과의 사업, 시, 현정부와 당조직들에 조선인간부진영을 꾸리는 사업, 전선원호사업과 민족교육준비사업…

일감들은 산더미처럼 쌓이고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갔다.

조국에서 10월 12일에 학원개원식을 진행하였다는 소식이 왔다.

감격과 기쁨의 순간에 뒤이어 죄스러움과 자책감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그는 안주머니에 소중히 건사하고 다니던 수첩을 또다시 꺼내놓고 밤새 깊은 생각에 잠겨 잠들지 못하였다. 평양을 떠나올 때 김정숙동지께서 혁명가유자녀들을 찾는데 도움이 될거라면서 보여주신 가지색수첩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넣은 수첩이였다.

수첩의 글줄들을 하나하나 다시 뜯어보느라니 하늘땅끝에라도 가서 유자녀들을 찾아내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하신 김정숙동지의 그 절절한 당부가 심장에 마쳐왔다.

(너무도 실무적으로만 생각했어. 그들이 제발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있었으니…

장군님께서 얼마나 근심하며 애타게 기다리고계시겠는가. 유자녀들을 다 찾을 때까지는 밤잠조차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실텐데…)

림춘추의 눈에는 개원식장에서 아직 오지 못한 동북의 유자녀들을 생각하시며 무거운 마음으로 서계셨을 장군님의 모습이 보이는듯싶었다.

속이 끓어번졌다. 밖에 나가 목청껏 소리라도 치고싶었다.

—얘들아! 너희들 어디에 있느냐? 당장 나타나거라, 장군님께서 기다리신다!—

연길의 심병윤의 가족, 박길의 아들, 현용태의 가족, 왕청의 오태희일가… 그들모두의 행처가 아직은 묘연하다. 그들뿐만아니라 수많은 유자녀들의 소식도 아직은 알수 없다.

림춘추는 사연깊은 수첩을 손에 꼭 쥐였다.

김정숙동지의 절절한 당부가 그 수첩에서 다시금 울려오는듯

싶었다.

《하늘땅끝에 가서라도… 하늘땅끝에 가서라도…》

(내 꼭 동만땅을 다 뒤져서라도 아니, 온 만주땅을 다 뒤져서라도 유자녀들을 다 찾아내고야말겠습니다.)

그는 몇번이고 이렇게 속다짐을 하였다.

래일은 왕청현으로 나가야 하였다. 조선사람들의 피해가 제일 혹심한데가 왕청이였던것이다. 그곳 실태를 바로잡으러 나가는 기회에 오태희로인일가의 행처와 아울러서 오중화와 함께 싸우다 희생된 연희상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생각하였다.

연희상이라는 이름은 조국에 있을 때 장군님께서 전창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그의 영웅적인 최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것을 듣고 새겨두었던 이름이였다. 그가 희생된것은 1933년이라고 했었다. 사실 그는 그 시기의 왕청사람들을 연길이나 안도, 훈춘사람들처럼 잘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알아야 하였다. 그리하여 이번 길에 1930년대 초시기 왕청에서 희생된 혁명가들에 대해 빠짐없이 장악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는 수첩을 소중히 품에 넣었다.

2

그것은 집이 아니였다.

지붕도 없고 처마도 없고 창호지를 바른 문짝도 없는 다만 입구에 가마니짝을 쳐놓아 그안에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있다는것을 겨우 알수 있는 그리 크지 않는 동굴이였다.

그러나 연형묵에게 있어서 이곳은 집이였다. 그것도 15살이 되는 올해까지 근 7년째나 살고있는 정이 든 집이였다.

동굴바닥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서있을 정도로 깊이 파내고 거기에 통나무들을 가지런히 붙여놓고 칡넝쿨로 든든히 비끄러매놓았다.

통나무우에 가랑잎을 두텁게 깔고 역시 가마니짝들을 올려놓았다.

그우에는 목침 두개가 가지런히 놓여있고 한쪽벽에서는 대낮에도

광솔불이 타고있다. 오소리사냥이 잘될 때에는 드문히 오소리기름을 쓰기도 한다. 형묵이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왕청오지의 인적없는 깊은 이 산중에 들어올 때에는 겨우 8살이였다.

한낮에도 해빛 한점 보기 힘든 울울창창한 심심산속에서 그는 할아버지를 도와 화전을 일구고 덫을 놓고 함정을 파서 산짐승들을 잡으며 자랐다.

짐승가죽들은 그늘에 말리웠다가 장날이 오면 할아버지가 40여리길을 내려가 량식과 그밖의 생활용품들을 바꾸어오군 하였다.

그런 속에서 형묵의 잔뼈는 굵어졌고 이젠 제법 나이에 비해 키도 커서 사내꼴이 다 잡혔다.

반면에 할아버지는 늙어갔고 이즈음엔 자주 앓군 하였다.

오늘도 형묵은 앓아누운 할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 한술두술 미음을 떠넣어주고있었다. 손자의 지성을 묵묵히 받고있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도리머리를 저었다.

《더 못 먹겠다.》

형묵은 미음그릇을 내려놓고 할아버지의 얼굴을 근심스레 내려다보았다.

《할아버지, 이번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인가를 찾아 내려가자요. 의원이 있는 곳에 가서 살아야 병도 보이고 치료도 받지요.》

《아서라, 전날에 장에 내려가 들으니 조선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란리가 났다더라. 그 험한 판에 내려가 집도 없이 땅 한뙈기 없이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겠니. 그래도 여기엔 우리 화전이 있고 짐승잡이래도 마음놓고 할수 있지 않니?》

《할아버지두 참, 왜놈들이 망해자빠진지도 이태짼데 아무렴 살아가지야 못하겠나요? 난 이젠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이제라도 그전에 우리가 살던 봉오골에 내려가…》

《음…》

할아버지의 입에서 괴로운 신음소리가 새여나왔다.

그제서야 형묵은 자기가 그만 할아버지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는것을 깨달았다. 봉오골소리만 나오면 할아버지는 얼굴이 컴컴해지고 두손에 풍이 인듯 후들후들 떨군 한다.

형묵은 한살두살 나이가 들면서야 비로소 할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조금이나마 리해하기 시작하였다.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봉오골은 아들, 며느리의 원혼이 사무쳐있는 아물지 않는 마음속 상처의 대명사였던것이다.

형묵의 아버지 연희상은 **김일성**장군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신 후 항일무장투쟁로선의 실현을 위하여 지하혁명조직에서 오중화와 함께 싸운 혁명가였다.

1933년 5월 어느날 그는 조직의 지시를 받고 고향마을인 봉오골에 내려왔다가 변절자의 밀고로 그만 왜놈들에게 체포되였다.

놈들은 그에게 갖은 고문을 들이대였으나 조직의 비밀을 한마디도 뽑아낼수 없게 되자 악에 받쳐 오막살이집에다 가두어넣고 불태워죽였다.

악독한 놈들은 유해도 가져가지 못하게 보초까지 세워놓고 그곁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는데 어느날 할아버지는 놈들의 눈을 피해 깊은 밤중에 화형터에 가서 재무지를 헤치고 덧이를 표적으로 삼아 아들의 유해를 찾아내였다. 그리고는 두루마기자락에 싸안고 나왔는데 그만 가야허다리우에서 놈들에게 붙들리게 되였다.

짐승같은 놈들은 달려들어 할아버지를 차고 때려 쓰러뜨려놓고는 아들의 유해가 담겨져있는 그 두루마기를 빼앗아 가야허의 세찬 강물속에 처넣어버렸다. 운신하기조차 힘겨운 몸으로 강물속에 뛰여들었으나 검푸른 강물은 벌써 유해를 삼켜버리고 무심히 흘러가고있었다.

그때 형묵은 세상에 태여난지 일곱달밖에 안되였었다.

왜놈들은 빨갱이의 씨를 말리우겠다고 악착스레 덤벼들었는데 어머니는 그를 바구니에 숨겨가지고 놈들의 눈을 피해다녔다.

그러다가 연형묵이 네살잡히던 해 끝내 놈들에게 체포되게 되자 어린 아들을 할아버지에게 부탁하고는 숨이 지고말았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의 복수를 위해 조국광복회 회원으로 싸웠던것이다.

형묵이는 이 모든 가슴아픈 사연을 지금 살고있는 동굴집에 들어온 날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다.

할아버지는 손자앞에서 두번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하나 연씨가문의 단 한점 씨앗인 어린 손자를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자신을 다 바쳐 애쓸뿐이였다.

험악한 세월이였다. 인간세상에서는 야수같은 왜놈들이 손자의 목숨을 노리고있었고 깊은 산속에서는 사나운 맹수들이 덤벼들군 했다.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형묵은 절대로 자기 품에서 내여놓을수 없는 존재였다. 연씨가문의 대가 영영 끊기울것 같았다. 비록 인제는 제손으로 화전도 뚜질줄 알고 산짐승도 잡을줄 알만큼 자랐지만 할아버지의 귀전에서는 언제나 가야허의 강물속으로 《첨버덩…》 하고 떨어지던 아들의 그 유해소리가 섬찍섬찍 들려오는듯싶었다.

《할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다신 내려가 살잔 말 안할게요.》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그의 손등을 어루쓸었다.

그리고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형묵아, 퉁소를… 불어라.》

형묵은 고개를 끄덕이며 목침곁에 놓여있던 퉁소를 집어들었다.

구성진 퉁소소리가 마가을의 락엽을 흔들며 산중에 울리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오늘따라 별스레 자기의 퉁소소리가 처량하게 들리였다.

할아버지가 형묵에게 산귀신으로서의 생존방법이외에 유일하게 배워준 인간세상의 재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퉁소였다.

어떤 연고로 해서인지 젊어서부터 퉁소를 잘 불었다는 할아버지가 화전밭김을 맬 때면 이쪽밭 한끝과 저쪽밭 한끝 나무가지에 퉁소를 매달아놓고는 한고패 되돌아설 때마다 휴식삼아 불게 하군 하였던것이다.

그렇게 배운것이 이제는 제법 할아버지의 퉁소소리에 못지 않았다.

한곡조 다 불고난 형묵은 할아버지의 퉁소를 그의 손에 쥐여주었다.

《할아버지와 함께 불었으면 좋겠네.》

할아버지는 어설픈 미소를 지었다.

《래일이면 자릴 털고 일어날테니 그때 같이 불자꾸나.》

《그러자요. 난 할아버지의 퉁소소리가 제일 좋아요.》

《원, 녀석두…》

할아버지의 눈굽에 축축한 물기가 고였다.

그는 손자의 부축을 받아 안깐힘을 다해 일어나앉았다.

그리고는 형묵이의 더부룩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측은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아무래도… 더 누워있지… 못하겠다. 강심을 먹고… 일어나 앉아야지. 내가… 죽으면 그 누가 너를… 돌봐주겠니.》

《할아버지!…》

3

차영진은 오늘 중앙보안간부학교를 함께 졸업하고 구분대지휘관으로 배치되여간 동창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는 편지에서 영진의 안부를 묻고나서 이렇게 썼다.

《…

부대에서는 우리 제1기 졸업생들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크네. 며칠전에 전술훈련판정이 있었는데 신통히도 우리 동무들이 배치되여간 소대들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질 않았겠나.

항일투사인 우리 대대장동지 〈역시 정규교육을 받은 소대장이 달라. 동무네 소대의 전투준비는 내 마음을 푹 놓겠소.〉하며 날 자기의 어깨우에 목말 태우고 지휘부운동장을 한바퀴 돌기까지 했다네. 그때 왜서인지 자네 생각이 나더군. 우리들중의 가장 우수한 졸업생이였던 자네가 만약 이곳에 있었더라면 아마 대대장동지가 아니, 련대장동지가 노상 업고다니자고 했을걸세, 하하…

지금 리승만괴뢰역도의 군사적도발행위는 더욱 빈번해지고있네. 정세는 자네와 같은 군사지휘관들이 전투구분대를 지휘할것을 요구하고있어. 물론 자네가 맡고있는 임무도 중요하겠지만 바야흐로 정규군으로 강화발전될 우리 군대의 현실은 자네같은 사람이 아이들과 씨름질이나 하고있을새가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네.

장군님께서 우리같은 무지렁이들을 품에 안아 키워주시여 어깨우

에 별을 달아주셨는데 조국보위의 한길에서 그에 보답을 해야 할게 아닌가. …》

영진은 자랑과 함께 은근한 질책이 담겨져있는 그 편지를 쉽게 접을수가 없었다. 붙는 불에 키질이라고 그 편지는 영진의 마음을 종잡을수없이 마구 흔들어놓았다.

(뭐 아이들과 씨름질이나 하고있다구?…)

하긴 그 말이 영 틀리지는 않는다. 학원에는 일곱살난 코흘리개들로부터 큰 아이들까지 다 있었는데 그가운데는 부모들을 잃고 의지할 곳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성격이 거칠어지고 나쁜 습관이 붙은 아이들도 있었고 또 늙은이들의 손에서 어리광을 부리면서 자란 아이들도 있었다. 일부 어린 아이들속에는 아직 잠자리에 오줌을 싸는 일도 드문하였다.

학원군사교관들은 군사학강의와 군사훈련지도와 함께 학생들의 일상 내무생활지도를 맡고있었는데 아이들이 기상하여 신발을 신고 일어날 때부터 옷을 벗고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그들의 생활을 걸음걸음 따라다니며 보살펴주어야 하였다. 사실말이지 아이들과 씨름질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보모노릇을 하고있는셈이였다.

물론 영진은 그들이 얼마나 귀중한 아이들인가를 잘 안다.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숙녀사께서 그 애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주시는가를 매일같이 보고 느끼고있었다. 백산이 한사람을 찾을 때에도 장군님과 녀사께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시였고 안타까이 소식을 기다리시였던가를 영진은 자기의 체험으로 이미 알고있었던것이다.

이제는 아이들과도 정이 푹 들었다.

장군님께서는 학원군사교관으로 파견되는 자기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전투구분대에 나가 소대를 지휘하고싶다는 솔직한 청을 들으시고 호탕하게 웃으시며《난 영진이에게 련대 아니, 사단을 맡긴셈인데 고작 소대를 지휘하고싶다?! 이제 우리 아이들과 정이 들면 정작 련대장을 시켜도 아마 싫다고 할거야.》라고 말씀하시였다.

아닌게아니라 아이들과의 정이 깊어질수록 차츰차츰 가슴속의 불도 꺼져가는듯싶었다.

그러나 이렇게 동창생들의 편지를 받거나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될때면 저도 모르게 생각이 많아지군 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마음은 또다시 권총을 뽑아들고 《만세!》의 함성드높이 적의 참호와 고지에로 공격해나가는 구분대의 훈련장으로 달려갔다.

언제인가 안길을 찾아가 자기의 심정을 슬며시 비쳐보았다가 대번에 퉁을 맞았다.

《아직 떨떨해! 그런 머리통을 가진 사람한텐 소대가 아니라 분대지휘도 맡길수 없어. 자기가 지금 무엇을 지키고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돌아가서 그걸 잘 생각해봐. 다음번에 만나서도 그걸 모르고 떨떨해있으면 아예 군복을 벗기고말겠어.》

더 아무 말도 못하고 안길의 방을 돌아서서 나오긴 하였지만 영진은 속이 내려가지 않았다.

무엇을 지키는가? 그거야 뭐 생각해볼거나 있는가.

학원학생들, 아이들을 지키지… 아니, 지킨다는 어마어마한 표현까지 쓸것도 없다. 아이들의 코를 닦아주고 세수를 시키고 떨어진 단추를 달아주고… 한마디로 그들의 생활을 돌보아준다. 기껏해서 대렬훈련을 시키고 사격련습을 시키는것이 고작이다. 여기에 그 누구를 지키고 말고 할것이 있는가. …

영진은 안길을 다시 만나면 이렇게 속을 터치리라 마음먹었지만 그럴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들려오는 소문에 요사이 그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져 자주 앓는다고 한다. 찾아가서라도 만나고싶었으나 병문안 가서 그런 말을 한다는것도 무엇하고 또 학원사업에 짬을 얻기도 힘들어 이렇게 혼자 속을 썩이고있는것이다.

영진은 편지를 군복웃옷주머니에 넣고 터벌터벌 정치부원장 리진영을 찾아갔다. 보안간부학교시절의 스승이며 지금은 직속상관인 그에게라도 자기의 심정을 터놓고싶었다. 정치부원장이라면 자기를 리해해줄것 같았다. 리진영은 사려깊고 마음씨 고운 사람이였던것이다.

중앙보안간부학교에서도 그는 늘 영진을 칭찬해왔고 영진이의 성장에 남다른 관심을 돌려주군 하였었다.

영진은 큰숨을 들이키고나서 정치부원장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응답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가 규정대로 거수경례를 붙이며 정치부원장에게 보고를 하려는데 그편에서 먼저 반색을 하며 마주 다가왔다.

《허, 범이 제 소리 하면 온다더니 정말 조선속담 그른데 없구만.》

《예?》

영진은 정치부원장방에서 한 녀성의 모습을 얼핏 스쳐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영진동물 부르려던 참이였소. 자, 누가 왔나 보오. 동무들은 구면이라지.》

정치부원장이 그 녀성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였다.

그제서야 영진은 정치부원장이 가리키는 녀성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다음순간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기쁨으로 해서인지 수집음으로 해서인지 붉게 상기된 얼굴을 다소곳이 수그리며 인사를 하는 그 녀성은 다름아닌 김춘희였던것이다.

《아니, 춘희선생?!…》

반가움보다 놀라움이 더 컸다. 그 처녀가 이렇게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백산이 문제로 하여 우연이라고 할지 아니면 필연이라고 할지 하여튼 범상치 않은 인연으로 알게 된 김춘희여서 영진은 드문히 그를 생각해보군 하였다.

방랑생활을 하던 백산이를 데리고가서 처음 그를 만났을 때에는 수심에 젖은 처녀에 대한 동정심으로 하여 기억속에 새겨졌고 안길의 지시로 기쁜 소식을 안고 찾아갔을 때에는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에 진정이 어린 눈물을 흘리던 아름다운 처녀에 대한 미더움으로 하여 인상깊이 새겨졌다.

그런데 그런 처녀가 이렇게 불쑥 학원에 찾아온것이였다.

《이렇게 올줄은 정말 생각 못했군요. 저… 백산이가 보고싶어 왔겠지요?!》

영진은 춘희의 뜻밖의 출현으로 자꾸만 당황해지는 자기의 심정을 서둘러 감추며 태연해지려고 애썼다.

《하하… 영진동무가 오늘 별스레 쫄났다?!》

정치부원장이 그에게 한눈을 찔끔해보였다.

그리고는 춘희를 얼핏 일별하며 정색한 어조로 말했다.

《영진동무, 춘희선생은 김정숙동지의 추천으로 우리 학원 문학교원으로 배치되여왔소.》

《예?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영진은 다시한번 크게 놀랐다. 춘희가 학원교원으로 오다니?… 그것도 다름아닌 김정숙동지의 추천으로…

《영진동무도 알지 않소. 개원식이 있은지 며칠 안되던 날 장군님께서 학원에 찾아오시여 특별반학생들의 수업과 초급반학생들의 수업을 몸소 참관하시였던 일을 말이요. 그때 장군님께서는 교수참관을 마치시고나서 원장동지에게 학생들이 교원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어하는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학생들가운데 동북과 함경도출신들이 많고 교원들가운데는 평안도출신들이 많기때문이라고 하시였소. 그러시면서 학생들이 교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제대로 배울수 없다고, 함경도출신교원들을 빨리 료해선발하여 학원에 배치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소. 장군님의 그 뜻을 받들어 김정숙동지께서 몸소 추천하여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춘희선생이요.》

영진은 커다란 충격에 못이겨 한걸음 두걸음 춘희에게로 다가갔다.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축하합니다, 춘희선생!》

《…》

춘희의 얼굴이 더욱더 붉어졌다. 그러나 그의 아름다운 눈은 뜨거움에 젖어 영진을 보고있었다.

《자 영진동무,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할 말도 많겠는데 어서 함께 나가보오. 춘희선생에게 학원도 보여주고…》

《알았습니다.》

영진은 힘차게 거수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가만, 그런데 무슨 일로 날 찾아왔댔소? 급한 문제요?》

정치부원장이 이렇게 묻는 바람에 영진은 당황해졌다.

갑자기 자기가 무엇때문에 이 방에 들어섰던지 인차 생각나지 않

았던것이다. 한순간이 지나서야 친구의 편지생각이 났다. 그리고 자기가 정치부원장에게 털어놓고싶었던 말들이 생각났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어쩐지 그런 말을 하기가 저어되였다. 말할 생각이 없어졌다.

《아니, 아닙니다. 아무 일도…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춘희와 영진은 본청사를 나섰다.

락엽이 밟히는 구내길에서 그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누구도 선뜻 말을 떼지 못하였다. 정치부원장의 이야기처럼 할말이 많을듯싶었는데 정작 마주서고보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다. 영진은 속으로 자기자신을 꾸짖으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백산이는 초급반 2학년에서 공부합니다. 공부는 제일 잘합니다. 다른 애들은 기초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나니…》

《그 애 편지를 통해서 나도 영진동지가 학원에 계신다는걸 알고 있었어요. 철없는 아이들 생활을 돌보느라 퍽 힘드시겠어요.》

《힘들기야 뭘… 그저 어깨에 별을 달고 아이들과 씨름질이나 하고있자니 속이 상해 그러지요.》

말해놓고보니 편지의 한구절을 앵무새처럼 외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쩐지 부끄러웠다. 이게 무슨 꼴이람…

그는 서둘러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그 애들은 다 좋은 애들입니다. 우린 단순히 그들의 생활만 돌보는것이 아니라 규률있고 단련된 앞날의 기둥감들로 키워야지요. 학생들이 좋아하겠습니다. 시까지 지을줄 아는 유능한 선생이 와서…》

《어마나, 누가 그런 소릴?…》

춘희가 당황하여 몸둘바를 몰라했다.

《하하… 백산이가 그러더군요. 누나가 시를 쓰는데 〈**김일성**장군의 노래〉 가사를 쓴 유명한 리찬선생까지 칭찬하군 했다고요.》

《그 애의 말을 정말로 믿으시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난 비록 시라는게 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천

대받던 로동자를 이렇게 혁명의 군복을 입혀 내세워주신 장군님의 은덕을 생각하면 막 세상에 무엇인가 웨치고싶어지군 합니다.》

《호호…》

춘희가 손등으로 입술을 가리우며 가볍게 웃었다.

《하하… 엉터리지요?! 어쨌든 됐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우리 학원에 원가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를 쓰는 춘희선생이 있으니 그 문젠 풀렸습니다.》

《학원원가 말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내가 어떻게…》

《물론 당장에야 불가능하겠지요. 하여튼 춘희선생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정말 기쁩니다. 춘희선생이 학원교원으로 오게 될줄은…》

영진은 정작 이야기를 시작해놓고보니 정말 할 말이 많긴 많았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슬며시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도 정말 꿈만 같아요. 김정숙동지께서 백산이를 떠나보내고 처녀의 몸으로 혼자 생활하기가 얼마나 외롭겠는가고 하시며 학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주라고 이렇게…》

춘희의 쌍겹진 긴 속눈섭이 촉촉해졌다. 물기에 젖은 그의 눈빛이 더욱 그윽해보였다.

《또 우는군요. 내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머리를 들고 세상에 소리치며 살게 될거라고 말입니다.》

《고마웠습니다. 그 말이 정말… 고마웠어요.》

감사의 정이 가득 고인 처녀의 눈빛이 얼굴에 닿는 순간 영진은 황황히 고개를 떨구었다.

처녀의 맑고 부드러운 아름다운 얼굴을, 그 순결한 눈빛을 저도 모르게 이성의 눈길로 보게 되는것이 어쩐지 죄스럽게 생각되였다.

《자, 학원을 돌아봅시다.》

그는 서둘러 발걸음을 뗐다.

4

안길은 피터지게 입술을 깨물고 또 한차례의 동통을 견디여냈다.

얼굴은 꺼멓게 질리다못해 나중에는 종이장처럼 새하얘졌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화락 젖어들었다. 동통이 멎자 오한이 났다.

더는 자기자신을 견디여내기가 힘들었다.

《참모장동지, 보십시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러다가 제때에 손을 못쓰면 어떤 일이 생길지… 잘 알지 않습니까.》

보안간부훈련대대부직속중앙병원 원장 리병훈이 그의 어깨우에 외투를 덧씌워주며 안타깝게 말했다. 아닌게아니라 때마침 리병훈원장이 대대부청사에 와있을 때 동통증세와 맞다들려 구급대책을 세울수 있었던것이다.

그는 안길을 무조건 병원에 입원시킬데 대한 장군님의 명령을 받고 찾아왔던 길이였다. 최근시기에 그는 안길이때문에 이런 걸음을 수차에 걸쳐 했었는데 그때마다 정규군건설사업이나 끝내놓고 입원하겠다고 하면서 완강히 거절하군 하여 매번 헛걸음으로 끝났었다.

그러나 안길의 병증세는 날을 따라 더욱 악화되였고 리병훈원장의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으로 그를 무조건 입원시키라고 지시하시였다.

안길은 원장으로부터 장군님의 명령을 전달받고 더는 자기를 지탱하기가 어렵다는것을 절감하였다.

지금의 몸상태를 가지고서는 참모장의 사업을 제대로 할수 없는것은 물론이고 곁의 동지들에게 부담만 주게 될것이며 기본은 장군님께 근심과 걱정만을 더해드리게 될것이 불보듯 명백하였던것이다.

그럴바 하고는 병원에 가야 했다. 사실 이런 우려는 이미전부터 그를 휩싸고있었다. 그래서 더욱더 미진된 사업들을 결속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뛰여다녔고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과 그 대책적방도에 대하여 아래일군들을 데리고다니면서 하나하나 의견을 주었었다. 그런데 그 우려가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현실로 될줄이야…

《원장선생, 그래 병원에 가면 내가 살수 있소?》

리병훈의 당황해진 아니, 아연해진 눈빛이 지꿎게 안길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노여움에 젖은 그의 목소리가 방안을 웅글게 울렸다.

《무슨… 그런 말씀을?! 아무리 참모장이래도 의사앞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야 안되지요. 이제 병원에 가서 집중치료를 받으며 안

정하게 되면…》

《허허… 노여워하지 마시오. 난 원장선생을 믿습니다.》

안길은 허거픈 미소를 짓고나서 슬며시 두눈을 감았다.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그는 자기가 다시 일어날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왜놈들의 총탄이 아직 그대로 박혀있는 몸에서 이제는 그 상처의 아픔만이 아닌 그 어떤 새로운 불치의 병마가 자기의 생명을 톱질하고있음을 안길은 륙감으로 느끼고있었던것이다.

그 톱질이 이제 한주일이면 끝날는지 열흘이면 끝날는지… 이런 예감이 뇌리를 파고들수록 어쩐지 인생의 흘러온 40년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어린시절… 중학시절…

훈춘현 경신향의 사립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을 때 장군님의 눈부신 위인상에 매혹되여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삼가 편지를 쓰던 일…

그때가 1931년이였지. 그때 장군님께서는 회답편지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할 또 한사람의 혁명동지를 알게 된것이 기쁘다고 하시면서 사상과 뜻을 같이할 믿음직한 동지들을 조직에 묶어세우고 무장투쟁을 해야 한다고, 그것이 바로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이라고 가르쳐주시였지. …

그이의 가르치심에 이끌려 흘러온 나의 인생길…

중대정치지도원, 중대장, 련대참모장, 련대정치위원, 방면군참모장…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우리 혁명은 개척되였고 전진하였으며 승리의 오늘에 이르지 않았던가.

승리?… 아니, 아직은 승리라고 말할수 없다.

인민혁명군의 정규군에로의 강화도, 공화국의 창건도 그리고 미제에 의하여 분렬된 조국의 통일독립도, 사회주의혁명의 임무도 아직은 앞에 있다.

우리 혁명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도 험난하다. 그런데 그 길에서 나는 벌써 물러서야 하는가. 그 어려운 길에 장군님을 남겨두고 벌써 인생의 안식을 찾아야 하는가. 아, 저주롭고 한스러운 육체여…

혁명의 길은 아직도 먼데 내 인생은 너무도 짧구나.… 제발 내 자식들이 이 아버지가 못다 간 그 길을 그대로 이어가주었으면…

갈래없이 뻗어가던 생각이 자식들에게 가닿자 어쩐지 마음이 가벼워졌다. 마음이 든든해졌다. 장군님의 모습이 우렷이 안겨왔던것이다. 그 품이 있는데 그 애들을 두고 걱정할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수많은 전우들이 죽음을 앞에 놓고도 절대로 뒤돌아봄이 없이 마음놓고 웃으며 맞받아 나아갔었구나. 장군님의 한품에 자기들의 미래를 맡겼기에!…

그런데 이 안길인 그저 그 애들을 먹여주고 입혀주는것만으로 전우의 의리를 다한다고 생각했었지.

장군님께서는 혁명가유자녀들을 찾아냈을 때마다 무장투쟁시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사람한사람의 혁명동지를 만났을 때처럼 생각된다고 하셨는데 난 그저 그 애들을 불쌍한 아이들로만 보았었지.

장군님의 그 뜻을 그저 그이의 남다른 인정미로, 의리를 다하기 위한것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전우들이 리해해주리라 여기며 눈앞의 사업만을 붙어잡고 뛰여다녔지.

늦었어. 장군님의 뜻을 받들기에는 내 육체가 너무 힘이 진했어.

《저, 참모장동지, 참모장동지…》

리병훈원장이 오래도록 눈을 감고 침묵하는 그를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그의 의식이 혼미상태에 빠지지 않았는가 근심해서였다.

안길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병원원장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원장선생, 내 이제 병원에 가겠소. 어서 입원준비를 해주오.》

《그래야지요, 물론 그래야지요.》

리병훈원장이 다행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곱씹었다. 더는 그를 설복하느라 진땀을 뽑지 않게 된것이다. 그러나 다음순간 안길의 말을 듣고는 어리둥절하지 않을수 없었다.

《원장선생, 병원으로 가기 전에 내 한곳에 꼭 다녀올데가 있소. 선생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아직 미진되여있더란 말이요.》

《예? 아니, 그건…》

《선생도 알다싶이 난 만경대혁명학원창립준비위원회 위원이요. 내 참모장으로서의 사업은 비교적 다 마무리해놓았는데 학원창립준비위원으로서의 사업은 마무리짓지 못했구만. 아무래도 만경대에 나가 학원건설장을 한번 돌아봐야겠소.》

《참모장동지…》

《학원건설장에서 곧바로 병원에 갈테니 마음놓고 먼저 가서 기다려주오. 부탁이요.》

안길은 운전사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긴의자에서 일어섰다.

×

만경대의 학원건설장에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이미 가르쳐주신 청사설계도면대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벌써 기초축조가 다 끝나고 본관건설은 벽체쌓기작업이 시작되였다.

기숙사건설과 보이라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는 속에서도 건설자들은 추위가 들이닥치기 전에 한돌기의 벽돌이라도 더 쌓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었던것이다.

《이제는 지원자들의 수가 500명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인민들의 지성이 대단합니다.》

건설사업소 소장이 학원건설장전경을 바라보고 서있는 안길에게 공사형편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안길은 흐뭇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소장동무, 속도도 중요하지만 질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오. 장군님께서 학원건물을 만년대계로 지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하시였다는걸 동무도 알지 않소.》

《예, 잘 알고있습니다.》

소장은 어딘가 모르게 불편스러워보이는 그의 거동을 슬금슬금 눈여겨보며 대답했다. 안길은 그의 눈길을 애써 피하며 다시한번 건설장전경을 둘러보았다.

《정말 학원자리가 좋구만. 장군님께서 세상천하 명당자리에 학원터전을 잡아주시였소. 이제 여기서 배우며 뛰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보오. 난 그 애들의 모습을 꼭 보고싶구만.》
《문제없습니다. 래년 여름까지면 학원청사를 다 완성할수 있으니까요.》
안길의 심정을 알수 없는 소장은 호기있게 말했다.
《래년 여름까지라…》
안길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뇌이였다. 그러다가 자기의 괴로운 심사를 그가 엿볼것이 두려운듯 쾌활한 어조로 말했다.
《어쨌든 하루라도 더 앞당겨야 하오. 자, 왔던김에 몰탈이라도 한삽 뜨고 가게 삽이나 한가락 가져다주오.》
《일없습니다. 원, 안길동지까지 삽질을 하지 않은들…》
《그러지 말고 어서.》
소장이 달려갔다.
운전사가 그의 뒤모습이 멀어지자 황급히 안길의 팔을 붙잡았다.
《참모장동지, 정신있습니까. 그런 몸상태로 어떻게…》
《일없어. 괜히 부산떨지 말고 내 뒤나 따라오라구.》
안길은 그의 잔등을 툭 치며 싱긋 웃어보였다.
《야, 그러다가 동통이 또 발작하면 어쩌자구 그럽니까.》
운전사는 물러설 잡도리가 아닌듯 완강하게 막아섰다.
《이봐,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일은 만경대학원을 위해서 몰탈 한삽이라도 뜨는거야. 그것이 바로 이 안길이가 혁명을 위해서 오래오래 사는것으로 되는거야.》
그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걸음을 내짚었다. 운전사가 그의 팔을 부축해주려고 했으나 안길은 엄한 눈길로 쏘아보고는 건강한 사람처럼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얼굴에서는 안깐힘을 다해 고통을 참느라고 식은땀이 후두둑후두 떨어져내렸다.
안길은 소장이 가져온 삽을 들고 본관벽체를 쌓고있는 건설자들속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팔등으로 얼굴의 땀을 몇번 훔치고나서 묵묵히 그들과 함께 몰탈을 이기기 시작하였다.
운전사가 참다못해 그의 손에서 억지로 삽을 빼앗았다.

건설자들은 어쩐지 류달라보이는 그들의 모습을 흘금흘금 바라보긴 하였으나 하도 지원자들이 많은 곳이다보니 인차 습관되여버려 더 이상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그때 이겨놓은 몰탈을 가지러왔던 몸매다부진 한 청년이 안길을 보고 놀라며 소리쳤다.

《아니?! 안길동지!》

운전사에게 삽을 빼앗기고 사람들 있는데서 소리도 칠수 없고 하여 그저 가쁜숨을 톺고있던 안길은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애젊은 청년을 눈주어 바라보았다.

《누구더라?…》

《야, 생각 안나십니까? 눈덮인 가루개에서 차를 밀어준 공업전문학교 학생들…》

생각났다. 올해 1월 라남에 있는 장건의 제2소에 갔다오다가 평양 가루개에서 자기의 차를 밀어준 공업전문학교 학생들이 생각났다. 그들을 여기서 또 만나게 될줄이야.

《허, 이거 이번에도 또 동무를 못 알아봤구만. 가만, 그때 동무보고 한 처녀가 뭐랬드라? 그렇지, 〈우쭐대는 수닭〉이라고 했지?》

그들의 상봉을 호기심에 넘쳐 지켜보던 로동자들이 와 하고 웃음을 터쳤다. 그러거나말거나 《우쭐대는 수닭》은 뒤에 대고 소리쳤다.

《동무들! 여기 안길동지가 오셨소. 아, 은주동무, 빨리!》

일여덟명의 청년들이 서둘러 달려왔다. 다 같은 공업전문학교 학생들 같았다.

《안길동지! 그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들은 굽벅굽벅 인사를 하며 안길을 에워쌌다.

《오, 은주, 생각나. 〈따벌〉!… 하하… 그때 그 동무들을 여기서 다시 만나보는구만.》

《우린 강의가 끝나면 오후마다 여기 학원건설장에 달려와서 애국로동을 하군 합니다.》

《피, 애국로동은 뭐 우리만 하나?!》

은주라는 처녀가 그 청년에게 눈을 할기며 내쏘았다.
《챠, 또 또…》
《어마나!…》
《하하…》
《호호…》
안길이도 웃었다. 그러나 어쩐지 자꾸만 눈앞이 뿌잇해왔다.
얼마나 미더운 청년들인가.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만경대학원건설에 자기들의 고귀한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칠줄 아는 청년들… 이것이 혁명선렬들을 위한 우리 인민모두의 뜨거운 마음이 아니겠는가.
《고맙소. 동무들, 고맙소. 이제 여기서 공부하게 될 혁명가유자녀들은 절대로 동무들의 그 마음을 잊지 않을것이요. 조국과 인민의 그 기대를 심장에 새기고 자라날거요.》
안길은 목이 꽉 메여왔다.
흥분으로 하여 숨이 가빠졌다.
《아니, 안길동지, 왜 그러십니까? 어디 편치 않습니까?》
은주라는 처녀가 근심에 찬 목소리로 다급하게 물었다.
운전사와 건설사업소 림춘석소장이 황급히 그의 팔을 부축하였다.
《괜찮소. 아마 좀… 흥분했던것 같소.》
안길은 자기를 부축했던 손들을 물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쩐지… 동무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해지누만. 동무들같은… 혁명동지들이 우리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나가리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이 학원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또 그렇게 계속 혁명의 대를 이어나가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억세여지오.》
안길은 그들의 얼굴을 한사람한사람 바라보며 힘을 주어 말했다. 그리고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내 동무들에게 노래를 하나 불러줄가. 삽질은 아무래도 안되겠고… 노래야 동무들보다 나을수 있을는지 알겠소.》
《좋습니다.》
로동자들과 공업전문학교 학생들이 손벽을 치며 호응했다.
운전사만이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있을뿐이였다.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장군님께서 배워주신 노래요. 투사들은

누구나 이 노래를 즐겨불렀지. …》

안길은 추억깊은 눈길을 만경대의 숲우듬지너머로 보냈다.

나직하나 절절함에 젖은 그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속으로 흘러들었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운전사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길의 육체가 도저히 노래를 부를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밖에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노래는 계속 울리였다.

…

대동강물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
꿈결에도 잊을수 없네 그리운 산천
광복의 그날 아 돌아가리라

노래를 부르는 안길이도, 노래를 듣는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은 노래의 깊은 정서와 절절한 감정으로 하여 눈물을 머금었고 안길은 밀림속 숙영지의 우등불가에서 함께 이 노래를 부르던 잊지 못할 전우들을 생각하며 눈굽을 적셨다.

그들이 정녕 꿈결에도 잊지 못해하던 그리운 산천, 대동강물 아름다운 바로 그 만경대!…

광복의 그날 기어이 돌아가리라 다짐했던 그들이 지금 어디에 묻혀있는가. …

허나 그들은 왔다. 그들의 자식들이 이 만경대의 산천에서 마음껏 뛰놀게 되지 않았는가. 바로 그들을 대신하여 그 자식들이 온것이다.

(동무들, 그들은 영원히 이 만경대에서 살게 될거요. 동무들이 그토록 오고싶어하던 이 만경대에서!…)

안길은 전우들의 넋이 다 모여온듯싶은 만경대의 모습을 영원히 새겨두려는듯 오래도록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그때로부터 보름후 안길은 불치의 병으로 숨을 거두었다.
김일성동지의 충직한 전우였으며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몸바쳐 투쟁해온 혁명가 안길은 자기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온 정규적혁명무력의 열병대오를 보지 못한채, 만경대의 푸른 언덕에서 혁명의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영영 보지 못한채 떠나갔다.
그러나 그의 눈망울에 마지막으로 비낀 모습은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은 미더운 학원아이들의 름름한 모습이였다.

5

아침 일찌기 김정숙동지께서는 학원에 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굴젓이 가득 담긴 나무통을 차에서 내려 그걸 들고 곧바로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굴젓은 깍두기를 담글 때 쓰려고 우정 시장에 나가시여 사가지고 오시는것이였다.
식당앞에서는 벌써 식당종업원들과 여러명의 녀학생들이 모여앉아 김장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김장을 담그느라 수고들 하누만요.》
김정숙동지께서 나무통을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서야 모두 그이를 알아보고 환성을 질렀다.
《조용들 하세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너무 기뻐 어쩔줄 모르는 그들에게 다급히 이르시며 걱정어린 눈길로 교사쪽을 바라보시였다.
《금방 수업이 시작된것 같은데 이렇게 떠들면 방해를 줄수 있어요.》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을 자제하며 조용해졌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속의 녀학생들에게로 한걸음 다가서시며 물으시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수업에 안 참가했니?》
《저… 식당어머니들의 일손이 딸려 우리 고급반 녀학생들이 김장에 동원되였습니다.》
《그래?!…》
김정숙동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웃음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시였다.
《하긴 다 큰 녀자애들이 김치담그는 방법을 배우는것도 좋은 일이지. 이담에 시집가서 살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김치를 해달랠수야 없지 않니?》
《호호…》
식당아주머니들이 입을 싸쥐고 웃었다.
고급반 녀학생들은 부끄러운듯 얼굴이 빨개져서 서로서로 마주보았다.
《그러나 오늘 못 배운건 꼭 보충수업을 받아야 한다. 나도 원장선생님에게 이야기해주겠다.》
《알겠어요.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녀학생들이 언제 부끄러워했던가싶게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팔소매를 걷어붙이시며 한창 양념감이 버무려지고있는 버치쪽에 다가가 앉으시였다.
식당녀인들이 황황히 그이의 손을 부여잡았다.
《아니, 원… 녀사님께서 이런 험한 일을… 걱정마시고 어서 일을 보십시오. 이런건 우리가 다 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예요. 오늘 학원에서 김장을 담근다는걸 알고 우정 나온 길이랍니다.》
《그래도 차마…》
《호호… 내 이 손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답니다. 예로부터 김치는 양념보다도 이 손맛에 따라간다고 하질 않았나요.》
그이께서는 롱조로 말씀하시며 가볍게 웃으시였다.
《아니, 그럼 산에서 싸우실 때에도 김치를 담그어보셨나요?》
허리가 남달리 굵은 한 녀인이 놀라운듯 바투 다가앉으며 물었다.
《그럼요. 그땐 이렇게 실한 배추도 또 이런 훌륭한 양념감도 물

론 없었지요. 산속에서 어떻게 그런걸 구하겠나요. 시래기 한톨, 고추가루 한줌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그래서 산나물김치를 자주 담그어먹군 했답니다.》

《산나물김치요?》

녀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뒤늦게야 눈이 녹군 하는 깊은 산속에서 눈속을 헤치며 파릇파릇 움트기 시작한 어린 나물싹을 뜯던 일들이 눈앞에 떠오르시였다. 장군님께 한가지라도 별찬을 해드리시기 위해 그리고 전우들에게 고향집어머니들의 그 사랑을 고스란히 안겨주시기 위해 동북산야와 백두밀림의 산발들마다에 새기신 그 무수한 발자취, 발자취…

지금도 그이의 머리속에는 어느 산기슭에 가면 고사리가 많았고 또 어느 산기슭에 가면 참취, 곰취 등이 많았다는것이 훤하니 새겨져있었다.

《왜놈들과 싸울 때에야 사정이 부득이해 그랬지만 해방된 오늘에야 왜 우리가 김치를 맛있게 담그어먹질 못하겠어요.

왜서인지 난 전우들에게 제대로 해먹이지 못했던 김치를 그 자식들에게 마음껏 해먹이고싶어요. 김치를 한번 맛있게 담그어보자요.》

《어쩌면… 녀사님의 마음은…》

김정숙동지께서는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는 녀인들의 얼굴을 정겹게 보시며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자, 어서 일손을 다그치자요. 우리 셋이서는 빨리 양념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우도 썰고 절임했던 배추를 씻자요.》

그이께서 조직해주시는대로 녀인들과 녀학생들은 각기 자기가 맡은 일에 달라붙었다. 모두들 신바람이 났다.

채친 무우를 고추가루와 마늘, 파, 생강 그리고 젓갈과 버무려 양념준비를 하는 김정숙동지의 두손은 삽시에 벌겋게 달아오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정성껏 양념감들을 버무리시였다.

《김치는 양념을 잘하여야 맛이 좋아져요. 그런데 고추가루는 너무 많이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 아이들이 먹을 김치인데 지내 매우

면 그들이 먹기 힘들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양념준비와 배추씻기가 다 끝나자 이내 김치소를 넣어나가시였다. 양념을 배추잎의 갈피갈피에 고루고루 묻히시였다.

양념을 다 넣은 배추는 녀학생들이 함지에 담아가지고 움에 있는 김장독에 가져다 넣었다. 그이께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배추가 가득 담긴 함지를 드시고 독있는쪽으로 가보시였다.

아닐세라 그들은 배추들을 대충대충 독안에 넣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의 서툰 일솜씨를 보고 너그럽게 웃으시고나서 일일이 깨우쳐주시였다.

《배추는 잎이 흩어지지 않게 꼭 감싸서 차곡차곡 눌러서 넣어야 한단다. 이렇게… 이렇게…》

그이께서는 손수 한포기 한포기씩 배추를 독에 넣으시였다.

《이 어머니가 하는걸 잘 봐두어야 해. 그래야 이다음에 시어머니에게 쫓겨나지들 않아.》

《어마나! 호호호…》

녀자애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치였다.

《웃긴. 너희들이 시집에서 쫓겨오면 이 어머니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니.》

《어머니, 걱정마세요. 우린 절대로 어머니 망신을 시키지 않을테니까요, 호호…》

《그래그래, 아무렴 우리 딸들이 누구들이라구. 자, 너희들이 마저 넣어라.》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시 양념을 묻히는 곳으로 오시였다.

《아무래도 김장에 무우를 좀 더 넣어야 할것 같아요. 김치는 무우를 많이 넣어야 맛이 쩡해지고 좋아요. 가만 보니 평양김치가 맛이 있는건 무우를 많이 넣기때문인것 같아요.》

허리가 실한 녀인이 또 혀를 찼다.

《녀사님은 정말 모르시는게 없구만요. 나같은 평양내기도 여직 그렇게까지는 모르고 살았는데 언제 그걸 다…》

《나라고 뭐 더 특별히 아는건 없어요. 그저 우리 아이들에게 어

떻게 하면 맛있는 김치를 담그어 먹일가 하고 곰곰히 생각해보았을 뿐이예요.

우리 깍두기와 동치미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이자요. 무우가 많이 들어왔으니 바람이 들지 않게 저장도 많이 하구요. 참, 내가 가져온 저 나무통에 굴젓이 들어있는데 그걸 넣고 깍두기를 담그면 아마 별맛일거예요.》

녀인들은 그이의 끝없이 다심한 인정앞에 고개를 숙이였다. 그들의 눈굽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들은 모두 혁명가유가족들이였다. 이 학원에서는 다름아닌 그들의 아들딸들이 생활하고있었다. 그런데 친어머니인 자기들보다도 더 끔찍스레 아이들을 생각해주시고 위해주시는 녀사의 그 마음앞에서 그만 뜨거운 고마움의 눈물을 감출수 없었던것이다.

점심무렵 김장을 거의다 끝냈을 때 리종익원장이 식당에 나타났다.

그는 예상외로 김장을 빨리 끝낸것을 보고 만족해하며 식당녀인들을 치하해주다가 김정숙동지를 발견하고 당황하여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원장선생님사업에 지장을 줄것 같아 인사도 없이 곧장 여기에 왔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그에게 사죄하시며 미소를 지으시였다.

《녀사님께서 이런 수고를 하시는것도 모르고 이 원장이란 사람은…》

리종익은 심한 자책이 어린 눈길로 그이를 우러르며 말끝을 채 잇지 못하였다.

《수고랄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일이야 응당 우리 녀자들이 해야 할 일인걸요. 이젠 다 끝났으니 여기 일은 근심마시고 어서 들어가 일을 보십시오.》

김정숙동지께서는 거듭 말씀하시며 그의 미안해하는 마음을 풀어주시였다.

리종익은 그제서야 안경을 슬며시 눌러붙이며 한숨을 섞어 웃었다.

《허허… 하긴 장군님과 녀사님의 그 마음을 내 어찌 백에 하나인

들 따라가겠습니까. 다 내가 불민한탓입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장군님께서는 원장선생님이 학원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해주고있다고 고맙게 생각하고계십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따뜻한 음성으로 그를 위로해주시였다.
《참 원장선생님, 며칠전에 장군님께서 학원에 나오셨다가 데리고가신 녀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초급 1학년의 민순희학생 말입니까?》
《예,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륵막염을 앓고있더군요. 그래서 어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깨끗이 치료해서 학원에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 그때 그 애의 얼굴을 보고 어디 아픈데가 없느냐고 물으시더니 정말 병이 있었군요.》
리종익원장은 감심하여 머리를 끄덕이였다.
며칠전 학원에 나오셨던 장군님께서는 그 애가 아무래도 어디 앓는것 같다고 하시며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저택으로 데려가시였다.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니 이미 앓았던 륵막염이 다시 도졌다는것이였다. 그래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의 말씀대로 그 애를 병원에 입원시키시였던것이다.
그사이에 김장작업은 말끔히 끝나고 식당녀인들은 학원학생들의 점심식사준비에 달라붙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취사장에 들어가 양념묻은 손을 깨끗이 씻고 취사원들의 침실안을 들여다보시였다. 널직한 방안에 줄줄이 걸어놓은 메주덩이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장군님께서 학생들에게 토장국을 끓여먹이자면 메주를 많이 쑤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리종익원장이 그이께 설명해드리였다.
《정말 메주를 많이 쑤어 걸어놓았군요. 배추를 넣고 토장국을 푹 끓여먹이면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해질거예요.》
그이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며 원장을 바라보시였다.
식사칸에서는 벌써 점심식사차림이 한창이였다.
식탁우에 차려놓은 밥, 국, 여러가지 찬들은 보기에도 먹음직스러

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흐뭇한 눈길로 식탁을 바라보시다가 다반을 들고 나오는 한 녀인을 불러세우시였다.

《아주머니, 내 생각에는 국은 학생들이 식탁에 다 들어와앉은 다음에 퍼서 주면 좋겠구만요. 그래야 그들에게 좀더 따끈한 국을 먹일수 있지 않겠어요.》

그 아주머니는 게면쩍은 웃음을 지으며《우린 미처 그런 생각까지는…》 하고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는 미리 차려놓았던 국그릇들을 모두 거두어 들여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민망스러운 눈길로 그들을 보고 서있는 원장에게 한걸음 다가가시며 의논조로 말씀하시였다.

《원장선생님, 밥량이 다 꼭같은데 어떻습니까? 애들이 밥을 다 먹습니까?》

《예, 밥을 다 먹습니다. 하긴 어린 아이들은 대체로 밥을 남기군하지만…》

그이께서 물으시는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한 원장은 범상한 어조로 사실대로 말했다.

《그것 보세요. 내 생각에는 밥도 꼭같이 주지 말고 큰 아이들에게는 좀 더 주고 작은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먹을만큼 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허허… 아닌게아니라 큰 녀석들은 작은 아이들이 남기는 밥을 제꺽 먹어치우군 합니다. 난 그걸 매일같이 보면서도 달리 생각을 못했는데 녀사님께서는 밥그릇만 보시구서도 그 애들의 심정을 다 헤아리시누만요. 정말 아이들이 녀사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게 우연칠 않습니다.》

《아니예요. 아직 어머니구실을 다하자면 멀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창밖너머 교사쪽에서 식사대렬에 모이느라 부산스레 뛰여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였다.

문득 손에서 심한 아픔이 느껴지시였다. 손등이 확확 달아오르고 손가락끝들이 쓰리다못해 막 아려오시였다.

양념을 하시느라 매운 독에 절었던 손이 시간이 좀 흐르고 온기가 있는 식사칸에 들어오자 참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워졌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사정없이 아려오는 아픔에 지그시 입술을 깨무시였다.

《아니 녀사님, 갑자기 어디 편치 않으십니까?》

놀란 리종익원장이 황급히 물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미처 대답할 생각을 못하시고 그저 고개만 가까스레 가로저으시였다.

그제서야 리종익은 벌겋게 달아오른 그이의 두손을 발견하고 사연을 짐작하였다. 그는 자기의 눈을 찌르는 아니, 심장을 찌르는 김정숙동지의 두손을 뿌옇게 흐려오는 안경너머로 가슴아프게 바라보았다.

6

우ㅡ 우ㅡ

새벽 3시가 훨씬 지났는데도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계속 울부짖고 있었다. 이따금 정원의 나무가지들이 《딱, 딱.》 하고 애처롭게 부러져나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시는듯 외투깃을 추켜올리신채 집무실의 긴의자등받이에 비스듬히 앉아계시였다.

사랑하는 전우 안길이와 영결한지도 벌써 며칠째…

귀중한 혁명동지를 잃은 슬픔과 괴로움은 잠들줄 모르는 저 눈보라보다 더 세차게 지금 그이의 가슴을 모진 아픔으로 휘저어놓고있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 고통은 덜어지지도 가라앉지도 않았다. 잠시라도 그 고통을 잊을가 하여 밤늦게까지 일감을 붙어잡고 앉아있군 하시였으나 일손을 놓기만 하면 기다리고있었던듯 괴로움은 어김없이 심중에 다가왔다.

입술을 꾹 다물고 깊은 잠에 든 사람처럼 누워있던 안길의 모습…

금시 잠에서 깨여나 쾌활한 성격 그대로 노래라도 한바탕 부를듯

싶은 전우의 그 모습…

《안길동무! 안길이! 내가 오면 언제나 웃으며 달려나오군 하던 동무가 왜 이렇게 누워만 있소. 산에서 일제와 싸우면서도 죽지 않은 사람이 해방된 조국땅에서 이렇게 가면 난 어떻게 하란 말이요. 안길이!…》

그의 령구앞에서 오열을 터치며 부르짖던 그날의 그 웨침이 또다시 마음속에서 울리시였다.

문득 언제인가 학원에 파견할 군사교관문제를 놓고 그에게 가슴아픈 소릴 하던 일이 생각나시였다. 아마 그것이 1935년 북만원정의 길에서 안길을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신 가슴아픈 말이였을것이다. 그 일이 가슴에 맺혀오시였다. 그가 이렇게도 빨리 갈줄 알았더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텐데… 그래도 그는 흔연히 자기를 이겨내고 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었지.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고는 학원건설장에 나가 마지막으로 삽질까지 했었지…

그때 그가 무엇을 생각했을가. 희생된 전우들에게 못다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고 생각했을가?… 아니, 결코 의무감 하나로써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그렇게 할수 없다. 그는 자기의 삶이 그 만경대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아니,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을것이다. 이제 만경대의 푸른 언덕에서 마음껏 배우며 뛰여놀 학원아이들이 어서 자라나 부모들이 남긴 고귀한 뜻을 그리고 자기가 못다 간 혁명의 길을 꿋꿋이 이어가기를 바랐을것이다. 그 간절한 념원을 만경대에 묻고싶었을것이다.

하기에 자신께서도 안길의 자식들을 품에 안으시고 《너희들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고 나는 가장 귀중한 혁명동지를 잃었구나. 이 가슴아픔을, 이 엄청난 손실을 무엇으로 메꾸겠니. 그것은 오직 하나 너희들이 아버지의 뜻을 잇는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아버지처럼 나의 혁명동지가 되는것이다.》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셨던것이다.

그리고 다 자란 두 아들은 종합대학에 입학시켜 공부하도록 하시였고 막내딸 옥순이는 혁명학원에 보내시였다.

아직 어린것이 학원에 가서 정을 붙였는지, 집체생활이 생소할텐데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우— 우—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울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로소 그 소리를 들으신듯 어둠에 묻힌 창밖으로 시선을 보내시며 저도 모르게 귀를 강구시였다. 어쩐지 창밖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그 소리가 잠결에서조차 아버지를 찾는 옥순이의 부름소리처럼 여겨지시였다.

순간 못 견디게 가슴이 불안해지시였다.

왜 그럴가? 혹시 그 애가 추위에 떨며 울고라도 있는것이 아닐가. 아니, 학원아이들모두가 다리를 꼬부리고 춥게 자는것이 아닐가.…

눈보라소리가 더더욱 귀전에 크게 울려왔고 그만큼 그이의 걱정도 커졌다. 더이상 참고계실수가 없으시였다.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4시가 다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창 굳잠에 들었을 운전사에게 무척 미안한 생각이 드셨으나 당장 학원에 가보고싶은 생각은 그보다 더 크시였다.

이리하여 승용차는 눈보라속을 뚫고 간리로 향하였다.

그이께서 찬바람을 맞으며 차에서 내리셨을 때 놀라서 달려나온 학원 직일관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져 미처 인사를 올릴 생각도 못하였다.

학원직일관은 차영진이였다.

《장군님!…》

《영진동무로구만. 추운 날 근무를 서느라고 수고하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나서 림시교사건물의 변두리마다에 세워진 야외조명등의 파들거리는 불빛속에 희미하게 드러나보이는 침실들쪽을 바라보시였다.

근심어린 그이의 눈길에서 무슨 뜻밖의 긴급한 정황이 생겼으리라고 나름대로 단정한 영진은 긴장한 어조로 말씀드렸다.

《장군님, 곧 원장동지를 깨우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장 달려가려고 하는 그의 팔을 다급히 잡으시였다.

《깨우지 마오. 온종일 아이들을 돌보다가 피곤해 누웠겠는데… 그리고 나이많은분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찬바람을 맞으면 감기에 들수 있소. 난 그저 우리 아이들의 잠자리나 한번 조용히 돌아보고는 가겠소.》

《예에?…》

영진은 목이 꺽 메인듯 아무 말도 못하고 서있었다.

《자, 나와 함께 침실들이나 좀 돌아보자구.》

김일성동지께서는 기본교사에서 서남쪽으로 조금 떨어져있는 학생침실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래, 옥순이가 제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군 하지 않소? 안길동무의 딸 말이요.》

《아직 우울해있긴 하지만 울지는 않습니다. 옆의 동무들이 모두 자기와 처지가 같은 아이들이니 아마 서로 위로가 되는것 같습니다.》

《하긴 그 애 나이가 열여섯이니 울고싶어도 제 동무들까지 울게 할가봐 참고 이겨낼거요. 이젠 그런걸 생각할 나이거던. 영진동무가 그 앨 잘 돌봐주오. 동무도 화물역에서 일하던걸 안길동무가 군대에 데려오지 않았소.》

《알겠습니다. 장군님,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차영진과 함께 초급반 녀학생들의 침실부터 들어가시였다. 방안이 훈훈하였다. 우선 마음이 놓이시였다.

《방안온도가 이만하면 괜찮구만. 한 20도는 잘되겠소.》

《예, 방안온도가 그렇게 됩니다.》

《다른 방들의 온도도 다 같소?》

《예, 매 방마다 방열판을 놓고 탄불을 때 열을 높이고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깊은 잠에 든 아이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둘러보시였다.

옥순이의 얼굴도 보이였다. 다행스럽게도 집무실에서 자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던 그런 눈물에 젖은 얼굴이 아니였다. 폭신한 솜이불을 덮고 자고있는 평온스러운 그 모습을 보느라니 만시름이 다 풀리는듯싶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눈길을 돌려 영진을 바라보시며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침실온도가 20도 아래로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겠소. 그러되 방안습도를 보장할수 있게 방열판주위에 물도 떠다놓고 탄내가 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하오.》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의 침실을 나서시여 이번에는 초급반 남학생들의 침실로 들어가시였다.

영진의 말대로 그 방의 온도도 괜찮았다. 그런데 사내녀석들이 되여 그런지 이불을 차던지고 자는 아이들이 많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빙긋이 웃으시며 그들에게로 다가가 하나하나 이불을 바로 덮어주시였다. 맨 나중으로 침대 제일 끝자리에서 꼬부리고 자고있는 아이의 이불깃을 여미여주시던 그이께서는 그가 덮고있는 이불이 작다는것을 알아보시였다. 그 애의 키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컸던것이다.

《이것 보오. 이불이 작으니 큰 아이는 이렇게 꼬부리고 자질 않소? 학년별로 이불크기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아이들의 키에 맞게 만들어줘야 하는거요.》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침실창문쪽을 살펴보시였다.

아닌게아니라 꼬부리고 자는 그 애쪽 가까이에 있는 창문이 약간 벌어져있었다. 아마 잠들기 전에 더워서 조금 열어놓았던 모양이였다.

그이께서는 얼른 다가가 창문을 꼭 닫아주시였다.

《영진동무, 학원일군들이랑 동무네 군사교관들이 밤마다 학생들의 침실을 돌아보군 하오?》

영진이 슬며시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저… 이따금 돌아보군 합니다.》

《이따금 돌아봐서야 안되지. 동무들은 학생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잘 돌봐주어야 하오. 특히 학원일군들은 밤마다 꼭꼭 침실을 돌아보면서 온도가 내려가지 않았는가, 이불을 차던지고 자는 학생들이 없는가, 창문이 열리지 않았는가 하는것을 살펴야 하오. 그래서 학생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배탈이 나지 않도록 해야지.》

《…》

영진은 자책감으로 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서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나머지 침실들을 다 돌아보시였다. 크게 마음에 걸리는것은 없으시였다.

이렇게 자신의 눈으로 직접 와보고나니 별스레 마음이 편해지시였다. 시간을 보니 한 30분가량 흘러갔다. 하지만 그 30분간에 그이께서는 며칠을 두고 헤여나오기 어려웠던 모진 괴로움을 털어버리시였다. 그것이 앙금처럼 심중의 밑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물론 그 앙금이 이제 어떤 파동이 일면 또다시 퍼져일어나 마음속에 아프게 달라붙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안정감에 휩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주눅이 든듯 말없이 자신의 뒤를 따라서기만 하는 영진을 돌아보시며 밝은 어조로 물으시였다.

《그래 영진동문 아직도 전투구분대에 갈 생각을 한다면서?!》

《저, 사실…》

《이보라구 영진이, 물론 전연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건 바로 저 아이들, 우리 혁명의 미래를 지키고 키우는것이요. 그 미래만 튼튼하면 나라도 더 굳건히 지킬수 있고 더 부강하게 건설할수 있는거요. 바로 그래서 안길동무가 영진일 여기에 보낸거란 말이요.》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한쪽어깨를 꽉 움켜잡으시였다.

안길이가 살아있다면 그가 꼭 영진이에게 이 말을 해주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장군님!…》

영진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이의 모습만을 우러러보았다. 왜서인지 마지막으로 안길을 만났을 때 《아직 멀었해!… 자기가 지금 무엇을 지키고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하고 꾸짖던 그의 목소리가 심금을 파고들었다.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그대로 영진에게 커다란 충격과 깨달음을 안겨주었지만 그 대답을 듣겠다고 한 안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던것이다. 이러한 그의 심정을 헤아려보신듯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시 한번 그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시였다.

《난 영진일 믿어. 일을 잘하라구.》

그이께서는 격정에 북받쳐있는 영진의 얼굴을 미덥게 바라보시고 나서 천천히 승용차에 오르시였다.

운전사가 재빨리 발동을 걸었다. 차가 흠칫하며 금시 떠나갈듯 하더니 다시 차문이 열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거수경례를 하고 서있는 영진에게 조금 큰 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영진동문 직일관으로서 오늘 내가 침실들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한것을 원장선생에게 꼭 전달해야겠소. 그럼 수고하오.》

《안녕히 가십시오, 장군님!》

차는 학원을 떠났다.

눈보라는 여전히 사납게 울부짖고있었다.

×

리종익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야 **김일성**동지께서 새벽 4시에 학원에 오시여 학생들의 침실을 돌아보시고 가시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자기를 깨우지 않은 차영진에게 버럭 소리를 쳤으나 장군님께서 원장선생이 온종일 아이들을 돌보다가 피곤해 누웠겠는데 깨우지 말라고, 나이많은분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찬바람을 맞으면 감기에 걸릴수 있다고 하시며 만류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만 목이 꺽 메여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는 즉시로 침실들에 나가 학생들의 키에 맞지 않는 이불들을 대책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하였다. 후방경리사업을 맡은 일군이 불리워오고 재봉실의 아주머니들이 달려왔다. 그리고 침실들의 방열판주위를 깐깐히 살펴보면서 탄내가 날수 있는 틈사리들을 모조리 찾아내여 대책하도록 하였으며 아궁이들의 상태까지 일일이 다 돌아보고서야 자기 방으로 들어섰다.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거느라니 그결에 기대여세워놓았던 까만 단장이 외투자락에 채여 넘어졌다. 귀청을 따갑게 울리는 그 소리에 얼

핏 이마살을 찡그리며 넘어진 단장을 집어든 그는 저도 모르게 《허허…》 하고 웃고말았다.

옻칠까지 하여 늘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던 단장에 미세한 먼지가 한벌 살짝 덮여있었던것이다. 그러고보니 정말 원장사업을 시작해서부터 단 한번도 단장을 짚어본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앞에 흉스러운 꼴을 보이고싶지 않아 짚지 않은것이 이제는 어느새 습관으로 되여버렸다. 아이들과 씨름질을 하며 그들의 세계에 파묻혀버리다나니 저도 모르게 마음뿐만아니라 몸까지도 다시 젊어지는듯싶었던것이다.

그 애들과 함께 있느라니 그는 왕왕 자기 나이를 까맣게 잊고 살때가 많았고 지난날의 그 외로운 고적감과 쓸쓸함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아이들도 오래동안 부모의 정을 그리며 살아와서인지 그의 두팔에 노상 매달리다싶이 하였다. 아들딸같은 끌끌한 큰 아이들과 손자, 손녀같은 작은 꼬마애들이 《원장선생님.》, 《원장선생님.》 하며 매여달릴 때면 자기가 꼭 몇대를 거느린 대가정의 가장이라는 생각이 들군 하였다.

학원아이들은 그의 기쁨이였고 자랑이였고 몸과 마음의 의지였다. 로친네가 이따금 《령감은 학원원장이 되더니 내 생각을 영 잊은게 아니요?》 하고 꼬부라진 소리를 하군 하지만 실상 그것은 로친네의 행복에 겨운 푸념질이라는것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왜냐하면 이사짐을 풀던 날 오구작작 모여들어 작은 보따리 하나를 놓고도 제 먼저 들겠다고 싱갱이질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난 당신에게 병신자식 하나 낳아주지 못했는데 우리 장군님께선 저렇게 끌끌한 아들딸들을 열구들 가득 안겨주셨구려.》 하고 눈물을 흘리던 로친네였기때문이였다.

(이제 그 뉘가 이 리종익의 인생말년이 불우하다하랴? 장차 이 나라의 대들보가 될 수많은 자식들이 곁에 있는데야 하물며 내 이 짧은 지팽이에 인생을 의지할고!)

그는 단장을 아예 보이지 않게 책장뒤에 세워두었다.

의자에 가앉으니 다시금 장군님의 그 다심한 보살피심이 가슴후덥

게 젖어들었다. 백두산의 호랑이로 소문나신분이 어쩌면 그리도 인정이 뜨겁고 다심하신지, 아직은 너무도 젊으신분이 어쩌면 그리도 백년, 천년의 세상만사를 다 겪으신것처럼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늙은이들은 늙은이들대로 그 심정을 속속들이 헤아려주시고 극진히 위해주시는지…

천품이라고밖에는 달리 말할수 없는 그분의 인정이였다. 그분의 사랑이였다. 아마 그런 천품을 지니신분은 이 세상에 장군님과 김정숙녀사님밖에 더는 없을것이다. 리종익은 다시는 그분들께 사소한 근심도 얹어드리지 말아야 하겠다고 속다짐을 하였다. 아무리 학원학생들의 학부형이 되겠다고 하셨다한들 한 나라의 크고작은 정사를 돌보셔야 하는 장군님께서 아이들의 잠자리걱정까지 하시게 해서야 어디 될말인가. 그 애들의 생활보장에 쓰라고 군용화물차까지 보내주시고 귀중한 승용차까지 원장사업차로 배려해주셨는데 그 승용차를 타고 나라정사는 도와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아이들 걱정이야 덜어드려야 할것이 아닌가. …

그가 이런 생각을 다몰아가는데 운동장쪽에서 학생들이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업이 끝날 시간이 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아닌게아니라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우르르 밀려나와 눈싸움을 하고있었다.

대견한 미소를 짓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리종익은 눈이 둥그래졌다. 눈싸움을 하는 아이들은 몇몇이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눈가래와 비자루를 들고 멎은지 얼마 안되는 눈을 치고있었던것이다.

(아니, 저런?!…)

놀란 리종익은 황급히 창가에서 물러나 외투도 입지 않고 허겁지겁 밖으로 달려나갔다.

《이건 뭐요? 누가 학생들을 눈치기에 불러내라고 했소?》

그는 학생들과 함께 눈을 치고있는 정치부원장에게 소리쳤다.

《수업이 끝났길래 내가 눈을 치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눈이야 쳐내야 할게 아닙니까.》

리진영은 성이 난 원장의 얼굴을 의아스레 바라보며 말했다.

《헛참…》

리종익은 혀를 차고나서 그중 가까이에 서있는 녀학생의 손에서 비자루를 빼었다.

《학생들은 다들 교실로 들어가시오. 학기말시험이 아직도 한과목 남아있는데 공부할 생각들은 않고 이게 뭐요? 도구들은 그 자리에 놓고 어서 들어들 가시오, 어서!》

원장이 다시한번 소리쳐서야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물러갔다.

《정치부원장동문 저 아이들이 애처롭지도 않소? 이 추운 날 그 애들 보구 눈을 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말이요.》

《예?》

《그러다가 한 아이라도 감기에 걸리면 어쩌겠소? 저 애들이 어떤 애들이게…》

《원장동지, 아무리 귀한 애들이래도 제가 배우며 생활하는 곳이야 제 손으로 거둘줄 알게 해야지요. 그리구 방안에 가두어두는것보다는 이렇게 일도 좀 해보는게 아이들의 몸단련에…》

그러나 정치부원장의 말은 리종익이 손을 홱 내젓는 바람에 중동무이되고말았다.

《글쎄 여느날이라면 몰라두 오늘같은 날엔 안되오. 난 원장으로서 절대로 그걸 승인할수가 없소.》

《허허…》

정치부원장은 더 할말이 없는듯 그저 웃어버리고말았다.

때마침 교무부원장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아마 원장이 큰소리치는걸 듣고 무슨 일인가 하여 달려온 모양이였다. 리종익은 그가 채 와닿기도 전에 다불러세웠다.

《동문 무슨 사업조직을 그렇게 하는거요? 내가 몇번이나 말했소? 아이들에게 험한 일을 시키면 안된다구. 더구나 지금은 시험기간이 아니요.》

《저…》

《긴말할새 없소. 군관들과 교원들, 학원종업원전체를 동원해서 눈을 쳐야겠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흥섭교무부원장은 오던 때처럼 숨을 헐떡거리며 되돌아 달려갔다.

《벌써부터 아이들을 시켜먹으려 든다니까.》

리종익은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며 비자루로 눈을 쓸기 시작하였다.

《원,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다들 나오려던 참일겁니다.》

리진영정치부원장이 그에게 다가서며 하는 말이였다.

《원장동지, 그러지 말고 그 비자루를 내게 주십시오. 눈은 우리가 다 치겠습니다.》

정치부원장이 그의 손에서 비자루를 빼으려 했으나 리종익원장은 아무 대꾸도 없이 소리나게 비자루질을 해나갔다.

리진영은 학생들에게는 턱없이 무던한 할아버지같다가도 교직원들에게는 종종 호랑이같은 기질을 보이군 하는 고집쟁이 원장의 뒤모습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물론 학생들을 끔찍이 생각하고 위해주려는 원장의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되고 머리가 숙어지지만 그러다가 아이들을 귀공자나 응석받이로 키우게 될가봐 걱정스러웠다.

그는 이 문제를 놓고 언제한번 원장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부지런히 눈을 쳐나갔다.

어느 사이에 달려나왔는지 교원들과 군사교관들, 종업원들이 걸싸게 일손들을 제끼고있었다. 리종익원장의 얼굴에는 그제서야 느슨한 미소가 피여났다. 그는 리진영의 등을 툭 쳤다.

《이보라구 정치부원장, 아까는 큰소리를 쳐서 안됐소, 더구나 학생들이 있는데서. 제 노여운 생각만 하다보니… 아마 늙으면 노여움이 많아지는가 보오, 허허. …》

《그거야 노여움이 아니라 사랑이지요. 난 학생들을 아끼는 원장동지의 그 마음을 존경합니다. 다만…》

리진영은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외투도 입지 않고 젊은 사람들과 꼭같이 눈을 치느라 수고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더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리종익은 그가 무슨 말을 하고싶어하는지를 다 아는듯 껄

껄 소리내여 웃었다.

《눈먼 사랑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거겠지. 나도 아오. 내 비록 자식은 길러보지 못했지만 귀한 자식 매로 키우랬다는 말쯤이야 알고있지. 허나새나 나도 교육사업을 오래동안 해온 사람이 아니요.》

그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 애들앞에는 교육자로가 아니라 아버지로 나서고싶은걸 어쩌겠소. 그런데 그것도 실은 욕망뿐이지 너무도 구실을 못하고있거던. 장군님께서는 우리 애들을 보옥처럼 귀중히 여기시는데 난… 정말 죄스럽소. 오늘 새벽일만 해도 그렇지 않소.》

그의 목소리는 절절하게 울렸다. 리진영은 학생들을 위하는 그의 마음이 자기가 생각했던것처럼 그렇게 단순한것이 아니였음을 깨달았다. 진실하고 깨끗한 그 마음에 가슴이 찌르르해왔다.

《원장동지!》

그는 원장의 찬 손을 슬며시 잡았다. 원장을 더 잘 도와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장군님께서 혁명가유자녀들을 보옥처럼 여기실뿐아니라 앞날의 기둥감으로 여기고계시는 그 뜻을 리종익원장이 더 잘 받들어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그 뜻을 따르지 못할 때 원장의 마음은 아이들에 대한 한갖 동정이나 애정으로 끝날수 있다. 그 마음이 혁명의 미래를 품어주고 키워주는 참다운 사랑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그들은 서로의 생각에 잠겨 말없이 마주보았다.

벌써 운동장의 눈은 말끔히 사라져버렸다. 교실의 창문들에서는 제비새끼들처럼 오구구 모여앉은 아이들이 얼굴을 창유리에 대고 운동장쪽을 내려다보고있었다.

7

학원에서 뜻밖에도 열병이 발생하였다.

류한종의사(그는 얼마전부터 학원의사로 사업하고있었다.)는 열병에 걸린 10여명의 학생들을 따로 격리시키고 그들에 대한 집중

적인 치료전투를 벌리였다. 급성전염병이였으므로 원장이외에는 그 누구도 일체 격리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교직원들이 문밖에서 교대별로 단속근무를 서도록 하였다. 식사도 약도 옷가지들도 모두 류한종의 손을 거쳐서만 환자들에게 전달되였다. 격리실에 들어왔다 나가는 일체 물품들은 철저히 소독하도록 체계가 세워졌고 침실들과 식당을 비롯한 학원전반에 대한 소독사업이 수차에 걸쳐 진행되였다. 그런 결과로 다행히도 다른 학생들속에서 더는 열병감염자가 확대되지 않았다. 격리실의 열병환자들속에서도 더러 병세가 호전되는 학생들이 나타났다. 리종익원장은 류한종의사와 정치부원장과 토론을 거듭한 끝에 학원에서 열병이 발생한 사실을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숙녀사께 알려드리지 않기로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생활이 근심되여 때없이 자주 학원에 오시는분들인데 이 사실을 전달받으면 그 즉시로 달려오시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였던것이다. 열병이 다름아닌 전염병인것만큼 그분들을 그 위험한 곳에 모실수 없다는것이 학원일군들의 일치한 생각이였다. 만일 학원에 오시는 경우에도 일체 내색을 하지 않기로 모든 성원들에게 지시가 떨어졌다. 그래서 격리실도 식당에서 120여메터 떨어져있는 건물에 정하였다.

이날도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신채 학원에 나오시였다. 장군님께서 엊그제 먼 지방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셨으므로 그이께서 근심하지 않으시게 아이들의 생활을 돌봐주고싶으셨던것이였다.

이젠 학기말시험도 다 끝났겠는데 아이들의 학업성적은 어떠한지? 반찬은 무엇을 해먹이며 빵을 비롯한 간식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지? 인차 겨울방학을 떠나보내야겠는데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무엇을 준비해 보내야 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며 학원에 도착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늘쌍 그러하시듯 먼저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식당입구에 거의 이르렀을 때 그릇들이 가득 담긴 다반을 들고나오던 두명의 식당녀인들과 마주치시였다.

그들은 공교롭게도 격리실의 환자들에게 점심식사를 날라가던 길

이였다. 김정숙동지를 알아본 그들은 흠칫 놀라며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운반식사를 날라가는걸 보니 환자들이 생긴 모양이지요?》

그이께서는 추운 날씨에 감기에 걸린 아이들이 생긴것으로 생각하시며 근심어린 목소리로 물으시였다.

《예? 예, 아니 저…》

당황한 식당아주머니들은 서로의 얼굴만 마주볼뿐 더이상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서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다반을 덮은 보자기의 한쪽귀를 들어보시였다.

소고기를 탕쳐 넣은 죽그릇들이였다.

《그릇을 보니 앓는 아이들이 많은 모양이군요. 자, 죽이 식기 전에 어서 환자들에게 가자요.》

그이께서는 다반을 얼른 넘겨쥐시고 학생들의 침실쪽으로 걸음을 내짚으시였다.

《아니, 저…》

식당녀인들은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격리실은 침실들과 다른 방향에 있었던것이다.

《저… 식사는 우리들이 날라갈테니 어서 일을 보십시오. 식당안에 취사원들이 있습니다.》

《앓는 애들한테 가보는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빨리 가자요.》

그랬어도 그들은 좀처럼 따라설념을 못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제서야 그들의 행동거지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였다.

《아니, 왜들 그래요?》

《저… 환자들은 침실이 아니라 저기 격리실에…》

한 아주머니가 할수없이 격리실방향쪽을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예? 격리실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너무도 놀라시여 큰소리로 되물으시였다.

가슴이 후두둑 뛰고 불길한 예감이 갈마드시였다.

《아니, 격리실이란건 또 뭐예요. 숨기지 말고 내게 솔직하게 말

해줘요.》
더는 사실을 감출수 없게 된 그들은 학원에서 며칠전부터 열병환자들이 나타난 일을 자초지종 말씀드렸다.
억이 막히시였다. 더 듣고만 계실수가 없으시였다.
《아니, 그런 일을 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이께서는 다반을 한 아주머니에게 덥석 안겨주고나서 무작정 격리실쪽으로 달리시였다. 뒤에서 만류하는 녀인들의 목소리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으시였다.
열병, 그 무서운 병마가 우리 아이들에게 덮쳐들다니?… 산에서 싸울 때에도 얼마나 귀중한 전우들이 그 병때문에 목숨을 잃었던가. …
격리실앞마당에서 그 누구들인가가 앞을 막아서야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런 생각을 털어버리실수 있으시였다.
《녀사님, 이곳엔 들어갈수 없습니다.》
《예, 그저 창밖에서만 보아주십시오.》
그들은 차영진과 김춘희였다. 격리실의 단속근무를 수행하고있던 그들은 정신없이 달려오시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보고 무작정 막아서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음을 직감하였던것이다.
《동무들이군요. 난 앓는 애들을 봐야겠어요.》
창백해진 그이의 얼굴에는 단호한 빛이 어려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격리실엔 들어갈수 없습니다. 녀사님은 더더구나 안됩니다.》
영진은 완강하게 두팔을 벌렸다. 춘희도 그이의 손을 부여잡으며 애원하듯 간청하였다.
《격리실안에만은 제발 들어가지 말아주십시오. 위험합니다.》
그이의 눈가에 핑그르 눈물이 피여올랐다. 앞을 막아서는 사람들의 성의가 고마워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깝고 야속해서였다.
《너무하군요. 동무들이 이럴줄은…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예요. 장군님께서 그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아이들인데… 열병을 앓고있다고 날 못 들어가게 하다니. 세상에 제 자식이 열병을 앓는다고 꺼려할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저 애들은 모두 우리 장군님의 자식들이예요. 난 저 애들의 어머니란 말이예요.》

너무도 절절하신 그이의 음성에, 너무도 괴로움에 잠기신 그이의 모습에 영진이도 춘희도 그만 고개를 떨구고말았다.
그때 격리실문이 열리며 류한종이 황급히 나왔다. 문밖에서 주고받는 소릴 다 듣고 참다못해 나오는 길이였다.
《정숙동지! 빨찌산의 옛 군의인 이 류한종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놓고 돌아가십시오. 산에서 싸울 때에야 변변한 약이 없어 걱정했지만 지금에야 뭘 걱정할게 있습니까? 큰 병원들에서 좋은 약들을 가져왔으니 마음놓으셔도 됩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의사인 그의 말을 들으시고서야 조금 마음이 안정되시는듯 깊은 숨을 내그으시였다.
《하긴 류동지야 산에서 싸울 때 수많은 열병환자들을 치료한 경험이 있지요? 정말이지 장군님께서 이런 일을 미리 예견하시고 다른 사람이 아닌 류동지를 학원의사로 파견하신것 같은 생각이 드누만요.》
《허허… 그때 정숙동지도 열병에 걸린 환자들 간호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까지 또 그 위험한 일을 하시렵니까? 열병이란게 사실 부모자식간에도 꺼리는 병이라는걸 잘 아시면서두…》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러는 류한종의 손을 꼭 잡으시였다. 그리고 간절하게 말씀하시였다.
《류동지, 우리야 함께 산에서 싸우면서 함께 고생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설사 부모자식간에는 그 병을 꺼릴수 있다 해도 혁명동지들사이에는 아무것도 꺼려서는 안된다는것이 장군님에게서 배운 우리의 정신이 아니였습니까.》
《…》
《난 어머니의 자격으로도 들어갈수 없다면 저 애들의 혁명동지의 자격으로 꼭 들어가겠어요. 내 걱정은 마십시오.》
그이의 너무도 뜨거운 진정앞에서 류한종도 차영진도 김춘희도 더 이상 만류할 생각을 못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저없이 격리실안에 들어서시였다.
격리실안에는 아직도 고열에 시달리며 자리에 누워 신음소리를 내

는 아이들도 있었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여 일어나 앉아있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던 아이들이 그이의 모습을 알아보고는 일시에《어머니!》 하고 웨치며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입술에 조갈이 들고 누렇게 뜬 그들의 얼굴을 가슴아프게 바라보시며《너희들이 이렇게 앓고있는줄은 몰랐구나. 정말 몰랐어.》 하고 죄스럽게 되뇌이시였다.

아이들은 열병을 앓는 몸으로 그이의 품에 안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더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은채 눈물만 훔치고있었다.

어린 학생들의 그 갸륵한 마음이 헤아려져 가슴이 더욱 저며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아이들에게로 다가가시여 와락 한품에 껴안으시였다.

《너희들이 그래도 어머니걱정을 다 하는구나. 난 일없다.》

아이들은 김정숙동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이때 격리실문이 다시 열리더니 리종익원장이 달려들어왔다. 그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침대에 눕혀주시며 이마를 짚어보시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어찌할바 몰라할뿐이였다.

《아이들이 급한 고비는 넘긴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열들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더 잘 치료해주어 다시 열이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할겁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이들의 침대에서 일어나 원장이 서있는쪽으로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리고는 리종익과 류한종을 바라보시며 따뜻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원장선생님과 류한종동지가 앓는 학생들때문에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리종익원장은 자기들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는 그이의 말씀에 그만 머리를 푹 수그리고말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류한종의사에게 아이들의 치료대책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나서 간곡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 이 애들이 앓고있다는것을 아시면 얼마나 가슴아파

하시겠습니까. 장군님께서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는 이 애들이 한명이라도 잘못되면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장군님을 대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서라도 꼭 하루빨리 병을 고쳐줍시다.
지난날 갖은 고생을 다 겪으며 부모없이 자라오다나니 그때 벌써 이 애들이 골병에 들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
침대 한켠에서 누군가《흑…》 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학원일군들과 나누시는 그이의 말씀을 듣고있던 한 아이가 더 참지 못하고 또다시 울음을 터친것이였다. 머리끝까지 뒤집어쓴 이불이 세차게 오르내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얼른 그한테로 다가가시였다. 이불깃을 슬며시 헤치고보니 열에 들떠 해쓱해진 그의 얼굴에서는 줄줄이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그를 달래시며 손수건으로 눈물에 얼룩진 얼굴을 꼼꼼히 닦아주시였다.
순간 그는 끝내 가슴속에서 터져오르는 오열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ㅡ》 하고 목놓아부르며 베개에 얼굴을 묻고 더 큰소리로 울기 시작하였다. 침대의 여기저기서 모든 아이들이 엉엉 소리를 내며 목놓아울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뜨겁게 젖어드는 눈길로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애써 그들을 달래시였다.
《애들아, 일없다. … 이제 곧 낫는다. 지난날 부모를 잃고 그 모진 고생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왔는데 너희들이 이만한 병을 이기지 못하겠느냐. …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들의 원쑤를 갚기 위해서도 너희들은 하루빨리 병을 고치고 건강한 몸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시는 그이의 눈가에도 어느덧 눈물이 고여올랐다.
리종익과 류한종도 손수건으로 눈굽을 닦고있었다. …
이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열병에 앓아누운 아이들의 입에 한숟가락 또 한숟가락 죽을 떠넣어주시고도 오랜 시간에 걸쳐 그들을 보살펴주시고서 저물녘에야 격리실을 떠나시였다.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그이께서는 열병치료에 좋다는 미나리김치도 담그시고 녹두지짐과 찹쌀엿 그리고 수많은 귀한 약재와 과실들을 구해가지고서 학원의 앓는 아이들을 찾아오시였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회복되여갔다.

8

《도대체 이게 무슨 망신이요? 세상에 대고 혁명가유자녀들을 키우는 학원을 세웠다고 큰소릴 쳐놓고 학생들이 죽는다 산다 하며 소동이니 우리 간부들이 어떻게 머릴 들고 다니겠소. 이 학원은 여느 학교와 다르단 말이요. 아직 국가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 미래의 국가가 직접 말아키워야 할 아이들을 모아놓은 학교인것으로 해서 적들은 물론이거니와 형제국가사람들까지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우릴 지켜보고있단 말이요.》

비교적 널직한 원장사무실에는 학원일군들과 교원, 군사교관들이 비좁게 앉아있었다.

허가이는 대다수 머리를 짓수그리고있는 그들의 정수리를 선자리에서 둘러보며 어조를 좀 느긋이 낮추었다.

《물론 지금껏 떠살이하며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해 영양상태가 한심했던 아이들이니 열병과 같은것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변명하겠는가. 그럴수는 없습니다. 털어놓고 말해서 난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김일성**동지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겠는가 하는 생각때문에… 다행히도 **김일성**동지께서 지방현지지도길에 나가계셨기때문이지 아마 평양에 계셨더라면 일손을 잡지 못하시고 줄창 여기에 나와 살다싶이 하셨을겁니다. 언제까지 이 학원이 그분의 사업에 짐이 되고 부담으로 되여야 하겠는가. 언제까지 이 학원이 그분의 정력과 시간을 빼어가야 하겠는가, 예—에?!》

그가 안타까움에 겨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에 바늘처럼 아프게 들어와 박혔다.

권고사직문제로 하여 그와 좋지 못한 감정이 얽혀있어 고개를 돌리고 창밖에 시선을 두고있던 리종익원장도 그 말에는 시선을 떨구었다.

허가이는 그의 미세한 변화를 살펴보며 말을 계속했다.

《동무들, 생각들 좀 해보시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준엄한 정세하에서 혁명을 하고있습니까. 38도선아래에서는 리승만이가 미국놈들을 등에 업고 〈단독정부〉를 세우겠다, 북진하겠다 날뛰고있고 압록강너머에서는 국내전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에서 언제 불티가 우리한테 날아올지 모를 형편입니다.

한때 쏘련에서도 10월혁명승리이후 이와 비슷한 정세가 조성된적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백파도당들이 날뛰구 또 한쪽에서는 제국주의무력간섭이 벌어지구. 그때 유일한 사회주의국가였던 쏘련은 혼자의 힘으로 그 모든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사회주의쏘련이라는 강대한 동맹국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북조선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 리념적으로만이 아니라 체질적으로도 쏘련과의 운명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보시오. 얼마나 엄청나게 중대한 사업들이 **김일성**동지의 어깨에 걸머지여있는가. 과연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이런 현실적인 절박한 사업들을 그이가 아닌 그 누가 감당할수 있겠는가. …》

이것은 그의 진심의 소리였다. 그는 나라의 복잡다단한 정치문제들을 능숙하게 틀어쥐시고 새 조국건설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김일성**동지의 령도적수완에 내심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더우기 자기의 열망을 헤아려보시고 쏘련군사령부에서 한갖 번역원으로 있던 자신을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조직부장으로 내세워주신 그이의 신임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였다. 그는 **김일성**동지를 받들어 새 나라의 건국공신이 되리라 마음다졌다.

자기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할만 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쏘련에서 집권당의 당일군으로서의 사업경험,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체험 그리고 쏘련당과 정부와의 인맥관계… **김일성**동지의 수하에 이런 경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이외에 더 꼽아볼만 한 사람이 없

다고 그는 자부하였다. 그런데 점차 그의 사업은 초기의 결심과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쏘련에서 배웠고 쏘련에서 일했던 그런 리론과 경험으로써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있었던것이다.

민주개혁문제들도 그렇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문제, 정권건설문제, 무력건설문제, 경제건설문제 등에서도 그는 자기나름의 모순에 빠져들군 하였다. 그는 어떻게 해서나 **김일성**동지의 사업이 쏘련사람들의 불만을 삼이 없이 기성리론과 경험대로 순탄하게 흘러가 불일치가 없기를 바랐다. 학원문제 하나만 놓고봐도 그러했다. 하필이면 쏘련에서도 혁명이 승리한지 26년이 지나서야 세운 유자녀학원을 해방된지 2년만에 먼저 세워놓고 그 사람들의 체면과 자존심을 상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점에서 볼때 청산대상이 되거나 배제대상이 될수도 있는 아이들을 학원에 벌써부터 미리 모아놓고 정치적표적이 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학원창립을 선포한것만큼 달리할수는 없겠지만 그 표적이야 선명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것이 바로 **김일성**동지의 대외사업적부담을 덜어주고 새 국가창건의 유리한 정치적환경을 마련해주는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

허가이는 사실 열병문제때문이라기보다 이런 자격지심때문에 학원에 나왔다. 그는 좀 지친 기색을 지으며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잠시 리종익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사실은 저 민족주의자출신부터 원장자리에서 쫓아내야 하는건데… 하여간 당장은 어쩔수 없으니 좀더 두고보는수밖에…) 하고 생각하며 그는 원장에게 말했다.

《원장선생! 그래 내 말을 들으며 뭐 좀 생각되는것이 없습니까?》

리종익원장이 자리에서 무겁게 일어섰다. 허가이는 과거일을 량해시키는 의미에서 리종익에게 앉아서 이야기해도 일없다고 아량을 보일가하고 생각했다가 속으로 곧 도리머리를 저었다. 지금은 아량보다도 위엄을 느끼게 하는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원장인 내자신이… 일을 쓰게 못했습니다. 다시는 학원일때문에

장군님께서 마음쓰시지 않게 사업을 짜고들겠습니다.》
리종익은 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서있었다.
허가이는 그에게서 눈길을 돌리고 좌중을 쭈욱 둘러보며 말했다.
《열병에 걸렸던 아이들은 거의다 완쾌되였다니 그건 더 론의할 필요가 없는게고… 문제는 앞으로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수 있다는겁니다.》
그의 말에 머리를 수굿하고있던 대다수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리종익원장도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허가이는 좌중의 시선을 무겁게 받으며 서류가방쟈크를 소리가 나게 열어제꼈다. 그속에서 그리 두텁지도 얇지도 않은 문건철을 꺼내였다.
《이건 애국투사후원회 라부위원장동무가 내게 보내온 학원학생명단입니다. 그런데 문건을 보니 아직도 흐리터분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는 자기가 표식해두었던 부분들을 찾아 종이장을 벌컥벌컥 번졌다.
《이것 보시오. 독립군사령을 하던 사람의 아들이 있는가하면 남조선에서 정판사위조화폐사건때에 죽은 사람의 딸도 있습니다. 뭐 이러루한 대상들은 많습니다. 벌목공으로 일하다가 순사에게 맞아죽은 사람, 농사를 짓다가 죽은 사람, 나중에는 우리 빨찌산들의 손에 죽은자의 자식까지 다 있습니다. 그녀석 이름이 뭐드라? 그렇지, 김백산이.》
《저… 그들은 다 조직적인 보증을 받고 학원에 온 아이들입니다.》
정치부원장이 그가 리해를 잘못한것 같아 이렇게 설명하려 하였다.
《그 조직적인 보증이란것도 결국은 개별적사람들의 말을 듣고 한것이겠지? 생각을 좀 해보오.》
허가이는 자기가 펼쳐든 문건을 툭 쳤다.
《그 모든걸 인제와서 누가 정확히 보증할수 있단 말이요. 속히웠을수도 있고 날조했을수도 있는거란 말이요. 이걸 얼핏 보면 비명에

죽은 사람들은 다 혁명가로 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요. 례컨대 안길동무의 딸처럼 명백해야지. 안길동무는 쏘련사람들도 다 아는 혁명가란 말이요. 이런 큰 혁명가의 자식들을 찾아내지 못하다나니 학원구성이 이렇게 얼룩덜룩해졌단 말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학원에서 발생할수 있는 제2의 정치적열병으로 될수 있는거요.》

그는 문건을 탁 덮고나서 회의를 처음 시작하던 때의 격조를 되살렸다.

《학원학생들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좀 때늦은감은 있지만, 참 원장선생, 학생들을 인차 겨울방학에 보낸다지요?》

《예.》

《그럼 내 이 문건을 주고 갈테니 내가 문제성있다고 동그라미를 쳐놓은 학생들은 그때에 완전히 내보내시오. 다음학기 개학때에는 나타나지 않게 말입니다. 특히 그 김백산이란 아이를 포함해서…》

그는 좌중에서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흥분에 찬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는 젊은 군관을 놀라서 바라보느라 그옆에 얼굴이 까맣게 질려 앉아있는 김춘희의 모습은 알아보지 못하였다. 일어선 사람은 차영진이였다.

《백산이는… 그의 아버지는 유격대에 의해 처단된것이 아닙니다. 그건 왜놈들의 모략선전이였습니다. 이건 **김일성**장군님께서 직접 보증하신겁니다.》

허가이는 잠시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머리를 끄덕이였다.

《음… 그렇다면 그 문젠 더 론하지 맙시다. 하지만 동무, 장군님께서 보증하신것은 그가 유격대에 의해 징벌을 당한것이 아니라 왜놈들에 의해 죽었다는거란 말이요. 내겐 그가 죽기 전에 공동투쟁을 설복하려 찾아간 유격대파견원을 구류하고 나중에는 총살해버렸다는 움직일수 없는 사실자료가 있소.》

《예?》

그는 놀라는 영진에게 씁쓸한 미소를 지어보이고나서 좌중을 둘러보았다.

《사실 이런 문젠 동무들에게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는것이지만 할수 없구만. 자꾸 고집들을 하니…》 하며 그는 서류가방에서 또 하나의 얄팍한 문서를 꺼내보였다.

《이건 만주에서 공산당재건운동에 참가했던 라부위원장이 그자의 죄행에 대해 까밝힌 신소문이요. 그의 말에 의하면 김현철은 체질적으로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증오감을 가지고있었다고 하오. 이러한 그자에게 찾아갔던 유격대파견원이 죽었단 말이요. 그이상 명백한 론거가 또 어디 있소?》

《절대로, 절대로 그럴수 없습니다.》

《천진하구만, 천진해. 하긴 혁명투쟁의 세례를 직접 겪어보지 못한 동무같은 사람들이야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을 리해할수 없지. 따라서 세상사람들도 학원의 이러한 얼룩덜룩한 구성상태를 쉽게 리해하지 못한단 말이요. 때문에 투명해야 하오. 세상이 공인하는 혁명가들의 자식들로 학생들을 꾸려야 한단 말이요.》

그는 무슨 말인가 더 하고싶어하는 영진을 향해 앉으라는 손짓을 연방 해보이고나서 말을 이었다.

《어쨌든 개인복수를 반대하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원칙과 관련되는 문제이니 나도 더이상 그자가 누구의 손에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소. 그러나 학원의 혁명적원칙성과 순결성을 고수하는 문제까지 양보할수는 없단 말이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예수나 부처가 아니요. 만민박애와 천하중생을 다 사랑하라는 그들의 교리를 우리가 어찌 따를수 있겠소?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사랑에는 계급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거란 말이요.

이 학원이 어떤 학원이요? 앞으로 쏘련에서와 같은 사회주의혁명의 바통을 넘겨받아야 할 미래의 기둥감들을 키워내는 혁명학원이요. 이런 학원에서 과거 민족주의나 고취하던 우국지사들, 투쟁업적과 투쟁경력이 미미하거나 흐리터분한 명색상의 혁명가들의 자식까지 다 키워줄순 없단 말이요.》

그의 어조는 단호해졌다. 그의 눈빛도 랭철해졌다.

그는 그때까지 묵묵히 서있던 리종익에게로 그 차거운 눈빛을 돌렸다.

《원장선생, 내 말이 리해됩니까?》
방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길이 일시에 원장에게로 쏠렸다.
놀라움과 의아함, 긍정과 리해, 동정과 불안…
그들의 시선에 비낀 각이한 의미를 느끼며 리종익원장은 무겁게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리해는 되지만… 동의할수는 없습니다. 그 애들 문제는 어느 하나라도 다 장군님의 결론을 받아야 합니다.》
《나도 원장동지와 같은 생각입니다.》
리진영정치부원장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의 말을 지지했다.
허가이는 말문이 막혔다. 아연해진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얼마나 정치적으로 무식한 인간들인가. 저들의 그 고집이 **김일성**동지의 사업에 어떤 부담으로 되는지도 모르는 단순한 사람들…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바닥을 갉는 아츠러운 의자소리가 가뜩이나 팽팽해진 사람들의 신경을 끊을듯이 잡아당겼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나직하면서도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업을 이 좁은 학원울타리안에 비끄러매려 하지 마오. 아이들에 대한 그이의 남다른 인정심을 악용하지 말란 말이요. …》

×

춘희는 자기가 어떻게 그 회의장소에서 쓰러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견디여낼수 있었던지 믿어지지 않았다.
자기가 왜 그 조직부장이라는 사람을 향해 《아니예요. 절대로 그럴수가 없어요!》라고 목청껏 웨치지 못했는지 리해되지 않았다.
그는 무작정 내달렸다. 그 어디로 가는지도 의식하지 못한채 정신없이 내달렸다. 자기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놀라움과 의혹 아니, 경멸의 눈빛들이 화살처럼 얼굴에 박히는듯싶었다.
《…김현철은 체질적으로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증오감을 가지고있

었다고 하오. 이러한 그자에게 찾아갔던 유격대파견원이 죽었단 말이요.》

문건을 내흔들며 확신에 차 말하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자꾸만 뒤쫓아왔다. 달리면 달릴수록 그 무서운 목소리는 더욱더 크게 고막을 때렸다.

《서시오! 춘희선생!—》

등뒤에서 울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

그러나 춘희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채 학원 뒤산쪽으로 그냥 달려갔다.

숨이 턱에 닿아 휘청거리면서도 멈춰서지 않았다. 귀전에서 윙윙거리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곳까지 이렇게 내처 달아나고만싶었다.

《당장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겠소?》

또다시 등뒤에서 울리는 누군가의 거친 목소리…

춘희는 그만 쓰러질듯 비칠거렸다. 억센 손아귀가 그의 어깨를 꽈악 부여잡았다.

차영진이였다. 그를 알아보는 순간 춘희는 슬픔에 찬 목소리로 나직이 부르짖었다.

《제발, 제발… 날 붙잡지 말아주세요. 난, 난 더이상 여기 있을수가 없습니다.》

《진정하시오.》

영진이 숨을 톺으며 말을 이었다.

《춘희선생이야 이제 학생들앞에 나서야 할 사람이 아니요? 진정해야 하오.》

괴로움을 짓씹는듯 한 그의 목소리…

춘희는 그만 울음을 터치고말았다. 참고참았던 눈물이 두볼을 타고 비방울처럼 흘러내렸다.

《내가, 내가 어떻게 학생들앞에 다시… 나설수 있단 말입니까? 나와 우리 백산인 이젠… 이젠…》

《그럼 어쩌겠다는거요?》

영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래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 학원을 버리구 가버리겠다는거요? 가면 어디로 간단 말이요?》
《영진동지, 그러지 마세요. 영진동지야 우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린 어디 더 갈데도 없어요. 나와 백산일 진정으로 품어주고 사랑을 부어준건 이 학원밖엔 더 없단 말입니다. 이 학원은 나와 우리 백산이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마음놓고 안긴 유일한 보금자리였구… 우리 백산이가 처음으로 마음껏 뛰여놀수 있은 유일한 뜨락이였어요. 하지만… 하지만…》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삼키며 춘희는 망연하게 머리를 흔들었다.
《그만하시오!》
영진의 두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번쩍였다.
《놀랍소. 우리 장군님께서 보증하신 애국자의 집안에 선생같은 나약한 사람이 있다는것이 정말 놀랍단 말이요.》
《예?…》
《선생은 말끝마다 어린 백산이에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이 학원이 다름아닌 **김일성**장군님의 품이라고 말해왔었지? 그런데 그렇게 말해온 선생자신은 우리 학원을 그 무슨 려인숙이나 고아원처럼 생각해왔단 말이요. 누구의 눈치를 보아가며 있고싶으면 있고 가고싶으면 가도 되는…》
《그건, 그건 너무해요.》
《뭐가 너무하단 말이요. 춘희선생이 진정 우리 학원을 장군님의 품으로 생각했다면, 자기가 진정 장군님의 품에 안겼다고 생각했다면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학원을 믿어야 할게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 학원을 놓고 아직까지도 자기가 살 뜨락인가 아닌가를 저울질해볼수 있는가 말이요?》
《아니?…》
춘희는 가슴을 찌르는 무자비한 영진의 말에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어쩌면… 어쩌면 그런 모진 말을…
내 어떻게 그런 저울질을 할수 있단 말인가? 얼마전까지만도 정이 그리워 슬픔에 울던 내가, 도대체 나와 백산이가 무슨 존재라고 그

런 투정질을 할수 있단 말인가?…

마음속에서는 이런 항변이 콩튀듯 하였으나 어째서인지 춘희는 한마디도 할수 없었다. 불길이 황황 이는듯 한 영진의 눈빛이 그를 여지없이 태워버렸던것이다.

《선생처럼 그런 떨떨한 신념을 가지고서는 우리 학원의 신성한 교단에 설 자격이 없소. 결심하시오. 우리 장군님의 품속에서 혁명가로 살겠는가 아니면 제 하나의 감정에만 파묻혀버리는 그런 나약한 녀자로 살겠는가.》

춘희는 두눈을 꼭 감았다. 영진의 눈빛을 마주볼수 없었다.

어쩐지 그 눈빛이 지금껏 춘희의 마음속에 끈덕지게 슴배여있던 인생의 우수를 깡그리 증발시켜버리는듯만싶었다.

《영진동지!》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다만 마음속으로 소리쳐불렀다.

아, 고마운 사람!…

×

소문은 항상 보태지기마련이다.

일부 학생들을 학원에서 내보내는가 마는가에 대한 우려와 론의는 학원일군들과 교직원들의 계선을 넘어 학생들속에까지 퍼져가면서 이제 곧 단호하게 내보낸다는것으로 와전되여버렸다.

그중에서도 백산의 문제는 아버지의 경력을 기만하고 학원에 들어온 반역자의 자식이라는식의 과장된 억측이 쉬쉬하며 돌았다. 물론 아직은 그 누구도 그런 말을 백산에게나 춘희에게 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의 이상스러운 눈초리는 그들에게 집중되였다.

춘희로서는 사람들의 따지는듯 한 그 눈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억울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도 없지 않았다. 그 불안은 다름아닌 백산이때문이였다.

그 어린것이 만일 그 소문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랴. 겨우 아물었던 마음속 상처를 이제 또 헤집어놓는다면 그 애는 더 참아내지

못할것이다. 너무도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제또래의 동무들한테서 모욕과 멸시, 랭대와 비난, 지어 모두매까지 맞으며 자라다보니 백산이는 아직 선입견과 피해의식이 강하였으며 성격속에 거칠고 방랑아적인 기질이 많이 남아있었다.

이러한것들은 벌써 그리 길지 않은 학원생활의 이모저모와 동무들과의 관계에서 이러저러하게 표현되고있었다. 그러한 그 애가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어떤 물의를 일으킬 행동을 하겠는지 알수 없었던것이다.

춘희의 불안과 예감은 결코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일은 끝내 터지고야말았다.

오늘 학원에서는 방학을 앞두고 학기말성적에 대한 총화가 있었는데 백산이는 학급에서 몇명 안되는 최우등생명단에 들어있었다.

총화사업이 끝나고 교원이 교실에서 나가자 좀 으쓱해진 백산이는 성적이 낮은 몇몇 아이들을 바라보며 깔보는듯 한 어조로 《어쩌면 그렇게도 머리가 돌지 않니? 너희들때문에 우리 학급 성적이 다른 학급보다 뒤떨어지지 않았니?》 하고 말했다.

《뭐야?》

한 아이가 참지 못하고 불끈 일어섰다. 가뜩이나 기분이 좋지 않던차에 뒤숭숭한 소문이 도는 백산에게서까지 시까스름을 당하고보니 밸이 꼴렸던것이다.

《야, 나도 너처럼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다녔으면 얼마든지 공불 잘할수 있었어. 얘들아, 안그래?》

그 애가 학급동무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이때라고 생각한 아이들이 너도나도 한마디씩 내쏘았다.

《맞아. 우리가 월사금이 없어서 학교에서 쫓겨나 나무지게를 지고 다닐 때 저자식은 인력거를 타고 학교에 다녔을거야.》

《이자식이 공부를 좀 했다고 재세를 해?》

《야, 야. 네가 선생님들을 속이고 학원에 온줄 우리가 모르고있는줄 아니?》

《당장 학원에서 쫓겨나야 할 주제에… 흥!》

《?!…》

그제서야 백산이는 동무들이 아니, 어른들까지도 왜 자기를 이상스레 보며 수군수군하였는지를 깨달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무작정 앞에 있던 한 아이를 그러안고 힘껏 내리눌렀다. 그의 뒤로 또 몇몇 아이들이 달라붙었다.

엎치락뒤치락…

투닥투닥…

열두세살난 아이들의 싸움은 윤흥섭교무부원장이 뛰여들어와서야 뜯어말릴수 있었다. 윤흥섭의 질책은 싸움을 먼저 시작한 백산에게 떨어졌다.

《인제보니 백산이 네녀석이 정말 문제성있는 녀석이로구나. 한땐 담배질을 해서 장군님께 우리 학원 망신을 시키더니 이젠 또 동무들과 싸움질까지 해? 오늘 보니 정말 학원에 있을 녀석이 못되는구나. 당장 문제를 세우고말아야지. 가자, 원장선생님한테 어서 가자.》

그는 백산이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끌었다.

《이걸 놓으라요, 놓으라요.》

백산이가 발버둥을 쳤다. 교실복도에서는 무슨 일인가 하여 다른 학급과 다른 학년의 아이들이 목을 빼들고 들여다보았다.

백산이는 얼핏 그들의 눈길을 마주보았다. 어쩐지 그들에게서도 방금전 자기 학급동무들에게서 보았던 그런 쌀쌀한 빛이 느껴지는듯싶었다. 아니, 룡정에서 살 때 그리고 무산에서 살 때 언제나 자기에게 향해지던 그 차거움이 다시금 느껴졌다. 그는 자기에게 그때와 같은 불행이 다시금 다가오고있음을 륙감적으로 깨달았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다른 본능이 살아나게 만들었다. 그는 교무부원장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헛참, 못된 녀석!…》

윤흥섭은 괘씸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였지만 (제깐녀석이 뛰여야 벼룩이지!) 하는 심사로 그냥 보고만 서있었다. 그리고 같이 싸움질을 한 아이들에게 대충 욕설 몇마디를 하고는 곧 원장방으로 가고말았다.

《아니, 그러니 단순히 아이들의 다툼질이 아니라 그 애 아버지문

제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요?》
리종익원장이 놀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런것 같습니다. 학급아이들에게 따져물으니…》
《아니, 그 애들이 그런 문젤 어떻게 안단 말이요? 어떻게 되여 학생들에게까지 그런 확인되지 않은 말이 들어갔나 말이요? 》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질 않습니까.》
윤흥섭은 심상한 어조로 대답했다.
《…》
리종익원장은 아연해진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교육자란 사람이 그렇게 말할수 있는가. 백산이 나이또래의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공상하길 좋아하고 엉뚱하기도 하지만 별치않은 일에도 좌절감에 잘 빠져들고 예상밖의 극단적인 생각을 몰아가기도 잘한다는것을 몰라서 그러는가. 하물며 그런 말을 듣고 싸움까지 한 그 애가 이제 무슨 행동을 할지 어떻게 알겠는가?…
리종익은 황황히 사무실을 나섰다.
《아니, 어딜 가십니까? 그녀석 문젤 토론해야 할게 아닙니까.》
윤흥섭이 그의 등뒤를 따라서며 하는 말이였다.
《백산이를 찾아야 할게 아니요. 어린 마음에 별의별 생각을 다하고있을텐데…》
리종익원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말하며 걸음을 다그쳤다.
교실에는 물론 침실에도 백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쩐지 불길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마음의 안정을 잃은 그는 자기방에 돌아와서도 안절부절을 못하였다.
《그래 춘희선생에겐 물어봤소?》
그는 방에 들어서는 교무부원장에게 다급히 물었다.
《어째서인지 그 선생도 보이질 않습니다.》
《뭐요?》
이때 문밖에서 급한 발자국소리가 울려왔다.
《원장동지, 백산이가… 없어졌습니다. 달아났습니다.》
차영진이 들어올 때의 그 발소리와는 너무도 대조되는 맥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의 등뒤에서 눈물인지 땀방울인지 모

르게 얼굴이 온통 젖어있는 춘희가 문설주를 붙어잡고 간신히 서있었다. 이들이 백산이의 행처를 찾아 정신없이 헤매다가 돌아온것이 분명하였다.

리종익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물었다.

《어디 이 주변산속에 들어가 밸을 삭이고있지 않을가? 응? 그럴수도 있잖소?…》

그러나 영진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있을만 한 곳은 다 찾아보았습니다. 학원주변에는 없습니다. 보나마나… 딴곳으로 가버렸을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곳으로. 백산인 그런 앱니다.》

리종익의 얼굴은 컴컴해졌다.

그는 안경을 무겁게 벗어들며 혼자소리처럼 뇌이였다.

《이제라도 장군님께서, 녀사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그분들을 뵙겠소.》

9

김일성동지께서는 짧은 겨울해의 마지막잔광이 불그스름하게 비쳐드는 집무실에 들어서시였으나 좀처럼 앉을념을 못하시였다.

(어쩌면 그럴수 있는가?!)

10여일간에 걸치는 지방현지지도사업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김일성**동지께서는 학원에 들리시였었다.

겨울방학을 맞아 떠났을 학생들에 대한 준비를 원만히 해주었는지 무척 궁금하시였던것이다. 하긴 이미 김정숙동지에게 당부하시고 떠났던 문제였으므로 별다른 근심은 없으시였으나 아무데도 갈곳 없는 아이들 생각을 하니 마음에 걸리시였다.

왜서인지 학원에 들어서실 때부터 분위기가 어수선한감이 드시였다.

처음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방학을 가다보니 그런가부다하고 범상히 스쳐지나시였다.

《김정숙녀사께서 학원에 나오시여 방학을 떠나는 학생들에게 구

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학생들에게 고향에 가서 일군들과 로인들에게 인사는 어떻게 하고 생활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도 말씀해주고 집에 가서 놀지만 말고 견학도 하고 선전사업도 할수 있게 조를 무어 조직사업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군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떠나가는 학생들에게 특식꾸레미도 준비하여 보냈습니다.》

원장의 말에 마음이 놓이셨으나 어쩐지 그의 얼굴색이 밝지 못하다는 느낌이 드시였다.

《여기에 남아있는 학생들에게도 특식꾸레미를 주었습니까?》

《예, 처음에는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더랬는데 녀사께서 새 제복을 입고 특식꾸레미까지 안고 집으로 가는 애들을 보고 못 가는 아이들이 말은 안해도 속으로 무척 부러워했을거라고 말씀하셔서… 그래 그 애들에게 꼭같이 특식꾸레미도 주고 평양시에 견학사업들도 조직해주고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장선생의 안색이 좋지 않군요. 어디 몸이 편찮습니까?》

《아, 아닙니다. 사실은 저…》

리종익원장은 선뜻 말을 떼지 못하고 갑자르기만 하다가 힘겹게 그동안의 일들을 말씀드리였다.

열병이 발생하였던 문제와 치료를 제때에 하여 모두 완쾌시킨 사실이며 허가이조직부장이 학원에 나와 회의를 소집했던 일 그리고 그로 하여 교직원들과 학생들속에서 이러저러한 소문이 돈 문제며 백산이가 동무들과 싸우고 학원에서 없어진 일…

리종익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야 **김일성**동지께서는 왜 그의 얼굴색이 밝지 못했으며 학원분위기가 어수선한감이 들었는가를 깨달으시였다. 그 불안한 공기가 아직도 학원의 구석구석에 떠돌고있는듯싶으시였다.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열병치료를 제때에 하여 아이들을 다 회복시킨건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저으기 마음이 무거우시여 인차 말씀을 잇지 못하시였다.

《백산이가 없어지다니… 그러니 그날 회의에서 론의되였던 아이

들도 불안한 마음을 안고 방학을 떠났겠군요?》
《그런건 아닙니다. 김정숙녀사께서 학생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지금 학원에 돌고있는 말은 장군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헛소문이다.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다가 목숨바친 사람들은 그가 누구였든, 어디서 싸웠든 가리지 않으시고 다 조선의 훌륭한 애국자로 내세워주신다. 때문에 너희들은 그 누가 뭐라든 오직 장군님의 품만을 믿고 살아야 한다.〉고 일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산이를 찾기 위해 각 지역의 애국투사후원회와 내무기관들에도 련계를 취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 사람들을 파견하여 찾아보았습니다만 아직은…》
리종익의 말은 끝났으나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저 머리만 끄덕이시였을뿐 조금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였다. 이 추운 날 그 애는 도대체 어딜 가서 헤매고있는가. 학원밖에는 아무데도 의탁할 곳이 없는 그 애가 그전날처럼 또다시 어느 역 기다림칸이나 보이라칸안에서 추위에 떨면서 굶주리고있을 정상을 생각하니 못 견디게 가슴이 쓰려오시였다.
어쩌면 당조직부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그런 상처를 입힐 생각을 할수 있는가. 어쩌면 희생된 혁명가들의 문제를 그렇게 경솔하게 종이장 한장을 놓고 만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속단해버릴수 있는가. …
김일성동지께서는 좀처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수가 없으시였다. 아무리 다잡자고 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집무실을 나서시여 복도를 지나 허가이의 방에 들어가시였다.
한손에 더운 김이 물물 피여오르는 커피고뿌를 들고 줄금줄금 마시던 허가이가 방안에 들어서시는 **김일성**동지를 알아보고 놀라며 일어섰다.
그는 황급히 커피고뿌를 책상우에 놓으며 반색했다.
《아니, **김일성**동지!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태연해지려고 애쓰시며 앞으로 다가오는 그의 손을 잡으시였다.
《방금전에 돌아왔습니다. 방에서 담배를 한대 태우고 곧장 이리

로 오는 길입니다.》
《전화를 걸어주시면 제가 먼저 방으로 찾아가 인사를 올리는 건데…》
그는 사뭇 미안스러운 어조로 말하였다.
《아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난 이미 학원에 들려 허동무의 인사를 받고 왔으니까요.》
《예?!…》
허가이는 그제서야 그이께서 자기 방에 찾아오신 사연을 짐작할수 있었다. 인사말도 채 끝나기 전에 에두름없이 직방 학원문제부터 꺼내시는 **김일성**동지의 격한 어조와 안색에서 그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직감하였다. 학원문제를 두고 언제이건 **김일성**동지께서 추궁하시리라는 불안감은 가지고있었지만 정작 그 순간이 닥쳐오니 그래도 어쩐지 변명부터 하고싶어졌다.
《전 사실… 학원에서 발생한 열병문제때문에 걱정이 되여 나갔었습니다. 나갔던 길에 학원일군들을 각성시키려고…》
《그런데 어떻게 각성시켰길래 학원이 온통 어수선해졌는가 말입니다. 어떻게 되여 백산이가 민족반역자의 아들로 몰려 학원에서 쫓겨나다싶이 없어지게 되였는가 말이요?…》
김일성동지의 어조가 격해졌다.
《차마 그런 일이 일어난줄은 모르고있었습니다. 전 다만…》
《다만 어쨌다는거요. 동무는 라부위원장인가 하는 사람의 신소장을 말하고싶어하는것 같은데 어째서 혁명동지들의 보증은 믿지 않고 그따위 종이장을 더 믿고싶어졌는가. 무엇때문이요?》
김일성동지께서는 격한 심정을 누르지 못하시여 주먹으로 책상을 치시였다. 접시우에 받쳐놓았던 커피고뿌가 책상의 진동에 《챙가당.》 하고 놀란 소리를 냈다. 꺼멓게 얼굴이 질린 허가이는 이미 식어버린 진한 커피의 위태로운 흔들림을 바라볼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서있었다.
《내앞에서 다시한번 말해보시오. 세상이 다 아는 혁명가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요? 김책이나 안길이, 최용건이, 이 **김일성**과 같은 사람들이요? 그럼 평범한 대원으로 총을 들고 싸운 사람들, 지

하혁명조직에서 싸운 사람들은 혁명가라고 말할수 없겠소?! 민족주의자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이보시오, 허동무. 혁명가란 그 어떤 직무나 직급이 아니요. 자기 조국을 위해, 자기 인민을 위해 목숨바쳐 싸우는 사람들에게 차례지는 고귀한 부름이란 말이요.》

《그걸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전 다만 세계 반파쑈항전에 참가했던 국제련합군시절에 희생된 동지들을 념두에 두고 한 말이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허가이는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고 그러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였다.

《그러니 결국… 쏘련사람들이 아는 혁명가들이여야 한다는 소린데 그 리유는 뭡니까? 어째서 조선인민이 아는 혁명가, 조선인민이 그 희생을 두고 가슴아파하는 혁명가, 애국자들은 허동무의 관심밖에 놓여야 하는가 말입니다.》

허가이는 다시금 손수건으로 땀을 훔치였다. 그리고는 얼핏 눈길을 들어 **김일성**동지를 바라보며 괴로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도 다 알고계시는 사실이지만 전 처음부터 학원창립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운건 더 말할것도 없거니와 각이한 정치세력들이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 은근히 승벽을 부리는 정치정세하에서 앞으로 혁명투쟁의 골간이 될 학원을 세우는 문제는 그들의 신경을 자극시킬수 있고 또 우리를 공격할수 있는 언질을 줄수 있다고 보았기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동지는 백두산에서 함께 싸우다가 희생된 전우들의 자식들은 물론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다 희생된 국내외의 모든 애국자들의 자식들까지 한품에 안으시여 끝내 만경대혁명학원을 세우시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내부의 안정과 단합을 도모하는데 도움으로 되였습니다. 사실 전 그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것은 외부의 불만을 살수 있는 요소로도 될수 있습니다.

학원은 단순히 아이들의 문제로 끝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

가정치외교의 력사가 오랜 사람들은 벌써부터 **김일성**동지의 학원창립에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창건될 우리 국가의 정치구조, 정책방향을 예평하려고 애쓰고있습니다. 그들의 저울추가 친쏘, 사회주의라는 눈금에로가 아니라 자립, 민족주의라는 눈금에로 기울면 그 후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학원을 세운바에는 그들에게 우리의 립장이 선명하게 느껴지게 하자는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새 조국건설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더욱 공고화하려는 진심뿐입니다.》

할말을 다 한듯 그는 비로소 깊은 숨을 후― 하고 내그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였다.

그가 학원문제를 놓고 그렇듯 많은 생각과 치밀한 타산을 하였다는것이 놀라우시였다. 대단히 론리적이면서도 책략적인 그의 생각에서 그 어떤 치졸한 야심같은것은 찾아볼수 없다. 물론 련맹안의 가맹공화국이라는 이상야릇한 처지에서 사업하면서 중앙정부와의 눈치보기에 숙달된 그의 체질이 다분히 느껴지기는 하였지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 나라가 쏘련의 가맹공화국이 아니라는것, 또 절대로 그렇게 될수 없다는것을 그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것이였다.

아니, 그것보다도 그는 피로써 개척된 우리 혁명,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온 우리 혁명의 로정과 력사를 모르고있는것이다. 그것을 모르기때문에 그 혁명의 전통을 잇기 위해 세운 학원을 두고 저렇듯 동문서답을 하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음은 진정되시였으나 안타까움은 더 커지시였다.

저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감각과 사업경험을 조선혁명이라는 주체적관점과 립장에서 발휘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민족자주의식이 결여된 허가이, 결국 사대주의의식밖에 나올것이 없지 않는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사대주의에 물젖으면 머저리가 되고마는 법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창밖은 이미 어둠에 묻혀있었다. 어둠을 보니 그동안 온몸에 쌓이고쌓였던 피로

가 불시에 엄습해오는듯싶었다.

그이께서는 허가이쪽을 향해 돌아서시였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국가들의 지지와 성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오히려 허동무가 그 나라의 일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지레짐작하여 그들의 친선적인 감정을 저울질해보는것 같습니다.》

《예?》

《설사 허동무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학원문제를 그 어떤 정치적흥정물로 리용할순 없습니다.

학원을 세울 결심을 했을 그때 나는 그 무슨 정치적타산을 한것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친 혁명렬사들의 자녀들을 고아의 설음에서 벗어나도록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어 부모들이 남긴 생전의 뜻을 훌륭히 이어가도록 해주려는 동지적의리와 인간적도리를 다하려고 했을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점차 아이들이 모여오고 교사가 마련되고 일정한 토대가 잡히게 되면서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키우겠는가 하는 실질적인 교육교양문제가 나섰을 때 나는 생각이 많아질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일성**동지, 제가 그 뜻을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내 말을 마저 듣소. 만경대혁명학원은 다름아닌 혁명을 하다가 희생된 혁명가들의 자식들을 키우는것으로 하여 혁명의 미래라는 정치적문제와 직결되여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러한 정치적시점에서 학원을 들여다본다면 거기에서 그 어떤 특정한 정치세력의 미래가 아니라 조선의 미래, 민족의 미래가 자라나야 한다는것입니다. 조선의 미래란 어떤것인가?》

허가이는 **김일성**동지께서 드디여 학원에 대한 견해에서 생긴 자기와의 불일치점을 명백히 규정하실것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는 서서히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수 없었다. 사대와 쇄국으로 일관된 리조 5백년의 뒤끝에 40여년의 식민지를 거치고 갓 해방을 이룩한 신생조선의 미래가 어떤것인가?

그보다도 먼저 과연 이 나라가 당면한 새 사회건설을 대국의 지원과 지지가 없이 할수 있단 말인가?

오늘이 없이 어떻게 래일이 있단 말인가.

허가이의 심중에서 끓고있는것은 바로 이것이였다.

《나는 처음 혁명을 시작할 때 그 누구의 눈치를 보고 시작한것도, 그 누구의 인정을 받자고 한것도 아니였습니다. 누구를 믿고 시작한것은 더구나 아니였습니다. 그렇게 첫발을 떼자니 어려움인들 오죽했고 희생인들 오죽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혁명을 시작했고 오늘까지 이어왔습니다. 그 길에서 수많은 혁명가들이 우리곁을 떠나갔지만 우리는 그들이 흘린 피를 헛되이 할수 없는것입니다. 앞으로도 조선혁명은 어차피 피흘리며 개척한 그 길로만 가야 할것이고 우리가 가다 못 가면 대를 이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야 할 직접적인 담당자들, 계승자들이 다름아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키워내는데 때가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에게로 한걸음 다가가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물론 유자녀교육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맑스나 레닌의 어떠한 고전에도 없습니다. 쏘련에서 1943년에 처음으로 유자녀학원을 세우긴 하였지만 아직 이 문제는 유자녀규정과 교육내용, 교육방식에서 초행길이나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조선혁명의 특성과 조선혁명의 요구, 조선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이동무는 자신이 조선의 혁명가라는 투철한 립장에 서지 못하고있는것 같습니다.》

《…》

《학원은 바로 미래를 확신하는 조선혁명가들의 크고 넓은 품이 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품에서 지금 어린 한 아이가 떨어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내 오늘 이렇게 가슴아파하는겁니다. …》

그이께서는 이렇게 절절하게 말씀을 마치시고나서 무거운 걸음으로 허가이의 방을 나서시였다.

《**김일성**동지!…》

허가이는 그이의 뒤모습을 우러르며 죄스러움에 젖은 목소리로 나직이 불렀다.

만일 그때 그가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들으며 일찌기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개척되고 영원한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승리의 필연성을 깨달았더라면 그후의 인생길도 달라졌을것이였다.

그러나 사대와 교조가 체질로 굳어지고 주관주의적사업방법에 푹 물젖었던 그는 **김일성**동지에 대한 존경심과 그나름대로의 사업열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걸음한걸음 조선혁명의 전진도상에서 뒤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의 이러한 부패와 변질은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조선혁명에 끼친 그의 과오는 엄중한것이였다.

10

《어머니, 이젠 면회오지 마세요. 난 다 나았어요. 의사선생님들도 인츰 퇴원시켜주겠다고 했는데요 뭐.》

어린 마음에도 추운 겨울날 김정숙동지께서 자기때문에 자주 병원에 찾아오시는것이 죄송스러운듯 민순희는 그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도 그의 얼굴과 목소리에는 감출수 없는 무한한 행복감과 응석기가 짙게 어려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 보아도 늘 사랑스럽게 노는 그의 볼에 자신의 볼을 가볍게 부비시고나서 저으기 엄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순희가 그렇게 퇴원하겠다고 자꾸 그러니 장군님께서 걱정하시질 않니?! 장군님께서는 네가 자꾸 의사선생님들에게 퇴원시켜달라고 조른다는 말을 들으시고 공부가 걱정되여 그러는것 같은데 우선 병부터 깨끗이 고쳐야 한다고 이르시였단다.》

《예?…》

순희는 시무룩해져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가 오래동안 입원해있다나니 동무들과의 즐거운 학원생활이 무척 그리울것이라는 생각이 드시였으나 장군님께서 순희의 마음을 잘 다잡아주라고 간곡히 당부하셨으므로 얼른 눈길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한손을 뻗쳐 침대머리맡에 매달아놓은 체온표를 들어 찬찬히 들여다보시였다. 곡선그라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있었다.
《봐라. 아직도 열이 올랐다내렸다하질 않니?! 의사선생님들이 그러는데 네가 외투도 입지 않고 몰래 밖으로 나가 찬바람을 맞으며 얼음지치기를 하군 한대?!》
《…》
《네가 그러면 장군님께서 더 걱정하셔. 의사선생님들이 하라는대로 해야 빨리 병을 다 고치고 학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니. 그렇게 할수 있지?》
그이께서는 순희의 얼굴을 다정히 바라보시였다.
순희는 눈물이 가랑가랑 고인채로 얼굴을 끄덕였다.
《어머니, 다시는… 장군님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의사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용타. 아무렴, 우리 순희야 똑똑한 애지.》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녀의 얼굴을 가슴에 꼭 대이시였다.
어쩐지 짜릿한 아픔이 전류처럼 온몸으로 퍼져갔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반동놈들의 손에 피살된 그 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가슴에 맺혀오시였던것이다. 비록 한번도 만나본적은 없었지만 일제식민지통치시기부터 국내에서 장군님의 혁명로선을 받들어 잘 싸운 미더운 동지, 살아있었다면 새 조국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하였을 귀중한 혁명동지.
얼마나 아까운 동지들이 우리곁을 떠나갔던가. 이런 귀여운 자식들을 품에 안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많은 동지들을 생각하니 불시에 가슴이 미여져오셨던것이다. 그들을 대신하여 언제까지라도 소녀를 품에 안고있고싶으시였다.
그러나 더이상 시간이 없으시였다. 이제 곧 남포로 떠나셔야 했던

것이다. 한시간전, 장군님께서 저택에서 점심식사를 마치시고 다시 나가시며 민순희의 병치료를 깨끗이 해주어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북조선애국투사후원회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 내용인즉 남포내무서에서 련락이 왔는데 백산이로 짐작되는 한 소년을 찾았다는것이였다. 그 소년이 자기는 백산이가 아니라고 딱 뻗치기는 하지만 그 애의 소지품속에 학원제복이 정히 싸여있는것으로 보아 틀림없는것 같다는것이다. 장군님께서는 그 애가 여러번 집을 뛰쳐나갔던 아이기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서는 데려오지 못할것이라며 걱정이 크시였다.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헤아려지시였다. 백산이는 결코 그 누구의 말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을것이다. 학원제복을 눈앞에 놓고도 자기가 학원학생이 아니라고 뻗댄다는것만 보아도 그 애의 심정을 충분히 알수 있는것이 아닌가. 이제 다시 도망질을 하면 그땐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인가.

《아무래도 정숙동무가 내 대신 그 앨 데리러 가야 할것 같구만. 이제 며칠 있으면 양력설인데 설날까지 한지에서 떨게 할수야 없지 않소.》

《장군님, 너무 근심마십시오. 제 꼭 그 앨 데려오겠습니다. 병원에 들렸다가 곧바로 남포에 나가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집을 나서신 그이이시였다. 지금 병원정문밖에서는 장군님의 책임부관 손종준이 기다리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담당의사에게 민순희의 병치료를 다시금 부탁하시고나서 병원을 나서시였다. 승용차가 남포내무서마당에 들어섰을 때는 오후 3시가 가까와올무렵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백산이가 이제 어떻게 자신을 맞아줄가 하고 생각하며 서장방을 찾아들어가시였다. 그런데 그이를 맞이한 서장은 난감한 표정을 짓는것이였다.

《한발 늦었습니다. 글쎄 그녀석에게 점심밥을 주며 이제 널 데리러 학원에서 올거라고 말해주고 좀 있다 가보니 달아나질 않았겠습니까.》

《아니, 달아났단 말이예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놀라지 않을수 없으시였다.
《예, 우린 그저 밥을 먹고있으려니 했는데 창문을 뛰여내려 저 뒤 담장을 넘어 달아날줄이야… 일두 참.》
중년나이의 서장은 애녀석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운지 얼굴이 벌개져서 중언부언하였다.
《아니 서장동무,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거요? 어떻게 아이를 지켰길래 놓쳐버린단 말이요?》
손종준이 참지 못하고 성이 나서 소리쳤다.
《그렇다고 그 애가 무슨 범죄자라고 구류장에 가두어놓겠소? 우리야 애국투사후원회와 학원에서 찾는 아이라기에…》
손종준을 학원 아니면 애국투사후원회사람으로 생각한 서장은 사실이 그렇지 않는가고 묻는 투로 맞갖지 않게 대답했다.
《하긴 빨래줄에 널어놓은 남의 옷가지를 채서 입고 장마당에서 음식을 덮쳐먹었다는 혐의가 제기되긴 하였지만… 설마하니 당신네가 찾는 아이가 그런 자식인줄이야…》
《됐어요. 서장동무, 이러구있을새가 없습니다. 우린 그 애를 꼭 찾아야 합니다. 서장동무의 생각엔 그 애가 어디로 갔을것 같애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성이 나서 푸르락거리는 손종준을 자제시키고나서 서장에게 기대어린 목소리로 물으시였다.
그이의 절절한 눈빛과 마주치자 서장은 죄스러운듯 다시금 얼굴을 붉히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글쎄… 달아난지 두시간밖에 안되니까 그리 멀리 가지는 못했을거구, 장마당 아니면 역기다림칸…》
그로서도 특별히 짚이는 곳이 없는 모양이였다. 이제는 백산이가 가있을만 한 곳을 다 돌아보는 길밖에 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손종준에게 직접 나가서 찾아보자고 하시였다.
《아주머니, 나도 함께 갑시다. 그녀석을 잡기만 하면 내 그저…》
서장이 모자를 쓰고 따라서며 하는 말이였다. 그가 김정숙동지를 보고 아주머니라고 부르는데 화가 동한 손종준이 가뜩이나 좋지 못

한 감정을 터뜨리려고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얼른 눈짓을 해서야 그는 쓰겁게 입을 다시며 돌아섰다.

일행은 길가의 상점들과 음식점들에도 들어가보고 인파로 붐비는 장마당도 구석구석 다 돌아보았으나 백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자기를 찾으러 다닐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 조용한 곳에 숨지 않았을가요? 분명 그랬을것 같아요. 어디 숨어있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딴 곳으로 쉽게 달아나려고 할거예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되였던 그때에도 화물역의 어느 창고자리에서 백산이를 찾아냈다고 하던 차영진의 말이 떠오르시였다. 임의의 시각에 달아날수 있는 그런 곳이 방랑자들에게는 리상적인 은신처로 될것이였다.

《우리 역으로 나가보자요. 그 애가 점심도 굶었다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헛 참, 아주머닌 별격정을 다하십니다. 제가 좋아 달아뺀 놈 굶겠으면 굶고 말겠으면 말지…》

《이 동무가 정말?!…》

손종준이 또다시 서장에게 눈을 흘겼다.

《아니, 동문 왜 아까부터 나보고 해보지 못해서 그러우?! 시에미 역정에 개배때기 찬다더니만…》

《됐어요. 서장동무, 종준동무도 하두 안타까워 그러는거예요.》

《놓고보면 방랑생활하는 녀석들두 천성적인데가 있습니다. 어떤 녀석들은 부모가 있구 집도 있는데도 뭐 좀 맞갖지 않으면 힝 하니 뛰쳐나가군 하지요.》

서장은 리해할수 없다는듯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정색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였다.

《세상에 그런 천성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일제놈들과 가난때문에 생겨난 불행이지. 우리가 찾고있는 그 애도 왜놈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고 장군님의 품을 찾아왔던 혁명가유자녀예요. 뜻밖의 일로 해서 이렇게 되였는데… 서장동무, 지금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집무실에서 이제나저제나 백산이를 찾아 데려왔다는 보고를 손꼽아

기다리고계십니다.》
《예―에? **김일성**장군님께서요?》
서장의 눈이 휘둥그래졌다. 그제서야 그는 자기앞에 서계시는분이 그저 평범한 보통녀인이 아니라는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묻는듯한 눈길로 손종준을 바라보았다.
《자, 그러니 빨리 그 앨 찾기나 하기요.》
손종준이 여전히 퉁명스러운 어조로 말하며 그의 눈길을 외면했다.
벌써 시간이 퍼그나 흘러갔다. 좀 있으면 짧은 겨울해가 서산에 주저앉고 사위가 거밋거밋해질판이였다.
《우리 셋이서 이렇게 다같이 다니지 말고 각기 흩어져서 찾읍시다. 서장동무는 역기다림칸안을 보구 종준동문 역전주변을 살펴보세요. 난 화물역쪽으로 들어가보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들과 헤여지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차갈이를 하느라 분주히 오고가는 차량들사이를 지나 화물창고들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재촉하시였다.
어쩐지 여기 어디에서 꼭 백산이를 찾을것만 같은 예감이 드시였다.
백산아!― 너 어디에 있느냐? 제발 이 어머니의 속을 태우지 말고 어서 나타나주렴!…
이때 창고쪽에서 갑자기 욕지거리소리같은것이 들려왔다.
화물역로동자들로 보이는 대여섯명의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다툼질을 하는지 아니면 그 누구를 욕하는것인지 저마끔 목청을 돋궈 소리치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마음이 급하시였으나 그들이 무슨 일로 그러는가싶어 그리로 다가가시였다. 사람들이 어깨성을 쌓다싶이하고 서있어 안쪽은 보이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만 가려들으실수 있었다.
《이 콩창고에서 지난밤에도 콩 한마대가 없어졌는데 그것도 다 저녀석이 도적질해갔을거요.》
《당장 내무서로 끌구가서 변상을 시켜야 해.》
《그래도 자세히 알아보구 그래야지 그거야 너무하지 않나.》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당장 저녀석 부모들을 불러오게 해서 단

단히 혼쌀을 내줘야 한단 말이야.》
왜서인지 후두둑… 가슴이 떨리시였다. 자신의 예감이 맞아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시였던것이다.
바로 그 순간 그 사람들속에서 아이의 항거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아니예요. 난 콩마대를 도적질하지 않았어요. 난 기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오늘 처음 여기에 왔어요.》
《하긴 저녀석은 오늘 처음 보는 애야. 아직까진 여기서 얼씬거리는걸 못 봤소.》
《그놈의 말을 어떻게 믿어? 그녀석 보따리를 뺏으라구. 도적질한 물건일수 있으니까.》
《안돼요. 이건 안돼요!》
아, 저 목소리… 그것은 분명 백산이의 목소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허둥지둥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시였다.
《여보세요, 그 애를 다치지 마세요. 그 애를, 그 애를…》
《아니, 이 아주머니가 왜 이러는거요?》
사람들은 못마땅한 눈길을 던졌다.
하지만 김정숙동지의 귀전에는 그들의 그런 소리가 전혀 들려오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한걸음한걸음 그 애한테로 다가가시였다. 보고 또 보아도 틀림없는 백산이의 얼굴이였다.
백산이는 방금전에 사람들이 빼앗자고 하던 보따리를 가슴에 꽉 부둥켜안은채 섧게 울고있었다. 눈물이 앞을 가리워 그런지 그는 어머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것 같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더 참지 못하고 소리쳐 부르시였다.
《백산아!—》
백산이가 뚝 울음을 그쳤다.
펀뜻 눈길을 들었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드디여 김정숙동지를 알아보았던것이다.
《백산아!—》
《…》
그이께서 두팔을 벌리시고 애타게 부르셨지만 당장 안겨들듯싶던

백산이는 웬일인지 주춤주춤 뒤걸음치기 시작하였다. 그 누군가가 그의 팔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무작정 달아날 기상이였다.
《아주머닌 도대체 누구요?》
한 젊은 청년이 어딘가 거칠게 느껴지는 소리로 물었다. 수많은 호기심어린 눈길들이 김정숙동지에게 와닿았다.
《난… 저 애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애가 잘못한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용서를 빌겠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을 향해 깊이 머리를 숙이시였다.
그이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백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안돼요! 그러시면… 안돼요. 난 잘못한게 없어요. 정말이예요.》
아이의 그 모습이 처량해보여서였던지 아니면 그의 피타는 부르짖음이 믿어져서였던지 로동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기만 하였다.
《어쨌든 아들교양을 잘하시우. 꼴을 보니 방랑생활을 하는 애가 분명한데 아들건살 어떻게 했길래…》
《어머니가 때마침 찾아온줄 아시우. 그렇지 않으면 우린 저 앨 내무서에 넘겼을거우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하나둘 헤쳐가버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백산에게로 다가가시였다.
그 애는 울먹울먹하며 고개를 푹 떨구었다.
《백산아, 너 왜 그러고섰니? 벌써 이 어머닐 다 잊었단 말이냐? 응?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흑…》
참고참으셨던 눈물이 끝내 솟구쳐올랐다. 그것은 사람들이 모욕적으로 던진 말때문이 아닌 백산이를 찾은 기쁨의 눈물이였고 그에 대한 죄스러움의 눈물이였다.
《어머니!》
백산이가 김정숙동지의 품에 와락 달려와안겼다. 안기여 엉엉 소리내여 울었다.
《나를 용서해라. 내가 널 잘 돌봐주지 못했구나. 너의 부모들은 널 부탁하고 갔는데… 널, 널 제때에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이께서는 백산이를 꼭 품에 안으시고 더부룩한 머리를 쓰다듬어주시였다.

백산이가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간절한 기대가 어린 눈빛으로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닌… 우리 아버질 믿으…시나요?》

《믿는다, 믿구말구. **김일성**장군님께서 믿고계시는 너의 아버지인데 이 어머니가 왜 믿지 못하겠니?!…

백산이 아버지는 왜놈들과 용감히 싸우다 희생된 훌륭한 애국자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다시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말어라. 넌 애국자의 아들이야!》

《애국자의 아들…》

백산이는 입속으로 소중히 그 말을 되뇌여보았다.

《자, 어서 가자. 장군님께서 지금 널 기다리고계신다.》

《예? 장군님께서 나를요?…》

《그래. 너때문에 장군님께서 밤잠이나 제대로 주무신줄 아니?! 정말이지 장군님의 속을 더이상 태워드리지 말아. 이제부터 너는 진짜 장군님의 아들이 되여야 한다!》

《어머니!—》

백산이는 다시금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더니 한껏 머리를 들고 하늘에 대고 목청껏 소리쳤다.

《난 장군님의 아들이다!—》

그의 애된 목소리는 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한 하늘가 멀리에로 나래를 편 수리개마냥 살같이 날아갔다.

사람들이 달려왔다. 손종준과 내무서장이였다.

《찾았구나, 찾았어!》

《끝내… 찾으셨군요.》

그들은 너무 기뻐 백산이를 얼싸안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백산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도 품에 꽉 그러안았던 그 보따리를 풀었다. 보자기를 헤치니 생각하셨던대로 그것은 학원제복이였다. 비록 학원을 뛰쳐나오긴 하였지만 어린 마음에도 그 옷만은 이 세상 제일 소중한 보물로 간직하고싶었던 모양이였다.

그이께서는 백산이에게 그 옷을 다시 입혀주시였다.

《장군님께 가면서 장군님 주신 학원복을 입고 가야지 어떻게 훔

친 남의 옷을 입고 가겠니?!》

김정숙동지께서는 내무서장에게 백산이가 입고있던 옷을 보자기에 싸서 돈과 함께 주면서 주인을 찾아 꼭 돌려주고 사죄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시였다. 서장이 펄쩍 놀라며 받지 않으려 했으나 그이께서는 《이건 내가 사죄하는것이 아니라 우리 백산이가 사죄하는겁니다. 이런 생활과 영영 리별하겠다는 맹세의 뜻으로 말이예요.》 라고 하시며 거듭 부탁하시였다.

《서장동무, 오늘 수고많았소. 어쨌든 앞으로는 일을 좀 더 잘해야겠소!》

손종준이 서장의 손을 잡고 흔들며 말했다. 그리고는 서로 마주보며 소리내여 웃었다. 서장과 헤여진 후 승용차는 평양을 향해 달렸다.

총총한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따라섰다. 그러다가는 아무래도 안되겠던지 멀리 차뒤로 사라지며 아쉬운듯 반짝반짝 빛을 뿌리며 바래주었다.

김정숙동지의 마음은 마냥 기쁘시였다. 이제는 장군님께서 한시름 놓으실것을 생각하니 더없이 즐거우시였다.

《운전사동무, 속도를 좀 더 내세요. 오늘 저녁 백산이에게 특식을 해줘야겠는데 빨리 가야 장군님께서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준빌하지요.》

《예, 좀 더 밟겠습니다.》

승용차는 달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옆에 앉은 백산이의 어깨를 다정히 그러안으시였다.

그러시며 백산이가 학원에서 동무들과 잘 섭쓸릴 때까지 더 자주 나가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시였다. …

다음날도, 그 이튿날도 김정숙동지께서는 학원에 나가 백산이와 함께 아이들속에 계시였다.

1948년을 맞는 양력설날에도 사업이 분망하신 장군님을 대신하여 학원에 나가시여 방학을 가지 못한 학생들과 함께 온 하루 설날을 보내시였다.

11

동북의 겨울은 사나왔다.

그러나 이 사나운 겨울속에서 동북연변일대에는 만주력사상 보기드문 평화시기가 도래하였다. 장개석군대는 만주에서도 혁명세력이 제일 강한 연변일대를 점령하려고 미쳐날뛰였으나 끝내 철통같은 방어진을 돌파하지 못하고 돈화계선에 멈추어섰다가 그나마 장춘, 심양일대로 쫓겨나고말았다. 방어선이 해체된 연변일대에서는 점차 정치경제적안정을 이룩하고 조선사람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합법화하기 위한 사회적토대가 구축되고있었다.

연변전원공서 전원으로서의 림춘추의 사업은 1948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범위가 넓어졌고 그 내용도 심화되였다. 그러나 그 방대하고 복잡한 사업중에서도 림춘추가 첫째가는 관심과 정력을 기울인것은 혁명가유자녀들을 찾아 조국에 보내는 문제였다.

이제는 더러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아이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한사람한사람 힘겹게 찾아낸 아이들도 있었다. 아직은 그런 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는데다가 찾는족족 제마끔 뿔뿔이 조국으로 보낼수도 없는것이여서 그는 공서주변에 그 애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해놓고 따로 림시학교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하는데 비용과 품은 많이 들겠지만 그래야 아이들을 한데 모아 안전하게 조국으로 보낼수 있었고 사전교양과 또 당장 그 애들의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었던것이다.

림춘추는 회의를 할 때와 현들에 지도사업을 내려갈 때마다 유자녀 찾는 문제를 재삼 강조하군 하는것을 한번도 잊지 않았으며 아래일군들에게 사업상과업을 줄 때에도 수첩을 펼쳐들고 그곳에 가면 누구누구의 유가족이 있을수 있으니 꼭 소식을 알아오라는 당부를 하군 하였다. 때로는 자신이 직접 신들메를 매고 며칠씩 동만의 산재부락들을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다. 어떤 날은 길을 헛들어 온밤 눈덮인 수림속을 헤매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비적화된 패잔병들과 맞

다들리여 총격전을 벌리기도 했다. 유자녀들을 찾는 일은 결코 헐한 것이 아니였다.

그렇다고 물러설수는 더욱 없는 일이였다. 언제까지 그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제발로 그들을 찾아다녀야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림춘추 자기를 동북에 파견하신것은 그 무엇보다도 동북에서 싸운 투사들 거의모두를 바로 자기가 알고있다는 점을 특별히 중히 여기셨기때문일것이다. 그들을 잘 아는 사람만이 그들의 자식들을 찾을수 있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였던 것이다.

장군님의 그 믿음을 헛되이 할수는 없었다. 혁명렬사들에 대한 장군님의 그 동지적사랑과 의리를 림춘추 자기가 중도에서 끊어지게 할수는 더더욱 없었다.

그의 정력적인 노력은 차츰차츰 빛을 보기 시작하였다. 2월 초순에 들어서서는 지금껏 막연하던 박길의 아들과 심병윤가족의 행처 그리고 오태희로인일가의 행처를 찾을수 있는 가망도 보이였다.

물론 아직은 가망에 지나지 않았지만 행처의 실마리를 쥔것만도 그로서는 다행으로 생각되였다.

그런데 왕청 봉오골에서 희생된 연희상의 아들 소식만은 아직도 묘연했다. 몇번이나 발길을 했으나 매번 허탕만 치고 돌아왔다.

오늘도 림춘추는 또다시 왕청현으로 갔다. 그중 행처의 실마리가 뚜렷한 오씨집안사람들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연변전원으로 사업을 시작하던 초시기에 신변안전대책을 세워준다면서 길동군사령부에서 부관으로 보내준 연동무와 함께 피신한 오씨일가의 행처가 있다는 곳을 찾아 왕청오지의 길고긴 골짜기를 헤쳐나갔다.

왕청사람들이 자기네 고장의 특징을 말할 때 《현장의 연설이 길고 소학교의 길이가 길고 골짜기가 긴것이 유명하지요.》라고 한다더니 아닌게아니라 가도가도 끝이 있을상싶지 않은 골짜기는 절반길도 축내지 못했는데 림춘추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었다.

《이거 혹시 우리가 미궁으로 들어가는건 아닙니까?》

20대의 날파람있는 연부관마저 앞에서 눈길을 헤치느라 지쳤는지

나무가지를 지팽이삼아 짚고 따라오는 림춘추에게 숨을 톺으며 물었다.

《설사 미궁이라도 가야 해. 조급해하지 말고 앞을 잘 살피면서 걸으라구. 사람의 발자취가 꼭 나질거야. 연동무, 난 말이야. 빨찌산시절에 늘 기본대오와 한 500메터가량 뒤에 떨어져서 행군하군 했는데…》

《아니, 그건 왜 말입니까?》

《왜라니?! 각종 문서와 자료수첩들이 불룩한 무거운 배낭을 멘데다가 잊어버릴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날 때마다 적어넣군 하며 행군하다나니 어쩔수없이 그렇게 되군 하였지. 그러다나니 종종 대오를 잃어먹군 했는데 그럴 때면 눈과 귀, 코를 딱 도사리고 흔적, 소리, 냄새를 가려 방향을 찾군 했소. 아무리 숨어산다 해도 사람이 사느라면 그러한것들을 감출수 없는 법이야.》

림춘추는 이렇게 잠시 숨을 돌리고나서 또다시 걸음을 내짚었다.

눈덮인 골짜기는 그들의 행군속도를 점점 더디게 만들었다. 어떤데는 골짜기에 쌓인 눈이 허리까지 묻어버려 슬몃슬몃 눈을 다지며 넘어서기도 해야 했다. 그들은 준비해가지고 떠났던 주먹밥으로 대충 늦은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금 걸음을 재촉했다. 두사람 다 녹초가 되다십이 하였으나 해떨어지기 전에 그들의 행처가 있다는 곳에 가닿을 심산으로 조금도 행군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가만, 림전원동지,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의 발자국이 아닙니까?》

여직껏 말하는것조차 힘들어 입을 꼭 다물고 걷고있던 연부관이 갑자기 큰소리로 웨쳤다. 림춘추는 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다가갔다.

《옳구만. 분명 곰이나 승냥이의 발자국이 아닌 사람의 발자국이요. 이 근방에 사람이 살고있는것이 틀림없소. 혹시 우리가 찾는 그들일수도 있소.》

《보십시오. 발자국이 골짜기를 가로질러 저 산등성이로 나있습니다.》

연부관이 활기를 띤 목소리로 말하며 손짓으로 가리켰다. 림춘추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등을 툭 쳐주었다.

《이 친구가 이젠 제법 빨찌산식행군법을 다 터득했는걸. 좋아, 우리도 그리로 올라가자구.》

사기가 난 그들은 그 발자취를 따라 산등성이에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올려다볼 때에는 흰눈에 덮여 그런지 밋밋해보이던 산등성이가 오르면서 보니 보통 가파롭지 않았다. 거기에다 발밑이 여간 미끄럽지 않았다.

말그대로 네발걸음을 하다싶이하며 산등성이에 거의다 이르렀을 무렵 림춘추는 자기의 발밑을 지지해주던 나무그루터기같은것이 위태위태하더니 뿌리채 뽑히우는감을 느꼈다. 미처 그 느낌을 확인해볼 사이도 없이 온몸이 뒤로 허궁 들리우더니 쿵 하고 나가 떨어지며 비탈길로 굴러내렸다.

《림전원동지!… 림전원동지!…》

연부관이 놀라 소리치며 다급히 손을 뻗쳤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이미 기운이 다 빠져버렸던 림춘추는 바위에 튕기고 나무그루터기들에 찢기우며 골짜기로 사정없이 굴러떨어졌다.

산등성이에 한벌 덮여있던 면사포같은 흰눈은 험준한 산비탈의 자태를 감추어놓은 한갖 눈속임이였을뿐 림춘추의 커다란 체구를 멈추어세우는데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연부관이 연방 소리쳐부르며 그가 쓰러진 골짜기밑으로 따라내려왔다.

《림전원동지!》

그가 부둥켜안았으나 림춘추는 그저 무겁게 몸을 실을뿐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는 이미 의식을 잃었던것이다.

무심한 왕청의 긴 골짜기는 마치 무덤속처럼 고요하였다. …

×

그가 정신을 차린 곳은 어느 귀틀집의 광솔불밑에서였다.

향긋하면서도 매캐한 송진타는 냄새가 그의 눈앞에서 너울너울하던 이상스러운 환영의 그림자를 휘저으며 문득 사람들의 목소리를 실

어왔다.

《정신이 들려는가보네. 이것 보라구, 신음소릴 내지 않나.》

(귀에 선 저 목소리는 누구의것인가? 늙은이 같은데?…)

《림전원동지, 정신차리십시오. 림전원동지.》

(아, 연부관! 이건 연부관의 목소리가 틀림없다.)

그는 슬며시 눈을 떴다. 자기를 지켜보는 눈빛들을 마주보았다.

《여기가… 어디요?》

《림전원동지, 바로 그 오태희할아버지네가 살고있는 곳입니다.》

《그렇소?…》

림춘추는 저도 모르게 몸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옆구리가 뜨끔뜨끔해오고 팔다리가 쑤셔나는통에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이보라구 젊은이, 임잔 몹시 상했네. 푹 안정해야 해.》

오태희로인이 이불깃을 여며주며 근심어린 눈길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마침 곰열을 건사해두었던것이 있어 풀어먹였으니 어혈이 오래가진 않을거네. 팔에 난 상처는 아물면 일없겠고 다리뼈가 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

《로인님, 고맙습니다.》

《고맙긴. 림전원이 이 늙은것을 찾아 수십리길을 오다가 이렇게 되였는데 인사야 되려 내가 해야지. 내 이 젊은이한테 다 들었네.》

오로인은 옆에 앉은 연부관에게 얼핏 눈길을 주고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임자가 우리같은것들을 찾기 위해 장군님의 특명을 받고 온 직하부하라는것을 말이네. 장군님께서 여직 우리들을 잊지 않고계시다니…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지가 언젠데…》

《로인님, 장군님께서는… 혁명을 위해 귀중한 자식들을 다 바친 오씨집안사람들을… 한시도 잊으신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데 있습니까?》

림춘추는 연부관의 부축을 받아 상반신을 벽체에 기대고나서 조용히 물었다.

《웃목에서 자고들 있네. 이 사람이 자넬 업구 나타났을 땐 저 불쌍한것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왔나부다하고 겁에 질렸더랬지. 허허… 저기 꼬부리고 자는 년은 중흡이의 딸이구 그옆의 녀석은 중화의 아들이구 또 그옆의 녀석은 중선이의…》

아이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던 오태희로인은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눈굽이 축축히 젖어들고 목소리가 갈려왔던것이다.

이제는 슬픔도 다 굳어져버린줄 알았더니 장군님께서 아직도 그들의 희생을 아파하시며 이렇게 그 자식들을 찾고계신다고 생각하니 자꾸만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로인님, 장군님께서 저 애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찾고계시는지… 아십니까?》

림춘추는 몸만 움직일수 있다면 한걸음에 달려가 그 애들을 와락 그러안고싶었으나 그럴수 없어 정찬 눈길로 아이들의 모습을 어루쓸며 말했다.

《장군님께서는 바로 이런 아이들을 위해 유자녀학원을 세우시고 지금 고향 만경대에는 저 애들이 살 궁궐같은 학원교사를 지어주고 계십니다.

로인님은 이제 저 애들이 제 아버지들의 뒤를 이어 자라나는… 행복한 미래를 보시게 될겁니다.》

《고마우이, 고마워. 하지만…》

오로인은 설레설레 수염발을 흔들었다.

《아니 할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연부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금 장군님께서 나라정사를 돌보시느라 오죽이나 바쁘실텐가. 저 많은 아이들이 가서 그분의 팔에 매달리는것만도 큰 부담이 될텐데 우리 늙은것들까지 매달린다면…

내 유격구시절부터 장군님의 성정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하는 말이네. 그분께선 마음을 쓰시구 또 쓰실거네. 내 해방된 조국땅에서 장군님을 모시고 그분의 짐을 덜어드릴 자식이 하나만이라도 살아있다면 마음가벼이 가겠네만…》

로인의 진정이 스민 목소리는 절절하게 울렸다.

《로인님!…》

림춘추는 로인의 그 고결한 마음앞에 머리가 숙어졌다. 그리고 쉽게는 그의 마음을 돌려세울수 없음을 깨달았다. 우선 아이들만이라도 조국으로 보내놓고 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했다.

《로인님, 아이들은 저희들이 인차 조직사업을 해서 학원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구 원래 사시던 곳으로 내려가십시다. 이미 잘못 처리되였던 문제들이 다 바로잡혔습니다. 이젠 마음을 놓고 사셔도 됩니다.》

《우리야 인제 살만큼 다 살았으니 뭐이 걱정이겠나. 그저 저 애들때문에 이렇게 마음 못 놓고 살았던거지.》

로인은 다시금 잠자는 아이들의 모습을 뜯어보고나서 길게 한숨을 내쉬였다.

《그런데 엊그제 한 녀석이 없어졌네그려.》

《예－에?》

림춘추는 몸이 솟구칠듯이 놀랐으나 상처의 아픔으로 얼굴을 찡그리지 않을수 없었다.

《글쎄 국철이녀석이 온다간다 소리없이 달아나질 않았겠나.》

《국철이라면?…》

《오중성의 아들이지. 원, 뿔난 망아지같은 녀석!…》

《저… 어디 갔음직한데가 짐작되는 곳은 없습니까?》

연부관이 로인에게 바투 다가앉으며 물었다.

오태희로인은 가늘게 눈살을 쪼프리고 광솔불을 올려다보았다.

이따금 탁, 탁… 송진튀는 소리가 들려왔다.

《십중팔구… 조국으로 나갔을거네. 언제부터 혼자서라도 장군님을 찾아가겠다구 들썩들썩 하는걸 욱박질러 겨우 눌러놓군 했었는데…》

《그러니 그 애가 혼자서?!…》

림춘추는 저으기 근심에 싸여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걱정말게. 가다가 못 가면 되돌아오겠지. 하긴 그녀석이 제 아버질 닮아서 한번 마음먹은건 꼭 해내고야마는 성미이긴 하네만…》

로인은 그를 위안하듯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화로불우에 손을

가져다대보더니 《열을 더 내야겠군.》하며 멍석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그는 숯을 더 가져다가 화로에 알맞춤히 넣었다.

《땀을 푹 내서 어혈을 풀어야 하네. 비록 루추하긴 하지만 내 집에서 며칠 몸조리를 하고 떠나게.》

그는 림춘추를 부축하여 화로가까이에 눕히며 말했다.

《난 래일 아침 떠나야 합니다. 아직 찾아야 할 유자녀들과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림춘추가 미안한 표정을 짓자 오태희로인은 성난듯 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림전원, 자고로 이 오씨집에서는 장군님의 부하들을 그렇게 돌려보낸적이 없네. 그 몸으로는 안돼!》

그는 이렇게 말하며 부저가락으로 숯덩이들을 뚱겨놓았다.

오로인의 마음처럼 뜨거운 열기가 림춘추의 얼굴에 화끈 와닿았다.

12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래간만에 저녁 일찌기 댁으로 돌아오시였다.

며칠 있으면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선포식을 하게 됨으로 하여 여느때보다 더 바쁘시였으나 이날만은 큰 마음을 먹고 우정 시간을 뚝 떼내시였다.

댁에서는 이미 부르심을 받고 온 리종익원장이 기다리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와 인사를 나누시고나서 김정숙동지께서 성의껏 준비하여놓으신 식탁으로 이끄시였다.

《원장선생과는 학원에서 자주 만나 사업이야긴 나누었지만 언제 한번 수고많은 선생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려 차린것이니 어서 많이 드십시오.》

《예?!》

리종익은 너무도 황송하여 선뜻 수저를 들 생각을 못하고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뭘 그럽니까. 후날에 가서 이 **김일성**이 숱한 자식들을 맡겨

놓고도 인사불성이더라고 나무람하실 작정입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해하는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느라 우정 이렇게 말씀하시며 큰소리로 웃으시였다. 아닌게아니라 리종익은 이내 굳어진 몸가짐을 풀며 스스럼없이 따라웃었다.
《사실 장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섭섭합니다.》
《섭섭하다니요?》
《장군님께서 그 애들을 저에게 맡겨주실 때 전 대를 이을 자식 하나 없던 이 리종익에게 장군님께서 끌끌한 아들딸들을 안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로친네의 마음도 저와 꼭 같지요. 장군님처럼 그 애들의 친부모가 되고싶은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원장선생!…》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금도 가식이 없는 그의 결곡한 진정이 가슴에 사무쳐오시여 뜨겁게 그를 부르시였다.
《고맙습니다. 선생의 그 소원을 난 존중해드리고싶습니다. 자, 그럼 이 술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듭시다.》
그이께서는 술잔을 들어 깊은 의미를 담아 말씀하시고나서 리종익과 함께 잔을 내시였다. 그리고 또다시 그의 술잔을 채워주시며 음식그릇들을 가까이로 놓아주시였다.
《참, 내 이틀전에 학원에 갔을 때 방학을 갔다가 미처 돌아오지 못한 애들이 몇이 있었는데…》
《예, 모두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민순희는 어떻습니까? 공부가 많이 밀렸는데 꽤 따라갑니까?》
《이악쟁이입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불 합니다.》
《백산이는요? 그 애와 싸움을 했던 아이들이 이젠 돌아왔겠는데 잘 섭쓸려 놉니까?》
《예, 그녀석들이 백산이가 다시 학원에 돌아오게 된 사연을 듣고는 동무들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하… 그러니 서로들 화해를 한셈이군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였다.

식사를 마치신 후 그이께서는 리종익에게 사진기를 내놓으시였다.

《이 사진기는 내가 쓰던것인데 학원에 가지고가서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주십시오. 당장은 좋은 사진기를 구할수 없어 그러니 량해하십시오.》

리종익은 펄쩍 놀라며 받으려 하지 않았다.

《장군님께서 쓰시던 사진기를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그 애들은 아직 사진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볍게 웃으시였다.

《그래서 더욱 그러는겁니다. 그전날에야 그 애들이 숨어살면서 당장 먹고살 근심때문에 사진이란걸 찍어볼 엄두도 못냈지만 이제야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진기야 어떻게…》

리종익은 그냥 고집을 부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얼굴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생각깊은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원장선생, 난 일전에 학원에 나가 몰라보게 자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향에 있는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들에게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보내면 그들이 자식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바지와 팔소매에 붉은 줄을 띠운 학원제복을 입은 자식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혁명가유가족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더욱 느끼게 될것이고 새 조국건설에도 더 열성적으로 참가할것입니다.

그러니 사양하지 말고 이 사진기로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 집에 보내주도록 하십시오.》

《장군님…》

리종익은 더이상 어쩔수 없어 그이께서 주시는 사진기를 정히 받아들었다.

《내 생각에는 사진을 재학기간에 한번만 찍어 보내주지 말고 그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수 있게 해마다 찍어 보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한창 자라는 때이므로 한해사이에도 몰라보게 클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학습과 생활에서 모범인 학생들에게는 영예사진도 찍어주어 그것을 그들의 고향에도 보내주고 영예게시판에도 붙여주면 학생교양에도 좋을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학원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겠는가를 곰곰히 생각하시며 차근차근 이르시였다.
리종익원장은 슬며시 고개를 숙이였다.
《장군님께선 어쩌면 유가족들의 심정까지… 아무래도 전 그 애들의 부모자격을 못 가질것 같습니다. 아무리 윈심을 써보아도 장군님의 그 심정의 만분의 하나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어루만질줄이나 알았지…》
그는 언제인가 정치부원장이 자기에게 주던 충고가 떠올라 이렇게 말끝을 흐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말뜻을 알고도 남음이 있으시였다.
학원에서 원장이 학생들을 끔찍이 사랑하기는 하나 일체 과외로동은 물론 운동장 눈치기나 마당쓸기, 지어 복도청소도 못시키게 하고 교직원들이 대신 하게 한다고 일부 의견들이 제기되고있었던것이다. 지난해말 학원에서 열병이 발생했던 이후로는 더욱 그러하다는것이였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직 그 문제를 한번도 꼬집어 이야기하지 않으시였다. 학원아이들에게 온 정과 넋을 정신없이 쏟아붓고싶어하는 원장의 진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계셨기때문이였다. 그래서 정치부원장에게 옆에서 잘 도와주라고만 이르군 하시였는데 원장이 먼저 그 말을 하는것으로 보아 아마 무슨 충고를 들은 모양이였다.
그이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였다.
《하하… 아이들이니 어루만져도 주어야지요. 다만 그것이 눈먼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건 희생된 그 애 부모들이 바라는바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기 자식들을 먹여주고 입혀달라고 부탁한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뒤를 잇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장선생도 아까 학생들을 자기의 대를 이을 자식들로 말아안았다고 했는데 난 선생이 말한 그 대가 결코 어떤 가문의 대가 아니라 선생이 지닌 그 애국의 뜻을 이어줄 대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왕 말이 난김에 그에게 똑바로 인식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시였다. 그래서인지 그이의 목소리는 절절해지시였다.

《가정의 대는 낳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면 저절로 이어지겠지만 혁명의 대는 결코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선대의 혁명사상과 투쟁정신을 심어주고 키워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슴아픈 타이름도 해주고 로동을 통해 단련도 시켜야 합니다. 눈먼사랑으로 어루만져서는 그 애들에게 로동을 사랑하고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고 동무들을 사랑하는 혁명가의 품성을 키워줄수 없습니다.

원장선생, 난 혁명가의 자식들인 그 애들이 그 어떤 글뒤주나 귀공자가 아니라 제 아버지들처럼 혁명가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장군님, 간곡한 그 말씀을 페부에 새기겠습니다.》

리종익이 두손을 가슴에 모두어잡으며 생각깊이 말씀올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 내려주시며 소탈하신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원장선생, 내 사실은 그 무슨 훈시를 하자고 이렇게 초청한건 아니였는데 우리의 화제가 곬을 잘못 탔군요. 하긴 이렇든저렇든 다 우리 애들을 위한 이야기니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이지 난 시간만 허락하면 매일이라도 학원에 나가 그 애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고싶습니다.》

그이께서는 창문가로 다가가시며 추연한 시선으로 밤하늘가를 바라보시였다. 보고싶은 아이들의 얼굴너머 자꾸만 보여오는 그리운 전우들의 모습을 그 하늘가에서 찾으시려는듯…

《이제 며칠 안있어 우린 북조선인민위원회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정규군의 선포를 온 세상에 알리는 경축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날을 맞게 되니 어쩐지 요즘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함께 싸우던 동지들이 다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뜻깊은 날을 맞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전에 사망한 안

길동무도 정규군창건을 위해 참으로 많은 일을 하다가 아쉽게도 우리곁을 떠나갔는데 그가 살아서 이날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일찌기 우리곁을 떠난 동지들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장군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장군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자식들을 부모들의 뒤를 이을 혁명가로 키우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대답올리는 원장을 돌아보시다가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으시였다.

《원장선생의 임무가 무겁습니다. 유자녀들을 잘 키워 그 애들이 부모들의 뒤를 잇게 하는것이 우리가 먼저 간 동지들앞에 의리를 다하는것으로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원장선생, 그런 의미에서 내 생각에는 이번 경축열병식에 학원학생들을 참가시키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원장선생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학원학생들을 열병식에… 말입니까?》

리종익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이므로 좀 얼떠름한 표정으로 그이를 바라보았다.

《걱정할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군사훈련을 통해서 정보행진하는 법은 다 배운거구 또 좀 서툴면 뭐랍니까. 이제라도 학원학생종대를 준비합시다. 그들이 비록 군대는 아니지만 앞으로 부모들의 뒤를 이어 우리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인민군대의 핵심골간으로 될 후계자들이 아닙니까.

난 희생된 동지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자식들을 꼭 열병식대오에 세워주고싶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결연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숭고한 념원을 받아안은 리종익원장의 가슴은 크나큰 격정으로 벅차올랐다.

1948년 2월 8일 오전 10시.

평양역전광장에서는 정규적조선인민군의 위용을 온 세상에 과시하

며 성대한 경축열병식이 진행되였다.

저 멀리 안도의 수림속 토기점골의 자그마한 등판에서 시작된 이 나라의 진정한 혁명무력의 발걸음이 험준한 백두의 산발을 넘고넘어 오늘 이렇듯 드넓은 열병광장에로 이어진것이다.

정규무력의 열병종대들이 보무당당히 지축을 울리며 열병광장을 행진해나갔다. 륙해공군 열병종대들의 장엄한 흐름…

그 억세고도 자랑찬 대오에 뒤이어 만경대혁명학원열병종대의 도도한 흐름이 광장으로 들어섰다. 어제날 짚신감발에 베잠뱅이를 걸치고 장군님품에 울며 안겼던 유자녀들이 오늘은 인민군군인들과 꼭 같이 름름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위풍있게 행진해갔다.

사람들은 누구나 **김일성**동지의 사열을 받으며 보무당당히 광장을 행진해가는 만경대혁명학원 열병종대의 모습을 보면서 조선혁명의 밝은 미래를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되였다.

척척척…

척척척…

그들의 힘찬 발구름소리는 열병광장을 세차게 뒤흔들었다.

제 5 장

1

오국철이 두 나라 지경의 수천리길을 걸어 혼자서 조국으로 나온것은 그해 2월 중순이였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 생소한 먼먼길을 걷노라니 뒤에 두고 떠나온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그리고 누이와 동생들 생각이 걸음걸음 사무쳐왔다. 더우기 노여움에 펄펄 뛰고있을 할아버지 생각을 할 때면 무척 미안하기도 했다.

그리움과 힘겨움에 지쳐 몇번씩이나 되돌아서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지나친 욕망만으로 서뿔리 떠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도 없지 않았다.

언제부터 조국에 나가자고 조르던터여서 행처를 짐작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엄동설한에 혼자 길을 떠난 자기를 두고 마음을 놓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국철은 끝내 돌아서지 않았다.

두만강을 넘어서기 전까지 남의 집 헛간에서 새우잠도 자고 려인숙의 차디찬 골방에서 날을 밝히기도 하면서 힘겹게 왔으나 막상 두만강을 건너서고보니 그래도 제 나라 땅이라고 몸도 마음도 한결 푸근해지는것만 같았다.

(어서 가자, 가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자!)

아버지와 큰아버지, 삼촌들을 비롯한 17명의 오씨일가 어른들이 모두 왜놈들과의 싸움에 나섰다가 잘못되였는데 이제 집안에 남은 제일 큰 사내인 자기가 원쑤를 갚을 생각은 안하고 산간벽지에서 화전이나 뚜지고있을수 없다는 충동이 그를 채찍질하였다.

그의 아버지 오중성은 훈춘일대에서 현공청을 책임지고 투쟁하다가 간교한 일제의 교활한 마수에 걸려든 종파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원통하게도《민생단》으로 몰려 1934년 이른봄에 학살되였다. 그때 놈들이 서둘러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자 아버지는《잠간만!》 하고 웨치고는 놀랍게도 웃옷을 벗어 앞에 놓고나서 어깨가 드러나보이는 헌 속옷바람으로 모여있는 군중과 대원들을 향해 내가 지금 동무들에게 남기고 갈것은 이 옷밖에 없다, 이 옷을 입고 조선혁명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불을 토하듯 이렇게 웨쳤다고 한다.

《나는 조선혁명을 하다가 죽는것이지 결코 민생단이 돼서 죽는것은 아닙니다. 동무들은 오직 **김일성**장군님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진짜 민생단인 저자들에게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혁명 만세!》

아버지가 희생되던 그때 국철이의 나이는 4살밖에 안되였었다.

그러나 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는 과정에 아버지가 왜 생의 마지막순간에 오직 **김일성**장군님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웨쳤는지, 오씨집안사람들이 왜 장군님을 따라 총을 잡고 싸움의 길에 나섰는지 가슴속깊이 새겨안았다. 자기도 아버지의 유언대로, 집안사람들의 념원대로 장군님의 품에 안겨 싸우고싶었다. 장군님께서만은 자기의 이 소원을 꼭 풀어주실것만 같았다.

조국땅에 들어서서부터 그의 믿음은 더욱 굳어졌고 희망은 더욱 부풀어올랐다. 평화로운 마을과 거리, 행복과 랑만에 넘친 활기로운 사람들, 공장들의 기계소리와 학교들에서 울리는 배움의 종소리…

국철은 난생처음으로 보게 되는 조국의 현실앞에서 놀라움과 함께 따뜻한 마음의 안정을 느꼈다. 더우기 사람들로부터 장군님께서 이미 자기와 같은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해 학원을 세워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환성을 질렀다.

장군님을 찾아 조국에 나온다는 생각만 했지 친척도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굴 만나야 할지 막연하기만 하던 그에게 있어서 학원이야말로 자기를 기다리는 유일한 곳으로 생각되였다. 그리고 학원에 가면 꼭 장군님을 만나뵈올것 같이 생각되였다. 하여 그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가며 끝내 학원을 찾아오게 되였다.

학원정문에 들어선 첫 순간부터 그는 흥분되였다. 운동장에서 대렬훈련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 붉은 줄이 쭉쭉 간 멋진 제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국철의 가슴을 대번에 높뛰게 만들었다.

그 애들이 어디 하늘나라 별세상에 사는 아이들같았다. 아니, 자기가 바로 그 별세상에 온듯싶었다. 그러나 그 애들이 자기와 같은 유자녀들임을 알았을 때에는 이제 곧 자기도 저 애들과 같은 옷을 입고 저런 생활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마냥 즐겁고 흐뭇하기만 하였다.

그는 자기를 재촉하는 학원직일관의 부름을 듣고서야 꿈속에서 깨여나 원장방으로 들어갔다.

직일관이 안경을 낀 나이든 원장에게 그가 찾아온 사연을 짧게 보고하고나서 돌아서나갔다.

리종익원장(물론 그 이름은 후에 알게 되였지만)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며 몸을 녹이라고 난로가까이에 의자를 놓아주었다.

《음, 동북에서 왔단 말이지?》

《예.》

《앉아라, 어서 앉으라니까.》

원장은 엉거주춤하고 일어선 그의 어깨를 눌러 다시 의자에 앉혔다.

《그런데 왜 혼자뿐이냐?》

《저 혼자서 왔습니다.》

《혼자서?… 원, 인솔자도 없이 혼자 내보내다니. 너 지금 몇살이냐?》

《열여덟살입니다.》

《열여덟? 음… 학원학생으로서는 나이가 좀 들었구나. 어쨌든 용타. 그 나이에 혼자 두 나라 지경을 넘는다는게 쉬우냐? 좌우간 어서 문건을 내놓아라.》

리종익원장이 이렇게 말하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국철은 그만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문, 문건이라니요? 그건 무슨…》

《추천문건 말이다, 네가 혁명렬사의 유자녀라는것을 확인하는 보증서와 그에 따르는 추천서. 왜 림춘추동무가 안 써서 보내드냐?》

동북에서 나오는 유자녀들은 다《림춘추》라는 서명이 있는 추천문건을 가지고오군 하였으므로 리종익이 오히려 의아한 눈길로 국철이를 바라보았다.

《저… 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엉?…》

리종익원장의 놀란 눈빛이 국철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국철은 뭔가 일이 잘못되였음을 깨달았다. 학원이라고 해서 무작정 찾아온다고 되는 곳이 아니라는것을 늦게야 알았던것이다. 맥이 쑥 풀렸다. 방금전까지만도 눈에 보이던 칠색무지개가 순간에 사라지고 앞이 캄캄해졌다. 뒤따라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자꾸만 커졌다.

《너 정말 혁명가유자녀가 맞긴 맞냐?》

《예?》

국철은 어딘가 좀 랭정해진것 같은 원장의 얼굴을 두려운 눈길로 마주보았다. 그는 서둘러 아버지의 이름과 희생된 경위에 대해서 할아버지에게서 들은대로 자초지종 이야기하였다.

《오중성?…》

리종익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동만의 항일혁명렬사들을 알수 없었던 리종익은 전번에 허가이가 내려와서 《경력이 흐리터분》한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큰 소동을 일으켰던 일로 하여 긴장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이번에 또 잘못 언질을 주어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장군님앞에 어떻게 나선단 말인가.

《난 네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말만 듣고 믿을순 없지 않니? 너희 아버지를 알고있는 다른분들의 이름이라도 알아야겠는데… 할아버지가 그런 소리는 한게 없냐?》

국철은 절망이 비낀 표정으로 머리를 흔들었다.

《좋기는 연변전원공서에 가서 림춘추동무의 보증서를 받아오면 되겠는데 그 먼곳에 다시 보낼수도 없구…》

듣고보니 생각만 해도 아뜩한 일이였다. 어떻게 고생스레 온 길이라고 되돌아간단 말인가. 국철은 눈물이 쑥 흘러나왔다. 울먹울먹하여 목소리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원장…선생님, 절… **김일성**장군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장군님께선 우리 아버질 아실거예요.》
원장이 그의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이 철없는것아, 장군님은 나라정사를 돌보시는분이시야. 제 만나고싶다고 아무나 만난다면 장군님께서 어떻게 일을 보시겠니? 또 그래서도 안되구. 그렇지 않아도 장군님께서 학원사업때문에 가뜩이나 부담이 크신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전 이 학원에서 공부하고싶어요. 제발 내 말을 믿어주세요. 절 학원에서 쫓지 말아주세요. …》
국철은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원장에게 간청했다. 원장도 그의 정상이 애처로왔던지 잔등을 다독여주었다. 그는 이 애가 정말 장군님께서 알고계시는 혁명가의 자식일수도 있다는것과 아무래도 이제 장군님께서 학원에 오시면 한번 말씀드려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있었던것이다.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 확인할 사람(그는 우정 이렇게 말했다.)이 나타날 때까지 널 림시 학원직원으로 남겨두지. 이젠 나이도 좀 먹었으니 식당화구야 볼수 있겠지?》
《예?… 예! 볼수 있습니다. 아니, 잘 봅니다.》
국철은 너무 기뻐 원장의 팔을 부여잡고 마구 흔들었다.
우선 학원에 떨어지고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러면 언제건 꼭 장군님을 만나뵈올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이처럼 다행스럽고 기쁘게 하였던것이다.
《허허… 녀석두.》
원장이 흘러내린 안경을 눌러붙이며 조용히 웃었다.
국철은 고마운 원장에게 허리굽혀 굽석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여 그날 저녁부터 그는 식당화구를 보게 되였다.
원장과 정치부원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를 그저 새로 온 직원으로 알고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벌써 한주일이 지나갔다.
국철이가 마음속으로 매일과 같이 이제나저제나 장군님께서 학원

에 오시기를 손꼽아기다리고있던 어느날…

한낮이 다 기울어가는 운동장에서 학원제복을 입고 추운줄 모르고 뛰여노는 학생들의 모습을 부러움이 가득찬 눈길로 바라보고 섰는데 몸집이 실한 식당아주머니가 그를 소리쳐 찾았다.

《아니, 빨리 저녁밥을 지어야겠는데 아직두 탄불을 올리지 않구 그렇게 멍하니 서있으면 어떻게 하나? 불길이 올라와야 밥을 짓지. 원장선생이 물어볼 때마다 내 새로 온 총각이 일을 잘한다구 칭찬해주군 했는데… 어떤 때 보면 멍청해있군 한다니까.》

국철은 끙끙거리는 식당아주머니의 지청구를 들으며 얼굴이 벌개서 얼른 화구칸으로 달려갔다. 조급한 마음으로 어둑스레한 화구칸 안에 들어서다나니 세워놓았던 석탄 이기는 삽과 부딪쳤다. 한벌밖에 없는 옷에 탄검댕이가 쭉 묻어났다. 탄가루먼지가 묻은것은 털어버리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저녁에 옷을 빨아야 할것 같았다. 말그대로 림시로력이니 누가 그의 작업복 같은것을 신경써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그자신도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온통 딴데 가있었던것이다.

(혹시 장군님께서도 우리 아버지를 모르고계시면 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루에도 몇번씩 이런 불안이 그를 휩싸군 하였다.

국철은 불길이 잘 올라오게 구멍을 여러개 뚫어놓았다. 매캐한 탄내가 코와 입으로 날아들었다.

《아이참, 탄을 좀 더 뚜져놓으라구.》

코를 싸쥔 식당아주머니가 화구칸안을 들여다보며 간참질을 했다.

《불길이 저 정도면 일없겠는데?!…》

《아니야, 그러다간 저녁식사시간이 늦어. 학원에선 일과가 물레와 가락처럼 맞물려있다는걸 모르나?》

할수없이 탄불을 더 뚜져놓았다. 재가루가 머리카락과 눈섭에 뽀얗게 내려앉았다. 그는 얼른 밖으로 뛰쳐나와 참았던 큰숨을 길게 내쉬였다.

《에그, 수골 했구만. 얼굴이랑 옷이랑 말이 아닌데…》

식당아주머니가 재가루를 털어주려고 다가들었다.

그런데 그때 운동장쪽에서 와— 하는 환성소리가 들려왔다.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환성소리였다.

《아니, 저기서 왜들 그래요?》

《아이들이 저렇게 좋아 어쩔줄 몰라하는걸 보니 장군님께서 오신게지. 보라구, 저쪽 침실에서도 아이들이 달려나오질 않나.》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거기에서《장군님께서 오셨다!》하는 웨침소리가 울려왔다.

갑자기 심장이 세차게 높뛰였다.

장군님께서 오셨다!… 제발 꿈이 아니였으면…

오늘이 정말 내 소원이 풀리는 날이였으면…

그는 그 무엇을 더 생각할새없이 무작정 달려나갔다.

《아니, 어딜 가나? 그 주제를 해가지고…》

식당아주머니가 웨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릴리 만무하였다.

국철의 눈앞에는 학생들속에 에워싸여 다정스레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군님의 모습이 안겨왔다. 원장사무실에 모셔진 초상화에서 깊이깊이 눈에 익혀둔 바로 그 **김일성**장군님의 모습이였다.

벌써 장군님께서는 오롱조롱 매달린 학생들속에 에워싸여 원장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며 천천히 청사쪽으로 걸음을 옮기시기 시작하였다.

국철에게는 이제 장군님을 만나뵙지 못하면 다시는 영영 자기 소원을 풀길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앞뒤를 가려볼 사이도 없이 학생들사이를 헤집고 장군님의 등뒤에까지 달려갔다. 자기자신도 놀랄만치 큰 목소리로 그이를 불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돌아서시였다. 그옆에 섰던 리종익원장도 놀란 눈길로 국철을 바라보았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기회를 보아 말씀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그 당자가 이렇게 불쑥 나타날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직 채 털지 못한 재가루가 머리카락과 어깨우에 앉아있고 탄검댕이가 발린 옷차림을 한 낯선 국철이의 모습을 아래우로 훑어보시며 한걸음 다가오시였다.

《장군님! 제가 오중성의 아들입니다.》

흠칫 하고 장군님께서 놀라시였다.

국철의 눈에는 분명 그렇게 보이였다.

《누구? 오중성의 아들이라구?》

김일성동지께서 와락 국철의 어깨를 잡으시였다. 어깨를 잡아 당기시며 찬찬히, 유심히 그의 얼굴을 뜯어보시였다. 순간 그이의 안광에 반가움에 가득찬 밝은 빛이 확 피여났다.

《옳구나! 신통히도 오중성의 모색이로구나!》

국철의 눈에는 핑그르 눈물이 돌았다. 장군님께서 아버지를 알고 계신다는, 장군님께서 아버지를 잊지 않고계신다는 격정에 끝내 감격의 눈물을 터뜨리고야말았던것이다.

《그럼 네가 어릴 때 왕청유격구에 있었겠구나? 그런데 네가 벌써 이렇게 컸느냐? 어디 좀 보자!》

그이께서는 국철이를 한품에 껴안으시였다. 그리고 그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어주시며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국철은 계속 울기만 하였다.

《이제는 그만 그쳐라. 나하고 이야기나 좀 하자.》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시였다.

《그래, 집안에서는 다 어떻게 됐니? 가족들이나 친척들중에 지금 살아계시는분들이 있느냐?》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그리고 누이와 사촌동생들이 있습니다. 작은할아버지네도 얼마전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삽니다.》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단 말이지… 그런데 왜 여직 날 찾아오지 않고 거기에 계시는거냐?》

《할아버지가 두말도 못하게 합니다. 장군님께 보탬은 못 드릴망정 부담을 줄수는 없다고…》

그이께서는 깊은 감회에 잠기신 눈빛으로 먼 하늘가를 잠시 바라보시고나서 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이 애의 가정에서는 자그만치 열일곱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혁명

의 길에 나섰는데 한명도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모두 희생되였습니다. 보기 드문 혁명가가정입니다.》

원장이 그이께 국철이가 아무 문건도 없이 혼자서 동북에서 나온 사실과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

《음, 그렇게 됐구만. 식당화구를 보느라구 네 옷주제가 그랬댔구나. 원장선생두 참, 그런 일이 제기되였으면 나에게 먼저 알릴것이지…》

그이의 서운하신 말씀에 원장이 머리를 수그렸다.

《원장선생의 마음은 알만합니다. 하지만 이 애들의 문제는 나한테 부담이 되는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앞으로는 찾아온 아이들을 잘 알아보지 않고 돌려보내거나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 직원으로 받아 일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국철에게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네 이름이 뭐냐?》

《오국철입니다.》

《국철이… 국철아, 너 아무데도 가지 말고 저기 승용차곁에 가서 날 기다려라. 내 학원을 돌아보고 인차 나올테니.》

《예.》

《절대 어데 가지 말고 꼭 기다려야 해!》

《장군님, 승용차곁에서 장군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국철은 잡고있던 그이의 팔을 놓으며 맹세하듯 대답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몇번씩이나 뒤를 돌아보시며 원장과 함께 청사쪽으로 들어가시였다.

그제서야 국철은 자기가 어떤 주제를 하고 장군님앞에 나섰댔는가를 생각했다. 당장 달려가서 세면이라도 하고싶었으나 절대 어데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이 생각나 오도가도 못하고 못박힌듯 서있었다. 운전사가 다가와 그에게 젖은 걸레를 내여밀었다.

《자, 깨끗이 빤것이니 이걸루라도 닦거라. 우선 그 재가루부터 털자. 돌아서라. 내 털어주지.》

그가 차안에서 수건을 꺼내가지고 다가왔다.
국철은 그를 피하듯 승용차곁에서 멀찍이 물러섰다.
《너 왜 그러니? 왜 달아나?》
《저… 거기서 털면 재가루가 장군님 승용차에 떨어질게 아니나요.》
국철은 죄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허, 녀석! 괜찮아!》
운전사가 씽긋 웃으며 다가와 그를 돌려세우고 수건으로 재가루를 털기 시작하였다.

×

국철이는 이미 굳잠에 든지 오래다.
저녁에 댁에 데리고 들어올 때만 하여도 초췌해보이더니 목욕을 시키고 내의들을 갈아입혀놓으니 제법 싱싱하고 의젓해보인다. 겉옷은 그에게 맞춤한것이 없어 원래의 옷을 깨끗이 빨아 지금 한창 말리우는중이다. 당장 몸에 맞는 새옷을 해입혔으면 좋으련만 그럴만한 시간이 없다. 래일 그를 다시 동북으로 들여보내야 하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철이를 부관과 함께 보내여 남은 오씨집안사람들을 모두 데려내오실 결심이였다. 오태희로인이 여직껏 해방된 조국땅으로 자신을 찾아나오지 않고있는것이 새 나라를 위해 한몫할 끌끌한 장정은 하나도 없고 늙은이들과 부녀자들, 어린아이들뿐이니 가야 부담밖에 될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것이 분명한데 그냥 있으면 스스로 찾아올리 만무할것 같으시였다. 원래부터 그렇게 속대가 곧고 경우가 밝은 오로인이였던것이다.
앞으로 그 집 아이들은 림춘추가 찾아 내보낸다 하더라도 마음 결곡한 그 집 어른들은 설복해내기가 어려울것이였다. 오직 자신의 명의로 사람을 보내야만이 그들을 데려올수 있었다.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인가! 17명이나 되는 일가식솔을 혁명에 다 바치고도 그 대가를 바라기는커녕 오히려 살아있는 자기들이 혁명에 부담이 될것을 념려하는 고결한 그 애국정신…
마동희의 어머니 장길부도 그래서 집에서 함께 살자는 청을 한사

코 마다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가!…

김일성동지께서는 후더워오르는 가슴을 안고 문풍지 우는 창문가로 조용히 다가가시였다. 창밖에서는 이해의 겨울이 마지막 모지름을 쓰고있었다.

털써덕, 국철이가 이불 차던지는 소리가 났다.

(원, 녀석두…)

김일성동지께서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시며 그에게 다가가 다시 이불을 덮어주시였다. 문득 지난해 이맘때 바로 이 아래목에서 아이들에게 지금처럼 이불을 덮어주던 생각이 나시였다.

박창성과 신재호의 아들, 김룡수의 딸…

그 애들이 이젠 학원에서 무럭무럭 자라고있다. 정말이지 그때에는 그 애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면서도 손이 떨리시고 마음이 쓰렸었다. 언제면 이런 애들모두를 우리 집 아래목과 같이 따스한 곳에서 내 손으로 이불깃을 여며주며 만시름 다 잊고 자게 할수 있을가 하고…

그 안타깝던 마음이 이제는 어지간히 풀리신셈이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온갖 보살핌을 받으며 즐겁게 뛰놀고 만경대의 새 교사도 하루가 다르게 일떠서고있다. 학원건설사업소 로동자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열의와 지성에 의해 여름쯤이면 건물들이 완공될것 같았다.

하지만 이 국철이와 같이, 오씨집안의 아이들같이 아직도 사랑의 손길을 뻗쳐야 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아이들 하나하나를 모두 찾아 학원에 데려오기 전에는 결코 이 마음이 다 풀릴수 없다. 청사나 번듯하게 세워놓는다고 하여 동지들앞에 지닌 의리를 다했다고 말할수 없다. 그들의 자식들을 모래밭에서 금싸래기 주어모으듯이 다 찾아내여 품에 안기 전에는 이 **김일성**이 그들의 사령관이였다고 말할수 없고 그들의 령혼을 지켜준다고 말할수 없다.…

김일성동지의 생각은 끝없이 깊어만지시였다.

희생된 못 잊을 동지들, 귀중한 전우들…

그들이 못다산 인생, 그들이 못다한 혁명이 그들의 령혼이 되여 매일, 매 시각 자신의 심장을 태우는것만 같으시였다. 걸음걸음 따라서는것만 같으시였다. 아직은 멀고먼 앞길만을 바라보며 가야 할 지

금 이렇듯 너무도 자주 뒤를 돌아보게 되는것은 다름아닌 그들의 뜻을 다 이루어주지 못하였기때문이다.
그들의 생전에 다 부어주지 못한 이 가슴속의 정과 애를 그 자식들에게 깡그리 부어줄 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정신이 다시 이어지게 될것이다.
혁명가의 영생은 바로 이것으로 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겠는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시였다. 그러시고는 아직 불이 켜져있는 웃방으로 들어가시였다.
그곳에서는 김정숙동지께서 국철의 옷을 다림질하고계시였다.
《밤도 깊었는데 쉬지 않소?》
《아무래도 아침까지 마를것 같지 않아 다리미로 말리우느라 그럽니다. 잘 마르지 않은 옷을 입었다가 애가 감기라도 들면…》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심정이 십분 리해되시여 머리를 끄덕이시며 빙그레 웃으시였다.
《아니, 왜 웃으십니까?》
김정숙동지께서 다소 의아한 목소리로 물으시였다.
《정숙동무의 말을 듣노라니 우리 집에 다리미가 있길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오.》
《예?!》
《그렇지 않으면 산에서처럼 또 몸에 품어 말리우자고 할게 아니겠소.》
그제서야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저으기 상기된 얼굴에 미소를 그리시였다.
《며칠 시간만 있으면 새옷을 해입혀보내는건데…》
그이께서는 아쉬우신듯 아직도 센 물김이 서려오르는 옷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아무래도 학원제복을 해입혀야겠는데 옷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가 있겠소? 국철일 만난 뒤로는 그들 생각때문에 마음이 조급해 못견디겠소. 내 부관동무에게 춘추동무앞으로 편지도 써보내려 하니 빨리 되돌아설수 있도록 조직사업을 해줄거요. 그들이 조국으로 나올

때 가장집물들을 한가지도 떨구어두지 말고 다 가지고 나오도록 해야겠소. 그리고 늙은분들이 오는 도중에 고생하지 않도록 두만강을 건는 다음부터는 전용차칸을 단 기차를 타고오게 할 생각이요.》

《그러면 승용차를 타고오는것보다 편안히 오게 될겁니다. 국철이가 가지고 갈 려비는 제가 어떻게 하나 마련해놓겠습니다.》

《고맙소. 참, 그들이 올 때 춘추동무가 그동안 찾은 아이들도 함께 데려오도록 하겠으니 피복공장에 한번 나가서 학원제복과 외투를 해입힐수 있는 옷감준비를 미리 해놓도록 해야겠소.》

《알겠습니다. 장군님, 더 근심마시고 어서 주무십시오.》

김정숙동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념원이 짙게 어려있었다.

《나보다도 정숙동무가 더 쉬여야 할것 같구만. 해방된 조국땅에 와서도 언제한번 일찍 쉬는걸 못 보겠구만. 정말이지 동무 보기가 미안하오.》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정일도 돌보고 자신의 사업도 받들어주고 더우기는 학원아이들의 생활과 학원건설장사업을 사흘이 멀다하게 돌보느라 어느 하루 마음편히 쉬지 못하시는 김정숙동지의 수고를 헤아려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 옷을 다 다려 말리워놓고는 인차 자겠습니다.》

사실 옷을 다 다린 다음에는 국철이와 부관이 차를 타고가면서 먹을 도중식사를 준비하실 계획이셨으나 그이께서는 장군님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천연스레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더 아무 말씀을 않으시고 방에서 나오시였다.

무엇으로써도 그이의 그 불같은 마음을 잠재우게 하실수 없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계셨기때문이였다.

아래목에서는 여전히 굳잠든 오국철이 네활개를 쭉 펴고 제법 코까지 가랑가랑 골고있었다.

그때로부터 보름후, 오태희로인일가는 드디여 조국으로 나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가모두를 저택으로 부르시고 감사의 큰절을 드리는 로인부부에게 해방된 조국땅에 돌아오지 못한 자식들을 대신하여 김정숙동지와 함께 술을 부어주시였다.

국철을 비롯한 오씨집안 아이들은 그이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에 안겨 모두 만경대혁명학원 학생으로 되였으며 그들의 어머니들은 학원에서 일하게 되였다.

혁명렬사유가족인 오씨가문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그후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졌다.

2

문석오는 서둘러 창작실을 정돈하고있었다.

학원에 건립할 **김일성**동지의 동상형상초안이 완성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김정숙동지께서 곧 나와보시겠다는 련락이 왔던것이다.

그전의 창작실(물론 그 창작실은 형편없이 비좁은 곳이긴 하였지만)에서처럼 녀사를 또 서계시게 할것만 같아 의자들도 여러개 들여놓고 각종 화구통과 물통 등 잡다한 물건들은 다 방에서 내여갔다. 창작실안을 다 정돈하고난 그는 더 미흡한 점이 없겠는가 하여 다시한번 세심히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나서야 의자 한켠에 조심스레 걸터앉았다. 여느때없이 마음이 긴장되였던것이다. 이제 녀사께서 동상초안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는지? 과연 녀사의 의도를 충분히 살렸다고 볼수 있을가?…

학원개원식을 진행했던 지난해 바로 그날 저녁 김정숙동지께서 문석오를 찾아오시였다.

그날 김정숙동지께서는 감격에 겨워 몸둘바를 몰라하는 그에게 동상창작사업에서 애로되는것이 없는가고 하시며 장군님의 동상을 만경대혁명학원에 모시려는것은 장군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언제나 장군님과 함께 있고싶어하는 유자녀들의 절절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라고 다시한번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아이들은 난생처음 장군님께서 따뜻이 보살펴주시니 장군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장군님곁에 있고싶어한다고, 장군님을 모신듯이 장군님의 동상을 학원에 모시여 부모없는 그 애들의 소원을 하루빨리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문석오는 **김일성**장군님께서와 김정숙녀사께서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새 교사건설에 필요한 석재보장사업과 함께 창작사업에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정열을 바쳐왔다.

피타는 사색과 탐구, 고심어린 모대김의 날과 날들이 흘러갔다. 그 창작적진통이 마침내 오늘과 같은 결실을 맺은것이다.

그러나 정작 김정숙녀사께 보여드리자고보니 어쩐지 마음은 불안해졌다.

딱히 무엇때문이라고 찍어말할수는 없었지만 자기자신으로서도 어딘가 허전해지는감이 자꾸만 갈마들었던것이다. 그의 이러한 불안감은 김정숙녀사께서 창작실에 들어오시여 장군님의 동상형상초안을 정중히 바라보시는 모습을 대하면서 더욱 짙어졌다.

장군님의 동상은 《얘들아, 어서 오너라!》하시며 금시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주실듯 두팔을 약간 벌리고 서계시는 전신립상으로 형상되여있었다.

문석오는 인자하고 너그러우신 아버지로서의 장군님의 모습을 형상하는데 창작의 중심을 두었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오래도록 그가 창작한 동상초안을 보고 또 보시였다.

가까이 다가서시여서도 보시고 뒤로 물러서시여도 보시고 또 측면에서도 보시였다. 보시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드시였다. 문석오는 창작가의 예민한 륙감으로 그이의 안색이 밝지 못하다는것을 느꼈다. 마음은 더없이 무거워졌다.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던 녀사께서 가까이로 다가오시여서야 그는 죄송스러운 눈길을 들었다.

《생각을 많이 하셨군요. 수고가 많았습니다. 장군님을 학원아이들의 아버지로 형상하려고 한 창작가의 의도가 한눈에 알립니다. 더우기 동상을 전신립상으로 형상하려는것이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김정숙동지께서는 선뜻 말을 잇지 못하시였다.

문석오는 자기를 실망시킬가봐 저어하시는 그이의 세심한 마음쓰심을 느끼며 용기를 내여 말했다.

《녀사님, 사정두지 마시고 어서 말씀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저의

재능이 너무도 미숙한것 같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마음을 헤아려보신듯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였다.

《난 문선생의 재능을 의심해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장군님의 모습이 어쩐지…》

《예?》

《문선생, 난 늘 항일의 군복차림을 하고계시던 우리 장군님의 모습이 너무도 오래동안 눈에 익어서인지 이렇게 양복차림의 모습이 어쩐지 눈에 설어보이는군요. 장군님께서는 항상 가슴에 쌍안경을 드리우시고 옆에는 싸창을 차고계시군 하시였어요. 장군님의 그 모습이 더 친근하게 안겨오지 않을가요?》

《저… 그러니 녀사님의 말씀은 군복을 입으신 모습으로?…》

《예. 제 생각에는 장군님의 동상은 싸창을 차신 조선인민혁명군사령관의 군복차림으로 한손에는 쌍안경을 드시고 백포자락을 날리시며 일제침략자들을 쳐부시던 장군님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하는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겁니다.》

그이의 열정에 넘치신 말씀에 문석오는 저으기 놀랐다. 그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창작방향이였던것이다. 더구나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원에 모시게 되는 동상이라고 놓고볼 때…

《녀사님의 그 말씀은 저를 몹시 흥분시킵니다. 솔직히 이 세상의 그 어느 조각가도 그렇듯 성격형상이 강렬하고 예술적조형미가 뚜렷한 그런 구상을 해내지 못할겁니다. 그런데…》

《문선생도 사정두지 마시고 어서 이야기하세요.》

김정숙동지께서 웃으시며 그를 재촉하시였다.

《장군님의 그런 모습을 저 백두산이나 장군님께서 조국개선을 하신 력사적의의가 있는 장소에 세운다면 더없이 완벽한 형상으로 될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원에 세우는 동상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 엄엄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석오는 흥분을 눅잦히며 아쉬움이 비낀 어조로 솔직한 심정을 터놓았다.

김정숙동지께서도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

《그러니 동상의 성격과 그 건립장소가 맞지 않을수 있다는 우려이군요. 물론 문선생이야 전문가이니 더 잘 아시겠지요. …

하지만 동상의 기념비적성격이 그 장소에 의해서만 설명되거나 담보된다고 볼수 없지 않을가요. 잘 모르긴 하겠지만 내 생각에는 동상이 단순히 그 어떤 이름있는 장소를 장식하거나 그 어떤 력사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는, 영원히 잊혀지지도 지워지지도 않는 빛나는 모습으로 세워질때 진실로 자기의 기념비적의의를 가진다고 봐요.》

《예?》

《해방을 맞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제일 깊이 새겨져있는 **김일성**장군님의 모습은 축지법을 쓰시며 강도 일제를 쳐물리치신 빨찌산 김대장의 모습이예요.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유자녀들의 마음속에도 군복을 입으신 장군님의 모습은 엄엄하게 느껴지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친근하게 안겨올거예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진지한 눈빛으로 문석오를 바라보시며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 애들의 아버지들은 대다수가 다 장군님을 따라 총을 잡고 유격대에서 싸운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유자녀들이 맘속으로 그려보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들도 빨찌산의 군복을 입은 모습일겁니다.

그 애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군복입은 장군님의 모습에서 다름아닌 자기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며 더 가깝고 더 친근하게 생각할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애들의 소원을 풀어주는것으로 되며 동상건립의 기념비적성격도 더 잘 살아나는것으로 되지 않겠나요.》

(아! 이것은 발견이다. 조각창작의 기성리론으로써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새로운 발견이다!…)

문석오는 경탄에 찬 눈길로 김정숙동지를 우러러보았다.

《정말 놀랍습니다. 녀사님께서 이렇게 굳어진 이 문석오의 머리를 순간에 깨우쳐주실줄은… 말씀을 듣고보니 정말 천만번 지당하고 명백한 리치입니다. 신심이 생깁니다. 눈앞이 환히 보입니다.》

그는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격정에 넘쳐 말했다.

《아마 미껠란젤로가 살아있다고 해도 녀사님의 말씀에는 그 도고한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을것입니다.》

《호호… 문선생도 그런 말을 다 할줄 아시누만요. 난 다만 만경대혁명학원의 새 교사에 모실 장군님의 동상은 학원아이들의 소원을 풀어줄수 있게 될뿐아니라 그 애들이 우리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투사로 자라날 각오를 더욱 굳게 가질수 있도록 형상돼야 한다고 생각했을뿐입니다.》

《제 생각이 정말 짧았습니다. 녀사님! 녀사님의 그 절절한 념원을 제 어떻게 하나 꼭 실현시키겠습니다. 녀사님의 가르치심대로 만경대혁명학원에 **김일성**장군님의 동상을 훌륭히 모시여 장군님의 그 위대하신 영상이 우리 인민과 유자녀들의 마음속에 아니, 끝없이 대를 이어가게 될 우리 혁명의 미래앞에 영원토록 새겨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오는 두손을 모아잡고 그이께 정중히 말씀올렸다.

김정숙동지께서도 기쁨에 넘치시여 그의 두손을 꼭 잡아주시였다.

《고맙습니다, 문선생!》

《녀사님!…》

3

3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김일성**동지의 사업은 더욱 분망해졌다.

27일부터 진행하기로 되여있는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준비가 마감고비에 이름에 따라 종합된 모든 사업들이 다 그이께 집중되였던것이다.

당시 나라의 정세는 매우 엄중하였다. 지난해 9월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간 미제는 유엔 제2차총회에서 조선인민의 대표도 참가시키지 않고 저들의 거수기를 발동하여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조작하고 그 감시밑에 조선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세울데 대한 《결의》를 꾸며내였다.

조선인민의 자주권을 무시한 이 《결의》가 전체 조선인민의 강력

한 반대와 규탄을 받게 되자 미제는 올해 2월 《유엔소총회》에서 남조선에서만이라도 유엔의 감시밑에 단독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케 하였다.

이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이 고착될 위험이 더 짙어가고있었다. 북조선에서의 혁명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앞에 조성된 정세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북조선혁명기지를 반석같이 다지며 미제의 민족분렬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구국대책을 세울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요구를 안고 열리게 되는 당대회인것으로 하여 해결을 기다리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방략과 방도를 명백히 제시하여야 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중요하게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면하게 남북조선의 전체 애국적민주력량이 단합하여 남조선에서의 《단선단정》음모를 짓부시기 위한 반미구국항쟁을 벌리며 그를 위하여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실 예정이였다.

《장군님, 요즘 너무 무리하십니다. 얼굴이 몹시 축가셨습니다.》

김책이 며칠밤을 꼬박 밝히시느라 눈에 피발이 선 **김일성**동지의 모습을 가슴아프게 바라보며 나직이 말하였다.

그제서야 방에 들어선 김책을 알아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듬어 나가던 보고문에서 손을 떼시고 눈길을 드시였다.

《어찌겠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그래도 휴식을 좀 하셔야지… 정숙동무가 여간만 근심하지 않습니다.》

《정숙동무가요?!》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책이 자신의 건강문제를 놓고 걱정하다가 이렇게 찾아왔음을 느끼시였다.

아닌게아니라 김책은 김정숙동지를 만나 어떻게 하면 장군님을 잠시라도 휴식시켜드릴수 없겠는가를 토론하고 오는 길이였다. 김정숙동지는 그에게 장군님께서 머리쉽을 하실수 있게 하는 제일 좋은 방도는 학원에 가보시도록 하는것이라고 귀띔해주시였다.

김책은 지금 그 방향으로 화제를 몰아가려는것이였다.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이 요즘 장군님께서 나가보시지 못하니 무척 그리워하는것 같습니다. 얼핏이라도 시간을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닌게아니라 한주일나마 그 애들을 못 보았더니 몹시 보고싶구만. 그런데… 보다싶이 시간을 낼것 같지 못하군요.》
그이께서는 야속한 눈길로 책상우에 무드기 쌓인 문건들을 바라보시며 가늘게 한숨을 지으시였다. 그러자 김책은 더 바싹 달라붙었다.
《참, 정숙동무가 그러는데 학원아이들이 래일 첫 실탄사격을 한답니다.》
《실탄사격을 한다?!… 음, 학원에 와서 처음으로 총을 잡은 아이들이 래일 첫 실탄사격을 한단 말이지.》
일순 그이의 얼굴에는 대견해하는 빛이 력력히 어리시였다. 그러나 그 빛은 인차 우려감으로 바뀌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혼자소리처럼 말씀하시였다.
《처음으로 총을 쏴보는 아이들이 돼서 총소리를 들으면 놀랄수 있겠는데… 좋기는 오늘쯤 그들에게 시범사격을 보여주어 총소리에 익숙되게 해주어야 할것 같은데…》
《예, 나도 처음 총을 쏴볼 때 제 총소리에 놀라 심장이 방망이질하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러다나니 총알은 다 물먹으러 보내고말았지요. 허허…》
《안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제 학원에 나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이의 말씀에 김책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서둘러 응수해나섰다.
《장군님! 그게 좋겠습니다. 제 이제 정숙동무에게도 전활 걸겠습니다.》
《아니, 정숙동무에겐 왜?…》
그이께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며 물으시였다.
《아, 그래두 사격에서야 정숙동물 따를 명사수가 어디 있습니까. 학원학생들에게 보여줄 시범사격은 장군님과 정숙동무가 해야 명중사격으로 될수 있고 또 의의도 클것 같습니다.》

《하하… 그러고보니 오늘 오후 사업조직을 위해서 김책동무가 고심을 많이 한것 같군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짐작되는바가 있으시여 큰소리로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김책도 얼굴을 붉히며 따라웃었다. 그럴 때의 그의 모습은 꼭 천진스러운 소년을 방불케 하였다.

…학원사격장은 운동장에서 동쪽으로 좀 떨어져있는 고지 서북쪽 릉선에 설비되여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숙동지와 김책과 함께 사격장에 도착하시였을 때 학생들은 사격좌지에 엎드려 산경사면을 따라 100메터 거리에 설치된 가슴형목표를 겨누고 조준련습을 하고있었다. 학생들의 사격훈련을 지도하고있던 차영진이 달려와 훈련정형을 보고드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나서 흐뭇한 눈길로 학생들의 모습을 둘러보시였다.

《대견하구만, 대견해! 정숙동무, 저 애들이 분명 토스레옷에 짚신을 끌고 찾아왔던 그 애들이 맞긴 맞소?!》

그 말씀에 김정숙동지께서도 마음이 뜨거워지시였다.

《정말이지 토스레옷에 짚신을 신고 학원에 찾아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총까지 척척 다룰줄 아는걸 보니…

장군님, 희생된 동지들이 자기 아들딸들의 저 름름한 모습을 볼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정숙동문 또 먼저 간 동지들생각이 나는 모양이로구만.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온게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김책동무?》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를 위로해주시며 김책에게 말머리를 돌리시였다.

《그러문요. 아마 그들도 자기 자식들의 모습을 다 보고있을겁니다.》

그는 눈을 슴벅이며 대답올리고나서 김정숙동지에게 바싹 다가서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정숙동무, 장군님께서 어서 총을 쏘시도록 할 생각은 안하

구 자꾸 이러시면 어쩝니까? 남의 가슴까지 아프게 만들면서…》

《용서하세요. 저 애들을 보니 어쩐지 나도 모르게 그만…》

김정숙동지께서 미안스러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였다.

《자, 거기서 또 무슨 토론을 따로 하지 말고 우리 우선 저 애들의 사격훈련을 봐줍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넌지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영진에게 어서 훈련을 계속하라고 이르시였다.

《알았습니다.》

영진이 자기 자리에 가 서서 엄숙하게 구령을 쳤다.

《화선앞으로 갓!》

그의 구령이 떨어지자 학생들이 총을 으스러지게 틀어쥐고 날래고 절도있는 동작으로 사격좌지를 차지하였다. 그들의 매 동작은 하나같이 힘이 있고 정확하였다.

옹다문 입, 목표물을 뚫어지게 쏘아보며 조준점을 맞추는 눈동자들, 총가목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은 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격침 떨어지는 소리…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숙동지께서는 학생들의 훈련동작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그들의 사격자세를 바로잡아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 학생의 총을 몸소 잡으시고 그의 자리에 엎드려 사격동작을 시범으로 보여주시며 큰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사격훈련을 할 때에는 목표판을 부모를 죽인 원쑤로 보고 원쑤를 갚는 마음으로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격훈련을 꾸준히 하면 어떤 정황속에서도 원쑤를 단방에 잡을수 있고 날아가는 새도 맞힐수 있다. 알겠니?》

《알았습니다.》

그 학생뿐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일시에 힘차게 대답하였다.

그에게 총을 넘겨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지금처럼 높은 곳에 있는 적을 쏠 때에는 중심을 조준하지 말고 그보다 조금 아래를 조준하여야 한다. 자, 다들 그런 묘리를 알고 조준훈련을 해보거라. 그렇지, 그렇게!…》

그이께서는 자세를 낮추시고 학생들의 어깨너머로 조성조문을 들여다보시며 고무해주시였다. 그만하면 학생들의 사격훈련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확신이 드시였다.

그이께서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시였다. 벌써 한시간이 훨씬 지나갔다. 아쉬웠지만 쌓인 일감때문에 더 지체하기가 어려우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진에게 실탄을 재운 총을 가져오고 목표를 정해놓으라고 이르시였다.

《오늘 너희들에게 시범사격을 해주겠다. 그래야 래일 실탄사격을 할 때 총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지.》

그이의 말씀에 학생들이 환성을 올리며 우르르 몰려왔다.

그러는 사이에 목표가 세워졌다. 100메터거리에 놓인 목표는 두개의 병과 한개의 벽돌장이였다.

그이께서는 영진으로부터 보병총을 받아 장탄하신 다음 세련된 동작으로 사격자세를 취하시였다. 학생들의 기대에 찬 시선이 일시에 그이께로 쏠리였다. 일부 녀학생들은 손으로 귀구멍을 막고 바라보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세를 약간 흐트러뜨리시며 그들에게 손을 내리우라고 하시였다.

《공포를 이겨내고 총소리를 들어야 한다. 부모를 죽인 원쑤가 총을 겨누어들고 달려드는데 무섭다고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고있겠니?

저 원쑤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고 아버지, 어머니의 원쑤도 갚지 못하고 또다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노예가 될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이께서는 다시금 사격자세를 취하시였다. 뒤이어 야무진 세발의 총성이 련이어 울리였다.

《땅!》

《땅!》

《땅!》

그 순간 목표가 모조리 산산쪼각이 났다.

학생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환성을 올리며 얼싸안고 돌아갔다.

얼굴이 창백해진 처녀애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차츰 안정감을 되찾으며 신기한 눈길로 금방 목표가 있던 바위우를 바라보았다.

《자, 정숙동무도 한번 쏴봐야지!》

김일성동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학생들은 또다시 손벽을 치며 기뻐하였다. 그분의 뛰여난 사격솜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번만 들어오지 않은 학생들이였던것이다.

《그럼 제 한번 쏴보겠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정중히 말씀올리고나서 품안에서 권총을 꺼내여 장탄하신 다음 천천히 화선에 나서시였다.

목표가 세워지자 그이께서는 몸에 배인 숙련된 동작으로 권총을 추켜드시였다. 또다시《땅! 땅! 땅!》하는 세방의 총성이 간격없이 울렸다. 순식간에 목표가 부서졌다.

학생들은《야!》 하고 감탄하며 열광적인 박수를 쳤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진에게 총을 넘겨주시고나서 학생들을 다시금 찬찬히 둘러보시였다.

《너희들은 사격훈련을 잘하여 모두가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되여야 한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너희들의 아버지들은 다 명사수였다. 총을 잘 쏘아야 부모들의 원쑤를 갚을수 있다. 알겠지?》

《예.》

김책이 김정숙동지를 향해 한걸음 나서며 소리쳤다.

《자, 정숙동무도 한마디 말씀하셔야지요. 아이들에게 그 신비한 사격술의 비결을 어서 가르쳐주십시오.》

《어머님! 어서 말씀해주십시오.》

아이들이 그이의 팔을 붙잡고 졸라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애써 사양하시다가 끝내 견디지 못하시고 조용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 비결이야 아까 장군님께서 다 말씀해주시지 않았어요. 총은 손으로 쏘는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쏘아야 한다고!… 학생들은 지금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쏘지 못한 총탄을 재우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소멸하지 못한 원쑤를 겨누고있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은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총을 쏘아야 합니다.》

사격장에는 숭엄한 분위기가 서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숙동지께서 울려주신 총성과 뜻깊은 말씀들은 만경대혁명학원 학생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신념과 의지로 새겨졌다.

《장군님! 총소릴 울리시니 마음이 거뜬하시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김책이 김정숙동지와 마주보고나서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새힘에 넘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총을 쏴서라기보다 우리 아이들의 총잡은 끌끌한 모습을 보고나니 몸과 마음이 더 든든해지는것 같습니다. 쌓인 피로도 다 풀리는것 같구요. 하하…》

그이께서는 차안이 들썩하니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4

(김춘희의 일기중에서)

1948년 4월 1일

봄, 봄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데 나는 왜 지금껏 그 아름다움을 모르고 살아왔을가? 봄의 아름다움을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느꼈다.

오늘 고급반 1학년교실에 문학수업을 위해 들어가니 활짝 피여난 들꽃묶음이 꽂혀있는 꽃병이 교탁우에 놓여있는것이 아닌가. 처녀교원의 수업시간이라고 학생들이 금방 꺾어다놓은것이 분명한 꽃묶음!

슬금슬금 선생의 눈치를 살펴보며 서로서로 싱글거리는 학생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기특한 마음을 읽는 순간 나에게는 교탁우에 놓인 그 아름다운 꽃향기가 페부를 찌를듯이 스며들었다.

나는 교권은 엄격성을 고수하는데 있다는 옛 스승들의 훈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저도 모르게 꽃병을 들어 그 향기를 힘껏 들이

켰다.
핑—하니 머리를 휘저으며 온몸에 짜릿하게 퍼져가는 그 향기…
아, 봄이로구나! 정녕 나에게도 봄이 찾아왔구나!
내 지금껏 그리도 애타게 바라던 인생의 봄, 인생의 환희가, 내 지금껏 부르고불러도 대답없던 님의 침묵이 이렇듯 아름다운 행복의 향기가 되여 안겨졌구나!
《학생동무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꽃병을 안고 학생들에게 말했다. 내 말의 뜻을 그들이 다는 모를테지만 자기들의 생각대로 처녀선생이 기뻐한다는 그것만으로도 학생들은 더없이 좋아하였다.
그 꽃병이 지금 나의 침실 창문턱에 소중히 놓여있다.
날이 가면 꽃잎은 지고 시들어 떨어지겠지만 오늘 내 마음속에 활짝 피여난 봄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영원히 지지 않을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에서 스물네번째로 맞는 이 봄이 사실상 나에게는 진정한 인생의 첫봄이기때문이다. 그래! 이 봄이야말로 나를 위해 피여난 봄이고 이 향기야말로 오직 나를 위해 마련된 향기야.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숙어머님께서 끝없는 고민과 번민에 시들고 서러움에 울던 나와 백산이를 찾아주시고 품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어찌 이런 봄이 찾아올수 있었으랴. 장군님과 어머님께서 나와 백산이에게 들씌워진 억울한 루명을 벗겨주시고 친부모의 손길로 사랑의 품에 다시 안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찌 이런 향기를 느낄수 있었으랴.
정녕 이 봄과 함께 님의 침묵은 끝나고 나의 길은 활짝 열리였다.
만일 시인 만해선생이 살아있다면 그에게 이런 화답시를 써보내고 싶다.

나는 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세상 많고많은 길들을 돌고돌아
나의 길—
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품은 봄날처럼 따뜻합니다
시들은 가슴에는 희망의 새싹을 틔워주고
멍이 든 가슴에는 사랑의 꽃잎을 피워주며
눈물젖은 가슴에는 행복의 고운 꿈 자래워줍니다

그 품은 바다처럼 넓습니다
물방울처럼 흩어져 외롭던 이들을 끝없는 물결로 실어오고
기슭에 주저앉을번 한 몸들을 부드러운 파도로 넝큼 안아주며
연약한 깃을 가진 어깨에 창공을 솟구치는
갈매기의 나래를 달아줍니다

아, 내가 안긴 님의 품은
삶의 품, 해님의 품입니다
정녕 그 품만을 따르는것이 나의 길
우리모두의 길입니다

1948년 4월 12일

차영진동지는 오늘 또다시 나에게 학원원가를 지어보지 않겠느냐고 따져묻는다. 정 나서지 않겠다면 원장동지와 정치부원장동지에게 이야기하여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위협했다.

이글거리는 그 눈빛, 우렁우렁한 그 목소리…

어쩐지 그의 모습을 마주보기가 두려웠다. 나와 백산이에게 있어서 영진동지는 더없이 고마운 사람이지만 요즘은 왜서인지 그앞에 마주서면 줌안에 틀어잡힌 몸처럼 숨이 가쁘고 가슴이 활랑거린다. 그가 달아오른 나의 얼굴을 보고 이상스럽게 여길것만 같아 마주서기가 두렵다.

내가 왜 이럴가? 왜 그전처럼 그를 고맙게, 미덥게 생각지 못할가?…

나는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반발심으로 하여 내쏘듯 말했다.

《여러 선생들의 말이 영진동진 자나깨나 구분대지휘관으로 갈 꿈

만 꾼다는데 설사 원가를 지은들 듣기나 하겠어요?》
그는 놀란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무엇이 그리 좋은지 큰소리로 웃었다.
《하하… 내가 그런 꿈을 꾼다는건 옳소. 하지만 나 혼자 가는 꿈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다같이 함께 가는 꿈을 꾸지요. 가만, 그런데 요전번 꿈에 보니 그속에 춘희선생도 있더라.》
《예?》
그의 말뜻을 어떻게 리해했으면 좋을지 몰라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아니, 그보다도 그가 날 보고 《춘희선생》이라고 하는것이 마음에 맺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영진동지에게서 처음 듣는 소리도 아니고 지금껏 그렇게 불러왔건만 어쩐지 그 순간에는 그가 마치 어디 딴 행성에서 온 사람을 대하듯 날 부르는것처럼 생각되였다.
《춘희동무!》 하고 불러주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질가.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고집스레 《춘희선생》이라고 부른다.
《춘희선생, 난 물론 춘희선생처럼 문학공부도 못했구 아는것도 별로 없지만 작품창작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걸 모르는바는 아니요.
결코 하루이틀에 떡먹듯 쉽게 될 일이 아니지. 더구나 앞으로는 만경대에서 공부하며 생활하는 아이들이 부를 노래이니 이제 그곳에 가면 여기 림시교사에서의 생활감정과는 또 다를거요.
만경대의 송림초목, 푸르른 대동강!… 어쨌든 난 우리 학원의 노래에 만경대의 모습이 꼭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오. 우리 학원이야 다름아닌 만경대의 학원이 아니요.》
불을 뿜는듯 한 열정에 넘친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진심으로 놀랐다.
영진동지에게 그런 시적감정, 그런 다감한 정서가 있다는것을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가 우리 학원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하고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보니 원가를 지어야 할 진짜시인은 영진동지군요.》
《하하… 춘희선생이 날 놀리누만. 난 여직껏 철도망치와 총밖에 잡아보지 못한 사람이요. 그리고 나야 혁명가유자녀나 유가족이 아

니지 않소. 그들의 심정을 다 알수 없구 또 대변할수도 없는게 아니겠소. 하지만 춘희선생이야… 마음고생인들 얼마나 했구 눈물인들 얼마나 흘렸소.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숙녀사님의 품이 아니였다면 춘희선생은 더 말할것 없구 백산인 아마 지금도 불우한 방랑자의 신세를 면치 못했을거요. 난 춘희선생이야말로 원가를 지을 둘도 없는 적임자라고 생각하오. 새 교사 준공식때에는 반드시 우리 학원의 노래가 울려야 한다는걸 잊지 마시오.》

나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놓고 그는 무정하게도 돌아섰다. 떡판같은 잔등을 돌리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왜서인지 눈물이 나왔다. 그가 고마왔다. 고맙고 또 고마왔다.

나는 왜 영진동지처럼 그런 생각을 못했을가? 왜 그렇게까지 뼈에 사무치게 새기지 못했을가? 그저 제 설음에 겨워 울고 제 행복에 겨워 웃는 이런 범박한 처녀를 그가 얼마나 나무랐을가?!…

그런데 이때 웬일인지 영진동지가 되돌아왔다.

《할말을 다 못했소. 난 학원을 떠날수 없소. 장군님께서는 나에게 우리 혁명의 미래를 지키고 키우라고 말씀하셨소. 내 비록 일시 잘못 생각했던적은 있었으나 이제는 저 백산이같은 아이들을 두고 떠날수 없단 말이요. 그리고… 내가 우리 학원을 떠날수 없듯이 춘희동무도 절대로 내곁을 떠날수 없다는거요! 내가 할말은 이상이요.》

그는 제식동작이라도 하듯 홱 돌아섰다. 한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아, 잊혀지지 않을 그 눈빛, 그 목소리…

하지만 그의 마지막말만은 지금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

분명 춘희동무라고, 절대로 자기곁을 떠날수 없다고 했는데…

아니, 아니야. 잘못 들었어. 그이는 절대로 자존심없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분명히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있지 않았던가. 야속한 사람! 어쩌면 그런 말을 그렇게 군사명령을 내리듯 할수 있을가. 남의 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심정? 과연 나의 심정은 어떤것인가?

그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 그에 대한 숨가쁜 두려움…

과연 이 모순되는 감정이 무엇일가? 사랑일가?…
심장의 이 물음앞에 나는 자신을 부정할수가 없음을 깨달았다.

1948년 4월 27일
어제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한 남조선대표들이 우리 학원을 방문한데 이어 오늘 김구선생이 학원에 찾아왔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만나보기는 처음이다.
흰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는 바투 깎았는데 그래서인지 한결 정력에 넘쳐보였다. 리종익원장선생님과는 상해시절부터 잘 아는 사이라고 한다.
김구선생은 우리 원장선생님이 혁명가유자녀들을 키우는 사업을 책임지고있는데 대하여 몹시 놀라와하였다. 그는 원장선생님과 상봉한 자리에서 《미국사람들과 리승만이 북조선에서 호랑이들을 키우고있다고 하면서 불안해하고있는데 그 학원 원장이 종익선생일줄이야?!…
공산주의자들의 자녀들을 키우는 사업을 어떻게 선생같은 사람에게 맡길수 있었소?》 하고 묻는것이였다.
《백범선생,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비단 공산주의자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순국한 애국자들의 자녀들모두를 학원에서 키워주십니다. 장군님께서는 나에게 우리는 호랑이를 키워도 조선민족의 호랑이를 키워야 한다시며 이런 중임을 맡겨주셨지요.》
원장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자 그는《조선민족의 호랑이라…》 하며 슬며시 머리를 수그렸다.
아마 해방후 서울로 돌아와서도 지난날 자기와 함께 싸우던 순국렬사들의 자녀들을 이국의 산야에 뿔뿔이 널어놓은채 아직 데려올 생각을 못하고있은것이 완고한 민족주의두령인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찌른 모양이였다.
김구선생은 원장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학원의 모든 방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돌아보았다. 학생들이 학습하고 생활하는 교사와 기숙사, 식당과 진료실, 도서실 등을 일일이 참관하며 학생들도 만나보았다. 내가 수업을 하고있던 교실에 들어왔다가 옛 독립군사령

량세봉선생의 아들 량의준을 만난 김구선생은 그를 몇번이고 찬찬히 훑어보다가 《네가 정말 량사령의 아들이 틀림없구나!》 하고 울음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그를 덥석 그러안았다. 량의준의 볼을 비벼주고 쓸어주는 그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난 솔직히 원장선생의 말을 들으며 선뜻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찌산투사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학원에서 독립군사령의 자제까지 공부시키리라고는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소.》

그는 원장선생님의 손을 잡고 흔들며 다시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백범선생! 민족의 피는 주의에 따라 달라질수가 없지요. 우리 학원에는 빨찌산의 자녀들뿐아니라 국내에서 로조, 농조활동을 하다가 희생된 애국자의 자녀들도 있고 또 8.15해방후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남조선혁명가들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순국한 애국자라면 그가 어떤 계렬이든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학원은 명실공히 민족단합의 상징이기도 하구만!》

나는 김구선생의 눈에 비낀 우리 학원의 모습을 통하여 새삼스러워지는 생각을 누를길 없었다. 정말 우리 학원이야말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더운 피가 제일 진하게 흐르고있는 위대한 사랑의 집이 아니겠는가!

우리 학생들은 학원에 찾아온 김구선생을 환영하여 열병행진을 진행하였다. 학원제복을 차려입고 씩씩하게 행진해나가는 우리 학생들의 름름한 모습을 보며 김구선생은 연방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열병행진이 끝나자 그는 원장선생님에게 한번만 더 보여달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학원의 열병행진은 재청을 받고 다시한번 더 진행되였다.

우리 학생들은 김구선생이 남북련석회의에서 장군님을 도와 훌륭한 결실을 이룩하기를 충심으로 축원하며 그의 앞을 행진해갔다. 초급반 2학년대렬의 맨 앞자리에서 힘차게 발을 구르는 백산이의 모습도 보인다. 초급반의 제일 앞장에는 중대장인 차영진동지가 서있었다. …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다.

우리 학원의 생활은 앞으로 더욱더 뜻깊은 날과 날로 이어질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동북에서 새로 찾은 혁명가유자녀들이 학원에 온다고 한다. 학원의 식솔이 또 늘어나게 되였다. 그들만이 아니라 녀학생들의 일과생활을 지도할 녀성소대장들도 학원에 오게 되여있다.

장군님께서 녀학생들의 일과생활은 남자소대장들이 아니라 녀성소대장들이 지도하게 해야 한다시며 자신께서 직접 선발하여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던것이다.

어쩌면 장군님께서는 친아버지처럼 그렇게 세심히도 마음쓰실가. …

5

허분옥은 조국에서 자기 아들을 찾고있다는 말을 듣고도 선뜻 믿지 않았다. 조국에서 누가 아들을 알며 도대체 누가 그 애를 찾을수 있단 말인가.

오직 있다면 시집사람들뿐인데 그 집 형편에서 그것은 꿈도 꿀수 없는 일이였다. 더우기 마을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들을 찾는 사람은 분명 시집사람들이 아닌 그 무슨 림전원이란 사람이라고 한다. 림전원이란 사람은 대체 누구이며 왜 우리 창완이를 찾을가? 그것도 몇번씩이나 찾아와 우리의 행처를 물었다니 혹시 남편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있었던 사람이 아닐가?… 아니, 아니야. 생전에 남편은 림전원이란 사람에 대해 한번도 말한적이 없으며 설사 그 어떤 기이한 인연이 있었다 한들 창완이 아버지가 죽은지도 16년이 지나간 오늘에 와서 그 아들을 찾는다는것은 있을법도 하지 않은 일이야.

동만에서 토지문제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일어났던 소동이 가라앉고 본래대로 안정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허분옥이 친정식구들과 함께 동신평으로 돌아온지 며칠 안되던 어느날…

《어머니— 어머니!》

창완이가 불이라도 난듯 달려들어오며 다급하게 찾았다.

《아니, 왜 그러니? 무엇때문에 그래?》

분옥은 아직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들의 숨가쁜 목소리에 놀라 닁큼 일어나 뜨락에 나섰다.

《날 조국에 있는 학원에 보내주겠대요, 림수철이랑 같이!…》

《얘! 천천히 차근차근 말을 해라. 도대체 널 어디에 보내준다구?》

《야참, 조국에 있는 학원에 보내준다니까요.》

《아니, 학원이란 뭐구 도대체 누가 널 그리로 보낸단 말이냐?》

《어머닌 그냥 도대체, 도대체 하면서 그러시네. 림전원아저씨가 나랑 수철일 만경대혁명학원에 보내주겠다고 했다니까요.》

분옥은 귀에 익은 《림전원》이란 이름을 아들에게서 듣고 다시한번 놀랐다.

그 사람이 창완이를 찾고있은것이 사실이였구나, 그런데 그가 보내준다는 만경대혁명학원이란 뭘하는 곳인가?…

《창완아, 이 어머닌 네 말을 듣구두 잘 모르겠구나. 도대체 그 림전원이란분이 널 어떻게 안단 말이냐?》

창완이는 제 어머니가 련발하는《도대체》란 말이 우스운지 아니면 자기가 아직 사연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생각에서였던지 어이없어 피식 웃었다.

…오늘 창완이는 이웃마을의 딱친구인 림수철이와 함께 현성에 놀러 나갔다가 우연히 신문광고 한장을 얻어보게 되였다. 거기에는 동북항일전쟁에서 희생된 조선혁명가들의 유자녀들을 찾는다는 내용과 함께 림전원을 찾아오라는 주소가 밝혀져있었다.

《야, 수철아! 너의 아버지도 왜놈들과 싸우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니. 우리 함께 가보지 않을래? 찾아가서 우릴 왜 찾는지 물어라도 보자꾸나.》

《그러자.》

하여 그들은 주소에 있는대로 연변전원공서 림전원을 찾아갔다.

그들이 연부관이란 사람에게 찾아온 사연을 말하자 《〈림전원〉이란건 사람이름이 아니라 연변조선족자치구 총책임자인 림춘추동지를 의미하는 직명이야.》하며 껄껄 웃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회

의중이니 좀 기다리라고 하는것이였다.

이때 어느 한 방문이 슬며시 열리더니 누군가가 왜 떠드는가고 질책했다. 연부관아저씨가 그에게 리유를 설명하자 방문은 다시 닫기였다.

그런데 잠시후 그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몸집이 큰 한사람이 성급히 나왔다.

《아무리 회의중이래도 그런 아이들이 찾아왔으면야 만사불구하고 알려야지. 우리에게 그 애들을 찾는 일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소?》

그는 연부관에게 이렇게 질책하고나서 창완이들쪽으로 다가왔다.

《그래, 너희들은 누구냐? 누구의 아들들인가 말이다?》

림춘추란분은 창완이에게 먼저 눈길을 주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은… 심병윤… 입니다.》

창완은 전혀 생소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듯 자신없이 대답했다.

그도 그럴것이 그는 난생처음으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불러보았던것이다. 유복자로 태여나《아버지》란 말조차 불러보지 못하고 자란 그에게 있어서 정말이지 아버지의 이름은 자신에게조차 전혀 귀에 선것이였다. 지금껏 그 누구도 창완에게 그 이름을 물어본 사람도 없었다. 림춘추라는 이 어른이 처음이였다. 그런데 바로 아버지의 그 이름을 듣고 그가 그토록 놀라며 반가와할줄이야!

《분명 네가 심병윤의 아들이란 말이냐? 그렇단 말이지, 그렇단 말이지. 네 이름이 뭐라구?》

《심창완.》

《창완아!》

그는 창완을 와락 껴안았다.

《너를 이제야 찾았구나, 이제야 찾았어! 얼마나 애타게 널 찾은줄 아니? 어디 갔다가 인제야 이렇게 불쑥 나타났느냐?! 응?…》

그리고는 키만 크고 헝겊막대기처럼 약하디약한 그의 모습을 아픈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래, 네 어머닌 지금 어떻게 하고있느냐? 다시 시집을 갔냐?》

《예?》

《참, 너 새 아버지를 얻었는가 말이다.》

《아니요. 우리 어머닌 지금껏 나를 키우며 혼자 사셔요.》

《네 어머니가 정말 장하구나! 유복자를 키우며 여직껏 혼자 살고 있다니!…》

이렇게 말하며 그는 이어 림수철에게 눈길을 돌리고 아버지에 대해 물었다. 수철이의 대답을 다 듣고나서 그는 역시 수철이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나서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에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해 학원을 세워주셨다고 이야기해주며 너희들도 그 학원에서 공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며 래일 당장 어머니들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하는것이였다. …

창완이의 이야기는 다 끝났으나 분옥은 눈물이 앞을 가리워 아무말도 할수가 없었다. 가정을 이루어 1년도 채 되기 전에 왜놈들이 지른 불속에서 남편을 잃고 열여덟살의 초년과부가 되여 16년세월이 흘러간 오늘까지 가슴속에 쌓이고쌓였던 온갖 설음이 봄날의 눈석이물처럼 사정없이 흘러내렸던것이다.

《네 어머니가 정말 장하구나!》고 했다는 그 림춘추란분의 말 한마디가 이렇듯 설음의 백년장설을 녹여주고 눈물의 막혔던 물목을 터쳐놓을줄 어이 알았으랴. 더구나 아직도 남편의 희생을 가슴아파하며 그를 잊지 않고있다는 사실, 그분이 다름아닌 남편이 생전에 그처럼 따르며 받들던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 사실이 분옥의 마음을 하냥 진정할수 없게 만들었다. 창완이 아버지의 죽음이 결코 헛된것이 아니였다는 새로운 믿음과 행복감이 그들먹이 차올랐다.

이튿날 연변전원공서를 찾아가 림춘추를 만나니 그는 다시한번 분옥을 치하하고나서 그동안 장군님께서 직접 그들모자의 행처를 알아보기 위해 시집이 있는 덕인리로 몇차례씩이나 사람을 띄웠던 사실과 유자녀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그리고나서 인차 수속을 해가지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창완이를 조국으로 떠나보내자고 말하였다.

《창완이 어머니, 이제부터는 마음을 푹 놓으시우. 그 애가 학원

에 가면 아주머니가 열번을 다시 태여나 보살펴준대두 대신 못할 그런 친아버지, 친어머니의 사랑이 기다리고있습니다.》

×

해질녘의 방천길…

이제는 제법 황소꼴이 다 잡힌 누렁소가 정신없이 풀을 뜯어먹고 있다.

일년전만 해도 겨우 중소줄에 들가말가하던것이 여불없이 체통이 커져 먹는것도 가량이 없다. 그때에는 송봉이에게 다리쉼할 겨를도 주지 않고 작은 배를 넌떡 채워가지고는 《음메－》, 《음메－》 하고 어미소를 부르며 가자고 재촉하던 놈이 지금은 때려몰아도 잘 움직이지 않는다.

큰 배를 다 채우기 전에는 좀처럼 돌아갈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누렁소의 배는 점점 불룩해만 지는데 송봉의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소리만 난다. 저놈의 배를 다 채워가지고 늦어들어가면 죽물 한공기도 차례지지 않겠는데…

송봉은 야속한 눈길로 누렁소를 쏘아보았다. 이제는 꽤 힘꼴을 씀직한 놈이지만 주인은 아직 애처롭다고 멍에를 메우지 않고있었다.

불현듯 누렁소가 부러웠다. 아무리 짐승이래도 저렇게 다 자라서까지 보살핌을 받을수 있으니 내 처지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한 상팔자인가.

배를 곯아도, 추위에 떨어도 누구 하나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이 신세…

또다시 꼬르륵소리가 난다. 해지기 전에 들어가야 죽물이래도 얻어먹을수 있겠는데…

그러나 갈수 없다. 주인은 누렁이의 배가 조금만 곯아보여도 사정없이 매질을 했다. 매질도 매질이지만 그마저 쫓겨나면 당장 먹고 살일이 막연했던것이다.

송봉은 배고픈 생각을 잠시라도 잊어보려고 풀대 하나를 입에 넣고 질근질근 씹으며 무심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사람도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
이때 방뚝우에서 누군가가 송봉을 내려다보며 소리쳐불렀다. 그저 지나가는 길손이려니 하고 관심밖에 두고있었는데 분명 자기를 향해 오라고 손짓하는것으로 보아 우정 찾아온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긴 날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다구?! 뭘 물어보자고 그러겠지. …
송봉은 쓰거운 풀대를 뱉어버리며 방뚝으로 올라갔다.
풍채좋은 젊은 사람이 그에게로 다가왔다.
《왜 그러시나요?》
송봉은 별로 흥심이 없었던지라 심드렁하게 물었다.
풍채좋은 사람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어딘가 긴장이 어린 표정이였다.
《하나 좀 물어보자.》
(글쎄 그렇겠지.) 하고 송봉은 생각하였다.
《네가 혹시 저 왕씨집의 일군이 아니냐?》
《네―에? 그, 그래요.》
《그럼 네 이름이 박송봉이 맞니?》
《맞긴… 맞아요. 그런데…》
송봉은 낯선 사람이 생각과는 달리 자기 이름까지 알고있는데 놀라 얼떠름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다음말은 송봉을 더더욱 놀라게 만들었다.
《그럼 너 삼도만유격구에서 살던 생각이 나겠구나? 채양촌이라는 곳에서 말이다.》
《그런건… 생각 안 나요.》
《하긴… 그때 네 나이가 겨우 두세살때였으니까. 하지만 아버지 이름이야 생각나겠지? 박길이라구…》
《우리 아버지 이름은 박윤형이예요.》
《옳다! 네 아버지의 본명이 박윤형이 옳다. 무장투쟁을 할 때 우린 너의 아버지를 박길이라고 불렀단다.》
《…》
송봉은 춤이라도 출듯 기뻐하는 낯선 사람을 켕하니 바라보다가 서

둘러 물었다.

《그런데 아저씬 누구나요? 어떻게 우리 아버질 잘 아시나요?》

《내 이름은 림춘추다. 여기선 다들 그저 림전원이라고 부르지. 너 내 이름 들은 생각이 안 나니?》

《아니요.》

《안 날테지. 그땐 네가 너무 어렸구 그다음 유격구가 해산되여 너의 일가는 깊이 숨어버렸으니까.》

림춘추는 눈물이 글썽한 눈길로 송봉을 보며 그의 어깨를 잡아 자기 앞으로 바로세웠다.

《신통히도 네 아버질 닮았구나. 박길정치위원동지가 제 피줄 표적 하난 명백하게 남겨놓았구나. 응, 하하…》

그는 웃었다. 그러나 그의 눈가에는 맑은것이 찰랑거렸다.

그것을 보는 순간 송봉은 그가 아버지와 함께 싸우던 사람이며 자기를 찾아 여기까지 우정 온 반가운 사람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송봉은 울먹울먹해졌다. 그러나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송봉아! 너 여기 숨어있었으면 세상에 대고 〈박길의 아들이 여기 있다! ㅡ〉 하고 소리라도 한번 질러야지. 지금껏 얼마나 널 찾았는지 알기나 하느냐? 숱한 신문광고를 내구 숱한 사람들을 띄우구 또 숱한 걸음을 했는데 오늘에야 널 찾았구나! 찾았어!

네가 삼촌네 아들로 호적등록을 하고 살고있을줄 꿈엔들 생각했겠니. 이젠 됐다, 이젠 됐어! 자, 나와 함께 가자.》

림춘추는 그가 또 어디 숨어버리기라도 할가봐서인지 으스러지게 가슴에 부여안고 기쁨을 감추지 못해하였다.

《어디로 간단 말이예요?》

《이제 가보면 안다. 넌 정말 좋은 곳으로 가게 됐단다.》

그러나 송봉은 그를 따라설수가 없었다.

《저… 난 갈수 없어요. 왕씨집의 일자리를 떼우면 난 래일부터 당장 먹을 곳도 잘 곳도 없어요.》

《…》

림춘추가 억이 막혀 그를 바라보았다. 단 한끼의 밥그릇과 단 하

루밤의 잠자리가 그에게 얼마나 생사가름의 일이였으면 선뜻 따라서지 못하고 저러랴 하는 생각이 아프게 가슴을 저몄다.

그는 덥석 송봉의 손목을 틀어잡았다.

《걱정 말아. 네가 갈 곳은 있다.》

《예?》

《너는 래일 당장 조국으로 가야 한다.》

송봉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비록 남의 나라 땅에서 태여나 자랐지만 자기의 조국이 조선이며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그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 싸우다 희생되였다는것을 뼈에 사무치게 들어온 그에게 있어서 조국이란 그 부름은 너무도 크고 엄엄한것이였던것이다.

《조국…으로요?》

송봉은 심장이 밖으로 막 튀여나올것만 같아 가쁜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그래, 조국으로! 조국에서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숙어머님께서 송봉일 기다리고계신다. 내가 떠나올 때 그분들께선 널 꼭 찾아오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이제 네가 조국에 가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너 그분들은 알지?…》

《할머니한테서 들었어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삼도만에 오시면 언제나 너희 집에서 류숙하군 하시였단다, 장밤 아버지와 유격대사업에 대해 토론도 하시구. …》

《장군님께서 우리 집에요?》

송봉이는 처음 듣는 뜻밖의 사실앞에 놀라 눈을 흡떴다. 당시 삼촌네 집에서 살던 그의 할머니도 그 사실을 알수 없었던것이다.

할머니에게서 아버지가 전장에서 죽지 못했다는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들어온 송봉이로서는 림춘추의 이야기가 꿈같을수밖에 없었다.

《우리 아버지를 장군님께서 아신단 말이예요?》

송봉은 미심쩍은 눈길로 림춘추를 쳐다보았다.

《아시다마다, 장군님께서는 나를 여기로 떠나보내실 때도 말씀하셨단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어린 너를 무릎에 앉히시고 네가 자꾸만 옴지

락거리며 만지는 만년필을 손에 쥐여주시군 하였다고 말이다.
그리고 김정숙동지께서는 부암유격구〈토벌〉이 있은 뒤 자신께서 열병에 걸려 삼도만에 들어왔을 때 너희 아버지가 집에 데려다 치료를 하도록 하고 불에 타고 끄슬린 옷을 보고는 까만 천으로 치마저고리를 해주었다고 눈물젖어 말씀하시였다. …》
림춘추가 너희 아버지가 《민생단》으로 몰려 갇혀있을 때 김정숙동지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것을 몰래 가져다주군 했다는 말을 하려는데 송봉이가 이상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느닷없이 큰소리를 질렀다.
《아저씬 지금 거짓말을 하지요? 할머닌 그런 말을 한번도 해준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진…》
송봉은 차마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민생단》으로 처형을 받은것이다. 떳떳치 못한 피줄을 이어받은 몸으로서 림전원이 하는 소리를 믿을수가 없었다.
《이녀석!》
그 인자하던 림전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네가 박윤형의 아들이 옳냐? 연길유격대 정치위원 박길의 아들이 옳냐 말이다?》
림춘추는 어린 아이앞이지만 어성을 높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다음 그는 이내 자신을 다잡았다.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더냐?》
《우리 아버진, 우리 아버진 〈민생단〉으로 총살당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닌 나에게 아버지가 유격대에서 싸웠다는것도 말하지 말라고…》
말을 채 맺기도 전에 송봉이의 입에서는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의 눈가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내렸다. 그 눈물의 방울방울에는 자식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슴배여있었다.
림춘추는 그제서야 송봉이의 눈물의 의미를 깨달았다.
《송봉아, 너는 잘못 알고있다. 너희 아버지를 〈민생단〉으로 몰아 학살한것은 나쁜 놈들의 책동이였다. 너희 아버지는 **김일성**장군님의 훌륭한 유격대지휘관이였단다. 그래서 장군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내

신것이 아니냐. 동북땅을 다 뒤져서라도…》

림춘추가 말을 더듬는데 송봉이가 갑자기 누렁소의 소고삐를 홀 던져버렸다.

《가자요, 아저씨. 우리 할머니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다시 말씀해주세요.》…

림춘추가 돌아간 후 할머니와 손자는 밤이 깊도록 잠들수 없었다.

《송봉아, 여직껏 이 할미는 불쌍하기 그지없는 너때문에 차마 눈을 감을수가 없었구나. 네가 래일 김장군님의 품으로 간다고 하니 인제는 내 당장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할머니는 이밤이 생전에 손자를 마지막으로 보는 밤이라고 생각했던지 송봉의 얼굴을 보고 또 보며 눈물에 겨워 말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가 오래 앉아계셔야 달라진 내 모습을 보여드릴수 있지 않나요. 할머니마저 안계시면 누구에게 보여드리겠어요?》

송봉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다.

정말이지 마음속으로는 할머니를 다시 보지 못할것만 같은 불안감이 슬며시 서리였다. 그 불안감을 털어버리려 그는 할머니의 앙상한 가슴에 머리를 가져다대였다.

《다 큰 녀석이…》

할머니는 손자의 응석기어린 그 모습이 대견한듯 오래도록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언제한번 응석을 부려보지 못하구 이만큼 클라니 네 설음인들 오죽 크겠니. 그렇다고 조국에 가서 장군님께 응석부릴 생각을 말아. 네 아버지가 살았을적에 김장군님은 정에 무른분이라고 하더니만 그게 참말이였구나. 하늘은 시간을 두고 변하구 사람은 일생을 두고 변한다지만 그분의 인정과 마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두 영원히 변함이 없구나. 그분께서 널 찾으시기에 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너의 등을 떠밀어보낸다, 송봉아!…》

《할머니!…》

송봉은 할머니의 주름깊은 얼굴을 눈물을 삼키며 보고 또 보았다.

그 모습을 영원히 망막속에 새겨두고싶었다.

정녕 그 모습은 그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할머니의 모습이였다.

×

오늘은 림춘추에게 있어서 명절처럼 즐겁고 행복한 날이였다.

그동안 애쓰며 고생한 보람이 있어 59명의 혁명가유자녀들을 제1차로 조국에 떠나보내게 된것이다. 물론 그사이에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하여 유자녀들을 여러번 조국으로 보내긴 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이며 우연적인것이였지 이처럼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성격을 띤것이 아니였다.

이미 그는 **김일성**동지께 유자녀들을 떠나보내겠다는 전보를 보내였다.

비록 아직은 첫 성과에 지나지 않지만 이제나저제나 동북의 혁명가유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리고계시는 장군님께서 조금이라도 기뻐하시며 마음을 놓으시게 전사의 보고를 드리고싶었다.

출발에 앞서 그는 유자녀들과 유가족들을 모아놓고 환송식을 크게 조직하였다. 환송식에서 그는 **김일성**장군님께서 혁명가유자녀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새 조국건설의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 어떻게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학원이 세워지게 되였으며 또 그들이 어떻게 조국으로 가게 되였는가에 대하여 다시한번 뜨겁게 강조하였다.

림춘추는 연변전원공서의 한 일군을 책임자로 하고 연부관을 호송원으로 하여 인솔조를 편성한 후 유자녀들을 모두 렬차의 전용차칸에 태웠다. 인솔책임자에게는 그 애들의 일체 문건과 함께 김책동지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주었다. 편지에는 장군님께 보고드릴 그간 사업정형들과 연변인민대학교재로 쓸수 있도록 **김일성**종합대학의 교과서들을 보내줄데 대한 부탁이 담겨져있었다.

아이들은 대다수가 난생처음으로 렬차를 타보는데다가 장군님께서 계시는 조국으로 간다는 기쁨으로 하여 진정할줄 몰라했고 그들을 바

래주러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친척들은 기쁨과 함께 아이들을 품에서 떼여놓는 아쉬움으로 하여 마음을 놓지 못해하였다. 아직 그들에게는 학원생활에 대한 아무러한 표상도 없었던것이다.

림춘추는 일부 사람들의 로파심에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나서 한사람한사람 아이들을 확인해보았다.

오기선, 오기석, 정희순, 남채숙, 박송봉, 심창완, 현철순, 현철수, 림수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보느라니 그 애들을 찾기 위해 뛰여다니던 나날들이 눈앞에 어려왔다.

신발이 닳도록 드넓은 동북의 산재부락들을 헤매던 일이며 신문들에 광고문을 쓰던 일, 앞을 막아서는 반동놈들과의 목숨을 건 총격전이며 왕청오지의 긴 골짜기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일…

그렇게 피흘리고 고생하며 찾아낸 아이들이여서 그런지 정작 곁에서 떠나보내자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오기도 했다.

이제 또 찾아야 할 유자녀들은 얼마이며 또 얼마나 많은 품을 들여야 할지…

다음번에는 꼭 이 렬차방통이 차넘치게 유자녀들을 찾아보내야 한다! 그는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으며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한번 둘러보았다. 그 애들의 얼굴을 언뜻언뜻 훑어보느라니 문득 가슴 한구석이 알찌근해왔다.

조국으로 가는 이들속에 김정숙동지의 일가친척 한분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으랴 하는 생각이 못 견디게 림춘추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혁명가 김기준동지의 아들…

김정숙동지께서 그 어린 조카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모진 고생을 다하셨던가. 일제놈들의《토벌》에 어머니와 형님을 잃고 배고파 우는 어린 젖먹이조카를 업고 이집저집 젖동냥을 다니시던 그이의 모습이 림춘추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았다. 그렇게 키우던 조카애를 오빠에게 맡기고 김기송동생과 함께 유격구로 들어갈 때 그이의 가슴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으랴.

오빠인 김기준동지가 조카애를 남의 집에 맡겼다는데 그후 오빠마

저 희생되다보니 그의 소식은 영 알길이 없었다. 그가 살아있다면 지금 저 큰 애들만 한 나이겠는데…

사실 림춘추는 조국을 떠나올 때 김정숙동지가 그토록 만류하셨지만 그분의 일가식솔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조카의 행처며 김정숙동지께서 열살나시던 해에 지주놈의 빚값에 끌려갔다는 언니의 소식을 알기 위해 몇번씩 사람들도 띄워보고 또 그자신이 녀사의 일가분들이 살던 곳과 그 주변마을들을 다시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들의 행방을 찾을수가 없었다. 그러나 림춘추는 자기가 물러선다면 그들을 영영 찾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림춘추는 1929년도 의사의 신분으로 지하활동을 할 때 김정숙동지일가가 살던 부암동과 5리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았으므로 일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그는 하는수없이 《길림일보》와 《연변일보》, 《녕안일보》등에 광고문을 널리 공개하였다.

《신인광고

전주소: 소연집강

성　명: 김기준(오빠), 방두순(형부)

광고인: 김정숙

이상의 사람들은 9.18사변이후 동북유격전당시에 갈라졌는데 본인 혹은 아시는분은 길림성 연변행정독찰전원공서(연길시)에 알려주심을 바람.》

그러나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였다.

림춘추는 렬차가 울리는 출발기적소리를 듣고서야 가슴아픈 생각에서 깨여났다.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여 승강대를 내리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작별을 서두르는 유자녀들과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고서야 그는 자기가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밝은 웃음으로 그들을 떠나보내야 하였다. 어쨌든 오늘은 떠나는 그 애들에게나 바래우는 자신에게 있어 명절처럼 기쁜 날이 아닌가!

그는 연부관에게 아이들을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학원까지 호송해갈것을 다시금 당부하고나서 떠나는 유자녀들을 손저어 바

래주었다.
《얘들아! 잘 가거라!—》
(잘 가거라! 아이들아! 이제 너희들은 이 세상 제일 위대하고 따뜻한 품에 안겨살게 될게다. 그 품에서 너희들은 이 세상 제일 행복하고 훌륭하게 자라게 될게다.)
림춘추는 유자녀들을 실은 렬차가 시야에서 멀리 사라질 때까지 그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며 오래도록 손저어주었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림춘추는 조국에서 보내온 **김일성**동지의 친서를 받았다.

림춘추동무!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에 동무가 모집하여 보낸 혁명가유자녀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아이들이였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다가 희생된 동무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남겨놓은 유자녀들을 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주인공들인 혁명가유자녀들을 잘 교육시켜 그들의 부모들처럼 불굴의 혁명가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춘추동무! 동북에 있는 혁명가유자녀들을 있는대로 다 모집하여 만경대혁명학원에 추천하여 보내시오.

동무의 건강을 바라면서

김 일 성

6

김정숙동지께서는 초조한 심정으로 벽시계를 올려다보시였다. 벌써 밤 9시가 지났다. 물론 장군님께서 사업이 다망하시여 집에 들어오시는 날보다 못 들어오시는 날이 더 많고 들어오시는 경우에도 자정이 훨씬 지나서야 들어오시기가 일쑤였지만 오늘만은 사정이 좀 달랐다.
중요한 문제토의때문에 오늘은 장군님을 모시고 일찌기 댁에 오겠노라고 이미 김책동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던것이다. 그 중요한 문

제란 다름이 아니라 만경대의 학원 새 교사에 모실 장군님의 동상문제였다. 지금까지는 그 문제를 장군님께 전혀 말씀드리지 않고 김책동지를 비롯한 몇몇 일군들과 창작가들과의 토의밑에 조용히 진척시켜오시였었다. 그러나 학원건설이 거의 완공단계에로 접근하고있는 오늘에 와서는 더이상 조용히 진척시킬수 없는 문제로 되였다.

어제 이른아침 장군님을 모시고 학원건설장을 다녀온 김책이 저물녘에 김정숙동지를 찾아왔다.

그는 장군님께서 운동장이 넓어야 아이들의 마음도 넓어지고 포부도 커진다고 하시면서 몸소 발자국수까지 재여가며 지금의 운동장보다 거의 배나 되게 넓히도록 해주신 사연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운동장문제뿐이 아니였습니다. 나이어린 아이들의 방가까이에 위생실을 배치할데 대한 문제까지 지적해주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학원문제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장군님께서 관심하시고 결론하시니 이러다가는 동상을 건립할 부지조차 차례질것 같지 않습니다.》

그의 우려를 들으며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제는 동상건립문제를 장군님께 말씀드릴 시기가 왔다는것을 직감하시였다.

자신의 동상을 세운다는것을 아시면 장군님께서 처음부터 단호히 반대하시리라는것이 너무도 명백하였기때문에 여직껏 내적으로 조직사업을 하시고 준비를 다그쳐오셨는데 동상초안도 거의 완성된 지금에 와서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장군님께 말씀드리는것뿐이였다.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문제야말로 동상건립에서 제기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것이다.

하여 오늘 오전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조각가 문석오와 함께 학원건설장에 나가시여 최종적으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실 위치를 확정하고 돌아오시였다.

장군님께 말씀드리자면 동상위치도 구체적이여야 했기때문이였다.

김정숙동지의 눈앞에는 자신께서 정하신 장군님의 동상위치가 선히 떠오르시였다.

《…녀사님, 장군님의 동상을 저기 운동장 서쪽에 모시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앞에는 운동장의 넓다란 공지가 환히 티여있어 동상이

시원스레 안겨오지 않겠습니까?》
학원에 장군님의 동상을 모신다는것을 알고 흥분한 림춘석소장이 김정숙동지께 운동장 서쪽방향을 가리켜드리며 하는 말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가 가리키는쪽을 눈주어 바라보며 문석오의 생각을 물으시였다.
《글쎄… 공지가 트인것은 좋으나 여기 본관이나 기숙사에서는 운동장을 내려다보게 되므로 왜소하게 보일수 있습니다. 원래 조각상들은 좀 올려다보아야 제모습이 다 나타나는 법입니다.》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였다. 그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시였다. 그리고 운동장 서쪽위치는 학원학생들의 일상생활장소와 동떨어진감이 들어 자신의 마음에도 들지 않으시였다. 보다 더 아이들 가까이에, 그들이 공부하며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장군님의 동상을 언제나 우러러 볼수 있는 곳에 세워주고싶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전문가인 문석오의 요구에 맞으면서도 아이들의 생활장소와 가까운 그런 곳이 어디겠는가를 생각하시며 한참동안이나 건물주변을 보고 또 보시였다. 아무리 살펴보아야 제일 마음에 드시는 자리는 본관의 중앙현관 앞쪽에 있는 자그마한 둔덕이였다.
《문선생! 여기가 어떻습니까? 장군님의 동상을 모실 자리는 여기가 좋을것 같구만요.》
문석오도 새삼스러운 눈길로 그 자리를 바라보며 환성을 질렀다.
《그러고보니 정말 리상적인 위치입니다. 학원건물들의 중심위치이면서도 뒤배경과 동상과의 조화가 잘 보장되겠습니다. 이 둔덕을 건물들과의 수평면만 보장해놓으면…》
《문선생의 마음에 든다니 됐구만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창작가인 그의 지지가 고마우시여 기쁨이 가득 넘치신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내 생각에도 이 자리가 운동장에서 바라보면 교사의 중심이 되므로 여기에 모셔야 학생들이 항상 장군님의 동상을 정면으로 우러러볼수 있을것 같아요. 그 애들이 아침에 기상하여 운동장에서 아침체조를 할 때부터 저녁점검때까지 언제나 장군님을 우러러볼수 있고 운동장에서 모임을 할 때에나 분렬행진을 할 때에도 장군님앞에 선

심정으로 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러볼수 있지 않겠나요. 아이들이 방학때를 비롯하여 잠시라도 학원정문을 나섰다가 마치 자기들을 생각하시며 기다리고계시는 친아버지의 품에 안기듯이 장군님동상을 향해 막 뛰여올것이고 그러면 학원도 자연히 제 집처럼 포근하게 느껴질겁니다.》

그이께서는 아이들의 그 모습을 그려보시며 정 넘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까지 들으니 정말 이 자리가 둘도 없는 명자리입니다.》

림춘석의 감탄에 찬 말을 들으며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러면 장군님의 동상을 이 자리에 모시는것으로 확정하자고 말씀하시였다.

《원래 부모없는 유자녀들이 장군님과 늘 함께 있고싶어하기때문에 우리가 장군님의 동상을 학원에 모시자고 결심한것인데 아이들의 그 소원을 생각해보아도 장군님의 동상을 모실 자리는 여기가 제일 합당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이께서는 문석오에게 동상창작사업이 잘되여가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이의 물으심에 한순간 주저하던 문석오가 안타까운 어조로 대답했다.

《저… 녀사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장군님의 동상을 한손에는 쌍안경을 드시고 옆에 싸창을 차신 항일군복전신립상으로 형상하였는데 장군님의 얼굴모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럽니다. 녀사님께서 주신 사진도 여러상 있고 또 장군님을 여러차례 만나뵙기도 하였지만 정작 초안을 만들어놓고보면 어딘지 모르게 장군님모습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의 심정이 리해되시였다. 그리고 장군님의 형상을 가장 완벽한 경지에 따라세우고싶어하는 그 심정이 고맙게 생각되시였다. 어떻게 하면 그에게 정확한 표상을 안겨줄수 있을가 하고 생각하며 김정숙동지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시였다.

《내 생각에는 장군님의 얼굴모습에서 남다른 특징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할것 같구만요. 장군님은 눈에 영채가 돕니다. 나는 장군님을 처음 뵈왔을 때 그것을 느꼈습니다. 장군님의 이런 특징을 잘 형상하여야 동상을 실지모습과 같게 할수 있지 않을가요.》

그 순간 문석오가 그이의 두손을 덥석 잡으며 흥분에 넘쳐 말했다.
《됐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눈앞이 환히 트입니다.》
《창작가가 흥분된다니 정말 다됐구만요. 문선생, 새 교사 준공식날에 장군님의 동상제막식도 함께 해야겠는데 빨리 초안을 완성하고 동상창작에 들어가주세요.》
《그런데… 장군님께서 승낙을 하셨습니까?》
문석오도 이젠 마지막대목에 이르니 그것이 근심되는 모양이였다.
하긴 김정숙동지께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였다. 자신과 관련된 문제만은 절대로 양보하려 하지 않으시는 장군님의 품성을 너무도 잘 알고계셨던것이다.
《걱정마십시오, 정숙동무. 아, 김혁이가 언제 장군님께서 승낙하셔서 〈조선의 별〉 노래를 지었구 리찬이나 조기천이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백두산〉이란 장편서사시를 썼습니까? 이건 장군님을 받드는 우리 조선혁명가들의 신념문제란 말입니다. 어쨌든 장군님께 정정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완강하게 내밉시다.
오늘 밤 정숙동무와 내가 잘 말씀드리면 장군님께서도 단마디로 거절하시지는 못하실테니 우린 그걸 반승낙받은셈치구 계속 내밀잔 말입니다.》
전화를 걸어오면서 김책동지는 이렇게 말했었다.
정말 그렇게 될수 있을가, 장군님께서 단마디로 거절하시지만 않으셔도 좋으련만…
드디여 대문쪽에서 승용차경적소리가 울려왔다.
장군님께서 돌아오신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얼른 달려나가시여 장군님을 마중하시였다. 장군님의 등뒤에서 김책이 빙긋이 미소를 지어보인다.
《오늘 정숙동무가 별식을 준비하겠다고 했다면서 김책동무가 여느때없이 자꾸 떼를 쓰기에 내 할수없이 이렇게 들어왔소.》
김일성동지께서 웃으며 하시는 말씀이시였다.
《그런데 모를 일이거던.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 들지 않는 김책동무가 오늘은 한 사흘 굶은 사람처럼 저러니 말이요.》
《난 여느 음식은 입에 안 맞아두 정숙동무가 만든 음식은 천하별

식으로 먹습니다. 오늘이 바루 기다리구기다리던 그 별식먹는 날이란 말입니다.》

《좌우간 식욕이 생긴 김책동물 보니 더없이 기쁘구만.》

김일성동지께서는 방안에 들어서시여 어서 식사부터 들여오라고 하시였다.

《그 별식을 기다리다가 김책동무 살 내리겠소.》

김정숙동지께서는 김책의 눈짓에 따라 술병까지 받쳐 음식상을 들여오시였다.

《허, 오늘이 정말 무슨 뜻이 있는 날인가부다. 정숙동무가 이렇게 술까지 받쳐 들여올적에야.》

김정숙동지께서는 의아함이 어린 장군님의 눈길을 받으시며 말없이 잔들에 술을 가득 부어드리시였다.

《어쨌든 부어놓은 술이니 마셔야지. 무슨 사연인지는 그다음에 들어도 늦지 않으니까, 자!》

김일성동지께서 잔을 들며 김책에게 권하시였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김책은 잔을 들지 않고 묵묵히 그것을 내려다보기만 했다.

《아니 김책동무, 왜 그럽니까? 어서 잔을 내야지요.》

그 말씀을 기다리기라도 한듯 그제서야 김책은 진중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장군님, 제 오늘 한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소원을 풀어주셔야 제 마음가볍게 이 잔을 낼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원이게 그렇게 조건부가 심각합니까? 그 소원이란걸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글쎄 먼저 답변부터 주십시오.》

김책이 고집스레 말했다.

《하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책동무의 소원인데다가 이처럼 간절하게 다짐까지 받으니 안 들어줄수 있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장군님께서 승낙을 하셨으니 이젠 이 잔을 쭉 들겠습니다.》

김책은 자기앞에 놓여있던 술잔을 쳐들었다.

《가만, 그런데 그 소원이 무엇인지는 말 안합니까? 풀어주자고 해

도 알아야 풀어주지요.》

그이의 말씀에 김책은 슬며시 김정숙동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김정숙동지의 표정에서 이왕 말을 뗀바에는 어서 말씀드리자는 의도를 읽고나서 그는 다시 잔을 상우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소원인즉… 사실은 소박한겁니다. 우리는 만경대혁명학원 새 교사에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자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구요?》

김책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이의 언성이 높아졌다.

《그건 안됩니다!》

단마디로 거절하시는 **김일성**동지의 단호한 음성…

김정숙동지께서는 끝내 지금껏 우려하던 그런 순간이 왔음을 깨달으시였다.

《김책동무가 말하는 그 〈우리〉라는건 도대체 누굽니까? 정숙동무요?》

그이의 눈길이 김정숙동지에게로 날아왔다.

《장군님, 그 〈우리〉라는건 학원창립준비위원회 전체 성원들과 이 나라 인민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김책동무, 날 그 무슨 인민의 의사를 거역하는 사람처럼 만들지 마시오. 동무들이 자꾸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사람들을 대하겠소. 한쪽에서는 시와 노래를 짓는다, 한쪽에서는 동상을 세운다, 림춘추는 또 그 무슨 나의 투쟁력사를 쓰겠다지… 제발 다들 그러지 마오. 나도 인민의 아들이고 평범한 대중속의 한사람이란 말이요!》

그이의 노여움에 찬 목소리는 가슴을 서늘하게 얼구었지만 김책은 물러서지 않았다.

《장군님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린 절대로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장군님을 떠난 이 나라 조선의 오늘과 같은 새 모습, 새 희망, 새 력사를 어떻게 생각할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 울리는 시와 노래도, 이 나라에 세워지는 기념비들도, 이 나라에 새겨지는 투쟁력사도 어쩔수없이 장군님과만 결부되게 되는것입니다. 이걸 리해해주십시오. 예? 장군님!…》

《계속 그러면 정말 섭섭합니다. 정숙동무, 동무야 누구보다 내 심정을 잘 알지 않소? 학원에 동상을 세울 필요가 뭐요? 그곳에서 그저 아이들이 밝고 명랑하게 뛰놀구 행복하게 자라면 그만이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김정숙동지는 눈굽이 쩌릿이 젖어드시였다.

그 고결한 풍모를 리해해드리고싶으셨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수 없는 자신의 심정이 안타까우시였다. 장군님의 심정을 리해해드리면 유자녀들의 마음을 저버려야 하였기때문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나직하나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 말씀드렸다.

《장군님, 바로 그 아이들이 밝고 명랑하게 뛰놀구 행복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겁니다. 학원아이들은 하루라도 장군님을 못뵈오면 서운해하구 또 우울해합니다. 장군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군님께서 학원에 나오시면 그 애들이 얼마나 기뻐하구 또 헤여질 때엔 얼마나 떨어지기 아쉬워하는가를… 그 애들은 장군님을 아버지로 믿구 언제나 함께 있고싶어합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야 어디 그렇게 시간을 내실수 있습니까. 앞으로 공화국창건과 같은 중대한 사업도 놓여있어 점점 더 시간을 내기 힘드신데 장군님 오시기만을 기다릴 아이들의 그 허전한 마음을, 그 실망의 공백을 과연 그 무엇으로 메꾸어줄수 있단 말입니까. 학원에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고싶어하는것은 다름아닌 그 애들의 소원입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싶어하는 혁명가유자녀들의 간절한 소원이란 말입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나가시였다.

걷잡을수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더이상 감출수가 없으시였던것이다.

《정숙동무!—》

김책이 소리쳐불렀다. 그리고는 자기도 손수건을 꺼내여 눈굽을 닦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학원에 가셨다 오실 때마다 헤여지기 아쉬워하며 옷섶에 매달리던 아이들의 그 눈물겨운 모습이 가슴에 맺혀오신것이였다.

《장군님, 정숙동물 리해해주십시오. 정숙동무가 오죽 안타까웠으면 그러겠습니까. 정숙동무야 그 애들의 어머니가 아닙니까. 자식들

의 심정이야 어머니가 제일 잘 아는 법이지요.》
김책이 그이를 조심스레 위로해드리였다.
《김책동무, 솔직히 내 학원에 갈 때마다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줄 압니까?》
《예?》
《학원리발사입니다. 매일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머리를 쓰다듬어 만져주는 그의 직업을 내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김책동무도 다는 모를겁니다. 정말이지 나라일만 아니라면 매일 그 애들과 함께 있고싶습니다. 그 애들도 내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고 내 또한 그들과 헤여지고싶질 않습니다. 하지만…》
《장군님,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애들이 언제나 아버지곁에서 함께 살도록 해주자는겁니다.》
《…》
김책이 다시 용기를 내여 술잔을 들었다.
《장군님! 제 그럼… 약속대로 이 술잔을 쭉 내겠습니다. 물론 밥도 다 먹구요, 허허…》
그러면서 그는 **김일성**동지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실가봐 두려운듯 지금껏 지켜오던 이런 좌석에서의 례의를 다 버리고 제 먼저 술잔을 단숨에 넘기였다.
《어, 그 술맛 참 좋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시였다.

7

점심무렵이 가까와오자 날씨는 몹시 무더워졌다.
간리에서부터 평양시내까지 걸어나오느라 어지간히 지친 박송봉과 심창완은 시원하게 웃저고리의 단추라도 활 열어제끼고싶었으나 자꾸만 자기들에게 쏠리는 사람들의 눈길때문에 차마 그럴수가 없었다.
사람들의 눈길에 어린 감탄과 대견함, 부러움의 빛이 그들의 마음을 다잡았던것이다.

《학원학생들이로구나! 학원제복이 참 멋있지?》

《붉은 줄이 쭉쭉 간게 꼭 인민군대 꼬마장령들 같애.》

오고가는 길손들속에서 손우 누이벌이나 될 처녀들이 그들곁을 지나치며 소곤거리는 말이 귀전에 들려왔다.

송봉과 창완은 저으기 어깨가 으쓱해졌다. 은근히 좀 더 위신있게 얼굴표정을 짓고 절도있게 걷기 위해 신경을 쓰게 되였다. 더우기 송봉은 그러는 순간부터 덥다는 생각은 물론 마음속에 차있던 불안감마저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지금 수업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슬그머니 학원을 빠져나와 시내에로 자유주의를 하고있었던것이다.

어찌 보면 이번 자유주의는 창완이때문에 시작된것이라고 할수 있었다. 며칠전 원장선생님은 그들이 학원에 와서 찍은 사진을 나누어주면서 국내에 집이 있는 학생들은 편지와 함께 보내고 동북에서 온 학생들은 잘 건사했다가 이제 인편이 생기면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학원제복을 입고 처음으로 찍은 사진을 받아든 송봉과 창완은 사진속의 자기들의 모습을 며칠을 두고 보고 또 보았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름름하고 의젓한 사진속의 아이가 자기 모습이라고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가자 창완이 속으로 끙끙 앓기 시작하였다.

《창완아, 너 요새 왜 그러니?》

교실에서도 옆자리, 침실에서도 옆자리에 붙어있는 송봉이 그에게 물었다.

《우리 어머닌 지금껏 나 하나를 키우며 고생속에 살아왔어. 아마 날 혼자 조국에 보내놓고 어머닌 매일 아침저녁 근심만 하고있을거야. 우리가 이렇게 멋진 제복을 입구 부러움없이 살고있는줄 모르구 말이야. 어머니가 하루라도 빨리 내 사진을 받아보면 더는 근심을 안하실게거던. 송봉아, 우리 래일 시내에 나가 사진과 편지를 보내지 않겠니? 거기선 아마 동북에도 편지를 보내줄거야. 언제 인편이 생기길 기다리겠니?》

《…》

송봉은 하루빨리 자랑스러운 제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싶어하

는 그의 마음이 리해되였으나 왜서인지 아무런 말도 하고싶지 않았다.

창완인 얼마나 좋을가. 제모습을 보여줄 어머니가 계시니, 그런데 나는?… 난생처음 붉은 줄이 쭉쭉 간 멋있는 학원복을 입은 나의 장한 모습을 그 누구에게 보여줄수 있단 말인가. 어머니도 없지,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 삼촌에게?…

하지만 어찌 어머니에게 자랑하는것과 삼촌에게 자랑하는것이 같을수 있으랴. 어찌 친어머니만큼이야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랴. 서글퍼졌다. 단 한번만이라도 내 모습을 보아줄 어머니가 있었으면…

문득 학원에 처음 왔을 때 기쁨에 겨워 나를 품에 꼭 껴안으시고 《내가 널 얼마나 찾은줄 아니?! 널 만나니 네 아버지를 다시 만난것만 같구나. 송봉아! 아버지, 어머니생각이 나거들랑 아무때든지 우리 집으로 오거라.》하시던 김정숙어머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떠올랐다.

그후에도 어머님께서는 학원에 오실 때마다 학원복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셨지.

김정숙어머님께 내 사진을 보여드릴가? 아니, 우리 학원아이들모두가 다 나처럼 어머님이 보고싶다고 저저마다 찾아간다면 얼마나 힘드실가, 그렇지 않아도 무척 바쁘실텐데…

하지만 송봉은 창완이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보고는 끝내 자기를 이겨내지 못하였다. 친구의 부탁도 들어줄겸 또 시내사람들에게라도 이 모습을 자랑할겸…

이렇게 생각하니 아닌게아니라 아직 조선글을 잘 쓸줄 몰라 작은 아이들한테 망신스럽기만 한 수업에 빠질수 있는것이 차라리 잘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한테 욕먹지 않을가?》

《까짓, 한번 눈 꾹 감구 욕먹지 뭐.》

《좋아, 가자!》

이렇게 되여 그들은 시내견학을 나왔던 기억을 더듬어가며 걸음을 다그치고있었던것이다. 자기들을 부러움에 가득 넘쳐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

그 눈길만으로도 송봉은 마음이 부풀어올랐다. 자유주의를 한다는 일종의 죄의식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지 이미 오랬다.
창완이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자주 물어보느라 걸음을 지체하군 하였다.
《평양에서 제일 큰 우편국이 어디나요?》
학원복을 입은 아이들이여서 그런지 물어보는 사람마다 각근히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길을 대주군 하였다.
창완이와 송봉이가 계속 길을 물어가며 중성리쪽에 이르렀을 때였다.
등뒤에서 갑자기 《얘들아, 거기 좀 섰거라!》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마 우릴 찾는 사람이 있으랴 하면서도 무심결에 뒤를 돌아보던 그들은 뜻밖에도 황급히 반달음쳐오시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어머님!—》
그들은 기쁨에 넘쳐 김정숙동지께 달려가 학원에서 배운대로 거수경례를 드렸다.
《학원복차림이 류달리 눈에 뜨이길래 불렀더니 송봉이와 창완이로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되여 여기에 나왔느냐? 오늘은 일요일도 아닌데?…》
김정숙동지께서 이렇게 물으셔서야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자유주의를 하고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뜻밖의 장소에서 어머님을 뵈옵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들인지라 갑자기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할지 몰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있기만 했다.
어머님을 뵈옵는 기쁨은 더없이 컸지만 그이께서 이제 자기들이 자유주의를 한걸 아시면 어쩌랴 하는 불안과 위구가 갈마들었다.
문석오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머리를 수그리고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대충 짐작이 드시였다.
《너희들 우리 집에 가서 놀다 가지 않겠니?》
《아, 아닙니다. 우린 가야 합니다.》

당황해진 그들은 흘끔흘끔 서로의 얼굴만 마주보았다.

《그러지 말고 집으로 가자. 점심시간인데 가도 밥을 먹고 가야지. 여기까지 나왔다가 어머니네 집에도 들리지 않고 가면 내가 섭섭하질 않니.》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이 더 다른 말을 못하게 량손에 아이들의 손목을 꼭 잡으시고 걸음을 옮기시였다. 저택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아이들에게 제 집에 온것처럼 생각하라고 하시며 부엌에 나가시여 사과와 과자를 담은 그릇을 들고 들어오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따뜻이 대해주실수록 송봉이와 창완이는 더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그이께서는 우정 아이들의 자유주의를 화제에 담지 않으시였다.

《어머니네 집에 와서도 그러면 못써. 어서 마음놓고 먹어라.》

김정숙동지께서는 손수 사과를 깎으시여 그들의 손에 쥐여주시였다. 그들은 하는수없이 사과를 먹기 시작하였다.

《자, 밥이 익을 때까지 그새 너희들 우리 글을 얼마나 배웠는지 좀 볼가? 내가 부를테니 한번 받아들 써봐라.》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앞에 종이와 연필을 놓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또박또박 단어들을 부르기 시작하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 백두산, 압록강, 평양, 조선인민군…》

그이께서 천천히 부르셨지만 송봉은 우리 글을 그림그리듯 하느라 미처 따라쓰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조국에서 서당공부라도 좀 한바 있는 창완이가 그에 비하면 선생격이였다. 송봉은 창완의 종이장을 넘보면서 아직도 서툰 모양으로 삐뚤삐뚤하게 써나갔다.

《아니, 송봉인 글을 쓰니 그림을 그리니? 오늘 보니 공부를 착실히 한것 같지 않구나. 그렇지?》

그이께서 다정히 물으시자 송봉은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사실… 작은 애들이 자꾸 놀려주는통에 부끄러워서…》

《원 애두, 배우는데서는 부끄러운것이 없어야 해. 아는것이 힘이고 알아야 혁명도 잘할수 있단다. 자, 연필을 다시 쥐거라.》

김정숙동지께서는 연필을 쥔 그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쥐시며 함께 글을 써나가시였다.

《조선글은 동그라미와 내려긋기, 가로긋기를 잘해야 한단다. 그렇지, 곧게…》

어머님과 함께 우리 글을 써서 그런지 제법 글자모양이 제대로 되였다.

송봉은 그것이 도무지 자기가 쓴것 같지 않아 희한하게 들여다보았다.

《창완이도 자만할건 못돼. 너희들은 다른 애들보다 더 이악하게 공부를 해서 하루빨리 자기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올라가야 해. 언제까지 작은 애들의 웃음거리가 되겠니?》

《어머님, 학원에 처음 왔을 때 송봉인 앞으로 갈줄 알았던 게가 옆으로 가면서 제결으로 다가오자 너무 놀라서 냅다 달아나는통에 아이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창완이는 그때 일이 생각나는지 키득키득 웃었다. 송봉이의 얼굴이 빨갛게 익었다.

《호호… 그런 재미있는 일도 있었니?》

그이께서 웃으시자 송봉이도 그만 따라웃고말았다. 그들의 얼굴에 화기가 가득 넘쳐서야 김정숙동지께서는 시내에 나오게 된 사연을 다시 물으시였다.

《저… 사실은…》

창완이는 주머니에서 편지봉투속에 들어있던 사진을 꺼내며 자유주의를 하게 된 경위를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그러니 이 사진을 어머니에게 하루빨리 보내고싶어 나왔구나. 원 애들두, 그럼 사진부터 보여주지 않구?! 어디 보자. 야, 사진이 참말 잘되였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며 사진을 들여다보시였다.

《이게 정말 창완이가 옳니? 자주 만나보군 하는 나도 놀라운데 네 어머니가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니. 이 사진은 내가 동북으로 보내주지. 참, 그 편지에 어머니더러 학원으로 오시라고 더 써서 보내거라. 창완이 어머니도 학원에 와서 같이 있으면 더 좋지 않니?》

《정말, 정말 그렇게 해도 일없나요?》

창완이는 벙글서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머님의 팔에 매달렸다.
《일없지 않구. 어서 쓰거라. 그리고 사진을 편지봉투에 넣어 봉인을 해라. 자, 저기 책상에 앉아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창완이의 등을 떠밀고나서 시무룩해 앉아있는 송봉에게 눈길을 돌리시였다.
《송봉인 사진을 못 찍었니?》
《아니, 찍었습니다.》
《그럼 왜 나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니?… 사진을 학원에 두고온 모양이로구나.》
송봉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였다. 이렇게 김정숙어머님을 만나뵙게 될줄 알았더라면 자기 사진을 가지고나올걸 잘못했다는 후회가 골백번 들었다.
창완이가 부러웠다. 자기 어머니에게 보낼 사진을 김정숙어머님께 보여드리고 또 이제 어머니까지 학원으로 오게 되였으니 말이다. 오늘은 정말 창완이를 위한 날인 모양이다.
송봉의 마음을 다 헤아려보신듯 김정숙동지께서는 서운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보나마나 송봉인 사진을 보고 기뻐해줄 어머니가 안계신다고 애초에 그런 생각을 안했구나.… 송봉아! 왜 그렇게만 생각하니? 이 어머닌 네 사진을 받아보면 안된다더냐? 그래, 이 어머닐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주고싶지 않더냐 말이다. 섭섭하구나. 다른 애도 아닌 송봉이 네가 그럴줄은…》
송봉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글썽해진 얼굴로 상심에 어린 어머님의 모습을 죄송스럽게 바라보았다.
《어머님, 나도, 나도 어머님께만은 꼭 사진을… 보여드리고싶었어요.》
《그럼 약속하자. 학원에 돌아가면 이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는걸. 우리 집 주소를 알지? 편지봉투에 넣어보내면 꼭 올게다. 사진을 보낼데 없는 다른 애들도 다 나에게 보내라고 해라. 그럼 내 너희들의 사진첩을 하나 따로 만들어가지고 보고싶을 때마다 들여다보련다.》

《어머님!…》

부엌에서 밥익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겨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슨 말씀인가 더 이으시려다말고 얼핏 눈길을 들어 벽시계를 바라보시였다.

《참, 너희들 배고프겠구나. 이젠 밥이나 먹자.》

잠시후 소박한 밥상이 놓여졌다. 먼길을 걸어오느라 어지간히 지친 송봉과 창완은 음식상을 보자 저도 모르게 맹렬한 시장기를 느꼈다.

《너희들이 갑자기 오다나니 특별히 차린것이 없구나.》

아이들의 심정을 헤아리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얼른 그들의 손에 수저를 쥐여주시였다.

《자, 제 집처럼 생각하고 어서들 먹어라, 어서.》

《저… 어머님도 같이 드시자요.》

《그래, 먹자. 보렴. 어머니도 이렇게 먹지 않니?》

그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수저를 들자 아이들은 서로 마주보며 싱긋이 웃었다. 그리고는 부지런히 밥술을 놀리기 시작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인차 바닥이 나기 시작한 그들의 밥그릇에 자신의 밥을 덜어주시고나서 천천히 수저를 놀리시였다.

어쩐지 마음이 개운치 않으시였다.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내고싶어하는 창완이나 사람들에게 제모습을 뽐내고싶어하는 송봉의 심정이 충분히 리해되고 또 그 마음이 기특하게 여겨졌지만 학원생활의 첫걸음부터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은 은연중 김정숙동지의 심중을 무겁게 만들었다.

선생님과 동무들도 모르게, 더우기 수업에까지 빠지면서 자유주의를 할 생각을 하다니?!…

여직 내색은 하지 않으셨지만 인정으로만 감싸버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였다. 하지만 선뜻 말이 나가지 않으시였다.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그 애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그토록 갈망하는 그 애들에게 어떻게 가슴아픈 말을 하랴.…

밥상을 물린지도 퍼그나 되였으나 김정숙동지께서는 끝내 말씀을 떼지 못하시였다. 더운 날씨에 자유주의를 하느라 기운이 빠진데다가 점심밥까지 량껏 먹고난 송봉과 창완은 식곤증에 몰리여 저도 모

르게 눈이 거불거불해졌다.
설겆이를 마치고 다시 방안으로 들어서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자 습관적으로 이불장에서 베개를 꺼내드시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이께서는 입술을 감쳐무시였다.
베개를 다시 제자리에 놓으신 그이께서는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얘들아! 너희들 이젠 학원에 돌아가야지. 선생님들과 동무들이 얼마나 찾고있겠니?》
송봉과 창완은 머뭇거리며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너희들이 힘들줄은 나도 안다. 하지만 이 어머닌 너희들이 오후에도 학원생활에서 빠지게 되는것이 마음놓이지 않는구나. 더우기 오늘 수업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돌아가서 보충수업을 받아야지?》
《예, 학원에 돌아가겠습니다.》
창완과 송봉은 힘겹게 대답하며 몸을 일으켰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쩐지 그러는 애들의 모습이 다시금 가슴에 맺혀오시였다. 다문 얼마간이라도 쉬여서 보낼걸 그러지 않는가 하는 후회감이, 인제라도 그렇게 하고싶은 간절한 생각이 짜릿하게 밀려들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속으로 애써 아니, 완강히 머리를 저으시였다. 그렇게 값싼 동정이나 눈먼 사랑으로 키워서는 안될 아이들이라는 생각으로 굳게 마음을 다잡으시였다.
《그래야지. 자, 그럼 어서 떠나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방문을 열고 나서시였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가련다.》
《예― 에?…》
아이들은 전기에라도 감전된듯 와뜰 놀랐다. 그들의 동공이 엄청나게 커졌다.
《어머님, 우리끼리… 갈수 있습니다. 아니, 꼭… 가겠습니다.》
송봉의 기여드는듯 한 목소리가 도간도간 끊기며 울렸다. 뜻밖의 정황앞에서 무척 당황해진 모양이다.
《하지만 너희들을 홀로 보내놓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놓겠니?》
《정말입니다. 우리끼리 갈수 있습니다.》

창완의 목소리도 간절하게 떨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시였다.

《물론 너희들끼리 갈수야 있겠지. 나도 너희들이 떳떳하게 나온 길이라면 이렇게까지 속쓰진 않았을게다. 생각들 좀 해보렴. 장군님께선 너희들의 학부형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선생님들과 동무들도 모르게 자유주의를 한걸 아시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니? 예로부터 자식의 잘못은 부모가 책임지는 법이다. 그러니 내가 가서 용서를 빌어야지. 그래야 내 마음도 가벼워질게 아니냐.》

《어머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자유주의를 안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어머님께서 가시는것만은…》

송봉과 창완은 눈물이 글썽하여 그이의 팔을 꼭 부여잡았다.

《원, 사내녀석들이 눈물도 헤프지. 잘못을 알았으면 빨리 가서 오후일과생활에 참가할 생각을 해야지. 내 걱정은 말아.》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이들의 등을 가볍게 떠미시였다.

《자, 어서 떠나자.》

한낮의 해별은 몹시도 따가왔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인차 땀방울이 줄줄이 맺혀 흘렀다. 그러나 심한 자책감에 잠겨 묵묵히 걸음을 옮기는 그들은 땀을 훔칠념도 안했다. 다만 땀에 흠뻑 젖어든 김정숙동지의 저고리동정깃을 죄스러운 눈길로 흘깃흘깃 훔쳐보았다.

둘 다 어려서부터 고생살이속에 일찍 눈치가 터서인지 때이르게 철이 든 그들 마음이 온몸에 느껴지셨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애틋한 미소를 띠우시며 손수건을 꺼내드시였다.

《나보다도 너희들이 더 덥겠구나. 이것 보지, 얼굴이 온통 땀투성인걸.》

그이께서는 손수건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닦아주시였다.

《우리 더워도 참고 견디자. 모든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단다. 참, 너희들 동북에서 살 때 유격근거지의 아동단원들에 대한 이야길 들은적이 있니?》

《예, 할머니에게서 들은적이 있어요.》

송봉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우리 어머니에게서 들었어요.》
창완이도 뒤질세라 얼른 대답했다.
《그래, 그때의 유격구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난생처음으로 무료로 공부시켜주고 키워주던 아동단학교를 지금도 잊지 못해한단다. 송봉인 너무 어렸을 때여서 잘 모르겠지만 그때 송봉이 아버진 얼마나 아동단원들의 생활을 잘 돌봐줬는지 모른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송봉이 아버지가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어 아동단원들의 학용품을 마련해주기 위해 직접 전투를 지휘하러 나갔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구나.》
《우리… 아버지가요?!》
《그래. 그때 유격대원들은 그 누구라 할것없이 싸움에 나가거나 지하공작에 나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아동단원들에게 필요한것을 한가지라도 마련하기 위해 애썼단다. 장군님께선 자주 아동단학교에 나오시여 우리 글과 노래도 배워주시고 재미나는 옛말도 들려주군 하셨지. 언젠가는 이국땅에서 나서자라 조국의 향기를 모르는 아동단원들에게 조선사과를 먹이시겠다고 우정 전투를 조직하시여 크고 먹음직스러운 우리 나라 사과를 한가득 보내주셨단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발자욱소리까지 죽여가며 귀를 강구는 송봉과 창완에게 눈길을 주시였다.
《아동단원들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김일성**장군님께서 왜 그토록 자기들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지, 유격대원들과 유격구의 인민들이 일제의 〈토벌〉에 근거지의 마을들이 불타도 왜 아동단학교부터 제일먼저 다시 지어주군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있었단다. 그래서 그들은 학습을 전투로 생각했고 조직의 규률을 목숨처럼 여겼지. 지어는 유격대아저씨들을 도와 생사를 판가름하는 근거지방어전투에도 참가했지.》
《아니, 아이들이 전투에요?》
창완이 부러움에 가까운 놀라운 소리로 되물었다.
송봉의 눈빛에도 흥분이 어리였다.
《왜, 어머니의 말이 잘 믿어지지 않니? 그후에 그들중 많은 아동

단원들이 장군님께서 직접 무어주신 소년중대에서 총을 잡고 왜놈들과 싸웠단다.》

《야, 우리도 좀더 빨리 태여났더라면…》

송봉이 자못 아쉬운듯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호호… 그러니 송봉이도 그들처럼 싸울수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내 생각엔 송봉이나 창완이가 그럴것 같지 못한데? 그때의 아동단원들과 소년중대원들이 그렇게 싸울수 있은건 학습과 조직생활을 통해 튼튼히 단련되여있었기때문이 아니겠니.》

《…》

《…》

《학생인 너희들에게 있어서 학습은 전투와 같애. 그런데 송봉이와 창완이는 제 마음대로 전투장을 버리고 자유주의를 했거던. 혁명에 대한 각오와 투쟁정신은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란다.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열심히 배우고 조직과 집단의 요구에 자기를 복종시킬줄 알 때 너희들도 항일의 아동단원들처럼, 소년중대원들처럼 투사로 자랄수 있는거다.

송봉아, 창완아, 너희들이 입고있는 학원복에 새겨진 그 붉은줄을 무심히 보지 말아. 거기엔 혁명을 위해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싸운 부모들의 넋을 꿋꿋이 이어나가길 바라시는 **김일성**장군님의 깊은 뜻이 어려있는거란다.》

《어머님!》

송봉과 창완은 끝내 그이의 품에 와락 얼굴을 묻고말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의 등을 다정히 쓸어주시였다.

《자, 어서 걸음을 다그치자.》

갈길은 아직 멀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머님의 뒤를 따라 힘차게 걸음을 옮겼다.

후날 당과 국가의 중요직책에서 몸바쳐 투쟁하였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충신중의 충신, 실력가형의 일군들로 영원히 잊지 못해하시는 심창완과 박송봉은 한생을 드팀없이 곧바른 한길을 걸을수 있도록 삶의 귀중한 첫 자욱을 찍어주신 김정숙동지에 대한 사연깊은 그날의 추억을 자기들의 자서전에 새겨넣었다.

8

밤 12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옆에 따라선 리종익원장과 리진영정치부원장의 존재를 잊으신듯 어둠에 파묻힌 간리림시교사를 이윽토록 바라보시였다.

이곳에 오기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시여 자못 감회가 깊어지셨던것이다. 헌 베잠뱅이에 짚신을 신고 찾아왔던 아이들을 처음 만났던 간리, 뜻깊은 개원식을 하며 먼저 간 동지들 생각에 목이 메여 눈물지었던 간리, 이 못 잊을 간리에서 지난 1년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몰라보게 자랐는가.

이제 며칠 안 있어 그 애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또다시 집으로 간다. 방학을 갔다오면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다. 새 학기부터는 만경대의 새 교사에서 수업이 시작될것이다. 이제는 정말 이곳이 말그대로 림시교사인셈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동안 정이 들고 추억도 많은 림시교사를 점도록 바라보시다가 《장군님, 보슬비가 내립니다.》하며 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청하는 원장의 말을 듣고서야 그들에게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아닌게아니라 소리없이 내리기 시작한 보슬비가 원장의 머리우에 물방울처럼 맺혀 먼 야외등빛에 반짝거린다.

《허, 보슬비에 옷젖는줄 모른다더니… 나때문에 다들 괜한 비를 맞았군요.》

그이께서는 미안한 기색으로 말씀하시며 그들의 팔을 끼고 건물안으로 걸음을 재촉하시였다. 건물안에 들어서시여 곧장 원장방으로 향하시던 그이께서 《가만…》 하고 걸음을 멈추시였다.

《왔던김에 아이들의 잠자는 모습이라도 한번 봅시다.》

그이께서는 침실들쪽으로 조용조용 걸어가시였다.

아이들이 깨여날가봐 그러신다는것을 알아차린 원장과 정치부원장

도 발소릴 죽여가며 그이의 뒤를 따랐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침실, 한침실 문소리가 나지 않게 열고 들어서시여서는 대견한 눈길로 잠자는 아이들의 모습을 한참동안 들여다보시였다.

《허 그 녀석들, 이불들을 다 차던진걸 보니 꽤 더운 모양이구만.》

그이께서는 무슨 설명인가 하려고 하는 정치부원장에게 한손가락을 들어 입술에 대보이시고나서 들어가실 때처럼 살며시 침실문을 닫고 나오시였다.

《원장선생방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원장방은 몹시 무더웠다. 아마 이렇게 비가 오려고 그새 물쿠어서 그런 모양이다. 정치부원장이 창문을 활짝 열어제꼈다. 물기를 머금은 서늘한 바람이 방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이렇게 더운 때에 아이들이 이불을 덮구 자자니 오죽하겠습니까? 여름에 이불을 덮고자는것은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은데.》

《현품이 없어서 아직 모포를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리종익이 사정을 말씀드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모포, 모포…》 하고 뇌이시며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만경대에 옮겨가면 어떻게 하나 모포를 공급해주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 요즘 앓는 학생들은 없습니까?》

《특별히 앓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더운 때여서 아이들이 찬물을 많이 먹겠는데 물을 꼭 끓였다 식혀서 주도록 해야 합니다. 병은 항상 그런 사소한데서부터 시작되거던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내 전번에 김종항서기동무에게 일러두었는데 앞으로 학원이 만경대로 옮겨가게 되면 자체로 부업을 할수 있도록 땅을 넘겨받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부업지의 정보수며 또 어디 토지를 넘겨받겠는가 하는…》

그이께서는 궁금하신 눈길로 원장을 바라보시였다. 리종익이 웃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였다.

《예, 해당 부문 일군들과 협의도 해보고 또 현지의 토지상태도 나

가보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실태와 그에 따라 작성한 계획을 설명해드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전히 아이들에 대한 식을줄 모르는 사랑을 안고 정열적으로 뛰여다니는 그의 수고가 헤아려지시였다. 사람들은 다들 그가 점점 젊어진다고 한다.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아닌게아니라 리종익원장이 처음 만날 때보다 퍽 활기롭고 정력에 넘쳐보였다. 하긴 늘 아이들과 함께 그들의 세계에서 살고있는데야 어찌 갱소년되지 않을수 있으랴.

리종익원장이야말로 제일 행복한 아니, 제일 부러운 사람이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넘기시며 그에게 말씀하시였다.

《좋습니다. 학원일군들이 학생들의 식생활을 높이기 위해 생각을 많이 한것이 알립니다.》

그이께서는 감사의 빛이 어린 눈길을 얼핏 정치부원장에게도 보내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학원에서 부업지를 받아 자체로 부업을 하면 학생들에게 신선한 남새와 참외, 수박 같은것도 먹일수 있고 찰벼를 심어 찰떡도 해먹일수 있을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것은 자체로 부업을 하면 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근로정신을 키워주고 그들을 육체적으로 단련시키는데도 좋다는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장선생.》

그이의 물으심에 리종익은 《허허…》 하고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예. 우리 정치부원장동무도 이 리종익이 학원에서 혁명가가 아니라 귀족을 키워낼가봐 늘 침을 놓군 한답니다.》

《원장선생이 그렇게 생각한다니 난 더 할말이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정치부원장에게로 눈길을 돌리시였다.

《정치부원장동무, 동무가 원장선생의 사업을 잘 도와주어야 하오. 아무래도 젊은 사람인 동무가 더 많이 뛰여다니고 교직원들과의 사업, 군사교관들과의 사업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하오. 그래야 원장선생이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바칠수 있을게 아니겠소.》

《장군님, 알았습니다.》
리진영이 몸에 배인 군사규정대로 자세를 펴며 대답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창문가로 다가가시여 보슬비 내리는 밤하늘가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혼자소리처럼 뇌이시였다.
《큰비가 올것 같진 않군. 다행이요.》
그이께서 무엇때문에 다행이라고 하시는지 알수 없었던 원장과 정치부원장은 의아한 눈길로 서로 마주보았다. 그들의 속마음을 읽으신듯 **김일성**동지께서는 창가에서 돌아서시였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떠나야겠는데 그들이 로상에서 큰비를 맞으면 야단이 아니요. 그래 원장선생, 방학은 언제 떠나보내기로 하였습니까?》
《래일 학년말총화를 짓고는 모레부터 출발시키려고 합니다.》
《음, 모레부터라. 그럼 이번 방학때 집이 없어 갈데가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실 내가 깊은 밤에 여기에 온것도 바로 그것때문입니다. 무슨 좋은 생각들을 한것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이의 말씀에 원장과 정치부원장은 저으기 긴장해졌다.
이미 지난 겨울방학때처럼 하려는것외에 더 다른 생각을 해보지 못한 그들이였던것이다. 잠시 난처한 눈길로 정치부원장의 얼굴을 바라보고나서 리종익이 주저하며 말씀드렸다.
《저… 전번처럼 학원에서 휴식시키면서… 극장관람과 공장견학들을 조직해주려고 하였습니다.》
《전번에야 겨울이고 또 처음 부닥친 문제여서 그렇게 하였지만 지금이야 왜 좀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한단 말입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소 실망이 비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자신께서 학원에 나와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였다. 왜 학원에 그냥 남아있게 될 아이들의 심정을 그렇게밖에 헤아려주지 못한단 말인가, 조금만 더 애정을 기울여 생각하면 방도는 얼마든지 찾을수 있겠는데, 학원에 남게 되는 아이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일가?…
그이께서는 안타까운 심정그대로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렇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학원의 매 아이들의 얼굴에 비끼는 그늘까지도 그냥 스쳐지나서는 안됩니다. 내 이미 동북에 사진을 보내는것때문에 자유주의를 한 아이들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동무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역시 리치는 같은 문제입니다. 집이 있는 학생들이 다 떠나가면 학원이 빈집같이 조용하겠는데 집이 없어 갈 곳 없는 학생들만 학원에 있으면 그들이 얼마나 생각이 많아지겠습니까. 또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될 나나 동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장군님,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리종익이 자책이 어린 목소리로 그이께 말씀드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그에게 한걸음 다가가시였다.

《원장선생, 내 그 애들 문제를 놓고 혼자서 좀 생각해본것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번 방학기간에 원장선생이 집이 없는 학생들을 데리고 금강산에 갔다오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예? 금강산에… 말입니까?》

원장도 정치부원장도 다같이 놀랐다. 그들로서는 전혀 뜻밖의, 그러면서도 순간에 마음이 붕 뜨는 대책이였던것이다. 금강산이란 말만 들어도 아이들이 《만세!》를 부를것이였다. 집이 있어 방학을 가게 된 아이들도 이걸 알게 되면 아마 집으로가 아니라 천하명산 금강산으로 함께 가겠다고 조를판이였다.

《장군님! 정말이지 말씀만 들어두 희한합니다. 어쩌면, 어쩌면 그런 생각을…》

리종익이 감탄과 감격이 한데 뒤섞인 눈빛으로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정치부원장의 심정도 다를바가 없었다.

《원장선생의 마음에 든다니 됐습니다. 내 생각에도 그 애들이 집에 가는 아이들처럼 쌀과 부식물, 간식을 타가지고 원장선생을 따라나서면 마치 부모를 따라 려행하는것 같아 기뻐할것이구 또 원장선생도 아들딸들을 데리고 나들이가는것 같아 좋을것입니다.》

《예, 정말 그럴겝니다. 생각만 해두…》

《그들이 금강산에 가서 비로봉에도 오르고 만물상에도 가보고 식

물채집도 하면서 방학기간을 즐겁게 보내도록 해줍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선생, 우리가 부모구실을 잘하여 아이들의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도 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지난날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온 아이들의 얼굴에 오늘에 와서도 그늘이 지게 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제 언제 가면 장군님의 그 뜻을 다 따를수 있겠는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진심이 어린 리종익의 말을 들으며 가볍게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러시며 재삼 당부하시였다.
《사업조직을 잘하여 방학기간에 사고를 내지 말고 갔다와야 하겠습니다. 영진동물 비롯해서 책임성높은 군사교관들과 녀성교원들을 몇사람 데리고 떠나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의 안전도 지키고 생활도 돌봐줄수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이어 정치부원장에게 학원사업을 책임지고 새 교사로 옮겨갈 준비와 새 학기 준비사업을 할데 대하여 임무를 주시고나서 다시 리종익에게 말씀하시였다.
《기차를 타고 원산까지 가서는 강원도당위원회의 방조를 받으십시오. 강원도당에는 내가 조직사업을 해주겠습니다. 원장선생! 우리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리종익원장과 정치부원장은 뜨거운 마음으로 그이의 말씀을 새겨안았다.
밤은 소리없이 내리는 보슬비와 더불어 깊어만 갔다.

9

8월 중순.
림춘추는 또다시 150여명의 혁명가유자녀들을 찾아 제2차로 떠나보내였다. 그들을 조국으로 떠나보낸 그날 밤 림춘추는 장군님께서 주신 제일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였다는 기쁨과 안도감으로 하여 동

북땅에 와서 처음으로 만시름 잊고 발편잠을 잤다.

물론 혁명가유자녀들을 다 찾았다고는 아직 말할수 없었지만 그 어렵고 힘겨웠던 사업이 기본적으로 결속되였다고 그는 생각하였던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있는 유자녀들은 얼마 되지 않는데다가 그들도 살아만 있다면 동북천리에 널리 퍼진 소문을 듣고 곧 찾아오리라는 확신이 생긴다. 이번에 유자녀들을 조국으로 보내면서 림춘추는 연변지구에서 생산한 고급모포 500매를 마련하여 장군님께 드리였다.

좋은 모포들을 보는 순간 간고했던 항일의 나날 자신께서 쓰셔야 할 모포마저 나어린 전령병들이나 앓는 대원들에게 주시고 모포 한장도 덮지 못하고 쉬시던 장군님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그런 결심을 하였던것이다. 그는 특별히 고른 몇장의 모포를 따로 포장하여 이것을 꼭 장군님의 댁에서 쓰시도록 하게 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그 간절한 심정을 담은 편지를 장군님께 전해드리라고 함께 보냈는데 그는 편지마감에 이곳에서의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결속된 조건에서 이제라도 조국에 나가 당면한 공화국창건사업에 참가하고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피력하였다.

그 시기 연변지구의 당, 정권기관의 사업은 중국공산당의 지지밑에 조선사람중심의 지도관리체계를 이룩하고 경제, 교육, 문화 등의 전반적분야에서 민족적권리와 리익이 실현되여가고있었다.

동북의 군사정치정세도 유리한 국면에 들어섰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북야전군은 중앙의 령도밑에 현재 장춘, 심양, 금주의 3개 지구에 각각 고립, 압축되여있는 장개석국민당군대를 포위공격하고 가까운 시일안에 전 동북땅을 해방하기 위한 료심작전준비를 완료해가고있었다. 완전한 승리와 평화가 동북땅에 깃들 날은 바야흐로 다가오고있었다.

그러나 림춘추가 조국으로 나오게 해달라는 편지를 장군님께 보내게 된것은 단순히 이러한 성과와 형편때문만은 아니였다.

여기에는 **김일성**동지를 따라 총대와 붓대를 같이 들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투사로서, 빨찌산력사가로서, 문인으로서의 그의 한없는 그리움과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있었다.

그는 동북에서의 복잡다단한 사업속에서도 시대와 력사앞에 자기스스로 걸머진 사명감과 책임감을 어느 한시도 잊어본적이 없었다. 자기에게 차례지는 유일한 휴식시간인 밤시간마다 그는 조국에서 메고 온 자료배낭을 풀어놓고 전반적인 련관속에서 다시금 연구분석하군 하였으며 자기가 써야 할 력사문헌의 구성체계를 잡아나가군 하였다.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조선이 어떻게 해방되였으며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도록 이끄신분이 누구이시고 장군님의 령도밑에 조선의 혁명가들이 벌린 항일전쟁이 얼마나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이였는가 하는것을 정확히 알고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려는 그의 사색과 노력은 정말 불면불휴의것이였다.

자료가 불충분하고 비정확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시간을 내서라도 항일무장투쟁자료를 수집해나갔다. 그는 괴뢰《만주국》시대의 연길경찰서와 감옥, 룡정경찰서, 령사관 등 일제가 차지하고있던 기관들을 뒤져서 반증자료들을 찾아냈으며 한편으로는 항일혁명투쟁참가자들과 조국광복회를 비롯한 지하혁명조직에 망라되여 활동하던 사람들, 그밖에 항일혁명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성원한 군중을 상대로 하여 자료를 광범히 수집하였다. 그가 찾아낸 자료들가운데는 항일투사들이 쓴 일기, 쪽지편지로부터 시작하여 관동군정보부장이 가지고있던 기밀문건 등에 이르기까지 귀중한것들이 많았다. 일제시기의 어느 한 기관의 지하실에서는 놈들이 만든 《동만공산비적책》이 30여권이나 발견되였는데 거기에는 항일빨찌산들의 사진도 붙어있었다.

림춘추에게는 그 모든것이 무엇보다 더 귀중한것이였으며 다른 그 어떤 성과에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성과였다. 이것은 그를 더없이 흥분시켰으며 그 흥분은 최근시기에 와서 매일 매 시각 붓을 들고싶은 충동으로 번져갔다. 구성은 머리속에서 다 무르익었으며 그는 이미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라고 앞으로 집필할 저서의 제목을 큼직하게 써놓았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래년부터는 책의 저술을 시작할 결심이였다. 그럴수록 그에게 있어서 더욱 강렬해지는것은 조국에 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였다. 자기 글의 주인공이신

김일성동지의 모습과 숨결을 늘 곁에서 보고 느끼면서 붓을 들고싶었다. 그리고 위대한 항일혁명투쟁사에 이어 반드시 써야 할 새 조국건설사의 증견자가 되고싶었다. 이런 념원과 열망으로 하여 그는 **김일성**동지께 삼가 자기의 소환요청을 담은 편지를 보내였던것이다.

물론 그의 동북사업에서 아직 발목을 부여잡는 문제들이 적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제일 가슴에 맺히는것은 김정숙동지의 일가친척들을 찾지 못한것이였다. 림춘추로서는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좀처럼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많은 고장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행방을 찾을 길이 전혀 없었다.

이제 조국에 돌아가면 김정숙동지께 뭐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인가.

아니, 그분께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을것이다. 오히려 누가 그런 일에 시간을 헛되이 랑비하랬느냐고 나무람하실것이다. 하지만 일찌기 부암동시절부터 김정숙동지와 또 그분의 일가친척들과도 인연이 깊었던 오랜 전우인 이 림춘추가 무슨 면목으로 그이를 대한단 말인가. 동지들의 자식들과 부모형제들을 찾아주시기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는 김정숙동지이시지만 그이라고 어찌 일가친척들을 찾고싶은 생각이 없으시겠는가. 애써 참으실것이다. 정말이지 김정숙동지께 혈육의 상봉을 마련해드릴 방도가 이제 더는 없단 말인가.

×

1948년 8월말 림춘추는 **김일성**동지로부터 기다리고기다리던 회답편지를 받았다.

편지의 내용은 그가 기대하던바와는 전혀 다른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그가 수많은 혁명가유자녀들을 찾아 조국으로 보내준데 대하여 치하하시고나서 고급모포들을 받고보니 모포 한장으로 같이 덮고자면서 생사운명을 함께 하던 빨찌산시절이 생각났다고 편지에 쓰시였다. 그러시면서 그가 보낸 고급모포들을 모두 만경대혁명학원에 보내준데 대해서와 학원학생들이 간리림시교사로부터 만경대의 새 교사로 이사를 끝내고 새 학기부터 만경대에서 공부를 하게 된 소식을 알려주시고나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조국에 나와서 사업하고싶다는 동무의 심정을 리해합니다. 사실 나도 동무를 인차 소환하자고 하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의도대로 원만히 사업할수 있는 사람은 그곳 실정을 잘 알고있는 춘추동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유일한 합법적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됩니다. 동무는 동북지방의 전체 조선동포들이 새 조선의 당당한 해외공민이라는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 건국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해방된 지역에서의 새 생활 창조를 위한 중국인민들의 투쟁을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의 불길속에서 맺어진 조중인민간의 전투적우의와 친선관계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춘추동무, 동북에서 동무가 할일이 아직 많습니다. 혁명가유자녀들을 찾는 사업은 의연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혁명가유자녀들을 찾는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여야 합니다. 중국동북지방에는 아직도 남의 집에서 살거나 떠돌아다니는 유자녀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사방에 흩어져있는 유자녀들을 빠짐없이 찾아낸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제 자식을 찾는 심정으로 애써 노력하면 그들을 다 찾을수 있을것입니다. 기일이 좀 걸리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혁명가유자녀들을 마지막 한사람까지 다 찾아서 조국으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춘추동무, 오랜 기간 조국을 떠나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무에게 계속 남아있으라고 하는 나의 마음도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나는 자기 친자식을 찾는 일도 다 뒤로 미루고 희생된 전우들의 자녀들부터 찾아나섰을뿐아니라 우리 동포들의 생활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 투쟁하는 동무를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무의 아들 영일이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아도 되겠습니다. 쏘련동무들로부터 까자흐스딴에서 영일이를 비롯한 혁명전우들의 12명 자식들을 맡아키우고 있는 리용구, 고현숙부부의 행처를 찾아내였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쏘련동무들은 앞으로 국교관계가 수립되면 그들을 우리의 요구대

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춘추동무도 그래, 고현숙, 리용구동무들도 그래 우리 혁명의 미래를 위해 바치는 그 숭고하고도 깨끗한 량심과 동지적의리심은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기억하게 될것입니다. …》

림춘추는 건강에 각별히 류의하라는 편지의 마지막글줄을 채 읽을수 없었다.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쏟아져내렸다.

장군님께서 그동안 영일이문제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쓰시였으며 자기에게 아들을 찾아주시기 위해 얼마나 남모르는 로고를 바치셨겠는가가 가슴사무치도록 안겨왔던것이다. 비록 편지에는 그런 내용이 한마디도 적혀있지 않았지만 유자녀들을 찾기 위해 애써온 림춘추로서는 그런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것인가를 충분히 가늠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감사의 정에 뒤이어 송구스러움과 죄스러움이 갈마들었다.

장군님께서 그토록 높이 평가하여주신 그 깨끗한 량심과 동지적의리심이 정말 나에게 있었는가 하는 스스로의 질책이 머리를 들수 없게 했다. 장군님께서는 잃어버린 제 자식을 찾는 심정으로 유자녀들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다 찾았다고 벌써 만세를 부르고있지 않았는가. 이제 보면 나의 그 의리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은연중 이쯤하면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마치 의리심을 그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것처럼 생각하는…

멀었어! 아직 너무도 멀었어! 장군님의 그 무한대한 동지적사랑과 의리에 비해볼 때 나는 하늘과 땅처럼 너무도 먼거리에 서있어.

장군님께서 나의 편지를 받아보시고 얼마나 생각이 많으셨으랴.

그러심에도 이 불충한 전사를 탓하실 대신 오히려 미안해하시고 치하해주시며 육친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어찌 송구스럽고 죄스럽지 않으랴. 정말 멀었어! 장군님의 그 무한하고 위대한 세계를 글로 옮기기에는 나의 충정과 의식이 너무도 부족하고 미약한것이였어!…

림춘추는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기억하여야 할 그런 숭고하고도 깨끗한 량심과 동지적의리심은 오직 **김일성**동지께서만이 지니고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북에서의 혁명가유자녀들을 찾는 사업도 또 동포들을 위한 모든 일도 다 장군님의 그 크나큰 세계에서만 시작되고 이룩될수 있은것이였다. 아니, 조선혁명의 진로자체가 그 세계에서 개척되였고 전진해왔으며 머지않아 실현될 건국위업도 다 그렇게 이룩될것이였다.

이런 확신이 드는 순간 림춘추는 자신이 비록 조국을 멀리 떠나있지만 장군님의 품에서는 단 한치도 떨어져있지 않으며 이국의 현실속에서 숨쉬고있지만 언제나 거창하게 태동하는 새 조국의 숨결을 몸으로 직접 느끼고있는듯싶어졌다.

그는 또다시 그 무엇인가를 쓰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것이 아직 무엇인지는 딱히 알수 없었지만 이제 자기가 써야 할 우리 조선혁명의 력사,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중심적이며 가장 항구적인 그 무엇에 대한 환희의 충동임은 분명히 느꼈다.

바로 그 무엇을 력사앞에 밝히고싶은 벅찬 흥분으로 하여 림춘추는 온밤 잠들수 없었다. …

10

《따르릉―》

《따르릉―》

수업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전기종소리가 만경대의 새 교사에서 경쾌하게 울려퍼졌다. 공부를 마친 학원학생들이 《와―》 하고 운동장으로 달려나와 즐겁게 뛰여놀기 시작했다.

교수참관을 마치신 **김일성**동지께서도 천천히 교실문을 나서시였다.

얼마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동안 너무도 바쁘시여 미처 시간을 내지 못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새 교사에서 수업을 시작한 학원아이들이 보고싶어 나오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함께 교수참관을 하고 나오는 리종익원장에게 물으시였다.

《그래 이제부터는 무슨 시간입니까?》

《간식시간입니다. 식당에서 빵, 사과, 과자를 비롯한 간식들을 먹습니다.》

《좋구만.》

그이께서는 만족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마음같아서는 식당에 가시여 간식을 먹기 시작했을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고싶으셨지만 그 애들에게 방해가 될것 같아 생각을 단념하시였다.

《원장선생, 학원아이들의 생일은 어떻게 해줍니까? 간리에 있을때처럼 쇠줍니까?》

《예, 꼭꼭 차려줍니다.》

《이젠 학생들이 많아 생일이 매일 있겠구만요.》

《예, 하루도 번지는 날이 없습니다.》

《그럴겁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

《혼자 생일음식상을 받으면 아마 옆의 동무들이 목에 걸려 마음껏 먹지 못할겁니다. 내 생각에는 한주일에 한번씩 날을 정하여 그 주일에 생일이 있는 아이들을 따로 모여앉히고 생일을 쇠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실적마다 꼭꼭 신통하신 방안들을…》

리종익이 생일쇠는 방을 따로 꾸리겠다고 말씀올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렇게 하자고 하시며 본관문을 나서시였다.

운동장에서 뛰여놀던 아이들은 이미 간식을 먹으러 식당으로 들어가고 밖은 조용하였다. 그이께서는 운동장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며 원장을 돌아보시였다.

《오늘 교수참관을 하면서 보니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간것이 알립니다. 그런데 실험들을 한방에서 진행하게 하는것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큰 교사에 방도 많은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실험실들을 한방에 합쳐놓지 말고 물리실험실, 화학실험실 그리고 생물표본실을 따로따로 크게 잘 꾸려야 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리종익이 나란히 걸을수 있게 걸음을 멈추시였다가 다시 천천히 발길을 떼시였다.

《실험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공장과 농촌을 많이 견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배운 지식을 더 잘 익힐수 있고 쓸모있는 산지식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교수과정안을 더 따져보고 실험실습시간을 더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수첩에 적어넣느라 원장의 걸음이 또 떠지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더러 적느라고 그러지 말고 함께 이야기나 하자고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일전에 학원교기를 만들어온것을 보았는데 인민군대의 군기형식으로 한것이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기발이 좀 작은감이 들더군요.》

《저… 학원이 군부대가 아니기때문에 군기보다는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같습니다. 원장선생, 학원교기에는 혁명가유자녀들이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갈데 대한 우리 당과 정부의 크나큰 신임과 혈육의 정이 깃들어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크고 또 그들의 포부도 큰것만큼 교기의 크기를 군기만 하게 해줍시다. 학원교기는 학원준공식때 의의가 있게 수여하려고 합니다.》

리종익은 또 수첩에 부지런히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적었다.

그러다가 그이의 눈길과 마주치자 면구스러운 빛을 지으며 《이젠 나이가 있다보니…》하며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어린 눈길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시였다.

왜 나이때문에 그런다고 하랴. 그의 높은 책임감과 고정한 인간미때문이 아니겠는가. 그에 대한 믿음이 다시금 젖어오시였다.

《원장선생, 교기는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원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학원이 훌륭한 제 집을 가졌는데 자기 기발과 함께 자기의 노래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치부원장동무가 책임지고 재능있는 문학교원들과 음악교원들을 망라하여 원가창작을 하고있습니다. 아마 창작이 쉽지 않은가봅니다.》

《그럴겁니다. 나도 혁명투쟁만 아니였더라면 작가가 되려고 생각

했던 사람인데 더러 글을 써보니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작품을 창작한다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원가를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짓느라 그러지 말고 학생들과도 의논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학원학생들이 부를 노래인데 그 애들의 심정이 담겨져야 할것이 아닙니까.》

이야기를 나누시며 걷다보니 어느 사이에 운동장 한끝에 이르시였다.

운동장앞으로는 만경봉이 보이고 옆으로는 논벌이 펼쳐져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누렇게 잘 익은 벼이삭들이 고개를 숙이고 서있는 논판을 바라보시다가 문득 원장에게 말씀하시였다.

《벼가을을 해놓으면 논판이 꽤 널직하겠구만.》

그이께서 무엇때문에 논판의 넓이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알수 없었던 원장이 그 평수를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만족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겨울에는 저 논판에 양수기로 물을 퍼넣어 스케트장을 만들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예? 스케트장…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때에야 스케트와 썰매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논판이니 사고위험성도 없을겁니다.》

리종익은 환하게 웃으시는 그이의 모습을 뜨겁게 우러렀다. 어쩌면 이렇듯 걸음걸음, 마디마디 아이들을 위한 사랑과 보살피심으로 일관되여계시는가! 아직 더위도 채 사라지지 않은 이 가을날에 벌써 겨울에 스케트타기와 썰매놀이를 하고싶어할 아이들의 속마음까지 다 헤아려보시니 이 세상에 과연 이런 천품을 지니신 위인이 또 어디 있겠는가!…

리종익이 후더워오르는 가슴을 애써 누르며 섰는데 **김일성**동지께서 갑자기 《아니, 저기서 웬 연기가 납니까?》 하고 놀라시였다.

아닌게아니라 앞에 보이는 만경봉기슭에서 연기가 피여오르고 있었다.

《혹시 산불이 난게 아닙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음이 급해지시여 다급히 그쪽으로 달려가

시였다.
원장도 헐떡거리며 그이의 뒤를 따라섰다. 산굽이를 돌아서니 불길과 연기가 어우러진 사이로 두세명의 아이들모습이 눈에 띄였다. 얼핏 보기에도 학원복을 입은 학생들이라는것이 알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것만 같아 불안한 마음으로 먼저 소리치시였다.
《애들아! 무슨 일이냐?》
연기발사이로 울려오는 뜻밖의 목소리에 아이들이 후다닥 놀라 무작정 달아났다.
김일성동지께서 그곳에 다가가시였을 때에는 한 아이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그냥 서있었다.
살펴보니 산불은 아니고 아이들이 한창 밤청대를 하느라고 피워놓은 불이였다. 마음이 놓이시였다. 허거픈 웃음이 나오시였다.
《아니, 장군님!》
그제서야 설펴진 연기속에서 그이의 모습을 알아본 학생이 닁큼닁큼 다가왔다. 그러더니 제법 거수경례까지 붙이며 보고했다.
《장군님! 학생 김백산 밤청대를 하고있습니다.》
《음, 백산이 이녀석! 너였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시다가 그의 당돌한 모습을 보고는 그만 참지 못하시고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하하… 다른 녀석들은 달아났는데도 그냥 뻗치고 있는걸 보니 우리 백산이가 담이 있어. 사내답거던!》
《장군님!－》
어느새 장군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달아났던 아이들이 되돌아왔다.
《도주병들이 누군가 했더니 송봉이와 창완이였구나. 사내녀석들이 달아나긴 왜 달아나?!》
그이께서는 여전히 웃음을 머금으시고 말씀하시였다.
《우린 정치부원장선생님인줄 알았습니다.》
《만경봉에서 불을 피우면 욕먹습니다.》
송봉이와 창완이가 머리를 수그리며 대답했다. 그때에야 리종익원

장이 숨을 톺으며 다가왔다. 그도 때아닌 연기의 진상을 첫눈에 알아본듯 혀를 찼다.

《다리부러진 노루 한곬에 모인다더니 우리 학원의 애군들이 여기다 있구나. 허허… 원, 녀석들두, 먹으라는 간식은 안 먹구 여기서 밤청대를 하고있어?!》

원장을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는 학생들은 머리만 수그린채 시물시물 웃고있다.

이때 다 익어 벌어진 밤송이들에서 《탁! 탁!…》하며 밤알들이 튀기 시작하였다. 그 소리에 원장이 와뜰 놀랐다. 아이들이 입을 싸쥐고 키득거렸다.

김일성동지께서도 웃으시였다.

《자, 원장선생! 밤들이 어서 우릴 먹어주십사 하고있는데 욕은 그만하지요.》

그이께서는 껍질이 툭 터진 밤알을 아이들에게 쥐여주시였다.

《자, 어서 먹어라. 기껏 해놓은 밤청대인데 우선 먹어야지. 욕은 그다음에 먹기로 하구…》

아이들은 그이께서 차례차례 손에 쥐여주는 밤을 받아쥐고 서로 흘끔흘끔 바라보기만 했다.

《왜? 먹질 않니?》

김일성동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야 송봉이 주밋거리며 대답했다.

《저… 사실은 우리가 먹자구 그런건 아니구 특별반의 꼬마들속에 밤청대를 못 먹어봤다는 애들이 많길래…》

《오, 그러니 동생들한테 가져다주자고 밤청대를 하댔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의 기특한 마음을 대번에 깨달으시였다.

원장의 얼굴에도 대견해하는 빛이 력력히 어리였다.

《글쎄, 우리 창완이나 송봉이가 그러면 그렇겠지… 용타! 백산이는 이 애들보다 나이가 더 어리겠는데 정말 용타. 동무들을 생각하는 너희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이께서는 마음이 훈훈해오시였다.

이 애들이 이젠 다 자랐구나 하는 대견함과 기쁨이 그득히 차오르

시였다. 그이께서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시였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을 왜 너희들끼리만 하느냐. 원장선생님에게 말씀드려서 저기 운동장같은데서 판을 크게 벌리면 더 좋지 않겠니?! 그러면 만경봉에 산불이 날 위험도 없고 또 오늘처럼 너희들이 간식시간에 빠지는 일도 없을게 아니냐.》
그러시면서 원장에게 이번 휴식일에 밤을 털어서 더러 밤청대를 해먹이는게 좋을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올렸다.
《자, 이건 너희들의 소중한 마음이 깃든것이니 어서 다 모아서 동무들에게 가져다주거라.》
그이께서는 불이 다 죽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고나서 원장과 함께 걸음을 옮기시였다. 몇걸음 채 옮기기도 전에 《장군님!ㅡ》 하고 부르며 백산이가 뒤쫓아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두줌이 벌어지게 밤을 쥐고 달려오는 그를 돌아보시였다.
《장군님, 이걸, 이 밤을 우리 어머님께 전해주십시오.》
《응?》
《잘 익은걸루 골랐는데 김정숙어머님께 맛보이고싶어 그럽니다. 송봉형과 창완형도 같은 심정입니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찌르르ㅡ 전류같은것이 온몸으로 흐름을 느끼시였다.
달아난 백산이를 찾기 위해 한겨울의 추위속에서 정숙동무가 고생하며 뛰여다니더니 이 애가 그 고마운 정을 못 잊어 그런다는것을 그이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계시였던것이다. 왜서인지 백산이와 저 애들의 소박하고 깨끗한 진정을 무시하고싶지 않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원 이녀석아, 장군님께서 그 험한걸 어디 들고가신단 말이냐?!》 하는 리종익의 핀잔을 만류하시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시였다. 그리고 손수건을 벌려 밤알들을 담으시였다.
《고맙다. 백산이가 보내는 밤이라고 하면 어머니가 아마 맛있게

들게다.》

백산이의 얼굴에 함박꽃같은 미소가 활짝 피여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어린 마음에 믿음을 보태주고싶으시여 손수건에 담은 밤을 양복저고리 옆주머니에 우정 넣어보이시였다. 주머니가 불룩해졌다.

백산이가 싱글벙글하며 동무들이 있는쪽으로 껑충껑충 뛰여갔다. 그곳에서 송봉이와 창완이가 백산이를 둘러싸고 좋아서 환성을 지르는 모습이 보였다.

리종익원장이 껄껄 웃으며 그이께 말씀드렸다.

《장군님, 어서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들고가서 운전사동무에게 주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시였다.

《일없습니다. 우리 애들의 부탁인데 좀 불편스럽더라도 내가 직접 전해줘야지요.》

《저녀석들이 저렇게 엉큼하답니다. 아마 장군님과 녀사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얼마나 마음을 쓰고계시는가를 어린 마음에도 다 느끼는가봅니다. 하기야 정에는 정으로 통하는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11

썼다가는 지우고 다시 썼다가는 또 지우고…

춘희는 교원실에 홀로 앉아 학원원가의 가사창작을 위해 모지름을 쓰고있었다.

며칠전 정치부원장이 《자, 이제는 원가창작을 위한 협의는 할만큼 했으니 빨리 창작에 들어가야겠소!》 하며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아무래도 주필은 매일 밤 시를 쓴다는 춘희선생이 말아야겠다고 정식 위임했던것이다.

물어보나마나 차영진이 끝내 그에게 귀띔한것이 틀림없었다.

그 마음이 고맙기도 하였지만 한편 야속스럽기도 하였다. 그처럼

중요한 일을 전적으로 맡아안았다가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인가. 아니, 망신이 문제가 아니였다. 학원을 대표하는 그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노래창작을 망쳐놓게 된다면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가.

남의 속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지금껏 학원에 와서 체험한 자신의 감정을 터쳐보고싶은 그 어떤 창작적충동은 누를길 없었다.

사실 원가를 지어보지 않겠느냐는 차영진의 권고를 여러차례 들으면서 그는 남몰래 은근히 생각을 많이 해왔었다. 학원이라고 하는 이 크나큰 사랑의 집, 그 집에서 마음껏 뛰여놀며 배우는 백산이와 같은 유자녀들의 행복한 모습… 그 품, 그 모습이 어떻게 마련된것인가를 그는 너무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며 가사를 몇편 써보기도 하였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어 영진에게조차 말하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부끄러워서라기보다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다.

지금까지 많은 경우 목가적인 시세계에 빠져있어 그런지 절절한 감정은 있으되 격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학원학생들이 대렬행진을 하면서도 부를수 있는 원가라고 놓고볼 때 시의 양상이 너무도 잔잔했다. 더우기 간리림시교사에서 만경대의 새 교사로 옮겨와 수업을 시작한 다음부터는 노래가사에 새로운 감정, 새로운 느낌이 담겨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 강렬하게 들었다.

《만경대의 송림초목, 푸르른 대동강!… 어쨌든 난 우리 학원의 노래에 만경대의 모습이 꼭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오. 우리 학원이야 다름아닌 만경대의 학원이 아니요.》

언제인가 차영진이 열정에 넘쳐 하던 그 말이 요즈음 자주 때없이 춘희의 귀가에서 울리군 했다. 두려웠다. 자기가 과연 영진의 기대에 맞는 아니, 모든 학원학생들의 심정에 맞는 그런 글을 써낼수 있을가 하는 위구심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조직적인 과업으로 정식 맡아안게 된것이였다.

남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은 영진을 원망도 해보았으나 그 어떤 반발심으로 하여 다시금 새로운 창작

을 시작하였다.

패씸한것은 영진이 그렇게 해놓고는 한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는것이였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시치미를 떼고 못 본척 하며 지나갔다. 처녀의 가슴에 폭탄선언(물론 춘희에게는 아직까지도 봄날에 한 그 말이 사랑의 고백이였다고 믿어지지는 않았지만)을 던진 그날부터 영진은 두번다시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의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만 아니였더라면 춘희는 자기가 마치 꿈속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했을것이였다.

(그 자존심! 어깨에 별을 달았다고 저만 똑 제일인가 하는가부지. 흥, 누구에겐 자존심이 없나?!…)

《똑 똑 똑…》

교원실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어 누군가가 불쑥 들어섰다. 차영진이였다.

《어마나.》

춘희는 하마트면 큰소리로 울려나올번 한 놀라움을 가까스로 삼켜버렸다.

《왜 그렇게 놀라오? 범이라도 본 사람처럼…》

차영진이 사뭇 의아스러운 눈길을 던졌다.

정말 범이 제소리하면 온다더니 어쩌면…

춘희에게는 그가 마치 방금전의 자기 속생각을 다 엿보고 들어선것처럼 여겨져 귀뿌리가 빨개졌다.

《아무것도… 아니예요.》

춘희는 얼굴을 붉히며 혀아래소리로 대답했다. 왜서인지 그와 마주서면 당황해지고 용기를 잃어버린다. 가슴속에 총알처럼 다져놓은 말마디들도 불발탄처럼 한마디도 튀여나오지 않는다. 아니, 애초에 할말이 없어지고만다.

왜 이럴가, 왜 이럴가. …

《벌써 창작을 시작했구만.》

영진이 그가 썼다지웠다 해놓은 종이장들을 넘겨다보며 싱긋이 미소를 지었다. 춘희는 얼른 손바닥으로 그것을 가리워버렸다.

《하하… 아직 볼수 없다는거군. 야, 나도 춘희동무처럼 시쓰는 재

간이 있었더라면 이런 수골 하지 않는건데… 하긴 창작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거라더군.》
이렇게 말하며 영진은 책상우에 빨갛게 익은 큼직한 사과 세알을 슬며시 올려놓았다.
춘희는 심장이 후두둑 뛰였다. 얼굴이 그 사과알들보다 더 빨갛게 달아올랐다. 사나이의 그 소박한 정이 처녀의 가슴에 꽉 차버렸던것이다. 녀자의 가슴은 그렇게 작고 여린것인지…
《고마워요!…》
춘희의 그윽한 눈빛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영진의 얼굴에 닿는 순간 마치 그 무엇에 찔리운 사람처럼 흠칫한다. 눈길이 허둥거린다.
《난 사실… 저…》
영진의 주눅이 든 목소리…
《난 춘희동무에게 꼭 훌륭한 원가를 지어 장군님과 녀사님께 기쁨을 드려달라는… 부탁을 하자고 왔소. 학원의 노래야말로 춘희동무나 나나 아니, 우리 아이들모두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참다운 삶을 누리고있는 자신들의 그 심정을 담을수 있는것이 아니겠소. 부탁이요!》
비로소 그의 눈길이 춘희의 얼굴에 곧바로 와닿는다.
불이 이는듯 한 뜨거운 그 눈길이…
춘희는 입술을 감빨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의 부탁이 자꾸만 가슴에 쿵쿵 울려와 저도 모르게 두손을 가슴에 지그시 얹었다.
이때 문밖에서 인기척소리가 들리더니 리진영정치부원장이 방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그 무슨 종이묶음이 두툼하게 들려져있었다.
《아니, 영진동문 왜 밤중에 여기와서 춘희선생을 방해하는거요? 안되겠소. 문밖에 무장보초를 세우던가 해야지…》
정치부원장이 웃음이 비낀 얼굴로 롱말처럼 했다.
《전 사실…》
《원가창작이 끝나면 춘희선생 만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주겠으니 지금은 제발 방해하지 마오. 안 그렇소? 춘희선생!》

《아이참, 정치부원장동지두…》
《하하… 자, 이걸 받소.》
그가 들고온 종이묶음을 춘희의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아니, 이건 뭡니까?》
춘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우리 학생들이 지은 느낌글들이요. 말하자면 학원에 와서 생활하면서 느낀 심정들을 적은것이란 말이요.》
《예?》
《내 오늘 학생들의 느낌글짓기모임을 조직했더랬소. 모든 학생들이 다 쓰도록 하였는데 채점도 하는겸 내 먼저 읽어보고 거기서 춘희선생에게 꼭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되는것들을 골라서 가져오는 길이요.》
《챠, 그러니 이걸 보면 우리 아이들의 심정을 다 알수 있겠구만요.》
영진이 정치부원장을 바라보며 환성을 질렀다.
정치부원장은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이지 난 지금껏 그 애들의 심정을 다 안다고 생각해왔었는데 이 글들을 보니 그게 아니더란 말이요. 얼마나 진실하고 생동한지 또 엉뚱하기도 하구… 장군님께서 왜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그러지 말고 학원아이들의 심정도 들어보라고 하셨는지 정말 생각되는바가 많소.》
《고맙습니다, 정치부원장동지!》
춘희는 그의 뜻밖의 방조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서 한번 읽어보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여기서 살고있는가를 잘 알게 될거요. 그 심정이 담겨진 노래야말로 명실공히 우리 학원의 원가가 아니겠소.》
정치부원장은 이렇게 당부하고나서 영진에게 말했다.
《자, 우린 물러가기요. 보라구, 춘희선생얼굴에 동물 시끄러워하는 빛이 어려있지 않나.》
그는 춘희쪽을 바라보며 한눈을 끔뻑해보였다.
《예, 나도 그걸 이미 느꼈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정치부원

장동지도 빨리 나갑시다.》

《하하…》

그들은 서로 밀고 밀리우며 문밖으로 나갔다.

방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웃음을 머금고 그들이 사라진 출입문쪽을 잠시 바라보고섰던 춘희는 정치부원장이 놓고간 학생들의 느낌글을 한장한장 읽어나가기 시작하였다. 길게 쓴 글도 있었고 짧게 쓴 글도 있었다. 어떤것은 결의만 써놓은것도 있었다.

춘희는 학원아이들의 진실하고 생동한 마음이 비낀 구절구절들을 가슴에 새기며 읽어나갔다.

《…우리 학원은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숙어머님의 품입니다. 그 품에 안겨 너도나도 행복한 우리들은 모두 친형제입니다. 정말 우리 학원처럼 자랑높고 긍지높은 학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

《…만경대의 새 교사에서 공부를 하니 공부가 더 잘되는것 같아요. **김일성**장군님께서 탄생하시고 어린시절을 보내신 고향집이 있고 나라찾을 큰뜻을 품으시고 군사놀이를 하시던 사연깊은 만경봉이 있는 만경대! 푸르른 소나무의 설레임소리도 흘러가는 대동강의 물결도 그날의 이야기를 전하여주며 날보고 공부를 잘하라고 속삭여주는것만 같아요. 장군님께서 날마다 지켜보시는것만 같아요. …》

《…만경대의 교실에 앉아 글줄을 읽어나갈 때면 저도 모르게 여기가 만경대가 아니라 저 백두산이나 만주의 광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장군님을 모시고 싸운 항일의 그 싸움터! 바로 그 뜻을 배우라고, 그 뜻을 안고살라고 장군님께서 여기 만경대에 훌륭한 우리 학원을 일떠세워주시고 온갖 사랑을 다 돌려주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

《…우리는 만경대의 품에 안겨 다시 태여난 만경대의 아들딸들이다. 만경대가문의 자손들은 모두 고향집사립문을 나서 나라찾는 싸움의 길, 애국의 길을 걸으시였다. 만경대의 아들인 나도 그분들의 뒤를 따라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혁명의 한길로 걸어갈것이다. 아버지처럼, 선렬들처럼!…》

춘희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격정이 솟구쳐올랐다.

학생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여있는 긍지로움, 깨끗함, 억세임, 웅심, 맹세… 그 모든 감정이 얼마나 진실하면서도 구체적인가. 그들은 장군님의 고마움에 눈물만 짓고있지 않았다. 그들은 만경봉의 솔바람소리도, 대동강의 물결소리도 다 장군님을 잊지 말고 장군님처럼 살라는 조국의 당부로 듣고있으며 배움의 글발마다에서조차 장군님의 애국의 정신을 새겨안고 장군님의 뒤를 따라 혁명의 선렬들처럼 싸워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고있었다. 자기에게는 바로 그러한 의지가 없었다. 그러한 맹세가 없었다. 그러니 잔잔한 세계밖에 창조되지 못하였던것이다. 감격의 절절함만으로는 천만사람들의 격정과 격조를 다 담을수 없었던것이다.

불쑥 우리 학원의 노래에 만경대의 모습이 꼭 있어야 한다던 차영진의 그 말이 다시금 울려왔다.

만경대의 모습… 만경대의 모습…

언제인가 교무부장 허상봉선생도 그런 말을 한적이 있지 않았던가. 그때 그 선생이 제가 쓴 가사를 들고 흥분하여 달려왔던 일이 생각났다.

물론 춘희자신도 만경대혁명학원의 노래인것만큼 만경대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온것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이 순간 춘희에게는 그 만경대의 모습이 단순히 만경대의 그 어떤 자연의 모습이 아니였음을 절감하였다.

아이들의 마음에 비낀 만경대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있지 않는가!

아이들의 마음에 비낀 우리 학원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어쩐지 아이들의 그 마음이 자기의 심장 가까이로 다가오는듯싶어졌다. 아니, 아이들의 그 마음속으로 자신의 심장이 풍덩 빠져드는듯싶어졌다. 용암이 끓듯 가슴속에서 그 무엇인가가 세차게 끓었다.

그는 참을수 없는 흥분으로 하여 두눈을 감았다. 문학소녀시절처럼 눈만 감으면 늘 귀전에서 울리군 하던 그 어떤 시구절이 멀리에서 간간이 울리여왔다.

무엇일가? 《님의 침묵》의 한 시구절일가?…

아니였다. 그것이 아니였다. 춘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자리잡고 있던 《님의 침묵》은 이미 침묵을 깨치고 강렬한 웨침을 세상에 대고 터치고있었다. 그는 두눈을 번쩍 떴다. 먼곳에서 울리던 시구절이 가까이에서, 그의 심장속에서 울렸던것이다.

가볍게 떨리는 손을 흰 종이우에 올려놓았다.

그는 다만 그 심장의 목소리를 글로 적어나갔다. …

만경대 송림초목 우리 장군 지니여 푸르고
대동강 쪼각배 력사싣고 감돈다
아 경개절승 장군 나신 터전에
장엄토다 우뚝 솟은 만경대 우리 학원

투사들이 남긴 뜻 꿈속깊이 맺히고
시간마다 읽는 줄엔 백두산숲 어리고
글자 쓰는 붓끝에는 설달만주 눈보라친다
아 애국렬사 고이 잠든 우리 학원

조국광복 페지마다 선렬들이 빛나고
민주건국 새 마당에 우리 갈길 찬란하다
나아가자 동무들아 장군님 기치들고
선렬들이 걸어온 싸움터로 나가자

춘희는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영진동무! 원가를 지었어요. 아니,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이 끝내 우리 학원의 노래를 만들어냈어요!…)

12

오늘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와 함께 또다시 만경대로 나오시였다. 이제 며칠 안있어 진행하게 될 학원교사준공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였다. 내각부수상 김책이 동행하였다.

《전번에 김책동무가 허형식의 고향이 경상북도 선산군이라고 하였기에 남조선의 반일운동자구제위원회에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더니 그의 어머니와 안해, 아들딸들이 서울에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서울에… 말입니까?》

《예, 속담에 업은 아이 3년 찾는다더니 허형식의 가족이 서울에 있는것도 모르고 북만에서만 찾았으니… 딸이 15살이고 아들이 13살이라니 그들을 허형식의 로모와 안해와 함께 빨리 평양으로 데려다가 잘 돌봐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다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시키도록 합시다. 인차 사람을 서울에 보냅시다.》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은 허형식의 가족을 찾는 일은 제가 더 관심했어야 할 일인데…》

《김책동무가 그들의 행처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걸 나도 다 압니다. 북만에서 10여년 동안이나 함께 싸운 혁명전우가 아니였습니까!》

《고맙습니다, 장군님.》

승용차는 벌써 만경대입구에 들어서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밝은 눈길로 김책을 바라보시였다.

《좋은 소식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박달동무가 소식을 보내여왔는데 글쎄 권영벽동무의 아들이 자기 집에 와있답니다.》

《아니, 권영벽동무의 아들이 말입니까?》

김책의 얼굴이 다시금 환해졌다.

《청진에 숨어살다가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불쑥 자기를 찾아왔더랍니다. 인차 만경대혁명학원으로 보내겠답니다. 이젠 됐습니다. 권영벽동무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대를 잇게 되였습니다. 우리가 권영벽동무를 대신하여 그 애를 훌륭하게 키워줍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흐뭇하신 마음으로 좌석등받이에 한껏 몸을 젖히시였다.

《그 애들의 소식을 듣고나니 만경대의 새 교사를 더 훌륭하게 꾸

려주어야겠다는 생각에 못 견디겠습니다.》

현지에 도착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소장 림춘석을 비롯한 학원건설사업소 일군들을 부르시여 다시한번 그들의 로력적성과를 높이 치하하신 다음 준공식전까지 운동장을 더 깨끗하게 정리하고 아직 널려져있는 건설자재들을 빨리 치울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교사 2층에 있는 체육관과 기숙사 4층에 꾸려놓은 도서관을 돌아보시였다.

그러신 다음 보이라와 교직원사택마을을 돌아보시고 교직원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리종익원장으로부터 장군님의 말씀대로 나무침대들을 모두 철침대로 교체하여놓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럼 기숙사로 가보자고 하시며 걸음을 옮기시였다.

《아무리 나라에 철사정이 긴장하여도 학원아이들에게 나무침대를 놓아줄수야 없지요. 아이들의것은 무엇이나 다 우선 든든해야 합니다. 그런데 철침대가 돼서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이께서 물으시자 원장이 빙긋이 웃으며 대답올렸다.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침대를 철관으로 만들어왔습니다. 들고 옮기기도 가볍고 편리해서 다들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이께서는 원장이 안내해드리는대로 기숙사의 첫방에 들어가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도 김책과 함께 들어가시였다.

《음, 모양있게 잘 만들었구만. 높이도 이만하면 아이들에게 적당하겠소.》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와 김책을 바라보시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으시였다.

《예, 아이들이 오르내리기에 알맞춤한것 같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 침대곁에 다가가 높이를 가늠해보시고나서 말씀드렸다.

《그런데… 침대를 개별적으로 벌려놓아 아이들이 잠을 자다가 떨어지거나 이불을 차버려 떨굴수 있을것 같습니다.》

《정숙동무의 말이 옳소. 아이들이야 갈개자는 버릇이 있지 않소. 원장선생, 침대를 벌려놓지 말고 몇개씩 붙여놓읍시다. 한 세개정도씩 말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원장의 얼굴을 바라보시였다.

《저희들이 그런 생각까지 미처…》

《원장선생, 부끄러워할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장군님과 정숙동무가 아니시면 누구도 못하는거니까요. 나나 원장선생은 어림도 없습니다, 하하…》

김책이 껄껄 웃으며 리종익에게 하는 말이였다.

《정말 그 말이 옳은것 같습니다.》

리종익원장도 진심어린 목소리로 김책의 말에 수긍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 침대우에 걸터앉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좀 힘을 주어 우아래로 흔들어보시였다.

《그만하면 아이들이 이 우에서 춤을 춰도 견디여 내겠습니다. 그런데 철침대이기때문에 침대깔개를 두텁게 만들어 깔아주어야 합니다. 아직 좀 배기는감이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침대에서 일어서시였다.

《래일중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리종익원장이 그이의 뒤를 따라서며 대답올렸다.

방문턱을 넘으시려던 **김일성**동지께서 《가만.》 하고 문득 멈춰서시였다. 뒤를 따르던 사람들도 멈춰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돌아서시여 방금전에 앉아보셨던 침대에로 다시 다가가시였다. 김책은 그이께서 혹시 무엇을 떨구셨는가 하여 재빨리 침대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우에는 하얀 백포외에 아무것도 눈에 띄우지 않았다.

이번에는 침대주변을 둘러보았다. **김일성**동지께서 침대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으셨던것이다.

《아니?!》

다음순간 모두 놀라와 저도 모르게 비명소리 비슷한것을 내였다.

무릎을 굽히시고 침대밑을 들여다보시던 그이께서 아예 방바닥에 두무릎을 대시고 침대밑으로 허리를 반쯤 들이미시였던것이다.

《장군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김정숙동지께서 서둘러 그이곁으로 다가가시였다. 김책과 리종익도 영문을 알길없어 바투 다가섰다.

잠시후에야 **김일성**동지께서는 침대밑면을 향해 뻗쳤던 한손을 거두시고 그안에서 허리를 뽑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그이를 부축해드리시였다.

《내 혹시나 해서 침대밑을 들여다보았는데 아닌게아니라 침대에 깐 널판자밑으로 더러 못끝이 나와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누구에게라없이 자신의 손가락끝에 또렷이 찍혀진 못자리를 보여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오늘중으로 당장 모든 침대의 널판자들을 확인해보고 못끝을 든든히 구부려놓아야 할것 같습니다. 원장선생, 장난이 심한 아이들이 침대밑으로 기여다니다가 그 못끝에 상하기라도 하면 어쩌겠습니까?》

《아니, 그럼 그것때문에?!…》

김책과 리종익은 그만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저 어쩌면, 어쩌면… 하는 놀라움으로 하여 말문이 꽉 막혀버리고말았던것이다.

《거 왜 쏘련작가 가이다르의 소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츄끄와 게끄〉에서 게끄란 녀석이 몰래 궤짝속에 기여들어가 숨는통에 소동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렇게 장난이 세찹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즐겁게 웃으시며 기숙사를 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만족한 시선으로 다시한번 학원건물들을 둘러보시고나서 원장을 돌아보시였다.

《아무리 보아도 싫지 않습니다. 학원을 정말 번듯하게 잘 지었습니다. 원장선생, 이 좋은 건물에서 앞으로 교육사업을 더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건물이나 번듯하게 지어놓았다고 하여 교육교양사업이 저절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학원일군들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내가 여러번 말하였지만 그들은 지난날 부모없이 헐벗고 굶주리며 살다보니 지금도 부모의 사

랑을 그리워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밖에 믿을데가 없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그의 얼굴을 지켜보시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학생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보아주라는것은 그들을 그저 어루만지라는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장래까지도 책임지는 립장에서 잘 보살펴주어 그들을 다 열렬한 혁명가,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도록 훌륭히 키워주는것입니다.》

《장군님의 그 높으신 뜻을 꼭 명심하고 일하겠습니다.》

리종익원장이 기숙사에서 받아안았던 그 감동이 아직 가셔지지 않은 얼굴빛으로 삼가 대답을 올렸다.

《그럼 우린 가보겠습니다. 학원 새 교사 준공식을 국가적인 행사로 크게 진행하게 되는것만큼 준공식준비를 잘하여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이께서는 원장과 인사를 나누시였다.

이때 기숙사옆 양지바른 언덕의 잔디밭에서 《와— 와—》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특별반의 나어린 꼬마들이 그곳에서 한창 씨름을 하고있었던것이다. 그들의 모습을 보시는 **김일성**동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여났다.

《정숙동무, 우리 장난꾸러기들이 씨름을 하는데 한번 보고 가기요. 김책동무도 어서! 이런 희한한 구경은 어디 가서 돈을 주고도 못하는겁니다.》

그이께서는 앞장서 걸음을 옮기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숙동지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는 두 꼬마가 맞붙어 승패를 다투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있었으며 그 주위에 빙 둘러선 아이들은 벅적 떠들며 저저마다 응원에 열을 올리고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는 **김일성**동지의 얼굴에도, 김정숙동지의 얼굴에도 사랑스런 미소가 한껏 어리였다.

《자, 내가 심판을 서줄테니 어서 씨름을 계속하거라.》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이들의 놀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몸소 웃옷을 벗으시고 씨름판에 들어서시였다. 그리고 꼬마들의 씨름을 다시 붙여주시고 심판원이 되시여 승부까지 가려주시였다.

《자, 이번에는 나하고 겨루어볼가.》

그이께서는 뒤짐을 가볍게 지시고 씨름판에 서시여 아이들을 둘러보시였다. 그러자 아이들이 《야!－》 하고 환성을 올렸다.

그들은 서로 동무들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서로 나가라고 눈짓을 하기도 하고 씨름판안으로 자기 동무의 등을 떠밀기도 하였다.

《허, 자신들 없는 모양이다?! 좋다, 그럼 모두 함께 나를 넘어뜨려보거라. 자, 시작!》

장난꾸러기들이 어려움도 다 잊고 일시에 그이의 량다리에 달라붙어 모지름을 쓰기 시작했다. 그이께서는 안깐힘을 쓰는 꼬마들을 한명씩 높이 들어올리시였다가는 씨름판우에 살며시 내려놓군 하시였다. 그러면 넘어졌던 꼬마들이 또 일어나 매여달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김책과 함께 꼬마씨름군들을 응원해주시였다.

《얘들아! 무슨 일이든 그저 힘 하나만으로는 안된다. 장군님의 말씀대로 힘과 지혜를 짜내고 여럿이 합심하여야 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안타까우신듯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시기까지 하시고 아이들에게 소리치시였다. 꼬마선수들이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하였으나 **김일성**동지께서는 끄떡없이 서계시였다. 그러시다가 그이께서는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시려고 일부러 뒤로 밀리우는척 하시다가 슬쩍 넘어지시였다.

꼬마들은 《야－》 하고 환성을 올리며 더욱 벅적 떠들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겼다. 정말 장하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이들의 옷을 털어주시며 칭찬해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도 환하게 웃으시며 그들의 옷을 털어주시였다.

《우리 꼬마들이 힘이 세! 모두가 장군감들이야! 얘들아, 나도 어릴적에 만경봉에서 동무들과 함께 이런 씨름을 많이 하군 했단다.》

《장군님께서두 말입니까?》

어린 학생들은 장군님께서도 자기들처럼 이런 놀음을 했다는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듯 머루알같이 새까만 눈동자들만 반짝이며 무척 신기해하였다.

《그렇지 않구. 장수힘은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처럼 어릴적부터 키워야 생기는거란다. 그래, 너희들 군사놀이는 많이 하느냐?》

그 물음에는 아이들이 너도나도 목청껏 대답했다.
《예.》
《그래, 누가 대장이냐?》
아이들이 저희들속에서 그중 키가 커보이는 한 학생을 가리켰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키가 작은 애가 볼부은 소리로 《장군님, 나도 대장입니다.》 하고 한걸음 나서며 대답하였다. 그리고나서는 코를 훌쩍거렸다. 그 모양이 너무 사랑스러우시여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와 김책을 바라보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하하… 대장도 코를 흘리느냐?!》
와그르… 씨름판이 웃음판으로 화하였다.
《자, 이리 오너라. 코를 씻자. 코만 흘리지 않으면 넌 틀림없는 대장감이다. 벌써 척 보면 알리는데 뭐…》
그이께서는 손수건을 꺼내여 꼬마의 코를 닦아주시고나서 《자, 또 놀아라. 그저 너희들이 마음껏 뛰노는걸 보는 때가 제일 기쁘구나.》 하시며 아이들의 등을 다정히 떠미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들고계시던 그이의 웃옷을 드리시였다.
《정말 오늘은 나도 만경봉시절로 되돌아온것만 같소. 정말 만시름이 다 풀리누만.》
김일성동지께서는 웃으시였다. 웃으시며 아이들의 모습을 오래도록 정겹게 바라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도 따라 웃으시였다.
그러나 그이의 눈가에서는 맑은것이 어려 반짝이고있었다.
김책과 리종익도 뜨거움을 삼키며 **김일성**동지의 모습을 우러르고 또 우러렀다.

13

또다시 렬차는 혁명가유자녀들을 싣고 조국으로 떠난다.
20여명의 아이들을 학원에 떠나보내는 림춘추의 가슴은 마냥 설레이기만 하였다. 아직 찾지 못하고있던 유자녀들때문에 그토록 마음쓰시는 장군님의 심려를 이제는 드디여 덜어드릴수 있게 되였다는

생각으로 하여 그는 손에 든 수첩을 쓸고 또 쓸어보았다.

김정숙동지의 그 가지색수첩이 아니였더라면 어떻게 그 수많은 유자녀들을 다 찾을수 있었으랴. 희생된 동지들의 이름과 그들의 자식들, 그들이 살던 곳을 세세히 적어놓은 그 가지색수첩이야말로 림춘추로 하여금 중도반단함이 없이 자기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였고 지탱점이였다. 그 길에 불의의 정황과 난관, 막막함과 좌절감도 있었으나 바로 그 수첩에 담겨진 장군님과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동지적의리심으로 자신을 다잡으며 끝끝내 오늘과 같은 열매를 맺을수 있었던것이다.

기관차가 증기를 뿜어올리며 출발을 서두르는데도 아이들은 그저 즐거워 웃고 떠들며 뛰여다닌다. 마치 여기가 역구내가 아니라 학원의 드넓은 운동장인듯싶은 모양이다. 이제 곧 만경대의 새 교사가 준공되여 유자녀들이 훌륭한 교실과 기숙사에서 마음껏 공부하며 행복하게 생활하게 된다는 조국의 소식을 전해들은 아이들의 마음은 벌써 그곳에 가있었던것이다.

그들중에는 연형묵을 비롯한 비교적 나이를 먹은 큰 애들도 있었고 왜놈들의 감옥에서 태여났다는 애어린 소녀도 있었다.

그래도 몸가짐이 준수하고 행동거지가 한결 어른스러운 형묵이 림춘추에게 먼저 다가와 굽석 인사를 했다.

《아저씨! 날 이렇게 조국으로 보내주어 정말 고마워요.》

림춘추가 간난신고끝에 그를 찾아냈을 때 그의 할아버지는 이미 깊디깊은 산속에서 눈을 감은 뒤였다.

두자루의 퉁소를 싸넣은 보짐을 질끈 등에 멘 그의 손목을 잡고 산을 내릴 때만 하여도 도저히 이 세상 사람같지 않더니 이제는 제법 그 누구와도 잘 섭쓸린다.

《형묵아, 이제 학원에 가면 더 멋있는 악기들이 많단다.》

그가 자기의 퉁소들을 얼마나 소중해하는가를 잘 알고있었지만 림춘추는 그의 속마음을 알고싶어 우정 이렇게 말했다.

형묵은 씨무룩이 웃었다.

《이 퉁소는 내가 불던것이구 다른 하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부시던거예요. 할아버지 말이 우리 아버지도 그 퉁소를 자주 불군 했대

요. 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부시던 그 퉁소를 조국땅에다 묻어주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시신대신… 이 퉁소만이라도…》

형묵은 자기를 이겨내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림춘추는 그의 어깨를 꾹 부여안았다.

《네 생각이… 정말 기특하구나. 꼭, 꼭 그렇게 해드려라.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못다 분 그 퉁소를 네가 계속 불어라. 그러면 장군님께서 왕청의 연희상이 살아돌아왔다고 기뻐하실게다. 암, 기뻐하시구 말구.》

그는 퉁소를 형묵의 품에 넣어주며 등을 떠밀었다.

《잘 간수하고 가거라. 자, 어서!…》

《아저씨!》

형묵이도 다른 아이들도 모두 렬차에 올랐다. 그들과 함께 아들이 있는 학원으로 떠나가는 허분옥도 올랐다. 다른 애들의 어머니들도 학원에서 일하며 같이 있는데 자기도 어머니가 보고싶다는 창완이의 편지를 받고 이렇게 조국으로 떠나는것이다.

그가 편지와 함께 온 아들의 사진을 보고 놀라서 자기에게 뛰여왔던 일이 생각나 림춘추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헝겊막대기같던 창완이의 모습이 아니라는것이였다.

《정 믿어지지 않으면 아예 속시원히 창완이에게 가보시우. 그렇지 않아도 장군님께서는 이 좋은 세상에서 무엇때문에 어머니와 자식들이 떨어져 살겠는가고 하시면서 학원에 와서 자식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는 유가족들도 다 조국으로 보내라고 말씀을 보내왔습니다.》

드디여 힘찬 기적소리를 울리며 렬차가 서서히 떠났다.

떠나는 그들을 손저어 바래주는 림춘추의 눈가에 끝내 진한 물기가 가득 고이였다.

레루를 울리는 동음소리만이 들려올뿐 역구내를 벗어나는 렬차의 모습을 그는 볼수 없었다. 그가 물기를 닦으며 눈정기를 모아 바라보았을 때에는 이미 산굽이를 돌아서는 렬차의 마지막기적소리만이 울리고있었을뿐이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보여왔다. 학원에 나오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숙동지께서 그 애들모두를 사랑의 넓은 품에 그러안으시고 《너

희들이 왔구나! 어디 갔다 인제야 왔느냐. 너희들을 보니 네 아버지들을 다시 보는것 같구나!》하시며 뜨겁게 눈물을 지으실 그 모습이 삼삼히 어려왔다.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희생된 동지들의 자식들을 마지막 한사람까지 다 찾아 한품에 안아주시려는 장군님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인간세계의 동정이나 인정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였다.

뜻을 같이하고 생사운명을 같이해오던 혁명동지들의 그 정신과 육체를 영원히 살아있는것으로 만드시려는 위대하고 무한한 동지적사랑과 의리였다.

바로 그래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자식들을 그리도 품들여 찾으신것이고 그들과 꼭같은 혁명투사로 그리도 품들여 키워주고계시는것이다.

그냥 버려두면 바다속에 뿌려진 조약돌같이 그 누구의 자식인지 자신들마저 알수 없게 되였을 아이들, 그들에게 심어주고 가꿔주지 않으면 사막의 모래속으로 잦아드는 비방울처럼 흔적도 남지 않았을 부모들의 그 정신, 그 넋…

부모가 혁명가였다고 하여 자식도 저절로 혁명가가 되는 법은 없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유자녀들을 찾아 만경대혁명학원을 세워주시지 않으셨더라면 과연 그 애들중에 장차 스스로 혁명가가 될 아이들이 몇몇이나 되랴.

장군님께서 그 애들이 자기 부모들의 뒤를 잇도록 보살펴주고 키워주시였기에 그들, 혁명가들의 대는 굳건히 이어지고 그들, 혁명가들은 영원히 대오속에 살아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림춘추는 그 언제인가처럼 무엇인가를 쓰고싶은 강렬한 충동을 또다시 느꼈다. 그것은 혁명적동지애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고매한 의리심으로 하여 이 땅우에 만경대혁명학원과 같이 혁명의 어제와 래일이 다름아닌 오늘속에서 공존하는 영생의 품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감격과 환희였다. 그것은 어제와 오늘의 력사속에서 밝고 미덥고 자랑스러운 미래를 심장으로 확신하게 되는 기쁨과 신심이였다.

그것은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속에 불변의 법칙처럼 관통되여있는, 그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이 개척되고 전진하였으며 승리

하고있는 원동력을 명백히 깨닫게 되는 항일빨찌산의 력사가— 림춘추의 열정과 행복이였다.

그는 저도 모르게 마음의 붓을 들었다.

력사앞에, 시대앞에, 미래앞에 이렇게 새기고싶었다.

《**김일성**동지께서 계시여 조선혁명의 력사는 어제도 억세게 흘러왔고 오늘도 힘차게 흐르고있으며 래일도 줄기차게 흘러갈것이다!》

×

드디여 혁명가유자녀들의 배움의 전당, 생활의 보금자리가 훌륭히 마련되였다는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뜻깊은 날이 왔다.

1948년 10월 24일.

이날 유서깊은 만경대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어리신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만경대혁명학원 새 교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학원의 터전을 잡을 때부터 완공의 그날까지 육친적인 사랑과 로고를 바쳐오신 만경대의 김보현할아버님과 리보익할머님, 김형록삼촌과 현양신삼촌어머니도 함께 준공식에 참가하시였다.

김책, 홍명희, 최용건, 허정숙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 공장과 농촌의 각계층 인민대표들,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가유가족들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전체 준공식참가자들은 1년전의 개원식에 이어 오늘 이렇듯 혁명가유자녀들에게 웅장하고 현대적인 배움의 전당, 행복의 보금자리를 또다시 마련하여주신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한 영광의 교기를 대오앞에 펄펄 휘날리며 아버지장군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면서 주석단앞을 행진해가는 학원학생들의 얼굴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학원 새 교사의 준공을 선포하시였다. 그러신 다음 그이께서는 간부들과 함께 교사와 기숙사를 차례로 돌아보시였다.

바로 그 시각, 학원본관 앞마당에서는 동상제막식이 진행되였다.

내각부수상 김책의 제막사가 있은 다음 학원본관앞에 모셔진 **김일성**장군님의 동상이 정중히 제막되였다.

제막포가 서서히 내려지자 해빛을 받아 찬란히 빛나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동상이 우렷이 솟아올랐다.

순간《**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뒤흔들었다.

한손에 쌍안경을 드시고 백포자락을 날리시며 강도 일제의 100만대군을 쥐락펴락하시던 항일무장투쟁시기의 군복차림그대로 거연히 서계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의 거룩한 영상!

그 영상을 떠받든 동상의 화강석대돌앞면에는 동판에 금문자로 새겨진 이런 글발이 있었다.

조선빨찌산의 영용을 세계에 떨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웅이신 **김일성**장군!
장군님이 탄생하신 유서깊은 만경대에
혁명자의 자제를 위한 만경대학원을 세워
장군님의 혁명정신을 계승하며
빛나는 이름 아로새겨 길이 전하노라

1948년 10월 12일

해방된 조국땅우에 처음으로 **김일성**장군님의 동상을 모시게 된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심장을 끓이였다.

인민대표들은 망국의 비운을 가셔내고 조국을 찾아주신 해방의 은인 **김일성**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를 높이 울리였고 아버지장군님을 언제나 몸가까이 모시고싶던 절절한 소원이 풀린 학원학생들은 꽃다발을 흔들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만경대의 산천도 기쁨의 파도로 설레였다.

아드님의 손목을 잡으시고 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르시는 김정숙동지의 눈가에서도 이름할수 없는 격정의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어머니, 왜 우시나요?》

아드님의 물으심에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이를 꼭 그러안으시였다.

《너무 기뻐서 그런다. 어머니는 정말 기쁘다.》

말씀은 비록 짧았지만 그것은 정녕 천마디, 만마디의 말로도 다할 수 없는 깊은 뜻이 담겨진 말씀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눈굽을 훔치시였다. 이때 사랑하는 아드님께서 장군님의 동상을 그냥 우러르며 어머님께 다시 물으시였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왜 아직도 싸창을 차고계시나요?》

깊은 생각을 불러주는 그 물으심에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뭉클해지시였다. 그이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단다. 저 남조선에는 왜놈들을 대신하여 기여든 미국놈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이 그냥 남아있다. 우리는 놈들을 모조리 때려부시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이 땅에 원쑤가 있는 한 총을 놓아서는 안된다.》

동상제막식이 끝나자 학원학생들이 와 달려와 김정숙동지의 품에 너도나도 안기였다.

《오늘은 너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날이다.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니… 너희들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온 나라 인민의 명절이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이들의 머리를 정겹게 쓰다듬어주시고나서 김책과 함께 서있는 문석오에게로 다가가시였다.

《문선생,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혁명가유자녀들과 우리 인민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선생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 인사는 제가 받을것이 아닙니다. 장군님의 동상이야 녀사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완성된것이 아닙니까. 전 그저 조각가로서 할일을 했을뿐입니다.》

문석오가 김정숙동지의 두손을 황급히 잡으며 진심어린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조각가로서 한생의 소원을 이룩한 크나큰 감격과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김책과 함께 진실하면서도 열정적인 재능있는 미술가 문석오를 거듭 치하하시면서 감회에 젖어 말씀하시였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저 애들은 장군님을 만나뵈올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와 안기군 하였는데 장군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애들이니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애들은 자나깨나 늘 장군님 생각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 나도 문선생처럼 한생의 소원이 다 풀린것 같습니다.》

《녀사님!》

《정숙동무!》

문석오와 김책은 뜨거움에 젖어 그이를 불렀다. …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혁명가유자녀들의 학원에 모신것은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동상을 정중히 모심으로써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학원의 혁명가유자녀들이 언제나 아버지장군님을 뵈올수 있게 되였으며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장군님만 믿고 따르며 충성다해나가려는 마음을 깊이 간직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

력사의 그날 **김일성**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만경봉을 감돌아 흐르는 대동강반으로 나가시였다.

강기슭에서 바라보니 학원의 전경이 더 웅장하게 안겨왔다. 모두들 그 모습을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장군님! 학원의 밝은 모습때문에 만경대가 더 아름다와진것 같습니다. 정숙동무! 안 그렇습니까?》

김책이 기쁨에 들뜬 천진한 소년처럼 탄성을 질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책동무가 시라도 한수 지으려는가고 하시며 큰소리로 웃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도 조용히 웃으시며 그에게로 다가가시였다.

《김책동지! 장군님께서는 희생된 동지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조국이 광복된 다음 만경대에다 학교를 짓고 그들의 유자녀들을 모두 찾아다가 공부를 시키자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꿈이였고 희망이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현실로 되였으니 우리 만경대가 왜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정숙동무의 말이 옳소. 오늘은 정말 내 일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요. 혁명동지들의 유언을 실현하였으니 동무들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사실 지난해 좋은 교사도 지어주지 못하고 개원식을 하고보니 유자녀들의 아버지구실을 다하지 못한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경치도 좋고 전망도 좋은 곳에 학원을 훌륭하게 일떠세워놓았으니 이제는 마음이 놓이오. 우리가 오늘에야 비로소 혁명가유자녀들의 아버지구실을 하게 된것 같소.》

김일성동지의 말씀은 모두의 가슴에 뜨겁게 젖어들었다.

때마침 학원에서 울려나오는 학생들의 씩씩한 노래소리가 만경봉의 푸른 하늘가에 높이 울려퍼졌다.

만경대 송림초목 우리 장군 지니여 푸르고
대동강 쪼각배 력사싣고 감돈다
아 경개절승 장군 나신 터전에
장엄토다 우뚝 솟은 만경대 우리 학원
…

그들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조용히 강기슭을 거니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저으기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경치 좋고 공기 맑은 만경대에 학원을 건설하고 준공식까지 하고나니 산에서 함께 싸우다 희생된 동지들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들이 모두 살아서 자기의 아들딸들이 부르는 저 노래소리, 우리 혁명의 2세들의 노래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혁명의 2세…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말씀의 의미를 새기시며 경건히 우러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추연한 눈길을 들어 푸른 하늘가를 바라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림종을 앞두신 아버님께서 하시던 유언을 되새기고 계시였다.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 그러나 너희들을 믿는다. …》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기어이 빼앗긴 나라를 찾으리라 결심하셨던 아버님의 그 념원은 그때로부터 근 20년만에야 이룩될수 있었다.
민주의 터전이 갓 건설되기 시작한 이 땅우에 부강한 자유독립의 나라, 세상에 부럼없는 인민의 락원이 펼쳐지기까지는 과연 얼마만한 세월이 흐르고 몇차례의 세대가 바뀔것인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무말씀없이 자신의 심중을 싣고 흐르는 강물만을 굽어보시였다. 강물우에 한잎두잎 풀잎을 뜯어 떨구시였다.
그이께서 띄우시는 풀잎들이 대동강기슭의 잔잔한 물결을 타고 춤을 추며 어디론가 흘러갔다. 바다로 갈것이다. 아니, 자신의 마음을 싣고, 저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싣고 전우들의 넋을 찾아 산으로 갈것이다. 그들의 령혼이 살아있는 하늘로 갈것이다.
그이의 귀전에 학원 원아들의 노래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왔다.
《장군님! 그들은 지금 자기의 자식들이 부르는 저 노래소리를 듣고있을겁니다. 자기들의 뒤를 이어 혁명의 피줄기를 꿋꿋이 이어나갈 계승자들의 름름한 모습을 보고있을겁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무쳐오는 격정을 누르시며 그이께 말씀드리였다. 눈가에 어린 맑은 눈물을 애써 감추시며…
김일성동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러시며 나직하나 절절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정숙동무! 우리 저 아이들에게 더 밝고 창창한 미래를 마련해줍시다.
한생 저 아이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여줍시다.》
《장군님!…》
위대한 두 심장의 뜨거운 숨결을 담아싣고 대동강의 물결은 바다를 향해 끝없이, 끝없이 흘러갔다.
그 유정하면서도 줄기찬 흐름을 그대로 비껴안은 만경봉의 하늘은 가없이 푸르렀다.